

국립국어원 2012-01-16

발간 등록 번호

11-1371028-000389-01

2012년도 국외 집단 이주 한민족의 지역어 전사 보고서

▣ 연구 책임자 : 곽충구

▣ 연구 보조원 : 김수현 · 김한별

▣ 전사 지역 : 중앙아시아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

국립국어원

제 출 문

국립국어원장 귀하

2012년도 국외 집단 이주 한민족의 지역어 전사에 관하여 위원과 체결
한 연구 용역 계약에 의하여 최종 전사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12년 10월 2일
연구책임자 : 곽충구

<국문초록>

2012년 국외 집단 이주 한민족의 지역어 전사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

이 보고서는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에 거주하는 한인 교포 3인으로부터 조사한 구술발화(8시간 49분)을 전사한 것이다. 이 전사된 구술발화는 2004년 12월 14일부터 12월 28일 사이에 조사된 것이다. 전사된 자료는 키르기스스탄 한인들이 일상적으로 말하는 한국어(고려말)의 실상을 잘 보여 줄 것이다. 또한 고려말을 체계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될 것이다. 그리고 중앙아시아 한인들이 러시아의 연해주와 중앙아시아의 여러 나라에서 살아온 삶의 자취를 생생하게 보여 줄 것이다. 제보자들이 구사하는 한국어는 대체로 함북의 각 하위 지역어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형성된 고려말의 전형을 보여 준다.

주요어 :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 이주, 고려사람, 고려말, 동북방언

<Abstract>

2012 Transcription Project on Regional Dialect of Overseas

Collective Diaspora Korean

—on Bishkek in Kirgizstan

This report contains narrative discourse which was surveyed from the Korean on Bishkek in Kirgizstan. This survey proceeded from December 14th to December 28th in 2004, for about 9 hours. This materials may show the real state of the Korean language "*Koryeo-mal*" and help to study the "*Koryeo-mal*" and life history in Russian Far east of the Koreans who are residents in Kirgizstan.

Kirgizstan is located in south-western area of Central Asia, with China to the east, Kazakhstan and Uzbekistan to the north. In Kirgizstan, there are 20 thousand Koreans who forced to emigrated from the Russian Far-East by Soviet Russian. They had lived in Uzbekistan or Kazakhstan at the beginning of diaspora.

Key-words; Kirgizstan, Bishkek, diaspora, *Koryeo-mal*(the Korean Language), Narrative, Transcription, North-eastern dialect of Korean

2012년
전남 지역어 조사 보고서

목 차

1. 조사 및 제보자	7
2. 전사 원칙	11
3. 전사 자료 - 구술발화 -	
1. 박블라디미르와 윤베라의 이주와 일상생활	17
2. 윤베라의 농경 생활	50
3. 박블라디미르의 이주와 정착 생활	71
4. 박블라디미르와 안타샤의 농경 생활	140
5. 안타샤의 이주와 정착 생활	181
6. 윤베라의 이주와 정착 생활	232

1. 조사 및 제보자

1.1. 조사 지점

조사 지점은 키르기스스탄(Кыргызстан) 공화국 비슈케크(Бишкек)시이다. 키르기스스탄은 중앙아시아 서남부에 있는 공화국으로 동으로는 중국, 북으로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과 인접하고 있다. 수도는 비슈케크이다. 이 나라는 카자흐스탄이나 우즈베키스탄처럼 다인종국가이다. 이곳에는 약 2만여 명의 한인이 거주하고 있다. 수도인 비슈케크에 약 14,000명이, 까라발따에 약 5,000명이 살고 있고, 나머지는 토고막과 오쉬 지역 등에 살고 있다. 이들 한인은 1937년에 단행된 강제 이주 후 우즈베키스탄이나 카자흐스탄에서 살다가 키르기스스탄으로 다시 이주한 사람들이다. 한인들은 비슈케크의 여러 곳에 흩어져 살고 있으며 그 자손들은 대체로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에 살고 있다. 이주 초기에 한인 집단농장이 만들어진 바 없어 한인들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은 없다 한다. 또한 비슈케크 내에서 한인들이 모여 사는 곳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키르기스스탄에는 7, 8개의 고려노인회가 있었으나 4개(고려노인회, 비슈케크 동백 노인회, 무궁화 노인회, 동정 노인회)의 노인단으로 통합하여 활동하고 있다. 한인들은 주로 이 노인회를 통해서 상호 교류하면서 고국의 소식을 듣고 친목을 다지면서 유대를 강화하고 있다.



키르기스스탄

1.2. 전사 파일과 구술 내용

조사연도	지역	파일	분량(분)	주 제보자	보조 제보자	파일 내용
2004	중앙아시아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	kk_bs_01	2:02:15	윤베라 (여, 82세)	박블라디미르 (남, 77세) 안타샤 (여, 76세), 박스베뜨라나 (여, 50세)	구술 발화 이주사, 일생 의례
		kk_bs_08	2:02:56	박블라디미르 (남, 77세)	안타샤 (여, 76세)	구술 발화 이주사, 일생 의례
		kk_bs_09	2:02:47	박블라디미르 (남, 77세)	안타샤 (여, 76세)	구술 발화 생업 활동, 의생활
		kk_bs_21	1:12:30	윤베라 (여, 82세)		구술 발화 이주사, 일생 의례, 생업 활동
		kk_bs_22	1:28:59	윤베라 (여, 82세)		구술 발화 생업 활동, 일생 의례
합계	1개 지역	5개	8:49:29			

※제보자의 나이는 2004년 조사 당시의 나이.

1.3. 제보자와 제보자의 방언 특징

1.3.1. 박블라디미르(Пак Владимир Васильевич, 남, 1928년생)

제보자의 선대 거주지는 함경북도 북부의 부령군(富寧郡)이다. 1915년 할아버지가 두 살이 된 부친을 데리고 함북 부령에서 연해주로 이주하였다. 연해주 수찬(Сучан, 현 파르티잔스크(Партизанск)) 인근의 남향동에서 살다가 1937년 9월 카자흐스탄으로 이주하였다. 전문학교를 졸업하고 영사기 기사 일을 하면서 농사를 지었다. 원동 시절, 초등학교를 다닐 때에는

오창환 선생의 ‘고려문전’을 가지고 공부하였다 한다. 끈고 바른 품성을 지닌 분으로 구소련 시절 공산당원으로 활동하기도 하였다. 구술 능력이 뛰어나 질문에 대하여 상세하게 답변해 주었다. 그리고 “그 어느 해인가 그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했을 적에 그 선언문을 쓴 것을 읽어 보고서 …중략… 내 한평생 춤을 춘 적이 없는데, 그때 내가 일어나 손을 높여 춤을 춰줍니다. 야아! 이게 오래지 않아 해방이 되겠다고서.”라고 할 정도로 고국에 대한 사랑도 각별하였다.

이 제보자는 비슈케크 한국교육원이 이주사를 주제로 개최한 웅변대회에서 장원을 한 바 있다. 이때 한국어로 쓴 글이 ДОРОГА ЖИЗНИ ЧЕРЕЗ ПОКОЛЕНИЕ(세대를 건너지른 인생의 길), 키르기스 한국교육원 발행, 2008)에 수록되어 있다. 2008년 작고하였다.

제보자의 고려말은 대체로 함북 북부 지역 방언의 특징을 보여 준다. 8모음체계(/i/, /e/, /ɛ/, /i/, /ə/, /a/, /u/, /o/)를 보여 주나 몇몇 단어에서는 ‘니’[ö]가 들리기도 한다. 예: 죄꿈 [čö:k’om], 쇠[牛]. ‘니’는 대체로 ‘게’로 비원순화하였는데, 선행자음이 없는 경우는 ‘게’로 실현되기도 한다. 또, 육진방언의 특징이 몇 예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는 선대 거주지의 방언 특징으로 보인다. 그 예는 아래와 같다.

낙매르 한게 일어 못서구서르 그얀 늙운 테테 잇다 이주르 헛습지.

이룅기 발써 몸 비제이구 그래무 언, 테아기두 하구[아구] 기래게 데무 애기설이 하는 모애~이라구 기래구서느 이 구차해서 그 헝디에다 모시지 못할 그런 분네덜으느 저어쪽에 이 집우 니벨하구 간단 말이오.

위 용례에서 ‘테’(<테르, 처럼), ‘테하다’(<테하다, 체하다), ‘헝디’(<평디, 평지(平地))는 비구개음화형이며, ‘니벨’(<니별, 이별(離別))은 어두 ‘ㅣ’ 앞에서 ‘ㄴ’이 유지되어 있는 예이다. 이 밖에 제보자는 ‘까금(價金), 당금(當今), 의체(義諦)’ 따위와 같이 잘 쓰이지 않는 한자어를 가끔 구사하였다. 한편, 유기음화 환경에서 유기음으로 실현되어야 할 음성이 된소리로 발음되는 경우가 종종 나타나는데, 이런 경우는 농구[노꾸]처럼 표기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고려말에서 흔히 나타난다.

1.3.2. 안타샤(Ан Таша(Татьяна), 여, 1929년생)

러시아 연해주 수이훈주(州)(Суифунский область)의 하마탕수두거라는 곳에서 출생하였다. 선대 거주지는 제보자의 진술에 의하면 ‘함북 내매’라 하였는데, 이는 함북(咸北) 온성군(穩城郡)의 ‘남양(南陽)’을 말한 것이다. 할아버지가 먼저 연해주로 들어오고 그 뒤 가족이 모두 들어와 합류하였다. 처음 ‘하마탕수두거’라는 곳에서 거주하다가 ‘구루물레(농평동)’라 하는 곳으로 이주하였는데, 이곳은 수이훈주(州) 내 러시아와 중국의 접경 지역으로 추측된다. 제보자는 원동에서 초등학교를 다니다가 1937년에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를 당하였다. 카자흐스탄의 크즐오르다(Кызылорда)로 이주하여 잠시 거기서 머물다가 우즈베키스탄의 타슈켄트에

정착하였다. 그리고 1979년 현재의 키르기스스탄의 비슈케크로 다시 이주하였다. 모음체계는 /기 ü/, /나 ö/가 없는 8모음체계(/i/, /e/, /ɛ/, /i/, /ə/, /a/, /u/, /o/)다. 단, [ö]가 몇 예가 나타난다. 예: 죄쁨[čök'om](<조쁨, =조끔), 왕기다[öngida](<웁기다).

1.3.3. 윤베라(Юн Вера Николавна. 초명(初名)은 윤영혜. 여, 1923년생)

제보자의 부계 선대 거주지는 함경북도 부령군이고 모계 선대 거주지는 함경북도 회령이다. 연해주의 평사 우란하라는 곳에서 출생하였다. 그 후 연해주의 여러 곳을 전전하다가 1935년 러시아의 연해주에 위치한 수찬(Сучан, 현 파르티잔스크)의 한인촌 흥남동에 정착하여 7학년을 다니다가 1937년 카자흐스탄으로 이주하였다. 1938년 타슈켄트, 움스크, 카라간다로 옮겨가 살다가 1959년에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로 다시 이주하였다. 고려노인회에서 한국의 전통 음악과 춤 등을 가르쳤다.

제보자는 남북한에서 간행된 출판물을 많이 접한 데다, 기독교 신자로서 성경을 공부하고 한국인과 접촉이 많았던 분이어서 표준어를 많이 구사하였다. 고려말 화자로서 어휘 및 어휘 사용 능력이 좋은 편이기는 하나 발화 실수가 잦고 말끝을 흐리는 경향이 있다. 대체로 8모음 체계를 보여 준다. 박블라디미르 씨처럼 [ö]가 몇 예가 나타난다. 예: 물외, 죄. 그리고 육진방언의 특징이 적게나마 나타나기도 한다. 역시 선대 거주지가 육진방언권과 접한 함북 부령군이므로 보인다.

데디구(던지고)

듣두랭구(듣지도 않고)

녕구(녕고)

그리고 표준어의 영향으로 변이가 많은 편이다. 예: 교회-절당, 사람-사름, 맨들다-만들다, 아이-아, 다르다-따다, 달려-돌라, 하나님-하느님 등. 주격조사 '-가'를 많이 쓰고 고려말의 전통적인 격조사 대신 표준어 조사를 쓰는 경우도 자주 있었다. 예: -으/-르 →-을/-를. 종결어미도 '-습꾸마, -습둥' 따위는 전혀 사용하지 않았으며, 표준어의 '-니다/-습니다'를 썼다. 때문에 다른 고려말 화자에 비해 특징적인 고려말 어휘를 많이 보여 주지는 않는다. 그러나 한국인과 접촉이 많은 고려말 화자의 언어적 특징을 보여 준다는 점에서 이 구술발화 자료는 의의를 가질 수 있다. 이 구술자는 '고려, 고려사람, 고려말' 등을 거의 쓰지 않고 '조선, 조선사람, 조선말'을 썼다. 때문에 '조선'의 지시 의미를 파악하는 데 다소간 어려움이 있었고 대역 작업에서도 어려움이 따랐다. 2004년 이 조사가 이루어질 때는 '고려'라는 말보다 '조선'이라는 말을 많이 썼던 것이 아닌가 한다. 지금은 주로 '고려, 고려사람, 고려말'이라는 말을 쓴다.

2. 전사 원칙

2.1 구술 발화 전사

총 8시간 49분의 구술 발화를 전사하였으며 문장 단위로 분절(segmentation)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그러나 화제의 내용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문장들은 한 단락으로 분절하기도 하였다. 내용이 전환될 경우, 조사자의 말과 제보자의 말을 모두 전사하였다. 의미 내용상 분절이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 분절 내에서 문장이 끝날 때까지 입력하고 문장부호를 넣은 다음 이어서 { } 안에 지역어 문장에 대한 표준어 대역을 넣고 문장 종결 부호를 넣었다.

이 해의 지역어 전사 보고서는, 다른 국내 지역어 전사 보고서와는 달리 형태음소 전사를 기본 원칙으로 삼았다. 이는 국립국어원측의 의견을 따른 것이다.

전사 및 표기는 원칙적으로 한글 자모를 이용하고 그 표기는 형태음소 표기를 하되 필요한 경우 음성적 표기를 가미하였다.

곧[處] : 곧이, 곧을, 곧에, 곧만, 곧부터. cf. 덜[時], 받[賃], 못[釘], 붓[筆] 등

꽃[花] : 꽃이, 꽃으, 꽃에, 꽃만, 꽃부터.

젓[表] : 젓이, 젓으, 젓에, 젓만, 젓부터.

따라서 곡용형, 활용형, 파생어, 합성어 내부의 형태소 경계가 드러나도록 하였다. 단, 형태소 내부는 음소 전사를 하였다. 형태소 경계에서 일어나는 음운 현상으로 인하여 부가적인 발음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 안에 한글 또는 음성 기호로써 발음을 표시하였다.

표준어를 정해 놓은 원칙에 따라 표기하는 정서법과 달리 방언의 형태 음소 표기는 어려운 점이 많다. 방언은 음운, 형태, 어휘 등 모든 영역에서 많은 변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또한 형태 음소 표기를 하려면 체언이나 용언은 그들 교체를 통하여 일일이 기저 어간을 확인하여야 하고 또 그와 통합되는 조사나 어미도 역시 그 이형태를 일일이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한 그 과정에서 수반되는 음성 정보를 확인하고 그것을 적절히 표기에 반영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파생어나 합성어의 표기를 위해서는 그 방언의 조어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요컨대, 조사 대상 방언의 전 체계를 낱낱이 파악하고 분석적으로 이해해야만 형태 음소적 표기가 가능하다. 허나 패러다임 상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이형태 교체와 그와 관련된 다양한 음운 현상을 모두 파악하고 그것을 표기에 반영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여기에 방언에 대한 형태 음소 표기의 어려움이 있다. 그런 이유로 이 보고서의 표기에는 다소 불완전한 면도 발견될 것이다.

한글 자모로 전사가 불가능한 경우는 ‘ㅎ’와 같은 옛글자를 쓰기도 하였다. 예: 싫게[실게],

들구[들꾸]. 또한 한글 자판으로 구현할 수 없는 겹받침 ‘ㄷㅅ’, ‘ㄹㅅ’는 ‘ㄷ’, ‘ㄹ’으로 표기하였다.

표준어에 대응되는 어휘나 표현이 없거나 어감이 달라서 설명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그 내용을 기술하였다. 분절을 하고 전사하는 경우 분절 단위로 전사 번호를 부여하였다. 전사 번호는 분절된 문장의 맨 앞에 입력하고, 발화자 표시는 전사 번호 다음에 한 칸을 띄고 ‘@’(조사자)나 ‘#’(주 제보자), ‘#1’(보조 제보자)와 같은 부호를 입력하였다. 음성 전사의 경우 잘 들리지 않는 부분이 있을 때 추측이 가능한 부분은 [x x]안에 전사하고 음성 청취와 전사가 불가능하면 음절, 혹은 모라(mora) 수만큼 ‘*’로 표시하였다. 표준어 대역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표시하였다.

2.2 표기 방법

- ① ‘위’가 단모음 [ü]로 실현되거나 상향 이중모음 [wi]로 실현되더라도 모두 ‘위’로 전사하되 그 구별이 분명한 경우에는 (+) 안에 그 사실을 밝혀 주었다.
- ② ‘이’와 ‘으’의 중간음은 ‘-’로 전사하였다. 예: 괴래, 괴별.
- ③ 비모음은 해당하는 음절 다음에 ‘~’ 표시를 하였다.
- ④ 상승조, 하강조, 저장조를 동반하는 긴 소리는 동일 모음을 반복 표기하였다. 예: 해앳다(하엿다). 간혹 [:]로 전사된 경우도 있다.
- ⑤ 단, 표현 상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인상적 장음은 [::], [:::] 등으로 표기하였다.
- ⑥ 발화 중에서 발화가 불완전하게 이루어졌거나 또는 그 내용이 불투명한 경우는 다음과 같이 표시하였다.

* 단어의 처음 한 두 음절만을 발음하고 그친 경우

** 발화 실수.

이때 괄호를 두어 올바른 말을 ← 앞에 두기도 하였다. 예: **잔체(←전체).

*** 뜻을 알 수 없는 말

단, 청취가 불가능한 경우는 해당 음절 수 만큼 ‘*’로 표시하였다. 표준어 대역에서도 그와 같이 표시하였다.

2.3 표준어 대역

- ① 표준어 대역은 전사한 원문을 독자적으로 옮기고자 하였다. 단, 비문이 되거나 의미가 불투명해질 우려가 있을 때는 의역을 하거나 ()를 두고 보충 설명을 가하였다.

- ② 발화에서 생략된 말. 대역에서는 의미의 소통을 위해 () 속에 넣어 삽입하였다.
- ③ 발화 실수. 전후 문맥을 고려하여 표준어 대역에서 바르게 고쳤다.
- ④ 구술자들은 ‘조선’(조선, 조선사람, 조선말 등)이라는 말을 자주 썼다. 또 이따금 ‘고려’라는 말을 썼다. ‘조선’(또는 ‘고려’)이 남북한을 아우른 ‘하나의 모국’을 뜻하는 말로 쓰인 경우는 ‘조선’(또는 ‘고려’)으로 옮겼다. 다만, ‘조선’이 ‘남한’ 또는 ‘북한’을 지시하는 말로 쓰였을 때에는 각각 ‘한국’, ‘북한’으로 옮겼다.

2012년 국외 집단 이주 한민족의 지역어 조사 보고서



3. 전사 자료

1. 박블라디미르와 윤베라의 이주와 일상생활

<파일 정보>

kk_bs_01 : 구술 발화01(박블라디미르, 윤베라 이주사, 구술 발화 항목 전반)

조사자 : 소강춘

전사자 : 곽충구

주 제보자 : 윤베라(여, 1923년 2월 19일생)

보조 제보자1 : 박블라디미르(남, 1928년 3월 11일생)

보조 제보자2 : 안타샤(여, 1929년 1월 21일생)

보조 제보자3 : 박스베뜨라냐(여, 1955년 3월 22일생)

주소 : 중앙아시아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

조사장소 : 중앙아시아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

조사일시 : 2004. 12. 14.~12. 28.

10201 @ 그러면 대학은 우즈베크스탄(Узбекистан)에서 나오셨어요?{그러면 대학은 우즈베크스탄에서 나오셨어요?}

10201 #1 예.{예.}

10201 @ 음. 우즈베크스탄(Узбекистан) 어디서 사셨어요?{음. 우즈베크스탄 어디서 사셨어요?}

10201 #1 우즈베크스탄(Узбекистан) 내 아까 말씀했지만 그 가와딘스끼(Гавадинский)란 구역에 그 조 조합에서 내 살았습니다.{우즈베크스탄, 내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가와딘스끼라는 구역에 있는 집단농장, 그 집단농장에서 내 살았습니다.}

10201 @ 그러면은 그 따시켄트(Ташкент)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요?{그러면, 그곳은 타슈켄트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요?}

10201 #1 따시켄트(Ташкент)서 한 육십 킬로메뜨르(километре).{타슈켄트에서 한 60km.}

10201 @ 그럼 가까운 데네요.{그럼 가까운 데이네요.}

10201 #1 예. 악또부스(автобус)두 버스 그냥 쉴새없이 땡기지. 땡길 손은 좋았습니다.{예. 버스도, 버스가 그냥 쉴 사이 없이 다니지. 다닐 형편은 좋았습니다.}

10201 @ 그러면 거기는 그 우리 우리 동포들이 몇 명이나 있었어요?{그러면 거기는 그 우리 우리 동포들이 몇 명이나 있었어요?}

10201 #1 많았습니다. 많았습니다. 거기 큰 조합으는 썩 고렷사람덜이 헤장질하구 위원장질하구 썩 기렷습니다. 개 내 아까 세자했던 그 앵겔스(Энгельс) 조합, 사라꼬무니즘(Заря коммунизма), 레닌(Ленинский путь), 레닌그라드(Ленинград), 지미뜨로(Дмитро), 빨라르나 스웨따(Полярная звезда), 세베르나야(Северная), 우즈베크스탄(Узбекистан), 빨리또젤(Политотдел), 스베뜨로(Светло) 이게 썩 큰 고렷사람덜 조합인데 에 저기

위원장질을 싹 고렷사람덜이 했습니다.{많았습니다. 많았습니다. 거기 큰 조합(=집단농장)은 싹 고려사람들이 회장을 하고 위원장을 하고 싹 그랬습니다. 그래 내가 아까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고려인 조합(=집단농장)을) 세려고 했던 그 엔겔스 집단농장, 사라콤뮤니즘, 레닌의 길, 레닌그라드, 지미트로, 빨리야르스웨따, 세베르나야, 우즈베키스탄, 폴리타켈, 스페틀로 이게 싹 큰, 고려사람들의 집단농장인데 예 저 위원장질을 싹 고려사람들이 했습니다.}

10201 @ 어어 따시켄뜨(Ташкент) 그 근방에 있는 거예요?{어 타슈켄트 그 근방에 있는 거예요?}

10201 #1 따시켄뜨(Ташкент) 근방입니다.{타슈켄트 근방입니다.}

10201 @ 그러면은 그 그분들은 주로: 주로 그 조합에서는 주로 무슨 일을 했어요?{그러면 그 분들은 주로, 그 집단농장에서 주로 무슨 일을 했어요?}

10201 #1 그 목하두 수무구 옥수수두 수무구. 옥수수 저 북조선서 개명이라구서는 예 그 옥수수 ***모짜이 심었는가이 그 흐루시초쁘(Хрущёв) 주간할 적에 그분네 아메리카(Америка)가 루미니아(Румыния) 가보구서르 그 갱냉이르 숨은 게 그렇기 마음에 들구 기래서 와서 논의했습지. 어떤 조합이던지 다 수무라구. 그 옥수수 숨어 가서 이 노력영웅이 된 사람덜두[뚜] 많았습니다.{그 목화도 심고 옥수수도 심고. 옥수수는 저 북한에서 ‘개명’이라고 하는 옥수수를 어째 심었는가 하면 그 흐루시초프가 주관(主管)할 적에 그 분이 미국과 루마니아를 가 보고서 그 옥수수를 심은 것이 그렇게 마음에 들고 그래서 와서 논의했지요. 어떤 집단농장이든지 다 심으라고. 그 옥수수를 심어서 이 노력영웅이 된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10201 @ 벼농사는 안 하, 안 하셨어요? 벼는? 벼농사는 안 하셨냐구.{벼농사는 안 하, 안 하셨어요? 벼는? 벼농사는 안 하셨냐고.}

10201 #1 내? 벼농사는 아이 했습니다.{나? 벼농사는 안 했습니다.}

10201 @ 거기서 그 조합에서.{거기서 그 집단농장에서.}

10201 #1 나는 그 조합이서 영화기술루 구락부에서 일하다나이 벳밭으 일으 벨루 아이 했습니다.{나는 그 집단농장에서 영화를 상영하는 기술로 클럽에서 일하다 보니 논의 일을 별로 안 했습니다.}

10201 #1 베질의 베르 수무는. 그게 그게 그전에는 이 삼십칠년도 이줄해 들어와실 적에는 삼십팔년도부터 다만 벼밖에 갈밭으 이르구서 다만 벼밖에 아이 수멋댓습니다. 기랜게 차차 그 따이 좋개테니까 거기다 목하두 수무구 그담번에 께납(конопля)우, 삼이 그런게 께납(конопля) 께납(конопля)우두 시무구.{벼를 심는. 그게 그게 그전에는 이 1937년도에 이주해 들어왔을 때에는 1938년도부터 다만 벼밖에는, 갈대밭을 일구고서 다만 벼밖에는 안 심었습니다. 그랬는데 차차 그 땅이 좋아지니까 거기다 목화도 심고 그다음번에는 삼[麻]을, 삼, 그런 삼, 삼을 심고.}

10103 @ 그러면 거이 어디 안 나가시구 계속 집이 계시는거예요?{그러면 거의 어디 안 나가시고 계속 집에 계시는 거예요?}

10103 #1 벨르 나댕기지 못하구 그저. 그저 땡긴다는 게 그 시방 노인단 무궁화르 흑:시 땡

김집.{특별히 나다니지 못하고 그저. 그저 다닌다는 것이 그 시방 무궁화노인단을 혹시 다니지요 뭐.}

10103 @ 그럼 가서 주로 뭐 하세요?{그럼 그 노인회에 가서 주로 무엇을 하세요?}

10103 #1 이잉?{응?}

10103 @ 가서 주로 뭐하시냐구요. 무얼 제일 잘하세요? 노래 잘하세요?{가서 주로 무엇을 하시느냐고요. 무엇을 제일 잘 하세요? 노래를 잘 하세요?}

10103 #1 노래에 무스 잘하겠소. (웃음) 한 여섯달 전에 그런 끼므(гумн)르 김(гумн), 그 조선말르 무시기라 하는지. 나라의 노래인데.{노래를 뭐 잘하겠소. (웃음) 한 여섯 달 전에 그런 국가(國歌)를 국가, гумн(=국가)를 한국어로 무엇이라 하는지. 나라의 노래인데.}

10103 #3 그런데 애국가 있지? 애국가. 그거는 그 애국가 맨들었던 말이오.{그런데 애국가 있지? 애국가. 그거 그 애국가를 만들었던 말이오.}

10103 #1 그 끼무(гумн)르 그거 쓰라구서르 내 그런 사단이(задание) 받았습지. 기랜게 내 만 받은 게 애이라 여자분네 두울이 받았습지. 기래 그 위원자~이 사단이(задание) 주는 가하이 델 수 잇는대르 무궁화에 대해서 말마디 많게서리 그렇기 그 애국가르 꾸미라구서르 기랩지. 켜데 저쪽 여자들으는 기래 시가이 돌아오이까데 우리게서 정말 그 그 저기 노래르 꾸민 거 들겠는데[들켄는데]. 날 웬 첫감 부릅지. 난 웬: 마감에 나가갠다구 했소. (웃음) 기래 이쪽 여자 두울이 노시아말르 그 말다디르 쥘인 게 게 그렇기 아주 유식하게 쥘었어. 기란데 내 앉아서 궁니르 한 바에 무궁화에 대해서는 적당하지 못한 그런 게지. 기래 사람덜 모도 거절합데. 요구 아이 텐다구. 저 사, 저 사람덜 노래는 잘 꾸미는데 적당하지 못하다구서. 기래 내 마감을르 내 나가서 고레말르 그 노래르 쥘인 거 에왔습지. 기래이까데 모도 거기 앉은 분네덜이 일절 손으 드읍지. (웃음) 적당하다구서. 기랫는데 그 그 뗏 달 뗏 달이 지나서 서울에서 동포덜 오읍셋는데 그 이 노래르 꾸민 그 분네르 좀 밧으문 좋갠다구서. 기래 내 앉는데 그렇기 전화 오더라이까데 갓습지. 기래 가이까데 세 분이 와서 그 썩 사람덜 일어서서 그 노래르 무궁화 그 혜원덜 그 노래르 불렀습지. 기래 부르이까드 그 후렴이 어떤 말마디 잇는가이 아름답은 무궁화 피구 피어라. 기래 그날에 우리 위원장가 그랫습지. 나는 그 조선글으 육학년 필했는데. 그 오창화이 문전 가지구서르 배우다나이가 말마디 그렇기 유식하게 못 텐다. 기래구두 우리 평양 말쎄다. 그러니까데 서울 말쎄르 기래문 그분네덜 와서 웃을 수 잇다구서. 기랫는데 한 분 일어나 마감에 노래 부르는 거 들구서[들꾸서] 야 이게 아름다운 무궁화 피고 피어라. 어찌 이 말마디 곱게 뗏는가. (웃음) 기래 시방두 일주일에 한 번씩 모두는데 꼭 일어나서 이 노래르 꼭 부르재임둥 거기서.{그 국가를 작사(作詞)하라는 그 과제를 내가 받았지요. 그런데 나만 받은 것이 아니라 여자분네 둘이 그 과제를 받았지요. 그래 그 위원장이 과제를 어떻게 주는가 하면 될 수 있는 대로 ‘무궁화’에 대해서 말마디가 많이 들어가게끔 그렇게 애국가를 꾸미라고 그러지요. 그런데 저쪽 여자들은 그래 시간이 돌아오니까, 우리가 정말 그 (여자들이) 노래를 꾸민 것을 들겠는데, 날 맨 처음으로 부르지요. 그래 나는 맨 마지막에 나가갠다고(나가서 발표하갠다고) 했소. 그래 이쪽 여자 둘이 러시아 어로 그 말마디를 지은 것이 그게 그렇게 유식하게 지었어. 그런데 내가 앉아서 생각을 한 바에 의하면 무궁화에 대해서는 적당하지 못한 그런 것이지. 그래 사람들이 모두 거절합디다. 과제가 요구하는 바에 부응이 안 된다고. 저 사람들이 지은 노래는

잘 꾸며지기는 했지만 적당하지 못하다고. 그래 내가 마지막으로 내가 나가서 고려말로 그 노래를 지은 것을 읊었지. 그러니까 모두 거기 앉은 분들이 일체 손을 들지. 적당하다고서. 그랬는데 그 그 몇 달 몇 달이 지나서 서울에서 동포들이 오셨는데 그 이 노래를 꾸민 그 분네를 좀 봤으면 좋겠다고서. 그래 내가 앓는데 그렇게 전화가 오더라고 하니까 내가 갔지요. 그래 가니까 세 분이 와서 그 짝 사람들이 일어서서 그 노래를 무궁화 노인회 그 회원들이 그 노래를 불렀지요. 부르니까 그 후렴에 어떤 말마디가 있는가 하면 ‘아름다운 무궁화 피고 피어라’. 그래 그 날에 우리 위원장에게 그랬지요. 나는 그 조선 글을 육학년을 마쳤는데. 그 오창환 선생의 문전(文典)을 가지고 배우다 보니 말마디(가사)가 그렇게 유식하게 못 된다. 그리고 또 우리는 평양 말씨다. 그러니 서울 말씨를 (써야지), 그러면(평양 말씨를 쓰면), 그 분네들이 와서 웃을 수 있다고서. 그랬는데 한 분이 일어나 마지막 부분의 노래를 부르는 것을 듣고서 야 이게 ‘아름다운 무궁화 피고 피어라’. 어찌면 이렇게 가사가 곱게 됐는가. (웃음) 그래 시방도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는데 꼭 일어나서 이 노래를 꼭 부르잖습니까? 거기 노인회서.}

10103 @ 어어.{어어.}

10103 #3 보통 화요일 날에 모두는 거 같습니다.{보통 화요일 날에 모이는 것 같습니다.}

10103 @ 한번 놀러 한번 가야 되겠어요.{한번 놀러 한번 가야 되겠어요.}

10103 #1 시간이 있으면 오십십소. 아주 유쾌하게 잘 놀니다.{시간이 있으면 오십시오. 아주 유쾌하게 잘 놀니다.}

10103 @ 몇 시간 놀아요? 가면?{몇 시간을 놀아요? 노인회에 가시면?}

10103 #1 열한 시부터 시작하무 거저 한 시나 한 시 반까지. 사람덜 모두긴 발써 열시 전에 모다서 발써 음악 놀게다무 춤우 추옵구마. 거저 설새없이. 야야! 노인덜이 오금씩 쓰지 못해 이래 뒤주자하메 쨌:쨌 왓다가두 그 음악만 들게다무 그 오금 아픈 게 다 어디 갖는지! (웃음) {열한 시부터 시작하면 그저 한 시나 한 시 반까지. 사람들이 모이기는 발써 열 시 전에 모여서 발써 음악을 틀고 놀게 되면 춤을 춥니다. 그저 설 새 없이. 야! 노인들이 다리를 잘 쓰지 못해 이렇게 잦바듬하고 겨우겨우 왔다가도 음악만 듣게 되면 다리 아픈 것이 다 어디 갖는지! (웃음).}

10103 @ 다들 그 옛날 러시아 때 배웠던 춤 추세요?{다 그 옛날 소련 시절에 배웠던 춤을 추세요?}

10103 #1 예. 거저 여러 가지 춤 추지.{예. 그저 여러 가지 춤을 추지.}

10103 #3 여러 가지 춤 추…….{여러 가지 춤 추…….}

10103 #1 기래 우리네 웃습꾸마. 노인덜 재빌르 기랩꾸마. 여기만 오게다무 앓던 게 어디 달아났는지. (웃음).{그래 우리네 웃습니다. 노인들이 자기들 스스로 그렇습니다. 여기만 오게 되면 앓던 병이 어디로 달아났는지.}

10104 #1 기래 이 저기 새해르 쉼 켜이무 우리 그 그 그 무궁화 그 저기 헤원덜이 장책에 적은 게 일백 오십여명이 냉게 텡니다. 그러나 이 새해르 쉼 켜에무 자리 장소 좀 배잡다구 사람 모두무 배잡다구 기렌테두 기고 오느라구 기래 양백여명씨 모둔 때 있습꾸마 예. 기래구 조선 설날에두 많이 모뉘니다, 사람덜이.{그래 이 저기 새해를 쉼 적이면 우리 그 그 무궁화 그 저기 노인회 회원들이 장책(帳冊, =회원 명부)에 적은 것이 150여명이 넘습니다. 그러나 이 새해를 쉼 적이면 자리가, 장소가 좀 비좁다고, 사람 모이면 비좁다고 하지만 그런데도 기어코 오느라구 그래 200여명씩 모인 때가 있습니다 예. 그

리고 조선 설날에도 많이 모입니다, 사람들이.}

10104 @ 새해는 여기서 새해는 머라구 하구 조선 설날은 머라구 해요?{새해는, 여기서 새해는 무엇이라고 하고 조선 설날은 무엇이라고 해요?}

10104 #3 설날은 설날이라구 하구 새해는 노보이고드(НОВЫЙ ГОД)라구 하지.{설날은 '설날'이라고 하고 새해는 러시아어로 'НОВЫЙ ГОД'라고 하지.}

10104 #1 노보이고드(НОВЫЙ ГОД)라 하지.{러시아어로 'НОВЫЙ ГОД'라 하지.}

10104 #3 노시얏말르 노보이고드(НОВЫЙ ГОД) 새해라구.{러시아말로 'НОВЫЙ ГОД' 새해라고.}

10104 #3 그저 그저 새해.{그저 그저 새해.}

10104 @ 그때는 며칠간 놀아요?{그 때는 며칠 간 놀아요?}

10104 #1 그저 할렐으 쉬입지.{그저 하루를 쉬지요.}

10104 @ 할랄 쉬구.{하루를 쉬고.}

10104 #1 여기 지방 어 이 노력하는 분네덜으느 초하룻날가 초이틀날 이들은 아무래 휴식할 겁니다.{여기서 지방 이 노력하는 분네들은 초하룻날과 초이틀날 이들은 아마도 휴식할 겁니다.}

10104 @ 설날에는요?{설날에는요?}

10104 #1 설날에는 이 다른 민족덜은 아이 세구 우리 조선사람만 세입지 무슨. 기래 설날에 두 아주 쟁자~이 쟁장하게 지나갑니다. 싹 저 여자 분네덜은 싹 한복하구. 개 남자덜두 뚝에 한복 우티르 입구 오는 분네덜두 잇습니다. 흑시.{설날에는 이 다른 민족들은 설을 안 쇠고 우리 조선 사람만 쇠지요 뭐. 설날에도 아주 굉장히 굉장하게 지냅니다. 싹 저 여자 분들은 싹 한복을 입고. 그래 남자들도 돌(=周年)에 한복 옷을 입고 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흑시.}

10104 @ 한복 우티 갖구 계신 분들 있어요?{한복 옷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10104 #1 예에~? 여기서 저기 그 서울에서 옷으 많이[마이] 가져다 농가줬다. 옷감두 개애다 농가주구.{응? 여기서 저기 그 서울에서 옷을 많이 가져다 나누어 주었다. 옷감도 가져다 나누어 주고.}

10104 #3 윤덕화 윤덕화 선생님 그 사년 오년 발써 이렇기 도와주구 해마다 가져오구. 그담에 한복 천들으 거이 이백 명 삼백 명 그렇기 처음 보내 줘어. 그래서 우리 사람덜 다어 그거 천으 가지구 해엿지.{윤덕화 윤덕화 선생님 그 사년 오년 벌써 이렇게 도와주고 해마다 옷을 가져오고. 그다음에 한복 천들을 거의 200명 300명 그렇게 처음 보내줬어. 그래서 우리 사람들 다 그 천을 가지고 옷을 했지(=지었지).}

10104 @ 그모, 그면은 그 한복 우티는 누구 재빌르 만들어요?{그러면, 그러면 그 한복 옷은 누구나 자기 스스로 만들어요?}

10104 #3 재빌르 다아 했지.{자기 스스로 다 했지.}

10104 #1 예. 저기 재빌르 그거 옷으 짙어 입는 사람덜이 많습니다. 켜네 내 앓아서 가지 못한 때 한 번 또 서울에서 여러분네 와서 술한 선물으 두구 가구 가멘서리 한복우티르 보내주겠다구서. 저 여 노인덜 입게서 보내주겠다구 기래구 갓답니다.{예. 저기 자기 스스로 옷을 지어 입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내 앓아서 가지 못한 때가 있는데 그 때 한 번은 또 서울에서 여러분네가 와서 술한 선물을 두고 가고, 가면서 한복 옷을 보내주겠다고 하고. 저 여자 노인들이 입을 수 있게 보내주겠다고 그러고 갓답니다.}

10104 #3 그런데 남재 **한복은덜은 없어요.{그런데 남자 한복 옷은 없어요.}

10104 @ 남자 것은.{남자 것은.}

10104 #3 여자덜 거반 다 있는데 남자덜이 없어요, 한복이. 할 사람두 없구. 어티기 해애 데
는지 감두 안 보내구.{여자들은 거의 다 있는데 남자들이 없어요, 한복이. 할 사람도 없
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 수 없고. 옷감도 안 보내고.}

10104 @ 지금 지금 그 아매는 한복우티 못 만들어요?{지금 지금 그 할머니는 한복 옷을 못
만들어요?}

10104 #1 재빌르 입는 건 아무래 재빌르 만든 같습니다.{자기가 입는 것은 아마도 자기 스스
로 만드는 것 같습니다.}

10104 @ 당자꺼는 못 만들구?{당자(當者)의 것은 못 만들고?}

10104 #1 아매! 아매! 오오!, 여기르.{할머니! 할머니! 오오, 여기로.}

10104 #1 아매! 저 한복이 어디메 잇소? 한복 보자.{할머니! 저 한복이 어디에 잇소? 당신 한
복을 한 번 보자.}

10104 #2 아하!{아하!}

10104 @ 아니.{아니.}

10104 #2 기게. 야?{그게. 응?}

10104 #3 누그 했소?{누가 했소?}

10104 @ 누가 했어?{누가 했어(=누가 지었어)?}

10104 #2 아이! 세베르느꺼레이(Северная Корея)서 한 게지. 재빌르 한 게사 없지. 거기서
해서 보내서. 게 초매는 짤가서 초매는 다른 거 했댜어.{아니! 북한에서 한 것이지. 자기
가 직접 지은 것이야 없지. 거기서 해서 보내서. 그게 치마는 짧아서 치마는 다른 것으
로 했었어.}

10104 #3 아.{아.}

10104 @ 아니, 재빌르 지금 못 만들 못 맨들어요?{아니, 스스로 지금 못 만들어요?}

10104 #2 재빌르 반질으 재 재비 옷으 할 줄 모르는 게 무스거 그렇기 하겠소. 초매르 기래
이리 했지. 기래 그야 이게. 이런 게.{자기 스스로 바느질을 해서 자기 옷을 지을 줄 모
르는 사람이 무엇을(=무슨 옷을) 그렇게 짓겠소. 치마를 그래 이렇게 했지. 그래 그냥 이
게 (이렇지). 이런 게.}

10104 #3 이건 조선에서, 다(да)?{이건 북한에서 한 것이지? 그렇지?}

10104 #2 이거는 조선게오. 이게.{이것은 북한 것이오. 이게.}

10104 @ 북조선거여?{북조선 것이야?}

10104 #2 야~. 북조선에서. 그전에:: 그전에 올라우. 그전 그때계구. 북조선엿 계구. 이래 이
래 왔댜어. 거기서 나~.{응. 북한에서. 그전에 그전에 오래 되었소. 그전 그 때의 것이고.
북한의 것이고. 이렇게 이렇게 (북한에서) 왔었어. 거기서 (준 것이지) 응.}

10104 #3 아, 윤택화 보내 준 감이 없소? **어짱?{아, 윤택화가 보내 준 옷감이 없소?
어째?}

10104 #2 야~. 여기서 보낸 거? 넷(нет), 넷(нет), 넷(нет) 없어.{응. 여기서 보낸 거? 아니!,
아니!, 아니! 없어.}

10104 #3 없어.{없어.}

10104 #2 야~ 없어.{응 없어.}

10104 #3 아아.{아아.}

10104 @ 조선엿 꺼하구 저 남조선 꺼하구 같아요? 달라요? 옷이. 북조선 꺼하구 남조선 꺼 하구.{북한의 한복과 저 남한의 것하고 같아요? 달라요? 옷이. 북한 것하고 남한 것하고.}

10104 #2 넷(нет), 넷(нет), 넷(нет). 거기 꺼 거기 꺼 못 가졌어. 거기서 형겅으 가져왔지냐. 윤덕호 님이 형겅으 췌냈어. 개 형겅으 쥐 그거 할 줄 아오? 그래 값으 누구 시기자 무 값으 마이 맥에야지.{아니!, 아니!, 아니! 거기 것 거기 것을 못 가졌어. 거기서 천을 가져왔지 응. 윤덕호 님이 천을 주었었어. 그래 천을 췌지만 한복을 지을 줄 아오? 그래 수공 값을 주고, 누구를 시키자면 수공 값을 많이 주어야지.}

10104 #3 삼백 솜 합데. 그뻐.{그 때는 (한복을 짓는데) 300솜 합디다.}

10104 #2 누(ну). 그뻐 그렇기 한 거, 아! 우리네 뻐시(пенсия)르 아, 양백 솜(сом)씨 타 두 천으 타서 우리 먹구 살구 하무 그 누길 우티르 해 입겅소.{그뻐 그렇게 한 거(그렇게 했는데), 아! 우리네는 퇴직 연금을 200솜씩 타, 2,000솜을 타서 우리 먹고 살고 하면 그 누가 옷을 해 입겅소.}

10104 #2 개다나йка데.{그러다 보니까.}

10104 #3 그래 없지. 야.{그래 없지. 응.}

10104 #2 그래 어없지.{그래 없지.}

10104 #3 다른 사람덜은 다아 해 입엇습데.{다른 사람들은 다 해 입엇습디다.}

10104 #2 냐. 해에입잠구.{응. 해 입잠고.}

10104 #3 없는 사, 한복이 없는 사람덜이야 어떻게 하겅소. 그렇기라두 해야지.{없는 사, 한복이 없는 사람들이야 어떻게 하겅소. 그렇게라도 해야지.}

10104 #2 아! 그 사람덜사 자석덜이 다아 여기 잇지. 무스 근심이 없지 무슨. 아, 우리 같은 건 자석이 없다나이 고까짓 돈으 췌폼씨 보내무 우리 그저 쓴단 말이오. 그래 없지 무. {아! 그 사람들이야 자식들이 다 여기 잇지. 무슨 근심이 없지, 뭐. 그렇지만 우리 같은 사람은 (여기에) 자식이 없다 보니 (멀리 있는 자식들이) 고까짓 돈을 췌폼씩 돈을 보내면 우리 근근이 쓴단 말이오. 그래 없지 뭐.}

10104 #2 그래 없짐.{그래 없지 뭐.}

10104 @ 아니! 어털 때 이런 거 이런 거 안 만드셨어요? 재빌르?{아니! 어털 때 이런 거 안 만드셨어요? 스스로?}

10104 #2 우리 아 아매 해엇지. 바느질으. 내 빠빠(папа) 마마(мама) 바느질으 해엇지. 나느 오부세(вообще) 바느질으 모르우.{우리 할머니가 했지. 바느질을. 내 아버지 엄마가 바느질을 했지. 나는 전혀 바느질을 모르오.}

10104 @ 으음.{음.}

10104 #2 (웃음) 모르우. 아 정심으 여기다가서르 야.{(웃음) 모르오. 아 점심을 여기다가서 (차리겅소), 응.}

10103 # 아이 글썸 이런 벌어 그래 집 싸다나이 그래서 어전 일해야 데지. 떡 먹구 살길래서 지금 우리 손네가 손지 손비두 집우 손질하러 어전 일하구 예 아 우리 아들두 지금 일하자: 궁니르 합니다 지금. 동삼에. 그담에 또 봄에느 또 농사질 가지. 야들은.{아이 글썸 돈을 벌어 이런 집을 사다 보니 그래서 이젠 일해야 되지. 먹고 살기 위해서 지금 우리 손녀와 손자, 손부(孫婦)도 집을 손질하러 가 이젠 일하고 예 아 우리 아들도 지금 일하

자 공리를 합니다 지금. 겨울에. 그다음에 또 봄에는 농사질 가지. 이 아이들은.}

10103 @ 농사는 어디가서 저요?{농사는 어디 가서 지어요?}

10103 # 오렌부르크스끼이 오블라스찌(Оренбургская область), 로씨야(Россия) 가서.{오렌부르크 관구(管區), 러시아에 가서.}

10103 @ 로시아 가서?{러시아 가서?}

10103 # 로씨야(Россия) 가서. 어찌니까 예 우리 아들이 예 대학으 싹 필했습니다. 아들두 필하구 메느리두 필하구. 싹 대. 내게 붙은 게 딸 둘에, 아 딸 하나에 아들 형제 있습니다. 세 오느비 그제 싹 대학으 필했어. 그제 필한게 제일으 지금 하는 게 없습니다. 싹 그제 지금.{러시아 가서. 어찌하니까 예 우리 아이들이 예 대학을 모두 졸업했습니다. 아들도 졸업하고 며느리도 졸업하고. 모두 대학을. 내게 붙은 것이 딸 둘에, 아 딸 하나에 아들 형제가 있습니다. 세 오누이 그놈들이 모두 대학을 졸업했어. 그제 졸업한 것이 제 일을 하는 놈이 없습니다. 싹 그제 지금.}

10103 @ 대학으 필했는데 왜? 왜?{대학을 졸업했는데 왜? 왜?}

10103 # 지금 제 일, 여기서 지금 대학으 필하구 제 일하는 게 없습니다. 싹 저 아 바삭(босаяк) 장시르 하구 농사질하구. 개 우리 아들두 메느리두 대학으 필해두 어 대학 필해 그 월급으 가지구 조금씩 가지구 어터기 삽니까. 기래 농사질합니다. 기래 농사질하는데 저기 가서 아:: 지금 오렌부르크스끼이 오블라스찌(Оренбургская область) 해마다 가 수박으 싱귀서 예 그제 바치구. 벌써 구월 말에 벌써 옵니다. 다아 필하구 예. 기라 올적에 느 아: 그제 그자 *하 일급 천이나 야둡 천 이릉:기 법니다, 달러(доллар)르 예. 기래 벌어 올헨 두 **줍이서 벌어 열다섯천 주구 집우 다 샅습니다. 그랬습니다. 올헨 예. 그제 두 이거 **안주~에르 바삭(босаяк) 장시느 아이 합니다. 기래 농사질합니다. 예.{지금 제 일을, 여기서 대학을 졸업하고 제 일을 하는 것이 없습니다. 모두 저 떠돌이 장사를 하고 농사를 짓고. 그제 우리 아들도 며느리도 대학을 졸업해도 어 대학을 졸업해 월급을 받아 조금씩 가지고 어떻게 삽니까? 그제 농사를 짓는데, 저기 가서, 어 지금 오렌부르크 관구를 해마다 가 수박을 심어서 예 그제 국가에 바치고. 벌써 9월 말에 벌써 옵니다. 다 마치고 예. 그제 올 적에는 아 그제 저 7,000이나 8,000달러를 이렇게 법니다. 달러로 예. 그렇게 벌어 올해는 두 집에서 벌어 15,000달러를 주고 집을 다 샅습니다. 그랬습니다. 올해는 예. 그제 이거 아직은 보따리 장사는 안 합니다. 그렇게 농사를 짓습니다. 예.}

10103 @ 한번 나가무 땃 달라 정도 벌어, 번다구요?{한 번 나가면 몇 달러 정도 벌어, 번다구요?}

10103 # 한번으, 한번으.{한 번을, 한 번을 나가.}

10103 @ 일년에 잘 벌면.{일 년에 잘 벌면.}

10103 # 예:, 일년에 가서. 많이[마이] 못 버지 무슨. 아:, 일급 천이나 야둡 천 이릉기 법니다.{예:, 일 년에 가서. 많이 못 벌지 뭐. 아 7,000이나 8,000 이렇게 법니다.}

10103 @ 딸라르.{달러를.}

10103 # 딸라르. 그제 버는데 여기서 일하무 그만한 것두 못 법니다. 여기서는 아 수박이라 값이 없지. 바치지 못하지. 마약에 파이크 루꾸(лук)르 시문다문:. 루꾸(лук)두 바르 바치지 못하지. 이게 바쁘지. 거기 가서 일이 험습니다. 우리 메느리 오래비 브리가질(бригадир)하는 게 예 그제 어찌 일이 험한가이, 전체 싹꾼들 데리구 (조사자가 녹음

기를 다시 조작함) 아이구! 말이 **그러 잇습?{달러를. 그렇게 버는데 여기서 일하면 그만한 것도 못 법니다. 여기서는 수박이 값이 없지. 국가에 바치지 못하지. 만약에 파를, 루꾸(=파)를 심는다면, 파도 바로 바치지 못하지. 이게 힘들지. 거기 가서 일하는 것이 쉽습니다. 우리 며느리 오라비가 작업반장을 하는데 예 그게 어찌 일이 쉬운가 하면, 전체 품꾼들을 데리고 …… 아이고! (내가 하는) 말이 (그런데) 그럴(=녹음할 필요가) 있습니까?}

10103 @ 녹음해 불러구.{녹음해 보려고.}

10103 # 그럼, 이런 야아 이런 머저리 말으!{그럼, 이런 야아 이런 머저리 같은 말을!}

10103 @ 머저리 말 아니! 야냐!{머저리 말이라니! 아니야!}

10103 # 야아! 그래 가서 해마다 일곱 처이나 야늬[야둬]천으 버무 그 돈이무 동삼 먹구 살지. 동삼 먹구 살겠는 거. 으음 금년에는 우리 손녀 어티기 한 집에 잇겠습니까? 복잡해. 기래 집우 싸다나이 두 집이서 버언 게 십오천 주구 예 십오천 주구 절에 집우 바루 절에다 집우 샀습니다. 기래, 다 사,{야! 그래 가서 해마다 7,000이나 8,000을 벌면 그 돈이면 겨울 동안 먹고 살지. 겨울 동안 먹고 살 수 있는 것. 음 금년에는 우리 손녀가 어떻게 한 집에 잇겠습니까? 복잡해서. 그래 집을 사다 보니 두 집이서 번 것이 15,000을 주고 예 15,000을 주고 곁에 집을 바로 곁에다 집을 샀습니다. 그래, 다 사.}

10103 @ 십오천 딸라면은 그 솜우르느 멧 솜이나 대?{15,000달러면 그 솜으로는 멧 솜이나 돼?}

10103 # 솜우르 많습니다. 솜울르 여기서 솜우 아: 백 딸라라무 여기서 지금 네 천씨 네천입니다. 네 처이. 예. 예. 그래 거 네 천에 열이문…….{솜으로는 많습니다. 솜으로 여기서, 솜을, 100달러라면 여기서 지금 4000씩, 4000솜입니다. 4천. 예. 예. 그래 거 4천에 열이면…….(테이프 교체로 잠시 녹음 안 됨)}

10103 # 그 양반덜 조선에 해마다 가 올헤[오래]두 갔다왔습니다. 해마다 조선에 자식들 조선엔 너이 잇습니다. 남녀 아: 네 부 네 부인데 개 자식던데 댕깁니다 그양. 기애 자석덜 두 댕기메 아: 그 양반 우리집 그양 댕기구. 아: 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젊어서 아 오십살에 혼자 나서 다른 남편 아이하구 진정스레 자식덜 **대우길래서 자식덜이 나르 그렇게 중하게 받든다구 기래짚니. 그게 무슨 그렇겠는가구 그러짐, 예.{그 양반들 한국에 해마다 가는데 올해도 갔다 왔습니다. 해마다 한국에 가 자식들을 보는데, 한국에는 넷이 잇습니다. 남녀 네 분, 네 분인데 그래 자식들에게 다닙니다 그냥. 그래 자식들 집도 다니면서, 그 양반 우리 집을 그냥 다니고. 아 (그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젊어서 아 50살에 혼자되어서 다른 남편을 아니 하고 진정으로 자식들을 키워서 자식들이 나를 그렇게 중하게 받든다고 그러잖습니까. 그게 뭐 그렇겠는가 하고 그러지 뭐, 예.}

10103 @ 그렇지요, 뭐.{(정말) 그렇지요 뭐.}

10103 # 개 나르 남편 아이하구 아이들 데리구 살았다고. 남편 무슨 남편. 상사나 남편이랑 한 번 잇으무 대엿지. 다른 남편해 며얼 하겠습니까?{그래 나에게 남편을 얻지 않고 아이들 데리고 살았다고. 남편은 무슨 남편. 죽어서 남편이랑 한 번 인연을 맺었으면 되었지. 다른 남편을 얻어서 뭘 하겠습니까?}

10201 @ 아이! 그런데 얼굴이 곱아서 어?{아이! 그런데 얼굴이 곱아서 어?}

10201 # 에이그! 아이 얼굴이 살다가 백골입니다. 내 이. 열이 열이 잇기 전에사 일없었지. 기랜게 어저느 속에 열이 잇다나이 음 음식으 가래에서 아무게나 못 먹구 딱딱 딱 지 노

시아말르 지애뜨르(диета, =식이요법)라는 거 그거 하다나이 살이 짝 빠져서 그게 백골이지 무tm 야. 며. 백골두 살아서 그러나 저러나 무스 팔십이 넘으면 또 이러엄 귀두 메에 잘 듣지 못하지. 어전 죽어야 데지 무. (웃음) 어전 죽어야 데구, 젊문이들 가져가며 가져갑니까? 야. 개 성씨르 어떻게 씩니까?{어이구! 아이 얼굴이 살다가 보니 백골입니다. 내 이 얼굴이. 쓸개가, 쓸개에 (돌이) 있기 전에야 괜찮았지. 그런데 이젠 속에 쓸개에 돌이 있다 보니 음식을 가려서 아무것이나 못 먹고 딱딱 식이(食餌), 러시아어로 식이요법(食餌療法)이라는 거 그거 하다 보니 살이 짝 빠져서 그게 백골이지 뭐 응. 뭐. 백골도 살아서 그러나 저러나 뭐 팔십이 넘으면 귀도 막혀서 잘 듣지 못하지. 이젠 죽어야 되지. (웃음) (저승사자가) 젊은이들은 가져가며(데려가며) (늙은이는 어디) 가져갑니까? 응. 그래 성씨를 어떻게 씩니까?}

10201 @ 저는요 소가예요 소.(저는요 소(蘇)가예요, 소.)

10201 # 소, 고. 야! 그게 드문 성입니다.{소(蘇), 고. 야! 그게 드문 성입니다.}

10201 @ 예, 그래요 예. ‘소년’ 할 때 소.{예 그래요 예. ‘소년’ 할 때 소.}

10201 # 소가 가연 드문 성입니다.{소가는 과연(정말) 드문 성입니다.}

10201 # 우리 싸위느 송간데. 소가. 나는 윤씨입니다. 윤씨느 지금 한국에 덕호가 내 한 집아이 대 날 누이라 하구 예 오무 그양 우리집에 옵니다. 이십삼일날 비행기 온답더마. 우리르, 키르기스(Кыргыз) **잇느는 조선 양반덜 한국, 한국 예따(это) 한복으 예 한복으 많이 [마이] 많이[마이] 갖다 싹 농가 줏습니다. 그 양바이.{우리 사위는 송(宋)가인데. 소가. 나는 윤씨입니다. 윤씨는 지금 한국에 덕호가 나와 한 집안이 돼 나를 누이라고 하고 예 여기 오면 그냥 우리 집에 옵니다. 23일 날 비행기가 온다더군요. 우리에게, 키르기스에 있는 조선 사람들에게, 한국 한국 음 한복을 예 한복을 많이 많이 갖다 싹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양반이.}

10201 @ 그 분이?{그 분이?}

10201 # 그 분이! 예.{그 분이! 예.}

10201 @ 어어!{오오!}

10201 # 그분이 한복으 개애다서 비쉬케크(Бишкек)에 잇는 조선사람 아매덜 다 농가주구. 그담에 해마다 달력으 저 달력두 저거 그 사람이 가져온 쩍니다. 이 달력으 해마다 해마다 우리는 어엄 이 달력이 없으무 우리느 음력 날짜르 모르지.{그 분이 한복을 가져다가 비슈케크(Бишкек)에 잇는 조선 사람 할머니들에게 다 나누어 주고. 그다음에 해마다 달력을, 저 달력도 그 사람이 가져온 것입니다. 이 달력을 해마다, 해마다 우리는 음 이 달력이 없으면 우리는 음력 날짜를 모르지.}

10201 @ 예, 예. 그러쥬.{예, 예. 그렇쥬.}

10201 # 기래 우리 이 내 같은 늙으이사 생진두 음력이구 오부세(вообще) 음력 우리 아지. 기랴구 점문덜은 지금 아무것두 그저 그저 여그 여그 젊운으 예 그저 키르기스(Кыргыз)나 마우재나 한가집니다, 예. 우리 아덜뚜 조선말으 잘 모릅니다. 예. 기란데 저거 달력으 봐야 우리 아 조선날짜르 아다나 기래 해마다 그 덕호 달력으 가져와서 크게 돕아 줍니다, 예. 기란게 올헤 달력으 가지구 이 집 앞서 두 번 내게 전화했습니다. 이십삼일날 비행기 오갓다구. 개 이십삼일 날 인천에서 야듭시에 떠나무 여기르 아 열한시 반에 웨스폰 열한시 반에 와 내리는데. 비쉬케크(Бишкек) 만하쉬(Манас) 와서.{그래 우리 이 나 같은 늙은이야 생일도 음력이고 온통 음력을 알지. 그리고 젊은이들은 지금 아무것

도, 그저 그저 여기 여기 젊은이는 예 그저 키르기스 인이나 러시아 사람과 한가지입니다, 예. 우리 아이들도 조선말을 잘 모릅니다. 예. 그런데 저 달력을 보아야 우리 조선 날짜를 알다 보니 그래 해마다 그 덕호가 달력을 가져와서 크게 도와줍니다, 예. 그런데 올해는 달력을 가지고 이 집으로 앞서 두 번이나 내게 전화를 했습니다. 23일 날 비행기 오겠다고. 그래 23일 날 인천에서 8시에 떠나면 여기로 11시 30분에 웨스턴 11시 반에 와 내리는데. 비슈케크 만하쉬에 와서.}

10201 @ 직접 오문 그렇게 오죠.{직접 오면 그렇게 오지요.}

10201 # 직접 예 직접 오는 게 아: 인천에서 이십 시간에 떠나무 여기와서 이십이 반에가 여기와 들어서는데 예. 그렇게. 그러나 직접 오무 그런데, 개 직접 모 오구 따쉬켄뜨르 해와서 고상스레 왔습니다. 개 따시켄트(Ташкент) 여기르 오는데 일없이 왔습니까?{직접 예 직접 오는 게 인천에서 20시에 떠나면 여기 와서 22시 반에 가 여기 와 들어서는데 예. 그렇게[그러께]. 그러나 직접 오면 그런데, 그래 직접 못 오고 타슈켄트를 거쳐 와서 고생스럽게 왔습니다. 그래 타슈켄트에서 여기로 오는데 별일 없이 왔습니까?}

10201 @ 따시켄트(Ташкент)에서 네 시간 기다렸다가,{타슈켄트에서 네 시간 기다렸다가,}

10201 # 네 시간 기다렸다가.{네 시간을 기다렸다가.}

10201 @ 지들렀다가 두 시간, 한 시간 사십분 또 타구 왔어요.{기다렸다가 두 시간, 한 시간 40분 또 타고 왔어요.}

10201 # 아 그 길에서 따모슘(таможенный досмотрщик)인두 무시킨두 그것덜이 일없습덤? 일없습니까?{아 그 길에서 세관원인지 무엇인지 하는 것들이 관찮았습니까? 관찮았습니까?}

10201 @ 비행기로 왔어요, 비행기로.{비행기로 왔어요. 비행기로.}

10201 # 비행기 오다 예. 비행기 오다나이, 웁습니다. 비행기 오다나. 우즈베크스탄(Узбекистан) 까자흐스탄(Казахстан) 끼리기스스탄(Кыргызстан) 이 사람덜이 이게 싹 그전에 형제가이라 했습니다. 형제가이라 한 게 지금은 길으 막아놓구 가고오고 못합니다. 가고 오게 못 합니다. 삽하야 합니다. 그러구 사람덜께서 돈: 많이[마이] 받아내지. 아:! 못쓸 세상. 세월이 아주 못쓸 세월이 돌아와. 해마다 식료품이 올라가지. 아 물건은 거저 사람덜 싹 물건으 팔아 장세르 해야 삽니다. 싹 바자르(базар)서 물건으 팔구 이 바자르(базаp)서 거저 이래 무시기던지 시장에서 무스거 판매르 그렇기 식솔으 입살해[입쌀해] 살구. 그전에 우리 소비스끼이 소비즈(Советский Союз) 때느 전체르 국가 일해 살았습니다. 국가 일해. 우리 같은 거는 나는 나두 젊어두 젊어서두 나두 에떠(это) 밭에서 농사질했습니다. 농사질으. 농사질했습니다. 그러다 지금 어저느 칠십 살에, 칠십 칠십, 내가 칠십 살에 가 이 노인반으 처음으로 비쉬케II(Бишкек) 조직했습니다. 처음으로. 이 비쉬케크(Бишкек) 노인바이라는 거 이름두 없구 없었습니다. 개 처음으로 조직해에서 칠십삼년에 조직해서 어전 십년이 어저는 에따(это), 무슨 소리하구, 구십삼년에.{비행기 오다 보니 예. 비행기로 오다 보니, 별일이 없었군요, 웁습니다. 비행기로 오다 보니. 우즈베크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이 사람들이 이게 싹 그전에는 형제 간이라 했습니다. 형제 간이라 한 것이 지금은 길을 막아 놓고 오고 가고 못 합니다. 오고 가게 못 합니다. 무섭고 두렵게 굶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서 돈을 받아내지. 몹쓸 세상. 세월(=時代)이 아주 몹쓸 세월이 돌아와. 해마다 식료품이 올라가지. 아 물건은 그저 사람들이 싹 물건을 팔아 장사를 해야 삽니다. 싹 시장에서 물건을 팔고 이 시장에서 그저 이렇게

무엇이든지 시장에서 무얼 판매를 그렇게 해서 식솔(食率)을 입에 풀칠하도록 해 살고. 그전에 우리 소비에트 연방 때는 국가 전체가 국가 일을 해 살았습니다. 우리 같은 것은, 나는 나도 젊어도 젊어서도 나도 음 밭에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농사질을.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러다 지금 이제는 70살에 70, 70 내가 70살에 가 이 노인반을 처음으로 비슈케크에서 조직했습니다. 처음으로. 이 비슈케크 노인반이라는 것은 이름도 없고 없었습니다. 그래 처음으로 조직해서 73년에 조직해서, 조직해서 이젠 10년이, 이제는 음, (혼잣말로) 무슨 소리 하고 있나! 1993년에.)

10201 @ 구십삼년에.{1993년에.}

10201 # 구십삼년에.{1993년에.}

10201 @ 칠십에. 칠십에,{70에, 70에.}

10201 # 예에! 칠십에. 구십삼년에 이거 조직해서 내 십년 했습니다. 개 십년 일하다가 어전 나 이시 팔십 먹으무 어전 점 점문 사람 냉게 주구 일하짐. 베~이 잇지 어전 살다가 백골같이 그런 게 아: 냉게져습니다. 용:해나 내 후부르 하던 사뭇게다 냉게농구. 그러구 내 이제 이 동삼은 집에 있습니다. 이 동삼은. 내 집에 없었습니다. 기양 일했지. 일했어.{예! 70에. 1993년에 이거 조직해서 내 10년을 일했습니다. 그래 10년을 일하다가 이젠 나이가 있어서, 80을 먹으면 이젠 젊은 사람에게 넘겨주고 일하지 뭐. 병이 있지 이젠 살다가 백골 같이 그런 게 되어 넘겨주었습니다. 다행히 내 후보(候補)를 하던 사람에게 넘겨 놓고. 그래 내 이제 이 겨울은 집에 있습니다. 이 겨울은. 그전에는 집에 없었습니다. 계속 일했지. 일했어.}

10201 @ 무슨 일으 주로 하셨어요?{무슨 일을 주로 하셨어요?}

10201 # 노인반에서 글썸,{노인반에서 글썸! (일했다니까!),}

10201 @ 노인반 일.{노인반 일.}

10201 # 노인반에서. 노인덜으 누(ну) 조선식두 배와주구. 조선노래두 배와주구 춤두 배와주구 아아 그런 거.{노인반에서. 노인들을 음 조선 관습도 가르쳐 주고. 조선 노래도 가르쳐 주고 춤도 가르쳐 주고 아 그런 것을.}

10201 @ 원래 춤은 어디서 배웠어요? 노래랑.{원래 춤은 어디서 배웠어요? 노래랑.}

10201 # 아:때 원동서.{아이 때 원동에서.}

10201 @ 원동에서.{원동에서.}

10201 # 공부르 할 적에 아때 춤두 배우구 노래두 배우구. 원동서 다 배와, 아때 배운 겹니다. 기랜 거,{공부를 할 적에 아이 때 춤도 배우고 노래도 배우고. 원동에서 다 배워, 아이 때 배운 것입니다. 그랬는데,}

10201 @ 원동에서 칠학년까지 다니셨다메?{원동에서 7학년까지 다니셨다면서?}

10201 # 예?{예?}

10201 @ 원동에서 몇 학년까지 다녔다고요? 칠학년?{원동에서 몇 학년까지 다녔다고요? 7학년?}

10201 # 워 원도~이 칠학년으 필으 못하구 칠학년으 공부하는 거 실어왔습시다. 칠학년두 필 못 했습니다. 기래도 원동서 이르는 그 조선글으 알고 조선말으 알고 그담에느 조선노래르 알구 기래다나이 그 노인반에서 내 일했지. 개 일으 십년 동안 했으니. 배우덜 데리구서리 이래서 마이 노래두 배와주구 춤두 배와주구 예. 그래 일하다가 어저느 어전 팔십 데무 어전 나와야지 팔십 텨게 무슨 일으 하겠습니까? 팔십 넘으무 나와야 데지. 조

선에는 예 내 이지간에 조선신문으 보는데. 서울에는 일백 열 살 일백 열 살이 난 아매 잇습니다. 일백 열 살. 술도 좋, 고기도 좋고 술도 좋아. (웃음) 기래구 예 내 노시아 신문으 기양 받아맛짐. 노시아 신문으 기양 받아보다서 아 그담에 값이 비쌉니다, 게. 뻘씨 (пенсия) 작지. 기래 어쨌건 노시아 신문 아이 받구 예, 아 한국에 황히보~이라는 그 양 바~이 여기서 교민으 교민신문이 잇습니다. 그 신문으 내게다 개애다 주구, 그담 한국 신문으 개애다 줘. 내 기래 한국신문으 보구 내가 자세히 아지. 한국 신문으 내 보는데 그 신문에다 옹게 썬는두 아이 옹게 썬는두 우리 조선민족으는 조선민족으는 옛날부터 네레 오메 아: 부모르 중해하는 민족인데 본래, 본래.{원동에서 7학년을 마치지 못하고, 7학년 공부하는 것을 중앙아시아로 실어왔습니다. 7학년도 마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도 원동에서 공부하는 그 조선 글을 알고, 조선 말을 알고, 조선 노래를 알고 그렇다 보니 노인 반에서 내가 일했지. 그래 일을 10년 동안 했으니까. 배우들을 데리고서 노래도 많이 가르쳐 주고 춤도 가르쳐 주고, 그렇게 일하다가 이제는 이젠 80이 되면 이젠 나와야지 80이 된 것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80이 넘으면 나와야지. 한국에는 예 내 이즈음에 한국 신문을 보는데. 서울에는 110살, 110살이 된 할머니가 있습니다. 110살. 술도 좋아 하고, 고기도 좋고 술도 좋아하고. (웃음) 그리고 예 내 러시아 신문을 그냥 받아 보았지 뒤. 러시아 신문을 그냥 받아 보다가 아 그다음에 값이 비싸집니다 그게. 퇴직 연금은 적지. 그래 어쨌든 러시아 신문을 안 받아 보고 예, 한국에 황히봉이라는 그 양반이 여기서 교민을 대상으로 한 교민신문이라는 것을 내고 있습니다. 그 신문을 내게다 갖다 주고, 그다음에 한국 신문을 갖다 줘. 내가 그래서 한국 신문을 보고 자세히 알지. 한국 신문을 내가 보는데 그 신문에다 옹게 썬는지 안 썬는지 우리 조선 민족은 조선 민족은 옛날부터 내려오며 아 부모를 중하게 여기는 민족인데 본래, 본래.}

10201 @ 그렇지요. 예.{그렇지요. 예.}

10201 # 부모르 중해하고 아:: 예절이 잇는 이런 민족인데 하대 서울은 더구나 그게 자본국가 데 가. 아 그런데 저 신문에 썬 데는 아 이 늙은이덜이, 젊은이덜이랑 아 아기르 낳 재에서 이 노인덜이 다 어전 그렇기 자살해 죽는게 그렇기 많입니다. 그렇기 자살해 죽는 게. 개 신문 보구 황선생 어째 이런두 모르겠다 이. 이게 나는 신문이 **옹은다 ** 연다 그 신문 취에다 보구 듣구 내 황선생 오무 배웁니다. 황선생, 화 환갑이 늙은이덜은 돈벌이두 못하지 시들시들한 늙은이덜가 서울이 시들시들해진다고. 젊은이덜이 아기르 낳쟁인지 이렇다구 예. 아 그래 벨란 거 다 씩니다. 기래 내 그, 그, 참! 글썸. 여 여기서는.{부모를 중하게 여기고 아 예절이 잇는 이런 민족인데 하물며 서울은 더구나 그게 자본국가 되어서. 아 그런데 저 신문에 쓰인 데에는, 이 늙은이들이, 아 젊은이들이 아이 아기를 낳지 않아서, 노인들이 다 이젠 그렇게 자살해 죽는 것이 그렇게 많입니다. 그렇게 자살해 죽는 사람이. 그래 신문을 보고 황 선생에게, ‘어째 이런지 모르겠다, 이게’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나는 신문이 옹은지 어떤지 그 신문을 줘어다 보고 듣고 내 황 선생이 오면 배웁니다. 황선생, 환갑 늙은이들은 돈벌이도 못하지. 시들시들한 늙은이들과 서울이 시들시들해진다고. 젊은이들이 아기를 낳지 않지 이렇다고 예. 별난 것을 다 씩니다. 그래 내 그, 그, 참! 글썸. 여기서는.}

10201 @ 자본주의는 그런 거 다 써요. 자본주의 신문들은.{자본주의는 그런 것을 다 써요. 자본주의 신문들은.}

10201 # 야야::!! 기차! 여기서는 늙은이덜 자살하는 게 없습니다. 기래 거기서는 늙은이덜이

자살하는 그 그 해마다 게 뽀로(процент) 올라가지 거 아이 좋습니다. 그러구 잘사는 게 잇구 구차하게 사는 게 잇구. 북조선에야 똑같이 살재엿니까? 북조선. 기란데 음 이 서울으느 그 신문으 보문 서울 그러나 발달해에서 예 조서에 조선 내가 이 서울으 봅니다. 이 켈리비(телеви)에서 다(да) 예. 켈리비(телеви)서 서울으 맞는데 이 노세아서 여길 끼르기스탄(Кыргызстан)서 예 그것 없애구 예 지금 노시아 끼노(кино)르 배웁니다. 이거 예. 이때까지 우리 아들이 알마따(Алмаата)서 저걸 기계르 가지구와 저 안때나 높우게 해애 놓구 내 그렇기 서울으 그렇기 잘 맞습니다. 기래 내 야 서울으 보무 말은 잘 알아 못 들어두 자기 조선 사람 보이 그렇기 좋, 아덜은 다 싫어하지. 기래 내 한 내 이거 보지. 아 기래 보는데 지내 없었습니다. 기래 없었는데, 저 켈리비(телеви)서 바두 그렇구 아 저 책으 바두 그렇구 서울이 우리 조서이 아주 발달해 노시아서 못 따릅니다. 예 노시아사람 못 따릅니다. 발달했습니다. 무슨 아 기계랑 무스거 맨드는 저것으 어떻게 맨, 내 켈리비(телеви)서 그거 본 적으느 아주 발달해 아무 나라두 못 따릅니다. 그러구 저 신문 쓴데 아 아메리카 대통령 이렇기 말했습니다. 우리두 서울에서 하는 거 다 모른다는 거. 그렇기 했습니다. 기래 서울이 그렇기 발달하구 그런 나라인데 늙은이덜이 글썸 그거 아 자살해 죽는다이까네 그게 게. 어티기 자살해 죽소? 그렇기 예. {야! 기차서! 여기서는 늙은이들 자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 거기서는 늙은이들이 자살하는 그 그 퍼센트가 해마다 그게 올라가지. 그거 안 좋습니다. 그리고 잘 사는 사람이 있고 가난하게 사는 것이 있고. 북한이야 똑같이 살지 않습니까? 북한. 그런데 음 서울은 그 신문을 보면 서울은 그러나 발달해서 예 조선에 조선, 내가 이 서울을 봅니다. 이 텔레비전에서 예. 텔레비전에서 서울을 보았는데 이 러시아에서, 여길 키르기스스탄에서 예 그것을 예 없애고 예 지금은 러시아 영화를 보입니다. 이거 예. 이때까지 우리 아들이 알마티에서 저 기계를 가지고 와서 저 안테나를 높게 해 놓고 내 그렇게 서울을 그렇게 잘 봤습니다. 그래 내가 응 서울을 보면 말은 잘 알아듣지 못해도 자기 조선 사람들 보니 그렇게 좋아. 아이들은 다 싫어하지. 그래 나 하나가 이거 보지. 그래 보는데 아주 없었습니다. 그래 없었는데, 저 텔레비전에서 봐도 그렇고 아 저 책을 봐도 그렇고 서울이 우리 조선이 아주 발달해 러시아서 못 따릅니다. 예 러시아 사람이 못 따릅니다. 발달했습니다. 무슨 기계랑 무엇을 만드는 저것은, 어떻게 만드는지, 내 텔레비전에서 그걸 본 적은 아주 발달해 아무 나라도 못 따릅니다. 그리고 저 신문에 쓰인 것에는 미국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서울에서 하는 것을 다 모른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 서울이 그렇게 발달하고 그런 나라인데 늙은이들이 글썸 자살해 죽는다니까, 그게 어떻게 돼서 자살해 죽소? 그렇기, 예.}

10201 @ 잘사는 사람덜은 잘사는데 못 사는 사람덜은 또 어려우니까 그래요 네. 바쁜 게. {잘 사는 사람들은 잘 사는데 못 사는 사람들은 또 어려우니까 그래요 네. 살기가 힘드니까.}

10201 # 예:: 기래이꺼나 잘사는 사람덜은 부재구 못 사는 사람은 못 살구. 그담에 또 내 그 전에두 서울은 모질이 반대르 했습니다. 어째 반대르 했는가 전체르 북에 신문으 보다나 이 예 통일신보와 노동신문으 보다나 이 아:: 북에서 아 노인덜까 아아덜은 밤에 비렁배~ 이 그렇기 잇어서 예 거 그렇기 비렁배 잇구 거리에서 죽기두 하구 그런다구. 기래 내 그거 그래 간대르사 그렇겠는가구. 갠게 지금 예따(это) 본격엔, 신문으 보무 신문에 본격은 그렇습니다. 지금 예. 밤에 아 해마 넘어가무 음 어린아이들은 나서서 돈 달라구

빌지. 마시나(машина) 싼느라구 해매지. 우리 조서이 깐 나래앤데 어째 이거 밤에 비렁배~이라 이거 없애구 못 그래는가. 어티기 다야 잘 살겠습니까. 구차한 사람덜 그래짐. 도이 없는 사람들이 예. 에이.{예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들은 부자고 못 사는 사람은 못 살고. 그다음에 또 내 그전에도 서울은 몹시 반대를 했습니다. 어째 반대를 했는가 하면, 전체를 북에서 나오는 신문을 보다 보니, 통일신보와 노동신문을 보다 보니. 아 북에서 말하기를 ‘노인들과 아이들은 밤에 비렁뱅이가 그렇게 있어서 예 그렇게 비렁뱅이가 있고 거리에서 죽기도 하고 그런다.’고. 그래 내 그거 설마 그렇겠는가 하고 생각했지. 그런데 지금 음 본 적에는, 신문을 보면, 신문에서 본 적은 그렇습니다. 지금 예. 밤에 아 해만 넘어가면 음 어린아이들이 나서서 돈 달라고 빌지. 차에 (손님을) 싼느라구 해매지. 우리 조선이 깐 나라인데 어째 이거 밤에 비렁뱅이를 없애지 못하고 그러는가. 어떻게 다 잘 살겠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그렇지 뭐. 돈이 없는 사람들이 예. 에이.}

10201 @ 근데 북에서, 북에서 선전한 것은 사실이 아니에요.{그런데 북에서, 북에서 선전한 것은 사실이 아니에요.}

10201 # 사실이 아입지. 그래 내 고지 에이 들었지. 사실이 에이라구 고지 에이 들었지. 그래 고.{사실이 아니지요. 그래 내가 끝이듣지 않았지. 사실이 아니라고 끝이듣지 않았지. 그리고.}

10201 @ 우리 민족덜이 얼마나 부지런한데에.{우리 민족들이 얼마나 부지런한데.}

10201 # 아우! 부지런하구 일두 잘하구. 여기 사람덜 여깃 사람덜 싹 노다립니다. 일 아이합니다. 우리 조선사람 일 잘합니다.{아우! 부지런하고 일도 잘 하고. 여기 사람들 여기 사람들은 싹 다 노라리입니다. 일을 안 합니다. 우리 조선 사람은 일을 잘 합니다.}

10201 # 우리 황선생 그래 여기서 도토리 줯짐. 도토리 조끔 여기서 줯어서 한국에 보내지. 돈벌이 하느라구.{우리 황 선생 그래 여기서 도토리를 줯지 뭐. 도토리를 조끔 주워서 한국에 보내지. 돈벌이를 하느라고.}

10201 # 기랜데 일 아이 하짐. 여깃사람덜 노다린데. 일 아이함. 일 아이. 한국 사람덜 일 일으 잘 하압지. 개 여기서 한국을 일할라 가는 사람두 일으 잘하는 거 시기지 못하는 건 아이 시기지. 개구 또 이것도 벌:이 좋지. 우리 멘목 아는 아 한나 한국에 가 빠르니끄(парник)서 일하는 게 돈 마이 할랄에 팔십 둘라(доллар)르씨 번다는데 둘라(доллар)르 한국에 값이 없지, 한국엔 값이 없지. 여기는 아주 값이 많지. 기래 그 사름은 거기서 돈 벌어 가지구 왔다 갔다 기라메 나르 췌레비(телеви)서 맞답니다. 내 앞서 여기 와서, 어, 두 분이 와서 예 인페르비주(интервидею) 이 말해 가지군 기래 ***씨마라 간 거 기래 배우덜 데리구 노래두 부르구 말두 하구 예 그런 거 그거 어 조선에서 배와서 내 손네 조선에 잇는 게 어어! 바부쉬까(бавушка)두 췌리비조르(телевизор)에서 맞다 하지. 이 사름이 갔다 전에 우리 집에 왔다무 나르 맞다구 그랩더구마. 그래 그 기계르 거 반 듣습니다. 기래. 그러구.{일을 안 하지. 여기 사람들은 노라리인데. 일을 안 합니다. 일 아니 하지. 한국 사람들 일 일을 잘하지요. 그래 여기서 한국으로 일하러 가는 사람도 일을 잘 하는 사람을 시기지 못 하는 것은 안 시기지. 그리고 또 이것도 벌이가 좋지. 우리가 알고 지내는 아이 하나가 한국에 가 온실(溫室)에서 일하는데 돈을 많이, 하루에 80달러씩 번다는데, 달러가 한국에서는 값이 없지. 한국에서는 값이 없지. 여기서 아주 값이 많지. 그래 그 사름은 거기서 돈 벌어 가지고 왔다 갔다 그러면서 나를 텔레비전에서 봤답니다. 내 앞서, (한국 사람이) 여기 와서, 어, 두 분이 와서 예 국제방송

연맹에서 이 말을 해 가지고 그래 ***씨마라 간 거 그래 배우들을 데리고 노래도 부르고 말도 하고 예 그런 것을 어 한국에서 방송으로 보여서 내 손녀 한국에 있는 놈이, 어! 할머니도 텔레비전에서 봤다 하지. 이 사람이 (한국에) 갔다가 (텔레비전에서 나를 보고), 전에 우리 집에 왔다가 나를 보았다고 그러더군요. 그래 그 기계를 거의 듣습니다. 그래. 그러고.}

10201 @ 옛날에 농사를 질 때는 주로 무슨 농사 지셨어요?{옛날에 농사를 지을 때는 주로 무슨 농사를 지으셨어요?}

10201 # 파이 농사르 쪼습니다. 파이르. 우리 남편이 칠십삼년에 상새났는데 칠십이연까지 예. 아: 그런 거 말아 가지구 브리가질(бригадир)했습니다. 파이 밭에. 사람우 심어: 심어 호에 심어 호에 이래 그 사람덜 데리구서 그 파이농사르 해아서 그 농사르 가을이무 그거 거더서 바치지.{과 농사를 쪼습니다. 파를. 우리 남편이 1973년에 작고했는데 1972년까지 예. 아 그런 거 말아 가지고 작업반장을 했습니다. 과 밭의. 사람을 심어, 심어 호에 심어 호에 이렇게 그 사람들을 데리고서 그 과 농사를 해서 그 농사를 가을이면 그저 거두어 국가에 바치지.}

10201 @ 어디다가?{어디다가?}

10201 # 국가다 바치지. 잔계 국가서 그 마감엔 잘 받지 애에서 돈벌이두 없지. 그담 우리 호 새비 어 칠십삼년에 사망텔 켱에 밭에다 이거 슈호즈(совхоз) 가서 예 이거 파이 다아 싱겨농구 삼월달에 사망을 했어. 개 상새나이 그 자리에서 우리 호새비 날 알아 내 했습니다. 내 삼연 했:습니다. 내 삼년으 아 남자덜 데리구 브리가질(бригадир) 기래하다가 기래 하다가 여자 할 노릇이 애이지. (웃음) 그래 삼년 하구 그 제에뿌렛습니다. 기래 제에뿌리구 아이 했습니다 음.{국가에 바치지. 그런데 국가에서 마지막에는 잘 받지 아니 해서 돈벌이도 없지. 그다음 우리 남편이 어 1973년에 사망할 적에 밭에다 이거 국영농장에 가서 예 이 파를 다 심어 놓고 3월에 사망했어. 그래 죽으니, 그 자리에서 우리 남편이 날 알아(날 알게 해서, =나에게 가르쳐서) 내가 했습니다. 내 3년을 했습니다. 내 3년을 남자들을 데리고 작업반장을 하다가 그렇게 하다가 여자가 할 노릇이 아니지. 그래 3년을 하고 그 일을 내던졌습니다. 그래 내던지고 안 했습니다. 음.}

10201 @ 그러면 그 때는 역 여기서 주로 여기서 했어요? 이제 따시켄뜨(Ташкент)에서 하셨다고요?{그러면 그 때는 여기서 주로 여기서 했어요? 이제 타슈켄트에서 하셨다고요?}

10201 # 아이! 따시켄뜨(Ташкент)에서 아 오십구년도에 여길 왔습니다. 온지 오랍니다. 밭 썩 오십구년에 여기르 왔습니다.{아니! 타슈켄트에서 1959년도에 여길 왔습니다. 온지 오랍니다. 밭 썩 1959년에 여기로 왔습니다.}

10201 # 따시켄뜨(Ташкент)는 여기마 공기 나쁩니다. 여기는 공기 좋습니다. 개 공기 낮으 이꺼나 내 그때두 벤벤치 못해서 기래 우리 호새비 데리구 이새르 해왔지. 아이들으 아들 형제 딸하나 아덜 서에 중핵교르 필해 주구 대학으 여기서 썩 필했습니다. 여기서 썩 필했습니다. 그랬습니다.{타슈켄트는 여기보다 공기가 나쁩니다. 여기는 공기가 좋습니다. 그래 공기가 나오니까 내 그때도 넉넉하지 못해서 그래 우리 남편을 데리고 이사를 왔지. 아이들은 아들 형제 딸 하나 아이들 셋을 중학교를 졸업시키고 대학을 여기서 모두 마쳤습니다. 여기서 모두 마쳤습니다. 그랬습니다.}

10201 @ 그러면 여기서 여기서 그때두 이 집이서 사신 거예요?{그러면 여기서, 여기서 그때도 이 집에서 사신 거예요?}

10201 # 아이! 다른 집에서 살았지. 다른 집에서 사다 옮겼지[움겼지]. 벌써 세 번째 집우 바꿨어. 예. 첫감에 오십구년에 와서 적에는 저 저 조금 저기 나가서 그거 사다 그담에는 음 우리 아들이랑 조꿈 이래 대학에서 글으 필하구 그담에는 그 대학에서 글으 필한 일으 하자이 월급이 없지. 그래 두루두루 그래다 어전 농사질했지. 개 농사질해서 점 벌어가주구 집우 썼습니다. 이 집 산지 어저 오랍니다. 이십년 넘습니다, 이 집. 이십년 어전 넘습니다.{아니! 다른 집에서 살았지. 다른 집에서 살다 옮겼지. 벌써 세 번째 집을 바꿨어. 예. 처음에 1959년에 왔을 적에는 저기로 조금 너기로 나가서 그곳에서 살다 그다음에는 음 우리 아들이랑 조꿈 이렇게 대학에서 공부를 마치고 그다음에는 그 대학에서 공부를 마친 그 전공으로 일을 하자니 월급이 없지. 그래 두루두루 그래다 이제는 농사를 지었지. 그래 농사를 지어서 좀 벌어가지고 집을 샀습니다. 이 집을 산 지도 이제 오랍니다. 20년이 넘습니다, 이 집. 20년이 이젠 넘습니다.}

10201 @ 아니, 어디나 대학을 필하면: 그 그 전업 가지고 하면 다른 나라는 돈을 많이 버는데. 왜 여기는 대학을 필허구 일하는데 돈을 못 벌어?{아니, 어디나 대학을 마치면 그 전공(專攻)을 가지고 일하면 다른 나라는 돈을 많이 버는데. 왜 여기는 대학을 졸업하고 일하는데 돈을 못 벌어?}

10201 # 못 벌어! 못 법니다. 대학으 필허구 여기두 그저 자본국가나 다름이 없. 그전에 러시아(Россия) 에따(это) 소비에스끼이 소유즈(Советский Союз) 예 소비에스끼이 소유즈(Советский Союз) 때에는 장시르 아이 하구. 짝: 모두 노동일 해 살았습니다. 대학으 필한게 지뿔롬:(диплом) 가지랑. 우리 메느리두 인제니에르(инженер)질했습니다. 예. 딱 기래 기래 가지구 여기서 일으 해었는데 아아 일으 해서 월급이 그 월급 가주구 개애두 집이 식솔은 맥이매 살았지. 기랜게 어저는 그 소비에스 소유즈(Советский Союз) 마사지구 예 **까라브초프(Горбачов) 어전 들어서구 소비에스 소유즈(Советский Союз) 마사지구 어전 자본국가, 자본국가두 애이구 이해국가두 애이구 그저 범벅입니다. 그렇게 범벅이 딱 데다나이 그담에 사람덜은 짝 장시에 나섰지. 그전엔 장시르 못하게 했는데 어전은 거저 아무 짓이나 하짐 예. 아 그래다나이 음 그 월급 가주구 살기 바쁘지. 기래 살기 바쁘이까네 이 월급 가지구 아이 덴다. 그래 아이 글쎄 우리 메느리 인제니에르(инженер)질해서 버오? 우리 아들이 거그서 아 대학으 필한지 일으 버얼어 그렇기 벌어 아이 텨니다. 에에! 그러면 우리두 농새질한다. 고담에 농사질의 우리 아들이 이 절떡 아들이 메느리 여름이무 가 농사질하 겨울에는 이래 쉬구. 이 늙으이 집으 보구 예. 그담에는 음 우리 딸으느 싸위느 저 까자흐스탄(Казахстан)에서 사는데 그건 사보드(завод)서 일합니다. 그건 사보드(завод)두 동새이 열다나이 재빌르 열다나이 돈으 잘 벌짐. {못 벌어! 못 법니다. 대학을 마치고, 여기도 그저 자본 국가나 다름이 없지. 그전에 러시아, 음 소련 예 소련 때에는 장사를 안 하고 모두 노동을 해서 살았습니다. 대학을 마친 것이 졸업증서를 가지고. 우리 며느리도 기사(技士)의 일을 했습니다. 예. 딱 그래 그래 가지고 여기서 일을 했는데 아 일을 해서 월급이 그 월급 가지고, 그래도 집의 식솔은 먹이며 살았지. 그런데 이제는 그 소련이 붕괴되고 예 고르바초프가 들어서고 소련이 붕괴되고 이젠 자본 국가, 자본 국가도 아니고 의회주의(議會主義) 국가도 아니고 그저 범벅입니다. 그렇게 범벅이 딱 되다 보니 그다음에 사람들은 짝 장사에 나섰지. 그전엔 장사를 못 하게 했는데 이제는 그저 아무 짓이나 하지 뭐 예. 아 그렇다 보니 음 그 월급을 가지고 살기가 힘들지. 그래 살기 힘드니까 이 월급을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 아

이 글쎄 우리 며느리가 기사의 일을 해서 돈을 버오? 우리 아들이 거기서 아 대학을 마친 지(?) 일을 해 벌어 그렇게 벌어서는 안 됩니다. 에이! 그러면 우리도 농사질한다. 고 다음에 농사질을 우리 아들이 이 막내아들과 며느리가 여름이면 가 농사질하고 겨울에는 이렇게 쉬고. 이 늙은이는 집을 보고 예. 그담에는 음 우리 딸과 사위는 저 카자흐스탄에서 사는데 그것들은 공장에서 일합니다. 그건 공장도 동생이 열다 보니 자기가 열다 보니 돈을 잘 벌지 뭐.}

10201 @ 사보뜨(завод)는 머하는 데:요?{'사보트'는 뭐하는 데예요?}

10201 # 무슨 돌 가지구 무라모르(мрамор) 무라모르(мрамор) 가지구서르 에 사람덜이 사망 텐 대르 그 비석이르 해애 세우재입니까? 그런 그런 사보뜨(завод). 그런 사보뜨(завод) 우리 싸위 동새~이 여다나이 둘이서 거기서 싹꾼덜 데리구 일하문 개 일하다나 게 벌이 잇다나이 농사질 아이 하짐. 그담 우리 만아들으느 아 무슨 일 해앗는가이 아 따시켄트(Ташкент)서 예 지금 따시켄트(Ташкент) 집이라 잇는게 잇세 알마아따(Алмаата)(Алмаата)르 삼는데 알마아따(Алмаата) 내 작은 손네 큰손네느 모스크바(Москва)서 대학으 필하구 모스크바(Москва)서 글으 이르구 예 그담엔 둘째 손네 모스크바(Москва)에서 일하구 예 그 대학으 필하구. 그담엔 작은 손네느 둘째 손네느 한국으 시집가서 거기 살구. 작은 손네 여저는 아 한내. 우리: 만아들은 딸 삼형제. 우리 이 절먹아덜은 딸이 형제. 우리 딸으느 아들 형제. 야덜 아들이 없습시다. 기래서 아 그 절먹딸이 지금 알마아따(Алмаата) 와 조선글으 이릅시다. 조선글으. 통역하는 조선글으. 개 알마아따(Алмаата) 알마아따(Алмаата)서 그 글으 이르다나이 가알래서 지금 아 방천 잇습시다, 알마따 와. 우리 만아들이.{무슨 돌을 가지고, 대리석, 대리석을 가지고서 에 사람들이 사망한 대로(=고인과 관련된 내용을 적어) 그 비석을 해 세우잖습니까? 그런 것을 만드는 공장. 그런 공장을 우리 사위 동생이 열어서 둘이서 거기서 품꾼들을 데리고 일하면, 그래 일하다 보니 벌이가 있어서 농사를 안 짓지. 그다음에 우리 만아들은 무슨 일을 했는가 하면 타슈켄트에서 예 지금 타슈켄트에 집이 있는데 요즈음 알마티를 (주로 일하고 거주하는 곳으로) 삼는데, 알마티에 있는 내 작은 손녀와 큰손녀는 모스크바(Москва)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모스크바(Москва)에서 공부를 하고 예 그다음에는 둘째 손녀가 모스크바(Москва)에서 일하고 예 그 대학을 졸업하고. 그다음에는 작은 손녀는 둘째 손녀는 한국으로 시집가서 거기서 살고. 작은 손녀는 이제는 아이가 하나가 있고. 우리 만아들은 딸이 삼형제. 우리 이 막내아들은 딸이 형제. 우리 딸은 아들 형제. 이 아이들은 아들이 없습시다. 그래서 그 막내딸이 지금 알마티에 와 한국어를 공부합니다. 한국어를. 통역 위주의 한국어를 (공부합니다). 그래 알마티, 알마티에서 그 공부를 하다 보니 그 아이 때문에 지금 사글세를 주고 방을 얻어 삽니다. 알마티에 와서. 우리 만아들이.}

10201 @ 방송, 방송에?{방송, 방송에?}

10201 # 예. 우리 만아들은 따시켄트(Ташкент)서 무슨 일했는가이 아아 그런거 (기침) 그것 두 조선사람덜으 데리구 예 자보뜨(завод)르 재빌르 쥘구 예 그 사보뜨(завод)서 음 옛으 맨드는 거 여 옛으 옛같은 거 맨드는 거. 그래 맨들어서 아 지금은 까 사탕이랑 칸페르(кондитерское изделие)랑 맨드는 데 속으 영재입니까? 그런 것두 하구. 그거 마이 하지. 그래 값이 잇지. 기래 우리 아들이 아 그래 그거 재비 열렸습시다. 개 사보뜨(завод)르 쥘구 영구 거기 지렉또르(директор)했습시다. 그 사보뜨(завод) 열구 지렉또르(директор) 하메서르 사람덜으 마이 데리구 일 했습시다. 그래 일했는데 그 사보뜨(завод)

기재 파이나문 자꾸 손질하구 손질하구 예 그램 일해었는데 아아 예브레(Еврей) 예브레(Еврей)라는 민족이 예브레(Еврей) 사름가 우즈베크(Узбек)가 예 베계가 들어서 아 그계 도이 나오는 사보드(завод)이꺼나 그거 그런거 돈으 암마이 줄게 우리 아들꺼 달라 했지. 기재 아들이 아이 줬지. 기재 아이 줬다 이것덜 떡 물어먹었어. 물어먹어 아 그렇기 돈으 그렇기 때에 먹었다. 기재 아들 때에먹었다구, 아들 우리 자식덜이 체스니(честный)지. 진정한 아덜이지. 기재 때에먹었다구 물어 열으이꺼나 그거 일년 동안 그거 조사르 해었는데 우리 메느리 부하델(бухгалтер)으 하구, 우리 메느리 대학으 필했지. 메느리 부하델(бухгалтер)으 하구 아 게네랄르이 지렉토르(генеральный директор) 우리 아들이 하구. 그거 물어먹으이꺼네 그거 싹 일년 동안 싹 검사르 했는데 거 검사르 했는데 한글째 때먹은 게 없짐. 기재 제 없이 나왔지. 기재 일년으 일으 못하구 고상스레 살았습니다. 집이라 따시켄뜨(Ташкент)에 있습니다. 그담에 어전 거기서 나와서 아,{예. 우리 맏아들은 타슈켄트에서 무슨 일을 했는가 하면, 아 그런 거 (기침) 그것도 조선 사람들을 데리고 예 공장을 자기 스스로 짓고 예 그 공장에서 음 엿을 만드는 거 엿을 엿 같은 것을 만드는 거. 그래 만들어서 지금은 사탕이랑 과자랑 만드는 데 속을 넣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하고. 그거 많이 하지. 그래 값이 있지. 그래 우리 아들이 아 그래 그거 자기가 개업을 했습니다. 그래 공장을 짓고 넣고 거기서 공장장을 했습니다. 그 공장을 열고 공장장을 하면서 사람들을 많이 데리고 일을 했습니다. 그래 일했는데 그 공장 그계 망가지면 자꾸 손질하고 손질하고 예 그러면서 일했는데 아 유태인 유태인이라는 민족이 유태인과 우즈베크인이 예 우즈베크인과 들어서 아 그계 돈이 나오는 공장이니까 그거 그런 거 돈을 얼마만큼 줄 터이니 우리 아들 것을 달라고 했지. 그래 아들이 안 주었지. 그래 안 주었다 해서 이것들이 떡 고발했지. 고발해, 아 그렇게 돈을 그렇게 떼어 먹었다고. 그래 아들이 떼어먹었다고, 아들이 우리 자식들이 정직하지. 진정한 아이들이지. 그래 떼어먹었다고 고발해서 넣으니까 그거 일 년 동안 그거 조사를 했는데, 우리 며느리가 회계원(會計員)을 하고, 우리 며느리는 대학을 졸업했지. 며느리가 회계원을 하고 아 총지배인을 우리 아들이 맡아 하고. 그거 고발하니까 그거 싹 일 년 동안 싹 검사를 했는데 거 검사를 했는데 한 폰도 떼어 먹은 것이 없지 뭐. 그래 죄가 없이 나왔지. 그래 일 년을 일을 못 하고 고생스럽게 살았습니다. 집은 타슈켄트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젠 거기서 나와서 아,}

10201 # 기재 그담에 거기서 나와서. 절떡딸이 알마따(Алмаата) 와 글으 이르이꺼나 음 가 알래서 알마따 잇으메 공부르 시깁니다. 공부르 시기지. 고 담에 둘째딸은 한국으 시집 가구 큰딸은 모스크바(Москва)에 잇습니다. 기재구 내 딸으느 아들 둘인데 내 딸에 아들이 내 그 어전 서른너입니다. 어 내 예손재 예. 가 어려실 때 내 자래웠습니다. 모스크바(Москва) 가 산제 오랍니다. 한 십년 텨니다. 기란테 거기서 지금 일하구 아 아들 쌍디~이 아들 둘이 난 게 아들 어전 오학년 사학년씩 글으 이룹니다. 기재구 기재 모스크바(Москва) 살구. 한나느 또 둘째아들으느 알마따(Алмаата)서 대학 이룹니다. 개 알마아따(Алмаата)서 그전에느 어쨌던지 앞우르야 공부르 해야 데지. 기재 가아 대학으 이르구 그 절떡손네아 대학 이르구 하다나이 모두 알마따(Алмаата) 사지. 기재 그렇습니다. 기재구 우리느 우리 아덜으느 농사질 해마다 가는데 아아 우리 이 소 손네가 손비 싸이 들어서 예 기관일 해었습니다. 기관 일 해 별이 없지 무슨. 그 며 입살[입살]두 하나나 하지. 그래이꺼나 야덜 데리구 농장으르 잓습니다. 기재 오렌부르스끼이 오렌부

르스끼이 오블라스찌(Оренбургская область) 머업니다 거긔. 거긔 가서 거긔 고렷사람
 델 사는 텐데. 우리 메느리 오라비 거긔 살메서리 브리가질(бригадир) 따아 때가지구
 예 기야 어전은 삼연 사연째 댕게. 해마다 가섬 아 개 일곱천 야듭천 이룽기 벌어옵니
 다. 여그서는 그만한 것두 또 못 법니다. 기래 야델 가서 여름동안으 거 가 일해서 가을
 에 그만한 거 벌어 가지구 집우르 오무 집 와 레몬뜨(ремонт)르 하구 집에 동삼 또 나
 서 봄에 또 가지. 기래 가이 살기 일없지. 기래인게 금년엔 집에다 십오천주구 집우 다
 아 샀어. (웃음) 첫째 집이 잇어야 데지. 개 집우 싸구 하 한테 복잡해 모 잇습니다. 기
 래 집우 싸다나이 어저는 손네 손비 메느리가 에따(это) 손네가 손비싸이가 둘이 어전
 어 반질한[반지랑] 공장에서 일합니다.{그래 그다음에 거긔서 나와서. 막내딸이 알마티
 에 와 공부를 하니까 음 그 아이 때문에 알마티에 있으면서 공부를 시킵니다. 공부를 시
 키지. 고 다음에 둘째딸은 한국에 시집가고 큰딸은 모스크바(Москва)에 있습니다. 그리
 고 내 딸은 아들 둘인데 내 딸의 아들이 그 이젠 서른넷입니다. 내 외손자가 예. 그 아
 이 어렸을 때 내가 길렀습니다. 모스크바(Москва) 가 산 지가 오랩니다. 한 10년 됩니
 다. 그런데 거긔서 지금 일하고 아들 쌍둥이, 아들 둘을 난 것이 그 아들이 이젠 5학년,
 4학년이 되어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그래 모스크바(Москва)에 살고. 하나는 또 둘째아
 들은 알마티에서 대학을 다닙니다. 그래 알마티에서 그전에는 어쨌든지 앞으로는 공부를
 해야 되지. 그래 그 아이 대학을 공부하고 그 막내손녀 아이가 대학에서 공부하다 보니
 모두 알마티에 살지. 그래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아이들은 해마다 농사를 지
 으러 가는데 아 우리 이 손녀와 손녀사위는 둘이 예 기관(機關)에서 일했습니다. 기관 일
 해 벌이가 없지 뭐. 그 머 입에 풀칠도 하나마나지.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데리고 농장
 으로 갔습니다. 그래, 오렌부르크, 오렌부르크 관구(管區)가 여기서 법니다, 그곳이, 거긔
 가서 거긔 고려사람들이 사는 텐데. 우리 며느리 오라비가 거긔 살면서 작업반장을 하며
 땅을 떼어 가지고 예 그래 이제는 3년 4년째 다녀. 해마다 가서는 아 그래 7,000 또는
 8,000을 이렇게 벌어 옵니다. 여기서는 그만한 것도 또 못 법니다. 그래 이 아이들이 가
 서 여름 동안 거긔에 가 일해서 가을에 그만한 것을 벌어 가지고 집으로 오면 집에 와
 수선(修繕)을 하고 집에서 겨울을 또 나고 봄에 또 가지. 그래 가니 살기는 괜찮지. 그랬
 는데 금년에는 집에다 15,000을 주고 집을 다 샀어. (웃음) 첫째, 집이 있어야 되지. 그
 래 집을 사고, 한 곳에서는 복잡해 못 잇습니다. 그래 집을 사다 보니 이제는 손녀 손부
 며느리가 음 손녀와 손녀 사위가 둘이 이젠 어 바느질 공장에서 일합니다.}

10201 @ 반지?{반지?}

10201 # 예. 바느질한.{예. 바느질하는.}

10201 @ 아, 바느질하는?{아, 바느질하는?}

10201 # 예. 바느질하는 데서 우리 손비 싸이 글으 일것습니다. 이래 마르는 거.{예. 바느질
 하는 데서 우리 손녀사위가 공부를 했습니다. 이래 옷을 마르는(재단하는) 거.}

10201 @ 으, 음, 마르는 거.{음, 마르는 거.}

10201 # 반지르 마르는 거 예. 반질으 마르는 거 글으 일거서 우리 손네느 반질으 마르구. 우
 리 손네느 반지르 하구. 그래다나이 일하다나이 그래다나이 입살이하지 무스 야. 기래구
 우리 아덜으느 일 아이하구 이때까지 저 집우 거저 레몬뜨(ремонт)라 이거 레몬뜨(рем
 онт)라 이라구 잇다가, 아 아들두 동삼에 좀 차 잇습니다. 차르 가주구 좀 까지노(казин
 о) 사름이랑 신자 예산합니다. 까지노 사름이랑,{바느질을 해서 옷을 마르는 거 예. 바느

질을 하고 마르는 것(=재봉)을 공부해서 우리 손녀는 바느질을 하고. 그러다 보니 일하다 보니 그러다 보니 입에 풀칠은 하지 뭐 응.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일 아니 하고 이때까지 저 집을 그저 수리하고 이거 수리한다고 이려고 있다가, 아들도 겨울에 좀 차(車)가 있습니다. 차를 가지고 좀 카지노에 출입하는 사람을 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카지노 출입하는 사람들,}

10201 @ 까지노(казино) 사람은 은 어디 있어 그러니까?{카지노 사람은 어디 있어 그러니까?}

10201 # 까지노(казино)라는 게 무시간가 여기서 그 노름 노재입니까? 그 노름 노, 그 노시 아말.{‘카지노’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여기서 그 노름을 놀랐습니까? 그 노름 노는 데를 뜻하는 러시아 말.}

10201 @ 아! 카지노?{아! 카지노?}

10201 # 예. 까지노(казино). 그 까지노(казино)서 놀음 노 그런 데서 사람덜이 아침에 이쪽이 거기서 밤으 이라구 아침 이쪽이 오는 것두 있, 저녁에 늦어오는 것두 있구. 그거 자자아게,{예. 카지노. 그 카지노에서 노름을 하는 그런 데서 사람들이 아침 일찍이 거기서 밤을 지새우고 아침 일찍이 오는 것도 있고, 저녁에 늦게 오는 것도 있고. 그거 저 아이에게.}

10201 @ 차로 실어날르는구만 예.{차로 실어 나르는구면, 예.}

10201 # 차르 실어가구 실어오자. 기래그 차르 이시간에 금방 예따(это) 레몬뜨(ремонт)르 싹 해엿습니다. 그게 연명이(延命-이?) 받아가 차르 기양 쓰다나 차 그거 그런 거 레몬뜨(ремонт) **대하가지구 거기서 일하자 예산합니다. 예. 그러구 신용두 너무 비싸 예, 지금 시장은 매일 올라갑니다 예. 그래 비싸다나이 일해야 데지 어티게 그래. 그러재임 동삼에 집에 와 잇어삼 펜아이 글쎄 쇠다 멍년 봄에 농사질 가겠는게 내 아깁습니다, 가이덜이. 가아덜 일하자는 게 아깁습니다.{차로 실어가고 실어오자. 그리고 차를 이즈음에 금방 음 수리를 싹 했었습니다. 그게 수명을 연장해 받아서 차를 그냥 쓰다 보니 차가 그거 그렇게 된 것을 수리를 해 가지고 거기서 일하자 예산합니다. 예. 그러고 신용(信用, =상품을 사고파는 일)도 너무 비싸서 예, 지금 시장은 값이 매일 올라갑니다, 예. 그래 비싸다 보니 일해야 되지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겨울에 집에 와 있었으면 편안히 글쎄 쇠다가 봄에 농사를 지으러 가겠는데 내 안타깁습니다, 그 아이들이. 그 아이들이 일하자고 하는 것이 안타깁습니다.}

10201 @ 아! 그래두 그렇게서라두 벌어야지 머.{아! 그래도 그렇게 해서라도 벌어야지 뭐.}

10201 # 예. 그렇게라두 벌어야 데지. 그러고 나는 거저 어저는 내 그러재입니까? “성 싸구 남은 돌”이라구. 거저 어저는 베~이 없을 직이느 어디메나 아 그래도 남페이 없이 아이들 공부르 다 시키구 다 이롱기 재비르 해 놓구 내놔서 기래엿지.{예. 그렇게 해서라도 벌어야 되지. 그리고 나는 그거, 이젠 내 그러잖습니까? “성 싸고 남은 돌”(=‘더는 쓸모가 없는 존재’라는 뜻)이라고. 그거 이제는, 병이 없을 적에는, 어디나 아 그래도 남편이 없이 아이들 공부를 다 시키고 다 이렇게 자리를 잡게 해 놓고 세상에 내 놓고 그랬지(=살도록 했지).}

10201 # 기래던게 내 어저는 팔십이 넘고 어저는 열에 열에 돌 잇는 거 굳어 어티기 못 빼입니다. 그 늙어서. 그 점문이덜은 그 오빠라찌(оператъ)하구 빼입니다. 여기 베에 데데 없슴둥? 아 개이까네 내 병원에 늙었는데. 자 작년에 베~이 낫습니다. 개 그 머 팔십이

너머에 베~이 낫는데. 아아 그거 거기서 오빠라찌(операть) 하자이까는 오빠라찌(опера
 ть) 늙어서 못하짐. 기래 못하다 지에뜨(диета)르 하다나 이것두 먹지 말라 이것두 먹
 지마. 이것두 싹 음식으 가리짐. 기래 가래떡다 내 살이 싹, 늘그막에 아무게나 막 먹어
 야 데갓는데 아 그래다나이 다 살이 빠졌지. 그래 빠지구. 그담에 일하메서르 아아 일하
 메 내 위대르 마이 받았습시다, 내. 저어 제아뜨르(театр) 가서 제아뜨르(театр) 콘제르
 트(концерт)두 놀구 단오 멩절엔 여기서 단오두 세우구. 여기서 에떠(это) 우리 노인반
 에서 기렘이라: 세는데 조선말 하다나이 첸첸이 난 조선말으 하구 아아 그래다나이 잘
 세왔습시다. 그래다가서 어저는 냉게 주구 시름우 싹 낫지. 기래 어전 내 후보라는 여자
 게다 냉게 놓구 그러구 내 이제 이 동삼 집에 잇습시다. 집에. 기래 기렘이무 저레 가무
 균일집에랑 혹시 갈 데 잇어 가무 아들 실어가구 실어가구 예 재빌르 재빌르 방저이 걸
 어 못 땡기고 예.{그래던 것이 내 이제는 80이 넘고 이제는 쓸개에 쓸개에 돌이 있는 것
 이 굳어서 어떻게 못 빼냅니다. 늙어서, 그 젊은이들은 수술하고 뺏니다. 여기를 베어 내
 야만 없습니까? 아 그래 그러니까 내 병원에 누웠는데. 작년에 병이 낫습시다. 그래 그
 뉘 80이 넘어서 병이 낫는데. 아 그거 거기서 수술을 하자 하니까 늙어서 수술을 못하
 지 뉘. 그래 못 하다가 식이요법(食餌療法)을 하다가 이것도 먹지 마라, 이것도 먹지 마, 이
 것도 하며 싹 음식을 가리지 뉘. 그래 가려 먹다가 내가 살이 싹, 늘그막에 아무것이나
 막 먹어야 되겠는데 아 그렇다 보니 다 살이 빠졌지. 그래 빠지고. 그다음에 일하면서
 아 일하며 내 우대(優待)를 많이 받았습시다, 내. 극장에 가서 극장의 콘서트에도 참여하
 고 단오 명절에는 여기서 단오도 쇠고. 여기서 음 우리 노인반에서 기념(紀念)을 쇠는데
 조선말을 하다 보니 천천히 난 조선말을 하고 아 그래다 보니 잘 쇠었습시다. 그러다가
 서 이제는 노인반의 일을 넘겨 주고 시름을 싹 놓았지. 그래 이젠 내 후보인 여자에게다
 일을 넘겨 놓고 그러고 내 이제 이 겨울을 집에서 보냅니다. 집에. 그래 기념일이 되어
 이내 가면, (또) 큰일을 치르는 집에 혹시 갈 데가 있어 가면, 아들이 실어가고 실어오고
 예. 스스로 방정하게 걸어 다니지 못하고, 예.}

10201 # 균일집이라니 그 어디?{'균일집'이라는 그 어디를 말합니까?}

10201 # 균일집이라는 게 한갑이야 무스 칠십야, 팔십이야 칠십이야 한갑이야 거 여기 어전
 산 제 오라다나이 아는 사람이 많다나이 그런 데서 날 자꾸 오라함 어찌할 쉬르 없어 가
 야 데야 아들이 실어오구 실어와 예.{'균일집'이라는 것이 그게 '환갑'이요 무슨 '칠순'이
 요 '팔순'이요 '칠순'이요 '환갑'이요 하는 것인데, 거 여기서 이제는 산 지가 오래다 보니
 아는 사람이 많다 보니 그런 데서 날 자꾸 오라고 하면 어찌할 수가 없어 가야 돼 아들
 이 실어오고 실어와 예.}

10201 @ 그럴 때 갈 때 빈손으로 가요? 멀 가져가요?{'그럴 때, 갈 때 빈손으로 가요? 뭘 가
 져가요?}

10201 # 아이! 가짐. 돈이사 가져가짐.{아이! 가지 뉘. 돈이야 가져가지 뉘.}

10201 @ 얼마씩 가져가?{'얼마씩 가져가?}

10201 # 아, 그래 이백원 가져가는 데두 잇구 백원으 가져가는 데두 잇구 그렇지. 개 뺨씨(п
 енсия) 작지. 그,{아, 그래 200숨을 가져가는 데도 있고 100숨을 가져가는 데도 있고
 그렇지. 그래 퇴직연금이 적지. 그.}

10201 @ 뺨씨(пенсия) 얼마씩이나 나와요?{'퇴직 연금은 한 달에 얼마씩이나 나와요?}

10201 # 아이! 삼백워이 기계 다 도입니까? 삼백워입니다. 어째서 삼백워인가.{아이! 300숨이

그것도 돈입니까? 300숨 탑니다. 어째서 300원인가 하면,}

10201 @ 아까 어떤 집은 천 백원 탄다는데.{아까 어떤 집은 1,100숨을 탄다는데.}

10201 # 천냥으 타는 것두 잇구 구백냥으 타는 것두 잇구 팔백냥으 타는 것두 잇구 그렇기 많지. 기래 많안데, 나는 그전에 일한 거 이 푸르드보이(трудоваѳ)르 거더두재일지. 일한 거. 거 거더두재에서 그게 이 이십 이십녀이 데에야 아: 다만 엄매라두 그 뻘시(пенсия) 나오지. 그게 이십녀이 아이데이까나 어 그저 한달에 그저 백원씩 주는 그런 부에 들었지. 그애 한달에 백원 주다가 아 일백 십 냥으 주다 양백원 주다 이제 삼백원이 텃어. 기래구 또 저레 보꿈(бокoм) 쓰라 조꿈 약 싸는 계랑 도배르 해 줍니다. 그리고. 그리고 아 그래다나이 이룽기 뻘시(пенсия)하구 내 베초르까(вечёрка) 신문으 한 달에 이 른닷냥씩 한 달에 칠십 오위인데 달마다 칠십오원 달마다 삼백냥 칠십오원 제해두 그래 두 내 이거 그룽기 이르길 좋아합니다. 이르기. 신문두 없어 못 이룹니다[몬니룹니다]. 개 이르기 좋아하다나이 그 소식 아느라구. 그래 그 베초르까(вечёрка, 석간(夕刊)) 쓰다 아서 내 글으 썼습니다 예. 내게 뻘시(пенсия) 작구 내 어저 십년채 어저느 베초르까르 받는데 날 거 조꿈 절반 줌 네리와 레고뜨(льгота) 해다오 내 펜지르 썼습니다. 아이 해애 줍니다. 지내 아이 받습니다. 아이 받으이까나 황희보~이라는 그 양바이 예 교민신문 잇습니다. 여기 괴문신문으 그거 가져옴 그거 보모 한국 소식 아지. 여기 소식두 알지 [arji]. 그담 한국 신문으 가져오문 다아 알아는 못 들어두 원동서 배운 글가 조선 글에느 학문두 많구 조꿈 술어르 잘 모르지. 몰라두 그래두 그 조선 신문 보구야 내게 꼭 매 앵이 들지. 기래서 그 조선신문 한국에서 혹시 드문드문 온 적에느 황씨 개애다 나르 주지. 기래 개애다 주문 그 신문 그양 보재임. 그래구 예 한 가지 무시기 우리.{1,000숨을 타는 사람도 있고 900숨을 타는 사람도 있고 800숨을 타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많지. 그래 많은데, 나는 그전에 일한 거 이 노동 일 한 것을 거두어 두지 않지 않지(=경력으로 인정해 주지 않지). 일한 것. 거두어 두지 않아서 그게 20년이 되어야 아 다만 얼마라도 그 연금이 나오지. 그게 20년이 안 되니까 어 그저 한 달에 그저 100숨씩 주는 그런 부류에 들었지. 그래 한 달에 100숨 주다가 아 110숨을 주다 200숨을 주다 이제 300숨이 됐어. 그리고 또 그 연금과 함께 가외(加外)로 쓰라고 조꿈 약 사는 것이랑 도와줍니다. 그리고. 그리고 아 그래다 보니 이렇게 연금하고 내 석간(夕刊) 신문을 한 달에 75숨씩 한 달에 75숨인데 달마다 75숨, 달마다 300숨에서 75숨을 제해도 그래도 내 이거 그렇게 신문 읽기를 좋아합니다. 읽기를. 신문도 없어 못 읽습니다. 그래 신문 읽기를 좋아하다 보니 그 소식을 아느라고. 그래 그 석간 신문을 받아 보다가서 내가 글을 썼습니다. 내게 연금이 적고 내 이제 10년째 이제는 석간을 받는데 날 조꿈 절반 줌 내려, 내려달라고 내 편지를 썼습니다. 안 내려 줍니다. 그래서 아주 안 받아 봅니다. 안 받으니까 황희봉이라는 그 양반이 예, 교민신문이 잇습니다, 여기 교민신문을 가져오면, 그걸 가져오면, 그걸 보면 한국 소식을 알지. 여기 소식도 알지. 그다음에 한국 신문을 가져오면 다 알아듣지는 못해도 원동에서 배운 글과 조선 글에는 학문도 많고 조꿈 술어를 잘 모르지. 몰라도 그래도 그 조선 신문을 보고야 내게 꼭 마음이 들지. 그래서 그 조선 신문이 한국에서 온 적에느 황씨가 가져다 나를 주지. 그래 가져다 주면 그 신문을 그냥 보잖습니까. 그리고 예 한 가지 무엇이 우리.}

10201 @ 의자를 갖구 와야겠다. 가뵈어바 이게 안 움직인다. (조사자 의자를 옮겨 옴){의자를 가지고 와야겠다. (조사자 의자를 옮겨 옴). 가만있어 봐 이게 안 움직인다.}

10201 # 무겁아. (조사자 의자를 나르는 소리) {무거워. (조사자 의자를 나르는 소리)}

10201 # 어째! 내가 마주 앉구 싶습니까? (웃음){어째! 나와 마주 앉고 싶습니까?}

10201 @ 어어. 불편해서.{어. 불편해서.}

10201 # 팔십이 넘는 그 아매가 마주 앉아서 어찌겠습니까? (웃음) 어찌겠습니까? 예, 영. 그 래오.{80이 넘는 그 할머니와 마주 앉아서 어찌하겠습니까? (웃음) 어찌하겠습니까? 예, 응. 그리하오.}

10201 # 무시기 한 가지 예 우리 키르기스(Кыргызстан)에 사는 사램이 무시기 한 가지 나쁜가 하면 예 내 그 옴판 내 말하자 했습니다. 이 말. (마이크 조정 소음) 까자흐스탄(Казахстан)에 사는 양반덜은 예 …… (마이크 조정 소음. 대화가 일시 끊어짐). 예에! 내말 그 시시껍적 많지. 그 어찌겠습니까. 그래.{뭐 한 가지 예 우리 키르기스에 사는 사람이 뭐 한 가지가 나쁜가 하면 예 내 그 원래 내 말하려 했습니다. 이 말을. 카자흐스탄에 사는 양반들은 예 …… (마이크 조정 소음. 대화가 일시 끊어짐). 예에! 내가 하는 말에 는 그 시시하고 껍적한 것이 많지. 그 어찌하겠습니까, 그래.}

10201 # 까자흐스탄에 사는 사람은 예 우리두 원동에서 까자흐스탄(Казахстан)으 차에다 싹 게[실게]왔습니다. 가축차량 가축차라~이라는 게 무시긴가 하무 내 저기 내 시, 시르 진 것두 있습니다. 가축차량이란 게 짐스~으 싹는[실른] 그런 따와르바곤이(товарный вагон)다 우리 **싹거 왔습니다 우리. 원도~이서. 한 달 동안. 개 싹게 와서 저 스베따 아 그런 거 여기 대학에 예 그 대학에 데리구 가서 아 날 이거 원동서 아 어떤 데다 어떻게 싹게 오구 원동서 어쨌다는 그 사실으 말하랴 그거 말해아서 다아 이래 켈리비줄(телевизор)에 나왔지. 켈리비(телеви)서두 그양 배왔습니다. 내 말하는 거 예. 기래 거그다 싹게서 까자흐스탄(Казахстан)으 왔는데. 까자흐스탄(Казахстан)에 왔다가 까자흐스탄(Казахстан)서 살지 못하이 카라간다라는 데 왔다가서 따시켄트(Ташкент)르 왔습니다. 개 따시켄트(Ташкент) 왔다가 거기 들우이 이 이 비쉬케(Бишкек) 공기 낫으이꺼나 내 자꾸 앓으이꺼나 여기르 왔습니다, 오십구연에. 오십구년 여기와서 사는데 어저는 원 동서 사람덜 싹게 온 거 여기서 아 싹 어 에따(это) 그런 거 리고뜨(льгота)르 하짱니 까. 리고뜨(льгота). 노시아말으 좀 알아 듣습니까?{카자흐스탄에 사는 사람은 예 우리 도 원동에서 카자흐스탄으로 차에 실려 왔습니다. 가축 차량, 가축차량이라는 것이 무엇 인가 하면, 내 저기 내가 시, 시를 지은 것도 있습니다. 가축 차량이란 게 짐승을 싹는 그런 화차(貨車)에다 우리 실려 왔습니다, 우리. 한 달 동안. 그래 실려 와서 저 스베따 씨가 아 그런 거, 여기 대학에 예 그 대학에 데리고 가서 아 나에게 이 원동서 어떤 데 다 어떻게 실려 오고 원동에서 어쨌다는 그 사실을 말하라고 해 그거 말해서 다 이렇게 텔레비전에 나왔지. 텔레비전에서도 그냥 보여 주었습니다. 내 말하는 것을 예. 그래 거 기다(=가축 차량, 화차) 실려서 카자흐스탄을 왔는데. 카자흐스탄에 왔다가 카자흐스탄에 서 살지 못하니 카라간다라는 데로 왔다가 타슈켄트로 왔습니다. 타슈켄트로 왔다가 거 기서 들으니 이 비슈케크가 공기가 나오니까, 내가 자꾸 앓는 까답에 여기로 왔습니다, 1959년에. 1959년 여기 와서 사는데 이제는 원동에서 사람들이 실려 온 거 여기서 싹 어 음 그런 거 요금이나 납세 등을 감면(減免)을 하짱습니까? 감면. 러시아 말을 좀 알아 듣습니까?}

10201 @ 못 알아들어요.{못 알아들어요.}

10201 # 모 알아듣습니까?{못 알아듣습니까?}

10201 @ 러시아말 못 알아들어요.{러시아 말을 못 알아들어요.}

10201 # 모 알아듣재잉구, 예. 기렌데 그 음 리고뜨(льгота)라는 게.{못 알아듣고 말고, 예. 그런데 그 음 감면(減免)이라는 것이.}

10201 @ 끄라구 하세요. 끄라구 했으면 좋겠어.{끄라고 하세요. 끄라고 했으면 좋겠어.}

10201 # 무시기?{뭐?}

10201 @ 저 머 라디오르 틀었는가? 쟈레비존 컷는가? 애기가. 어어! 텔레비전 컷구나.{저 뭐 라디오를 틀었는가? 텔레비전을 컷는가? 아기가. 어! 텔레비전을 컷구나.}

10201 # 저게 쟈레비조르(телевизор)지. 그래 예 그 조선에서 온 양반덜은 예 우리 조선에서 싫겨온 삼십칠년 강제이주지 머. 강제이주. 강제이주르 싫겨[실게] 온 사람덜은 무슨 으 쫓는가 하무 아:: 에따(это) 지금 아 책으 줘서 예 이 집값이든지 가스값에 그 절반 뉘니다. 그게 리고뜨(льгота)란 쟈니다. 기래 그거 절반 뉘구 그래구 그 책으 다 줘서 아 그 책으 다 줘 리고뜨(льгота)르 어전 해마다 해마다 내 리고뜨(льгота)르 받구 예. 아 그러구 또 그런 거 한 번에 돈 천냥씨 주구 예 그 때 예. 그 책으 줄 때.{저게 텔레비전이지. 그래 예 그 조선에서 온 양반들은 예 우리 조선에서 실려 온, 1937년의 강제이주지 뭐. 강제 이주. 강제 이주로 실려 온 사람들은 무엇을 주었는가 하면 아 음 지금 아 책(=證書)을 줘서 예 이 집값이든지 가스 값을 절반을 문단 말입니다. 그게 ‘리고트’란 것입니다. 그래 그거 절반을 뉘고 그리고 그 증서를 다 줘서 아 그 증서를 다 줘 감면(減免)을 이제는 해마다 해마다 내가 감면을 받고 예. 아 그리고 또 그런 거, 한 번에 돈 1,000숨씩 주고 예 그 때 예. 그 증서를 줄 때.}

10201 # 기렌데 어저는 까자흐스탄(Казахстан)가 로시아(Россия)에서느 예 어저는 우리 아 우리네 원동으 떠나올 적이 집이구 무시기 쉘에뿌리구 오재엿습니까? 아 세 소또까 어간 을르 차에다 막 실어다가서 이 강제이주루 그때 스탈린(Сталин) 때 예. 기래 싫게[실게] 오다나이 아 거저 살던 세간살이 무시기구 쉘 쉘에뿌리구 거저 가축이라는 게 대애 질 재래우는 사람은 대애질 잡아먹게나 가져오구 예 아 세르 재래우는 건 세랑 무스 이런 거 더러 잡기두 하구 아이 잡기두 하구 기래. 그래서 그저 거반 그저 재비 살던 집이구 무 기구구 쉘 쉘에뿌리구 왔지. 그거 까자흐스탄(Казахстан)에서 물어 줍니다. 그거 까자흐스탄(Казахстан)에서 물어주는 데 예, 아, 이름 성명 어떻습니까?{그런데 이제는 카자흐스탄과 러시아에서는 예 이제는 우리, 우리네 원동을 떠나올 적에 집이고 무엇이고 다 내던지고 오지 았았습니까? 아 3소트카(=300m) 사이로(간격으로) 차에다 막 실어다가 이 강제 이주로 스탈린 때 예. 그래 실려 오다 보니 그저 살던 세간이고 무엇이고 쉘 내던지고 그저 가축이라는 것이 돼지 기르는 사람은 돼지를 잡아 먹게 해서 가져오구 예 아 소를 기르는 사람은 소랑 뭐 이런 거 더러 잡기도 하고 안 잡기도 하고 그래. 그래서 그저 거의 그저 자기 살던 집이고 뭐 기구고 쉘 내던지고 왔지. 그거 카자흐스탄에서 물어 줍니다. 그거 카자흐스탄에서 물어 주는데 예, 아, 이름 성명은 어떻습니까?}

10201 @ 저요?{저요?}

10201 # 말은 해애두 지금,{서로 말은 해도 지금,}

10201 @ 그렇지요. 예.{그렇지요. 예.}

10201 # 이름도 모르구 예. 내 이름은 영혜입니다. 윤 영혜. 조선 이름은 내 암판 영혜입니다. 개노시아 이름은 베로니까(Вероника)란.{예 이름도 모르고 예. 내 이름은 영혜입니다. 윤 영혜. 조선 이름은 내 본래 영혜입니다. 이름은 러시아 이름은 베로니까라고.}

10201 # 그러구 이름은 *얼 재 재르 어티기 씩니까? 성으느 소개구,{그리고 이름은 어떻, 자(字), 자(字)를 어떻게 씩니까? 성은 소가(蘇哥)이고,}

10201 @ 예:{예.}

10201 # 이름은 어티기?{이름은 어떻게?}

10201 @ 강춘요. 강춘.{강춘(江春)요. 강춘.}

10201 # 강추이라구?{강춘이라고?}

10201 @ 강, 강.{강(姜), 강(姜).}

10201 # 예?{예?}

10201 @ 강춘.{강춘.}

10201 # 강추이라구 예. 강추이. 그래 내 얘기르 듣구 예 아 이거 들어두 글썸 한국에서 …… (차(茶)를 가져옴){강춘이라고 예. 강춘. 그래 내 얘기를 듣고 예 아 이거 들어도 글썸 한국에서 …… (차(茶)를 가져옴)}

10201 @ 고맙습니다.{고맙습니다.}

10201 # 예. 이제 차일 마십시오. 이제 스베따 말한 게 점심 잡삿 …….{예. 이제 차를 마십시오. 이제 스베따 말한 것이 점심을 잡수셨 …….}

10201 # 뽀시(пьёшь), 뽀쨌. 아 날래 차이(чай) 마십쇼, 야. 기래 예 기래 내 무슨 말하자 하는가 하문 지금 거 까자그스탄(Казахстан)에 너릅니다. 까자그스탄(Казахстан) 지대. 까자그스탄(Казахстан)가 로시아(Россия)에서 사는 사람은 그 재비 집이구 그 재비 이 무쨌스뜨바(имущество) 다아 두구 온 거 예 그거 값으 물어 줍니다. 값으 물어주는 데 팔십먹은 사람부터 먼저 주는데 내 동새애 팔십입니다. 알마아따(Алмаата)에 잇습니다. 기랜게 백천으 탕습니다. 까자끄 돈으르 백천으 탕습니다. 개 백천으 탕는데, 이돈은 어티끼 탕는가무 이제 가르 알았습시다 그돈.{(손님이) 차를 마신다, 마신다. (조사자에게) 아 얼른 차를 마십시오, 응. 그래 예 그래 내가 무슨 말을 하려 하는가 하면 지금 거 카자흐스탄이 너릅니다. 카자흐스탄 지대가. 카자흐스탄과 러시아에서 사는 사람은 그 자기 집이고 그 자기 재산(財産)을 다 두고 온 거 예 그거 값을 물어줍니다. 값을 물어주는 데 80 먹은 사람부터 먼저 주는데 내 동새애 80입니다. 알마티에 잇습니다. 그런데 10만 텡게(카자흐스탄의 화폐)를 탕습니다. 카자흐 돈으로 10만 텡게를 탕습니다. 그래 10만 텡게를 탕는데, 이 돈은 어떻게 탕는가 하면 이제 막 알았습시다, 그 돈.}

10201 # 나는 그저 까자흐스탄(Казахстан)서 주는가: 헛데이 야, 우리 한국에서, 한국에 서울에서 예에 까자그스탄(Казахстан) 대통령이 나자르바에브(Назарбаев)입니다, 나자르바에브(Назарбаев)인데르 한국에서—요거 잡수시오, 요거. 예, 예.—아 그 거그 그 나자르바에브(Назарбаев) 예 게르 우리 한국에서 돈 보냈다 합니다. 조선사람덜 돈 주라구. 기래 보낸 거 어언 때 오란 거 이때꺼지 아이 주구 잇다 예. 그담에느 까자그스탄 사람 한국에 나갓지. 서울에 가 알아보이까 그런 사실이지. 기래 그 사람이 기랫지—아 이거 차이 씩아서, 이거—기래 기래지. 어떻게 대서 우리 조선에서 우리 조선사람 위해서 조선에서 돈으 보냈는데 네 이때꺼지 어찌 아이 주는가구. 주갓다구. 기래 불쨌르 작년부터 주는데 아 내 동새애게서 내 알마아따(Алмаата)서 백천 탕습니다.{나는 그저 카자흐스탄에서 주는가 헛더니, 응, 우리 한국에서, 한국의 서울에서, 예,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나자르바에프입니다, 나자르바에프한테로 한국에서—요거 잡수시오, 요거. 예, 예.—아 그 거기 그 나자르바에프에게로 예 우리 한국에서 돈을 보냈다 합니다. 조선 사람(=고려사람)들

에게 돈을 주라고. 그래 보낸 거 어느 때인가 오래 된 것을 이때까지 안 주고 있다
예. 그다음에는 카자흐스탄 사람이 한국에 나갔지. 서울에 가 알아보니까 그런 사실이
있지. 그래 그 사람이 그랬지—아 이거 차가 써서, 이거—그래 그러지. 어떻게 돼서 우리
한국에서 우리 고려사람을 위해서 한국에서 돈을 보냈는데 내 이때까지 어찌 돈을 안 주
는가 하고. 그러니까 주겠다고. 그래 갑자기 작년부터 주는데 아 내 동생에게서 알마티
에서 10만 뎅게를 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10201 # 내 멘목 아는 사람덜이 늙으이덜이 백천씨 탐니다. 아아 그래 타는데, 아아 까자끄스
판서 그렇게 타고 로시야에서, 로시야선 로시야선 어티기 주는가 모릅니다. 까자끄스판
(Казахстан)은 우리 조선에서 줘서. 개 우리 서울에서 돈으 줘서 그렇기 타지. 그러나
우리사 끼르끼스스탄에느 우리 조선사람은 아이 싫게[실게] 와서 아이 받았습니다. 이거
내 말 뽉뽉이 들으십시오. 까자끄스판(Казахстан)은 살론(салон)이다 막 싫게[실게]
까자끄스판(Казахстан) 사람 그거 받았습니다. 받아서 막 이렇기 저 집에 없으이꺼나
짐승굴에두 거더 영구 쿨루부(клуб)두 거더 영구 막 거더 영지. 우리네두 오이까나 쿨루
부(клуб)다 거더 영엇습니다. 아아,{내가 면목을 아는 사람들이, 늙은이들이 10만 뎅게
씩 탐니다. 아, 그렇게 타는데, 아 카자흐스탄에서 그렇게 타고 러시아에서, 러시아에서
는 어떻게 주는지 모릅니다. 카자흐스탄은 우리 한국에서 돈을 줘서. 그래 우리 서울에
서 돈을 줘서 그렇게 타지. 그러나 우리야 키르기스스탄에는 우리 조선 사람은 안 실려
와서 못 받았습니다. 이 내 말을 뽉뽉히 들으십시오. 카자흐스탄은 객실에 막 실려 와
카자흐스탄 사람은 그 돈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막 이렇게 저 집에 없으니까 짐승 우리
에도 거두어 넣고 클럽에도 거두어 넣고 막 거두어 넣지. 우리네도 오니까 클럽에다 거
두어 넣엇습니다. 아아,}

10201 @ 쿨루부(клуб)느 어떻게 생긴 거야? 그냥,{클럽은 어떻게 생긴 거야? 그냥}

10201 # 예?{예?}

10201 @ 쿨루부(клуб)느.{클럽은.}

10201 # 쿨루부(клуб)라구 **무신까 ***에커나, 에 우리 에떠(это) 모다 노는 노는 집이 잇
재입니까? 이제. 그런 집이라 빈데 잇으이꺼나 예. 아, 그래 집은 없지. 살론(салон)이다
불썰르 실겨 약대 파레다 실어서 예 약대 파레 실어갓구 꼴루부(клуб)에다 막 끌어영엇
습니다. 그래 끌어 영으이 거기서, 야아! 더 말이 잇습니다. 많은 고상했지. 노인덜은 늙
은 노인덜은 베~이 잇는 거느 기래 앓아 상새나는 것두 잇구 아덜두 베~이 나 죽는 것두
잇구 그랬짐.{클럽이라고 무엇이 잇는가 하면, 에 우리가 모여서 노는 집이 잇잖습니까?
이제. 그런 집이 빈 데가 잇으니까 예. 아, 그래 이주민이 들 수 잇는 집은 없지. 객차에
갑자기 실려 와 낙타가 끄는 발구에 실어서 예 낙타 발구에다 실어 클럽에다 막 끌어 넣
엇습니다. 그렇게 끌어 넣으니 거기서, 야! 더 말이 잇겠습니까? 많은 고생을 했지. 노인
들은 늙은 노인들은 병이 잇는 사람은 그래 앓아서 죽은 사람도 잇고 아이들도 병이나
죽은 것도 잇고 그랬지 뭐.}

10201 # 내 저 췌레비조르(телевизор)다 그렇기 말했습니다. 그렇기 많이[마이] 그래구, 그
저 점문이덜은 숨우 질긴 건 살아나서 자기 살 길으 찾아서 여기저기 가서 재빌하구 살
앗지. 기래 살아 예기 네레온 겹니다. 삼십칠년. 기랫는데 까자흐스탄(Казахстан)서 그
런 거 막 받구 예, 아, 아 우즈벡스판(Узбекистан)서두 우즈벡스판(Узбекистан)은 받
앗는데. 그 우즈벡스판(Узбекистан) 대통령은 아이 준답니다, 조선사람. 기란데 우리 끼

르끼스 대통령이 우리르 아이 받았습시다. 하나두 살론(салон) 실어온개 없슴. 아이 받구 싹 다 재빌르 왓습시다. 자길르. 자길르 따시켄트르 오구 *까라 까자흐스탄(Казахстан)을 오구 사처에서 자기르 모다서 어전 이집 이처에서 사지 예. 기래 여저는 그렇기 사는데 여기서 아: 그거 그거 아이 받아두 우리르 그 책을 주구 리고뜨(льгота)하는 건 아 여기 대통령이 우리르 줏습시다.{내가 텔레비전에서 그렇게 말했습시다. 그렇게 많이 그러고, 그저 젊은이들은 목숨이 질긴 사람은 살아나서 자기 살 길을 찾아서 여기저기 가서 살 자리를 마련하고 살았지. 그렇게 살아서 여기까지 내려온 것입니다. 1937년. 그랬는데 카자흐스탄에서 그런 거(=감면(減免)) 막 받고 예, 아, 아 우즈베키스탄에서도 우즈베키스탄은 받았는데. 그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은 안 준답니다 조선 사람에게. 그런데 우리 키르기스 대통령은 우리를 안 받았습시다. 하나도 객차에 실어 온 것이 없습시다. 고려사람을 안 받아 싹 다 제 스스로 왓습시다. 자기 스스로 타슈켄트로 오고 카자흐스탄으로 오고 사처(四處, =사방)에서 자기 스스로 모여서 이젠 이 집 이곳에서 살지 예. 그래 이제는 그렇게 사는데 여기서 아 그거 아 그거 안 받아도 우리에게 그 이주민이라는 증서를 주고 요금이나 납세 등을 감면(減免)하는 건 아 여기 대통령이 그렇게 우리에게 해 주었습시다.}

10201 # 기래 나두 책두 타구 지금 내 지금 내 가스두 절반 값으 물구. 무시기든지 절반 값으 물니다. 기래 물구 그거는 우리 우리 이 키르기스스탄(Кыргызстан) 대통령이 그 우리에게 줏는데. 어전 이 이 여저는 집이구 무시기구 물건 다 데디구 와 이 주는 돈으는 까자흐스탄으는 까자흐스탄서 알마아따(Алмаата)서 지금 주는 거는 예, 잠불(Джабул)에두 조선사람이 많습시다, 그래 주는 거는 우리 서울에서 한국에서 돈으 나자르바에브(Назарбаев)게르 줏답니다. 조선사람덜 이거 주라는 거 예. 기래서 그거 준답니다.{그래 나두 책도 타고 지금 내 지금 내 가스도 절반 값을 물고. 무엇이든지 절반 값을 물니다. 그래 물고 그것은 우리 우리 이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이 우리에게 주었는데 이제는 이 이제는 집이고 무엇이고 다 버리고 왔다고 해서 주는 이 돈은 카자흐스탄은 카자흐스탄에서 알마티에서 지금 주는 것은 예, 잠불(현재, 따라즈)에도 조선 사람이 많습시다, 그래 주는 것은 우리 서울에서 한국에서 돈을 나자르바에프에게로 주었답니다. 조선 사람들에게 주라는 것을 예. 그래서 그거 준답니다.}

10201 # 그러나 까자흐스탄(Казахстан)으는 아 조선사람 받았지만 이 사람은 받게엿습시다. 받게에두 우리 리고뜨(льгота)르 줏니다. 그래 서울에서 아 한국에서 아무리 잘 살아두 아 돈으 어떻게 나라마다 다야 주겠습니까. 우린데두 우린데두 조선인미이 암마이 사는데 …… (손자에게) 야! 이거 다치지 마라! 니뜨로게이드(не трогай)! …… . 여기두 조선인미이 암마이 사는데 여기두 그거 주라구 결정이 아 그런 나구야 주지. 아이 재비두 살기 바쁜게 무슨 조선사람게 주잡니까. 개 우린 그거 못 탑니다. 못 타고 있습니다. 그래 그거 글썸 그거. (차 마시는 소리) {그러나 카자흐스탄은 아 조선 사람이 받았지만 이 사람은 받지 않았습시다. 받지 않아도 우리 감면(減免)을 해 줏니다. 그래 서울에서 아 한국에서 아무리 잘 살아도 아 돈을 어떻게 나라마다 주겠습니까. 우리한테도 우리한테도 조선 인민이 얼마만큼 사는데 …… (손자에게) 야! 이거 건드리지 마라 …… . 여기도 조선 인민이 얼마만큼 사는데 여기도 그거 주라고 그런 결정이 나아만 주지. 아니, 자기도 살기 바쁜 것이 무슨 조선 사람에게 주려고 합니까. 우리 그거 못 탑니다. 못 타고 있습니다. 그래 그거 글썸 그거. (차 마시는 소리)}

10201 @ 저는 이것만 먹는 게 나은 거 같아요.{저는 이것만 먹는 것이 나은 것 같아요.}

10201 # 아이! 고거 잡수십시오,{아이! 고거 잡수십시오.}

10201 # 기래 예. 그래 글썸 우리 예, 요, 요런 거 잡수소. 그래 우리 아이! 까자흐스탄(Казахстан)에서는 한국에서 돈으 보내서 조선사람덜 그렇기 주라 해서 기래 줏는데 우리는 키르기스스탄(Кыргызстан)서 어찌기 또 그우 키르기스스탄(Кыргызстан) 또 돈으 보내에서 거그 조선인민덜 주라 하겠습니까? 그게 그래 차 식재엿습니까? 아이 식엇지? 마셔.{그래 예. 그래 글썸 우리 예, 요런 것 잡수십시오, 그래 우리, 아이! 카자흐스탄에서는 한국에서 돈을 보내서 조선 사람들에게 그렇게 주라고 해서 그래 주었는데 우리는 키르기스스탄에서, 어떻게 또 그 키르기스스탄으로 돈을 보내서 거기 조선 인민들에게 주라고 하겠습니까? 그게 그래 차가 식지 않았습니까? 안 식엇지? 마셔.}

10201 # 기래 그담에 내 기래지. 내같이 팔십 먹은 늙은이덜이 여기 많습니다. 많이[마이] 삽니다. (차 마시는 소리) 그래~ 우리 조서이 서울은 잘 살지. 서울은 잘 사는데 잘 살아 두…… 어티끼 국가마다……. (손자에게) 야! 이거 다치지 마라, 빠샤. 국가마다 돈 대이 겿습니까. 그렇재입니까? 내 기래 그 얘:기르 합니다. 까자흐서 쥐두 까자흐 대통령이 자기 돈 주는 계랑 우리 조선에서 보내엿다구 아 그거 감사한 일입니다. 조선에서, 음 까자흐스탄(Казахстан)에 조선사람 마이 삽니다 예. 까자흐스탄(Казахстан)에 조선인미이 그렇기 많습니다. 개구 조선은 대사관두 지금 알마타(Алмаат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음 이 키르기스스탄(Кыргызстан)은 키르기스스탄(Кыргызстан)아부라 어띠끼 돈으 대에 주겠습니까? 예. 그렇재입니까? 예. 도이 많다.{그래 그다음에 내 그러지. 나같이 80을 먹은 늙은이들이 여기에 많이 삽니다. (차 마시는 소리) 그래 우리 조선이 서울은 잘 살지. 서울은 잘 사는데 잘 살아도 …… 어떻게 국가마다 …… (손자에게) 야! 이거 다치지 마라, 빠샤. 국가마다 돈을 대겠습니까. 그렇잖습니까? 내 그래 그 얘기를 합니다. 카자흐에서 주어도 카자흐 대통령이 자기 돈 주는 것이 다 우리 조선에서 보냈다고. 아 그거 감사한 일입니다. 조선에서, 카자흐스탄에 조선 사람이 많이 삽니다 예. 카자흐스탄에 조선 인민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대사관도 지금 알마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음 이 키르기스스탄은, 키르기스스탄조차 어떻게 돈을 대 주겠습니까. 예. 그렇잖습니까? 예. 돈이 많다고 해도.}

10201 @ 그면은 그 **연동에 살 적에, 그 근동에 살 때요. 그때는 그 아버지랑 어머니랑은 무슨 일 하셨어요?{그러면 그 원동에 살 적에, 그 원동에 살 때요. 그때는 그 아버지랑 어머니랑은 무슨 일 하셨어요?}

10201 # 촌에 산 게 농사질했지 며. 촌에 산 게. 아버지랑 어마이랑 싹 농사질했지. 촌에 산 게.{촌에 산 사람이 농사를 지었지 뭐. 촌에 산 사람이. 아버지랑 어머니랑 모두 농사를 지었지. 촌에 산 사람이.}

10201 @ 무슨 농사질으 했어요 주로 그때는, 거기서는?{무슨 농사를 지었어요 주로 그때는, 거기서는?}

10201 # 풀호즈.{콜호스(집단농장).}

10201 @ 예?{예?}

10201 # 풀호즈.{콜호스(집단농장).}

10201 @ 풀호즈(колхоз)가 뭐예요?{콜호스가 뭐예요?}

10201 # 자체조합으.{자체 조합을.}

10201 @ 아아! 자체조합. 그럼 이자 그 그 심 승궁 건 주로 머 머 싱겼어요?{아! 자체 조합. 그럼 이제 그 그 심는 것은 주로 무엇을 심었어요?}

10201 # 조이두 시무구 피난두 시무구 베두 시무구. 그래 여러 가지 곡식의 승것지 예. 그러 구 아: 그전에 개인 농살 때느 개인농사르 할 때느 따아 재비르 파구서 그저 무시기나 다아 싱귀서 그랬지. 그러나 마감에는 자치조합이 데이까네 조합에다서 다 그런 거 예따 (это) 증승덜 조합에 싹 영구 예 조합에다 증승덜 싹 거더 영구. 그담에 조합에서 일해서 거기서 타먹구 그랬지. 원도서 마감에느. 그담 우리 그 조합으르 싹겟[실겟]습니다. 예, 그 조합을르 해서 삼십칠년 삼십칠년 싹게[실게]왔습니다.{조도 심고 피[稗]도 심고 벼도 심고. 그래 여러 가지 곡식을 심었지 예. 그리고 아 그전에 개인 농사를 지을 때에는 개인 농사를 지을 때에는 땅을 스스로 파고서 그거 무엇이냐 다 심어서 농사를 지었지. 그러나 마지막에는 자치 조합(집단농장)이 되니까 집단농장에다 가 그런 거 음 짐승 들을 집단농장에 싹 넣고 예 집단농장에다 짐승을 모두 거두어 넣고. 그다음에 집단농장에서 일해서 거기서 식량을 타 먹고 그랬지. 원동에서는 마지막에는. 그다음 우리는 그 집단농장을 중심으로 실려 왔습니다. 예, 그 집단농장으로 해서 1937년, 1937년에 실려 왔습니다.}

10201 @ 그면은 조합으로 데기, 텔 때가 살기가 좋았어요? 개인으르 살기가, 살 때가 좋았어요?{그러면 집단농장으로 되기, 되었을 때가 살기 좋았어요? 아니면 개인으로 살기가, 살 때가 좋았어요?}

10201 # 아 (기침) 개인으르 살 직이사 그게사 무슨 자본가나 다름애 없지 무슨. 개인으르 살 때느 세 그저 세구 말이구 무시기구 싹 그저 재빗 거 거더 가지구 예 그담에 그거 가지구 자기 세르 가지구 발갈이르 하구 재비 말술기 잇구 그렇기 살았지. 기래 그제 개인 개 개인농사라는 게지. 그전에 옛날에. 삼십삼년도 삼십년도 삼십이년도 그때애 기랫: 지.{개인으르 살 적에야 그거야 뭐 자본가나 다름이 없지 뭐. 개인으르 살 때는 소, 그저 소고 말이고 무엇이고 싹 그거 자기 것을 거두어 가지고 예 그다음에 그거 가지고 자기 소를 가지고 발갈이를 하고 자기 말 수레가 있고 그렇게 살았지. 그래 그제 개인 개인농사라는 것이지. 그전에 옛날에. 1933년도, 1930년도 1932년도 그 때애 그랬지.}

10201 # 그담에는 삼십오연이 텃거나 예 삼십오연이 데이 예 어저느 자체조합이라는 거 맨드 렷습니다. 개 자치조합이라는 거 맨들어 그 증스이랑 싹 조합에다 싹 거더영엇지. 말이 구 세구 조합에다 싹 거더 영구. 거더영구 그담 낮에 나와 조합일 하지. 조합일 하는데 조합에서느 아: 무스거 요구 데는 거 시무지. 무시기던지. 지금 계납(конопля)을 한국에서 지금 계납우 시무재입니까? 그래서 그래무 따시켄트(Ташкент)같은 데서느 계납(конопля)이라는 게 무시긴가 하무 꺾질 발가 가지구 그거 짜서 헝겊이랑 맨드는 거 그제 게나부(конопля)입니다.{그다음에는 1935년이 됐거나 예 1935년이 되니 예 이제는 집단농장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 집단농장이라는 것을 만들어 그 짐승이랑 모두 집단농장에다 싹 거두어 넣엇지. 말이고 소고 집단농장에다 싹 거두어 넣고. 거두어 넣고 그다음에 낮에 나와 집단농장의 일을 하지. 집단농장의 일을 하는데 집단농장에서는 아 무슨 농장에서 요구되는 것을 심지. 무엇이든지. 지금 삼을 한국에서 지금 삼을 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타슈켄트 같은 데서는 삼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꺾질을 발라 가지고 그거 짜서 천이랑 만드느 거 그것이 삼입니다.}

10201 @ 머, 헝겊으 만드느 거요?{뉘, 천을 만드느 거요?}

10201 # 예. 그거 한국에서 시뭍니다. 짐 그거는 예.{예. 그거 한국에서 심습니다. 지금 그것은 예.}

10201 @ 그 그 머야 목화 아니고?{그 그 뭐야 목화 아니고?}

10201 # 목하는 우지벡판(Узбекистан)에서 목하르 시무지 야. 목하야 심어 뜯어서 기래는 게지. 이거는 게나부(конопля)는 이르게 키 크기 삼쳐르 자래워서 그거 빼에서 그거 빼에서 꺾지르 발가서 그 꺾지르 가주구 싸악 그거는 우리 따시켄뜨(Ташкент) 조합에서는 게나부(конопля)르 빼에서 국가다 바치지. 국가서 그거 가지구 맨드지. 켄테 이 조선에서는 텔레비조르(телевизор)에서 보무 그거 어찌는가, 게나부(конопля)르 빼에서 아아 꺾지르 바르는 거 배우구 그담에 그 그 실으 맨들어서 그 실으 가지구 짜지. 헝겊, 헝겊 짜는 거. 한국은 어찌 깨엿다 하는가 하무 야 그담에 짜무 그게 헝겊이 힌 게 싹 데지. 헝겊,{목화는 우즈베키스탄에서 목화를 심지, 응. 목화는 응 심어서 (송이를) 뜯어서 옷감을 짜는 것이지. 이 삼은 이렇게 키가 크게 삼처럼 길러서 그거 베어서 그거 베어서 꺾질을 발라서 그 꺾질을 가지고 싹, 그거는 우리 타슈켄트 집단농장에서는 삼을 베어서 국가에 바치지. 국가에서 그거 가지고 (천을) 만들지. 그런데 이 조선에서는 텔레비전에서 보면 그거 어찌하는가 하면, 삼을 베어서 아 꺾질을 바르는 거 보여 주고 그다음에 그 실을 만들어서 그 실을 가지고 천을 짜지. 천, 천 짜는 거. 한국은 어찌서 깨엿다 하는가 하면 응 그다음에 짜면 그게 천이 흰 것이 싹 되지. 천.}

10201 @ 아아! 모시. 모시.{아! 모시. 모시.}

10201 # 네. 옳소. **머. 힌 거 덴데다 예 그거 물으 맥에야 데갯는데 따야 파구 따에서 그 흙으 개애다 그 흙으 그거 어 끓에서 거질해서 어티기 데 물으 베게 말리워서 칠으 내지. 기래 칠으 내서 그거 가지구 이복하는 거랑 배우구. 깨엿습니다, 어쨌든지. 어쨌든지 예 내 이 켈레비조르(телевизор) 보이 내 많이[마이] 압니다. 그러나 우리 아덜은 모두 탕구 바두 밤중이지. 내 아지. 아 그래 그거 저거 보구 무스그 가마이 봄 아주 발달했습니다. 우리 조서이 발달했습니다. 이 노시아서 못 따릅니다, 못 따릅니다, 노시아서 예. 그렇게 발달하고. 아아 아주 조서이 깨엿습니다. 조서이{네. 맞소. 모(시). 흰 것으로 짜인 천에다 예 그거 물감을 먹여야 되겠는데 땅을 파고 땅에서 그 흙을 가져다 그 흙을 그거 어 끓여서 걸러서 어떻게 되어 물감을 먹여 말려서 색(色)을 내지. 그래 색을 내서 그거 가지고 의복하는 것이랑 보여 주고. 깨엿습니다. 한국이}

10201 @ 그럼 여기에 도착하신 거 아까 그 알마타에 맨침에 타 타시켄뜨르 맨 침에 오셨다고요? 맨 처음에 맨 맨 처감악에 도착한 대가 따 따쉬켄트에요?{그럼 여기에 도착하신 것이 아까 (말씀하시기를) 그 알마타에 맨 처음에, 타슈켄트에 맨 처음에 오셨다고요?}

10201 # 까자그스판(Казахстан){카자흐스탄.}

10201 @ **까자르판?{카자흐스탄?}

10201 # 까자그스판(Казахстан)! 까자그스판(Казахстан) 도착했는데 제 살길 찾아 따시켄뜨(Ташкент) 재빌르 왔지. 개 따시켄뜨(Ташкент) 재빌르 와서 거기서 잇, 거기서,{카자흐스탄! 카자흐스탄에 도착했는데 제 살길을 찾아 타슈켄트로 스스로 왔지. 그래 타슈켄트로 스스로 와서 거기서 있다, 거기서.}

10201 @ 거기서는 무슨 농사했어요? 무슨 농사?{거기서는 무슨 농사를 지었어요? 무슨 농사?}

10201 # 또취(тоже) 그게 조합이짐. 조합이. 큰 조합이짐. 따시켄뜨(Ташкент)에 큰 조합이

지. 목하두 시무구. 이 케나부(конопля)두 시무구. 아:, 그러구 아 그답에 매일 그 밭에 나가 목하나 그 케나부(конопля) 싱귀서 그 일하는 거 그 일한 쉬고 어 그거 받아서 그 어 기관에서 돈으 타지. 그렇기 살 그렇기 살지 며 예.{역시 그게 집단농장이지 뭐. 집단농장. 타슈켄트에 있는 큰 조합이지. 목화도 심고. 이 삼도 심고. 아, 그러고 아 그다음에 매일 그 밭에 나가 목하나 그 삼을 심어서 그 일하는 거, 그 일한 수고 아 그 수고의 대가를 받아서 그 어 기관에서 돈을 타지. 그렇게 살, 그렇게 살지 뭐 예.}

10201 @ 그럼 그때두 그때두 먹구 사는 거, 주로 며 먹었어요? 그때 쌀 먹었어요 밀 먹었어요?{그럼 그때도 먹고 사는 것은, 주로 무얼 먹었어요? 그때 쌀을 먹었어요 아니면 밀을 먹었어요?}

10201 # 에에?{에?}

10201 @ 그때 먹을 때 쌀밥 먹었어 밀 같은 거 먹었어?{그때 먹을 때 쌀밥을 먹었어 아니면 밀 같은 것을 먹었어?}

10201 # 쌀으 먹었지이.{쌀을 먹었지.}

10201 @ 그문 쌀으 쌀농사 **쌀아두 농사졌어요?{그러면 쌀을 쌀농사, 쌀도 농사를 지었어요?}

10201 # 베두 징지. 베두 따시켄뜨(Ташкент)에선 베두 징습니다. 아 기래 따시켄뜨(Ташкент), 지금 따시켄뜨(Ташкент) 쌀이 좋습니다. 베르 시무다나이, 예. 여기서 베르 아이 시무지. 따시켄뜨(Ташкент) 덤운 지대나 각지에서 조선사람덜 벼농사질하짐. 우리두 거 그서 벼농사질 했습니다. 베르 싱긔습니다, 예. 개 베밭에 가 베르 싱귀 일으 해애두 그 게 싹 조합농사지 개인농사 아이짐.{벼농사도 짓지. 벼도, 타슈켄트에서는 벼도 짓습니다. 아 그래 타슈켄트, 지금 타슈켄트의 쌀이 좋습니다. 벼를 심다 보니 예. 여기서 벼를 안 심지. 타슈켄트 더운 지대나 각지에서 조선 사람들이 벼농사를 짓지 뭐. 우리도 거기서 벼농사를 지었습니다. 벼를 심었습니다 예. 그래 논에 가 벼를 심고 일을 해도 그건 모두 집단농장의 농사지 개인 농사가 아니지 뭐.}

10201 @ 그면은 벼농사를 지으무 그것은 결국은 그 조합에서 싹 가져가?{그러면 벼농사를 지으면 그것은 결국은 그 집단농장에서 싹 가져가?}

10201 # 조합에서 쌀으 개다 찢어서 가 우리 그거 노르마(норма)르 타지. 우리 그거 타짐 예. 기래 거 한 사람이 일으 얼마르 해애시니까나 그 쉬고~이가 얼마씨 나간다는거 타서 그래: 먹었짐. 기래이께네 게 조합이짐. 크은 자치조합이짐, 예.{집단농장에서 쌀을 가져다 찢어서 가 우리 그거 임금을 타지. 우리 그거 타지 뭐, 예. 그래 그 한 사람이 일을 얼마를 했으니까 그 수공(手工)이 얼마씩 나간다는 거 계산해 타서 그래 먹었지 뭐. 그러니까 그게 조합이지 뭐. 큰 자치조합이지 뭐, 예.}

10201 @ 그면은 일으 열심히 하는 사람두 있구.{그러면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고.}

10201 # 그랴.{그래.}

10201 @ 일으 쪼끔 하는 사람두 잇잖아,{일을 쪼끔 하는 사람도 잇잖아,}

10201 # 그러재잉구. 그러자.{그렇고 말고. 그렇지.}

10201 @ 그면 돈 똑같이 **줄 쥐?{그러면 돈을 똑같이 나누어 쥐?}

10201 # 똑같이[똑까찌] 아이 줍니다. 똑같이[똑까찌] 줌 옹재잉지. 일한 거 마이 주짐. 한 거마이. 일 잘하는 사람은 마이 주구 작게 한건 작게 주구. 그렇게 주는 게 옹지 며. 예 그래짐.{똑같이 안 줍니다. 똑같이 주면 옹지 않지. 일한 사람에게 많이 주지. 한 것만큼.

일 잘하는 사람은 많이 주고 적게 한 사람은 적게 주고. 그렇게 주는 것이 옳지 뭐. 예 그러지 뭐.}

10201 # 이 차 식어. 날래 마십소.{이 차 식어. 얼른 마십시오.}

10201 @ 중국은, 중국은 똑같이 줬대요.{중국은 중국은 똑같이 주었대요?}

10201 # 예, 중국으느. 음.{예, 중국은. 음.}

10201 @ 그러니까 일으 안 하는 거야. 똑같이 주니까.{그러니까 일을 안 하는 거야. 똑같이 주니까.}

10201 # 아이! 중국으느 일년에 농사르 두 번 짓지. 중국으느.{아이! 중국은 일 년에 농사를 두 번 짓지. 중국은.}

10201 @ 북, 남쪽은 그렇지만 북쪽은 안 그래요. 북쪽은 한번 밖에 못 짓지. 그러구.{북 아니 남쪽은 그렇지만 북쪽은 안 그래요. 북쪽은 한 번밖에 못 짓지. 그러고.}

10201 # 아, 그러구 북조선에서는 그저 한가지지. 그저 잘 사나 못 사나 거저 같이 맥여 주구 같이 입혀 주구, 북조선이야 그저 그렇지.{아, 그러고 북한에서는 그저 한가지지. 그저 잘 사나 못 사나 그저 같이 먹여 주고 같이 입혀 주고. 북한이야 그저 그렇지.}

10201 @ 그러니까 일으 안 하니까 가난해지는 거지.{그러니까 일을 안 하니까 가난해지는 것이지.}

10201 # 아아 그러이꺼나 아 그러구 북조선이 핵무기르 그 핵무길래 내 신문으 기양 보지. 그 핵무길래 그렇기 말이 많았는데 음 정일이가 말으 아이 듣지. 그 핵무기르 아무리 다스 여섯 나라 모다서 헤이르 하구 그 핵무기르 없애자 해애두 정일이 아이 말으 듭습니다. 그래 아이 말으 듣구.{아아, 그러니까 아 그렇고 북한이 핵무기를 그 핵무기 때문에 내가 신문을 그냥 보지. 그 핵무기 때문에 그렇게 말이 많았는데 음 정일이가 말을 안 듣지. 그 핵무기를 아무리 다섯 여섯 나라가 모여서 회의를 하고 그 핵무기를 없애자 해도 김정일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 말을 안 듣고.}

10201 # 아 아메리카(Америка)서 북조선 아메리카(Америка) 싹 쳐서 재무질이 맨들었지 그전에. 기래 재무질이 맨들었던 거, 앞우로 그거 조선사람덜이 일으 데게 하지. 여기서 이사덜 여기 와서 예 이사 여섯 부이 여기와 잇었는데. 그 이사덜 내 꿍에 맥엿습니다. 내. 내 시격 꿍에 맥이구 이런 이런 저 어떤 집우 하나 **방점하곤(←방천하곤. 또는 ←방 정하곤). 개 그 사람덜 말하는 게 이래짐. 재무질 맨들어 놓은 거 무시기 먹을 게 잇겠는가?. 밥에다서 자~아 부 북장에다 밥우 먹구 허리띠르 졸가매매 그 집우 다아 저엇지. 기래 저어서 어저느 싹다 어전 저어서 어전 북으 저렇게 맨들었지. 그래 일으 그렇기 맨들었는데 개 일으 그렇기 하지, 일으. 조선사람덜 일으 잘 하짐. 일으 그렇기 해서, 쳐서.{아 미국에서 북한을, 미국이 싹 쳐서 잿더미를 만들었지, 그 전에. 그래 잿더미를 만들었던 것을, 앞우로 그거 조선 사람들이 일을 되게 하지. 여기서 의사들이 여기 와서 예 여섯 분이 여기 와 있었는데, 그 의사들을 내가 밥을 해서 먹엿습니다. 내가. 내가 끼니를 해서 먹이고 이런, 이런 저 어떤 집을 하나 셋방을 얻고(또는 방을 정하고). 그래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이러지 뭐. 잿더미를 만들어 놓았는데 먹을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밥에다 장을, 북장에다 밥을 먹고 허리띠를 졸라매며 그 집을 다지엇지. 그래 지어서 이제는 싹다 이제는 지어서 이제는 북한을 저렇게 만들었지. 그래 일을 해서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래 일을 그렇게 하지, 일으. 조선 사람들이 일을 잘 하지 뭐. 일을 그렇게 해서, 쳐서.}

2. 윤베라의 농경 생활

10302 @ 여기서 옛날에: 베농사질할 때느 어티기 저요?{여기서 옛날에 벼농사를 지을 때는 어떻게 저요?}

10302 # 베농사질으?{벼농사를?}

10302 @ 베농사질으 하는 거 설명 좀 해 줘 바요. 어티기 했는가. 우리 남쪽하구 좀 달라. {벼농사를 하는 거 설명 좀 해 줘요. 어떻게 했는가. 우리 남쪽(=한국)하고 좀 달라.}

10302 # 베농사?{벼농사?}

10302 @ 베농사를 질라무 맨 처음에:,{벼농사를 지으려면 맨 처음에,}

10302 # 음.{음.}

10302 @ 그으 그 씨를 뿌리쥬.{그 그 씨를 뿌리지요.}

10302 # 예. 뿌려.{예. 뿌려.}

10302 @ 어티기 뿌려, 그것으?{어떻게 뿌려, 그것을?}

10302 # 아이, 베밭에다 예 베밭으 척감에느 이룽기 칸으 맨들지. 싹 칸으 막구. 거기다 물으 열다나이. 그래 거기서 그 따에서 그거 따엿 거 깎재르 가주 끌어 그 꺾지:한 거 싹 데 디지. 데디구 좀 따야 보드랍게 하지. 그 따야 보드라와야 씨르 붓지 예. 그담에 보드라와 거기다 그 물에다 이룽기 뿌리짐. 씨 이래 막 뿌리짐. 이래 이래. 그래 뿌려서 그담에 거기서 그 물에서 베 나짐. 씨 나짐.{아이! 논에다 예 논을 처음에는 이렇게 칸을 만들지. 싹 칸을 막고. 거기다 물을 넣다 보니. 그래 거기서 그 땅에서 그거 땅엿 거 팽이를 가지고 끌어 그 시시한 것을 싹 버리지. 버리고 땅을 보드랍게 하지. 그 땅이 보드라와야 씨를 붓지, 예. 그다음에 보드라와 거기 그 물에다 이렇게 뿌리지 뭐. 씨를 이렇게 막 뿌리지 뭐. 이렇게, 이렇게. 그렇게 뿌려서 그다음에 거기서 그 물에서 벼가 나지 뭐. 씨가 나지 뭐.}

10302 @ 근데 그냥 그 그 그 뿌리는 씨르 뭐라구 불러? 뭐라구 해요?{그런데 그냥 그 그 그 뿌리는 씨를 뭐라고 불러? 뭐라고 해요?}

10302 # 아, 뿌리르?{아, 뿌리를?}

10302 @ 아니! 그 그 그 씨를 갖다가: 그걸 벼라구래요 뭐라구 그래요?{아니! 그 씨를 그것을 벼라고 해요 뭐라고 해요?}

10302 # 그 베씨르 뿌림, 뿌린 데 거기서 나는 거 그거 자래우지 머.{그 벼씨를 뿌리면, 뿌린 데서 나는 거 그거 키우지 뭐.}

10302 @ 아, 베씨를 뿌릴 때 그냥 뿌려요::? 거기서 물에다 좀 당겼다가 뿌려요?{아, 벼씨를 뿌릴 때 그냥 뿌려요? 거기서 물에다 좀 담갔다가 뿌려요?}

10302 # 아이! 마른 거.{아니! 마른 것.}

10302 @ 마른 거?{마른 것?}

10302 # 예. 나두 뿌려봤습니다. 땡[마] 땡이[마이].{예. 나도 뿌려봤습니다. 땡, 땡이.}

10302 @ 싹, 싹 안 틱우고?(싹, 싹을 안 틱우고?)

10302 # 아이 틱우구.{안 틱우고.}

10302 @ 아이 틱우구?{안 틱우고?}

10302 # 아! 물에다 넣는 건데 무 썩으 티우겐! 아 그저 마른 거 그거 마른 씨르 그저 이래 물에다 막 뿌리짐. 이래 막 뿌레두 그거 골레에 뿌레야지.{이! 물에다 넣는 것인데(물에다 직접 뿌리는 것인데) 뭐 썩을 티우기는! 아 그저 마른 것 그거 마른 거 그거 마른 씨를 그저 이렇게 물에다 막 뿌리지 뭐. 이렇게 막 뿌려도 그거 골고루 뿌려야지.}

10302 @ 음. 그렇죠.{음. 그렇죠.}

10302 # 골고리 기래 뿌레서 이 답에다 뿌리구 저 답에다 뿌려. 기래 뿌림 그때는 물이 이렇기 짚우게 아이 하지. 물으 좀 찬차이 하구 야 그렇게 해서 거그서 퍼지무 씨 올라오지. 기래 올라오무 그두 지 기움멜 적엔 거기 다 돌피나지. 돌피 나는 게. 아 개가꾸 돌피 나무 골라 내구 베탄 세우구. 씨 없는 데는 베르 모중하구 기래짐. 나두 그 일 해앳짐. {골고루 그렇게 뿌려서 이 답(쟈, =논)에다 뿌리고 저 답에다 뿌려. 그렇게 뿌리면 그때는 물이 이렇게 깊게 안 하지. 물을 좀 찬찬하게 하고 응 그렇게 해서 거기서(그 물에서) 퍼지면(씨가 불어나면) 씨가 썩을 티워 올라오지. 그래 올라오면 그것도 김을 딸 때에는 거기에 다 돌피가 나지. 돌피가 나는데. 그래 가지고 돌피가 나면 골라 내고 베탄 세우고. 씨 없는 데를 모중하고 그러지 뭐. 나도 그 일을 했지 뭐.}

10302 @ 아 모중을 그때?{아! 모중을 그때 해?}

10302 # 그으래애! 씨 어떤 데는 빈 데 잇잡니까? 거그다 모중하짐. 예. 예, 그랩니다. 예.{그래! 씨가 어떤 데는 빈 곳이 잇잡습니까? 거기다 모중을 하지. 예. 예, 그럽니다. 예.}

10302 @ 따로 보면 그 그 그 씨를 따로 따로 썩을 그 저 심어서 거기서 잃기 그 뽑아다가 다 심는 게 아니고? 이렇기 빼었어요?{따로, 그러면 그 그 그 씨를 따로 따로 그 씨를 뿌려서 썩을 내서, 그 저 심어서 거기서 이렇게 뽑아다가 심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뿌렸어요?}

10302 # 그으래애! 아이! 씨르 뿌리지. 뿌레서 난 거 가지구 없는 데다 그거 뵤데 꺼 뵤데 꺼 뽑아 모조옹하짐 예. 그렇기 하짐. 그렇기 하짐. 그,{그래! 아이! 씨를 뿌리지. 뿌려서 난 것을 가지고 없는 데다 그거 뵤 데 것, 뵤 데 것을 뽑아 모중하지 뭐 예. 그렇게 하지 뭐. 그렇게 하지. 그,}

10302 @ 여기서두 다 그렇게 해요?{여기서도 다 그렇게 해요?}

10302 # 아, 북에서두 그렇기 합니다.{아 북한에서도 그렇게 합니다.}

10302 @ 아, 여기서두?{아, 여기서도?}

10302 # 여기서두 그렇기 하짐. 예 그렇게 합니다, 예.{여기서도 그렇게 하지 뭐. 예 그렇게 합니다.}

10302 @ 우리는 그렇게 안 해요.{우리는 그렇게 안 해요.}

10302 # 개 어떻게 합니까?{그래 어떻게 합니까?}

10302 @ 우리는 씨를 씨를 따로 이렇게 씨를 심어 뵤다가,{우리는 씨를 씨를 따로 이렇게 씨를 심어 놓았다가,}

10302 # 예.{예.}

10302 @ 거기서 이만큼 자라면.{거기서 이만큼 자라면.}

10302 # 그담 모오 썩 하지. 글썬.{그다음에 모를 썩 하지. 글썬.}

10302 @ 그걸 뽑아서,{그걸 뽑아서,}

10302 # 뽑아서?{뽑아서?}

10302 @ 또 잃게 인자,{또 이렇게 이제,}

10302 # 모조하지.{모종하지.}

10302 @ 예. 모종하지.{예. 모종하지.}

10302 # 글썸. 아, 본래는 모조한 게 거저 거저 난 것만 낫다 합니다. 옴판 베르 모종한 게 낫게 자랍니다. 예. 그러.{글썸. 아, 본래는 모종한 것이 그저 그저 직파하여 난 것보다 낫다고 합니다. 원래 벼를 모종한 것이 낫게 자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10302 @ 근데 여기는 모종을 얹 얹는구만요?{그런데 여기는 모종을 얹, 얹는구먼요?}

10302 # 저래 씨르 뿌리구 그 씨르 뿌레서 이래 다아 낫는데 거기서 뻥 놔두 잇구 빈데두 잇지. 뻥데 거 뽑아 빈데 가 썬지. 그래지. 그러합니다. 그리고.{바로 씨를 뿌리고 그 씨를 뿌려서 이렇게 다 낫는데 거기서 뻥 놔두고 있고 빈 데도 있지. 뻥 곳의 것을 뽑아 빈 데 가 썬지. 그러지. 그러합니다. 그리고.}

10302 @ 그러면은 인자 그 그 그?{그러면 이제 그, 그, 그?}

10302 # 칸으 싹 만들어 놓구.{뻐기를 싹 만들어 놓고.}

10302 @ 칸으 만들어. {뻐기를 만들고.}

10302 # 예. 칸으 만들어 드럭으 싹 만들어 칸카이. 그래 여길르 코오 내서 물이 저길 나가구 저길 나가구 그러 그렇기.{예. 뻐기를 만들고 논둑을 싹 만들어 뻐기마다. 그래 여기에 물꼬를 내서 물이 저기로 나가고 저기로 나가고 그러 그렇게 하지.}

10302 @ 그럼 이릉기 인제 이릉기 이릉기 이게 받으면 사람이 이렇게 다니는 데가 있지요 이~ 여기?{그럼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이게 받으면 사람이 이렇게 다니는 데가 있지요? 여기?}

10302 # 그러제. 드럭 드럭이라는 게 잇짐. 드럭이.{그렇지. 논둑 논둑이라는 것이 있지 뭐.}

10302 @ 이게 드럭이야, 이~. {이것이 논둑이야, 응.}

10302 # 그::래! 드럭이지.{그래! 논둑이지.}

10302 @ 드럭이구. 그럼 이 안에 물이 잇는 데는 뭐라구 해요?{논둑이고. 그럼 이 안에 물이 잇는데는 뭐라고 해요?}

10302 # 그래 이 안에는 물이 잇구 드럭이지. 다른 답으르 넘어 가자무 여기다 코오 내 이 답에 물이 거기르 네레가 이 답엿게 저길로 네레가구 그렇게 하짐.{그래 이 안에는 물이 있고 논둑이지. 다른 답(沓, =논둑)으로 넘어 가려면 여기다 물꼬를 내서 이 논의 물이 저기로 내려가 이 논엿 물이 저기로 내려가고 그렇게 하지 뭐.}

10302 @ 그러면은 물이 잇는,{그러면 물이 잇는,}

10302 # 아이, 차이(차이) 식어 날래 마십소 차이(차이).{아이! 차(茶)가 식어 얼른 마십시오, 차를.}

10302 # 나는 이런 차이(차이)르 아이 먹는게. 나는 퍼런 차이(차이)르 먹지 나는 이런 차는 아이 먹소.{나는 이런 차를 안 먹는데. 나는 퍼런 차를 먹지 나는 이런 차는 안 먹소.}

10302 # 날래 마십소, 차이(차이). 자.{얼른 마십시오, 차. 자.}

10302 @ 저 안 먹을래요. 이 이것만 먹는 게 더 더 좋아.{저 안 먹을래요. 이 이것만 먹는 것이 더 좋아.}

10302 # 야, 야아 물으 그 무슨.{야, 야 물을 그 무슨 (맛으로 먹나).}

10302 @ 아니! 저는 이것만 좋아.{아니! 저는 이것만 좋아해요.}

10302 # 예, 날래 마십소.{예, 얼른 마십시오.}

10302 @ 이렇게 드럭이 있고.{이렇게 논둑이 있고.}

10302 # 네, 트럭이 잇구.{네, 논둑이 잇고.}

10302 @ 여기 여기 인자 심겨져 잇는 거 그것을 모라구 해요, 베라구 해요?{여기 여기 이제 심겨 잇는 것을 모라고 해요 아니면 벼라고 해요?}

10302 # 아:, 베라구 하지. 베.{아, 벼라고 하지. 벼.}

10302 @ 베가 쪼그만할 때두 큰 것두 베여?{벼가 쪼그말 때도 그리고 큰 것도 벼라고 해?}

10302 # 그::래! 작은 것두 베구 큰 것두 베구. 그래 그거 뽑아 이만:이 큰 적에느 그거 밍써 뽑아 모오하지. 빈틈이 없이. 빈틈없이 모오 하지.{그래! 작은 것도 벼고 큰 것도 벼고. 그래 그걸 뽑아 이만큼 큰 적에는 그거 밍써 뽑아 모를 하지. 빈틈이 없이. 빈틈이 없이 모를 하지.}

10302 @ 그렇기 빈틈없이 읍기는 거 모한다구 해요?{그렇게 빈틈이 없이 읍기는 것을 모한다고 해요?}

10302 # 기래! 모오하지. 개 모오한다구 하지.{모를 하지. 그래 모를 한다고 하지.}

10302 @ 아아! 모한다구.{아! 모를 한다고.}

10302 # 저 저 북에서 아 켈레비조르(телевизор)서 본 적이는 베질하는 데서 그거 이래 뽑아 더 붓대이때 모오하는데. 모오하는 게. 음판 모오하는 베 거저 씨르 뿌리는 거마 거저 더 잘 자란다가지. 기래 한국에서 야! 쌀에 …… 쌀은 한국에서 야아! 북으르 그거 그렇기 마이 보내는 거 내 켈레비조르(телевизор)서 기양 보지. 기래 보내는데. 야아! 북으로 그거 쌀으 보내서 북으로 얼마르 도와 줘니까, 시장.{저 저 북한에서, 아 텔레비전에서 본 적에는 벼농사를 짓는 데서 그거 이렇게 뽑아서 더 씨를 붓지 않으며 모를 하는데. 모를 하는 것이. 원래 모내기하는 벼가 거저 씨를 뿌리는 것보다 거저 더 잘 자란다고 하지. 그래 한국에서, 야! 쌀에 …… 쌀은 한국에서 야! 북으로 그거 그렇게 많이 보내는 것을 내가 텔레비전에서 그냥 보지. 그래 보내는데. 야! 북으로 쌀을 보내서 북으로 얼마를 도와줍니까? 지금.}

10302 @ 그러면 인자 베가 이렇게 자라서.{그러면 이제 벼가 이렇게 자라서.}

10302 # 예.{예.}

10302 @ 자라서 익으면.{자라서 익으면.}

10302 # 예.{예.}

10302 @ 베가 이렇기 이렇기 인제 고개르 숙이지요이~?{벼가 이렇게 이렇게 이제 고개를 숙이지요 응?}

10302 # 그::래! 이삭이 드리우지 예.{그래! 이삭이 드리우지 예.}

10302 @ 이렇기 드리운 거 베이삭이라구 해 그것을?{이렇게 드리운 것을 벼이삭이라고 해 그것을?}

10302 # 예, 이삭이라 하지. 그 드리운거 이삭. 베이삭이라 하지. 베이삭이 잘 데무 베 한 이삭에 삼백 네 알씩 알이 백에.{예, 이삭이라 하지. 그 드리운 거 이삭. 벼이삭이라고 하지. 벼이삭이 잘 되면 벼 한 이삭에 304 개의 알씩 알이 박여(=달려).}

10302 @ 아아 ! 삼백 개[깨] 정도?{아! 300개 정도가?}

10302 @ 예, 여기 따시켄뜨(Ташкент)서 베질하는데 그래 음.{예, 여기 타슈켄트에서 벼농사를 짓는데 그래 음.}

10302 @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벨 때 옛날에 뿔루 뻗어요?{그러면 그것을 벨 때 옛날에 뿔로 베었어요?}

10302 # 그거 빼지. 기젤르 빼지.{그거 베지. 기계로 베지.}

10302 @ 기계르 빼?{그게로 베어?}

10302 # 아이! 우리사 그거 날을르 빼지.{아이! 우리야 그거 낫으로 베지.}

10302 @ 옛날에?{옛날에?}

10302 # 날을. 날을르 빼에서 단으 묶어서, 태르 친다는 게 돌에 대구 두두레 태르 치지. 그
래 태르 쳐서 알으 모다서 그 알으 발바이두 쥘구 정미소두 가 쥘구 그렇지 며.{낫으로
베어서 단으로 묶어서, 태를 친다는 것이 돌에 대고 두드려 태를 치지. 그렇게 태를 쳐
서 알을 모아서 그 알을 디딜방아로도 쥘고 정미소도 가 쥘고 그렇지 뭐.}

10302 @ 그 알으 뭐라구 불러?{그 알을 뭐라고 불러?}

10302 # 알으?{알을?}

10302 @ 응.{응.}

10302 # 그것두 베라구 하지. 베라 하지.{그것도 벼라고 하지. 벼라고 하지.}

10302 @ 그면은 이거 이것 이것 그 자라는 나무두 낭구두 그 베고,{그러면 이거 이것 이것
그 자라는 나무도 나무도 그것이 벼고,}

10302 # 그것두 베고 그담에는,{그것도 벼고 그다음에는,}

10302 @ 알도 베고?{알도 벼고?}

10302 # 예! 알은 기계 …… 것두 것두 베라 하짐. 것두 베라. **개래 그 베르 개애다아서 쟁
미소 잇지. 쟁미소 가 바~아 찌서 쌀으 일구지 야~. 개 따시겐뜨(Ташкент)선 쌀이 좋고.
한국에두 **쌀 쌀이 **마. 여기 쌀은 맛이 없습니다. 우리 중국 쌀이라르 먹지. 중국에
쌀으 싸먹습니다. 쌀이 밥이 맛이 없습니다, 여기 쌀은. 밥이 맛이 없어.{예, 알은 그계
…… 그것도 그것도 벼라고 하지 뭐. 그것도 벼라고. 그래 그 벼를 가져다가 정미소가
있지. 정미소에 가 방아를 찌서 쌀을 이루어 내지. 그래 타슈켄트에서는 쌀이 좋고. 한국
에도 쌀 쌀이 많(고). 여기 쌀은 맛이 없습니다. 우리는 중국 쌀을 먹지. 중국의 쌀을 사
먹습니다. 쌀이 밥이 맛이 없습니다, 여기 쌀은. 밥이 맛이 없어.}

10302 @ 그무는 태질한다는 말은, 태질할라면 그것을 이렇게 낫 낫으로 잉게 빼에서,{그러면
태질한다는 말은, 태질하려면 그것을 이렇게 낫으로 이렇게 베어서.}

10302 # 빼에서. 그담에 말리워서 아 단으 묶지.{베어서. 그다음에 말려서 단을 묶지.}

10302 @ 단으 묶쥬이~?{단을 묶지요 응?}

10302 # 괴래 단을 묶지.{그래 단을 묶지.}

10302 @ 그걸 단이라구 해요?{그걸 단이라고 해요?}

10302 # 다이라구 하지. 단으 묶은 거 그 단으 가조구 태르 친 쥬에느 알이 싹 떨어지지. 그
러구,{단이라고 하지. 단을 묶은 거 그 단을 가지고 태를 친 적은 알이 싹 떨어지지. 그
러고,}

10302 @ 그무 그것을 태르 칠라면 그양 그대로 바로 빼에서 바로 태르 쳐?{그러면 그것을
태를 치려면 그양 그대로 바로 베어서 바로 태를 쳐?}

10302 # 으음, 말리워서.{음, 말려서.}

10302 @ 얼마나 말리워야 데?{얼마나 말려야 돼?}

10302 # 그거 누(ну). 마르는 거 바야 데지 예. 개 곰만 빼다 나이 잘 아이 말랐지. 기랜거
그거 빼에 놓오무 발써 마르지. 빼에서 이래 세와 놓지, 단. 개 세와 놓오무 그거 마르
무, 그거 태라는 거 무스젠가 하문 돌이, 크다만 돌. 거기다 대구 두디리문 남자덜 그거

두드리문 알이 싹 떨어지구 맨 짚이만 대 그 짚우 내떼리구 그 알 머, 기래 그 알으 모다서 기래 알으 모다 그거 쟁미소에 가 쪼던지, 발바~아.{그거 음. 마르는 것을 보아야 되지 예. 그래 금방 베다 보니 잘 안 말랐지. 그리한 것 그것을 베어 놓으면 벌써 마르지. 베어서 이렇게 세워 놓지, 단을. 그래 세워 놓으면 그것이 마르면, 그거 태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돌이, 커다란 돌, 거기에다 대고 두드리면 남자들이 그걸 두드리면 알이 싹 떨어지고 맨 짚만 돼(=짚만 남아) 그 짚을 내던지고 그 알 뒀, 그래 그 알을 모아서 그래 알을 모아서 그거 쟁미소에 가 쪼든지, 디딜방아(에 쪼든지).}

10302 @ 그럼 알 알으 떨어진 그 나머 그것은 머라구 한다구요? 짚우라구래요?{그럼 알을 떨어진 그 나머지 그것은 뭐라고 한다고요? 짚이라고 그래요?}

10302 # 짚이라 하지 예. 알이 떨어지구 **알을 다아 떨어지구 이 남은 건 짚이라 하지. 짚이. 짚이.{짚이라 하지 예. 알이 떨어지고 알이 다 떨어지고 이 남은 것은 짚이라 하지. 짚. 짚.}

10302 @ 짚이는 머야 엇다 썼어요?{짚은 뭐야, 어디다 썼어요?}

10302 # 짚이라는 거는 아 그거는 아 베두 알으 다아 털어 내구 빈 빈게 짚이짐.{짚이라는 거는 그건, 벼도 알을 다 털어 내고 빈 빈 것이 짚이지 뭐.}

10302 @ 아니! 그건 어따 쓰냐고?{아니! 그건 어디다 쓰느냐고?}

10302 # 그건 어따 쓰는가:이, 아 무슨 벨루 그저 쓰는 사람두 잇구 못 쓰는 것두 잇구.{그건 어디다 쓰는가 하니, 아 뭐 특별히 그저 쓰는 사람도 있고 안 쓰는 사람도 있고.}

10302 @ 거름도 하구.{거름도 하고.}

10302 # 불두 때구 그저 예.{불도 때고.}

10302 @ 그걸로 불도 뺐어요?{그걸로 불도 뺐어요?}

10302 # 예. 불두 때애구 예. 그거 벧짚우 예.{예. 불도 때고, 예. 그거 벧짚을 가지고, 예.}

10302 @ 집, 집은, 집 같은 것도 허고?{집, 집은, 집 같은 것도 하고?}

10302 # 예, 그거 실어다서 무제 낫다 기래 불두 때애구 그랬습니다.{예, 그거 실어다 쌓아 놓았다가 그래 불도 때고 그랬습니다.}

10302 @ 세 세나 이런 것들도 맥엇어요? 그걸르?{소, 소나 이런 것들도 먹였어요? 그걸로?}

10302 # 아이! 세랑 벧짚우 무슨 먹겠습니다. 벧짚우 아이 먹지.{아니! 소가 벧짚을 뭐 먹겠습니까? 벧짚을 안 먹지.}

10302 @ 그문 세느 뭇 맥엇어요 옛날에?{그러면 소는 무엇을 먹였어요? 옛날에?}

10302 # 새르 새루. 풀밭에 풀이 잇재입니까? 퍼어런 거. 그거 빼에서 말리운 거 그게 새 그거 맥이짐 예. 세나 소나 바란(баран)이나 그거 맥이짐 예. 개 이 벧짚이사 잘 아이 먹짐. 짚이사 마른 거 잘 아이 먹지. 개구 새파란 풀이 그저 벌판에 풀이 자라는 거 그거 낫을르 빼에서 말리워서 새파란 거 예 그거 가래 낫다 그게즈문 아 소르 소도 맥이는 게 짐. 그거 소르 맥이지.{새[草]를 새로. 풀밭에 풀이 잇잖습니까? 퍼린 거. 그거 베어서 말린 거 그게 새인데 그걸 먹이지 뭐, 예. 소나, 소나 양(羊)이나 그거 먹이지 뭐, 예. 그래 이 벧짚이야 잘 안 먹지 뭐. 짚이야 마른 거 잘 안 먹지. 그리고 새파란 풀이 그저 벌판에 풀이 자라는 거 그거 낫으로 베어서 말려서 새파란 거 예 그거 가려 놓았다 그걸 주면, 아 소를 소도 먹이는 것이지. 그거 소를 먹이지.}

10302 @ 이 이 동삼에도 동삼에 그걸 맥엇어요?{이 이 겨울에도 겨울에 그걸 먹였어요?}

10302 # 그:래! 동삼에 그 소를 맥에야 젓을 짜지. 그래. 음.{그래! 겨울에 그 소를 먹여야 젓

을 짜지. 그래. 음.)

10302 @ 원동에서도?{원동에서도?}

10302 # 예?{예?}

10302 @ 원동에서도 그렇게 했어요?{원동에서도 그렇게 했어요?}

10302 # 원동서두 그랬짐. 원동서두 그랬지. 내사 열다섯 살에 원동서 오다나 황 생각하지. 황 생각하지.{원동에서도 그랬지. 원동에서도 그랬지. 나야 열다섯 살에 원동에서 오다 보니 환히 생각이 나지. 환히 생각이 나지.}

10302 @ 그 그 그 일기 이삭이 있으면: 짚 이삭이 달려 있는 부분을 이룻기 이룻기 뽑으면 쪽 뽑아지죠이~?{그 그 그 이렇게 이삭이 있으면 짚에 이삭이 달려 있는 부분을 이렇게 이룻기 뽑으면 쪽 뽑히지요?}

10302 # 예.{예.}

10302 @ 이룻기 이룻기 가늘게 나오는 거? 그것은 머라구 불렀어요?{이룻기, 이룻기 가늘게 나오는 것? 그것은 뭐라고 불렀어요?}

10302 # 무시기 뽑아지는 거?{무엇이 뽑히는 거?}

10302 @ 베 베가 있으면 알이 알이 일기 이삭이 이 있잖아요.{벼 벼가 있으면 알이 알이 이렇게 이삭이 있잖아요.}

10302 # 아 베이삭이 드리운 계짐. 베이삭이.{아 벼이삭이 드리운 것이지 뭐. 벼이삭이.}

10302 @ 그문 베이삭하구[베이사가구] 짚하구[집하구] 뽑으면 가늘게 베이삭 달려 있는 부분이 쪽 빠져나오잖아요?{그러면 벼이삭하고 짚하고 뽑으면 가늘게 벼이삭이 달려 있는 부분이 쪽 빠져나오잖아요?}

10302 # 예에.{예.}

10302 @ 그무 **잡 여글 여글 끊어내고 옛날에 담뱃대 같은 것 막히무 이룻기 이룻기 뚫기 두 하구 그랬던 거.{그러면 여기를, 여기를 끊어 내고 옛날에 담뱃대 같은 것이 막히면 이렇게, 이렇게 뚫기도 하고 그랬던 거.}

10302 # 예에. 아이! 그전에 벼농사질하는 거 보지 못했습니까? 못 봤습니까?{예. 아이! 그전에 벼농사 짓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까? 못 봤습니까?}

10302 @ 아니! 봤죠. 그걸 머라구 하나구. 그게 지역마다 달라. 남쪽에서 하는 말하구 북쪽에서 하는 말하구. 또 여기서 하는 말이 달라요.{아니! 봤지요. 그걸 뭐라고 하느냐고. 그게 지역마다 달라. 남한에서 하는 말하고 북한에서 하는 말하고. 또 여기서 하는 말이 달라요.}

10302 # 아아:!! 그래 그것은 무엇이라 합니까? 그거?{아! 그래 그것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걸?}

10302 @ 우리는 그걸 '훼기'라그러거든요? 훼:기.{우리는 그걸 '훼기'라고 하거든요? '훼기'.}

10302 # 에이! 우리네 그렇기 아이 말합니다.{에이! 우리네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10302 @ 머라고 말해요?{그럼 뭐라고 말해요?}

10302 # 노상간 베이삭이라짐. 베이삭. 베이삭이지.{노상 그건 벼이삭이라 하지. 벼이삭. 벼이삭이지.}

10302 @ 아니!, 베이삭은:: 알이 달려 잇는 게 베이삭이지.{아니! 벼이삭은 벼알이 달려 잇는 것이 벼이삭이지.}

10302 # 달려 잇는 게 베이삭. 알으 다 뽑은 담에는 예 짚이지 무.{달려 잇는 것이 벼이삭.

알을 다 뽑은 다음에는 예 짚이지 뭐.)

10302 @ 그러니까:, 그 담뱃대를 담배에 옛날에 긴 담뱃대를 어른들이 거기에 머 끼무 멀루 께에서 뽑아내죠?{그러니까, 그 담뱃대를 담배에 옛날에 긴 담뱃대를 어른들이 거기에 무엇이 끼면 뭘로 께어서 뽑아내죠?}

10302 # 아아.{아아.}

10302 @ 그럴 때 그 끼는 건 멀루 멀루 켜어요? 그 짚에서 그 위에 목 있는 거 빼가지구 그 거 하지 않았어요?{그럴 때 끼는 건 뭘로, 뭘로 켜어요? 그 짚에서 위에 목 있는 것을 빼 가지고 그거 하지 않았어요?}

10302 # 아아, 빼 가지구.{아, 빼 가지고.}

10302 @ 했죠?{했지요?}

10302 # 아이, 그거사 무스 어 지 짚에서 그거 아 이런 거 빼에 가지구 대토~오 검출두 하구 그랬지.{아이, 그거야 뭐 짚 짚에서 그거 이런 것을 빼 가지고 담배통을 깨끗이 청소도 하고 그랬지.}

10302 @ 그렇지. 그거 그걸 머라구래?{그렇지. 그거 그걸 뭐라고 해?}

10302 # 것두서나 벳짚엿 게라 베, 벳짚엿 게 벳짚이. 벳짚에서 뺨게라 하짐 예. 뺨 이름이 없습니다. 벳짚에서 뺨게라 합니다. 예.{그것도 역시 벳짚엿 것이라고 (하지) 벳, 벳짚. 벳짚에서 뺨 것이라 하지 예. 뺨 이름이 없습니다. 벳짚에서 뺨 것이라 합니다. 예.}

10302 @ 어어, 우린 그걸 화애기라구 했어요, 화애기. 이름이 있어요.{어, 우리는 그걸 화기 라고 했습니다, 화기. 이름이 있어요.}

10302 # 에이! **해개, 에이! 이 그것으, 그런 말이 없습니다.{에이! ‘화기’(인지 뭔지), 에이! 이 그것을, 우리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10302 @ 으으~, 그래요이~?{응, 그래요?}

10302 # 차이(чай) 날래 마십소. 식어서.{차를 얼른 마십시오. 식어서.}

10302 @ 천천히 마시게요.{천천히 마실게요.}

10302 # 아이! 마십소. 나 이런 차이(чай) 아이 먹습니다.{아이! 마십시오. 나는 이런 차를 안 마십니다.}

10302 @ 그리고 인제.{그리고 이제.}

10302 # 식어, 내 따갑운 거 들여오자.{식어서, 내가 뜨거운 것을 들여오자.}

10302 @ 아니, 땀어.{아니, 땀어.}

10302 # 아, 그래.{아, 그래.}

10302 @ 저는 이게 좋고.{저는 이것이 좋고.}

10302 # 에이! 맹물이 무시라 잡사.{에이! 맹물을 뭐하러 잡쉬.}

10302 @ 맹물이 더 좋다니까!{맹물이 더 좋다니까!}

10307 @ 그리고 베농사르 짚고 그담에 베농사만 짓는게 아니고 물에 있는 논에는 그 베르 그 베질을 하고 또 또 다른 거 다른 거 물없는 데다가는 주로 머 심었어요? 머 싱거?{그리고 벳농사를 짓고 그다음에 벳농사만 짓는 게 아니고 물에 있는 논에는 그 벳를 그 벳농사를 짓고 또 또 다른 거 다른 거 물 없는 데다가는 주로 무엇을 심었어요? 뭐 심어?}

10307 # 옥수수두 시무구. 콩두 시무구 옥수수두 시무구 아: 머 시무는 게 많지 무슨.{옥수수도 심고. 콩도 심고 옥수수도 심고 아 뭐 심는 것이 많지 뭐.}

10307 @ 그 그런 것 좀 말해 줘 바. 생각나는 대로. 중뉴르.{그런 것 좀 말해 줘 바. 생각나

는 대로. 종류를.)

10307 # 아, 아하:!!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웃으며) 아! 옛날에 그거 원동서 시무던 거 알아서 멀하겠습니까?(아, 아! 아! 옛날에 그거 원동에서 심던 것을 알아서 무얼 하겠습니까?)

10307 @ 제가 그런 걸 조사하러 왔습니다.{제가 그런 것을 조사하러 왔습니다.}

10307 # 예에::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늙은 사람인데르 와서. (웃음) 야! 원동, 우리 개인농사르 할 적에는 조이라는 게 있습니다. 조이. 자다:마이.{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늙은 사람한테로 와서. (웃음) 야! 원동에서 우리가 개인 농사를 할 적에는 조라는 것이 있습니다. 조. 자잘하게 생긴.}

10307 @ 색깔은? 조이는. 노오란 게 조이예요?{색깔은? 조는. 노란 것이 조예요?}

10307 # 노오란 게. 노오란 게 조이. 이삭이 진 게. 그래 그 조이르 싱겨서 고담에 또 피날이라는 것두 있어 피날으 심. 그래.{노란 게. 노란 것이 조. 이삭이 긴 것. 그래 그 조를 심어서 (먹고) 고 다음에 또 피[稗]라는 것도 있어서 피를 심고. 그래.}

10307 @ 피날은 좀 큰 건 가요? 빨간 색. 빨간,{피는 좀 큰 것인가요?}

10307 # 피날은 자지. 기래서 이 피날이라는 건 피날으 그 그거는 아: 찌서, 찌서 말리워서 바아르 찌서 기래 피날쌀이라는 거 먹어 먹었습니다, 예. 먹었습니다. 기래구 조이라는 거는 그건 말리워서 거저 찡지. 거저 찌어서. 기래 그게 조팍이라는 게지. 조이는 조팍이구 그 피날은 피날밥이구 그렇지. 그러구 지장, 찰지장, 찰지장, 찰지쟁이라는 건 지금 우리 여기 찰쌀으 먹재입니까? 그처리 풀이 있는 찰지쟁.{피는 (알이) 잘지. 그래서 이 피라는 것은 피를, 그 그것은 아 시루에 찌서, 찌서 말려서 방아를 찧어서 그래 퓌쌀이라는 것을 먹었습니다, 예. 먹었습니다. 그리고 조라는 것은 그건 말려서 거저 찡지. 그 거저 찧어서. 그래 그게(=밥을 지은 것) 조밥이라는 것이지. 조는 조밥이고 그 피는 피밥이고 그렇지. 그리고 기장, 찰기장, 찰기장, 찰기장이라는 건 지금 여기서 우리가 찰쌀을 먹잖습니까? 것처럼 풀기가 있는 찰기장.}

10307 @ 그 찰지장도 노랑색이에요?{그 찰기장도 노랑색이에요?}

10307 # 아아, 찰지장두. 아이! 찰지자~으는 검은색이 납니다. 검은 색이 납니다. 찰지쟁이라는 거는 지장 이삭에 이렇게[이러께] 나가 지장 이삭 이룽기 이래 이룽기 막 드리왔는데 아 그게 속에 알은 검정 알입니다. 검정 알. 노라재입니다. 조이 이삭이 노루구 예. 아, 피날은 그저 좀 푸루무레:하구 예. 그래 그 그 찰지자~으는 그거 두두레서 그 찰지장 바~이다 찌어서 그러무 아주 맛있습디다. 지금 여기 찰밥보구 더 맛있습디다. 야아!{아, 찰기장도. 아니! 찰기장은 검은색입니다. 검은 색이 납니다. 찰기장이라는 것은 기장 이삭에 나가 기장 이삭이 이렇게 이래 이렇게 막 드리왔는데 그게 속에 있는 알은 검정 알입니다. 검정 알. 노랑지 않습디다. 조 이삭이 누르고 예. 아, 피는 그저 좀 푸르스름하고 예 그래 그 그 찰기장은 그거 두드려서(타작해서) 그 찰기장을 방아에 찧어서 먹으면 아주 맛있습디다. 지금 여기 찰밥보다 더 맛있습디다. 야!}

10307 @ 그 지장밥이,{그 기장밥이,}

10307 # 예. 지장밥이.{예. 기장밥이.}

10307 @ 지장밥이 그 입 입쌀로 한 밥보다 더 맛있어요?{기장밥이 그 입 입쌀로 한 밥보다 더 맛있어요?}

10308 # 더 맛이, 차지장밥이 더 *마. 그거 어쨌는가 우리 개인농살 할 적에, 우리가 그전에 조합에 삼십오연도 삼십이연도 삼년도 삼십년도 사연도 이때까지 우리 개인농사르

하는데 우리 아버지가 예 음 그저 아무 따이나 가서 세르 가지구 재빌르 밭같이 해 따 아 일구지. 개 따아 일구구 거기다서 목은데다 그래 시무무 잘 데지.{더 맛있지. 찰기 장밥이 더 맛있지. 그거 어찌했는가 하면, 우리가 그전에 개인 농사를 할 적에, 우리가 그전에 집단농장에 1935년도, 1932년도 1933년도 1930년도 1934년도 이때까지 우리가 개인 농사를 짓는데 우리 아버지가 예 음 그저 아무 땅이나 가서 소를 가지고 스스로 밭같이 해 땅을 일구지. 그래 땅을 일구고 거기다 새로 땅을 일군 데다 그래 심으면 잘 되지.}

10308 # 기래 시물 적에 찰지장 시무무 기래 그 지슴으 매서 지슴사 그 물대는 법이 원도~서 느 비로 농사르 하다나 물대는 법이 없지. 아, 그래 그거 아 비르 빌르 자라무 그 지슴으 그 점 지슴만 매에서 풀이 없이 풀이 없이 지슴 맨 마감에 가 그저 이삭이 드리워 이렇지. 기래 거 날을르 훔 빼짐. 그거 빼에서 말리워서 또취(тоже) 태르 쳐 두드리짐 예. 개 태르 아이 치구 이거느. 베르 태르 치지. 이건 어찌가 도리깨라는 게 잊지 도리깨. 내 한국은 내 침에 그 도르깨 그 도르켈르 이라 두드리지. 개 도르깨르 두드리려 번져놓구 두드리려 번져. 기래 그 알이 다 *떨어지. 개 알이 떨어지문 짚우 데담, 그 알으 가주구 아 검질해:서 그담에 그 알으 또 석매애다 찢어서. 저 아 석매. 기래 쌀으 맨드지. 기래 야아.{그래 심을 적에 찰기장을 심으면 그래 그 김을 매서 김이야, 그 물을 대는 법이, 원동에서는 비로 농사를 짓다 보니 물을 대는 법이 없지. 아, 그래 그거 비를 비로 그 곡식이 자라면 그 김을, 그 좀 김만 매서 풀이 없게 풀이 없게 김을 맨 마지막에 가서 그저 이삭이 드리워 이렇지. 그런 것을 낫으로 베지 뭐. 그거 베어서 말려서 역시 태를 쳐 두드리지(=탈곡하지) 예. 그렇게 태를 치지 않고 이것은. 벼를 태를 치지. 이건 어찌하는가 하면 도리깨라는 것이 있지, 도리깨. 내 한국은, 처음에 그 도리깨, 도리깨로 이렇게 탈곡하지. 그래 도리깨로 두드리고 뒤집어 놓고 두드리고 또 뒤집어. 그래서 알이 다 떨어지면 짚을 버리면, 그 알을 가지고 아 (바람에 날리거나 키로 까불어) 깨끗이 해서 그다음에 그 알을 또 연자매애다 찢어서. 저 아 연자매. 그렇게 쌀을 만들지. 그래 야!}

10308 @ 검질한다는 말은 어티기 하는 거 검질한다구 해?{'검질한다'는 말은 어떻게 하는 것을 '검질한다'고 해?}

10308 # 검질한다는 말으 그거 아: 이래 찰지장 이삭으 이래 빙:: 이래 돌아가매 한판애다 이삭에 한판에 잇구 짚이 이 잃기 놓지. 이렇기 놓구 도르깨 이렇기 두드리지. 도르깨 두드리려서 아아 그담에느 다아 두드리려 또 이래 번져 놓지. 내 아버지 하는 거 밧지. 기래 그거 번져 놓구 또 두드리지. 개 뚜두레 짚에서 알이가 다아 떨어지무 그 짚우 털어 내 때리지. 짚우 털어 내 때리짐. 내 때리구 그 알으 거두짐. 그 알으 거더서 바름애다 지지. 바름애다. 바름 바름애다 이 지지. 바름애다 지구 또 칠루 다듬기두 하구. 이래 바름애다 제에서 곡식 알으 개애다가서 그담에 석매애다 찢짐. 그래 찢어서.{'검질한다'는 말은 그것을 아 이렇게 찰기장 이삭을 이렇게 빙 이렇게 돌아가며 한가운데애다 이삭이 오도록 하여 한가운데에 이삭이 놓이고 짚을 이렇게 놓지. 이렇게 놓고 도리깨로 이렇게 두드리지. 도리깨로 두드리려서 아 그다음에는 다 두드리려 또 이렇게 뒤집어 놓지. 내가 아버지가 하는 것을 보았지. 그래 그거 뒤집어 놓고 또 두드리지. 그래 두드리려 짚에서 알이 다 떨어지면 그 짚을 털어서 내던지지. 짚을 털어 내던지지 뭐. 내던지고 그 알을 거두지. 그 알을 거두어서 바람에 떨어뜨리지. 바람애다. 바람 바람애다 떨어뜨리고 또 키로 까부르기도 하고. 이렇게 바람애다 떨어뜨려서 곡식알을 가져다가서 그다음에 연자매애다 찢

지. 그렇게 찡어서.}

10308 @ 석매는 석매는 어떻게 생긴 거야? 이렇게 큰:: 돌 돌리는 거?{'석매'는 어떻게 생긴 거야? 이렇게 큰 돌을 돌리는 거?}

10308 # 그으래! 큰 돌으 놓구 아 그런 거 노새라~, 노새나, 노 말으 아이 기래구. 노새 메와서 그래구 눈으 싸매구 빙빙 돌아댁기메서 거 찡지. 기래.{그래! 큰 돌을 놓고 아 그런 거 노새랑, 노새나, 말은 연자매를 돌리는 데 안 쓰고. 노새를 메워서 연자매를 돌리고. 눈을 싸매고 빙빙 돌아다니면서 찡지. 그래.}

10308 @ 눈을 눈을 가래요?{눈을 눈을 가래요?}

10308 # 눈으 싸매구, 노새르. 내 그저 아때 본 게 항 생각히지 고거. 노새르 가지구 눈으 싸매구 아 그 댜에 그거 그게 빙빙빙빙 기양: 돌아댁기메 그 석매애 돌에. 그 사람 돌으 끄스구 댁기지, 그 말이. 개 그 돌이 이만한 똥:그런 그 사름게다 이래 메와서 그 노셋 거 이래 빙빙빙 돌아 끄스구 댁기메서르 그 쌀으 맨드지. 개 쌀으 맨드무 그 쌀으 가 그 쌀으 가주구 다(да). 그래 그러 그렇기 살앗짐, 그전엔. 그렇기 살아. 개 사다 그다음엔. {눈을 싸매고, 노새를. 내가 그저 아이 때 본 것이 환히 생각나지, 고게. 노새의 눈을 싸매고 아 그다음에 그거 그게 빙빙빙빙 그냥(=계속) 돌아다니며, 그 연자매의 돌을 끌고. 그 사람이, 돌을 끌고 다니지, 그 말이. 그래 그 돌이, 이만한 똥그런 (돌을), 그 사람에게다 이렇게 메워서 그 노새의 것을 이렇게 빙빙 돌아 끌고 다니면서 그 쌀을 만들지. 그래 쌀을 만들면 그 쌀을 그 쌀을 가지고 예. 그래 그렇게 살았지. 그전엔. 그렇게 살았어. 그래 살다 그다음엔.}

10308 @ 발방이느?{디딜방아는?}

10308 # 조합이 조합이 데이꺼나 쟁미소라는 게 있지. 쟁미소. 그땜 쟁미소에 찡짐.{집단농장 집단농장이 되니까 쟁미소라는 것이 생겼지. 쟁미소. 그다음에 쟁미소에 가 찡지.}

10308 @ 발바~이는 어떻게 찡요? 발바이는?{디딜방아는 어떻게 찡어요? 디딜방아?}

10308 # **찰바~이르? 아이,{디딜방아를? 아이,}

10308 @ 발바~이?{디딜방아?}

10308 # 발바~이르? 바~이다 놓구 바~이르 찡지 무스. 바~이다 놓구. 지금 여기두 바~이 잇는 집이 잇습니다.{디딜방아를? 발에다 놓고(=디딜방아의 디디개를 발로 밟고) 방아를 찡지 뭐. 디딜방아에다 (찡을 것을) 놓고. 지금 여기도 방아가 잇는 집이 잇습니다.}

10308 @ 그래요?{그래요?}

10308 # 예. 아 그거 그거 바~잇고에다서 그 아무아무야 영구 그러구서 거저 들이나 그 자꾸 드테 찡지. 그거 퍼내서 다듬지. 개 다듬아서 아 쌀으 쌀아 내구 아 그담엔 아이 쌀아진 건 또 고대구 찡구 고대구 찡구. 그렇기 찡지 며.{예. 아 그거 방아확에다 그 아무 아무 곡식을 넣고 그러고서 그저 두 사람이나 (하나가) 그 방아를 자꾸 디더서 찡지. 그거 퍼내서 키로 까부르지. 그래 까불러서 아 쌀을 쏘어 내고 아 그다음에는 안 쏘어진 것은 또 곧바로 찡고 곧바로 찡고. 그렇게 찡지 뭐.}

10308 @ 그러면 안 깨져? 그 알이.{그러면 (그 돌로 찡으면) 안 깨져? 그 곡식의 알이?}

10308 # 아이! 안 깨어져. 안 깨어져. 깨애 애이 진다구. 어째 깨 애이 지는가 그거 조금 영구야 깨애지지. 그거 마이 영지. 개 마이 영구 찡어서 아 그놈우거 쌀으 쌀아내구서 짙은 거 또 찡구 찡구 그래 그렇기 벨루 깨애 애이 집니다.{아이! 안 깨져. 안 깨져. 깨지지 않는다고. 어째 안 깨지는가 하면 그거 조금 넣어야만 깨지지, 그거(=곡식) 많이 넣

지. 그래 많이 넣고 찢어서 아 그 놈의 거 썰어서 쌀을 내고서 남은 것을 또 찢고 찢고 하는데 그래서 별로 깨지지 않습니다.}

10308 # 기래 깨 에이 지구, 발바이두. 그전에 조선사람 그렇기 힘드레 살았짐. 개인농사르. 아 지금 따시켄트(Ташкент)서랑 쟁미소르 해애 농구 베르 가지구 가 **북에 열어무 쟁미소에서 그 뜨르르르 싸는데. 지금 따시켄트(Ташкент)서 아 베질하는 게 따시켄트(Ташкент) 그 비지밀이라 하는 그 거기 쟁미소 잇습니다. 쟁미소에서는 베르 거더 열어무 베 그저 쌀이 나오구 저짜을르 그저 그게 무 부 북대기 나가구 그렇게 하짐. 그래. 그라구.{그래 깨지지 않고, 디딜방아도. 그전에 조선 사람이 그렇게 힘들게 살았지 뭐. 개인 농사를 지을 때. 아 지금 타슈켄트에서 쟁미소를 해 놓고 벼를 가지고 가서 벼를 부어 넣으면 쟁미소에서 그 뜨르르 썰는데. 지금 타슈켄트에서 벼농사를 짓는 것을 보면 타슈켄트의 그 비지밀이라 하는 그곳에 쟁미소가 있습니다. 쟁미소에서는 벼를 거두어 넣으면 벼가 그저 쌀이 되어 나오고 저쪽으로는(=다른 한 쪽으로는) 그저 그게 뭐 북 북대기가 나가구. 그렇게 하지 뭐. 그래. 그러고.}

10308 @ 그러면 그 성매로 성매로 찢 때도 성매르 찢면은 그:: 조이 그 쌀은 쌀대로 나가고 또 껍질이 껍질은 또 어 껍질이 껍질은 이렇게 그 데데지지요이~?{그러면 그 연자매로 찢을 때에도, 연자매로 찢으면 그 좁쌀은 쌀대로 나가고 또 껍질이, 껍질은 또 어 껍질이 껍질은 이렇게 버려지지요?}

10308 # 그으래! 그게사 성매애사, 쟁미소서 기계 껍지 나왔지, 이 성매애사 성매로 밍써 이래 아 노새 같은 거 메와서 그 이렇기 빙빙빙 돌아가매 찢인 **긴 그 찢구서 거기 짙은 게 잇는 거 그거 아 싹 그거 다듬어야 데지 싹. 치르 가지구 다듬. 치르 가지구 다듬아서 거기서 쌀이 에떠(это) 썬 아이 진 거 또 그담 열구 열구. 다른 거 모다 열구.{그래! 그것이야 연자매야, 쟁미소에서 그게 껍질이 나왔지, 연자매야 연자매로 밍써 이렇게 아 노새 같은 것을 메워서 이렇게 빙빙 돌아가며 찢은 건, 그 찢고서 거기 남은 것이 잇는 거 그건 아 싹 그거 키로 까불러야 되지 싹. 키를 가지고 까불러 거기서 쌀이 음 찢어지지 않은 것은 또 담아서 (연자매에) 넣고, 넣고. 다른 것을 모아서 넣고.}

10308 @ 치는 지금 이렇게 생긴 게, 이것을 치라구 해요?{키는 지금 이렇게 생긴 거 이것을 키라고 해요?}

10308 # 그으래! 이래 다듬는 게 치지. 이래 치가 다듬지 예.{그래! 이렇게 까부르는 것이 치지. 이렇게 치를 가지고 다듬지.}

10308 @ 그게 치예요이~?{그것이 '키'예요?}

10308 # 그거 치라 하지. 치르 다듬. 내 한국으 내 보는데 도리깨두 보구 치두 보구 치질두 하구 도르깨질두 하구. 촌에서 하는 거 한국 거 썰레비조르(телевизор)에서 흑시 배웁데 예. 그램 그라구.{그것을 키라 하지. 키로 까부르지. 내가 한국을 내가 보는데, 도리깨도 보고 키도 보고 키질도 하고 도리깨질도 하고. 촌에서 하는 거 한국 텔레비전에서 흑시 보입디다, 예. 그래 보면 그러고.}

10308 @ 치질할 때 또 이렇게, 이렇게 동그랗게 생겨서 밑에 이렇게 데가지구 넣어서 이렇기 이렇기 하는 건 머라개요?{키질할 때 또 이렇게, 이렇게 동그랗게 생겨서 밑이 이렇게 되어 가지고 넣어서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해요?}

10308 # 그건 채라.{그건 채라 하지.}

10308 @ 그건 채고?{그건 채라고 하고?}

10308 # 그건 채. 그건 이래 츠는 건 채구. 다듬는 거는 치구. 아하! 이거는 치구 이거는 채구 그렇지.{그건 채. 그건 이렇게 치는 건 채고. 까부르는 것은 키고. 아! 이것은 키고 이것은 채고 그렇지.}

10308 @ 그 채가요 그 구멍이 쪼그만한 게 잇구 큰 것 두 잇구.{그 채가요 그 구멍이 쪼그마한 것이 있고 큰 것도 있고.}

10308 # 그으래! 조끄만 게 잇구 벨란게 다아 잇지 무스 야. 진내 보드라운 것두 잇구 같그 치는 것두 잇구 쌀 치는 것두 잇구 싸래기 나가는 거 벨란 게 여라 가지 다아 잇짐.{그래! 조끄만 것이 있고 벨란 것이 다 있지 뭐 응. 아주 보드라운 것도 있고 가루를 치는 것도 있고 쌀 치는 것도 있고, 싸라기 나가는 것으로 해서 벨란 것이 여러 가지가 다 있지 뭐.}

10308 @ 그것 그거 이름이 이름이 딸루 없어?{그거 그거 이름이 이름이 따로 없어?}

10308 # 아이! 그건 딸루 그저, 아 보드라운 채 그저 에떠(это) 센채, 센채, 보드라운채 이름이 그렇소. 센채 보드라운채 그렇소. (웃음){아이! 그건 따로 그저, 아 보드라운 채 그저 음 구멍이 큰 ‘센 채’, ‘센 채’, ‘보드라운 채’ 이름이 그렇소. ‘센 채’, ‘보드라운 채’ 그렇소. (웃음)}

10308 @ 센채, 보드라운 채.{‘센 채’와 ‘보드라운 채’}

10308 # 야아! 그렇소. 그게사 내 아지 무스 야.{야! 그렇소. 그것이야 내가 알지 뭐, 응.}

10308 @ 지금 *자 핑장히 잘 아시는 거예요!{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잘, 핑장히 잘 아시는 거예요!}

10308 # 아, 그래도 이거. 젊문사람들은 밤중이오.{아, 그래도 이거. 젊은 사람들은 밤중이오 (=아무것도 모르오).}

10308 @ 몰라요. (몰라요, 예, 예.){몰라요. (몰라요, 예, 예.)}

10308 # 모르오. 모::르쟁구. 야. 모르오.{모르오. 모르잖고. 응. 모르오.}

10308 @ 여기 여기 와서도 채르 썼어요?{여기 여기(중앙아시아)에 와서도 채를 썼어요?}

10308 # 이기 와서두 치르 쓰재잉구 기래. 여기 와서. 치두 쓰구 채두 쓰구. 나두 여기와서 처. 개던게 어저는 다 어저는 여기서는 더 맨드는 게 없구. 따시켄뜨(Ташкент)엔 아 따시켄뜨(Ташкент) 꾸울류끄라 하재입니까? 그 꾸울류끄는 치두 해애 팔구 채두 해애 팔, 벨란 거 해애 팝니다. 거권 지금두 치 있습니다. 삼백원씩 합니다. 치 한나에. 버들으 예, 버들 가지구 치르 맨들.{여기 와서도 키를 쓰잖고 그래. 여기 와서. 키도 쓰고 채도 쓰고. 나도 여기 와서 처음에. 그러던 것이 이제는 다 이제는 여기서도 더 만드는 것이 없고. 타슈켄트에는 아 타슈켄트에 꾸일루끄라는 시장이 있잖습니까? 그 꾸일루끄 시장은 치도 만들어서 팔고 채도 만들어서 팔고, 벨란 것을 다 만들어 팝니다. 거기는 지금도 키가 있습니다. 300숨씩 합니다. 키 하나에. 버들을 예 버들을 가지고 키를 만들(지).}

10308 @ 버들 갖구 맨들어요?{버들을 가지고 만들어요?}

10308 # 그으래! 치르 치르 맨든 건 치르 디딘다 합니다. 거르 디딘다구. 그런 사람이 에따(эта) 옛날부터 거 맨든 그런 사람이 어 저기 더 꿀류꾸사 잇지. 잇지. 채르 맨드는 것두, 채두 그렇짐. 채르 맨드는 것두 채르 이렇게 이 이런 밑에다 이룽기 파이 세줄이지 세줄이. 거기다 이룽기 낭글 또 이룽기 그 씨우지 무. 거기다 딱 빠르게 씨우짐. 개 나두 그 전에 꾸울류끄가 싸와 놓, 꾸울류끄 가서 보드라운채두 싸오구 센채두 싸오구. 꾸울류끄가. 꾸울류끄 바자르(базар) 벨란 게 다아 잇지.{그래! 키를 키를 만드는 건 (‘만든다’고

하지 않고) ‘디딘다’고 합니다. 그걸 ‘디딘다’고. 그런 사람이 음 옛날부터 그런 사람이 저기 저 쿨류크에 가면 있지. 있지. 체를 만드는 것도, 체로 그렇지. 체를 만드는 것도 체를 이렇게 이 이런 밑에다 이렇게 판이 쇠줄[鐵絲]이지 쇠줄. 거기다 이렇게 나무를 또 이렇게 거기다 썬우지 뭐. 거기다 딱 끈고 반듯하게 썬우지. 그래 나도 그전에 꾸일루끄 시장에 가 사다가 집에 놓(았지). 꾸일루끄에 가서 보드라운 체도 사 오고 거칠고 뽀뽀한 체도 사 오고. 꾸일루끄에 가서. 꾸일루끄 시장에는 별난 것이 다 있지.}

10308 @ 치르 만드는 것을 디딘다구 해요?{키를 만드는 것을 ‘디딘다’고 해요?}

10308 # 야, 치르 만드는 건 치르 ‘드딘다’구 하오 야. 치르 만드는 건 치르 만드는 게 아니라 치르 ‘드딘다’ 하오. 기래서 지금 얼마씩 하는가이 내 한 칠년 전에 갖다 왔는데 한 칠년 전에 내 따시겐뜨 갖다 올적엔 삼백원씩 합니다. 삼백원씩 합니다. 고렷사람으론 촌에 사는 건 치없이 못 사오.{응, 키를 만드는 건 키를 ‘드딘다’고 하오 응. 키를 만드는 건 ‘키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키를 드딘다’고 하오. 그래서 지금 얼마씩 하는가 하면, 내가 한 7년 전에 쿨류크 시장을 갖다 왔는데 한 7년 전에 내가 타슈켄트에 갖다 올 적엔 300숨씩 합니다. 300원씩 합니다. 고려사람으로 촌에 사는 사람은 키 없이는 못 사오.}

10308 @ 그러지요이~.{그렇지요.}

10308 # 지금두 야: 무스거 여기서두 마이 우리 코오 썬다 하오. 이시간에 내 코오 열킬로(кило)르 썬지. 열킬로(кило) 썬는데 그 코오 치 잇음 다듬으믄 썬 못쓸게 나가지. 치 없 다니이 내 썬 여기서다 놓구 가을에 했어.{지금도 뭐 여기서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콩을 산다 하오. 이 즈음에 내가 콩을 10킬로그램을 샀지. 10kg을 샀는데 그 콩을 키가 있으면 키로 까부르면 썬 못 쓸 것이 나가지. 키가 없다 보니 내 썬 여기서다 놓고 좋고 나쁜 것을 가렸어.}

10308 # 개 가을에 했는데, 덕호, 윤덕호 한국에 덕호 내게르 무스거 보냈는가이 믹스(mixer)르 보냈지. 믹스라는 건 아 여긴 무스기 잇는두 없는두 무 조선에 믹스라는 게 잇지. 개 믹스라는 게 아주 아주 좋은 게지. 기래 그 믹스다아서 아아 야블로꼬(яблоко)나 에따(это) 모르꼬프(морковь) 야블로꼬(яблоко) 개 그 갈아서 그 그 간 소꾸(сок)르 내 먹지. 기래 먹지. 내 먹으메 기래 그거 내 음식으 가리메 밥우 바로 못 먹는다구 황선생 아 덕호게다 전화하메 말했지. 개 말해 덕호 그거 시월십사일 날 오는 비행기에 보내애. 기래 보내 그 믹스에다 과일으 갈아 먹구.{그래 가렸는데, 덕호, 윤덕호, 한국의 덕호가 내게로 무엇을 보냈는가 하면 믹서를 보냈지. 믹서라는 건 여기 키르기스에 있는지 없는지 뭐 한국에 믹서라는 것이 있지. 그래 믹서라는 것이 아주 좋은 것이지. 그래 그 믹서에다 아 사과나 음 당근, 사과를 그래 거기에 갈아서 그 간 과일 즈(汁)을 내가 먹지. 그렇게 해서 먹지. 내가 먹으며 그래 내가 음식을 가리며 밥을 바로 못 먹는다고 황선생이 아 덕호에게다 전화를 걸어 말했지. 그래 말해서 덕호가 그것을 10월 14일 날에 오는 비행기에 보내. 그래 보내서 그 믹서에다 과일을 갈아 먹고.}

10308 # 그땀에 코오 갈아서 몸이 너무: 약해서 코오 갈아서 그 밭아서 내 콩죽으 해애 먹지. 콩죽으. 기래서 그 코오 검질하겠는게 치 없으이 썬 여기서다 놓고 가래엿지. 썬 고 하나씩 이룽기 골랐어. 치 없이. 여그 여그 치라는 게 없지, 어전. 어느 치라는 것두 없짐야,{그다음에 콩을 갈아서 몸이 너무 약해서 콩을 갈아서 그것을 밭아서 내가 콩죽을 해 먹지. 콩죽을. 그래서 그 콩을 깨끗이 손질하려는 것이 키가 없으니 썬 여기서다 놓고 가

렸지. 싹 고걸 하나씩 골랐어. 키 없이. 여기, 여기는 키라는 것이 없지, 이제는. 어느 키라는 것도 없지(=어떤 키도 없지) 뭐 응.)

10308 @ 그문 치질 잘 잘 하세요?{그러면 키질 잘 하세요?}

10308 # 그으래! 잘 하재잉구. 그 거 무 다듬아서 못 쓸 거 싹 내보내구 싸래기두 내보내구 치르 가지구 싹 하지. 게 조선사람덜 촌에서 쓰는 그 치라는 게지. 그렇지. 그렇습니다. 음. 기런데 그 옛날에 글쎄 그런 사실으 그건 알아 어찌하겠습니까?{그래! 잘 하고말고. 그 거 뭐 까불러서 못 쓸 것을 싹 내보내고 싸라기도 내보내고 하는 일을 키를 싹 가지고 하지. 그게 조선 사람들이 사는 촌에서 쓰는 그 키라는 것이지. 그렇지. 그렇습니다. 음. 그런데 그 옛날에 글쎄 그런 (우리가 살아 온) 사실을 알아서 어찌하겠습니까?}

10308 @ 우리: 우리 역사가 우리 말이:,{우리, 우리 역사가, 우리 말이,}

10308 # 역사.{역사.}

10308 @ 역사가 어떻게 그::,{역사가 어떻게 그,}

10308 # 내레왔다는 거?{내려왔다는 것?}

10308 @ 지역에 따라서 서로 달른가 또 같은가,{지역에 따라서 서로 다른지 또 같은지,}

10308 # 그래 역사르 알자구. 그래 역사르, 으음.{그래 역사를 알자고. 그래 역사를, 음.}

10308 @ 그런 거 때문에 지금 남 남 남한 남쪽 그담에 북조선 그담에 여기 중국, 여기 그 러시아 요 중앙아시아 여기에 잇는 우리 고려인 이쪽을 잔::부다 십년 동안에 걸쳐서 지금 조사를 할라구 그래요. 근데 금년이 첫 번째예요, 첫 번째.{그런 거 때문에 지금 남한 남쪽 그다음에 북한 그다음에 여기 중국, 여기 그 러시아, 중앙아시아 여기에 잇는 우리 고려인들까지 전부 다 10년 동안에 걸쳐서 지금 조사를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금년이 첫 번째예요. 첫 번째.}

10308 # 첫번째입니까?{첫 번째입니까?}

10308 @ 그래 저는 전라도쪽에서 하나를 금년에 하고 올 겨울에 여기를 제가 처음으로 온 거예요.{그래 저는 전라도 쪽에서 한 곳을 금년에 하고 올 겨울에 여기를 제가 처음으로 온 거예요.}

10308 # 야야! 그랬습니까?{야! 그랬습니까?}

10308 @ 십년 동안에 타슈켄트 며 잔부다 이쪽,{10년 동안에 타슈켄트며 뭐 전부다 이쪽,}

10308 # 다아 알라 하지. 따시켄트(Ташкент)르 가무 치잇는 집두 잇구.{다 알려고 하지. 타슈켄트를 가면 키 잇는 집도 있고.}

10308 @ 그래 가지구 여기는 여기는 치라구 그러쥬.{그래 가지고 여기는, 여기는 ‘치’라고 그러지요.}

10308 # 예. 치라구.{예. ‘치’라고.}

10308 @ 우리는 키라구 하거든요 키.{우리는 ‘키’라고 하거든요 ‘키’.}

10308 # 키라구?{‘키’라고?}

10308 @ 예. 또 전라도에선 그것을 쟁이라구래요, 쟁이.{예. 또 전라도에서는 그것을 ‘쟁이’라고 그래요, ‘쟁이’.}

10308 # 예에, 우리네는 그저 치라구 하지. 치. 치르 어 버들으 버들으 빼에서 버들두 그 어린 버들 똑같은 거 빼에서 그거 만드는 사람이 잇지. 개 그 치르 치르 만든 거 치르 디딘다 하지. 그렇기 하오.{예, 우리네는 그저 ‘치’라고 하지. ‘치’. 키를 버들을, 버들을 베어서 버들도 그 어린 버들을 똑같은 거 베어서 그거 만드는 사람이 잇지. 그래 그 키를,

키를 만드는 것을 ‘키를 디딘다’고 하지. 그렇게 하오.}

10308 @ 우리는 치르 버들루 안 만들고,{우리는 키를 버들로 안 만들고,}

10308 # 개 무스거?{그래 무엇으로 (만드는가)?}

10308 @ 멀 멀로 맨드는가 하무 그 대나무로 만들어요, 대나무.{무 무엇으로 만드는가 하면 그 대나무로 만들어요, 대나무.}

10308 # 판넬(панель)으 가지구?{판자를 가지고?}

10308 @ 대나무.{대나무.}

10308 # 아, 케나부(конопля)! 게납(конопля)!(아!, 삼을 삼을 (가지고)!}

10308 @ 아니!, 대나무! 대. 여 북쪽엔 없어요. 그게 쯤 남쪽에만 *잇으, (*잇, 자라는),{아니!, 대나무! 대. 여기 북쪽에는 없어요. 그게 쯤 남쪽에만 잇으, (잇, 자라는).}

10308 # 남쪽에만 잇다구?{남쪽에만 있다고?}

10308 @ 일게 쭉쭉 크는 대나무가 있어요.{이렇게 쭉쭉 크는 대나무가 있어요.}

10308 # 아아!{아!}

10308 @ 막 이 집보다두 더 높게 크는 대나무가 있어요. 그것을 따서 우리는 그걸로 만들어요.{막 이 집보다도 더 높게 크는 대나무가 있어요. 그것을 베어서 우리는 그것으로 만들어요.}

10308 # 고걸르 치르 만들지. 아하!{고걸로 키를 만들지. 아하!}

10308 @ 우리는.{우리는.}

10308 # 아하!{아!}

10308 @ 근데 북쪽에는 그것이 없으니까 다 버들루 만들더라구.{그런데 북쪽에는 그것이 없어서 다 버들로 만들더라고.}

10308 # 버들르 만들어. 이 조선에서 여기 노시아서두 버들르 만들어.{버들로 만들어. 이 조선에서 여기 러시아에서도 버들로 만들어.}

10308 @ 남쪽에는 버들이 이렇기 큰 버들이 없어요.{남쪽에는 버들이 이렇게 큰 버들이 없어요.}

10308 # 없다구? 어.{없다고? 어.}

10308 @ 남쪽에는 가늘어요 버들이.{남쪽에는 줄기가 가늘어요, 버들이.}

10308 # 글썸.{글썸.}

10308 @ 그래 못 만들지.{그래 못 만들지.}

10308 # 아 남쪽에는 그런 큰 버들이 없구. 남쪽에는 가마귀두 흔채잉구, 아 가마귀두 어****,{남쪽에는 그런 큰 버들이 없고. 남쪽에는 까마귀도 흔하지 않고. 까마귀도 어****,}

10308 @ 그러니까 이렇게 지역에 따라서 머 비슷하게 다 있기는 다 있는데 지역에 따라서 만드는 것도 또 그 만드는 방법두 다르고 또 그 만드는 재료도 달르고.{그러니까 이렇게 지역에 따라서 뭐 비슷하게 다 있기는, 다 있는데 지역에 따라서 만드는 것도 또 만드는 방법도 다르고 또 그 만드는 재료도 다르고.}

10308 # 그러재이꾸. 그러재이꾸. 다르재이꾸.{그렇고 말고. 그렇고 말고. 다르고말고.}

10308 @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농사짓는 방법도 베질하는 것도 그 지역마다 다르잖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그 농사짓는 방법도 벼농사를 짓는 것도 그 지역마다 다르잖아요.}

10308 # 아 다르지, 머. 다 다르지 무 야.{아 다르지, 뭐. 다 다르지 뭐 응.}

10308 @ 따쵸.{다르쵸.}

10308 # 다 다르제 아.{다 다르지, 아.}

10308 @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셨는가. 왜냐하면 지금 살아 계시는 이 어른들이 돌아가시면 이제 알 수가 없어요.{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셨는가. 왜냐하면 지금 살아 계시는 이 어른들이 돌아가시면 이제 알 수가 없어요.}

10201 # 없짐. 없습니다. 지금 이 아 젊은이들이 지금 마약에 칠십이 내보구 십년, 저 칠십 먹은 것두 좀 총기[총끼] 좋은 게나 뽀니(помнить)를 하지 모르는 게 있습니다 예. 개 내같은 팔십 먹은 이런 늙은이들이야 다 거반 다아 아지. 게 다 원동~에서 온 켄데. 원동에서 그렇기 생활하다가서 여그 싫게[실게] 오다나이 아지. 나아 잇는게 아지.{없지 뭐. 없습니다. 지금 이 젊은이들이 지금 만약에 70이면 나보다 10년, 저 70 먹은 사람도 총기가 좋은 사람이나 생각을 하지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예. 그래 나같은 80 먹은 이런 늙은이들이야 거의 다 알지. 게 다 원동에서 온 사람인데. 원동에서 그렇게 생활하다가 여기로 실려 오다 보니 알지. 나이가 있는 사람이 알지.}

10201 # 어: 그래 스페타 내가 기래지. 아: 나르 뻗 살인가? 기래 내 야든한내라구. 그담에느 조선에 갔다와서, 개 그담에 나르 어부라조바니(образование) 공부르 얼마나 했는가. 공부르 무스 그저 조선글으 원동에서 칠학년으 이르다가 싫게[실게] 들어와다구 그랬지. 아, 그레이까나 스페타 그래지. 조선에서 아 우린테르 양바이 한 부이 온다구. 기래 온 적에는 아: 그런 거 내 노시아 말르 베라니까라이나지. 조선 이름 영혜지. 기래 베라니까라이나 만나보잔. 아이 날 무시기 늙은 거 만나바서 어찌는가구. 아, 늙은 거 어티기 만나보.{어 그래서 스페타가 나에게 그러지. 아 나에게 몇 살인가? 하지. 그래 내가 여든하나라고 했지. 그다음에는 조선에 갔다 와서, 그래 그다음에 나에게 교육을, 공부를 얼마나 했는가 묻지. 공부는 뭐 그저 조선 글을 원동에서 7학년을 공부하다가 실려서 들어왔다고 그랬지. 아, 그러니까 스페타가 그러지. 한국에서 아 우리한테로 한 양반이 한 분이 온다고. 그래 온 적에는 그런 거 내 러시아 어 이름은 베라니까라이나지. 조선 이름은 영혜지. 그래 베라니까라이나 만나보지 았겠는가. 아이! 날 무엇이라고 늙은이를 만나바서 어찌하겠는가 하고. 아, 늙은 거 어떻게 만나보자 하는가.}

10201 # 그레이까 아나마 역사르 아자구 만나본다. 아, 그럼 그러라구. 조선말은 내 아는켄데 무. 아, 그럼 그럼 오라구 그랬지. 개 오늘 아침 전화르 하더구면. 그래 그럴 적에 어전 오셔. 그래 온 양바이구마. 이제 그 역사르 옛날 역사르 알자구 온 양바이구. 옛날 역사 알자문 내같은 사람이나 만나구야 아지 모른단 말입니다. 없습니다 그거는. 없습니다. 그건 확실한 일입니다. 확실한 일.{그렇게 말하니까, 아나마나 고려사람이 살아 온 역사를 알자고 만나보려 한다고. 아, 그럼 그러라고. 조선말은 내가 아는 것인데 뭐. 아 그럼 그럼 오라고 그랬지. 그래 오늘 아침 전화를 하더구면. 그래 그럴 적에 이제는 오셔서. 그래서 온 양반이구려. 이제 그 역사를 옛날 역사를 알자고 온 양반이구려. 옛날 역사를 알자면 나 같은 사람이나 만나야만 알지 모른단 말입니다.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건 확실한 일입니다. 확실한 일.}

10201 # 아이 그러구 또 내애 이 양반으 강췌데 강충보라구 내가 일잡인데, 일잡이. 팔십. 야든한넵니다. 이 양반으 어찌는가 이 양반으 조선에서 조선에서 늦어 들어왔습니다. 늦어들어왔어.{아이 그리고 또 내 이 양반은 강씨인데 강충보라고 내와는 동갑인데, 동갑이. 팔십. 여든하나입니다. 이 양반은 어떤가 하면, 이 양반은 북한에서 북한에서 늦

게 들어왔습니다. 늦게 들어왔어.}

10201 @ 북 북쪽에 북조선에서?{북 북쪽 북한에서?}

10201 # 북조선에서. 두만강 건너서 예. 개 두만 건너 늦어 왔는데 이 양반두 잘 압니다. 조선 사실으. 그러구 그러나 나같은 기사 그전에 아 자치조합 데기 전에 개인농사르 하다 나이 거 다 아지. 어티기 한 거. 개인농사라는 게. 우리 부모덜 그거 농사르 저어서 그 농사르 파난 같은 거느 큰 가매에다 찌서 이 구들돌, 구들돌이서 하짐. 구들돌 집이다 거 말리워서 깔개 우에 덮구 말리워서 다아 마른 다음에 그거 찌어서 쌀으 해아서 그래 먹으메 그렇기 살았지 예. 그런 거 이 **찬건(←산 건) 어티기 산 건 모르겠습니다. 어티기 산 건. 그러나.{북한에서. 두만강을 건너서 예. 그래 두만강을 건너 늦게 왔는데 이 양반도 잘 압니다. 조선에 관한 사실을. 그리고, 그러나 나 같은 것이야 그전에 아 집단 농장 되기 전에 개인 농사를 하다 보니 거 다 알지. 어떻게 한 것을. 개인 농사라는 것이. 우리 부모들이 그 농사를 지어서 그 농사를 지어 피 같은 것은 큰 가매에다 찌서 이 방구들, 방구들에다 널어 말리지. 방구들이 있는 집에다 그것을 말려서 샷자리로 위를 덮고 말려서 다 마른 다음에 그거 찌서 쌀을 해서 그래 먹으며 그렇게 살았지 예. 그런 거 이 산 것은 어떻게 살았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산 것은. 그러나.}

10604 @ 옛날에 그 집은 요오,{옛날에 그 집은 요,}

10604 # 예.{예.}

10604 @ 그으 원동에서 집을 지을 때 집 그 집 위에 지붕은 뭘루 덮었어요?{그 원동에서 집을 지을 때 집 그 집 위에 지붕을 무엇으로 덮었어요?}

10604 # 짚울루 덮었지. 짚울르. 짚이라는 게 무시긴가 하문 곡석으 두두리구 알이 빠지구 나간 거 그거 짚이라. 짚울르 영게르 하짐, 짚우. 짚단으 이릉기 싹 책책책책 책책 이릉기 영게르 하짐. 짚울르 ****.{짚으로 덮었지. 짚으로. 짚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곡식을 털고 알이 빠져 나간 것을 짚이라 하지. 짚으로 이영을 하지 뭐, 짚을 가지고. 짚단을 이렇게 싹 착착 착착 이렇게 해서 이영을 하지. 짚으로 *****.}

10604 @ 집을 얹기 엮어서 한 게 아니고?{짚을 이렇게 엮어서 한 것이 아니고?}

10604 # 아: 엮어서 아이 기래구. 짚 그래 아 짚울르 기래 덮구서 또 바울르 또 이래 새끼라는 건 또 무스거 새끼두 짚울루 맨드지. 짚이라는 거 가주구 무스거 맨드는가 하임, 새끼라는 거 끙니다. ***어너 바. 질기 ***반 아물지. 기래 파서 그 바이도 쓰는 데 많지. 그거 가주구 동지더구마 예. 동지구. 바람에 바람에 날기지 말게 예. 짚으 영기르 합니다.{아 엮어서 이영을 만들어 덮는 것이 아니고. 짚으로, 그렇게 짚으로 덮고서 또 바로, 또 이렇게 새끼라는 건 또 뭐 새끼도 짚으로 만들지. 짚이라는 것을 가지고 무엇을 만드는가 하면, 새끼라는 것을 끙니다. *** 바[繩]. 질기고 아물지. 그래 파서 그 바도 쓰는 데가 많지. 그거 가지고 지붕을 동이더구면 예. 동이고. 바람에 바람에 날리지 말게 예. 짚으로 이영을 합니다.}

10604 # 이 조선에서 췌애집이구 예 그렇지만 해애두 예, 아 여기 여기서 원도~에서 살던 때 야 전체 짚우르 영기르 하지. 집우 집우느 핏자~아 쳐서 핏자~아 이래 짚구 그러재이문 또 문티르 가지구 짓구. 영기는 짚울르 하지. 짚울르 합니다.{이 조선에야 기와집이고 예 그렇지만 해도 예, 아 여기 원동에서 살던 때야 모든 집이 짚으로 이영을 하지. 집을 집은 흙벽돌을 찍어서 흙벽돌을 이렇게 만들고 그렇지 았으면 또 통나무를 가지고 짓고. 이영은 짚으로 하지. 짚으로 합니다.}

10608 @ 으음. 그문 짚우르 이룽기 하는데 맨 집이 집이 있으면 맨 위에다 덮는 건 머라구
해요?{음. 그러면 짚으로 이렇게 하는데, 집이 집이 있으면 맨 위에사 덮는 것은 뭐라고
해요?}

10608 # 용말기라 하지 예. 용말기.{‘용마름’이라 하지 예. 용마름.}

10603 @ 그 용말기는 어티게 어티게 만 만들,{그 용마름은 어떻게, 어떻게 만, 만들,}

10603 # 어티기 만드느가 하이 빙: 이래 이래 집이 마약에 이러문 그 우우 집우 덮갯는데 이
룽기 이룽기 짚우 덮지. 짚우 덮구 앞두에 덮구 이 우우 우이 우우 덮는 거 그게 용말기
지. 그 지붕 지붕 용말기. 아 그래갯구 용말게다는 또 따게 해 따게 해 덮지. 그거 우에
다. 비 새지 말게. 이래 놓구 이보다 비새지 말게 그것도 그렇게 해 놓구. 그담 새끼랑
꼬구 놓오 끈 거 가지구 싹 동제매지. 기래 개 바람에 날기지 말구 비두 새지 말게 그렇
기 하지. 그렇기 집 집우 짚구. 그런 데서 우리 살았지.{어떻게 만드느가 하니 빙 이렇게
집이 만약에 이러면 그 위를 집 위를 덮고자 하는데 이렇게 이렇게 짚을 덮지. 짚을 덮
고 앞뒤에 덮고 이 위를, 위, 위를 덮는 거 그게 용마름이지. 그 지붕, 지붕 위에 덮는
용마름. 아, 그래 가지고 용마름에다는 (이영과는 달리) 또 다르게, 다르게 해서 덮지. 그
이영 위에다. 비가 새지 말게. 이렇게 놓고 이보다 비 새지 말게 그것도 그렇게 해 놓고.
그다음 새끼랑 꼬고 노를 끈 것을 가지고 싹 동이어 매지. 그래 그래 바람에 날리지 말
고 비도 새지 말게 그렇게 하지. 그렇게 집 집을 짓고. 그런 데서 우리가 살았지.}

10603 # 기래 살았는데 그 집에서 무슨 사랑간두 짚구 거기 머 짐승으 굴두 짚구 무스 가뜩
짚지. 기래 진 거 그거 아 그래다나 그거 싹다 첫 첫칸에 안칸에 기계 싹 구들집이짐.
팔칸집이랑 싹 구들집이짐. 개 그 구들집인데 아 거기서 아 조선사람이 야 아 구들에서
거저 자는 켜데 야. 아 그래 무슨 여기처르 무슨 무스 크로바찌(кровать)나 이런 사니(с
анитарный узел)나 없짐. 거저 그 구들집에다 덩때르 매구 이불이나 얹어 놓구 예 그
렇게 살아.{그렇게 살았는데 그 집에서 무슨 창고(倉庫, =또는 ‘광’)도 짓고 거기 뭐 짐승
의 우리도 짓고 뭐 가뜩 짓지. 그렇게 지은 거 그거 아, 그 그렇다 보니 그거 싹 다 첫
칸 안쪽 칸에 그게 싹 구들을 놓은 구들 집이지. 팔칸집인데 싹 구들을 놓은 집이지 뭐.
그래 그 구들 집인데 아 거기서 아 조선 사람이 응 방구들 위에서 그저 자는 것인데 응.
아 그래 무슨 여기처럼 무슨 뭐 이런 침대나 이런 위생실(=화장실, 목욕탕 등)이 없지
뭐. 그저 그 구들 집에다 시렁을 매고 이불이나 얹어 놓고 예 그렇게 살아.}

10201 # 기래두 그거 우리 내애버리구 싹다 그거 내애버리구 아 국가 말론 그렇지. 짐승덜두
[뚜] 우리 싹 두구 왔다. 개 두구 그렇기 어 집 촌 말으 *재 살기, 자기 살던 집에 집안
에 기구루 물론 무엇이던지 싹다 내애빠리구 왔다. 기래 와서꺼나 이 사람덜 어전 이렇
기 *강주이주르 해엿지. *강주이주르 하기 때문에 이 사람덜 여기 와 이렇게 재빌르 재
빌르 정말 아 재비 노력을르 보독거레 모도 사는데 돈 물어주어야 텐다는 거 국가에서.
{그래도 그거 우리 내버리고 싹다 그거 내버리고, 아 국가 말로는 그렇지. 짐승들도 우
리가 싹 두고 왔다. 그래 두고 그렇게 어 집이며 촌 마을 자기가 살기, 자기가 살던 집
에 집안에 기구는 물론이거니와 무엇이든지 싹 다 내버리고 왔다. 그렇게 왔으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강제 이주를 했지. 강제 이주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여기 와
이렇게 스스로 스스로 정말 자신의 노력으로 다독거려 모두 사는데 돈을 물어 주어야 된
다는 것을 국가에서,}

10201 # 그래 이 돈 물어준거 나는 아 까자흐스탄(Казахстан)서 준다구 까자흐스탄(Казахс

тан) 대통령 내 그거 치새르 해엿지. 아 그랬더이만 아 까자끄 아 조선에서 한국에서 서울에서 돈으 보내 조선인민 얼마 잇는거 그거 주라구 돈 보냅답니다. 그러이 우리 조선에서 조선사람우 어띠끼 위대스레 여깁니까? 그래 우리는 아: 이 조선사람이 까자흐스탄(Казахстан)이구 잠불(Джабул)이구 키르기스(КЫРГЫЗСТАН)구 여기구 잠불(Джабул)이구 이 사처에 싹 널게 잇지. 개 널게 잇는 거 그거 다아 한데 모다서 아 살았으문 좋겠는데 그전에는 그런 다 원도~으다 한 곳에다 다 모둔다아 하던 게 그런 말두 어전 다 없지. 한 곳에다 원도~으 모둔다 했습시다. 원도~. 개 원동에서 우리 신게 들어와두 원도~으르 나가는 사람이 많지. 기래 원도~.{그래 이 돈을 물어 준 거 나는 아 카자흐스탄에서 준다고 해서 카자흐스탄 대통령에게 내가 그 치사(致謝)를 했지. 아 그랬더이만 아 카자흐가 (아니고) 한국에서 한국에서 서울에서 돈을 보내 조선 인민이 얼마 잇는데 그들에게 그거 주라고 돈을 보냈답니다. 그러니 우리 한국에서 조선 사람을 어떻게나 위대하게 여깁니까? 그래 우리는, 아 이 조선 사람이 카자흐스탄이고 잠불(현재, 따라즈)이고 이 사처(四處, =사방)에 싹 널려 잇지. 그래 널려 잇는 거 그거 다 한데 모아서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전에는 그런 다 원동에다 한 곳에다 다 모은다고 하던 것이 지금은 그런 말도 이젠 다 없지. 한 곳에다 원동에다 모은다고 했습시다. 원동. 그래 원동에서 우리가 (이곳으로) 실려 들어왔지만 (다시) 원동으로 나가는 사람이 많지. 그래 원동.}

10201 @ 지금도 원동으로 간 사람들 있어요?{지금도 원동으로 간 사람들이 있어요?}

10201 # 잇습시다. 잇어두 아 여기 사는 사람이 낮게 삽니다. 어째 낮게 사는가 여기는 물르 농사르 하다나 순풍녀~이라는 게 없지. 기래 원도~으느 비 너무 오문 마해서 아이 데구. 아 그담엔 또 비 오재이무 가물아 아이 데구 그렇지. 개구 북조선에서 어째 해마다 그렇기 야아!. 북조선이 김일서~이 상재난 두에 그양 거저 비와서 다 싹게 내려가지 않으문 거저어 무슨 아 가물이 와 기래 농새 아이 데서 사람이 굶우나 다름에 없는데 우리 서울에서 어티기 돕, 서울에서 술한 쌀으 그 배 배애다 실어다 부리우는 계랑 내 기양 보재 입니까. 야아!. 그러구 북가 북가 그 삼팔선으 거다 만들어 놓구 지금 북가 남이 그저 그건 그러 그래 그랬지. 그랬는데. (전화 벨 소리) 켈리뿐(телефон) 줘. 저 저 켈리뿐(телефон).{잇습시다. 잇어도 여기 사는 사람이 낮게 삽니다. 어째 낮게 사는가 하면 여기는 물로 농사를 짓다 보니 흉년과 풍년이라는 것이 없지. 그래 원동은 비가 너무 오면 장마가 쳐서 안 되고. 그다음에 또 비가 오지 않으면 가물어서 안 되고 그렇지. 그리고 북한에서 어째 해마다 그렇게 야!. 북한이 김일성이 죽은 뒤에 그냥 그저 비가 와서 다 싹겨 내려가지 않으면 그저 무슨 가물이 와서 그래 농사가 안 돼서 사람이 굶는 것과 다름이 없는데 우리 서울에서 어떻게 돕, 서울에서 술한 쌀을 그 배 배애다 실어다 부리는 것이랑 내 그냥 보잖습니까. 야! 그리고 북과 북과 그 삼팔선을 거기다 만들어 놓고 지금 북과 남이 그저 그건 그래 그랬지. 그랬는데. (전화 벨 소리) 전화를 줘. 저 저 전화.}

10201 # 기래 고담에 내가 무슨 말하다 말았는가. 내 지금 무슨 말 해엿습니까?{그래 고 다음에 내가 무슨 말하다 말았는가.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했습니까?}

10201 @ 저두 저거 받느라구 잇어빠렸어. (웃음){저도 저거 받느라고 잇어 버렸어. (웃음)}

10201 # 아이 저 바람에 내 다아 잇어빠렸어.{아이, 저 전화 바람에 내가 하던 말을 다 잇어 버렸어.}

10201 # 무슨. 내게 아주 충기[충끼] 좋습시다. 충기[충끼] 좋기 때문에, 충기[충끼] 좋기 때문에 이 조그마:난 글으 가주구 이 글으 가지구 내 이때까지 일으 해엿지. 내 이 조선말

르 보고도 마이 했습니다. 원동서 신게 들어온 이 역사르 이 보고도 마이 했지. 내 총기 [총끼] 좋길래 기랬지. 이제 늙구 보이 총기[총끼]두 없지. 금방 말한 거 다 잊어빠렸지. 늙은 게 어찌겠습니까. (웃음){무슨. 내게 아주 총기가 좋습니다. 총기가 좋기 때문에, 총기가 좋기 때문에 이 조그마한(=보잘 것 없는) 글(=지식)을 가지고 이 지식을 가지고 내 이때까지 일을 했지. 내가 이 조선말로 보고도 많이 했습니다. 원동에서 실려 들어온 이 역사를 이 보고도 많이 했지. 내가 총기가 좋기 때문에 그랬지. 이제 늙고 보니 총기도 없지. 금방 말한 것을 다 잊어 버렸지. 늙은 것이 어찌하겠습니까? (웃음) }

10201 # 개 총기[총끼] 좋다나이 아이 때 배운 노래르 잊어 아이 뿌리구 여그 와서 노인덜 다아 배와 주구 그담에는 조선식이던지 그러구 사람덜이 사망하재입니까? 사람덜 사망하는 데 그 사망하는 거 조선에서 조선에서 사람덜 오무 첫째 나르 **만나봅니다(←만나봅니다). 저 ***아소꾸서 예 개 ***아소꾸서 첫째 나르 만나보메서리 ***아소꾸서 나르 만나보구 조선에서 내 물어보지. 내 여기서 이렇게 저렇게 사람이 사망하는 거 어쩐가 조금 딴 거 딸르 알케주구 옳다 하지. 그래 사람이 사망하무 그 명정으 쓰는 게랑 내한테 달라웁니다.{그래 총기가 좋다 보니 아이 때 배운 노래를 안 잊어 버리고 여기 와서 노인들에게 다 가르쳐 주고 그다음에는 조선 식이든지 그리고 사람들이 사망하잖습니까? 사람들이 사망하는데 그 사망하는 거 조선에서 조선에서 사람들이 오면 첫째 나를 만나봅니다. 아소꾸서 예 그래 아소꾸서 첫째 나를 만나보면서 아소꾸서 나를 만나보고 조선에서 내게 물어 보지. 내 여기서 이렇게 저렇게 사람 사망하는 거 어찌하는가 조금 다른 거 다르게 가르쳐 주고 옳다 하지. 그래 사람이 사망하면 그 명정(銘旌)을 쓰는 것이랑 (이런 저런 일로) 나한테 달라웁니다.}

10201 @ 아아!{아!}

10201 # 그저 이 켈레뿐(телефон) 쉼새 없습니다. 그저 내한테.{그저 이 전화가 쉼새 없습니다. 그저 나한테.}

10226 @ 명정, 명정도 쓰실 줄 아세요?{명정, 명정도 쓰실 줄 아세요?}

10226 # 명정두 **쓰지. 개구 축두 부르지 명정도 쓰지. 내 기래지 예. 기래 그거 우리 아에떠(это) 아즈바이랑 우리 삼추이랑 상새나메 우리 삼추이랑 옛날 사람덜 그거 다아 알았지. 개 그거 다 알던 양반덜 상새나메 그 내가 말했지. 어떡어떠기 하라는 거. 개 어떡어떠기 하라는 거 하이 내 그대루 하지. 내 지금두 상새난 데서 자꾸 내인데르 옵니다. 자꾸 명정으 쓰라구 오지. 상새나무 어 축으 부르라구 오지. 아 어떡어찌는거 그거 점문이덜이 내놓구 모도 아무것두 밤중이지. 아무것두 모르짐. 개 모르는 데 가서 상새나무 어떡어찌 ***내실하구 어찌구 어찌구 하는거 내 그 법두 다아 압니다. 기래 알길래 알길래 내 지금 복잡합니다. (웃음) 내,{명정도 쓰지. 그리고 축(祝)도 읽고 명정도 쓰지. 내 그러지 예. 그래 우리 음 작은아버지랑 우리 삼촌이랑 돌아가시며, 우리 삼촌이랑 옛날 사람들이 그거 다 알았지. 그래 그거 다 알던 양반들이 돌아가시며 그 명정에 대해서 내게 말했지. 어떻게 어떻게 하라는 것. 그래 어떻게 어떻게 하라는 것을 하니 내가 그대로 하지. 내 지금도 상갓집에서 자꾸 나한테로 옵니다. 자꾸 명정을 쓰라고 오지. 누가 죽으면 축을 부르라고 오지. 아 어떻게 어찌하는 거 그것을 젊은이들을 제외하고 모두 아무것도 몰라 밤중이지(깜깜하지). 아무것도 모르지 뭐. 그래 (상사(喪事)를 어떻게 치르는지) 모르는 데 가서, 누가 죽으면 어떻게 내실(內室)을 하고(안치실을 마련하고?) 어찌하고 어찌하고 하는 것을 내가 그 법도 다 압니다. 그래 알기에 알기에 내 지금 사는 것

이 복잡합니다. (웃음) 내가.}

10226 @ 그러시것구먼요.{그러시겠군요.}

10226 # 예. 복잡하게 내 보냈습니다. 개 어전 내 기래지. 나르 어전 다치지 말라구. 다치지 말구 다른 사람인데르 가라구. 돌아다니다 돌아다니다 없어서 여기르 왔다 하지. 기래 오무 내 써 주짐. 개 내 써 주무 그래 가주갑니다.{예. 복잡하게 내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래 이젠 내 그러지. 나를 이제는 건드리지 마라고. 건드리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로 가라고. 그러면, 돌아다니다 돌아다니다 없어서 여기로 왔다고 하지. 그래 오면 내가 써 주지 뭐. 그래 내 써 주면 그래 가지고 갑니다.}

10227 @ 여기는 상재나면 갖다가 이렇게 물어요?{여기는 사람이 죽으면 갖다가 이렇게 물어요?}

10227 # 예.{예.}

10227 @ 태워요?{(아니면) 태워요?}

10227 # 묻습니다. 모에다 묻습니다. 태우는 게 여기는 없습니다. 모스크바(Москва) 태우는 게 잊지 않습니다. 모스크바(Москва) 아아 태우는 게 잊지 태우는 게 없구 여기다 산에다 싹 묻습니다. 응.{묻습니다. 모에다 묻습니다. 태우는 것이 여기는 없습니다. 모스크바(Москва)에 태우는 것이 있지 여기는 없습니다. 모스크바(Москва)에 가면 태우는 것이 있지 여기는 태우는 것이 없고 여기다 산소에다 싹 묻습니다. 응.}

10227 @ 여기 여기 여기 그 끼 끼르끼스스탄(Кыргызстан) 사람두 그렇기 해요?{여기 여기 여기 그 키르기스스탄 사람도 그렇게 해요?}

10227 # 예. 그 그렇기 묻는 데두.{예. 그렇게 묻는 데도.}

3. 박블라디미르의 이주와 정착 생활

<파일 정보>

kk_bs_08 : 구술 발화02(박블라디미르 이주사, 구술 발화 항목 전반)

조사자 : 소강춘

전사자 : 김수현, 곽충구

주 제보자 : 박블라디미르(남, 1928년 3월 11일생)

보조 제보자 : 안타샤(여, 1929년 1월 21일생)

주소 : 중앙아시아 키르기스스탄 공화국

조사장소 : 중앙아시아 키르기스스탄 공화국

조사일시 : 2004. 12. 14.~12. 28.

10603 @ 혹시요. 옛날에 저 원동에서 이사 오셨거나 원동에 계실 때든지.{혹시요. 옛날에 저 원동에서 이사 오셨거나 원동(遠東)에 계실 때든지.}

10603 # 예.{예.}

10603 @ 혹시 집을 지어보셨어요 집, 이런 집으?{혹시 집을 지어 보셨어요 집, 이런 집을?}

10603 # 부모가 같이 잇다나이 집이사 잇엇습지 며 재밋집이.{부모와 같이 잇다 보니 집이야
있엇지요 뭐 자기 집이.}

10603 @ 음 재밋집이.{음 자기 집이.}

10603 # 예.{예.}

10603 @ 집을 만들어 보진 았으셨죠힌?{집을 만들어 보지는 았으셨지요?}

10603 # 내 밧써 그직[찍]에 밧살으르 먹엇겠는지 우리 부치이 새집우 팔간집우 *쌤 재빌르
팔간집우 저엇습뎜.{내 밧써 그 때에 밧 살을 먹엇겠는지 우리 부친이 새 집을 팔 칸 집
을 손수 팔 칸 집을 지엇더군요.}

10603 @ 오디서요?{어디서요?}

10603 # 원도~서.{원동에서.}

10603 @ 원동서.{원동서.}

10603 # 예. 연해주에서.{예. 연해주에서.}

10603 @ 연해주에서.{연해주에서.}

10603 # 부잘노브스키 구역이란 거기서 남행도 조합에서.{부잘노브스키 구역이라는 거기서
남향동 조합에서.}

10201 @ 음. 그면은 어르신은 거기서:: 밧살때 이리 오셨어요?{음. 그러면은 어르신은 거기
서 밧 살 때 이리 오셨어요?}

10201 # 내 시방 우리 부치이 이 일천팔백 구십 이연새~입니다. 그래.{내 시방 우리 부친이
1892년생입니다.}

10201 @ 구십이년생.{92년생.}

10201 # 예. 에 야뵤에 마흔다섯에 여기르 이주르 헛스.{예. 에 여뵤에 마흔다섯 살에 여기로
이주르 헛습니다.}

10201 @ 아버지가 마흔다섯에.{아버지가 마흔다섯에.}

10201 # 마흔다섯에 예.{마흔다섯에 예.}

10201 @ 그때 그때 아바이는 그때는 연, 밧살이셨어요?{그때 그때 할아버지는 그때는 밧살
이셨어요?}

10201 # 내?{나?}

10201 @ 예.{예.}

10201 # 아홉살에.{아홉 살에.}

10201 @ 아홉살에.{아홉 살에.}

10201 # 예. 아홉살에.{예. 아홉 살에.}

10201 @ 그면은 그쪽에서 원동에서 학교 밧학년 다니셨엇어요?{그면은 그쪽에서 원동에서
학교 밧 학년까지 다니셨엇어요?}

10201 # 예?{예?}

10201 @ 원동에서 학교 밧학년 필업했냐고.{원동에서 학교 밧 학년 필업(畢業)했냐고.}

10201 # 예. 저 삼학년 필헛스.{예. 저 삼학년을 필헛습니다.}

10201 @ 삼학년.{삼학년.}

10201 # 예. 삼학년으 이 조선글으 삼학년 일겠습지. 삼학년 이르다서리 이주르 헛습지.{예.
삼학년을 이 조선글을 삼학년까지 공부헛지요. 삼학년까지 공부하다가 이주르 헛지요.}

10201 @ 음. 그면은 그 이후로는 그 뒤로는 우리 조선글 안배우셨어요?{음. 그러면은 그 이

후로는 그 뒤로는 우리 조선글 안 배우셨어요?)

10201 # 모알아 들었습시다.{못 알아 들었습시다.}

10201 @ 삼학년 삼학년 필하구 여기 와 여기 오서가지고는 조선글을 안 안 읽었냐고.{삼학년 삼학년 필하고 여기 와, 여기 오서가지고는 조선글을 안 배우셨냐고.}

10201 # 조선글으 일것습시다. 사십년도꺼지. 사십년도꺼지 일것습시다.{조선글을 배웠습시다. 40년도까지. 40년도까지 배웠습시다.}

10201 @ 핵교가 있었어요?{학교가 있었어요?}

10201 # 예 핵고르 어 때르 떠서 부친덜 모다서 저 맛굴처르 핵고르 징구서르.{예 학교를 어 때를 떠서 부친들을 모아서 저 땅굴처럼 학교를 짓고서.}

10201 @ 어.{어.}

10201 # 임실르 그렇기 수리르 하구서르 에 육학년 필했습시다. 조선글으.{임시로 그렇게 수리를 하고서 에 육학년을 필했습시다. 조선글을.}

10201 @ 육학년 필했어요?{육학년 필했어요?}

10201 # 예 육학년 필했스.{예 육학년 필했습시다.}

10201 @ 오. 그르문 그르문 맨 처음에 오셨을 때는 어디로 오셨어요 따쉬켄트로?{오. 그러면 그러면 맨 처음에 오셨을 때는 어디로 오셨어요? 타슈켄트로?}

10201 # 내 전번에두 말씀했지만은 빠샤뜨빠아뜨 쉰다섯번째 정거자아라는 데다서는 우리르 차에서 네레와농구 그다음번에 화물자동차다 실어서 무인지겨~이 거저 왕대깡이 가뜩 선 그런 데르 집하날두[하나뚜] 없는 데르 그런 데르 가애다 우리르 부리와났습시다.{내 전번에도 말씀했지만 빠샤뜨빠아뜨 쉰다섯 번째 정거장이라는 데다가 우리를 차에서 내려 놓고 그다음번에 화물자동차에다 실어서 무인지경을 그저 큰 갈대가 가뜩 선 그런 데로 집이 하나도 없는 데로 그런 데로 가져다 우리를 부러 놓았지요.}

10201 @ 어. 그면은 거기가 그 오십 오십 세번째?{어. 그러면은 거기가 그 오십 오십 세 번째?}

10201 # 쉰, 오십 다섯번째.{쉰, 오십 다섯 번째.}

10201 @ 오십 다섯번째.{오십 다섯 번째.}

10201 # 예. 예.{예. 예.}

10201 @ 거기가 지금으로 말하문 어디예요?{거기가 지금으로 말하면 어디예요?}

10201 # 거기두 괴게 에{거기도 괴게 에}

10201 @ 까자흐스탄이에요?{카자흐스탄이에요?}

10201 # 아~이 우즈베크스탄 따쉬켄뜨 에 따쉬켄뜨 주 양기울(Янгиюль) 구역이라는데 그거 쉰다섯번째 정거자이 잇습시다. 지금두 잇습시다. 그 정거자이.{아니 우즈베크스탄 타슈켄트 에 타슈켄트 주 양기울 구역이라는 데 그거 쉰다섯 번째 정거장이 잇습시다. 지금도 잇습시다. 그 정거장이.}

10201 @ 음. 그게 우즈베크스탄으로 가셨구나.{음. 그게 우즈베크스탄으로 가셨구나.}

10201 # 예. 예. 우즈베크스탄으로 와 네렸습시다.{예. 예. 우즈베크스탄으로 와 내렸습시다.}

10201 @ 그 우즈베크스탄에서는 그 저 벳일 허셨어요? 농새일?{그 우즈베크스탄에서는 그 저 벳농사 하셨어요? 농사 일?}

10201 # 나느 공부르 하다서리 이 내 뗏 살, 사십육년도이까데 엘야늬살[예랴늬살]입지.{나는 공부를 하다가 이 내가 몇 살 (때인가 하면) 46년도니까 18살이지요.}

10201 @ 음.{음.}

10201 # 엘야뿔살[예라뿔쌀]이 대해서 그전에 전장시기에 자란덜까 같이[가치] 반나래르 공부르 하구 반나래르 전장에 나가서 깍질르 따 꽤기질했습니다.{18살이 되서 그전에 전쟁시기에 어른들과 같이 만나절을 공부르 하고 만나절을 전쟁에 나가서 팽이로 땅 파기를 했습니다.}

10201 # 내마 기랜게 아이라 학생덜이 거저 열두[yærdu]어 서너살 덴 학생덜이 다 그룽게 노력했습니다.{나만 그런 게 아니라 학생들이 그저 열두서너 살 된 학생들이 다 그렇게 일했습니다.}

10201 # 귀직[찍]에느 모든 이루느 승리로 승리를 위하여 모든 이루느 전선으 위하여 이 부름에 따라서 요런 저 짜다만 아덜으 아이덜하구람 나가 싹 일했습니다.{그적에는 '모든 의무는 승리로, 승리를 위하여. 모든 의무는 전선을 위하여.' 이 부름에 따라 요런 저 자그마한 아이들을, 아이들하고랑 나가 싹 일했습니다.}

10201 @ 아:.{아.}

10201 # 음식두 방저~이 며, 먹지못하메 배르 굶으메서리 그룽기 일했습니다. 기래다서리 내 엘야뿔살[예라뿔쌀]에 미하일노브까라는 그 촌에 이상 사춘 행네덜 거기 살았습니다. 기래 보내기르 좀 일없이 보내구 우리느 몹시 그때까리 구차이 보냈습니다. 그저 시격, 술 오락가락 하나 다림없었습니다. 기래 사십육년도에 사춘덜이 가깨비[kak'εβi] 가까이 오라 해서 기래 거기 이새르 가서 내 팔촌 형님이 지도르 해가지구서르 베르 수문 데서 삼년도안 내 일했습니다.{음식도 방정히 며, 먹지 못하며 배를 굶으면서 그렇게 일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 열여덟 살에 미하일노브까라는 그 촌에 손위 사춘 형네들이 거기 살았습니다. 기래 보내기를 좀 괜찮게 보내고 우리는 몹시 그 무렵에 구차히 보냈습니다. 그저 끼니는 숟가락 (하나만) 오락가락 하(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기래 1946년도에 사춘들이 가까이 가까이 오라 해서 기래 거기 이사를 가서 내 팔촌 형님이 지도르 해서 벼를 심은 데서 삼년 동안 내가 일했습니다.}

10201 @ 아 벼농사르.{아 벼농사를.}

10201 # 예. 예. **벼농사난데. 개 총각으 거기서 삼년동안으 그 세 번째 해에 벼수확으 많이 [마이] 거더서 부요한 생활이 ***뜨령뻬~이 댕습니다.{예. 벼농사를 하는 데. 기래 총각으로 거기서 삼년 동안을 (살았는데) 그 세 번째 해에 벼 수확을 많이 거뒀서 부요(富饒)한 생활이 ***이 댕습니다.}

10201 @ 네.{네.}

10201 # 기래 내 한뉘르 이룽기 깍지질해서느 아이 데갯다 무슨 기술으 소유해야 데갯다구 기래 따쉬켄뜨 가서 우즈베크스탄 수도 따쉬켄뜨 가서 그 영화기술 핵골 일년동안 일거서 그 핵고르 졸업했습니다. 기래 졸업하구서르 거기서 나르 음, 일신치르치끄(Нижний Чирчик)란 그 구역으르 파견해서 보냈습니다. 기래 거그 가서 일에 턱 착수르 해서 그 한 기관에서 서른한해도안[또안] 일했습니다.{기래 내가 한평생 이렇게 팽이질해서느 안되겠다 무슨 기술을 소유해야 되겠다고 기래 타슈켄트에 가서 우즈베크스탄 수도 타슈켄트에 가서 그 영화기술 학교에서 일년 동안 공부르 해서 그 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기래 졸업하고서 거기서 나르 음, 일신치르치끄라는 그 구역으로 파견을 보냈습니다. 기래 거기 가서 일에 턱 착수를 해서 그 한 기관에서 31년 동안 일했습니다.}

10203 @ 그면은 결혼을 언제 하셨어요?(그러면은 결혼을 언제 하셨어요?)

10203 # 예?{예?}

10203 @ 결혼. 혼세. 서방은 언제 가셨냐고.{결혼. 혼사. 장가는 언제 가셨냐고.}

10203 # 예에! 서방으 내 그 파견받아서 일할라 온 곳에서 저분네르 만나서 오십일년도에 장가르 갖습니다.{예! 장가를 내 그 파견 받아서 일하러 온 곳에서 저 분(보조 제보자 안타샤)을 만나서 1951년도에 장가를 갖습니다.}

10203 @ 장가를.{장가를.}

10203 # 예.{예.}

10203 @ 그면은 그때 몇살 때세요.{그러면은 그때 몇 살 때이세요.}

10203 # 그적에 음 스물세살.{그적에 음 스물세 살.}

10203 @ 스물세살.{스물세 살.}

10203 # 예. 예.{예. 예.}

10203 @ 아매는 스물두살?{할머니는 스물두 살?}

10203 # 예. 스물두살.{예. 스물두살.}

10203 @ 음. 그면은 아매는 어디 오디 사셨어요?{음. 그러면은 할머니는 어디 어디 사셨어요?}

10203 # 아매느 예 까자르스탄 기계 쫓 엔 따그(так) 그 드레찌(третий) 제삼인테르나찌오날(Третий интернационал)으란 그 조합에서 어 부모네가 같이 잇다서리 그 내 파견받아 와서 일하는 그 고자~에서 멀재잉게 친삼촌네 살았습니다.{할머니는 예 카자흐스탄 그게 쫓 아니 그 세 번째, 제3인터네셔널이란 그 조합에서 어 부모네와 같이 잇다가 그 내가 파견 받아 와서 일하는 곳에서 멀지 았게 친삼촌네에서 살았습니다.}

10203 @ 어: {어.}

10203 # 기래 거 살, 거기 그직[찍]에두 저분네두 거기서 못 몸썰[mops'i] 생활하기 바뿌이 까테 삼추이 오라구해서 저분네 그 데려왔습짐. 기래 와서 어찌해 면목으 익혀서 서르 만나서 그렇게 약호이 텃엇습니다. (웃음).{그래 그거 살, 거기 그적에도 저분네도 거기서 몸썰 생활하기 힘드니까 삼촌이 오라고 해서 저분네를 그 데려왔지요 뭐. 그래 와서 어찌해서 면목을 익혀서 서로 만나서 그렇게 약혼을 했습니다. (웃음).}

10203 @ (웃음). 그면은 그때 양쪽집에서 잉게 소개한 게 아니고 둘이 만나서 연애한거예요?{(웃음). 그러면은 그때 양쪽 집에서 이렇게 소개한 게 아니고 둘이 만나서 연애한 거예요?}

10203 # 어허 예 그렇게 해서 (웃음).{어허 예 그렇게 해서 (웃음).}

10203 @ 그때도 연애가 되 가능했어요?{그때도 연애가 되, 가능했어요?}

10203 # 그때 내 다 연애해서 다 한가지겠습지 무스. (웃음) 거저 이래 기래 만나서 서르 저녁이무 서르 대면해보구 서르 그담 차차차차 서르 아름답게 보메서르 사랑하게 댕습지. (웃음).{그때 내가 (나뿐만 아니라) 다 연애해서 다 한가지겠지요 무슨. (웃음) 그저 이래 그래 만나서 서로 저녁이면 서로 대면해 보고 서로 그다음 차차차차 서로 아름답게 보면서 사랑하게 댕지요. (웃음).}

10203 @ (웃음) 댕년 댕년 만나고 만나다가 결혼하셨어요?{(웃음) 몇 년 몇 년 만나고 만나다가 결혼하셨어요?}

10203 # 이태만에 켈혼했다.{이태만에 결혼했다고.}

10203 @ 이태만에.{이태만에.}

10203 # 예 예. 이태만에 결혼으 했스꾸.{예 예. 이태만에 결혼을 했습니다.}

10203 @ 그 오래 만나셨구마.{그 오래 만나셨습니다.}

10203 # (웃음).{(웃음).}

10203 @ 어:.{어.}

10203 # 기래 저분네두 구차하구 어 옷이랑 특별이 입지 못하구 기래 놓오~이 어디르 나뎡기 지에일구 거저 어 집구석에 그야르 앉구잇으나 다림없엇댓습니다. 기래 나두 어 이상 형 님네 집와서 잇으메서리 나두 또 구와같은 행페이 대엇습지. 기래 재빌르 일하멘서리 월 급우 타~이까데 조끔 생활행페이 피와젓습지.{그래 저분네도 구차하고 어 옷이랑 특별히 입지 못 하고 그래 놓으니 어디로 나다니지 않고 그저 어 집구석에 그 모양으로 앉아 있는 것과 다름없엇었습니다. 그래 나도 어 손위 형님네 집에 와 있으면서 나도 또 그와 같은 형편이 됐지요. 그래 스스로 일하면서 월급을 타니까 조끔 생활 형편이 퍼졌지요.}

10203 @ 음.{음.}

10201 # 기래 오십일년도에 잔체르 지내구 그해에 자아 자아 받아들이 낳앗습니다, 예. 기래 어저느 쉰세해째 저 노친가 같이 집엇소.{그래 1951년도에 혼인 잔치를 치르고 그 해에 저 아이 저 아이 받아들을 낳앗습니다. 예 그래 어언 53년째 저 노친과 같이 근근이 살아 왔소.}

10201 @ (웃음).{(웃음).}

10201 # 기래 여기서두 그 졸로또이(ЗОЛОТОЙ) 스바지바(Свадьба) 쉰해또안으 같이 살무 그 크게 연헤르 챙깁니다 여기서.{그래 여기서도 그 금혼식을, 50년 동안을 같이 살면 그 크게 연회를 챙깁니다, 여기서.}

10201 @ 예, 예.{예, 예.}

10201 # 누구던지 다그렇게. 개두 우리두 그때 행펜에 그거 엠매던지 채래 행페이 대엇습지. 기린테 자아 저렇기.{누구든지 다 그렇게. 그래도 우리도 그때 형편이 그케 얼마던지 차릴 형편이 되었지요. 그런테 저 아이가 저렇게.}

10201 @ 음.{음.}

10201 # 애석하게[애서가게] 홀 죽다나이 그 졸로또이(ЗОЛОТОЙ) 스바지바(свадьба)두 못세 구.{애석하게 홀 죽다 보니 그 금혼식도 못 쇠고.}

10201 @ 인저 그면은 칠십오년 사, 사시면 그때 세면 되죠.{이제 그러면은 75세까지 사, 사시면 그때 쇠면 되죠.}

10201 # 예?{예?}

10201 @ 칠십오(년).{75세.}

10201 # 아이구! 이제 무슨 무슨 전 ***전새~이 나서. 나는 저기 기래두 (기침) 재비 칠십오 주연[쭈연]으 요 멀재일게서르 카페에서.{아이고! 이제 무슨 무슨 **이 나서. 나는 저기 그래도 (기침) 자기 75주년을 요 멀지 않게 (있는) 카페에서.}

10201 @ 음.{음.}

10201 # 손님덜 한 육십명 초대르하구서르 잘 지나갓습니다. 그 내 저 무궁화서 이 전백에 거는 시계두 내게다 선사르 하구.{손님들을 한 육십명 초대를 하고서 잘 지나갓습니다. 그 내 저 무궁화 (노인단)에서 이 앞 벽에 거는 시계도 내게다 선사를 하고.}

10201 @ 음.{음.}

10201 # 그라모트(грамота)두 표차장두[표차짱두] 내게 선사르 하구 기랫습니다. 갠테 저분

네 올해 칠십오주연의 간단해개래두 어르기 왜때자가이 당체 아~이 그 그만두라구. 내 저기 상때같은 아르 개애다 묻, 물어놓구 어전 열한내 데지만은 무슨 ***전세~이 나서 저기 그 채래갯는가구 딱 나습어서 못 채랫소.{증서(證書)도, 표창장도 내게 선사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 분이 올해 칠십오 주년을 간단하게라도 어떻게 기억해 때우자고 하니 당최 아니 그 그만두라고. 내 저기 생때같은 아이를 가져다 묻, 물어 놓고 이제 열한 해 되지만은 무슨 **이 나서 저기 그 차리갯는가 하고 딱 못 하겠다고 버터서 못 차렸소.}

10603 @ 음. 그 그 팔칸집을 지면은요 원동에서 졌던 그 집하고 원동에서 살던 집하고 우즈베키스탄에서 살던 집하고 같았어요 달, 달랐어요?{음. 그 그 팔 칸 집을 지으면요 원동에서 지었던 그 집하고 원동에서 살던 집하고 우즈베키스탄에서 살던 집하고 같았어요 달랐어요?}

10201 # 원도~에서 그 재빌르 좃인 집우 국가에선 우리 이주르 해오기 전에 한주일의 한주일 어간에 무슨 짐 짐이랑 가주구 못갈 짐우 빼짤느(специальный) 이릉기[이르끼] 저 국가서 꼬미씨이(коммиссия) 와서 거기다서 싹 바치구 거기서 까금: 매에서 돈으 글жат 돈[글짜돈] 이래 받았습지. 기래 집두 싹 이래 돌아보구서르 어 집값이랑 다 국가서 물어줬습습니다.{원동에서 그 자기 스스로 지은 집은 국가에서는 우리가 이주르 해 오기 전에 한 주일을, 한 주일 사이에 무슨 짐 짐이랑, 가지고 못 갈 짐을 특별히 이렇게 저 국가에서, 위원회가 와서 거기다가 싹 바치고 거기서 가금(價金, =값)을 매겨서 돈을 푼 돈을 이래 받았지요. 그래 집도 싹 이렇게 돌아보고서 어 집값이랑 다 국가에서 물어줬 습니다.}

10201 @ 원동에서요?{원동에서요?}

10201 # 예. 들어올직[직]에 **집밧으[집빠스] 싹 물어줬습습니다. 기랜데 그렇게 많이[마이] 물재잉구 기래다나이 그돈 가주구서르 달반도안으 차에앉아 오텐서리 그돈 가주구 살았습지.{예. (원동에) 들어올 직에 집과 밧 값을 싹 물어줬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물어주지 않고 그러다 보니 그 돈 가지고서 반달 동안을 기차에 앉아 오면서 그 돈 가지고 살았지요.}

10201 @ 그러면은 그때에 그때 그 화차에 앉아서 올때요.{그러면은 그때에 그때 그 화차(貨車)에 앉아서 올 때요.}

10201 # 예.{예.}

10201 @ 음식을 어르게 먹었어요?{음식을 어떻게 먹었어요?}

10201 # 음식으느 정거장마다 와서 설적에무[설적에무] 달아네레가서 빵두 싸먹구 기랫습지. 기래 내 앞서두 애애기르 하지마는 그 가축 싹는[실른] 차라~에다서리 기게 가축 싹는 차라~이 스무평방메테르입니다. 기랜데 보통 열[yar]다섯명, 어떤 데는 어떤 차라~에는 이십에메~이 사람덜이 앉았습니다. 기래 사람 한나게 한평방메테르씩 자리 채레져습니다. 기래 거기 무슨 난로[날로] 잇갯는가. 그직[직]에 에 시월 동짓달에.{음식은 정거장마다 와서 설 적에면 달려 내려가서 빵도 사먹고 그랬지요. 그래 내 앞서도 얘기를 했지마는 그 가축 싹는 차량에다가 그것을 가축 싹는 차량이 스무 평방미터입니다. 그런데 보통 열다섯 명이 어떤 데는 어떤 차량에는 이십여 명의 사람들이 (차량에) 앉았습니다. 그래 사람 하나에게 한 평방미터씩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래 거기 무슨 난로가 잇갯는가. 그직에 에 시월 동짓달에.}

10201 @ 시월이었어요?{시월이었어요?}

10201 # 예. 난로두 없지 먹는물두 없지 거저 정거자~에 와서 서게다무 그릇으 가주구서르 물잇는데르 찾아서 물질라가다두 차떠나갬다무 그 물으 데비 쏘아데디구서르 달아와서 또 차에 앉습지. 일, 이르 이릉기 고께 다하메서르[다아메서르] 왓습니다.{예. 난로도 없지. 먹는 물도 없지 그저 정거장에 와서 서게 되면 그릇을 가지고서 물 잇는 데를 찾아서 물 길러 가다가도 기차가 떠나갬다 하면 그 물을 도로 쏘아 버리고 달려와서 또 기차에 타지요. 이, 이릉, 이렇게 고생을 다 하면서 왓습니다.}

10201 @ 그러면은 여기에 도착하시니까 몇월달이었어요?{그러면은 여기에 도착하시니까 몇월이었어요?}

10201 # 예?{예?}

10201 @ 요기에 왔을 때는 그 오십오역, 그 여 역에 도착했을 때는 몇월달이었냐고. 동짓달이었어요?{요기에 왔을 때는 그 역에 도착했을 때는 몇월이었냐고. 동짓달이었어요?}

10201 # 예예. 동짓달 동짓달 초새애(←초승+애) 들어섯습니다. 기래 밭씨 괴직[찍]에 거저 밤우 자구 나무 거저 서리 거저 백사짓디오. 밭씨 칩앗습니다. 모질이.{예. 동짓달 동짓달 초승에 들어섯습니다. 그래 벌씨 그적에 그저 밤에 자고 나면 그저 서리 그저 백사지(白沙地)가 되오. 벌씨 추웠습니다. 몫시.}

10201 @ 음. 그러면 그때 어뜨게 사셨어요? 그면 바로 집도 없었을 거 아냐.{음. 그러면 그때 어떻게 사셨어요? 그러면 바로 집도 없었을 거 아냐.}

10201 # 집우 와서 이 깔으 가주구서르.{집을 와서 이 갈대를 가지고서.}

10201 #1 아이 이 곱만와서느 어: 그런게 잇엇댜소. 어 바라이(баран)털 사는.{아니 이 금방와서느 어 그런 게 잇엇댜소. 어 양(羊)들이 사는.}

10201 # 저어 저어느 글썤 그랬지만, 어떤 고자~에서 온분네느:: 그 가축으 열엇던 그 집은 내구서 대수 그 오얏물으 대수 처내때리구서르 무스 거기 무스 약새질했갬는가 바름질했갬는가 그런 데다서리 전 꼴호즈(колхоз) 헤원으 다 거기다 차영어나 다림없어 절렘베이[절렘베이] 생게서 싹 쓰 쓸어내엇습니다. 어떤 고자~에서느. 게 우리네느 집두 없는 그런 무인지겨~에 갈밭에게다서리 제에뿌레 거저 혼한거느 이리. 이리 어뜨게 많은지 거저 낮으무 이리무리덜이 거저 기래 아덜이 호분작[hoβunʃak] 나서지 못했습니다. 이리 무섭아서.{당신 당신은 글썤 그랬지만, 어떤 고장에서 온 분네는 그 가축을 넣엇던 그 집은 내고서 대충, 그 외양간 두엄을 대충 처내어 버리고서 무슨 거기 무슨 약(藥)을 쳤갬는가 바름질 했갬는가 그런 데에다 전 꼴호스 회원을 다 거기에다 처넣은 것과 다름없어 전염병이 생겨서 싹 쓸, 쓸어 냈습니다. 어떤 고장에서는. 그 우리네는 집도 없는 그런 무인지경의 갈밭에다가 집어던져 그저 혼한 것은 이리. 이리가 어떻게 많은지 그저 나가면 이리 무리들이 그저, 그래 아이들이 혼자 나서지 못 했습니다. 이리가 무서워서.}

10201 @ 음.{음.}

10201 # 기래 좀 저기 어른네덜으 모다서 그 왕대깔으 가주구서르, 여기 시방 이 끼르기즈랑 까자끄덜하구 유르따(юрта)처리 치잠?: 그 유르따(юрта) 행식으르 기래 대수 으지게르 해서 어 소먹이 돈 집에서느 안으 이래 대수 바름질꺼지 하구 기랴구 따에다서 온돌꺼지 놓구. 기래 우리 부친으느 안으 싹 바르구 온돌꺼지 놓오~이까데 동짓달에 아 칩지. 기래 놓오~이 애비는 아낙네들이 글썤 전체루 우리집에 싹 모다든단 말입꾸마.{그래 좀 저기 어른들을 모아서 그 큰 갈대를 가지고서, 여기서 시방 이 키르기스스탄과 카자흐스탄 사

람들이 유르따처럼 (막을) 치잖소? 그 유르따 형식으로 그렇게 대충 의지할 곳을 만들어
어 소 먹이는 집에서는 안을 이렇게 대충 바람벽을 칠하고 그리고 땅에다 온돌까지 놓
고. 그래 우리 부친은 안을 싹 바르고 온돌까지 놓으니까 동짓달에 아 춥지. 그리해 놓
으니 아버지는, 아낙네들이 글썽 모두 우리집에 싹 모여든단 말입니다.}

10201 @ 아아.{아아.}

10201 # 아아더 아아덜 얼어죽을 행페이 데 …… 기래 우리네 어떨 직에느 구석에 앉아서
난 부억마 부억앞이 내자리 채레젓닷습니다. 어디메 늙을 데 없어서. 기래구 어떤분네덜
으느 애기르 가매우에다서 시룻다리 놓구서르 거기다 다 애기르 다 눕혀서 그렇게 밤우
위엿습니다. 기래 거저 내 앞서두 얘:기르 하지만 우리르 거저 죽으무 죽구 살무 살구
거저 거저 그래이 거저 내애쳤습니다. 기랜데 이 우즈벡민족덜이 아주 유한사람덜입니
다. {아이들, 아이들 얼어 죽을 형편이 돼 …… 그래 우리네 어떨 적에는 구석에 앉아서
난 부억을 부억 앞에 내 자리가 차려졌었습니다. 어디 누울 데 없어서. 그리고 어떤 분
네들은 아기를 가마 위에다 시룻다리 놓고서 거기에다 아기를 다 눕혀서 그렇게 밤을 지
냈습니다. 그래 그저 내가 앞서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를 그저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그저 그저 그렇게 그저 그저 내쳤습니다. 그런데 이 우즈베키스탄 민족들이 아주 유한
사람들입니다.}

10201 @ 음.{음.} рипёрзка збер

10201 # 그적[적]에 칠십객이 난 이런 분네덜이 나기르 타구 댕기메 이 지방 우즈벡 리뽀르
즈까즈베르 하재임두? 그 떡으 가르기사 가루사 좋은 가루 아~이입지 머. 그러지마는 이
렇[irə?] 크게 굶어서 그런 나기르 타구 댕기메서리 다수루 아아덜으 길가에[길가에] 댕
기는 게나 짐우 찾아댕기메 굶머죽지 말라구 그 떡으 빠~아 댕기메 놓가줬습니다. 기래
그 사름덜 신세 엠매던지 많앿다구서 말할 수 잇습니다.{그적에 칠십객이 지난 이런 분
네들이 나귀를 타고 다니며 이 지방 우즈베키 리뽀르즈까즈베르라 하잖습니까? 그 빵을
가루야 가루야 좋은 가루 아니지요 뭐. 그렇지마는 이렇게 크게 구워서 그 나귀를 타고
다니면서 대부분 아이들에게, 길가에 다니는 아이에게나 집을 찾아다니며 굶어 죽지 말
라고 그 떡(=빵)을, 빵을 다니며 나누어 줬습니다. 그래 그 사람들 신세가 말할 수 없이
많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10201 @ 음.{음.}

10201 # 기래구서르 따따:산 봄날이 떡 돌아오~이까데 그 하목 하느라구 깔으 빼에서 이래
싹 이래 무질 해 이래 세왓습지.{그리고서 따뜻한 봄날이 떡 돌아오니까 그 화목(火木,
=떨나무)을 하느라고 갈대를 베어서 이래 싹 이래 무지를 해서 이래 세웠지요.}

10201 @ 음.{음.}

10201 # 기래 그 우즈벡분네덜이 저어네 이롭게 깔 이롭게 세운게 이게 옳지 못하다구[yu]
이거 뱀굴으 만든다구.{그래 그 우즈베키스탄 분네들이 당신들이 이렇게 갈대를 이렇게
세운 게 이게 옳지 않다고 이거 뱀 굴을 만든다고.}

10201 @ 음.{음.}

10201 # 기래. 우리 게 무슨 소린가 헛터~이 아::~~이 여름날이 돌아오~이 그 깔단[k'art'an]
안으르 깔단[깔판] 한나씩에다 뱀이 세네개씨 스르르 슬릅꾸 빠져나오구. 기래구서르 우
리 할머니 원도~에서 낙매르 해서 홀 낙매르 한게 일어 못서구서르 그안 늙은 데테 잇다
이주르 헛습지. 기래 할머니르 새집에 나가서 세사~아 바르게 하갿다구 우리 부치이 밤

우 쉬지앵구서르 지부이래 경지백이 해서 깔르 집우 저엇습짐.{그래 우리 그게 무슨 소
린가 했더니 아니 여름날이 돌아오니 그 갈대 단 안으로 갈대 한 단씩에 뱀이 서너 마리
씩 스프르 스프르 빠져나오고. 그리고서 우리 할머니 원동에서 너머져서 훌쩍 너머져서
일어서지 못하고 그냥 누운 데서 것처럼 있다가 이주를 했지요. 그래 할머니를 (두고) 새
집으로 나가서 세상을 바르게 하겠다고 우리 부친이 밤에 쉬지 앓고서 지붕을 이렇게 경
지벽(+ 벗짚 따위를 섞은 진흙을 손으로 주무르고 뭉쳐서 쌓은 벽. 창고 따위를 지을 때
이 벽을 만든다.)을 해서 갈대로 집을 지었지요 뭐.}

10201 # 기래 그터르 끝내 나가지 못하고 우리 할머니 상세났습니다.{그래 그 터(새로 지은
집터)로 끝내 나가지 못하고 우리 할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10201 @ 음.{음.}

10201# 기래 그터르 나갔는데, 아이 여름에 따밀으르 물으 올라오메서리 거저 지바~이 거저
이렇게 물이 거저 즐벅:하압짐.{그래 그 터로 나갔는데, 아니 여름에 땅 밑으로 물이 올
라오면서 그저 지반이 그저 이렇게 물이 그저 즐퍽하지요.}

10201 # 기래 거기다서리 깔으 통 빼에서 깔단[깔판]으 이룽기 해서 거기다서리 놓구서르 그
위에서 자털 대수 폐구서 사람덜이 유히습지. 기래 한주일씩 지나가무 그 깔이 썩으라구
붙어서.{그래 거기다가 갈대를 온통 베어서 갈대 단을 이렇게 해서 거기다가 놓고서 그
위에 자리를 대충 펴고서 사람들이 유히지요. 그래 한 주일씩 지나가면 그 갈대가 썩느
라고 붙어서.}

10201 @ 음.{음.}

10201 # 그 깔으 또 썩 견어내엿지 며. 아이구::! 그 깔으 꺾어내무 그 밑에 배앰이덜 어느세
들어와서 거저 뱀이 옥실옥실하단 말입굶. 그 밑에.{그 갈대를 또 썩 견어내지요 뭐. 아
이고! 그 갈대를 견어 내면 그 밑에 뱀들이 어느새 들어와서 그저 뱀이 옥실옥실하단 말
입니다. 그 밑에.}

10201 @ 아.{아.}

10201 # 기래구서르 먹는 물으 우물 이래 팟습지. 개 우물으 파안게 아이 지대 알아노오이까
데 거저 바가질르 옆에서 그 우물이 이래 이래 뜨구 했습지.{그리고서 먹는 물을, 우물
을 이렇게 팟지요. 그래 우물을 판 게, 아니 지내가 알아 보니까 그저 바가지로 옆드려
서 그 우물을 이래 이래 뜨고 했지요.}

10201 # 아침에 그 물 물뜰라 나가게담 그 우물 안으르두 뱀이 여라무씨 거저 우 옥실옥실
그 물뱀이[물뱀이] 어째 그룽게 많앗는지. 기래 더러느 그 뱀이르 견어 견어 내때리구
더러느 뱀이 물밑으르 들어감 그 붙들시 잇습니까? 그래 뱀이가 같이 물으 그 한데 먹엇
습니다 우리. 기래구서르 학질이 돌아서 하야::! 기딱 기래 이래 떠 떠는 베~이.{아침에
그 물 물뜨러 나가게 되면 그 우물 안으로도 뱀이 여남은 개씩 그저 옥실옥실 그 물뱀이
어찌 그룽게 많앗는지. 그래 더러느 그 뱀을 견어내서 내던지고 더러느 뱀이 물 밑으로
들어가면 그 붙들 수 잇습니까? 그래 뱀과 같이 물을 그 한데 먹엇습니다, 우리. 그리고
서 학질이 돌아서, 야야! 기가 막히고 그래 이렇게 떠 떠는 병.}

10201 @ 예::.{예.}

10201 # 학질이 돌아서 상세난 분네덜두 많구 아아덜 다쭈루. 나두 학질으 멧축 해앗는지 개
두 어째 죽재앵구서리 개두 그직[직]엔 발써 이 으음 이사덜[isadər] 돌아댕기메서리 괴
직[직]에 히닌(хинин, =키니네)이라구서르 셋하얀 그런 약으. 그 학질이 들지 말라구서

르 그런 약으 돌아댁기메 농가주웁덤. 기래 이것::저거 궁닐 하무. 기래구서르 쟈자~이 시작되기[t'ögi]전에 **잔체(←전체)르 무슨 이 트랙토르(трактор)나 잇엇댓슴두 그때. 웨르 둥굴웨르 너어씨 이룽기 메와서 웨가대기르 가주구서르 그 그 갈밭으 일귀서 기래 조선사람덜이 거기다서리 베르 심머서 베 그룽기 잘 데엇습니다.{학질이 돌아서 돌아가신 분네들도 많고 아이들도 대부분. 나도 학질을 몇 축을 앓았는지 그래도 어찌 죽지 않고서 그래도 그적에는 벌써 이 음 의사들이 돌아다니면서 그적에 키니네라고 새하얀 그런 약을. 그 학질이 들지 말라고서 그런 약을 돌아다니며 나눠주더군요. 그래 이것저것 궁리를 하면. 그리고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모두 무슨 이 트랙터나 잇엇습니까 그때. 소를 황소를 넷씩 이렇게 메워서 외가대기를 가지고서 그 그 갈대밭을 일귀서 그래 조선사람들이 거기다가 벼를 심어서 벼가 그렇게 잘 되엇습니다.}

10201 # 차차차차 그 갈밭으 싹 그렇게 소유르 하구서르 기래 따~이 온저이 데이까데 그담뻐에 정부에서 거기다서 목하르 시무라 붙엇습니다.{차차차차 그 갈대밭을 싹 그렇게 소유를 하고서 그래 땅이 온전히 되니까 그다음 번에 정부에서 거기다가 목화를 심으라 (명령서가) 붙엇습니다.}

10201 @ 음.{음.}

10201 # 기래 저어 시방 따시켄뜨 우리 살던 그 예질 치르칙(Чирчик), 쓰레드니 치르칙(Средний Чирчик), 웨르크니 치르치크(Верхний Чирчик), 푸스켄뜨(Пскент), 씨르다리아(Сырдарья), 치나즈(Чиназ), 얀기올(Янгиюль) 그쪽 모테애느 전체르 그 갈밭으 우리 고렛사람덜 들어와서 싹 소을 하는 따입니다. 기애지마 거기서 이날이때까지 그 목하 고등수확 견어서 이 시방두 그, 그렇게 슝 소문이 난 곳, 곳입니다[고집니다].{그래 저 시방 타슈켄트 우리가 살던 그 예질 치르치크, 쓰레드니 치르치크, 웨르크니 치르치크, 푸스켄트, 시르다리아, 치나즈, 얀기올 그쪽 부근의 전체를, 그 갈대밭을 우리 고려사람들이 들어와서 싹 소유를 하는 땅입니다. 그러지만 거기서 이날 이때까지 그 목화는 높은 수확을 거두어서 이 시방도 그, 그렇게 소, 소문이 난 곳, 곳입니다.}

10201 @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우리 고려인들이 고렛사람들이 땅을 다 일귀 놓으면 갈밭 일귀논 땅은.{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우리 고려인들이 고려사람들이 땅을 다 일귀 놓으면 일귀 놓은 땅은.}

10201 # 예.{예.}

10201 @ 고렛사람들이 마음대로 질수 있었어요?{그려 사람들이 마음대로 지을 수 있었어요?}

10201 # 기래 그적에 조합이 조직이 댓습지. 조합 시방 풀호즈 풀호즈 하재엠두?{그래 그적에 조합이 조직이 댓지요. 조합(=집단농장)이 시방 풀호스 풀호스 하잖습니까?}

10201 @ 예.{예.}

10201 # 조합이 **도죽테구 기래구 슝호즈(совхоз) 또 그거느 에 조합마 웨꿈 따구서르 노동자들이 일합지.{조합이 조직되고 그리고 소프호스(=국영농장) 또 그거느 에 집단농장과 조꿈 다르고 노동자들이 일하지요.}

10201 @ 으음.{으음.}

10201 # 농민덜 일하는 게 아니라 노동자덜이. 기래 거저 괴직[찍]에느 기계 우리 이 헌법에 기때애두 슝말린 헌법에 히비 자란거마이 노력하문 그 노력비르 따라서 채레진 법입지머.{농민들이 일하는 게 아니라 노동자들이. 그래 그저 그적에는 그게 우리 이 헌법에

그때에 스탈린 헌법에 시비(是非)가 일정 수준에 이른 만큼 노력하면 그 노력비에 따라서 몫이 분배되는 법이지요 뭐.}

10201 @ 으음.{으음.}

10201 # 개 놓오이 그거 노력비 많으무 이 가슬 그 결산에 가서 그 베에던지 무스 다른거 이래 마이 채 타 타오구. 기래구 힘이 약해서[약해서] 노력비 작은 집에서느 그와 같이 또 작게 타구. 기래 삼십구연도부터 그거 이 흰밥우 먹으며서리 일없게 보냈습니다.{그래 놓으니 그거 노력비가 많으면 이렇게 이 가을의 그 결산에 가서 그 벼든지 무슨 다른 거 이렇게 많이 타 타오고 그리고 힘이 약해서 노력비가 적은 집에서는 그와 같이 또 적게 타고. 그래 1939년도부터 그거 이 흰밥을 먹으면서 괜찮게 보냈습니다.}

10201 @ 아아 그면 이년 고생하셨네.{아아 그러면 2년 고생하셨네.}

10201 # 예. 기래다가서리 그다음번에 괴직[찍]에두 밭씨 고렷 우리 조선사람덜 소문이 낫 습니다. 저사람덜 깔밭에다서르 뜨 제에뿌린 사람덜이 따아 저렇게 일귀서 어전 부재 테나 다름없다구. 타국 사람덜은 우릴 밭씨 따게 예겻습니다. 저 사람덜이 노력이 들어 가서 특별한 사람덜이라구. 기래다 그다음번에 그 조국젠재~이 낫습지 사십일년도에. {예. 그러다가 그 다음 번에 그적에도 벌씨 고려, 우리 조선사람들이 소문이 낫습니다. 저 사람들이, 갈대 밭에다 집어던진 사람들이 땅을 저렇게 일귀서 이제는 부자가 된 것 이나 다름없다고. 타국 사람들은 우리를 밭씨 다르게 여겼습니다. 저 사람들이 노력을 많이 한 특별한 사람덜이라고. 그러다가 그 다음 번에 그 조국전쟁(=독소전쟁)이 낫지 요. 1941년도에.}

10201 @ 예.{예.}

10201 # 야야! 기래놓오이 거저 그 전선으르 그 구인덜으 거 저기 트 알 무스거 잘 맥에야 젼장두 하압지. 기래놓오이 그 국가 매수르 한다 하메서리 그 그 조합 창고[창꼬]에서 거저 싹싹 쓸어서 국가서 싹 가져갔습니다. 기래놓오이 조합 사람덜이 또 굶살이르 하게 데엿습지.{야야! 그래 놓으니 그저 그 전선으로 그 군인들이 거 저기 무엇을 잘 먹여야 전쟁도 하지요. 그래 놓으니 그 국가에서 매수를 한다 하면서 그 그 조합 창고에서 그저 싹싹 쓸어 국가에서 싹 가져갔습니다. 그래 놓으니 조합 사람들이 또 굶는 생활을 하게 되었지요.}

10201 @ 음.{음.}

10201 # 기때까래 한주야나 두주야르 굶는게 게 보통식이 뎛습니다.{그 무렵에 한 주야(晝夜)나 두 주야(晝夜)를 굶는 게 그게 보통이었습시다.}

10201 @ 아.{아.}

10201 # 나두 세주야꺼지 **굽어 *구 굶살이르 하이까데 무스 아무생각두 어, 없습니다. 거저 따에 거저 맥이 모자라 척 눕으이까데 거저 무슨 먹을 궁니두 없구. 기래 어떠기 데서 메~이 질자구 기랫는지 이날 이때까지 개두 죽재얹구서 살아났스.{나도 세 주야(晝夜)까지 굶어, 굶, 굶는 생활을 하니까 무슨 아무 생각도 어, 없습니다. 그저 땅에 그저 맥이 모자라 척 누으니까 그저 무슨 먹을 생각도 없고. 그래 어떻게 명이 길자고 그랬는지 이날 이 때까지 그래도 죽지 않고서 살아났습시다.}

10201 @ 그러면 그 전쟁때 전쟁 조국전쟁 때 우리 동포들도 군인으로 많이 갔어요? 군대 갔어요?{그러면 그 전쟁 때에 전쟁 조국전쟁 때에 우리 동포들도 군인으로 많이 갔어요? 군대 갔어요?}

10201 # 우리 조선동포들으 그 노시아 도시 근처에 사는 분네덜으느 으엘르 그 독일놈덜 그 도시르 차질하구 기레다나이 으엘르 군대모집에 들엇습지.{우리 조선 동포들은 그 러시아 도시 근처에 사는 분네들은 으레 그 독일놈들이 그 도시를 차지하고 그러다 보니 으레 군대 모집할 때 들어갔지요.}

10201 @ 음.{음.}

10201 # 많스꾸마. 거기 이 영우~이 덴 사람덜두[사람덜뚜] 잇구. 기레구 이 웨바~에[vebāe] 잇는 사람덜으느 군대르 아이 갓어. 우리르 예 저기 일본 일본과 한패라구서르.{많습니다. 거기 이 영웅이 된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이 외방(外方)에 잇는 사람들은 군대를 안 갓어. 우리를 예 저기 일본 일본과 한패라고서.}

10201 @ 아아.{아아.}

10201 # 기레 원도~에서 (기침) 이주르 해 들어온 그 근거느 물어보이까데 그 후루쇼프(Хрущёв)때.{그래 원동에서 (기침) 이주를 해서 들어온 그 근거는 물어보니까 그 흐루시초프 때.}

10201 @ 네.{네.}

10201 # 우리 저기 예 항 빨리또젤(Политотдел)이란 그 그 조합에 이중 노력영우~이 황만금이러구서르.{우리 저기 예 그때 폴리타젤이라는 그 그 조합에 이중(二重) 노력영웅이 황만금이라고서.}

10201 @ 음.{음.}

10201 # 저기 관리위원장질 했습지. 게 그분네 후루쑈프(Хрущёв) 그 소문난 조합이라구 해서 거기르 볼라 왓습지. 기레 볼라 와서 정습 식, 식사르 하메서리 그 항만금이 그분네 그 후루쑈프(Хрущёв)가 물어봣습지. 조선사람우[조선싸람우] 어째서 무슨 젤르 그렇게 실어왔는가구. 기레이 기직에 베리야(Берия), 베리야(Берия) 미시라 했는가 하이.{저기 관리위원장을 했지요. 그래 그분네 흐루시초프가 그 소문난 조합이라고 해서 거기르 보러 왔지요. 그래 보러 와서 점심 식, 식사를 하면서 그 황만금이 그분네 그 흐루시초프에게 물어봣지요. 조선 사람을 어째서 무슨 죄로 그렇게 실어 왔는가 하고. 그러니 그적에 베리야, 베리야가 무엇이러 했는가 하니.}

10201 @ 비리야가 뭐여요?{'비리야'가 뭐야요?}

10201 # 베리야(Берия) 그직[직]에 무슨일 했는가이 이게 고렷말르 하게 텨 이 시방 이 미리쯔(милиция)랑 다 차치르 한 분네꿈. 미니스뜨르(министр) 우누뜨리니제(внутренних цен)오. 이 내간 그 구인덜 싹 차지르 한 분네. 그 분네 스탈린 기랸답지. 일본가 젠자하게테무 조선사람가 일본사람우 어트리 가리갓는가구. 가릴 수 없다구.{베리야가 그적에 무슨 일 했는가 하니 이게 고려말로 하게 되면 이 시방 이 경찰을 다 차치르 한 분네입니다. 내무부 장관이요. 이 내어간(=징집한) 그 군인들을 싹 차지르 한 분네. 그 분네가 스탈린에게 그랬다 하지요. 일본과 전쟁하게 되면 조선 사람과 일본 사람을 어떻게 가리갓는가 하고. 가릴 수 없다고.}

10201 @ 아. 아.{아. 아.}

10201 # 기레 놓오~이 어트갓으무 좋갓는가구 기레이 그 어 베리야 미시라구 했던가하이 조선사람우 이 **중구아시아르 멀리쑤이 이주르 시기무 텔게 아인가구 기래서 우리르 실어왓다구서리 이런말으 들구[들꾸] 오부셈(вообщем).{그래 놓으니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하고 그러니 그 어 그 어 베리야가 뭐라고 했는가 하니 조선 사람을 이 중앙아시아로

멀찍이 이주를 시키면 될 게 아닌가 하고 그래서 우리를 실어 왔다고서 이런 말을 듣고 모두.)

10201 @ 음.{음.}

10201 # 기래 젠자~이 떡 시작데~이 우리네는 쪼끄매서 열서너다섯씩 먹은 아동덜입지.{그래 전쟁이 떡 시작되니 우리네는 쪼끄마해서 열서너 다섯씩 먹은 아동들이지요.}

10201 @ 음.{음.}

10201 # 반날애 정습 전으 핵고에서 글 이르구 정습 후에느 며 정습이나 잇습두? 먹을게 없 어놓이까 깍지르 메구서 나가 밭에 나가서 그런 베르 시물 따 깍지르 가주구서르 그것두 팟습니다. 술한 학생 아덜 거저 요른 여라무살쫂 먹은 아덜으. 기래 젠장 시기에두 그렇게 힘들여 보냈지만 젠자아 끝이 나서 사십육년도에 기직[찍]에 어터게서 더 바빠 보냈 습니다.{반나절을 점심 전을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점심 후에는 뭐 점심이나 잇습니까? 먹을 게 없어 놓으니까 팽이를 매고서 나가 밭에 나가서 그런 벼를 심을 땅을 팽이를 가 지고서 그것도 팟습니다. 술한 학생 아이들이 그저 요런 여남은 살쫂 먹은 아이들을. 그 래 전쟁 시기에두 그렇게 힘들여 보냈지만 전쟁이 끝이 나서 1946년도에 그적에 어떻게 해서 더 바빠 보냈습니다.}

10201 @ 사십육년도예요?{46년도예요?}

10201 # 예. 사십오연도.{예. 45년도.}

10201 @ 전쟁 끝났죠?{전쟁 끝났죠?}

10201 # 오월 오월 초하룻날]에 끝이 났는데 사십육년도에 그 이듬해 더구나 바빠 보냈습니 다.{오월 오월 초하룻날에 끝이 났는데 1946년도에 그 이듬해 더구나 힘들게 보냈습니 다.}

10201 @ 왜 그랬어요 그때는?{왜 그랬어요 그때는?}

10201 # 마 어째 기렛는지 거저 통 파게테구 기래놓이 이 조합에서 무스거 식료나 조끔 잇는 거 싹 국가 매수한다메 국가다 싹 바쳤습짐.{막 어째 그랬는지 그저 온통 파괴되고 그래 놓으니 이 조합에서 무엇을 식료나 조끔 잇는 거 싹 국가가 매수 한다며 국가에다 싹 바 쳤지요 뭐.}

10201 @ 아니 국가에서 가지가면 국가에서 뭘 뭘 뭘 주야 될 거 아니예요.{아니 국가에서 가져가면 국가에서 뭘 뭘 뭘 줘야 될 거 아니예요.}

10201 # 아, 무스거 주겠습니까. 아 전 저기 그 아 구라파 떠 노시아파이 절바이 아이 저기 저 독일놈덜이 싹 폭격하구 재무질 만들어 놓구 나갔는데 (기침).{아, 무엇을 주겠습니 까. 아 전쟁 저기 그 아 유럽 러시아 땅의 절반이 아니 저기 저 독일놈들이 싹 폭격하고 잣더미를 만들어 놓고 나갔는데 (기침).}

10201 @ 어::. 그리고 언제 언제부터 그러면 괜찮아졌어요? 언제부터 인자 생활이 쫂 좋아졌 어요?{어. 그리고 언제 언제부터 그러면 괜찮아졌어요? 언제부터 인제 생활이 쫂 좋아졌 어요?}

10201 # 예예. 기래 거저 사십 칠 칠년 거저 사십팔년 그때부턴 벌써 조끔 **일엇밧습니다. {예. 그래 그저 사십 칠 칠년 그저 사십팔년 그때부터는 벌써 조끔 괜찮았습니다.}

10201 @ 그때부턴 인제 배 안 고평았어요?{그때부터 인제 배 안 고평았어요?}

10201 # 예?{예?}

10201 @ 그때부터는 배 안 고평았어요?{그때부터는 배 안 고평았어요?}

10201 # 예. 그쪽엔 이제 일없엇덧습니다.{예. 그적에는 이제 팬찮았엇습니다.}

@ 아. 그러면 조선전쟁땐 어땀어요?{아. 그러면 한국전쟁 때는 어땀어요?}

조선전장때는 우리 거저 거저 기랸지. 야!! 무식한[musigan] 말르 제종자찌리 무슨 이 무시기 모자라서 싸움할까. 기래때 이쪽두 역세두[뚜] 아이 두구 저쪽 거저 앉아서 거 빠리즈 바이(пережить)르 헛습지. 거 속으 태웠습지. 어떡허다[어떠거다] 이릉게 땀는가:.{한국 전쟁 때는 우리 그저 그저 그랸지. 야! 무식한 말로 자기 종자(種子)끼리 무슨 이 무엇이 모자라서 싸움할까. 그러며 이쪽도 역성을 안 들고 저쪽도 그저 그렇게, 앉아서 그 세월을 보냈지요. 그 속을 태웠지요. 어떡허다 이렇게 땀는가.}

@ 음. 그때는 이쪽에서 뭐 군인에 나가거나 그런 일은 없엇어요?{음. 그때는 이쪽에서 뭐 군대에 나가거나 그런 일은 없엇어요?}

(기침) 우리는 모르지마는 에 무슨 말이 그 조선전쟁 끝이[끄티] 나서 무슨 말이 잇엇는가 이 이 노시아에서 그적[적]에 북조선에는 비행기란게 없재엇습니까?{(기침) 우리는 모르지마는 에 무슨 말이 그 한국전쟁 끝이 나서 무슨 말이 잇엇는가 하니 이 러시아에서 그적에 북한에는 비행기라는 게 없지 않았습니까?}

@ 예.{예.}

기래 노시아에서 에 이 비행사덜이 비행기르 타구 가서 조끔 도배르 해줬단 이런 말두 잇구. 무슨 보지못하다이. 그 시방 와서 그런 얘애기 잇습니다.{그래 러시아에서 에 이 비행사들이 비행기를 타고 가서 조끔 도와줬다는 이런 말도 있고. 뭐 보지 못하다 보니. 그 시방 와서 그런 얘기가 잇습니다.}

@ 음. 러시아에서 군인이 많이 갔지요.{음. 러시아에서 군인이 많이 갔지요.}

예?{예?}

@ 러시아에서 군인이 많이 왔다고.{러시아에서 군인이 많이 왔다고.}

저기 중국에서.{저기 중국에서.}

@ 중국에서도 오고.{중국에서도 오고.}

조선으르, 예. 중국에서 많이[마이] 왓습니다.{조선으르, 예. 중국에서 많이 왓습니다.}

@ 중국에서는 우리 동포들이 많이 왓고.{중국에서는 우리 동포들이 많이 왓고.}

예:.. 기래 그 어느 헨가 그 김대주~이 대통령~이 평야~아 방문해실 적에[적에] 그 선언 쓴 거 읽어보구서르 우리 조선문제는 나라에 주인 제 조선사람찌리 해결해야 된다는 그거 이르구서르 내 하나르 춤추대서두 내 일어나 손높에 춤춧습니다. 야아! 이게 오라재애 해바~이 데갓다구서.{예. 그래 그 어느 해인가 그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했을 적에 그 선언 쓴 거 읽어 보고서 우리 조선 문제는 나라의 주인인 자기 조선 사람끼리 해결해야 된다는 그거 읽고서 내 한평생 춤추지 않았어도 내가 일어나 손 높여 춤춧습니다. 야아! 이게 오래지 않아 해방이 되겠다고서.}

기런게 어트기데 또 이날이때까지 이릉기 부산:하계[부사:나계] 덴지.{그런 게 어떻게 되어 또 이날 이때까지 이렇게 부산하게 땀는지.}

@ 해방이 될라면 썸 조선이 썸 더 잘살아야 될 거예요.{해방이 되려면 썸 조선이 썸 더 잘살아야 될 거예요.}

예.{예.}

@ 에 썸 생활이 높 좋아져야지 서로가 잉게 통일이 쉽지.{에 썸 생활이 좋아져야지 서로가 이렇게 통일이 쉽지.}

야: 이 북조선에는 우리 거저 이 신문에 난거 읽어보구 아압지. 어저는 뿔번채 가물이 들어
그래 물이 저 기래 기래구서르 췌폼한 나라 무슨 제 조선사람찌리 남조선으 무섭아 그랫는
지 구이느 왜 그렇게 많이[마이] 쥐구 잇단 말이. 북조선서. 한 밀리온(миллион) 이새라
했습시다. 한 밀리온(миллион) 이새.{응. 이 북조선에는 우리 그저 이 신문에 난 거 읽어
보고 알지요. 이제는 몇 번째 가물이 들어 그러고 물이 넘쳐서 그러고 그러고서 조끄마한
나라(에서) 무슨 제 조선 사람끼리, 남조선을 무서워하여 그랫는지 군인은 왜 그렇게 많이
쥐고 잇단 말이오. 북조선에서. 일백만 이상이라 했습시다. 일만백 이상.}

@ 예.{예.}

일본같은 나라느 아이 전체르 일백쉴다스천[일백쉴다스천]인데 구~이. 아이 조선에 글췌 스
물셋 밀리오~(миллион)이 데나마나한 북조선에 한 밀리온(миллион) 이새~이 군대라이 그
군대르 멕이자무 그 *흠스 허 허 흠겡습니까?{일본 같은 나라는 아니 전체를 천오백오십인
데 군(軍)이. 아니 조선에 글췌 (인구가) 이십삼만이 되나마나한 북조선에 일만 이상이 군대
라니 그 군대를 멕이자면 그 쉽(습니까), 쉬 쉬 쉽겡습니까?}

@ 그러니까 바쁘췌.{그러니까 힘들췌.}

바쁘재웁구 그래. 기래 거저 난 이래 늑어서 자꾸 앓으멘서리 무슨 내일 죽겡는지 모래 죽
겡는지.{힘들지 앓고 그래. 그래 그저 난 이래 누워서 자꾸 앓으면서 무슨 내일 죽겡는지 모
래 죽겡는지.}

@ (웃음).{(웃음).}

야아! 저 조서이 통일 덴단 소리나 듣구 죽었으무:: 거저 이 궁니 많앗습지. 우리 친척덜이
웨갈르 췌야~에 게서서 그거 조선전쟁 나기 전에는 췌지이 거래(去來) 서르 잇엇습시다. 난
그적[적]에 무스 거기 대해서 주력 아이하구 기래다나 우리 형님이 이 조선글으 십년제르
필했습시다.{야아! 저 조선이 통일 된다는 소리나 듣고 죽었으면 그저 이 생각이 많앗지요.
우리 친척들이 외가쪽으로 평양에 게서서 그 한국전쟁이 나기 전에는 편지 거래(去來)가 서
로 잇엇습시다. 난 그적에 무슨 거기에 대해서 주력 안 하고 그러다 보니 우리 형님이 이
조선 글을 (가르치는 학교의) 10학년을 필했습시다.}

@ 음::.{음.}

기래 이 저기 한문두 췌폼 배우구.{그래 이 저기 한문도 조끔 배우고.}

@ 음. 음.{음. 음.}

기래 어떻게 줄으 나서 **췌짓겡이(←편짓겡이) 서르 잇엇습시다.{그래 어떻게 줄을 놔서 편
짓겡이 서로 잇엇습시다.}

@ 예.{예.}

기래다서리 조선전쟁 흘 끝이[끄티]나서 종무소식입지. 기래 그런 우리 형님 기래 아무래
조선젠자~에 폭격에 다해서 무스 모도 상세난 모애:라구 기래 거저 그담번에 서르 췌짓겡이
없는게 무스 그 후손덜이 시방 잇는지 없는지 알수 없습시다.{그러다가 한국전쟁이 끝나서
종무소식(終無消息)이지요. 그래 그런 우리 형님 그래 아마도 한국전쟁 때에 폭격에 당해서
뿔 모두 죽은 모양이라고. 그래 그저 그 다음번에 서로 편지 글이 없는 게 무슨 그 후손들
이 시방 잇는지 없는지 알 수 없습시다.}

10201 @ 원래 고향은 어디에요?{원래 고향은 어디에요?}

10201 # 우리 빠빠(папа) 그랩덤마. 조선 부령 산해메이란 데르.{우리 아버지 그러터군요. 조
선 부령(富寧郡) 삼해면(三海面)이란 데를.}

10201 @ 부령.{부령.}

10201 # 예 부령.{예. 부령.}

10201 @ 네.{네.}

10201 # 예.{예.}

10201 @ 그러면 부령에서 원동으로는 그 빠빠(папа) 뗏살때 넘어가셨대요?(그러면 부령에서 원동으로는 그 아버지 몇 살 때 넘어가셨대요?)

10201 # 그건 내 알수 없습니다.{그건 내가 알 수 없습니다.}

10201 @ 음.{음.}

10201 # 그 기적[찍]에 어 시방 이래 책에두 나구. 저기 그 일본압박으 너무 겐디기 **바꾸 구(←바뿌구) 그 생활행페이 너무 가난하이까데 그 두만가~ 건네서 노시 노시아 따으르 들어온 분네덜 많습지. 그때까래 저 우리 부친두.{그 그적에 어 시방 이래 책에도 나고. 저기 그 일본 압박을 너무 겐디기 힘들고 그 생활 형편이 너무 가난하니까 그 두만강을 건너서 러시 러시아 땅으로 들어온 분네들 많지요. 그때 무렵에 저 우리 부친도.}

10201 @ 음.{음.}

10201 # 말씩 들어왔습니다.{말인 즉 들어왔습니다.}

10201 @ 음. 그면은 모친은요 모친도 그 막 그 함경도 분이고요?(음. 그러면은 모친은요 모친도 그 막 그 함경도 분이고요?)

10201 # 우리 모친 고향은 내 알수 없습니다.{우리 모친 고향은 내 알 수 없습니다.}

10201 @ 으음. 그러면은 그 어머니 아버지는 여기서 뗏살때 돌아가셨어요?(으음. 그러면 그 어머니 아버지는 여기서 몇 살 때 돌아가셨어요?)

10201 # 우리 아버지는 오십삼년도에 한갑 세구 그 이듬해.{우리 아버지는 53년도에 환갑 쇠고 그 이듬해.}

10201 @ 으음.{으음.}

10201 # 상세나구. 어머니는 칠십팔년도에 야든아웁시만에[야든아웁씨마네].{돌아가시고. 어머니는 78년도에 여든아홉세 만에.}

10201 @ 아.{아.}

10201 # 예 거저 뗏달으 더 계시무 구십세 대엿갓습니다. 기랜데 우리 어시게 대해서 우리 마마(мама)게 딸이 사형제구 아들이 삼형제엿지. 기래 그때까래 둘째딸이 어터게 *뵈 불연간 베~이 들어서 홀 상세나구 기래구서리 여섯이 다아 죽재앵구 잇어서 그 어시게 대구 우리 빠빠(папа) 돌아간 후에 저 어머니게 대해서 우리 뵈게 위출하구 잘모셧습니다.{예 그저 뗏 달을 더 계시면 구십 세 되었갓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에 대해서 우리 어머니에게 딸이 4형제고 아들이 3형제이지요. 그래 그때까지 둘째 딸이 어떻게 돼 불현 듯 병이 들어서 훌쩍 죽고 그리고서 여섯이 다 죽지 않고 잇어서 그 부모에게 대해서, 우리 아버지 돌아간 후에 저 어머니에게 대해서 우리 뵈게 위출하고 잘 모셧습니다.}

10201 @ 으음.{으음.}

10201 # 기래 늘쌍 거저 우리 마마(мама) 말썬하는거는 느으 애비는 이 켈리비조르(телевизор) 어떤것두 모르구.{그래 늘쌍 그저 우리 어머니 말썬하는 거는 너희 애비는 이 텔레비전이 어떤 것인지도 모르고.}

10201 @ 으흠.{으흠.}

10201 # 기래다 상세났는데 난 오래살길래서 이릉긴 낙으 본다구서르. 기래 야든아웁에 벨르

무스 이래 숨이차서 늘쌍 기렸습니다. 기래던젠데 불 불언간(不言間)에 거저 벨르 해롭시 두 애잉구서르 세사아 떠났습니다.{그러다 돌아가셨는데 난 오래 살아서 이렇게 낙을 본 다고서. 그래 여든아홉에 별나게 뭐 이래 숨이 차서 늘쌍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갑, 갑자기 그저 별로 편찮으시지도 앓고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10201 @ 으음. 그러면 그 아바이 그 형제분들은 지금 다 어디 사세요?{으음. 그러면 그 할아버지 그 형제분들은 지금 다 어디 사세요?}

10201 # 우리 음 아바이 삼형제라 했구마.{우리 음 할아버지 삼형제라 했습니다.}

10201 @ 예.{예.}

10201 # 갠데 에 만혜~에느 조선파에서 아매 원도 원도~에서 포시질하다가서리 일본 후우 재덜께 초에 맞아서 상세났다구서리 기랩덤.{그런데 에 만형은 조선 땅에서 아마 원동 원동에서 포수(砲手) 일을 하다가 일본 강도들에게 총에 맞아서 돌아가셨다고서 그러 더군요.}

10201 @ 으음.{으음.}

10201 # 기래구서르 우리 빠빠(Папа) 삼형제서 에엔 침 막뒤입지.{그리고서 우리 아버지 삼형제에서 (맨 처음) 막둥이지요.}

10201 @ 으음.{으음.}

10201 # 기래 두번째 혜~이느 멀재앵게서르 마감에 그 내 베질의 삼년도안으[삼년또아느] 해 앓다 할 적에.{그래 둘째 형은 멀지 앓게 마감에 그 내 벼농사를 삼년 동안을 했다 할 적에.}

10201 @ 예.{예.}

10201 # 그 만아바이네 계신 우리 그 백부께서느 그 촌에서 하 한동네서 살았댓습니다.{그 큰아버지네 계신 우리 그 백부께서는 그 촌에서 하 한 동네에서 살았었습니다.}

10201 @ 아아.{아아.}

10201 # 기래다서리 우리 만아바이느 으음 어느해애 우리 빠빠(Папа) 상세나서 한 오연 드 더 계셋습니다. 기래다서리 그분네두 자손덜이 무던해서 펜아이 잇다서르 상세났습니다.{그러다가 우리 큰아버지는 으음 어느 해애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한 오년 더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그 분네도 자손들이 무던해서 편안히 있다가 돌아가셨습니다.}

10201 @ 그 아바이 형제분들은? 짐 저 어르신 형제분들은 지금 어디 사세요? 형제가 형제가 삼.{그 할아버지 형제분들은? 지금 저 어르신 형제분들은 지금 어디 사세요? 형제가 형제가 삼(형제).}

10201 # 예예. 저기 우리 사촌네.{예. 저기 우리 사촌네.}

10201 @ 예.{예.}

10201 # 사촌네.{사촌네.}

10201 @ 아니 친형제 친형제.{아니 친형제 친형제.}

10201 # 삼, 그거 시방 우리 백부 자소이 삼형제 뎁습니다. 기랜게 어전 다 돌아가서 없습 니다.{셋, 그거 시방 우리 백부 자손이 삼형제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 돌아가셔서 없 습니다.}

10201 @ 백부님 말고.{백부님 말고.}

10201 # 예.{예.}

10201 @ 어르신 형제 형제가 혹 어르신 형제.{어르신 형제 형제가 혹 어르신 형제.}

10201 # 삼형제게 다 어전 돌아가구 없습니다.{삼형제인데 다 이제는 돌아가시고 없습니다.}

10201 @ 음.{음.}

10201 # 없습.{없습니다.}

10201 @ 아버지 형제 말고.{아버지 형제 말고.}

10201 # 예, 예.{예, 예.}

10201 @ 예.{예.}

10201 # 그 자손덜이 말했구마.{그 자손들을 말했습니다.}

10201 @ 예.{예.}

10201 # 싹 어전 돌아가시구 없습니다.{싹 이제는 돌아가시고 없습니다.}

10201 @ 그문 뻘뻘 밑으로는 뗏명이에요 자식 자식이.{그러면 아버지 밑으로는 몇 명이에요 자식 자식이.}

10201 # 그 두부이 잇, 삼형제 텨게 두부이 들어왔습짐. 한분 그 그릉기.{그 두 분이 잇, 삼형제 텨 게 두 분이 들어왔지요 뉘. 한 분 그 그렇게.}

10201 @ 그 어 지금 현재 형님 계세요 안 계세요?{그 어 지금 현재 형님 계세요 안 계세요?}

10201 # 뉘?{나?}

10201 @ 예.{예.}

10201 # 형님이 저기 **지방(←지방) 사진두 있습니다. 그러께 야든하나에 세사~아 바랬습니다.{형님이 저기 지방 사진도 있습니다. 지지난 해 여든하나에 세상을 버렸습니다.}

10201 @ 그면은 그 위에 형님이고 여기에 잇는 그 썸쪽에 일흔여덟살 먹은 그 분이 누님이 세요?{그러면은 그 위에 형님이고 여기에 잇는 저쪽에 일흔여덟 살 먹은 그 분이 누님이 세요?}

10201 # 예, 예, 예.{예, 예, 예.}

10201 @ 그럼.{그럼.}

10201 # 예.{예.}

10201 @ 다 여기 사세요? 혀 형제간이?{다 여기 사세요? 혀 형제간이?}

10201 # 저 절떡동새애는 전 우즈베키스탄에.{저 막내 동생은 저 우즈베키스탄에.}

10201 @ 절떡동생이?{막내 동생이?}

10201 # 예, 예. 절떡동새애.{예, 예. 막내 동생.}

10201 @ 그면은 아들이 뗏이고 뗏이여? 아들 넷, 딸넷, 아들셋.{그러면 아들이 뗏이고 뗏이 야? 아들 넷, 딸 넷, 아들 셋.}

10201 # 아 아들이 너어에 딸이 서.{아 아들이 넷에 딸이 셋.}

10201 @ 딸.{딸.}

10201 # 저 **안 딸, 딸이 너어에 아들이 서이.{저 딸, 딸이 넷에 아들이 셋.}

10201 @ 서이. 아들 너어.{(딸이) 셋. 아들이 넷.}

10201 # 예. 예.{예. 예.}

10201 @ 그면은 딸 넷은 넷중에서 지금.{그러면은 딸 넷은 넷 중에서 지금.}

10201 # 두분네 돌아가시구 두분네 여기 계십니다.{두 분네 돌아가시고 두 분네가 여기 계십니다.}

10201 @ 다 손 위에에요 밑에에요?{다 손위에요, 밑이에요?}

10201 # 예 여긴 여기 계십니다 계.{예 여기 여기 계십니다, 계.}

10201 @ 아니! 나이가, 나이가 어 어르신 위, 보다 위에 누나예요 동생이에요?{아니! 나이가 나이가 어 어르신 위, 위의 누나예요 동생이에요?}

10201 # 누나느:: 어 정말 ***가압시장세라구서 말이 잇재앤슴둥?{누나는 어 정말 '가압시장 세(?)'라고서 말이 잇잖습니까?}

10201 @ 예. 예.{예. 예.}

10201 # 내마 어.{내보다 어.}

10201 @ 두살 위.{두 살 위.}

10201 # 두살 이새구.{두 살 손위고.}

10201 @ 야.{예.}

10201 # 기래구 그 내 절먹느비느 이 삼십이연새~이까데 내마 네살이 지하오.{그리고 그 내 막내 누이는 이 33년생이니까 나보다 네 살이 아래오.}

10201 @ 네살 지하고.{네 살 아래고.}

10201 # 예. 예.{예. 예.}

10201 @ 그먼 남자 형제는 없어요?{그러면 남자 형제는 없어요?}

10201 # 남자 형제 글쎄 음 맏형님으느 세사~아 떠나구.{남자 형제 글쎄 음 맏형님은 세상을 떠나고.}

10201 @ 떠났고.{떠났고.}

10201 # 동새에 정말 우즈벡스탄에 잇는게 삼십오연새~이까데 음 예순아웁이 금 금년에.{동 새이 정말 우즈베키스탄에 잇는 게 1935년생이니까 음 예순아웁이고, 금 금년에.}

10201 @ 거기가 거기가 절먹동생이야?{거기가 거기가 막내 동생이야?}

10201 # 예.{예.}

10201 @ 어. 그먼은 거기는 우즈베키스탄에 잘살아요?{어. 그러면은 거기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잘살아요?}

10201 # 시방 행페이 어디메 벨르 잘사는 데 없습디다. 거저 자본국가 떡 데다나이까데 좀 자손덜이 약빠른 그 그런 가문에서느 잘보내구. 좀 약빠르지 못하구 사램이두 한가지[항 까지] 아이재입니까?{시방 형편이 어디 특별히 잘사는 데 없습디다. 그저 자본 국가가 떡 되니까 좀 자손들이 약빠른 그 그런 가문에서느 잘 보내고. 좀 약빠르지 못 하고 사람도 한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10201 @ 예.{예.}

10201 # 거저 자손덜은 다 같아두 약빠른사람덜으느 세간**배채르 그렇기 잘해서 부젤르 산 분네덜이 여기두 많습디다 이 끼르키즈두.{그저 자손들은 다 같아도 약빠른 사람들은 세 간 배치를 그렇게 잘 해서 부자로 사는 분들이 여기도 많습디다 이 키르키즈스탄에도.}

10201 @ 음.{음.}

10201 # 기래 좀 재배들이르 잘하지 못한 분네덜으느 거저 우리처리 이렇기 살구. 기래 시방 앞서두 조끔 말이 잇엇지만 저 우리 큰아 자아 세간 **배채르 그렇기 잘했슴. 재배들이르 그렇기 잘하구. 자안 재비르 총리시기에 이 료꼬이마시나(легковой машина)르 세개 세개르 **취구[꾸] 잇엇습디다. 기래구 집우 재빌르 세칸들이 집우 수리르 해서 사구. 앞우루 딸이 출가르 가무 주갯다구서르 두칸들이 집우 싸서 싹 거저 켈리비조르(телевизор) 무시기구 싹 거또빅(готовы) 싸, 싸놓고. 기래구서르 또 한칸들이르 또 또 싸놋습

니다. 기래 기래지. 아버지 돈으 해서 미실 하겠는가구 무스거 싸나야 텐다구.{그래 좀 재배들이(+ 미리 마련하여 갖추어 들이는 일)를 잘하지 못 한 분네들은 그저 우리처럼 이렇게 살고. 그래 시방 앞서도 조금 말이 있었지만 저 우리 큰아이 저 아이 세간살이를 그렇게 잘했습니다. 미리 마련하여 갖추어 들이는 일을 그렇게 잘하오. 저 아이 자기가 총지배인일 때 이 승용차를 세 대 세 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을 자기가 세 칸들이 집을 수리를 해서 사고. 앞으로 딸이 출가하면 주겠다고 두 칸들이 집을 사서 싹 그저 텔레비전이고 뭐고 싹 준비를 (해서) 사, 사 놓고. 그리고서 또 한 칸들이를 또 또 사 놓았습니다. 그래 그러지. 아버지! 돈을 벌어서 무엇을 하겠는가 하고. 무엇을 사 놔야 된다고.}

10201 # 기래 싹 재배들이 해놓구서르 그담 재비르 숨이 가던.{그래 싹 재배들이(+ 미리 마련하여 갖추어 들이는 일)를 해 놓고서 그다음 제 스스로 숨이 끊어지더구면.}

10603 @ 옛날에 팔칸집 지면::.{옛날에 팔칸 집을 지으면.}

10603 # 예.{예.}

10603 @ 팔칸집을 지면 이렇게 이 이 벽에다가 벽 위에다가 뭐 뭐 세간같은거 넣어놓은 이런 이런 방을 만들지 않았어요? 벽에다가 문을 문을 내가지고 뭐 넣고 하는 그런 창고 만들지 **않안 않았었는가요?{팔칸 집을 지으면 이렇게 이 이 벽에다가 벽 위에다가 뭐 뭐 세간 같은 거 넣어 놓은 이런 이런 방을 만들지 않았어요? 벽에다가 문을 문을 내 가지고 뭐 넣고 하는 그런 창고를 만들지 않았, 않았었는가요?}

10603 # 기억으 못하겠습니다.{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10603 @ 예.{예.}

10226 # 기래구서르 내 *앤 아이때 원도~서 그 생각이 나는 거느 우리 할아버지 돌아가시이 까데, 어째 그적[쪽]에느 이 미신으 데게 믿으메서리 우리 할아버지네, 형, **형겹으(← 형겹) 싸드래두 고 쯤백으 오로서 이 구석에다서리 그거 걸어놓구 걸어놓구.{그리고서 내 아, 아이 때 원동에서 그 생각이 나는 것은 우리 할아버지 돌아가시니까, 어째 그적에는 이 미신을 되게 믿으면서 우리 할아버지네, 천, 천을 사더라도 고 조각을 오로서 이 구석에다가 그거 걸어 놓고 걸어 놓고.}

10226 @ 음.{음.}

10226 # 사적에다서리 기래 우리 세상모를 직에 저게 미시게 그게 귀신 뚜깨라구서르[t'ʌk'ɛ] 다치지 말라구 기랩지.{사방에다가 그래 우리 세상 모를 적에 저게 무슨 그게 귀신 뚜껍이라고서 건드리지 말라고 그러지요.}

10226 @ 어어.{어어.}

10226 # 귀신 뚜깨라구서리.{귀신 뚜껍이라고서.}

10226 @ 귀신 뚜깨라고요?{귀신 뚜껍이라고요?}

10226 # 예예. 그 그렇기.{예예. 그 그렇게.}

10226 @ 오::.{오.}

10226 # 기래 그다음번에 우리 할아버지 상세나이까데 우리 빠빠(папа) 귀신은 무슨 세사~에 없는 귀신이 잇겠는가 그거 싹 꺼내서 (웃음) 싹 어디 개다서리 (웃음) 뿌려테데.{그래 그 다음 번에 우리 할아버지 돌아가시니까 우리 아버지 귀신은 무슨 세상에 없는 귀신이 잇겠는가 그거 싹 꺼내서 (웃음) 싹 어디 가져가서 (웃음) 던져 버려.}

@ (웃음) 흑시:: 이렇게 옛날에 방에다가 방에다가 불을 담아놓고. 방에 여기다 불 담아서 방

에다가 놓구요.{(웃음) 혹시 이렇게 옛날에 방에다가 방에다가 불을 담아 놓고. 방에 여기다 불 담아서 방에다가 놓구요.}

예 그.{예 그.}

@ 있었던거.{있었던거.}

예 저기.{예 저기.}

@ 뭐라고 그랬어요?{뭐라고 그랬어요?}

이 이 이거처럼 이렇기사 곱게 아이하구서르.{이 이 이거처럼 이렇게야 곱게 안 하고서.}

@ 예에.{예.}

거저 보통해에서 그 가져~에서 그거 어데 하룻도이[하르또이] 하룻도이 할또 하룻도이라구서 기랩드. 거기다서르 술우 불는거 **담아서 기랩 게울이무 이래 거기서 불우 췌웁덤.{그저 보통으로 해서 그 가정에서 그거 어디 화로 화로 화로 화로라고서 그러더군요. 거기다가 솥을, (불이) 붙은 거 담아서 그래 겨울이면 이래 거기서 불을 쪼더군요.}

@ 그렇지요?{그렇지요?}

예.{예.}

@ 예.{예.}

게 우리 할아버지 때애라 기랸습니다.{그게 우리 할아버지 때에 그랬습니다.}

@ 그럴때 그 불으 담아났을때요. 하룻동에에.{그럴 때 그 불을 담아 냈을 때요. 화로에.}

예.{예.}

@ 이렇게 무슨 그 수저같은걸로 이렇게 불을 눌러고.{이렇게 무슨 그 숟가락 같은 걸로 이렇게 불을 누르고.}

예, 예.{예, 예.}

@ 젓가락 같은 걸로 이렇게.{젓가락 같은 걸로 이렇게.}

예, 예, 예.{예, 예, 예.}

@ 불을 눌러고 그랬죠?{불을 누르고 그랬지요?}

예, 예.{예, 예.}

@ 그거 따로 이름 이름 기억하세요?{그거 따로 이름 이름 기억하세요?}

이름 기억할수 없습니다. (웃음).{이름 기억할 수 없습니다. (웃음).}

@ 그래요? 음. 이런거 이런거 혹시 이런거 보셨어요? 삐뚜름헌거?{그래요? 음. 이런 거 이런 거 혹시 이런 거 보셨어요? 비슷한 거?}

바아두 그게 글씨 무시라구 이 이름 뭐 말할수 없습니다.{봐도 그게 글씨 무엇이라고 이 이름 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 이것은요?{이것은요?}

예따(это).{음.}

10201 @ 원동애가 잉게 들이 뜰이 날: 넓:지 않았어요?{원동이 이렇게 들이 뜰이 넓, 넓지 않았어요?}

10201 # 아이, 아이 넓었습니다. 거저 산골짜에 조끔 췌드~이 잇으 잇는데 그 그런 데 거기는 이 곡식의 수무자아두 벤죽땅 밭에다서리 그런 데다 수뭍덤.{아니, 안 넓었습니다. 그저 산골짜에 조끔 평평히 있, 있는 데 그 그런 데 거기는 이 곡식을 심자고 해도 산 가장자리 땅 밭에다가 그런 데다 심더군요.}

10201 @ 으음.{으음.}

10201 # 기래 내 아때 큰 소낙비랑 자주루 오구 그램 또 기계 곡식 수문 따이 싹 밀게선 내려오메서르 그렇기 페~야데구 마압덤.{그래 내 아이 때 큰 소낙비랑 자주 오고 그러면 또 그계 곡식 심은 땅이 싹 밀려선 내려오면서 그렇게 평야(平野)가 되고 말더군요.}

10201 @ 으음.{으음.}

10201 @ 그 췌집은 글면은 그때 당시에 그 그걸 열수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그 기와집은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그 그것을 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10201 # 저기 노시앗분네덜이 와서. 그 재르 예엿습니다.{저기 러시아 분네들이 와서 그 기와를 이엿습니다.}

10201 @ 어.{어.}

10201 # 우리 조선사람덜은느 거기 들어가서 그 아는 사람덜 없었던 모양~입니다. 기래길래 타국민족덜이 와서 그 핵교르 짓는것두 이 핏자~을르[피짜~을르] 이래 짓는데 타국민족덜이 싹 와 저엿습니다.{우리 조선 사람들은 거기 들어가서 그 아는 사람들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러기에 타국 민족들이 와서 그 학교를 짓는 것도 이 벽들로 이래 짓는데 타국 민족들이 싹 와 지엿습니다.}

10201 @ 으음. 그러면 그때에 그때 거기 가서 구경하신 거예요 그러면? 귀경가서?{으음. 그러면 그때에 그때 거기 가서 구경하신 거예요 그러면? 구경가서?}

10201 # 우리 다 아이덜 거저 밭으 뺏구 달아댕기메 그 일하는게랑 이래 보지 무스. 그저 기 거하메.{우리 다 아이들 그저 밭을 벗고 뛰어다니며 그 일하는 거랑 이래 보지 뭐. 그저 기거(起居)하며.}

10201 @ 으음. 으음. 그럼 그때도 조합이 조합이 잘됐었나보네요이~.{으음. 으음. 그럼 그때도 조합이 조합이 잘됐었나 보네요.}

10201 # 기직[찍]에 조합이 한창 첫을 뺏니다.{그적에 조합이 한창 힘차게 일어설 때입니다.}

10201 @ 어.{어.}

10201 # 한창 시반.{한창 시방.}

10201 @ 세울때.{세울 때.}

10201 # 예. 기래 조합이 처져서 무사히 살만하이 조국전재~이 낫습지.{예. 그래 조합이 힘차게 일어서 무사히 살 만하니 조국전쟁(=독소전쟁)이 낫지요.}

10201 @ 으음. 오 그걸 그러니까 여기 저 우즈베크스탄에서 그 학 학 핵교를 질때 그때 췌집을 졌다는 거예요?{으음. 오 그걸 그러니까 여기 저 우즈베크스탄에서 그 학 학 학교를 지을 때 그때 기와집을 지었다는 거예요?}

10201 # 예 예.{예 예.}

10201 @ 원동에서가 아니고?{원동에서가 아니고?}

10201 # 원동 아이구. 원 원동서 내 기래재엠두? 소핵교르.{원동 아니고 원 원동에서 내 그러지 않습니까? 소학교를.}

10201 @ 으음.{으음.}

10201 # 네번채해애 그꺼지 잇는 핵교르 장인게 무틸르 장구[지꾸] 앵게느 이 양철으 가주구 서르.{4학년까지 잇는 학교를 지은 게 통나무로 짓고 이엉은 이 양철을 가지고서.}

10201 @ 아아. 무티르 짓는다는 말은 뭘로, 무티는 뭐예요? 뭘요?{아아. 통나무로 짓는다는 말은 뭘로, '무티'는 뭐예요? 뭘요?}

10201 # 그 *어똥, 그거 거저 촌에선 그 무티집이 무티집 하압덤. 이 저기 이 전봇대르 스 스

세우재이요?{그 어떻게 (말하나), 그거 그저 촌에서는 그 통나무집 통나무집 하더군요.
이 저기 이 전봇대를 세 세 세우지 않소?}

10201 @ 예.{예.}

10201 # 이따우 무티르 이렇기 어기물게서 이 이렇기 *싸 쌓아올라 올라가구.{이따위 통나무
를 이렇게 어긋물려서 이 이렇게 쌓, 쌓아 올라, 올라가고.}

10201 @ 아아! 낭글르?{아아! 나무로?}

10201 # 예, 예 낭글르.{예, 예 나무로.}

10201 @ 아아. 그제 무티집이라고요?{아아. 그제 통나무집이라고요?}

10201 # 예, 무티집이라구서르 거저 그렇기 말하압담. 여기 우리 **비슈베크두 시방 그 무티
집이 잇으 잇습구마.{예, '통나무집'이라고서 그저 그렇게 말하더군요. 여기 우리 비슈케
크에도 시방 그 통나무집이 있, 있습니다.}

10201 @ 음.{음.}

10201 # 여기 여기두 그런 집이 잇습굼[이쓰꿈].{여기 여기도 그런 집이 있습니다.}

10201 @ 음.{음.}

#1 어전, 저 아침부터 아이 잡삿갓는데 식사르 하구.{이제, 저 아침부터 안 잡쌌겠는데 식사를
하고.}

@ 아, 저 먹었어요.{아, 저 먹었어요.}

#1 아이 식사르 하구 그담에 또 다시.{아니 식사를 하고 그다음에 또 다시.}

@ 아바이 식사 안 하셨어요?{할아버지 식사 안 하셨어요?}

#1 아이 헛.{아니 헛.}

아이 난 먹었습니다.{아니 난 먹었습니다.}

@ 저는 먹고 왔어요.{저는 먹고 왔어요.}

#1 아이 내 싹 갖차놔소.{아니 내가 싹 갖취 놔소.}

@ 아니 먹고왔다니까!{아니 먹고 왔다니까!}

(웃음).{(웃음).}

@ 이따 점심.{이따 점심.}

#1 어전으 점심때 대지. 열두시 대엿소.{이제는 점심 때가 되지. 열두 시가 되었소.}

@ 또 이제 와 밥 막 밥먹고 왔어요 저.{또 이제 와 밥 막 밥 먹고 왔어요 저.}

#1 (웃음).{(웃음).}

갠 저느 빨리 가 가보고.{그러니 당신은 빨리 가 가 보고.}

@ 이따가 먹게.{이따가 먹게.}

#1 이따가?{이따가?}

@ 예.{예.}

#1 그램 내 저게 덮어놓겠으니 개구 구담에.{그러면 내 저기에 덮어 놓겠으니 그리고 그다음
에.}

@ 예.{예.}

#1 아바이 덮에다가서리 야?{할아버지가 들여다가서 응?}

@ 예.{예.}

#1 자 따마라에서.{자 따마라에서.}

@ 어디 가지게요?{어디 가지게요?}

#1 내.{나.}

저 상점으로 그{저 상점으로 그}

@ 바자르 가요?{시장 가요?}

#1 아아.{아아.}

@ 왜?{왜?}

그 수도나사 잘못데서.{그 수도 나사가 잘못되어서.}

#1 그거 가서.{그거 가서.}

그거 가 싸오자구.{그거 가 사 오자고.}

@ 으음.{으음.}

10201 @ 그거 그걸 다 낭그르 진것을 무티집이라고 그래요?{그거 그걸 다 나무로 지은 것을 '무티집'(=통나무집)이라고 그래요?}

10201 # 예 무티집이라구 그랩덤.{예 '무티집'(=통나무집)이라고 그러더군요.}

10201 @ 으음. 그러면 이 그 뭐야 우즈베키스탄에서 질 때는 뭘로 졌고?{으음. 그러면 이 그 뭐야 우즈베키스탄에서 지을 때는 뭘로 지었고?}

10201 # 우즈베키스탄서 우리 예엔 첫감에는 그 물차~에다서리 집으 저 그 물뱀이[물빼미] 그 저 그래두 기직[찍]에는 깔으 가주구서 깔으 저{우즈베키스탄에서 우리 맨 처음에는 그 물창(+물이 고여 질퍽한 곳)에다가 집을 지어 그 물뱀이 (나왔는데) 그저 그래도 그때에는 갈대를 가지고서 갈대를 저}

10201 @ 아니! 아니! 중학교 질때.{아니! 아니! 중학교를 지을 때.}

10201 # 예 중학교 질때는 핏자~을르. 이 굵은 피 아이구 거저 흙피르 가주구서리 쌓앗습짐. {예 중학교를 지을 때는 벽돌로. 이 굵은 벽돌(=내화벽돌)이 아니고 그저 흙벽돌을 가지고서 쌓았지요.}

10201 @ 흙 벽 벽돌로.{흙 벽 벽돌로.}

10201 # 예, 예, 예. 벽돌.{예, 예, 예. 벽돌.}

10201 @ 그걸로,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그걸로,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10201 # 그거[kixə] 거저 고레서 거 '핏재~이' '핏재~이' 헛스. '핏재~이'라구.{그거 그저 고려에서 그거 '핏재~이(벽돌)' '핏재~이(벽돌)' 했습니다. '핏재~이(벽돌)'이라고.}

10201 @ 그건 그건 그건 러시아 말이네?{그건 그건 그건 러시아 말이네?}

10201 # 무슨 말인지 모름지. (웃음) 네에 말인지 (웃음).{무슨 말인지 모르지요. (웃음) 누구의 말인지 (웃음).}

10201 @ 오오.{오오.}

10201 # 우리 고려 사람덜이 '핏장집'이라구 그랩. '핏자~이'라구서르 그렇기.{우리 고려 사람들이 '핏장집'(벽돌집)이라고 그러합니다. '핏자~이'(벽돌)이라고서 그렇게.}

10201 @ 아아 핏장집이 뭐예요?{아아 '핏장집'이 뭐예요?}

10201 # 그분네덜 그러습짐. 피, 그거 그 끼리 끼리삐취(кирпич), 자~ 끼리삐취(кирпич).{그분네덜이 그러지요 뭐. '피'(벽돌)를 그거 '끼리 끼리삐취', '장'을 끼리삐취'(벽돌)라고.}

10201 #1 끼리삐취(кирпич)르 이렇기 저어서 그렇기 하지. 영기덜 지빨건 집덜이 배우재오?{벽돌을 이렇게 지어서 그렇게 하지. 여기에 시빨건 집들이 보이지 않소?}

10201 @ 어.{어.}

10201 #1 기계 피장집이오.{그게 벽돌집이오.}

10201 # 여기 여기 이 이 삼층집이지만 짓재엇? 삼층집 데구 절에.{여기 여기 이 이 삼층 집
이지만 짓지 않았소? 삼층 집 되고 곁에.}

10201 @ 옆에.{옆에.}

10201 # 에 저거는 우리 보통말 저거 '굽은 핏재~이'라구 하압끄.{에 저거는 우리 보통 말로
저거 '구운 벽돌'이라고 합니다.}

10201 # 마우재.{러시아 사람.}

10201 @ 구운거.{구운 거.}

10201 # 예, 굽어. 마우재말르 게 존느 끼리삐취(жжённый кирпич)지. 기래구 굽재앤거는
거 거저 거저 썬레지(сырец)는 거 거저 핏재~이'라구 우리 이렇기 말합지.{예, 구워서.
러시아 말로 그게 'жжённый кирпич(내화벽돌)'지. 그리고 굽지 않은 것은, 그 그저 굽
지 않은 것은 그 그저 '핏재~이'라고 우리 이렇게 말하지요.}

10201 @ 아아. 그걸 핏장이라고 그래요?{아아. 그걸 '핏장'이라고 그래요?}

10201 # 예.{예.}

10201 @ 으음. 우린 '벽돌'이라고 하는데.{으음. 우리는 '벽돌'이라고 하는데.}

10201 # 예. 글썸.{예. 글썸.}

10201 #1 아이 영계서는 또 어떤사람덜으는 벽돌집이라 하지.{아니 여기서는 또 어떤 사람들
은 벽돌집이라 하지.}

10201 @ 네.{네.}

10201 #1 벽돌집이라구.{벽돌집이라고.}

10201 @ 예.{예.}

10201 #1 아 그 그런 핏장집우 벽돌집이라구서 어떤 사람덜은 그렇게 말하우.{아 그 그런 '
핏장집'을 '벽돌집'이라고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오.}

10201 # 벽돌집이 옹지무 옴빵.{'벽돌집'이 옹지 뭐 원판.}

10201 #1 야~.{응.}

10201 @ 벽돌집허고 핏장집허고 같…….{'벽돌집'하고 '핏장집'하고 같…….}

10201 #1 야. 하! ну(ну), ну(ну), ну(ну). 그렇기 말하오. 어떤 사람덜은.{응. 하! 그럼, 그
럼, 그럼. 그렇게 말하오. 어떤 사람들은.}

10201 @ 음.{음.}

#1 게 갈직[찍]에 꼭 식새르 하구 기래구 가오 냐~?{그래 갈 적에 꼭 식사를 하고 그리고 가
오 응?}

@ 네.{네.}

#1 야.{응.}

@ 저희 다 네시 반쯤 갈게요.{저희 다 네 시 반쯤 갈게요.}

#1 아?{응?}

@ 오후 네시 반쯤.{오후 네 시 반쯤.}

#1 네시만에?{네 시쯤에?}

@ 네시 네시에서 다섯시 사이에.{네 시 네 시에서 다섯 시 사이에.}

#1 아~아~.{아아.}

@ 그 목사님이 태…….{그 목사님이 태…….}

#1 데릴라 오오?{데리러 오오?}

@ 텔러 오기로 하셨어요.{테리러 오기로 하셨어요.}

#1 아~아~.{아아.}

예.{예.}

#1 게 내 여기다 싹 갖차놔소.{그래 내가 여기다 싹 (음식을) 갖춰 놔소.}

@ 네.{네.}

#1 게 잡숫구서리 기래구 가오.{그래 잡숫고서 그리고 가오.}

@ 그래요. 예.{그래요. 예.}

#1 아하.{아하.}

@ 음.{음.}

#1 아~아~. 옛그제 왔던 그 목사님.{아아. 옛그제 왔던 그 목사님이.}

@ 예.{예.}

#1 아~:: 모실라 온다구?{아 모시러 온다고?}

@ 예.{예.}

#1 아~아~.{아아.}

@ 저 어디 못가요 (웃음).{저 어디 못 가요.}

#1 아~아~ (웃음). 기램 잇소.{아아 (웃음). 그러면 잇소.}

@ 예.{예.}

10603 @ 그러면 그 기와를 기와를 기와가 기와를 보면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 이렇게 이렇게 생겨있죠이~? 이게 넓 이마씩 여기 넓게 생겼잖아요.{그러면 그 기와를 기와가 기와를 보면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 이렇게 이렇게 생겨 있지요? 이게 넓 이만큼씩 여기 넓게 생겼잖아요.}

10603 # 여기는 거저 거저 크재얹게서리 이 이 집이 그 건넛집이 시방 그 그 기와르 예엔집 이구마. 싹 저 싹 저, 젓다구.{여기는 그저 그저 크지 않게 이 이 집이 건넛집 시방 그 그 기와로 (지붕을) 인 집입니다. 싹 지어, 싹 지어, 지었다고.}

10603 @ 그 그야 뻥뻥뻥해요 이렇게?{그 그야 뻥뻥뻥해요 이렇게?}

10603 # 아이 이렇게 흠이 나게.{아니 이렇게 흠이 나게.}

10603 @ 흠이 났죠?{흠이 났지요?}

10603 # 예 나래 나래 저기 나가압짐.{예 나중에 나중에 저기 나가서 보지요 뭐.}

10603 @ 네.{네.}

10603 # 이거 우에 곧 질건네 집인.....{이거 위로 곧게 길 건너 집인데.}

10603 @ 그러면 그거 그 기와에 이름 이름이 딸로 이 어 딸로 없어요?{그러면 그거 그 기와에 이름 이름이 따로 이 어 따로 없어요?}

10603 # 우리는 그 더 여기선 '재엿집'이라구서리 '재엿집'이라구.{우리는 그 저 여기서는 '재엿집'(기와집)이라고서 '재엿집'(기와집)이라고.}

10603 @ 재엿집 어.{기와집. 어.}

10603 #1 기애구 쉬피리(шифер)라지. 거 쉬피리(шифер)라구.{그리고 함석이라지. 그 함석이 라고.}

10603 # 아이 저기 시, 쉬피리(шифер) 아이구.{아니 저기 함, 함석 아니고.}

10603 @ 마우재 말이죠 그건.{러시아 말이지요 그건.}

10603 #1 마우젯말이지.{러시아 말이지.}

10603 # 쉬피리(шифер)는 요 우 우리지부~ 예엔 그 그게 쉬피리(шифер)구.{함석은 요 우 우리 지붕을 인 그 그게 함석이고.}

10603 #1 기래구.{그리고.}

10603 # 그거 시방 기왓집이라는데 그게 재르 여언집으 그 기왓집이라구 하오.{그거 시방 기왓집이라는 게 그게 '재'(기와)를 인 집을 그 기왓집이라고 하오.}

10603 @ 음.{음.}

10603 #1 아~아~! 아~. 재르 이인 집우. 옹소.{아아! 아. 기와를 인 집을. 옹소.}

10603 @ 음.{음.}

10603 #1 췌엣집이.{기와집.}

10603 @ 췌엣집이.{기와집이.}

10603 #1 어! 허. 그런것두 잇소 여기.{어! 허. 그런 것도 잇소 여기.}

10603 @ 음.{음.}

10603 # 아이 우리 건네 저기 저.{아니 우리 건너 저기 저.}

10603 @ 음.{음.}

10603 # 저 스페판네 부리맨까(временка) 기래, 짓도.{저 스페판네 빠치카가 그래, 그것도.}

10603 #1 아하!{아하!}

10603 @ 으음.{으음.}

@ 여기서요 으음:. 뭐야 내애 내 제애 아버지.{여기서요 으음. 뭐야 내 내 저의 아버지.}

응.{응.}

@ 아버지에 아버지에 누나를.{아버지의 아버지의 누나를.}

예.{예.}

@ 아버지에 누나를 제가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아버지의 누나를 제가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이 이사~이무 아버지 그 누나 이새~이무 에 거저 가져~에서는 그래 '맡어머니'갓스. '맡아매' '맡아매' 하우.{손위면, 아버지 그 누나, (아버지) 손위면 에 그거 가정에서는 그래 '맡어머니'이겠소.'맡아매', '맡아매' 하오.}

@ 아니 이 그 이, 원동에서 써, 썼던 말대로 그양 해주세요.{아니 이 그 이, 원동에서 써, 썼던 말대로 그냥 해 주세요.}

예예 '맡아매'라고서.{예예 '맡아매'라고서.}

@ '맡아매'라고 그래요?{'맡아매'라고 그래요?}

예. 아버지 이상 느비무 '맡아매'라고서리 그렇.{예. 아버지 이상 누이면 '맡아매'라고서 그렇게.}

@ '맡아매'라고?{'맡아매'라고?}

예. '맡아매'라 하오.{예. '맡아매'라 하오.}

@ 그러면 제 인자 그 결혼을 하면 결혼을 하, 결혼을 한 사람을 두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결혼한 남자를 뭐라고 그래요? 혼새를 하면.{그러면 제 이제 그 결혼을 하면 결혼을 하, 결혼을 한 사람을 두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결혼한 남자를 뭐라고 그래요? 혼사를 하면.}

예.{예.}

@ 남자 여자가 혼새를 하잖아요.{남자 여자가 혼사를 하잖아요.}

예.{예.}

@ 그 처음 한 남자를 뭐라고 불러요?{그 처음 한 남자를 뭐라고 불러요?}

결혼한 아아 게 이 이새~른 저어 내 나쁘레메르(например) 헤에 결혼하게템 그야르 거 허, 형님이 형님이 하압짐. 기래구서르 그 여자데는 분네는 아주머니라구 기랬지.{결혼한 아이가 그게 이 이상이면 저 내 예를 들면, 형이 결혼하게 되면 그 사람을 그 허, 형님 형님 하지요 뭐. 그리고서 그 여자 되는 분네는 아주머니라구 그랬지.}

@ 아주머니.{아주머니.}

예. 아주머니라구[aʃmənɪ].{예. 아주머니라고.}

@ 아주머니가 원, 원래 지금 그 형님에 부인 아니에요?{아주머니가 원, 원래 지금 그 형님의 부인 아니에요?}

예, 예, 예.{예, 예, 예.}

@ 그러 아주머니라구 그래요?{그럼 아주머니라구 그래요?}

예 아즈머니라구.{예 아주머니라고.}

@ 아주머니.{아주머니.}

예.{예.}

@ 그러면 그러면 그러면 우리 동네에서 그야 동네 동네 동네에서 나이가 많은 사람을 제가 부를 때 여, 여자를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친척이 아닌 사람을?{그러면 그러면 그러면 우리 동네에서 그냥 동네 동네 동네에서 나이가 많은 사람을 제가 부를 때, 여 여자를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친척이 아닌 사람을?}

여자르?{여자를?}

@ 아.{아.}

#1 이름 부르는게 여기서느, 싹 이름 부르우. 이름 오치스토(начисто) 부르지 여기서. 남에 사름덜 기계 기래. 이름.{이름 부르는데 여기서느. 싹 이름을 부르오. 다 이름을 부르지 여기서. 남의 사름덜 그게 그래. 이름(을 부르지).}

@ 남에 사름덜.{남의 사름덜.}

#1 그래 우리 여서 남이 사름덜은 싹 이름 오치스토(начисто) 부르오. 에 내 이름가 내 빠빠(папа) 이름 한테 부르우.{그래 우리 여기서 남의 사름덜은 싹 다 이름을 부르오. 에 내 이름과 내 아버지 이름을 함께 부르오.}

@ 어.{어.}

#1 그렇기 부르우. 어, 우리 이 이 노인단에서 싹 그러오. 아:: 로사 니콜라에브나(Роза Николаевна) 로사(Роза)지. 갠테 애비 니콜라이지.{그렇게 부르오. 어, 우리 이 이 노인단에서 싹 그러오. 아, '로사 니콜라에브나'는 (이름이) 로사(Роза)지. 그런데 그 아비의 (이름은) 니콜라이지.}

@ 음.{음.}

#1 게 로자 니콜라에브나(Роза Николаевна). 나르 이럽, 내 따이샤지. '따이샤 국세예브나'. 우리 빠빠(папа) 국셉이오.{그래 '로자 니콜라에브나'라 하지. 나를 이럽니다. 내 (이름이) 따샤지. 그래서 '따이샤 국세예브나'. 우리 아버지가 안국셉이오.}

@ 오.{오.}

#1 기래 '따이샤 국세예브나' 이렇기 부르오.{그래 '따이샤 국세예브나' 이렇게 부르오.}

@ 음.{음.}

#1 이래 남우느. 이 거저 마우재 아오. 여기 사름이.{이래 남은. 이 그저 러시아 사름이오. 여

기 사람이.}

@ (웃음).{(웃음).}

(웃음).{(웃음).}

#1 어전 마우재요.{이제 러시아 사람이요.}

@ (웃음) 그러면 그러면 고모 알죠? 고모.{(웃음) 그러면 그러면 고모 알죠? 고모.}

예.{예.}

#1 고모르.{고모를.}

@ 고모.{고모.}

아~ 애비누비르.{응 아비 누이를.}

@ 어 애비 **느부리르.{어 아비 누이를.}

@ 애비 누비 부를때 내가 고모를 부를때 고모 그렇게 불러요::?(아비 누이 부를 때 내가 고모를 부를 때 고모 그렇게 불러요?)

고모라구 아이하구서르 내 이제 말씀하재얏{고모라고 안 하고서 내 이제 말씀하지 않}

@ 아재 그래요?{'아재' 그래요?}

예 저기 이새느 맡아매 맡아매 하구.{예 저기 이상은 '맡아매', '맡아매' 하고.}

@ 이하는?{이하는?}

이하느 '아재' '아재' 하지. '아재'라구.{이하는 '아재', '아재' 하지. '아재'라고.}

#1 아 조선에서느 뭐라 하?{아 조선에서는 뭐라 하오?}

@ '우리 고모'라고 그래요.{'우리 고모'라고 그래요.}

#1 고모라구.{고모라고.}

@ 예.{예.}

글썸.{글썸.}

#1 고모라구 부르구.{고모라고 부르고.}

@ 음.{음.}

#1 그담에느 어 이상분네느?{그다음에는 어 이상분네느?}

@ 똑같이 고모예요.{똑같이 고모예요.}

#1 고모라구.{고모라고.}

@ 예.{예.}

#1 어~어~.{어어.}

@ 그러니까 봐요 여기가 여기가 제가 있어요 내.{그러니까 봐요 여기가 여기가 제가 있어요 내.}

#1 응.{응.}

@ 내가.{내가.}

예.{예.}

#1 아~.{응.}

@ 저 위애가 보면 아,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지요?{저 위에 가 보면 아,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지요?}

예. 예.{예. 예.}

@ 제가 아버지를 부를때 뭐라고 불러요?{제가 아버지를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우리 우리때는 그 '아버지' '아버지' 해엿습짐.{우리 우리 때는 그 '아버지' '아버지' 했지요 뭐.}

@ 그렇죠 이 이쪽은?{그렇죠 이 이쪽은?}

'어머니'라구 했스.{ '어머니'라고 했지요.}

@ 어머니라고 그랬죠이~?{어머니라고 그랬죠?}

예.{예.}

@ 그면 이 아버지를 낳주시, 낳아주신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지요?{그러면 이 아버지를 낳아 주, 낳아 주신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지요?}

예.{예.}

@ 그문 내가 내가 이 아버지를 낳아주는 아버지를 부를때 뭐라고 불러요?{그러면 내가 내가 이 아버지를 낳아 준 아버지를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할아버지' '할아버지'라구 그랬지. '할아버지'.{ '할아버지' '할아버지'라고 그랬지. '할아버지'.}

@ '할아버지'라고 그래요?{ '할아버지'라고 그래요?}

예.{예.}

@ 보통때 뭐라고 불러?{보통 때 뭐라고 불러?}

'아바이' '아바이' 하압덤. (웃음) 아바이.{ '아바이', '아바이' 하더군요. (웃음) '아바이'.}

@ 그러니까 '아바이'죠이~?{그러니까 '아바이'이지요?}

예 예.{예 예.}

아바이, 아매.{ 할아버지, 할머니.}

@ 이게 아바이고 이게 아매.{이게 할아버지고 이게 할머니.}

아매, 아매.{ 할머니, 할머니.}

@ 예 아매.{예 할머니.}

#1 야덜이 야덜이 아매라구.{애들이 애들이 '아매'라고.}

야덜이 시방.{애들이 시방.}

@ 음, 음.{음, 음.}

@ 글면 어머니를 낳아주신 아버지하고 어머니는 뭐라고 불러? 내가.{그러면 어머니를 낳아 주신 아버지하고 어머니는 뭐라고 불러? 내가.}

#1 다 다 그렇기 부르오.{다 다 그렇게 부르오.}

거저 예 웨할마니구 웨한아버구 이래 이렇기 말하오.{거저 예, '웨할마니'이고 '웨한아버'고 이래 이렇기 말하오.}

@ 원래르.{원래는.}

웨.{외.}

@ 웨할, 웨하. 웨하, 웨할아버지고.{외할, 외하. 외하, 외할아버지고.}

예, 예.{예, 예.}

@ 웨할머니죠이~.{외할머니지요.}

웨할마니구. 기렌데 보통 부른건 거저 다 '아바이'구 '아매'우.{ '웨할마니'이고. 그런데 보통 부르는 건 거저 다 '아바이'이고 '아매'이오.}

@ 다 '아바이'가 '아매'고.{다 '아바이'와 '아매'이고.}

예 다 '아바이', '아매'.{예 다 '아바이', '아매'라 하지.}

@ 예. 그러면 제가 우리 아버지에 아버지에 누나.{예. 그러면 제가 우리 아버지의 아버지의 누나.}

예.{예.}

@ 아버지에 누나를 부를때는 뭐라고 불러요? 이게 맏아매요?{아버지의 누나를 부를 때는 뭐라고 불러요? 이게 '맏아매'예요?}

'맏아매'. 지하무 '아재'.{'맏아매'. 손아래면 '아재'.}

@ 여기 인제 동생 있지, 동생?{여기 인제 동생이 있지, 동생?}

동생.{동생.}

@ 여, 여자 동생.{여, 여자 동생.}

여기 여동생.{여기 여동생.}

@ 여자동생이문 내가 뭐라고 불러요?{여자 동생이면 내가 뭐라고 불러요?}

#1 '아재'라구.{'아재'라고.}

'아재', '아재'라구.{'아재', '아재'라고.}

@ 이게 '아재'예요?{이게 '아재'예요?}

예, '아재'.{예, '아재'.}

@ 오~: 여기를 이 촌 지 지, 손위에 있는 누나를 갖다가 내가 아재라고 못불러?{오 여기를 이 촌 지 지, 손위에 있는 누나를 보고 내가 '아재'라고 못 불러?}

아버지 이새~이무 어, '맏아매'라구 불러야 테오.{아버지 손위면 어, '맏아매'라고 불러야 되오.}

@ 아, 여기는 '맏아매'요?{아, 여기는 '맏아매'요?}

예, 예, 예. '맏아매'.{예, 예, 예. '맏아매'.}

@ 그렇게 불러요?{그렇게 불러요?}

맏아매.{맏아매.}

@ 오.{오.}

#1 '맏아매지'.{'맏아매'지.}

@ 여기가 '맏아매'고.{여기가 '맏아매'고.}

예. 이, 이상 느비무, 느비무 '맏아매'.{예. 손, 손위 누이면, 누이면 '맏아매'.}

@ 그면은 어머니에 어머니에 여자 여자 여자 형님을 내가 부를때는?{그러면은 어머니의 어머니의 여자 여자 여자 형님을 내가 부를 때는?}

어 그분네두 '맏아매'라구 우리 부루우.{어 그분네도 우리는 '맏아매'라고 부르오.}

@ 여기도 '맏아매'고.{여기도 '맏아매'이고.}

예, '맏아매'구.{예 '맏아매'이고.}

@ 여기 손아, 지하인 여자를 부를때는?{여기 손아(래), 손아래인 여자를 부를 때는?}

또 *악 '아재'라구 부릅지.{또 아(재) (그것도) '아재'라고 부르지요.}

@ 여기도 아재고.{여기도 '아재'고.}

예, 예.{예, 예.}

@ 오~오~.{오오.}

#1 그렇소. 여기는 그렇기, 여긴 거저 마우재오.{그렇소. 여기는 그렇게, 여기는 그저 러시아 사람이오.}

(웃음).{(웃음).}

@ 그러면.{그러면.}

#1 그러재오? 거저 기러재이무 또 야~.{그러잖소? 그저 그렇지 않으면 또 응.}

@ 예.{예.}

#1 이쪽 우리::, 이 우리 아덜으느 시방 고렷말, 조선말 하오.{이쪽 우리, 이 우리 아이들은 시방 고려말, 조선말 하오.}

@ 예.{예.}

#1 우리 아덜은 조선말 하는데 우리 다른지 아덜으느 조선말 한마디두 모르우.{우리 아이들은 조선말을 하는데 우리 다른 집 아이들은 조선말 한마디도 모르오.}

@ 음.{음.}

#1 지금은 내 딸이 내가 조선말 하지.{지금은 내 딸이 나와 조선말 하지.}

@ 음.{음.}

#1 아들이 조::기 거저 먼데 잇는 아들이 어전 스, 스물 일곱해[일구패]르 거기서 살지. 싹 로시아 사람인데 우리 아들이가 식기 너이오.{아들이 조기 그저 먼 데 잇는 아들이 이젠 스, 스물일곱 해를 거기서 살지. 싹 러시아 사람인데 우리 아들이 식구가 넷이오.}

@ 음.{음.}

#1 너어밖에 없소. 싹 로시아사람덜이.{넋밖에 없소. 싹 러시아 사람들이.}

@ 예.{예.}

#1 그렇기 살지.{그렇게 살지.}

@ 예.{예.}

#1 아 기랜데 아, 우리 아덜으느 여기와서 내가 조선말 하오.{아 그런데 아, 우리 아들은 여기와서 나와 조선말 하오.}

@ 아아.{아아.}

#1 내 로시아말으 모르재이오?{내가 러시아 말을 모르잖소?}

@ 예.{예.}

#1 내 모르다나이 우리 아들이 내가 조선말 하오. 메느리 내가 조선말 하오.{내 모르다 보니 우리 아들이 나와 조선말 하오. 며느리 나와 조선말 하오.}

@ 그면 며느리허고 아들하고는 무슨 말하고?{그러면 며느리와 아들은 (서로) 무슨 말을 하고?}

#1 노시아말 하지.{러시아 말 하지.}

@ 노시아 말 하고?{러시아 말 하고?}

#1 노시아말. 아덜으느 고려말 한::마디두 모르우.{러시아 말. (아들의) 아이들은 고려말을 한 마디도 모르오.}

@ 저 저애들또 모르고?{저 저 애들도 모르고?}

#1 저것덜두 모르우.{저것들도 모르오.}

@ 으음.{으음.}

#1 저것덜이 한이티 잇구야 어, 어따(это) 우리 조선말 하지. 개 이 내 손예 저 딸이 딸이 아덜으느 싹 조, 조선말 하구.{저것들이 한 이태 있어야만 어, 음 우리 조선말을 하지. 그래 이 내 손녀의 저 딸과 아들은 싹 조, 조선말 하고.}

@ 으음.{으음.}

#1 기랜데 저 아들네 아덜으느 모르오.{그런데 저 아들네 아이들은 (조선말을) 모르오.}

@ 음.{음.}

#1 아, 손예 스물다섯살인게 응 머 조선사람 못본게 어디서 말하겠어?(아, (모스크바에 사는) 손녀가 스물다섯 살인데 응 뭐 조선사람을 못 본 것이 어디서 말하겠어?)

@ 으음.{으음.}

#1 그저 노시얏말이지무.{그저 러시아 말이지 뭐.}

@ 으음. 그면 그 손네 결혼 했어 안 했어요?(으음. 그러면 그 손녀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1 아하, 아이했어. 스물다섯살인게 아, 서방재 없소. 거기 마우재게르 아이 가갓다구.{아하, 안 했어. 스물다섯 살인데 아, 신랑이 없소. 거기 러시아 사람에게로 (시집을) 안 가갓다고.}

@ 음.{음.}

#1 개 마우재::게르 아이 가무 앓, 노시얏사림이무 기래 아이 가무 조선사람이 거기 없지. 어디메 가갓어. 게 어저 스물다섯살 먹었소.{그래 러시아 사람에게로 안 가면 앓, 러시아 사람이면 그래 안 가면 조선사람이 거기 없지. (그러니) 어디로 가갓어. 그래 이제 스물다섯 살 먹었소.}

@ 음. (웃음).{음. (웃음).}

#1 기래 어저 어떡무 여그서 나와야 테갓으이.{그래 이제 어찌면 여기서 나와야 되겠으니.}

@ 예.{예.}

#1 모르겠소. 기램 내 가오 냐~?(모르겠소. 그러면 나 가오 응?)

@ 예, 예, 예.{예, 예, 예.}

#1 냐~ 내 가오.{응 나 가오.}

@ 예.{예.}

@ 그러면은요이~ 자, 여자를 부를때는:: 그렇게 그렇게 '아재'하고 '맡아매'라고 불렀는데.{그러면은요 이 자, 여자를 부를 때는 그렇게 그렇게 '아재'하고 '맡아매'라고 불렀는데.}

예 예.{예 예.}

@ 아버지에 형님을 제가 부를때는 뭐라고 불러요?(아버지의 형님을 제가 부를 때는 뭐라고 불러요?)

'맡아바이'라구. '맡아바이'.{'맡아바이'라고. '맡아바이'.}

@ 이거 '맡아바이'.{이거 '맡아바이'.}

예.{예.}

@ 음. 아버지에 남자 동생을 부를 때는?(음. 아버지의 남자 동생을 부를 때는?)

그 사, 삼추이지만 '아즈바이'라 하압짐. '삼춘', '아즈바이'.{그 사, 삼춘이지만 '아즈바이'라 하지요 뭐. '삼춘', '아즈바이'.}

@ 아주바이.{아주바이.}

예.{예.}

@ '아주바이'. '아주바이'하고 그면 '삼춘'허고 같은 말이에요?(아주바이. '아주바이'하고 그러면 '삼춘'하고 같은 말이에요?)

예, 예, 예.{예, 예, 예.}

@ 그면은 삼춘은 결혼을 안했, 장가를 안갔으면은 삼춘이라구 그런가요?(그러면은 삼춘은 결혼을 안 했으면, 장가를 안 갔으면은 삼춘이라고 그런가요?)

쏘론노(Все равно) 저, 으 어쨌든 '삼추이'라구 부른다구.{어쨌든 저, 으 어쨌든 '삼춘'이라고 부른다구.}

@ 예 '삼춘'이고.{예 '삼춘'이고.}

쓸론노(всё равно) '아즈바이'라구 부르구.{어쨌든 '아즈바이'라고 부르고.}

@ 어, 장가를 가면, 결혼을 하면?{어, 장가를 가면, 결혼을 하면?}

기래두 기래두 그야아르(←그 양(樣)+으르) 그야아르 그렇기 부릅지.{그래도 그래도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그렇게 부르지요.}

@ 아아 결혼을 해도 '삼촌'이라고 불릴수 있어요?{아아 결혼을 해도 '삼촌'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예.{예.}

@ 결혼 안해도 '삼촌'이라고 부를 수 있고?{결혼 안 해도 '삼촌'이라고 부를 수 있고?}

예, 예.{예, 예.}

@ 그담에 결혼을 안 해도 '아주바이'라고 부를수 있고?{그다음에 결혼을 안 해도 '아주바이'라고 부를 수 있고?}

예, 예, 예. 다(да). 그렇습지.{예, 예, 예. 그렇지요.}

@ 또 결혼해도 '아주바이'라고 불릴 수 있고?{또 결혼해도 '아주바이'라고 부를 수 있고?}

예.{예.}

@ 어머니에 남자 오빠는? 어머니에 남자 손위에 남자 오빠를 부를땐 내가 뭐라고 불러요?{어머니의 남자 오빠는? 어머니 손위의 남자 오빠를 부를 땐 내가 뭐라고 불러요?}

맞아바입짐.{'맞아바이'지요 뭐.}

@ 거기도 똑같이 '맞아바이'요?{거기도 똑같이 '맞아바이'요?}

예, 예, 예.{예, 예, 예.}

@ 어::, 어머니.{어, 어머니.}

어머니 지, 지하무 그것두 또 아즈바입지 '아즈바이'.{어머니 손아래면 그것도 또 '아즈바이'지요 '아즈바이.}

@ 거기도 '아주바이'고?{거기도 '아주바이'이고?}

예, 아즙. 예.{예, 아즈(바이). 예.}

@ 예. 그러면은요 에 제가 아들을 낳고 딸을 낳았어요.{예. 그러면은요 에 제가 아들을 낳고 딸을 낳았어요.}

예.{예.}

@ 그면은 아바이가 아바이가 내 아들을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그러면은 할아버지가 할아버지가 내 아들을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 이렇게 부를때.{이렇게 부를 때.}

이 아들이 아바이 부를 직에?{이 아들이 할아버지 부를 직에?}

@ 아니! 아바이가 이 아들을 부를 때. 제.{아니! 할아버지가 이 아들을 부를 때. 제 (아들).}

소, 소, 손잡지. 손자.{손, 손, 손자지요. 손자.}

@ 그렇지?{그렇지?}

손, 예 손{손(자), 예 손(자)}

@ 손자죠?{손자죠?}

손자, 손녀.{손자, 손녀.}

@ 예 손자, 소{예 손자, 소}

손녀.{손녀.}

@ 손녀, 예.{손녀, 예.}

@ 근데 이 아들이 제 제 아, 아 아바이 아바이 이게 아바이가 아바이 여기라고 허시고요. 아바이 아들이, 아들이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그래서 여자를 얻어왔어. 결혼을 했어요이~? 그러면 여기서 이 여자를 뭐라고 불러요?{그런데 이 아들이 제 제 아, 제 아, 할아버지 할아버지 이게 할아버지가 할아버지 여기라고 하시고요. 할아버지 아들이 아들이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그래서 여자를 얻어 왔어.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 여자를 뭐라고 불러요?}

'메느리'라구 여기선 부릅짐. '메느리'.{'메느리'라고 여기서는 부르지요 뭐 '며느리'}

@ '메느리'.{'메느리'}

예.{'예.'}

@ 예 '메느리'라고 부르죠이~?{'예 '메느리'라고 부르죠?}

예.{'예.'}

@ 그뎨은 메느리고, 만약에 이, 여자가 이 또, 여기서 난 여자, 여자 딸이 있는데 여자딸이 결혼해서 남자를 얻어왔으면, 이 남자를 뭐라고 불러요? 아바인.{'그러면은 며느리고 만약에 이, 여자가 이 또, 여기서 난 여자, 여자 딸이 있는데 여자 딸이 결혼해서 남자를 얻어 왔으면, 이 남자를 뭐라고 불러요? 할아버지.'}

짜, 싸위[s'auy]라구 부릅지 싸위[s'auy].{'사, 사위라고 부르지요 사위.'}

@ 네?{'네?}'

짜.{'사(위).}'

@ 싸우.{'사위.'}

예, 싸우.{'예, 사위.'}

@ 싸우에요 싸우재에요?{'싸우'에요 '싸우재'에요?}

싸우. 보통 '싸우'라구서 부르우.{'싸우', 보통 '싸우'라고서 부르오.}

@ 보통 싸우라고 그래요이~? 예예예. 그뎨은 아들한테서 나는, 난 아들은 손자하고 손재고.{'보통 '싸우'리고 그래요? 예예예. 그러면은 아들한테서 나는, 난 아들은 '손자'하고 '손재'고.}

응.{'응.'}

@ 딸은 손네죠?{'딸은 '손네'죠?}

'손녀'구.{'손녀'고.}

@ 예, 보통말로 한번 해줘보세요.{'예, 보통 말로 한번 해 줘 보세요.'}

보통 그렇기 말하압짐 무스. 손자구 손녀구.{'보통 그렇게 말하지요 뭐 무스. 손자고 손녀고.'}

@ 손녀고. 그뎨은 여자 여자 딸 딸 아바이 딸 딸이 난 아, 아들은 뭐라고 부르고 여…….{'손녀고. 그러면은 여자 여자 딸 딸 할아버지 딸 딸이 낳은 아, 아들은 뭐라고 부르고 여(자)…….'}

또.{'또.'}

@ 또 딸은 뭐라고 해요?{'또 딸은 뭐라고 해요?}

웨손자 웨손녀.{'외손자 외손녀.'}

@ 웨손자 웨손녀.{'외손자 외손녀.'}

예.{'예.'}

@ 으음 음. 이:: 이애들이 이 이, 이 손녀가 결혼을 해서 또 남자를 얻어오면 이 남자를 뭐라고 불러요? 손네 남편.{'으음 음. 이 이 애들이 이 이, 이 손녀가 결혼을 해서 또 남자를 얻

어 오면 이 남자를 뭐라고 불러요? 손녀 남편.}

시방 시아스. 음 저 예떠(это) 손비 손비 남페이'라고.{'시방 시동생. 음 저 음 '손비', '손비 남편'이라고.}

@ '손비'?{'손비'??}

송, 손비. 비.{'손', '손비'. '비'.}

@ '손비'?{'손비'??}

'손비 남페이'라고.{'손비 남편'이라고.}

@ 야 야 야는?{'이 아이 이 아이 이 아이는?}

손비, 손부[솨부] 싸우 쏘비[솨비] 싸우라구서 부르우.{'손비', '손부 싸위', '쏘비 싸우'라고 부르오.}

@ '손비 싸우'라고도 불루고. 그믄 '손비'가 누구야 '손비'는?{'손비 싸우'라고도 부르오. 그러면 '손비'가 누구야 '손비'는?}

@ 야가 '손비' 아니예요? 야, '손비'라고 그냥하믄.{'이 아이가 '손비' 아니예요? 이 아이, '손비'라고 그냥 하면.}

예.{'예.}

@ 예, 야가 '손비'지요이~?{'예, 이 아이가 '손비'지요?}

예, '손비'.{'예, '손비'.}

@ 그믄은 아들이 여자를 얻어왔어. 손자, 손자에 여자는 여자 메느리 손, 손자 메느리는 뭐라고 불러?{'그러믄은 아들이 여자를 얻어 왔어. 손자, 손자의 여자는 여자 며느리 손, 손자 며느리는 뭐라고 불러?}

'손비 메느리'라구 부릅지.{'손비 메느리'라고 부르지요.}

@ 아아::. '손비 메느리' 예. 음. 자, 이 애들이요 여기 애들이 아바이를 갖다가 할아버지를 '아바이'라고 부르쥬이~?{'아아. '손비 메느리' 예. 음. 자, 이 애들이요 여기 애들이 할아버지를 갖다가 할아버지를 '아바이'라고 부르쥬?}

예.{'예.}

@ 할아버지를 아바이라고 부르쥬이~? 그러면 아버지, 이 아바이보다 형님인, 인, 아버지보다 형님인 그사람을 부를때는 뭐라고 불러요? 이이이, 이 손자가.{'할아버지를 '아바이'라고 부르쥬? 그러면 아버지, 이 할아버지보다 형님인, 인 아버지보다 형님인 그 사람을 부를 때에 뭐라고 불러요? 이이이, 이 손자가.}

예.{'예.}

@ 손자가 이 아버지에 아버지를 부르믄 할아버지라고 부르쥬?{'손자가 이 아버지의 아버지를 부르믄 할아버지라고 부르쥬?}

예, 할아버지라구.{'예, 할아버지라고.}

@ '할아버지', '아바이'라구 부르쥬? '아바이'.{'할아버지', '아바이'라고 부르쥬? '아바이'.}

예예예예예 '아바이'라구.{'예예예예예 '아바이'라고.}

@ 아바이에 형님을 부를때는 뭐라고 불러요?{'할아버지의 형님을 부를 때에 뭐라고 불러요?}

시방 자아덜 거 보통 짝 아바이 아바이 하짐. (기침).{'시방 저 아이들 그 보통 짝 '아바이', '아바이' 하지 뉘. (기침).}

@ 그때는 '큰아바이' 이렇게 안 불러?{'그때는 '큰아바이' 이렇게 안 불러?}

'큰아바이'라두 부르지 '큰아바이'라구두 부르, 부릅니다. '큰아바이'라구 부릅.....{'큰아바이

라'고도 부르지 '큰아바이'라고도 부르, 부릅니다. '큰아바이'라고 부름…….}

@ 아바이 형제간이 세이면 세 세, 세분이면 아바이 형제간이 세분인데 우리 아바이가 여기, 여기 가운데예요.{할아버지 형제간이 셋이면 세 세, 세 분이면 할아버지 형제간이 세 분인데 우리 할아버지가 여기, 여기 가운데예요.}

으~.{응.}

@ 근데 우리 아바이보다 위에 있는 아바이는 뭐라고 불러요?{근데 우리 할아버지보다 위에 있는 할아버지는 뭐라고 불러요?}

이상?{손위?}

@ 예, 이상.{예, 손위.}

큰아바입지.{'큰아바이'지요.}

@ '큰아바이'고.{'큰아바이'고.}

예.{예.}

@ 요 아래는?{요 아래는?}

무 보통 말한게 '작은아바이'라구두 부르구.{뭐 보통 말하는 게 '작은아바이'라고도 부르고.}

@ '작은아바이'.{'작은아바이'.}

예.{예.}

@ 예. 그러게 '아바이'는 '할아버지'를 '아바이'를 합, '아바이'라고 그래요?{예. 그러니까 '아바이'는 할아버지를, '아바이'라고 그래요?}

예 예.{예 예.}

@ 아바이 형, 아바이 형제간이 세부, 세 분인데 그 중에서 맨 위를 '큰아바이'.{할아버지 형, 할아버지 형제가 세 분, 세 분인데 그 중에서 맨 위를 '큰아바이.}

'큰아바이'.{'큰아바이'(큰할아버지).}

@ 여기를 '작은아바이'.{여기를 '작은아바이'(작은할아버지)라 하고.}

'작은아바이'.{'작은아바이'.}

@ 예. 음.{예. 음.}

시방 어리 여기 사람덜 무스거 뭐 나두 무스거 모르는가이 처남이 부인으 미시라구 부르는 거 모릅니다.{시방 어리석게도 여기 사람들이 무엇을 뭐, 나도 무엇을 모르는가 하니 처남의 부인을 무엇이라고 부르는지 모릅니다.}

@ 처남에 처남에 부인.{처남의 처남의 부인.}

어 거저 처남이 부이라구서 그렇기 기래.{어 그저 처남의 부인이라고서 그렇게 그래.}

@ 처남댁이라고 그래요. 저희는 처남댁.{처남댁이라고 그래요. 저희는 처남댁.}

으응.{으응.}

@ 그 보통 부를때는 뭐라고 불러요 글면?{그 보통 부를 때는 뭐라고 불러요 그러면?}

@ 처남에…… 아니죠! 처남에 처남에 처남에 부인.{처남의…… 아니죠! 처남의 처남의 처남의 부인.}

으응.{으응.}

@ 오오오. 보통 부를때는 뭐라고 부르세요 그냥?{오오오. 보통 부를 때는 뭐라고 부르세요 그냥?}

여기서 시방은 거저 이름 부릅지 무스. 이름 부릅꿈.{여기서 시방은 그저 이름 부르지요 뭐. 이름을 부릅니다.}

@ 그래요?{그래요?}

처남이 부이이라구 아이하구 내느 저기 그런 매부 한부이 돌아가셨[syə]지마는 저, 저, 저 노친 시방 우리 매비게서 처남이 부이이 아입니까?{처남의 부인이라고 안 하고, 나는 저기 그런 매부 한 분이 돌아가셨지마는 저, 저, 저 노친이 시방 우리 매부에게는 처남의 부인이 아입니까?}

@ 네.{네.}

갠데 이름 그야 부르우.{그런데 이름을 그냥 부르오.}

@ 아아. 그래요?{아아. 그래요?}

예.{예.}

@ 오오. 그면은 '매비'는 누구예요 '매부'는?{오오. 그러면은 '매비'는 누구예요 '매부'는?}

'매분' 여기서 그것두 보토~ '매부' '매부' 하압짐. 이새~이구 지하구 싹 '매비'라구.{'매부'는 여기서 그것도 보통 '매부' '매부' 하지요 뭐. 순위고 손아래고 싹 '매부'라고.}

@ 저희? 아아. 우리 누나에 남편임 뭐예요?{저희? 아아. 우리 누나의 남편이면 뭐예요?}

'매부'라구 합짐.{'매부'라고 하지요 뭐.}

@ '매부'라고 하나요?{'매부'라고 하나요?}

예, 예.{예, 예.}

@ 제 여동생에 남편은?{제 여동생의 남편은?}

쏘론느(всё равно) '맵' 또 그게 그 '매부'라구 하구.{어쨌든 매부 또 그게 그 매부라고 하고.}

@ 거그도 '매부'구요?{거기도 '매부'고요?}

예, 예.{예, 예.}

@ 으음. 그문 이상도 '매부'고 지하도 '매부'고?{으음. 그러면 순위도 '매부'고 손아래도 '매부'고?}

예. 지하두 '매부'. 예.{예. 손아래도 '매부'. 예.}

@ 으으음.{으으음.}

기래 지 지하매부. 이상 처남이르 여기선 형님이라구 그랩…….{그래 손 손아래 매부. 순위 처남을 여기서는 형님이라고 그랩(니다)…….}

@ 아.{아.}

형님이라구.{형님이라고.}

@ 형님이라고 그냥 하고요이~? 으응.{형님이라고 그냥 하고요? 으응.}

10608 @ 그 집을 옛날에 그 저 집을 지면은요, 이르기 집을 보면, 이게 빗방울이 떨어지는 데 있잖아요. 빗방울이 떨어지는데.{그 집을 옛날에 그 저 집을 지으면은요, 이렇게 집을 보면 이렇게 빗방울이 떨어지는 데가 있잖아요. 빗방울이 떨어지는 데.}

10608 # 응.{응.}

10608 @ 빗방울이 떨어지는 데 거기를 뭐라고 불러요? 이게 이게 인제 이 옛날 집이면 이게 집, 이게 집이죠이~?{빗방울이 떨어지는 데 거기를 뭐라고 불러요? 이게 이게 인제 이 옛날 집이면 이게 집, 이게 집이죠?}

10608 # 예.{예.}

10608 @ 집에 옛날.{집에 옛날.}

10608 # 글세 알아 들었습시다.{글세 알아 들었습시다.}

10608 @ 여기 물방울이 떨어지는 데 있지요 여기?(여기 물방울이 떨어지는 데가 있지요
여기?)

10608 # 예, 옛날집에서사.{옛, 옛날 집에서야.}

10608 @ 어.{어.}

10608 # 그렇게 없었습지 무스. 거저 거저 거 사적에서 거 주르르르 이렇게 이래 떨어디지.
한곳으로 떨어 아이 지짐. 여기선 마우젯말르 기계 졸로브(жёлоб)라구선 밑에다 이렇게
대애무.{그런 게 없었지요 뭐. 그저 그저 그 사방에서 그 주르르르 이렇게 이래 떨어지
지. 한곳으로 안 떨어지지 뭐. 여기서는 러시아 말로 그게 'жёлоб'(=물받이)라고서 밑에
다 이렇게 대면.}

10608 @ 아니 그걸, 그거 옛날에는 그렇게 안데 안데고 집이 이렇게 있으면.{아니 그걸, 그
거 옛날에는 그렇게 안 되, 안 되고 집이 이렇게 있으면.}

10608 # 야~.{응.}

10608 @ 집이 이렇기 이렇기 있으면 비가 오면 비가 오면 요기서 비가 내려와가지고 여그서
여그 끝에서 비가 푹푹푹 떨어지잖아요.{집이 이렇게 이렇게 있으면 비가 오면 비가 오
면 요기서 비가 내려와 가지고 여기서 여기 끝에서 비가 푹푹푹 떨어지잖아요.}

10608 # 글썸. 응.{글썸. 응.}

10608 @ 그리고 여기 인자 거시 겨울이 데면 여기 열, 얼음이 달리죠?(그리고 여기 인제 그
것이 겨울이 되면 여기 열, 얼음이 달리죠?)

10608 # 예 보통 고조, 고조리라구 합지 여기서.{예 보통 고드, 고드름이라고 하지요 여기
서.}

10608 @ 고조리라구 하지요이~?{'고조리'라고 하지요?}

10608 # 얼음고조리라구.{얼음 고드름이라고.}

10608 @ 이~. 얼음고조리라고 그래요. 고조리라고 하는데, 고조리가 달리는 데에서 물이 떨
어지는거 아니예요, 빗물이.{예. '얼음고조리'(고드름)이라고 그래요. 고드름이라고 하는
데, 고드름이 달리는 데서 물이 떨어지는 거 아니예요, 빗물이.}

10608 # 녹으메서 떨어지.....{녹으면서 떨어지.....}

10608 @ 그렇지.{그렇지.}

10608 # 녹으무 떨어져.....{녹으면 떨어져.....}

10608 @ 그문 인제 아니 비가 오드라도 비가 빗물이 거그서 그리 떨어지죠?(그러면 인제 아
니 비가 오더라도 비가 빗물이 거기서 그리 떨어지죠?)

10608 # 떨어지짐.{떨어지지 뭐.}

10608 @ 여름에는 겨울에는 이게 인자 얼어서 인자 얼음이 데, 데고.{여름에는 겨울에는 이
게 인제 얼어서 인제 얼음이 되, 되고.}

10608 # 예.{예.}

10608 @ 여기 여기 떨어지는 여기를 뭐라고 불러요 여기를?(여기 여기 떨어지는 여기를 뭐
라고 불러요 여기를?)

10608 # 그거 모르겠습니다. 무시라구 부르는지.{그거 모르겠습니다. 무엇이라고 부르는지.}

10608 @ 오오. 처마라고 하는말 못들어보셨어요?(오오. 처마라고 하는 말 못 들어 보셨
어요?)

10608 # 예 '첨마'란 말이 잇습, 잇습니다. 노래두 그 '첨마' 끝이라구서[끄티라구서].{예 '처

마'란 말이 있습, 있습니다. 노래도 그 처마 끝이라고서.}

10608 @ 에에에. 처마 끝이가 어딘지는 몰라? 예, 여기가 여기가 짐 처마 끝이거든요?{예예
예. 처마 끝이 어디인지는 몰라? 예, 여기가 여기가 지금 처마 끝이거든요?}

10608 # 예예예.{예예예.}

10608 @ 빗물이 떨어지는데? 으으음.{빗물이 떨어지는 데? 으음.}

10608 @ 그면 여기가 여가 지붕이구요이~.{그러면 여기가 여기가 지붕이구요.}

10608 # 예. 지붕.{예. 지붕.}

10608 @ 지붕이지요이~.{지붕이지요.}

10608 # 예.{예.}

10608 @ 지붕에 맨 위에 여기를 뭐라고 불러요?{지붕의 맨 위, 여기를 뭐라고 불러요?}

10608 # 그 거저 가정말르느 지붕꼭대기라구 이릉기 지붕꼭대기라구서.{그 그저 가정에서 하
는 말로는 지붕 꼭대기라고 이렇게 지붕 꼭대기라고.}

10608 @ 지붕꼭대기요?{지붕 꼭대기요?}

10608 # 지붕 지붕꼭대기라구서 이릉기.{지붕 지붕 꼭대기라고서 이렇게.}

10603 @ 그 혹시 낭그로 낭그로 옛날에 집 지은 거 혹시 보셨어요?{그 혹시 나무로 나무로
옛날에 집 지은 거 혹시 보셨어요?}

10603 # 알아 못들었습니다.{못 알아들었습니다.}

10603 @ 이 집을 질 때.{이 집을 지을 때.}

10603 # 예.{예.}

10603 @ 백돌로 안 짓고.{백돌로 안 짓고.}

10603 # 예.{예.}

10603 @ 나무로 짓는 집 집, 나무 나무로 이렇게 세워가지고 혹시 그렇게.{나무로 짓는 집
집, 나무 나무를 이렇게 세워 가지고 혹시 그렇게.}

10603 # 그런 집은 난 못 귀겨했습니다.{그런 집은 난 구경 못 했습니다.}

10603 @ 오.{오.}

10603 # 그 아께 내 '무티집이' **'무티지' **아나두(←하재암두)?. 그건 이릉기 무티르 이릉
기, 이릉기 한나 가르 놓구 그 다음 그 우에 층단 또 이 이릉기 놓 이 홈 이래 조끔씩
파구서르 이래 덧물게서 이릉기. 예 세와짓는 건 난 못봤습니다.{그 아까 내 통나무집이
통나무집 하잖았습니까? 그건 이렇게 통나무를 이렇게 이렇게 하나를 가로로 놓고 그 다
음 그 위의 층은 또 이 이렇게 이래 놓고 이 홈을 이래 조끔씩 파고서 이래 덧물려서 이
렇게 (짓지). 예 세워 짓는 건 나는 못 봤습니다.}

10603 @ 아:: 나무를 일게 밑에 돌 놓고 이렇게 세워가지고.{아 나무를 이렇게 밑에 돌 놓고
이렇게 세워가지고.}

10603 # 예.{예.}

10603 @ 요렇게 이렇게 해서 집을 일게 짓는거 그런 집.{요렇게 이렇게 해서 집을 이렇게
짓는 거 그런 집.}

10603 # 그건 못 못봤 못봤습니다.{그건 못 못 봤 못 봤습니다.}

10603 @ 어:: 그럼 우리 우리 우리 원동에서는 다 그렇게 집을 졌거든요? 근데 팔칸집은 다
그렇게 그렇게 짓는데 이쪽으로 오셔가지고는 이제 그렇게 안짓는고만요 로시아식으로
짓는고만.{어 그럼 우리 우리 우리 원동에서는 다 그렇게 집을 지었거든요? 그런데 팔칸

집은 다 그렇게 그렇게 짓는데 이쪽으로 오셔가지고는 이제 그렇게 안 짓는군요 러시아 식으로만 짓는구먼.)

10603 # 원동에서 그 '꽁지백이' '껍지백이' 한 게, 어디메 헨 조엣자~이 잇으무, 내.{원동에서 그 '꽁지백'(벗짚 따위를 섞은 진흙을 손으로 주무르고 뭉쳐서 쌓은 벽. 창고 따위를 지을 때 이 벽을 만든다), '꽁지백' 한 것이, 어디 헨 종잇장이 있으면, 내가.}

10603 @ 여기 여그다 여기다 써두 데요.{여기 여기다 여기다 써도 돼요.}

10603 # 거기다서리 어뜨끼.{거기다가 어떻게 (쓰겠소).}

10603 @ 뒤에다 하나 써 써도 돼:.{뒤에다(뒷면에다) 하나 써 써도 돼요.}

10603 # 이 이룽기 이룽기 낭그 이룽기 세우구서르.{이 이렇게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세우고서.}

10603 @ 예.{예.}

10603 # 이룽기 총총 배게 세우구서르 또 이러 이룽기 가르 이룽기 또 세우구 여기르 이룽기 짝 엮어매구서르.{이렇게 총총 배게 세우고서 또 이렇 이렇게 가를 이렇게 또 세우고 여기를 이렇게 짝 엮어매고서.}

10603 @ 예.{예.}

10603 # 기래구서르 이이입 이 구머~에다 여기다서리 흙으 제게서.{그리고서 이 이 구멍에다 여기다가 흙을 두들겨 패서(넣지).}

10603 @ 예. 예.{예. 예.}

10603 # 기램 기래구서르 안팍으 이래.{그래 그리고서 (벽면의) 안팍을 이렇게.}

10603 @ 예, 예, 예.{예, 예, 예.}

10603 # 매질하압지. 이거 '껍지백이' '껍지 껍지백이' 하압덤. 원도~서 짝 이룽게 집우 짓습덤.{매질을 하지요. 이거 '꽁지백', '꽁지, 껍지백' 하더군요. 원동에서 짝 이렇게 집을 짓더군요.}

10603 @ 오::.{오.}

10603 # 우리 그 저 연해주에 이시직[찍]에.{우리 그 저 연해주에 있을 적에.}

10603 @ 그러게 여기 여기 여기다간 인제 이렇게 좀 좀 큰 큰낭그를 놓고.{그러게 여기 여기 여기다가는 인제 이렇게 좀 좀 큰 큰 나무를 놓고.}

10603 # 그렇기 크재얌 거저 요 요막씨 이래 이런 낭그. 기래길래 이룽기 가름재애꺼지 대에 엮어매구 바름질하게 담 전백이 거저 에따(это) 열대애산치(санти) 두껍우 데겐지 그 그렇습덤.{그렇게 크지 않고 그저 요 요만큼씩 이렇게 이런 나무. 그러기에 이렇게 가름대까지 대서 엮어매고 벽에 흙을 바르게 되면 전백이 그저 음 15센티 정도의 두께가 되겠는지 그 그렇지요.}

10603 @ 음:: 이거 이런 이런 집을 뭐라고 한다고요?{음 이거 이런 이런 집을 뭐라고 한다고요?}

10603 # '꽁지[k'ɔŋji]', 이 백으 '꽁지[k'ɔŋji]백이' '껍지백이' 하압덤마.{'꽁지', 이 벽을 '꽁지백', '꽁지백' 하더군요.}

10603 @ '껍지백이'.{'꽁지백'.}

10603 # 예. 껍지백이라구.{예. 껍지백이라고.}

10603 @ 음:: 그러면은요 그 백을 발라놓으면 안쪽에, 방 안쪽에.{음 그러면은요 그 벽을 발라 놓으면 안쪽에, 방 안쪽에.}

10603 # 응.{응.}

10603 @ 그냥 흑 흐 흑이 그대로 있는거예요?{그냥 흑 흑 흑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10603 # 이게 저기 전벽이 얇아 노오이까데 야, 겨울이무 서리 셋하얗게 들옵(테).{이게 음 저기 전벽이 얇다 보니까 응, 겨울이면 서리가 셋하얗게 들어오데.}

10603 @ 아아.{아아.}

10603 # 안으르. 기래 불으 어 하목으 큰 이래 낭그 진 대르 지와서 이래 톱을르 케서 싹 패에서 거저 주야동안[주야똥안] 설새없이 그양 불으 때엿뎌마. 기래구서르 온돌으 놓 온겨느 그런 돌으 통까지. 기래 세칸 네칸 지나가서 구새르 세운게 **열린 시방 저기 그런 여러어가지 저기 쇠, 쇠 쉴르두 이래 구새라구 기래지만.{안으로. 그래 불을 어 화목(火木)을 큰, 이래 나무를 긴 줄기를 찍어 땅에 쓰러뜨려서 이렇게 톱으로 켜서 싹 도 끼로 패서 그저 주야(晝夜) 동안 설 새 없이 그냥 불을 때더군요. 그리고서 온돌을 놓은 것은, 그런 돌을 통째로 가져다 정으로 쪼아서. 그래 세 칸 네 칸 지나가서 굴뚝을 세운 게 **여기는 시방 저기 그런 여러 가지 저기 쇠, 쇠 쇠로도 (만들어) 이래 굴뚝이라고 그러지만.}

10603 @ 예.{예.}

10603 # 그때까레는 그런게 잇습니까?{그때 무렵에는 그런 게(쇠로 만든 굴뚝) 잇습니까?}

10603 @ 음.{음.}

10201 # 그런 낭그 깎아서 널처리 기래서 네모에 나게서르 구새르 세칸 네칸 건네가서 그 구 새르 나무구새르 세운것두 겨울이무 어텡기 불으 땀는지 그 구새애 불이난 폐다이 다스 잇엇습니다. 내 시방 본같습니다.{그런 나무를 깎아서 널처럼 그렇게 해서 네모 모양이 나게 해서 굴뚝을, 세 칸 네 칸 건너가서 그 굴뚝을 나무 굴뚝을 세운 것도 겨울이면 어떻게나 불을 땀는지 그 굴뚝에 불이 난 폐단이 다수 잇엇습니다. 내 지금도 보는 것 같 습니다.}

10201 @ 음.{음.}

10201 # 그야~아르 그르기 불으 때재이무 그 원동 치베 겨울엿 보내기드 겐디기 바빻습니다. 저 전벽이 얇지[얇찌].{그 모양으로 그렇게 불을 때지 않으면 그 원동 추위에, 겨울을 보내기도, 건디기 힘들엇습니다. 저 전벽이 얇지.}

10201 @ 음.{음.}

10201 # 기래서두 불으 때무 전벽 안에서 내 보니까 물이 줄줄줄 떨어집지. 불우 좀 슬 때무 전벽이 안데서 얼어서 얼 어림이.{그래서 불을 때면 전벽 안에서 내 보니까 물이 줄줄줄 떨어지지요. 불을 좀 적게 때면 전벽 안쪽에서 얼어서 얼 얼음이.}

10201 @ 으음.{으음.}

10201 # 그렇기 우리 부치이랑. 우리 부친때 그렇기[그러끼].{그렇게 우리 부친이랑. 우리 부 친 때 그렇게.}

10201 @ 그러면 원동에서는 그렇게 땄낭그는 많이 잇엇어요?{그러면 원동에서는 그렇게 땄 나무는 많이 잇엇어요?}

10201 # 낭기 많엇습니다. 예, 낭기 많엇습니다. 거저 그 참나무랑 땃 십여연씨 묵은 게 절르 이르끼 말라서 또 그랜 그:것두 가서 톱을르 동네 어른덜이 통 이래 패르 쟈서 동삼낭 그, 겨울낭그 하 하목 할직에느 패르 쟈서 이래 땡기메서리 이 낭그 싹 케서 톱을르 케 서 싹 패에서 이래 가레놓은게 어징가난 지바~이 그렇기 무지 무지 컷습니다. 그거 한해

게을동안의 거 다 때애편.{나무 많았습니다. 예, 나무 많았습니다. 그저 그 참나무랑 몇 십여 년씩 묵은 게 저절로 이렇게 말라서 또 그런 그 그것도 가서 툽으로 동네 어른들이 모두 이래 패를 지어서 겨울에 땔나무, 겨울에 땔나무 화, 화목(火木)을 할 적에는 패를 지어서 다니면서 이 나무 싹 켜서 싹 패서 이래 가려 놓은 게 어지간한 지방에서 그렇게 더미가 더미가 컸습니다. 그거 한해 겨울 동안을 그거 다 때더군요.}

10201 @ 그 여기는 지금 그렇기 불 굶기 많이 안때쵸?{그 여기는 지금 그렇게 불 그렇게 많이 안 때지요?}

10201 # 여기는 그 그렇기 원동 치비처리 더 덜 칩슴.{여기는 그 그렇게 원동 추위처럼 (춥지 않고) 더 덜 칩습니다.}

10201 @ 그 원동보다도 여기가 지금 날씨가 더 따뜻한가요?{그 원동보다도 여기가 지금 날씨가 더 따뜻한가요?}

10201 # 여기 덜 칩스덤 원동마. 기랜데 어 어느해, 내 어전 생각데지. 밤에 영하 서른도꺼지 내려가서 이 저기 땃밑에 수돗물 저기 뚜르바(труба)덜 썬 싹 얼어서 난시 낫댓습구마. {여기 덜 칩더군요 원동보다. 그런데 어 어느 해, 내 이제 생각나지, 밤에 영하 30도까지 내려가서 이 저기 땅 밑에 수돗물 저기 관(管)들이 싹 얼어서 난시(亂時) 났었습니다 (=난리가 났었습니다).}

10201 @ 어:: 거기까지 얼었어요 수돗물이?{어 거기까지 얼었어요 수돗물이?}

10201 # 그렇, 예.{그렇게, 예.}

@ 이 가스관은 안 안얼어요?{이 가스관은 안 안 얼어요?}

예?{예?}

@ 가스관은 그렇게 해도 안 얼어요?{가스관은 그렇게 해도 안 얼어요?}

가스 아이 아이어업구마 예.{가스 아니 안 업니다 예.}

@ 어:: 그러면 만약 물안나오면 어트게요 여기는? 물이 안 나오고 얼어가지고 물이 안나오면 어트게요 인제 여기는?{어 그러면 만약 물 안 나오면 어떻게 해요 여기는? 물이 안 나오고 얼어가지고 물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해요 인제 여기는?}

저기 그 전기 그 거기서 일하 일한 엘레뜨(электрик)들 와서 그 스바르까(сварка)란 아빠라트(аппарат)르 가주구서르 이릉기[이르끼] 앞뒤에다서르 홀 홀 자라게 다무 땃 쉼드(се кунд) 어간에 그 어림이 녹스 녹습덤마.{저기 그 전기 그 거기서 일하, 일하는 전공(電工)들이 와서 그 용접하는 기구를 가지고서 이렇게 앞뒤에다가 홀 홀 쏘이게(?) 되면 몇 초 사이에 그 얼음이 녹, 녹더군요.}

@ 그래요?{그래요?}

예.{예.}

@ 어::.{어.}

(기침).{기침.}

@ 터지진 않구요?{터지지는 않구요?}

터 아이. 게 오래두문사 터집지. 오래두무사. 기래 조 그 뚜루바(труба) 오란 게구 좀 싹구 그런거는 그 가장바담 터진데두 잇습짐. 기래 그거 파구서르 또 거 터진자리르 베에 내때리구 거기다 다른거 또 (하품).{터지지 않지. 그래 오래 두면야 터지지요. 오래 두면야. 그래 좀 관(管)이 오래된 것이고 좀 삭고 그런 거는 그 가장자리가 터진 데도 잇지요 뭐. 그래 그거 파고서 또 그 터진 자리를 베어 내던지고 거기다 다른 거 또 (하품).}

10207 @ 결혼식을 할때요 결혼식 할 때.{결혼식을 할 때요 결혼식 할 때.}

10207 # 예.{예.}

10207 @ 결혼식 할 때 여자네 집으로 선물같은 거 보내죠?{결혼식 할 때 여자네 집으로 선물 같은 거 보내지요?}

10207 # 그 결혼할 적엔 아무것도, 어 허락받은 다음에 결혼이 댜 다음에는 선물으 가져갑니다.{그거 결혼할 적에는 아무것도 어 허락 받은 다음에 결혼이 댜 다음에는 선물을 가져갑니다.}

10207 @ 여기서요?{여기서요?}

10207 # 예.{예.}

10207 @ 그 옛날에 그 원동 풍습 대로 하는게 아니고 여기는 새로운 풍습대로 해요?{그 옛날에 그 원동 풍습대로 하는 게 아니고 여기는 새로운 풍습대로 해요?}

10207 # 그 원동 그 풍습이 보통 여기 여기서두 그 풍습대르 합니다.{그 원동 그 풍습이 보통 여기 여기서도 그 풍습대로 합니다.}

10207 @ 그러면 이렇게 함 함이라고 하는거 들어보셨어요 함?{그러면 이렇게 함 함이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함?}

10207 # 예예.{예예.}

10207 @ 함에다 뭐 선물 넣어갖고 이렇게 지고 가잖아요.{함에다 뭐 선물 넣어 가지고 이렇게 지고 가잖아요.}

10207 # 그 그런 그런 식은 없습니다.{그 그런 그런 식은 없습니다.}

10207 @ 그문 어떡해요?{그러면 어떻게 해요?}

10207 # 어전 저기.{이제는 저기.}

10207 @ 결혼 할라면 어떻게 해요 여기는?{결혼 하려면 어떻게 해요 여기는?}

10207 # 켈혼할라 같직[찍]에느 거저 에 신부 아부지나 아부지 돌아가구 없으무[업스무] 형님이나 기래 가서 어 허락받구서르 그 여기서 칭치 칭치 하압굼. 칭치르 가제가압지. 그 게 에 잔채 먼저 음식두 좀 일거놓구 기직[찍]에 친척덜 모다서 이 형겅이다던지 무슨 뿌다로크(подарок)르 괴직[찍]에 거 신부인테르 가제가압뎜.{결혼하러 갈 적에는 그저 신부 아버지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없으면 형님이나 그래 가서 어 허락 받고서 그 여기서 '청초(請招, 상견례를 위한 초대)' '청초(請招)' 합니다. '청초(請招)'를 가져가지요. 그게 에 잔치를 하기 전에 먼저 음식도 좀 이루어 놓고 그땐에 친척들 모아서 이 천이라 든지 무슨 선물을 그땐에 그 신부한테 가져가더군요.}

10207 @ 음 청취라고 하는 것이 앙게 선물이야?{음 청초(請招)라고 하는 것이 이게 선물 이야?}

10207 # 괴게 음식으 일귀놓구서르 기랩지. 음식으 일거놓구 그다음 친척덜 모다서 어 저기 어느 시누이 댜 분네는 '무슨 무스거 가져왔소.' 또 '누긴 무스거 가져왔소.' 이래 통 친척덜 모다서 이 체모단(чемодан)다 열어서 기래 그 신부인테르 가제가압지.{그게 음식을 이루어 놓고서 그러지요. 음식을 이루어 놓고 그다음 친척들을 모아서 어 저기 어느 시누이 댜 분은 '무슨 무엇을 가져왔소.' 또 '누구는 무엇을 가져왔소.' 이렇게 모든 친척들이 모여서 이 트렁크에다 넣어서 그래 그 신부한테 가져가지요.}

10207 @ 아아. 음식도 하고요.{아아. 음식도 하고요.}

10207 # 음식도 하구.{음식도 하고.}

10207 @ 그럼 인자 그 음식은 어디 어 거 거기 신부네집 가서 먹는거예요?{그럼 이제 그 음식은 어디 어 거 거기 신부네 집 가서 먹는 거예요?}

10207 # 예, 예. 게 신부네집에서 거 재비 요구대르 다아 이래 청재르 하는게 아이라 가깝운 그 신부쪽에서두 가깝운 친척덜으랑.{예, 예. 그게 신부네 집에서 거 자기 요구대로(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이래 청대(請待)를 하는 게 아니라 가까운, 그 신부 쪽에서도 가까운 친척들이랑.}

10207 @ 예.{예.}

10207 # 에 그래 치미르 보내는 그 그런 집덜으 이래 초대르 해서 기래 그 음식으 기래 쓰음 집.{에 그래 추미(芻美)를 보내는 그 그런 집들을 이래 초대를 해서 그래 그 음식을 그래 쓰지요 뭐.}

10207 @ 오:. 금 인제 그렇게 초대를 해서 해서 인자 나눠주고 그문 여기서 겔혼하는 그 그 그 이야기를 쪽 좀 해줘보쇼 어떻게 하는가? 결혼하는 풍습을. 근데 그렇게 해서 인자 허가를 맡아서 그걸 **청재를 보내고 나면.{오오. 그러면 인제 그렇게 초대를 해서 해서 인제 나눠 주고 그러면 여기서 결혼하는 그 그 그 이야기를 쪽 좀 해 줘 보세요 어떻게 하는가? 결혼하는 풍습을.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인제 허가를 맡아서 그걸 청대(請待)를 보내고 나면.}

10207 # 예.{예.}

10207 @ 여자는 여자에 집에서 남자네집으로는 아무것도 안보내요?{여자는 여자의 집에서 남자네 집으로는 아무것도 안 보내요?}

10207 # 아무것두 아이 보냄. 기래구 저기 그 여자집에서 그 남자쪽에 할아버지나 며 할머니 잇게다무 어, 보암즉한[보암즈간] 음식으 이래 보낸 폐단두 잇습니다. 음식으, 음식으. {아무것도 안 보냅니다. 그리고 저기 그 여자 집에서 그 남자 쪽에 할아버지나 뭐 할머니가 있게 되면 어, 봄직한 음식을 이래 보낸 폐단도 잇습니다. 음식을, 음식을.}

10207 @ 주로 인자 그 뭐 그때 어떤 음식을 보내요?{주로 인제 그 뭐 그때 어떤 음식을 보내요?}

10207 # 어, 조선사람덜이 에 보통 벨거벨거 하는 음식은 그 이 여기서 찰떡이 찰떡이 하 재오?{어, 조선사람들이 에 보통 별거 별거 하는 음식은 그 이 여기서 '찰떡' '찰떡' 하 장소?}

10207 @ 예.{예.}

10207 # 차알떡이두 그. 보통 찰떡입짐.{찰떡도 그. 보통 (보내는 음식은) 찰떡이지요 뭐.}

10207 @ 어어. 찰떡은 인자 그리갑 아바이나 *만압, 참! 만아바이 아바이들 계시면은, 아바이 나 아매 계시면은 보내는거요이~?{어어. 찰떡은 이제 그렇게 해서 할아버지나 큰아버지, 참! 큰아버지나 할아버지들이 계시면,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계시면 보내는 거예요?}

10207 # 예.{예.}

10207 @ 예. 그먼 잔치는 어디 어 누구 누구 집에서 해요 남자네 집에서 해요?{예. 그러면 잔치는 어디 어 누구 누구 집에서 해요 남자네 집에서 해요?}

10207 # **단처느 잔चे느 어, 신부집가 신랑집에서 뜨, 딸르딸르 하압짐.{잔치는 잔치는 어, 신부 집과 신랑 집에서 따, 따로따로 하지요 뭐.}

10207 @ 두번이나 해요?{두 번이나 해요?}

10207 # 예 또, 아이 할렬에 하는데 에, 신부집에서 먼저 객덜 먼저 모듬곰[모구꿈].{예 또,

아니 하루에 하는데 예, 신부 집에서 먼저 객(客)들을 먼저 모읍니다.}

10207 @ 음. 네.{음. 네.}

10207 # 신라~이 신부집우~르 가무 그 신부집에서 먼저 잔체르 지내구 그담번에 그 신부르 모세가주구서 와서 거저 신라~이집에서 또.{신랑이 신부 집으로 가면 그 신부 집에서 먼저 잔치를 지내고 그 다음번에 그 신부를 모셔 가지고 와서 그저 신랑집에서 또.}

10207 @ 으음. 그러면요이~ 거리가 그렇게 같은 같은 부락이면 가서 하고 올수 있는데.{으음. 그러면요 거리가 그렇게 같은 같은 부락이면 가서 하고 올 수 있는데.}

10207 # 예.{예.}

10207 @ 멀리 떨어져있으면 어트리 해요?{멀리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해요?}

10207 # 멀리 떨어져있으무 또 날짜르 저, 정해놓습니다.{멀리 떨어져 있으면 또 날짜를 저, 정해 놓습니다.}

10207 @ 아아.{아아.}

10207 # (기침) 신부집에 가서 어, 잔체르 지내구 그담 신라~이집우느 거리 멀게다무 먼저 이틀후에라든지 사흘후에라던지 그날에 날으 정해놓습짐.{(기침) 신부 집에 가서 어, 잔치를 지내고 그다음 신랑 집은 거리가 멀게 되면 먼저 이틀 후에라든지 사흘 후에라든지 그 날에 날을 정해 놓지요 뭐.}

10207 @ 그렇게 잔치할때는 주로 대개 어떻, 어떻게 잔치를 해요? 주로 주로 음식 같은거 어트게 장만해서 어트게.{그렇게 잔치할 때는 주로 대개 어떻, 어떻게 잔치를 해요? 주로 주로 음식 같은 거 어떻게 장만해서 어떻게.}

10207 # 음식이라느거 거저 고렷사람이 시방 제:일 큰 음식으느 *지만 인절미라구두 하구 찰떡이라 하재애?{음식이라느 거 그저 고려사람이 시방 제일 큰 음식은 지금(?) 인절미라 고도 하고 찰떡이라 하잖소?}

10207 @ 예예.{예예.}

10207 # 찰떡에.{찰떡에.}

10207 @ 예.{예.}

10207 # 그담 증폐에.{그다음 증편에다.}

10207 @ 음.{음.}

10207 # 기래구서르 과줄이랑.{그리고서 과줄이랑.}

10207 @ 과줄이 뭐여?{과줄이 뭐야?}

10207 # 과줄으 기계 음 그런 찰쌀가루루 이게 익반죽 해서 얇다:맏게 밀어서.{과줄을 그게 음 그런 찰쌀가루를 이겨 익반죽해서 얇따랏게 밀어서.}

10207 @ 예.{예.}

10207 # 말리워서 거기다서리 꿀으 발라서 거 깨두 이래 놓구.{말려서 거기다가 꿀을 발라서 그 깨도 이래 놓고.}

10207 @ 아! 오.{아! 오.}

10207 # 기계 과줄으, 과줄 하는게 기계 그전엔 큰 음식으르 그거 첫땃습다. 집집마다 그거 과줄한, 야아! 저집에서 이번 잔체에 과줄했더라구서르 소무이 들썰나게 그러, 그렇기 기랏습.{그게 과줄을, 과줄이라 하는 게 그게 그전에는 큰 음식으로 그거 쳤었습니다. 집집마다 그거 과줄 한 (것을 보고), 야아! 저 집에서 이번 잔체에 과줄 했더라고 소문이 들썩거리게 그렇, 그렇게 그랬습다.}

10207 @ 오오.{오오.}

10207 # 갠데 시바~으느 싹 그런 음식으 해에서 파는집이 잇다나이가 돈만 잇으무 그 음식으 무스 갓추긴 어렵재입니다.{그런데 시방은 싹 그런 음식을 해서 파는 집이 잇다 보니 돈만 잇으면 그 음식을 무슨 갓추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10207 @ 예.{예.}

10207 # 돈마 잇으무 벨란 음식이 다 잇습니다. 여기.{돈만 잇으면 벨란 음식이 다 잇습니다. 여기.}

10207 @ 예에 예. 그먼 인자 그렇게 해서요 과줄허고 또 다른것은 인제 다른 음식은?{예에 예. 그러면 인제 그렇게 해서요 과줄하고 또 다른 것은 인제 다른 음식은?}

10207 # 아까 저 우.{아까 저 위.}

@ 아아. 외손자가 전화하신킨거여?{아아. 외손자가 전화한 거여?}

어여 시방 저 딸이 아들이.{어여 시방 저 딸의 아들이.}

@ 어어 모스크바에 잇어요?{어어 모스크바에 잇어요?}

거기르 벌이르 가느라구서 떠났슴.{거기를 벌이를 한다고서 떠났습니다.}

@ 오:! 뻗살인데?{오:! 뻗 살인데?}

올해 올해 서, 서른살.{올해 올해 서, 서른 살.}

@ 서른살에요? 그 혼, 혼새는 했구요?{서른 살이에요? 그 혼, 혼사는 했고요?}

예?{예?}

@ 잔치는 했고?{잔치는 했고(=결혼은 했고)?}

잔체르 하구 저기 딸이 *서인, 서이 낫습니다 딸이.{잔치를(결혼을) 하고 저기 딸이 셋인(데), 셋을 낳았습니다, 딸.}

@ 으음.{으음.}

기 저 저 저기 할머니지만 딸으 두울우, 큰거느:: 머 핵고르 댕기다나이 모오구 저 두울으 데리구 오재엇슴? 기랜게.{그래 저 저 저기 할머니지만 딸을 둘을, 큰 놈은 뭐 학교를 다니다 보니 못 오고 저 둘을 데리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 으음.{으음.}

어터게 데서 아아덜 서이나 지체농구 저어찌리 무슨 이맞재앤지 이혼했습니다.{어떻게 돼서 아이들 셋이나 남겨 놓고 저희끼리 무슨 의(意)가 맞지 않는지 이혼했습니다.}

@ 으음.{으음.}

기래 거기 잇재애구서르 바름두 췌우메 벌이르 간다구 시방 모스크발간게 거기서 시방 즘본 이(звонить)질하 …….{그래 거기 있지 않고서 바람도 쏘이며 벌이를 (하러) 간다고 시방 모스크바를 간 게 거기서 시방 전화질을 하(고).}

@ 으음.{으음.}

10207 @ 그먼 인자 잔치를 그렇게 하면 동네사람들이 그 초대받은 사람들은 그담 빈손으로 가는 거요? 뭇 가지고 가는 거예요?{그러면 인제 잔치를 그렇게 하면 동네 사람들이 그 초대 받은 사람들은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뭇 가지고 가는 거예요?}

10207 # 다쭈루 돈으 가주구, 돈으 가주구.{대부분 돈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10207 @ 으음.{으음.}

10207 # 여기서 시방 여기 풍습이 고렷사람덜 풍습이 무슨 제사라던지 한갑이라던지 잔체라던지 네일 무스 생일이라던지 보통 돈으 싹 가주구 가 …….{여기서 시방 여기 풍습이

고려사람들 풍습이 무슨 제사라든지 환갑이라든지 결혼잔치라든지 내일 무슨 생일이라든지 하면 보통 돈을 싹 가지고 ……}

10207 @ 얼마정도씩 가져가요?{얼마 정도씩 가져가요?}

10207 # 돈으 어저느 모도 ***열떡허 그런지 애앤 작게 가주구 간 분네 백숨씨 가주구 갑구.{돈을 이제는 모두 열없어(?) 그런지 가장 적게 가지고 간 분네가 백 숨(키르기스의 화폐)씩 가지고 갑니(다).}

10207 @ 오:!!{오:!!}

10207 # 백숨씨. 기래 우리느 말이사 바른 대르 저 우리 노친넨 네에 집이던지 빼애놓재양구 이래 댕기구 그래~이 야아! 이어 이 겨울에는 청채 어터기 많은지. 어떤 집우느 이래 두루 맞떠왓 일이 맞떠와서 못가는것두 어떤달에느 한해 뺨시(пенсия)르 타는게 그 거기 ***예름에 싹 나가구.{백 숨씩. 그래 우리는 말이야 바른 대로 (하자면) 저 우리 노친네는 뉘 집이든지 빼놓지 않고 이래 다니고 그러니 야아! 이거 이 겨울에는 청대(請待)가 어떻게 많은지. 어떤 집은 이래 두루 겹쳐서 일이 서로 겹쳐서 못 가는 것도 어떤 달에느 한 해 연금을 타는 것이 그 거기 부조(?)에 싹 나가고.}

@ 오오. 뺨시 두분이 다 뺨시 타요?{오오. 연금 두 분이 다 연금 타요?}

예. 내 에 이, 일천 일백[일백]서른셋숨 타구.{예. 내 에 이, 1,133숨을 타고.}

@ 예.{예.}

저 노치이 구백마흔다섯숨 타구.{저 노친이 945숨 타고.}

@ 그면은 한, 한 이천숨 가지면.{그러면은 한, 한 2,000숨을 가지면.}

예예예.{예예예.}

@ 이천숨 가지면은 생활하기에. (할만 해요?){2,000숨 가지면 생활하기에. 할만 해요?}

내 그 예름 아이구 맨 그거 가주구서 살자무 두분네 에 엠매던지 내 담배르 아이 췌지 수울 아이 마시지 엠매던지 살만합니다. 기랜데 기래구서 저 자손덜이 드문드문 도, 도배르 해주지.{내 그 부조(?)를 아니하고 맨 그거 가지고서 살자면 두 분네 어, 얼마든지 내가 담배를 안 췌지 술을 안 마시지 얼마든지 살 만합니다. 그런데 그리고서 저 자손들이 드문드문 도, 도움을 주지.}

@ 예.{예.}

갠데 그 여림에 나가는게 야아! 기딱차우 (웃음).{그런데 그 부조?)에 나가는 게 야아! 기가 차오 (웃음).}

@ 오오.{오오.}

한다, 한나 뺨시느 보통.{한 달, 한 사람의 연금은 보통.}

@ 오오.{오오.}

여름에 죄끔. 그 다쭈루 분네드 밭에 나가서 일하메서 시가이 없어노이까데 그 새~일두 이 가슬에 밀집지 늘쌍.{여름에 조금 (적고). 그 아주 많은 분네들이 밭에 나가서 일하면서 시간이 없다 보니 그 생일잔치도 이 가을로 미루지 늘상.}

@ 예에에.{예에에.}

개 여름에 죄끔 좀 주분주분하지 이 가을겨울에느 뺨건줄이 청자오.{그래 여름에 조금 좀 멈칫멈칫하지 이 가을 겨울에는 뺨건 줄(=공휴일)이 청대(請待)오.}

@ (웃음).{(웃음).}

(웃음).{(웃음).}

@ 그러면은 그돈 그돈이 굉장히 큰돈이겠네이?{그러면은 그 돈 그 돈이 굉장히 큰돈이겠네요?}

예예. 기래 글세 재빌르 또 무슨 새~일의 채린다던지 기래무 그만한 도이 *싸, 싹 들어오옵지. 내 작년에 그 일흔다섯 살으[싸르] 먹는 그거 세는데, 이 아홉천 사백숨 들언지 객으 육십머~으 청재르 했습지. 켜게 거이 열천만한게 내 저기 돈쓴거마 거저 수월하게 말하무 이 익보나 다림없어. (웃음).{예. 그래 글쎄 자기 스스로 또 무슨 생일(상)을 차린다든지 그러면 그 만한 돈이 싹 들어오지요. 내가 작년에 그 일흔다섯 살을 먹는 생일을 쇠는데, 이 9,400숨 들었는지 객(客)을 60명 청대(請待)를 했지요. 그런데 거의 10,000숨 정도 (들어와서) 내가 저기 돈 쓴 거보다, 그저 수월하게 말하면 이익을 본 것과 다름이 없어. (웃음).}

@ 돈, 돈 쓰고 남았겠네요?{돈, 돈 쓰고 남았겠네요?}

예.{예.}

@ 오.{오.}

기래 거기 저기 어떤분네덜으느 내가 친밀이 기래 분네덜으느 아, 오백숨두 가주구 오구 삼백숨두 가주구 오구. 기애 손지 저 시방 저 죽은 아 아들이 한넨게 그거 이게 안죽 총객인게 개두 할아버지 저기 칠십오세르 맞는날이라구서르 그 재빌르 기래두 벌어서 천냐~아 가주구 왔습굽.{그래 거기 저기 어떤 분네들은 나와 친밀히 (지낸) 그런 분네들은 아, 오백숨도 가지고 오고 삼백숨도 가지고 오고. 그래 손자 저 시방 저 죽은 아이 아들이 하나인데, 그거 이게 아직은 총각인데 그래도 할아버지가 저기 75세를 맞는 날이라고서 그 자기 스스로 그래도 벌어서 1,000냥(=숨)을 가지고 왔습니다.}

@ 천숨.{1,000숨.}

천숨[천쑹]{1,000숨.}

@ 음. 자!, 결혼을 하고나면 잔치를 하고 나면 그 신랑신부라고 그러쥬이~? 남자 여자를?{음. 자!, 결혼을 하고 나면, 잔치를 하고 나면 그 신랑 신부라고 그러쥬? 남자와 여자를?}

*글 잔체때 그저 그렇기 말합지.{그(때), 잔치 때 그저 그렇게 말하지요.}

@ 예. 신랑신부란 말 쓰쥬?{예. 신랑 신부라는 말을 쓰쥬?}

게 저 발써 저기 *웨 우리 이 저기 소, 이 노시아에 사는 고렷사람덜이 말이 어트게 버드러진지 이 잔체후엔 보통 저기 신랑신부라 하는게 애이라 에미네스나라구 에미네스나라구 이릉기 말하{그게 저 벌써 저기 외지(外地) 우리 이 저기 소(련), 이 러시아에 사는 고려 사람들의 말이 어떻게 비뚤어졌는지, 이 잔치 후에는 보통 저기 신랑 신부라 하는게 아니라 '에미네스나(=성년 여자와 성년 남자, 부부)'라고 '에미네스나'(부부)라고 이렇게 말하}

@ 에미네스나?{'에미네스나'}

'에미네스나'라구 (웃음) 이렇게 말하.....{'에미네스나'라고 (웃음) 이렇게 말하.....}

@ 그 로시아 말이에요 그게?{그 러시아 말이에요 그게?}

그 무슨 말인지 모르지. 노시아말은 아이오 기.{그 무슨 말인지 모르지. 러시아 말은 아니오 그(것이).}

@ 오오. 금 잠깐만요이~. '에미네스나'는 이게 남자를 말하는 거예요 여자 여자를 말하는 거예요?{오오. 그러면 잠깐만요. '에미네스나'는 이게 남자를 말하는 거예요 여자를 말하는 거예요?}

두울의 한데 그렇기 말하짐.{둘을 한데 그렇게 말하지 뭐.}

@ 아아. 신랑신부를.{아아. 신랑 신부를.}

예 신랑신부르. 저어네 '에미네스나' 어떤가 하구 이 이 이렇김 문안하는것두 문안하짐.{예 신랑 신부를. 자기네 '에미네스나'가 어떤가 하고 이 이 이렇게 뭐 문안하는 것도 문안하지 뭐.}

@ 오오. 그면은 그때 에미네스나 중에 남자 남자 남자를 뭐라고 불러요?{오오. 그러면은 그때 '에미네스나' 중에 남자 남자 남자를 뭐라고 불러요?}

@ 남자는 신랑이고 여자가 신부잖아요.{남자는 신랑이고 여자가 신부잖아요.}

이 …….{이 …….}

@ 에?{에?}

이게 정말 에미네 이게 아무래 신부겠습지.{이게 정말 '에미네' 이게 아무래도 신부겠지요.}

@ 그렇죠.{그렇죠.}

이게 '스나'란 이게 아매 남페이겠습죠. 에미네스나 에미네스나.{이게, '스나'라는 이게 아무래도 남편이겠지요 '에미네스나' '에미나스나'.}

@ 으응. 여자가 결혼해가지고 바로덴 여자를 뭐라고 불러요?{으응. 여자가 바로 결혼을 했을 때 그 여자를 뭐라고 불러요?}

여기.{여기.}

@ 새애기라고 부르나?{'새애기'라고 부르나?}

그, 그저 그전에는 가비라구 하압짐.{그, 그저 그전에는 과부라고 하지요 뭐.}

@ 에?{에?}

갑, 이 이 이혼짜라구서리 이 이렇기.{과부, 이 이 이혼한 사람이라고서 이 이렇게.}

@ 이혼한 사람 말고.{이혼한 사람 말고.}

예.{예.}

@ 결혼해가지, 결혼한 *바, 결혼한 여자.{결혼해 가지고, 결혼한 바로, 결혼한 여자.}

예.{예.}

@ 결혼을 바로 한 여자를 뭐라고 부르냐고. 그 아들이 결혼을 했어요.{결혼을 바로 한 여자를 뭐라고 부르냐고. 그 아들이 결혼을 했어요.}

어.{어.}

@ 그라가지고 여자를 데리고 왔어.{그라가지고 여자를 데리고 왔어.}

응.{응.}

@ 그면은 바로 데리고온 그 여자를 부를때 동네사람들이 뭐라고 불러요? 새애기라고 불러요?{그러면은 바로 데리고 온 그 여자를 부를 때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불러요? '새애기'라고 부르는가?}

새애기라구서 보통 부르지 새…… (웃음).{'새애기(=새색시)'라고서 보통 부르지 새…… (웃음).}

@ 새애기는 언제까지 새애기라고 불러요?{'새애기(=새색시)'는 언제까지 '새애기'라고 불러요?}

새애기라는게 시집가기전에 새애기집집.{새애기'라는 게 시집가기 전에 '새애기(=처녀)'지요 뭐.}

@ 시집가면?{시집가면?}

시집가문 벌써 새애기 아입짐.{시집가면 벌써 처녀가 아니지요 뭐.}

@ 글면 그다음에 뭐라고 불러 시집가면?{그러면 그다음에 뭐라고 불러 시집가면?}

시집감 미시라 부르겠는지. 이 노시아사람덜두[뚜] 이 노시아두 그런 시집 아이 간 여자는 제부쉬까(девушка)구 발써 시집 안가무 쉐쉬나(женщина)라구 하재엠?(시집가면 무엇이라 부르겠는지. 이 러시아 사람들도 이 러시아도 그 시집 안 간 여자는 '처녀'고 별써 시집 가면 '부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시집 안가무'는 구술자의 발화 실수임.)

@ 으음.{으음.}

기래 시집간 여자르 보통 가즈 안까이라구 부릅지.{그래 시집간 여자를 보통 갓 '안까이(=아낙네)'라고 부르지요.}

@ 그렇쥬 안까이라고.{그렇쥬 '안까이(=아낙네)'라고.}

안까이라구 예 안까이라구 그러{'안까이(=아낙네)'라고 예 '안까이(=아낙네)'라고 그러 (지요).}

@ 근데 안까이는 시집 가가지고 쪼끔 지나야지 안까이지. 바로 결혼헌지 바로 그때는 안까이라고 앓잖아요.{그런데 '안까이'는 시집 가 가지고 쪼끔 지나야지 '안까이지. 바로 결혼한 지 바로 그때는 '안까이'라고 안 하잖아요.}

기찍엔 무시라구 부르던지 잘 기억테지{그적에는 무엇이라고 부르던지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 오오. 으음.{오오. 으음.}

(기침){(기침).}

10207 @ 그럼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여자네 집에서 잔치허고 나서 남자네 집으로 와 잔치를 하쥬이~?{그럼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여자네 집에서 잔치하고 나서 남자네 집으로 와 잔치를 하쥬?}

10207 # 예.{예.}

10207 @ 그리고 나면 대개 옷, 나 여자네 집에 가 살어요 남자네 집에 가 살아요?{그리고 나면 대개 여자네 집에 가 살아요 남자네 집에 가 살아요?}

10207 # 남자집에 가 살아야{남자 집에 가 살아야}

10207 @ 남자집에 가 살아요이~? 예.{남자 집에 가 살아요? 예.}

10207 # 남자집에 예.{남자 집에 예.}

10207 @ 그러면은 따로 방을 하나씩 내주는 거예요?{그러면은 따로 방을 하나씩 내주는 거예요?}

10207 # 여러 카임 기계 마우재덜이 스빠이나즈 이게 너어 잠자리다[잠짜리다]. 기래 한칸으 이렇기 지적해 주구.{방이 여러 칸이면, 그게 러시아 사람들이 '스빠이나즈' 이게 너희 잠자리다. 그래 한 칸을 이렇게 지적해 주고.}

10207 @ 으음. 우리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 고려인들은, 동포들은?{으음. 우리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 고려인들은, 동포들은?}

10207 # 고려인덜두 시방 시반 그렇습지.{고려인들도 시방 시방 그렇지요.}

10207 @ 따로 집 안 사주고?{따로 집 안 사주고?}

10207 # 행페이 허락텐 분네느: 에따(это) 잔체르 지내구 오라재에서 딸르 집으 저, 싸서 세간 내온다구 이래구.{형편이 허락된 분네는 음 잔치를 지내고 오래지 않아서 따로 집을 지어, 사서 살림을 낸다고 이려고.}

10207 @ 으음. 세간 내준다고.{으음. 살림 내준다고.}

10207 # 어 세간 내{어 살림 내}

10207 @ 세간 내온다고 그러죠이~?{살림 낸다고 그러지요?}

10207 # 예.{예.}

10207 @ 그러면 세간 내지 않으면은 집에서 데리고 사는거죠이~?{그러면 살림을 내지 않으면은 집에서 데리고 사는 거죠?}

10207 # 기래 무간알르 집이 배잡은 것두 거저 어느 칸으 정해노구 이게 너어 잠자리다 이래 이랩지. 게 거저 무슨 도이 폰폰하구 그런 집덜으는 행편 보멘서리 한집에 그렇기 으, 음 배잡아서 살기 바뿌무 인차 집으 싸서 세간내구.{그러니 무관(無關, =무간(無間))으로 집이 비좁은 것도 그저 어느 칸을 정해 놓고, '이게 너희 잠자리다' 이러 이리지요. 그래 그저 무슨 돈이 폰폰하고 그런 집들은 형편 보면서 한집에 그렇게 으, 음 비좁아서 살기 힘들면 이내 집을 사서 세간 내고.}

@ 으음. 요즘 여기 집값은 어때요?{으음. 요즘 여기 집값은 어때요?}

집값이 여기 데게 비쌉니다.{집값이 여기 되게 비쌉니다.}

@ 으음. 요정도 집이면 얼마쯤 가요?{으음. 요정도 집이면 얼마쯤 가요?}

알수 없습니다. 그 단칸들이 집이 그전에는 이 세천 세천반, 극상해 네천달러(доллар)르 뗏는데 시방 어저는 열두천 열세천 달러(доллар)르. 한칸들일.{알 수 없습니다. 그 단칸들이 집이 그전에는 이 3,000, 3,500, 극상(極上, =값이 최고로 올랐을 때)해 4,000 달러를 받았는데 시방 이제는 12,000, 13,000 달러를 한 칸들이를.}

@ 어 오오.{어 오오.}

**집마시 그렇기 두배 세배 올, 올라갓습지.{집값이 그렇게 두 배 세 배 올, 올라갔지요.}

@ 이것은 인제 몇칸들이예요?{이것은 인제 몇 칸들이예요?}

이게 지마~ 다섯칸들입집, 이기.{이게 시방 다섯 칸들이지요 뭐, 이게.}

@ 어오. 그면 이런데는 이런집은 그냥 그 그런데 비하면은.{어 오. 그러면 이런 데는 이런 집은 그냥 그 그런데 비하면은.}

아~이! 내 이제 말한건 그 저 저, 에 층, 층댓집이. 이에 땃집마 콰찌라(квартира)지.{아니! 내 이제 말한 건 그 저 저, 에 층, 층집(아파트)이. 이 단독주택보다 아파트지.}

@ 층대집이?{'층대집'}

크발찌라(квартира)지.{아파트지.}

@ 오.{오.}

(기침) 이 땃집우느 이 시방 에 우리 집 따우느 레몬뜨(ремонт)랑 온저이 해놓구[해노꾸] 기라게 데무 거이 열야둡천[야둡천] 스무천 달러(доллар)르.{(기침) 이 단독주택은 이 시방 에 우리 집 따위는 수리랑 온전히 해 놓고 그러게 되면 거의 18,000, 20,000 달러를.}

@ 음. 그러면은 저 층집이 더 이런데보다 비싸요?{음. 그러면은 저 층집이 더 이런 데보다 비싸요?}

층집이[층찌비] 층집으는 시방 파는게, 파구 싸는게 한평방메뜨르 값이 엠매란게 있습니다.{층집이 층집은 시방 파는 게, 팔고 사는 게 한 평방미터의 값이 얼마라는 게 있습니다.}

@ 으음.{으음.}

기래 그, 그거 따라서 어 값으 부릅짐.{그래 그, 그거 따라서 어 값을 부르지요 뭐.}

10207 @ 그럼 이제 그 신랑신부가 그 결혼해가지고 와서 자 저 엠매 에미, 에미네스나가 이렇게 오면.{그럼 이제 그 신랑 신부가 그 결혼해 가지고 와서 자 저 부부가 이렇게 오면.}

10207 # 예.{예.}

10207 @ 따로 오디 여행갔다 와요, 그냥 바로 집으로 와요?{따로 어디 여행 갔다 와요, 그냥 바로 집으로 와요?}

10207 # 그 서방재 집에 와서 잔체르 지내구 또 삼일이란게 있습니다. 삼일이란게.{그 신랑 집에 와서 잔치를 지내고 또 삼일(三日)이라는 게 있습니다. 삼일(三日)이라는 게.}

10207 @ 예.{예.}

10207 # 잔체르 지내 사흘만에 또 음식으 갖춰가주구서르 신부네 집우르 또 또 그 가구.{잔치를 지내(고) 사흘만에 또 음식을 갖춰 가지고서 신부네 집으로 또 또 그 가고.}

10207 @ 오오.{오오.}

10207 # (기침){(기침).}

10207 @ 그때 신부네 집을 가면 신부네 집에서선 어특해요?{그때 신부네 집을 가면 신부네 집에서선 어떻게 해요?}

10207 # 신부네 집에서느 또 우리는 신랑재집에서느 음식으 가제갈 뿌이지 누기르 객덜으 처~알 건리두 아무 건리두 없습니다. 그 신부집에서 또.{신부네 집에서느 또 우리는 신랑집에서느 음식을 가져갈 뿐이지 누구를 객(客)들을 청할 권리도 아무 권리도 없습니다. 그 신부 집에서 또.}

10207 @ 음.{음.}

10207 # 누기르 청찰할 분네덜으 초델할 분덜 초델하구 재비 가깝운 친척덜 모듬짐.{누구를 청대(請待)를 할 분네들을 초대를 할 분들 초대를 하고 자기 가까운 친척들 모이지요 뭐.}

10207 @ 으음.{으음.}

10207 # 개 서방재쪽으선 거저 음식으 해애갓달뿌이지 거기 무슨 누기르 가나 오나르 거, 거기 참에없습니다.{그래 신랑 쪽에서느 그저 음식을 해 갔다 할할 뿐이지 거기 무슨 누구를 가거나 오거나 거, 거기에 참에하지 않습니다.}

10207 @ 그러면 결혼을 시키고 글면 남자가 돈이 더 많이 들어요? 여자가 돈이 돈이.{그러면 결혼을 시키고 그러면 남자가 돈이 더 많이 들어요? 여자가 돈이 돈이.}

10207 # 남자 도이 더 많이[마이] 듬 음. 기래구서르 에 여자덜두[여자덜뽀] 잘사는 가문에서느 그 예다이란게.{남자가 돈이 더 많이 듬(니다). 음. 그리고서 에 여자들도 잘사는 가문에서느 그 예단이라는 게.}

10207 @ 예.{예.}

10207 # 그 신라~이쪽에 친척이 많으무 그 예단에 도이 적재얹게 드우. 스혜~이구 시누이구 거저 무슨 시아지구 그 친척덜이 그 남편쪽에 많게데무 싹 그거 이름 저어서 이릉기 선물 디리다나이 도이 적재얹게 듬니다. 기래 조끔 가정행폐이 딱한[따간] 분네덜으느 거저 이 노스끼이(носски)던지 손수거이던지 이래 거저 선물 디리구 값진건 못디립짐.{그 신랑 쪽에 친척이 많으면 그 예단에 돈이 적지 않게 듬니다. 시형(孃兄)이고 시누이고 그거 무슨 시아주비고 그 친척들이 그 남편 쪽에 많게 되면 싹 그거 이름을 적어서 이렇게 선물을 드리다 보니 돈이 적지 않게 듬니다. 그래 조끔 가정 형편이 딱한 분네들은 그저 이 양말이든지 손수건이든지 이래 그저 선물 드리고 값진 건 못 드리지요 뭐.}

10207 @ 으음. 그면은 첫날밤은 어디서 보내는 거예요? 첫날밤은.{으음. 그러면은 첫날밤은 어디서 보내는 거예요? 첫날밤은.}

10207 # 첫날밤으 신랑집에서 보내지.{첫날밤을 신랑 집에서 보내지.}

10207 @ 신랑집에서요?{신랑 집에서요?}

10207 # 야~ 신랑집에서 보내지.{응 신랑 집에서 보내지.}

10207 @ 그럴때 옛날 에 우리 한국에서는 장난을 많이 치그든요? 신랑들 뭐 잠 못자기도 하고 막 놀리기도 하고. 근데 여기도 여기도 그런거 있어요?{그럴 때 옛날 에 우리 한국에서는 장난을 많이 치거든요? 신랑들 뭐 잠 못 자기도 하고 막 놀리기도 하고. 그런데 여기도 여기도 그런 거 있어요?}

10207 # 어쩐답니까?{어찌한답니까?}

10207 @ 뭐 알게 그 한국 건 이게 문이:.{뭐 이렇게 그 한국 것은 이게 문이.}

10207 # 예.{예.}

10207 @ 종이 종이로 뉘 문이잖아요.{종이 종이로 된 문이잖아요.}

10207 # 예.{예.}

10207 @ 거마 문, 문을 막 이러 뚫어서 안으로 막 쳐다보기도 하고 그러거든요?{그 막 문, 문을 막 이렇게 뚫어서 안을 어떻, 막 쳐다보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10207 # 여::기선 거저 지난밤엔 오늘밤에 너어 잘텐 이카이다. 여기서 발써 이상부네덜으 자르랑[čariraŋ] 싹 폐놓구[gɔ] 기래구서르 ***자색알때느 그 거기 들어가 밤우 자압지. {여기서는 그저 지난밤에는 오늘 밤에 너희 잘 데는 이 칸이다. 여기서 벌써 손위 분네들이 자리랑 싹 퍼놓고 그리하고서 *** 때는 그 거기 들어가 밤(에) 자지요.}

10207 @ 으음. 근데 으음.{으음. 근데 으음.}

10207 # 기래구서르 그 내 저기 재빌르 떠와본 일으느 어 두칸들입지. 기래 친척덜이 사춘네구 무스 통 그 잔체에오다나이 아 집이 배자와서 어더게 데 우리네르 저기 첫날밤우 거저 무스으 돌볼게 없이 무사히 자라구 그랜지 이시기덜으 싹 피해서 가압구마. 다른 집우루.{그리고서 그 내 저기 스스로 겪어 본 일은 어 두 칸들이지요. 그래 친척들이 사춘네고 뭐 모두 그 잔치(에) 오다 보니 아 집이 비좁아서 어떻게 돼 우리네를 저기 첫날밤을 그저 무엇을 돌볼 게 없이 무사히 자라고 그랬는지 이 시기(=시간)를 싹 피해서 갑니다. 다른 집으로.}

10207 @ 아.{아.}

10207 # 우리 우리 둘으 거저 지쳐 놓구.{우리 우리 둘을 그저 남겨 놓고.}

10207 @ 어! 오오.{어! 오오.}

10207 # 다른 집으르 잘라가압덤.{다른 집으로 자리 가더군요 뭐.}

10207 @ (웃음).{(웃음).}

10207 # (웃음).{(웃음).}

10212 @ (웃음). 여기는 주로 첫 얘기를 가지면 여자들이, 여자가 얘기를 배면.{(웃음). 여기는 주로 첫 얘기를 가지면 여자들이, 여자가 얘기를 배면.}

10212 # 예.{예.}

10212 @ 얘기를 갖는다 그래요, 애를 어뜨게 얘기를 뵈다고 그래요?{얘기를 갖는다 그래요, 애를 어떻게 얘기를 뵈다고 그래요?}

10212 # 얘기르 선다구서리 얘기르.{얘기를 '선다'고서 얘기를.}

10212 @ 얘기를 썼다 얘기를 서면.{얘기를 썼다 얘기를 서면.}

10212 # 예 예.{예 예.}

10212 @ 애기 들어서면.{애기 들어서면.}

10212 # 예.{예.}

10212 @ 예. 막 여러가지 음식을 먹죠? 막 토하기도 하고.{예. 막 여러 가지 음식을 먹죠? 막 토하기도 하고.}

10212 # 예.{예.}

10212 @ 그걸 뭐한다고 그래요?{그걸 뭐한다고 그래요?}

10212 # 그거 미시라구 말하는지. 으 이릉기 벌써 몸 비재이구 그래무 언, 테하기[테아기]두 하구[아구] 기래게 데무 애기설이르 하는 모애~이라구 이래 이랩지.{그거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어 이렇게 벌써 몸이 비지 않고 그러면 어, 체하기도 하고 그러게 되면 임신을 하는 모양이라고 이러 이러지요.}

10212 @ 음:. 애기설이 한다고이~.{음. 임신을 한다고요.}

10212 # 애기설이르 한다구 기랩지.{임신을 한다고 그러지요.}

10212 @ 어:. 그뎨 애기서레하면 막 여러가지 음식 같은것도 막 좀 먹, 좀 신음식이네 뭐네 이릉게 보통때 먹는 음식을, 다른 음식을 달라고 그러잖아요이~.{오오. 그러면 임신을 하면 막 여러 가지 음식 같은 것도 막 좀 먹, 좀 신 음식이네 뭐네 이렇게 보통 때 먹는 음식을, 다른 음식을 달라고 그러잖아요.}

10212 # 다른, 다른 음식으 달라구. 내 저 지나간 **이지마느 아~이 기게 저 우즈벡스탄 칠월 달에갯는지, 아~이! 포도 맥게엿다구서르 즈, 저 노친네 시방.{다른, 다른 음식을 달라고. 내가 저 지나간 일이지마는 그게 저 우즈베키스탄 칠 월 달이갯는지, 아니! 포도가 먹고 싶다고 저, 저 노친네가 시방.}

10212 @ 예.{예.}

10212 # 자아르 설메서리.{저 아이를 임신하면서.}

10212 @ 예.{예.}

10212 # 아, 포도 맥겍다구 어떠끼 기랜지 그애 너무 맥게와서 예 눈에서 눈물이 나 또옥뚝 떨어집.{아, 포도가 먹고 싶다고 어떻게나 그랬는지 그냥 너무 먹고 싶어서 예 눈에서 눈물이 나 뚝뚝 떨어집(니다).}

10212 @ 예.{예.}

10212 # 아 기래 그저 포도 익재앵지 어디메 가 싸갯슴두? 기래 그 크림 따따르(крым тата р)민족으 내 멘목이나 좀 아는집 그집에 포도 낭기 많습지무. 기래 그집우르 떡 찾아가 이 예엔 이쁘, 이쪽이 텐 포도르 채 익, 익재인거.{아 그래 그저 포도 익지 았앗지 어디 가 사갯습니까? 그래 그 크림 타타르 민족을 내 멘목이나 좀 아는 집 그 집에 포도 나무 가 많지요 뭐. 그래 그 집으로 떡 찾아가니 가장 일찍, 일찍이 된 포도를 채 익, 익지 았은 거.}

10212 @ 예.{예.}

10212 # 그런일에 저 제에 왔는데 그제 아주마이 땡기메서 골라서 주더구마.{그런 일에 (포도를) 쥐어(=가지고) 왔는데 그때 아주머니가 다니면서 골라서 주더구먼.}

10212 @ (웃음).{(웃음).}

10212 # 개 내 자 자전거르 타구 갓땡습지.{그래 내가 자, 자전거를 타고 갔었지요.}

10212 @ 예예.{예예.}

10212 # 기래 집으르 와서 이룩가여 그저 그영 그 좋다구 기래던게 아, **네다두 먹재이메

서.{그래 집으로 와서 이렇게 가져와 그저 그 아주 그 좋다고 그러던 사람이 아, 몇 알
도(?) 먹지 않으면서.}

10212 @ (웃음).{(웃음).}

10212 # (웃음) 내 그 잊어지지 애이 (웃음).{(웃음) 내 그 잊혀 지지 않(습니다) (웃음).}

10212 @ (웃음) 거, 그렇, 그 그러면 화 안나요이~?(웃음) 그, 그렇, 그 그러면 화 안 나요?

10212 # (웃음) 케엔데 기래두 아, 하늘라구 어찌갓습두?(웃음) 그런데 그래도 아, 화나려고
(해도) 어찌갓습니까?

10212 @ 예.{예.}

게 가즈 만났지 서르 그러끼 야아! 저분네 젊어서 널래서 데게 고사했습니다. 내 어, 서바~
아 간 이듬해부터 이 미르 알, 앓기 시작했습니다.{그게 갓 만났지 서로 그렇게, 야아! 저분
네 젊어서 나 때문에 되게 고생했습니다. 내 어, 장가를 간 해 이듬해부터 이 벌써 앓, 앓기
시작했습니다.}

@ 누가요?{누가요?}

내.{나.}

@ 어어~ 오오.{어어 오오.}

그 노, 고려말르 그 미시라한두 야즈바(язва)꺼지 생게서.{그거 러시아, 고려말로 그 무엇이
라 하는지 꿩양까지 생겨서.}

@ 으음.{으음.}

어더께 사램이 예비구 기랫던지 이 걸어댕기는 백골이라구 나르 기랫스. 기래 이사덜이 기
래지. 이릉기 베~이 들어가주구서르 지늬이르 아이 하구 일이랑 그야~아르 하는 게 심자~이
하두 든든하길래 이렇다구. 갠겐데[갠겐데] 인, 이 노인네 와서 심재~이 자꾸 방저~이 이래
앉아서 내 시방 고사하재엌두?{어떻게 사람이 여위고 그랬던지 이 걸어 다니는 백골이라고
나를 그랬습니다. 그래 의사들이 그랬지. 이렇게 병이 들어가지고 들어눕지를 안 하고 일이
랑 그 모양으로(=그처럼) 하는 게 심장이 하도 튼튼하기 때문에 이렇다고. 그랜 것인데 이,
이 노인이 돼서 심장이 자꾸 방정히 (뛰지 않아) 이렇게 앉아서 내가 시방 고생하지 않습
니까?}

@ 음.{음.}

어전날 밤에느 초잠자다 일어나이 이 심재 부추메 호홉이 맞갓재에서 떠어 앉아서 지난해
 많스ㄱ.{어떤 날 밤에느 초저녁 잠을 자다 일어나니 이 심장이 박동이 세계 일어나며 호홉
이 알맞지 않아서 떡 앉아서 지난 때가 많습니다.}

@ 으음.{으음.}

기래 그 위르[wi] 앓으라부터 이 음식부터 가레라구서르 좀 보드랍은 음식으 이런거 먹으
라구서르.{그래 그 위(胃)를 앓게 되면서 이 음식부터 가리라고서 좀 부드러운 음식을 이런
거 먹으라고서.}

@ 으음.{으음.}

기래 그 시방 우리 조선말르느 그 미시라 한지. 노시앗사람들이 *시 블로쉬까(блoшкa) 블
로쉬까(блoшкa) 하는 거. 그거 촌에 그런 음식이 잇습니까? 그 우레브스ㄱ란 그 *스((стан
ция) 정거자~으르 기게 아무래 대에예일굽길로메뜨르 데엌지. 그런데르 동삼에두, 아이구!
그거 거기 가서 떡으 한주일마임 먹게서르 그렇기 싸서 지구 땡기메. 저 노친네 젊어선 널
래서. 개두 어째 고상질 아이하구서르 이날이때꺼지 살안지. 기래 내 시방두 또 옛말하압굼.

내 메~이 질어 그런지 제 신세에 내 벨르 살아난같다구[사라난가따구] 불쌍텐 말으 …….
{그래 그 시방 우리 조선말로는 그 무엇이랴 하는지. 러시아 사람들이 시(방) '블로쉬까' '블로쉬까' 하는 것. 그거 촌에 그런 음식이 있습니까? 그 우레브스크라는 그 정(거장), 정거장으로 그게 아마도 대여섯 일곱 킬로미터 되지요. 그런 데로 겨울에도, 아이고! 그거 거기 가서 빵을 한 주일만이면 먹게 그렇게 싸서 지고 다니며. 저 노친네 젊어서는 나 때문에. 그래도 어찌 고생을 안 하고서 이날 이때까지 살았는지. 그래 내가 시방도 또 옛날 일을 말합니다. 내가 명이 길어 그런지 당신 신세에(=당신에게 신세를 저) 내 특별히 살아난 것 같다고 딱하게 여기는 말을 …….)}

10201 @ 으음. 그면은 그때 오셔서 바로 그 경제적으로는 그렇게 어렵지 않으셨겠네요 두 분이 다 그 돈을 벌었으니까?{으음. 그러면은 그때 오셔서 바로 그 경제적으로는 그렇게 어렵지 않으셨겠네요 두 분이 다 그 돈을 벌었으니까?}

10201 # 예.{예.}

10201 @ 돈을 받, 둘이 돈을 탔을거 아네요?{돈을 둘이 돈을 탔을 거 아니에요?}

10201 # 예.{예.}

10201 @ 해서 달, 단위(单位)에 다니면서.{그래서 다, 직장에 다니면서.}

10201 # 기래이 이 가정에서 그 돈으 어 타:구 쓰구 하는데는 저분네 젊어서부터 기랬지. 나는 돈같은 거 쥐게데무 씹씹이 해퍼서.{그러니 이 가정에서 그 돈을 어 타고 쓰고 하는 것은 저분네가 젊어서부터 그랬지. 나는 돈 같은 거 쥐게 되면 씹씹이가 해퍼서.}

10201 @ 네.{네.}

10201 # 에 인차 쓰, 없어진다구서 돈으느 나르 내게다서리 또 기래놓구 딱 요구텔 일이 잇으무 내가 말합지. 엠매만한 무슨 일에 돈쓸 일이 잇으이 그렇다구. 기램 내 그마이 돈이래 내주우. 그 풍습이 이날이때까 내려와서 저 뻘시(пенсия)르 타두 저 노친네 재빌르 그야~ 내 댕기지 못한다는, 쓰는데 재빌르 말아가주구 쓰라구 기래우. 내 가지게 담 쓰거푸 사라~이가 없구 그 도이 다 나간다구.{예 이내 써서 없어진다고 돈은 나에게, 내게다 또 그리해 놓고 딱 요구되는 일이 잇으면 나에게 말하지요. 얼마만한 무슨 일에 돈 쓸 일이 잇으니 그렇다고. 그러면 내 그만큼 돈을 이렇게 내 주고. 그 풍습(=습관)이 이날 이때까지 내려와서 저 연금을 타도 저 노친네는 자기 스스로, 그냥 내가(=자기가) 다니지 못한다는(말을 하고) (나에게서 돈을 타) 쓰는데, 자기가 돈을 맡아 가지고 쓰라고 그러오. 내가 가지게 되면 쓰, 거푸 곳간이 없고 돈이 다 나간다고.}

10201 @ 예.{예.}

10201 # 개 상기두 시방 내게다 돈 맬게 놓구[노꾸]서르 어드르 갈직[찍]에무 엠매만한거 요구텐다구서르 기래 저기 누(ну) 실지르 들어서, 예르 들어서 삼백숨만:한게 요구텐다 하게 담 또 가서 보며서 무시게 또 다른게 또 쌀게 잇겐지 개 샅, 더 보태 사백숨 주지. 기래 가 무슨으 싸구서느 다음은 다섯숨 질어두 꼭 내앤데 개애다 데비 받, 데비 바치치 무. {그게 아직도 시방 나에게다 돈 맡겨 놓고서 어디로 갈 적에면 얼마만한 거 요구하는 것이 잇다고서 그래 저기 글썽 실제로 들어서, 예를 들어서 300 숨만한 것이 필요하다 하게 되면 또 가서 보면서 무엇을 또 다른 게 또 살 게 잇겠는지 그래 사, 더 보태 400 숨 주지. 그래 가 무엇을 사고서는 다음은 5 숨 남아도 꼭 나 있는 데 가져다 도로 바, 도로 바치치 뭐.}

10201 @ 어어~.{어어.}

10201 # 이거 아바이 이거 내 무스으 무스으 싸구서르 이 짚은 도이라구서르. 내엔데 갖다 데비 또 바쳐요.{이거 할아버지 이게 내 무엇을 무엇을 사고서 이 남은 돈이라고서. 나한테 도로 또 바쳐요.}

10201 @ 어어~.{어어.}

10201 # (웃음) 그야르 열어덜다서리 그 소소한 저기 무스 쌀일이 또 잇겐지 기래라가무 감이 없어. 어전 풍습이 그 어전 뿌리브치까(привычка) 그렇기 댕어.{(웃음) 그 모양으로 넣어 두었다가 그 소소한 저기 무슨 살 일이 또 있겠는지 해서 (그때 쓰라고) 그러라고 하면 감이 없어. 이젠 풍습(=습관)이 그 이젠 습관이 그렇게 댕어.}

10201 @ 어어~. 대개 다 여자들이 돈을 가지고 있고 남자가 타서 쓰는데요이~? 반대네.{어오. 대개 다 여자들이 돈을 가지고 있고 남자가 타서 쓰는데요? 반대네.}

10201 # (웃음) 기랜데 어, 저분네는 젊어서부터 어터게데서 그렇기.{(웃음) 그런데 어, 저분네는 젊어서부터 어떻게 돼서 그렇게.}

10201 @ 으음.{으음.}

10201 # 이 시방두 시방두 기랜데.{이 시방도 시방도 그런데.}

10201 @ (웃음).{(웃음).}

10201 # 아바이 저기 돈 쥐구 잇으이 그렇지 내 그거 가지무 돌아온 뻘시르 탈때꺼지 늘쌍 모자랄게라구 (웃음).{할아버지가 저기 돈을 쥐고 있으니 그렇지 내가 그거 가지면 돌아오는(=다음) 연금을 탈 때까지 늘쌍 모자랄 거라고 (웃음).}

10201 @ 어어~.{오오.}

10201 # (기침).{(기침).}

10201 @ 그러면은 그 아매도 그쪽에 같 그어서 그 이 공작(工作, =gōngzuò)을 이, 일으 오래하셨어요?{그러면 그 할머니도 그쪽에서 같이, 거기서 그 이 일을 이, 일을 오래 하셨어요?}

10201 # 그 내 저기 영화기술질할직에 거기서 그 이 저 끼노(кино) 그 영화 그 페끼르 파는 데서 표르 파는데서 스물다스해르 일했소.{그 내 저기 영화 기술 일을 할 적에 거기서 그 이 저 영화 그 영화 그 표를 파는 데서 표를 파는 데서 25년을 일했소.}

10201 @ 오오.{오오.}

10201 # 스물다스해르. 기래 한기관에서 오래 일했다 해서 어 뻘시르 그 저분네두 구백마흔 다스숨. 여자덜이 그렇기 여기서 타는게 그리 쉽재애오. {25년을. 그래 한 기관에서 오래 일했다 해서 어 연금을 그 저분네도 945숨을 (받소). 여자들이 그렇게 여기서 타는게 그리 쉽잖소.}

@ 여기 지금 젊은사람들이 그 회사에 다녀도 한 천숨쯤밖에 못받는거 같던데?{여기 지금 젊은 사람들이 그 회사에 다녀도 한 1000숨쯤밖에 못 받는 거 같던데?}

그것두.{그것도.}

@ 천숨 못받는 사람도 있고.{1,000숨 못 받는 사람도 있고.}

더받는 사람덜 잇구 못받는 사람덜두 잇구.{더 받는 사람들 있고 못 받는 사람들도 있고.}

@ 그렇게 일도 앓고 구백숨 **구백서, 구백숨 넘게 받으면 많이 받는거네.{그러니까 일도 앓고 900숨, 900숨 넘게 받으면 많이 받는 거네.}

예예. 그 *앗, 아주 늘그막에사 기계 큰 도뵈집.{예예. 그 아, 아주 늘그막에야 그게 큰 도움이지요 뭐.}

@ 그러니까요 예. 근데 이제 요즘 여기고 물가가 짐 많이 올라가는가봐요이~?{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이제 요즘 여기도 물가가 지금 많이 올라가는가 봐요?}

많이[마이] 올라가. 많이[마이] 올라.{많이 올라가. 많이 올라(가오).}

@ 계란같은 경우도 뭐 얼마전에는 한 이십숨 갔는데 지금은 사, 사십숨.{계란 같은 경우도 뭐 얼마 전에는 한 20숨 갔는데 지금은 4, 40숨.}

예, 예. 지방 그렇기[그러끼]. 음. 이 지방 저 전화 값으 저기 달달이 무는데 저어 전화 놔 아실직[찍]에 한달에 스물다섯숨 댕댕숨. 지방 예순야둡[야둡]숨.{예 예 지방 그렇게. 음. 이 지방 저 전화 값(=요금)을 저기 다달이 무는데 저 전화를 놓았을 적에는 한 달에 25숨 댕었습니다. 지방 68숨.}

@ 어어.{어어.}

그렇게 올라갔습.{그렇게 올라갔습니다.}

@ 몇년만에 크게 올라간거예요?{몇 년만에 그렇게 올라간 거예요?}

이 한 삼년어간에 그렇게 올라가{이 한 삼 년 사이에 그렇게 올라가}

@ 그면은 **뺨세(пенсия)는 많이 안 올랐어요?{그러면 연금은 많이 안 올랐어요?}

뺨시(пенсия) 저기 작게 타던 사람우느 많이[마이] 올라보내구.{연금을 저기 적게 타던 사람은 많이 올려 보내고(=인상해서 주고).}

@ 어어.{어어.}

지방 이 저기 정부에서 그 뺨시(пенсия)르 올라보낼 적에는 이 열다섯 퍼센트씨 올라보낸 다 이랩지.{지방 이 저기 정부에서 그 연금을 올려 보낼(=인상해 줄) 적에는 이 15퍼센트씩 인상해 준다고 이러지요.}

@ 예에.{예.}

기런데 우리마이 탄 사람덜으느 거저 한 이십숨씨 이러끼 올라가구 기래구 한 삼백숨씨 사 백숨씨 이렇기 타는 사람덜 거느 또 많이[마이] 올라가구. 기래 거저 굶머죽지 말라구 그 구차한 사람덜으 조끔 살가주잔 그점 껌집지[재집지].{그런데 우리만큼 탄 사람들은 그저 한 20숨씩 이렇게 올라가고 그리고 한 300숨씩 400숨씩 이렇게 타는 사람들 것은 또 많이 올라가고. 그래 그저 굶어 죽지 말라고 그 구차한 사람들을 조끔 살려 주자는 그 점을 잡기 지(견지하기) 뒤.}

@ 으음.{으음.}

개 우리마이 탄 사람 거 올라보낸다:: 말뿐이지 벨르 올라간게 없어.{그래 우리만큼 타는 사람들의 연금을 인상해 준다는 말뿐이지 별로 올라간 게 없어.}

@ (웃음).{(웃음).}

(웃음).{(웃음).}

@ 그러면은 물가는 막 올라가고.{그러면은 물가는 막 올라가고.}

흐흠.{흐흠.}

@ **뺨세는 안 올라가고 그러니까 쓰자, 가면 갈수록 좀 생활이 바쁘겠네요?{연금은 안 올라 가고 그러니까 쓰자 하면, 가면 갈수록 좀 생활이 힘들겠네요?}

10201 # 기래 나느 이, 이 여름에느 이 터전에서 터전에서 배추르 시머서 시래기르 말리워서 그 싸잔분네덜이 그렇기 많습지무. 시래기두 이 올해 아매 열대애엘레스길로 아매 팔, 한길로에 일백순숨씨.{그래 나느 이, 이 여름에는 이 터전에서 터전에서 배추를 심어서 시래기를 말려서 그 사자는 분네들이 그렇게 많지요 뒤. 시래기도 이 올해 아마 열대,

열여섯 킬로(16킬로)를 아마 팔(았을 터인데), 한 킬로에 150숨씩 (받았지).}

10201 @ 어어.{어어.}

10201 # 기래구서르 고치르 고치일부터 그거 어, 절귀서 저기 달란 사람덜이 가뜩해아서 고치있두 또 적재앵게 뜯어서 기래. 기래 여기서 이 터전에서두 쪼끔 도배 많이[마이]템.{그리고서 고추를 고춧일부터 그거 어, 절여서 저기 달라는 사람들이 가뜩해서 고춧잎도 또 적지 앵게 뜯어서 그래. 그래 여기서 이 터전에서도 조끔 도움이 많이 됩니다.}

10201 @ 음. 이게 멧평방이나 데요?{음. 이게 멧 평방미터나 되요?}

10201 # 이게 두평방메트르 테나마나 한테 기랜데 엠, 물으 대는거느 이 수돗물으 대엿집口. 수돗물으 허갈 아이 하압굽. 물으 대는 거. 허가없이 대다가느 에 짝들기우게데무 멧백냐~씨 벌, 벌금하압지무. 기래 난 해마다 저 고르보도까~으 가서 그런거 계약 저기 에 에 떠(это) 도급으르 자꾸 자랍집.{이게 두 평방미터 되나마나 한테 그런데 에, 물을 대는 거는 이 수돗물을 대지요 뭐. 수돗물을 허가를 안 합니다. 물 대는 거. 허가 없이 대다가느 에 (물을 댄 사실을) 들키게 되면 멧 백 냥씩 벌금, 벌금을 물지요 뭐. 그래 나는 해마다 저 고르보도 강을 가서 그런 거 계약을, 저기 에 음 도급(都給)으로 (물을 대서 고추가) 자꾸 자라지요 뭐.}

10201 @ 에에.{예.}

10201 # 게 한, 한여름에 물으 녀달도안[또안] 댓는데 따알르 멧평방메뜨르는데 어, 도이 열매란거 거그서 까금쳐서 저래 돈으 물구선 기래구 난 시름농구 물으 댓지. 기래 물으 대는 허갈 말아두 밤 열두시부터 새벽 다섯시까지 그어간에 대야댓지.{그래 한, 한여름에 물을 녀달 동안 댓는데 땅으로 멧 평방미터인데 어, 돈이 얼마라는 거 거기서 가금(價金, =값) 쳐서 곧바로 돈을 물고서 그리고 나서 시름 놓고 물을 대지요. 그래 물을 대는 허가를 말아도 밤 열두시부터 새벽 다섯시까지 그 사이에 대야 되지요.}

10201 @ 아아.{아아.}

10201 # 기직[찍]에 사람덜이 자꾸 기래놓음 물이 덜 요구데엿지.{그적에 사람들이 자고 그러면 물이 덜 필요하지요.}

10201 @ 예에.{예.}

10201 # 기랜게 무스 내같은 벙들에 밤으 자재애구서르 어찌우. 나는 그저 암때나 낮에두 대구 아침에두 대구 (웃음).{그런게 뭐 나같은 환자가 밤에 자지 앵고서 어찌하오. 나는 그저 아무 때나, 낮에도 대고 아침에도 대고 (웃음).}

10201 @ 음. 그렇게 대면은 그면은 아까 백숨이면은 한 멧천숨씩은 허겼네요?{음. 그렇게 대면 그러면 아까 100숨이면은 한 멧 1000숨씩 하겠네요?}

10201 # 내 어 에 또 올해 올해.{내 어 에 또 올해 올해.}

10201 @ 한 이삼십천씩 해요?{한 이, 삼십 천씩 해요?}

10201 # 아 올해 저기 내 물값으 물으 댄 값으 엠매물엇는가이 양백육십숨 물엇습지. 양백육십숨. 기랜데 기 밭에서 나온거느 거이 네천만:한 수입이 나왔습지.{아 올해 저기 내 물값을, 물을 댄 값을 얼마나 물엇는가 하니 260숨 물엇지요. 260숨. 그런데 그 밭에서 나온 거는 거의 4,000숨 만큼의 수입이 나왔지요.}

10201 @ 으음.{으음.}

10201 # 게 이익이 많습, 내게.{그래 이익이 많지요, 나에게.}

10201 @ 으음. 으음. 그면은 어:: 그면은 그정도면은 여름, 여름 한철에는 그냥 잘 또 돕, 뭐

야 그 그 잔치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돈도 안 들어가고.{으음. 으음. 그러면은 어 그러면은 그 정도면 여름 한철에는 그냥 잘 또 돕, 뭐야 그 잔치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돈도 안 들어가고.}

10201 # 네. (웃음).{네. (웃음).}

10201 @ 그렇게 험니까 그때는 줌.{그렇게 하니까 그때는 줌.}

10201 # (웃음).{(웃음).}

10201 @ 돈을 모아놓을 수 있겠네요이~?{돈을 모아 놓을 수 있겠네요?}

10201 # 예예.{예.}

10201 @ 예.{예.}

기래 거저 예오! 시방 거저 죽을날이 가깝은것두 좀 섭섭한거는 조선때에 못갓다운게 기계 모지리 섭섭해. 내 구십년도에 그 북조선으 그 썩야~으르 여기서 그 뿌쭈우까(путёвка)르 가주구 가 방문한 사람덜 많습지. 기래 자야 기직[직]에 내가 저 우리 노친네르 그 뿌쭈브까(путёвка)르 두개르 얻엇습지. 썩야~으르 가는 거. 게 얻엇는데 그해에 저어 우즈벡스판 가 아프간스판 그 그 그라니짜(граница) 가서 수박질 하다나이 못갓다구서르 그.{그래 그저 어유! 시방 그저 죽을 날이 가깝지만 좀 섭섭한 거는 조선 땅에 못 갓다운 게 그게 매우 섭섭해. 내 1990년도에 그 북한으로 그 평양으로 여기서 그 여행권을 가지고 가 방문한 사람들이 많지요. 그래 저 아이(=큰아들)가 그적에 나와 저 우리 노친의 여행권 두 장을 얻엇지요. 평양으로 가는 거. 그래 얻엇는데 그해에 저 우즈베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 그 국경에 가서 수박 농사를 짓다 보니 못 갓다고서 그.}

@ 어어.{어어.}

우리 뿌쭈브까(путёвка)르 가주구 내 이상 누이가 또 면목 가깝안 여자 두분네 우리 뿌쭈우까(путёвка) 가주구 대비르 갓다왔지.{우리 여행권을 가지고 내 순위 누이와 또 면목 가 가까운(=알고 지내는) 여자 두 분네가 우리 여행권을 가지고 대신 갓다왔지.}

@ 요즘은 인자 그거 안나와요?{요즘은 인제 그거 안 나와요?}

시방 아이 나오오.{시방 안 나오오.}

@ 그때는 그거 가지면은 그냥 돈 안, 안내고 갓어요? 돈 안물고?{그때는 그거 가지면은 그냥 돈 안, 안 내고 갓어요? 돈 안 물고?}

아무래 아이 물엇단같습다.{아마도 안 물엇다는 것 같습니다.}

10201 @ 오~:. 그 거 **우즈벡스티나에 나에 저 러시아나 이런데 가가지고 한철에 그 수박질 같은거 하면 얼마씩이나 벌어요?{오. 그 거 우즈베키스탄에 예 이래 저 러시아나 이런데 가 가지고 한철에 그 수박 농사 같은 거 하면 얼마씩이나 벌어요?}

10201 # 구십, 이 구십이연도에 이 시방 노시아 루블리(рубль)에 시방 싹 어전 거 값이 떨어져서 그럴림세 내 수박질해서 양백원천 양백원천 루블리(рубль) 벌어가주구 왓습 짐.{1990, 1992년도에 이 지금 러시아 루블이 시방 싹 이젠 그 값이 떨어져서 그럴 무렵 내가 수박 농사해서 205,000, 205,000루블을 벌어 가지고 왓지요 뭐.}

10201 @ 그면은 그 톨라로 건 얼마나 데요?{그러면은 그 달러로 그건 얼마나 되요?}

10201 # 기때까레 기계 달러(доллар)무 내 그것두 헤게르 아이 해밭지, 엠매나 데갓는지. 기직에 양백원천이 밧써 이 노시아 루블리(рубль) 값이 떨어질직[직]에 데노이. 기랜데 자야게서 기별왓지. 그 돈으 번:게 잇으무 쥐구 잇지 말구 빨리 여기르 제인데르 전해달 라구서리 기래 내 그 돈 가주구 제이 왓다갓지. 그돈 가주구서르 야아 돌아댁기메 마쉬

나(машина)두 싸구 집두 싸구. 그돈 하나뚜 어떤사람우느[싸라무느] 그돈 미쳐 바꾸지 못해서 거저 췌에뿌린 사람두 많앗스.{그때 무렵에(=바로 그 시기에) 그게 달러(dollar)면 내 그것도 회계(會計, =계산)를 안 해 봤지, 얼마나 되는지. 그 때에 205,000이, 벌써 이 러시아 루블 값이 떨어질 적이 되니까. 그런데 저 아이에게서 기별이 왔지. 그 돈을 번 것이 있으면 손에 쥐고 있지 말고 빨리 여기로 저 있는 데로 전해 달라고. 그래 내 그 돈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왔다 갔지. 그 돈을 가지고서 이 아이가 돌아다니며 자동차도 사고 집도 사고. 그 돈을 하나도, 어떤 사람은 그 돈을 미쳐 바꾸지 못해서 그저 내 던진 사람도 많았습니다.}

10201 @ 아아.{아아.}

10201 # 기래구 여긔 그 둥간(дунгане) 민족분네덜으느 아, 그분네덜은 본래 그 용사질으 잘하는 분네. 한분으느 한커우대르 가주구 갓어 하, 한마대르 가주구 왓습지 돈. 기래. {그리고 여기는 그 둥간 민족분네들은 아, 그분네들은 본래 그 농사일을 잘하는 분네. 한 분은 한 마대를 가지고 갓어 한, 한 마대를 가지고 왓지요 돈을. 그래.}

10201 @ 루블을?{루블을?}

10201 # 루블리(рубль)르. 기래 그거 바꾸는것두 어, 뿔천까지 바꾸구 그나마진 아이 받 습지 무슨.{루블을. 그래 그거 바꾸는 것도 어, 몇 천까지 바꾸고 그 나머지는 안 받지 요 뭐.}

10201 @ 음.{음.}

10201 # 아이, 기래 그거 거저 뿌레테디무 *텐 지나가구 지나간 지난 사람두 이돈 가지라구 하이, 그사람덜두 재빗것두 무 시방 바꾸지 못해 그거 해서 무실 해[무시래]. 기래 양양 울메 그 돈으 막 쓰, 쏘, 쏘아데디구 가더라구서 그런 얘기두 잇엇스.{아니, 그래 그거 그저 내던지면 버리(면), 지나가고 지나가는 사람도 이 돈을 가지라고 하니 그 사람들도 자기 것도 뭐 바꾸지 못해 (버릴 지경인데) 그거 해서(=그걸 주워서) 무엇을 해. 그래 양 양 울며 그 돈을 막 쓰, 쏘, 쏘아 버리고 가더라고 그런 얘기도 잇엇습니다.}

10201 @ 그러면 그때 또 그때는 딸라를 갖고 있으면, 딸라를 갖고 있으면 제일 좋은데.{그러면 그때 또 그때는 달러를 갖고 있으면, 달러를 갖고 있으면 제일 좋은데.}

10201 # 기직[직]에는 달러(доллар)란게 이거 오, 오부셈(в общем) 없엇댕소.{그적에는 달러라는 게 이거 일, 일반적으로 없엇소.}

10201 @ 오오.{오오.}

10201 # 그 루블리(рубль)르 없애데디메 이 지방[зибан] 재빗도이 쏘 지방 낮, 낮, 나지메 기랫지.{그 루블을 없애 버리며, 이 지금 자기 돈(=키르기스스탄의 화폐)인 숨이, 지금 쓰는, 나, 나, 나타나며 그랬지.}

10201 @ 음. 글면 언제까지 루블을 썼어요?{음. 그러면 언제까지 루블을 썼어요?}

10201 # 구십이연도에 마감 췌습짐. 구십이연도에두 약빠른 사람이 쓰구.{1992년도에 마지막으로 썼지요, 뭐. 92년도에도 약빠른 사람이 쓰고.}

10201 @ 글면은 그 루블을 가지고 로, 러시아에 가서 쓸수 잇잖아.{그러면은 그 루블을 가지고 러, 러시아에 가서 쓸 수 잇잖아.}

10201 # 기직[직]에 노시아에서두 그, 도~이 그 시방 조조이 너무 나와서 시방 그 루블리(рубль)르 **마스보(←마스고) 없애치느라구 난시르 칠직[직]에지무. 기래노이 까딱 못해 어드르 다른 데가서 쓰주두 못하구. 이렇기 떡 만들어 낮짐.{그때에 러시아에서도 그 돈

이 그 시방 조조히(=매우 급하게) 너무 나와서(=너무 많이 찍어서) 시방 그 루블을 폐지 해 없애 치우느라고 난리를 칠 적이지 뭐. 그러니 꼼짝 못하고 어디로 다른 데 가서 쓰 지도 못하고. 이렇게 떡 만들어 냈지 뭐.}

10226 @ 으음. 여기는요 여기는 그:: 사람이 죽으면 죽으면은 어떻게 갖다가 물어요? 풍습이 어트, 어트게 데있어요?(으음. 여기는요 여기는 그 사람이 죽으면은 어떻게 갖다가 물어 요? 풍습이 어떻, 어떻게 되어 있어요?)

10226 # 여기 시방 사람덜 훌 죽으무 예전처리 칠성널에 눕혀놓지.{여기 시방 사람들이 죽으 면 예전처럼 칠성판(七星板)에 눕혀 놓지.}

10226 @ 예?{예?}

10226 # 칠성널이란 게 있짐. 그럼.{칠성널(七星板)이란 게 있지 뭐. 그럼.}

10226 @ 어: {어:}

10226 # 시방은 그 이 사~이르 이래 앞두에다 놓구 거기다서리 요만:한 널이에 놓구 그위에 다 눕혀놓지. 기래 내 그 이 칠성널이라는 거느 어째서 이거 다른데 눕히재구 이 칠성널 에다 눕히는가구 우리 형님이 생존일적에 내 우리 형님이 물어봤습지. 기래 우리 형님 대답은 기렸지. 옛날에 의학이 발, 발달되지 못해서 사람이 죽었다구서리 내애친 사람이 두 고치 살아난 폐단두 잇었다구.{시방은 그 이 상(床)을 이래 앞뒤에다 놓고 거기다가 요만한 널을 놓고 그 위에다 눕혀 놓지. 그래 내가 그 이 칠성판(七星板)이라는 거는 어 짜서 이거 다른 데 눕히지 않고 이 칠성판(七星板)에다 눕히는가 하고 우리 형님이 생존 해 있을 적에 내가 우리 형님에게 물어 봤지요. 그래 우리 형님 대답은 그랬지. 옛날에 의학이 발, 발달되지 못해서 사람이 죽었다고서 내친 사람도 다시 살아난 폐단도 있었다 고.}

10226 @ 예.{예.}

10226 # 기래 그 사람이 확실히 죽었는가: 아이 죽었는가 알자구서르 그 줍, 줍게 한 그 칠 성널에다 눕혀 놓다구. 게 조꿈이래두 그 사람이 숨이 잇어 움죽이게 데무 그 칠성널에 서 떨어진다고. 기래 그거 알길래서 필경 그렇기 한같다구서르.{그래 그 사람이 확실히 죽었는가 안 죽었는가 알자고서 그 줍, 줍게 한 그 칠성널에다 눕혀 놓는다고. 그래 조 꿈이라도 그 사람이 숨이 잇어 움죽이게 되면 그 칠성널에서 떨어진다고. 그래 그거 알 려지기 때문에 필경 그렇게 한 것 같다고서.}

10226 @ 으음.{으음.}

10226 # 기래 시방 칠성널에다 눕혀놓구서르 싸악 그담 몸으 싹 씻더구마. 어떤 집에서느 그 수울으 가주구서르 수울으 소개에다 묻혀서[무쳐서] 이래 이랬스. 거 오분 일신으 싹 씻 구.{그래 시방 칠성판(七星板)에다 눕혀 놓고서 싹 그다음 몸을 싹 씻더구면. 어떤 집에 서는 그 술을 가지고서 술을 숨에다 묻혀서 이래 이랬습니다. 그 온몸을 싹 씻고.}

10226 @ 으음.{으음.}

10226 # 기래구서르 거저 그 그 어전 미시 나두 어저 싹 잇어뿌렛스. 그 석반 석반 디린 다 음에 아침 점심 저약꺼저 산사람으 음식 권하는거처리 사~에다 차레서 그 송자앞에다 놓 구서르 절두하구 무스 기렸더굽. 기래구서르 사흘만에 내다 모실즉에느 또 이 마단에 내 다서리 또 이래 칠성널에 눕혀놓구 무슨 축우 또 부르더구마. 기게 무스 거저 수월이 말 하무 이 집우 니벨하구 간단 무스 그 그 으체라구 기렸짐.{그리고서 그저 그 그 이젠 뭐 나도 이제 싹 잊어버렸습니다. 그 석반 석반 드린 다음에 아침 점심 저녁까지 산 사람에

게 음식 권하는 것처럼 상에다 차려서 그 송장 앞에다 놓고서 절도 하고 뭐 그랬더군요. 그리고서 사흘만에 내다 모실 적에는 또 이 마당에 내다가 또 이래 칠성판(七星板)에 얹혀 놓고 무슨 축(祝,=祝文)을 또 부르더군요. 그게 무슨 그저 수월히 말하면 이 집을 이별하고 간다는 무슨 그 그 의체(義諦, =근본 뜻)라고 그랬지 뭐.}

10226 # 기래구서 그다음은 산에 가서 농구서르 모도 축가르 하압지. 그런 이 사람이 살아서 어텟단 어텟기 어쩡단 애:기두 하구. 기래구서르 무덤에다서리 굴짜에다 영구서르 묻구서르 그다음 또 그 묘제르 또 지 지내더구마.{그리고서 그다음은 산에 가서 놓고서 모두 축가를 하지요. 그런 이 사람이 살아서 어떻다 하는 어떻게 (살았고) 어쩡다 하는 얘기도 하고. 그리고서 무덤에다 굴 쪽(=광정(壙井))에다 넣고서 묻고서 그다음 또 그 묘제(墓祭)를 또 지, 지내더군요.}

10226 # 기래 그전에 (기침) 우리.{그래 그전에 (기침) 우리.}

10226 @ 이릉, 이릉게 분봉을 만들어요 안만들어요?{이릉, 이렇게 봉분(封墳)을 만들어요 안만들어요?}

10226 # 아이 만드우. 아이 만드구 시방 거 쟁등하구서르 거기다서리 무라모르(мрамор) 벨따(фильтр)르 덜짐 우에다. 기래구서르 비석으 세우우.{안 만드오. 안 만들고 시방 거 평평하고 거기다가 대리석 필터를 덜지 뭐 위에다. 그리고서 비석을 세우오.}

10226 @ 아아. 그냥 평지에 평지 위.{아아. 그냥 평지에 평지 위.}

10226 # 쟁지.{쟁지.}

10226 @ 오.{오.}

10226 # 그전에 저기 한 십오연 전에두 이렇기 두옹그렇게 이렇기 무덤 해얏습지. 기랜게 시바~아는 다쭈루 쟁등하구서르 그. 그전에 원동서 그런 그 어른덜이 말씀하는게 그 살아서 생존에 약하야~ 하구 그런 사람운 죽어서 귀신이 빠친다구. 기래.{그전에 저기 한 15년 전에도 이렇게 둥그렇게 이렇게 무덤을 했지요. 그런데 시방은 대부분 평평하고 그. 그전에 원동에서 그런 그 어른들이 말씀하는 게 그, 그 살아서 생전에 악한 짓을 한 그런 사람은 죽어서 귀신이 든다고. 그래.}

10226 @ 음.{음.}

10226 # 그런 사람덜 무덤은 묻구서르 그 세엿 모역에다서리 가매까지개랑 쉼꼬채르 꼽아놓덤. 기래구 그 무덤 우에 꼭대게다두 이만한 돌으 지들과 농구. 귀신이 빠치지 말라구. {그런 사람들 무덤은 묻고서 그 세 묘 가장자리에다 솔 깨진 것과 쇠고챙이를 꽂아 놓더군요. 그리고 그 무덤 위에 꼭대기에다가도 이만한 돌을 가져다 눌러 놓고. 귀신이 들지 말라고.}

10226 @ 어 오.{어 오.}

10226 # 기랜다짐.{그런다지 뭐.}

10226 @ 오오.{오오.}

10226 # 기래 아 그 스, 가매까지개 셋자~이랑 어째 그래 꼽는가구서 기래 기계 귀신겐 기계 비세라구. 귀신이 그거 무섭아 나 모은다구 이랬지.{그래 아 그 솔 깨진 쇠조각이랑 어째 그렇게 꽂는가 하고서. 그래 그게 귀신에게는 그게 비서(秘書)(?)라고. 귀신이 그거 무서워 못 나온다고 이랬지}

10226 @ 으음.{으음.}

10226 # 아, 기랜데 그다음 그 윗네 기래지. 우리 마마(мама) 기래짐. 저기 너어넌 앞으루

내 죽게대무 무라무르(мрамор) 꼭 해애라. 꼭 해라. 무라무(мрамор)란게 시방 그 에 돌 비석으 그래 하라는 게짐. 기래, “ 마마(мама)! 그전에 그 저기 귀시이 빠친다구서리 모 꼭대기다 돌이랑 올레놏단데, 아! 비석 큰 거 그렇게 덮어서 어찌갯는가” 하구서 기래. “시방 다 그렇게 하는데 무스 꼭 기어쿠 그렇게 해라” 해서.{아, 그런데 그다음 그 윗분 들이 그러지. 우리 어머니가 그러지 뭐. 저기 너희는 앞으로 내가 죽게 되면 대리석으로 꼭 해라. 꼭 해라. ‘무라무르(мрамор)’라는 것이 시방 그 돌 비석처럼 그렇게 하라는 거 지 뭐. 그래, “어머니! 그전에 그 저기 귀신이 든다고 묘 꼭대기에다 돌을 올려놓았다는 데 아, 비석 큰 것을 그렇게 덮어서 어찌하갯는가” 하고서 그랬지. “시방 다 그렇게 하는데 무슨 꼭 기어코 그렇게 해라.” 해서.}

10226 @ (웃음).{(웃음).}

10226 # 우리 우리 빠빠(папа) 상세낫을적엔 그런게 없었지. 게 우리 마마(мама) 상세나서 그렇기 떡 해엿짐. 기래구서르 우리 빠빠(папа) 산으 또 그렇게 하자구서리 기래. 동네 노인덜이 기래지무. 까아딱 다치지 말라구. 자손덜께 아무 유화~이 없, 없지. 이렇기 기 랠적에 무덤 다치지 말라구. 기래 우리 빠빠 (папа)거든 그 비석이랑 아이 세웠짐. 게 여긴 시방 거저 보통 거저 이 팽둥하구서르 우에다서리 그, 스, 벳돈닉(бетоник) 그 빨 리뜨까(плитка)르 놓구 기래구 비석 세우구 이랬스.{우리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적 에는 그런 게 없었지. 그래 우리 어머니 돌아가셔서 그렇게 떡 했지 뭐. 그리고서 우리 아버지 산소를 또 그렇게 하자고 그래. 동네 노인들이 그러지 뭐. 까딱 건드리지 말라고. 자손들에게 아무 유환(有患)이 없, 없지. 이렇게 그럴 적에 무덤 건드리지 말라고. 그래 우리 아버지 것은 그 비석이랑 안 세웠지 뭐. 그래 여기는 시방 거저 보통 (무덤이) 평평 하고 위에다가 그 콘크리트제 돌로 만든 그 작은 판석(板石)을 놓고 그리고 비석을 세우 고 이랬습니다.}

10227 @ 그러면 내 내애갈뎨 어뜨게 내가요?{그러면 내 내갈 때는 어떻게 내가요?}

10227 # 내갈 적에는 저어 뽀호로니(похороны) 뿌리올끄, 그 사람이 상세나무 그 자동차랑 염일하는 그런 기관이 잇스. 그 기관가 말하무 거기서 관두 거그서 가져오구 그담 그 빠 찐느(специальный) 그 관으 싹구 내가는 압또부스(автобус) 오지무.{내갈 적에는 저 장의소(葬儀所), 그 사람이 죽으면 그 자동차랑 염(殮) 일 하는 그런 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에 말하면 거기서 관도 거기서 가져오고 그다음 그 특별히 그 관을 싹고 내가는 버스가 오지 뭐.}

10227 @ 그러면 관이 그렇게 한번 나가면은 돈은 얼마씩 줘? 지방에다.{그러면 관이 그렇게 한번 나가면은 돈을 얼마씩 줘? 지방 관청에다?}

10227 # 그거 우린 음 이 마감 올께(ёлка) 쓰재앵다나이 모르나 그 어 관값이 딸리 잇구, 그.{그거 우린 음 이 마감재 전나무를 쓰지 않다 보니 모르나 그거 관 값이 따로 있고, 그.}

10227 @ 차값이 딸로 있고.{차 값이 따로 있고.}

10227 # 차값이 딸르 잇구. 기래구서 또 음악으 또 싹으 낸데 그 으, 음악 그 그것두 또 딸르 물구.{차 값이 따로 있고. 그리고서 또 음악을 또 샅을 내는데 그 어, 음악 그 그것도 또 따로 물고}

10227 @ 이렇게 음악 연주해줘요? 사람들이 와서?{이렇게 음악 연주해 줘요? 사람들이 와서?}

10227 # 와서, 거기서 거기 짝 그 뽀고른(похороны) 부르 짝 잊지 무스.{와서, 거기서 거기 짝 그 추모곡을 부르는 사람이 짝 있지 무슨.}

10227 @ 오오.{오오.}

10227 # 그 음악의 노는 사람덜이랑 기래 조끔 행페이 생활행페이 페온 사람덜으느 저레 그 자리에서 그 음악두 저기 사까스(заказ) 하압짐.{그 음악을 연주하는 사람들이랑 그레 조끔 형편이, 생활 형편이 편 사람들은 이내 그 자리에서 그 음악도 저기 예약을 하지 요 뭐.}

10227 @ 으음.{으음.}

10227 # 개 도오 잇느 이 노시앗분네덜으느 사람두 벨르 없스. 사램이 거저 죽엇다하게데무 그 상디끝에 상딧두에 거저 사램이 거저 스:물스물대엿맹밖에 더 아이테오. 기앤데 야아! 저 우리 아 그렇게 불췌르 죽엇다하이 동미두 어터게 많앗는지 여기 며 돌아지는 저기서 부터 이 울리짜(улица) 이 료꼬이 마시나(легковой машина) 꼭 섯댓소 한종일. 기래 구서르 자리 모자래서 저어 차이팝스 울리짜(улица) 저 아래꺼지두 막 어째 료꼬이 마시나(легковой машина) 일백 열너이 왔다던지 기직[찍]에 그 마시날 세에 본 사람덜 이. 기래구서르 자아 동미덜이 이 ***가~이 사람덜가 짝 상논하구서르 이 ***간술 자아 느 실꾸[실꾸] 나갈 적에 이 울리짜(улица)르 짝 막아서 다른 마시나덜(машина)이 트란스(транс)르 못댕기게 헛스.{그레 돈 있는 이 러시아 분네들은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사람이 그저 죽엇다 하게 되면 그 상여 끝에 상여 뒤에 그저 사람이 그저 스물, 스물 댓 맹밖에 더 안 되오. 그런데 야아! 저 우리 아이 그렇게 갑자기 죽엇다 하니 동무도 어떻게 많앗는지 여기 뭐 돌아가는 저기서부터 이 거리를 이 승용차가 꼭 차게 섯었소, 한종 일. 그리고서 자리가 모자라서 저 차이팝스 거리 저 아래까지도 막 어째 승용차 114대가 왔다던가, 그 때에. 그 자동차를 세어 본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리고서 저 아이 동무들이 이 ** 사람들과 짝 상론(相論)하고서 이 *** 저 아이는 신고 나갈 적에 이 거리를 짝 막아서 다른 자동차들이 통로로 못 다니게 헛습니다.}

10227 @ 그러면 인자 거기 요, 요즘에는 그:: 사람 그 시체를 태우지 태우는 것은 없어요 여기?{그러면 인제 거기 요, 요즘에는 그 사람 그 시체를 태우지 태우는 것은 없어요 여기?}

10227 # 태우는 거 시방 이 사~이 자리모자란다구서르 언, 태우자구서르 이 정부에서 그야~르 문제르 세운기 이날이때꺼지 안죽으 태우는 법이 없스.{태우는 거 시방 이 산이 자리 모자란다고서 어, 태우자고서 이 정부에서 그냥 문제를 세운 게 이날 이때까지 아직은 태우는 법이 없습니다.}

10227 @ 그면은 까작, 여 여기 여 키르기즈도 다 무, 다 물어요?{그러면은 카자흐, 여 여기 여기 키르기스스탄도 다 물, 다 물어요?}

10227 # 끼르기즈두 다 다 물스. 갠데 이 이 끼르기즈덜으느 시바 이 정부 일꾼덜이나 거저 이 노시앗사람 그 풍습입지. 이래 상세나무 사마~이 데게 다무 사흘만에 내다 묻구. 옴판 이 사람덜 이 무슬만(мусульмане)들 풍습우느 어, 해 넘어가기 전에 숨이 가게 데무 그 날르 당날르 개애다 묻는법입지.{키르기스스탄도 다 다 묻습니다. 그런데 이 이 키르기스 민족들은 시방 이 정부 일꾼(=공무원)은 그저 이 러시아 사람 그 풍습이지요. 이렇게 죽으면 사망이 되게 되면 사흘만에 내다 묻고. 원판 이 사람들 이 무슬림들의 풍습은 어, 해 넘어가기 전에 숨이 끊어지게 되면 그날로 당일로 가져다 묻는 법이지요.}

10227 @ 무슬림 애들은요?{무슬림 애들은요?}

10227 # 예. 이 이 이사람덜 풍습이. 기랜데 시방 **정음에 보게담 조끔 책임일이나 하구 정부 일꾼덜이랑 사마~이 데게 데무 사흘만에 내다 묻습지.{예. 이 이 이 사람들 풍습이. 그런데 시방 *** 보게 되면 조끔 책임(이 있는) 일이나 하고 정부 일꾼(=공무원)들이랑 사망이 되게 되면 사흘만에 내다 묻지요.}

10227 @ 으음. 그러면은 그:: 그렇게 그렇게 그 장내를 치를때요 거기에도 가면은 돈들 가지 가요?{으음. 그러면은 그 그렇게 그렇게 그 장례를 치를 때요 거기에도 가면은 돈들 가져가요?}

10227 # 온 분네덜이 인사하러온 분네덜이 다수루 돈 가주구.{온 분네들이 인사하러 온 분들이 대부분 돈 가지고 (오고).}

10227 @ 음. 그러면은 산에 가서 그 못자리 사람 들어가는 자리요, 사람 무 묻는 자리, 그것도 돈주고 사요?{음. 그러면은 산에 가서 그 못자리 사람 들어가는 자리요 사람 묻 묻는 자리 그것도 돈 주고 사요?}

10227 # 예. 거기 거기 저기 딸르 그 북망산에서 일하는 그런 부리가다(бригада) 잇습지. 사람이 일구야둡이.{예 거기 거기 저기 따로 그 북망산에서 일하는 그런 작업반(бригада) 이 잇지요. 사람이 일고여둡이.}

10227 @ 음.{음.}

10227 # 기래 그 파기는 **벨라루시(бурильская машина)르 가주구 트랙또르(трактор) 가주구 파압지. 그 판 다음에 사람이 **물로 또 그 벅으 잘: 이렇기.{그래 그 파기는 굴착기를 가지고 트랙터를 가지고 파지요. 그 판 다음에 사람이 **** 또 그 벅을 잘 이렇게.}

10227 @ 음.{음.}

10227 # 삼우 가주구서 자알 이렇기 다깨질하구 그다음 묻는것두 그 삼우르 가주구 흙으 떠서 묻구.{삼을 가지고서 잘 이렇게 닦음질 하고 그 다음 묻는 것도 그 삼을 가지고 흙을 떠서 묻고.}

10227 @ 예.{예.}

10227 # 짹 그게 그거 짹 그 거그두 엠매만한 돈 물어야 댕지. 그사람덜이.{짹 그게 그거 짹 그 거기도 얼마 만한 돈을 물어야 되지요. 그 사람들이.}

10227 @ 그 사람들이 해줘요?{그 사람들이 해 줘요?}

10227 # 예.{예.}

10227 @ 다?{다?}

10227 # 예. 기래 시방 여기서 묻는게 이 시방 ***초날에 그 여기다서 묻는게 이 뜨락에 좋은자리르 좋은자리에다 모시자무 일구야둡천 그 무덤자리르[무덤짜리르] *일굽야드천 솟으 물어야 댕지.{예. 그래 시방 여기서 묻는 게 이 시방 **에 그 여기다 묻는 게 이 뜰(=묘원(墓園))에 좋은 자리를, 좋은 자리에다 모시자면 7~8천을, 그 무덤 자리를 7~8천 솟음을 물어야 되지요.}

10227 @ 구래요?{그래요?}

10227 # 예 기래구서르 그거 무스거 짹 그거 어 굴짝으 온저이 하구 기래구 그 파묻구 기래는데 그 작게 들어서 열일굽천 예라둡천[예라둡천] 솟 들어야 *덴다주. 기래구서느 이 구차해서 그 쟁디에다 모시지 못할 그런 분네덜으느 저어쪽에 산꼭짜그 올라가서 자라니

(заранее) 벌써 무덤 이래 파논게 가득하짐. 게 거긴 돈 한글째두 아이 드짐.{에 그리고 서 그거 무엇을 싹 그거 어 광중(曠中)을 온전히 하고 그리고 그 파묻고 그래는데 그 작 게 들어서 17,000, 18,000숨 들어야 된다지. 그리고서 이 구차해서 그 평지에다 모시지 못하는 그런 분들은 저쪽 산꼭대기를 올라가서 미리 벌써 무덤 이래 파놓은 게 가득하 지 뤄. 게 거기는 돈 한 푼도 안 들지요 뤄.}

10227 @ 음.{음.}

10227 # 기래구 저 거기갓다가서 구차한 사람덜은 거저 거기 갓다 무 묻짐.{그리고 저 거기 가져다가 구차한 사람덜은 그저 거기 가져다 묻 묻지요 뤄.}

10227 @ 아::.{아.}

10227 # 기래 이 조선사람덜은 내 아는 바에 자손덜이랑 잇는 분네덜은 없지못해서 이 촌으르 또 가제가는 분네덜이 잇습. 그 촌에는 그 땃값으 거저 한 팔백쫘나 천쫘 거저 물무 데엿지. 기래노이 그거 제사람덜이 묻힌 곳이라 해서 사이라 해서 거기르 또 멘목 을르 가서 두루 사정하구서리 기래 가져간 분네 잇구 기래 여 도시에다 모신거는 내 알 기는 조선사람덜이 그 산골짜기르[산골짜기르] 아이 들에가구 어드서 돈 **얼든 싹 그 좋은자리에다 그렇기 싹 물어[쌍문어].{그래 조선사람들은 내 아는 바에는 자손들이랑 잇는 분들은 없어 어찌지 못해서 이 촌으르 또 가져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거 촌에는 그 땅값을 그저 한 800숨에서 1,000숨 그저 물면 되지요. 그러니 그거 제 사람들이 묻 힌 곳이라 해서, 산이라 해서 거기를 또 면목으로 가서 두루 사정 하고서 그래 가져간 분들이 있고. 그래 여기 도시에다 모신 거는 내 알기로는 조선 사람들이 그 산골짜기로 안 들어 가고 어디서 돈을 싹 그 좋은 자리에다 그렇게 싹 물어.}

10230 @ 그렇게 음. 그러면 돌아가시고 나면 (기침) 그 부모님도 돌아가시고 나면 이제 제사 지내요 제사?{그렇게 음. 그러면 돌아가시고 나면 (기침) 그 부모님도 돌아가시고 나 면 이제 제사 지내요 제사?}

10230 # 제 제사르 삼년 제세꺼지 지내짐.{제 제사를 삼년 제사까지 지내지요 뤄.}

10230 @ 삼년까지만?{삼년까지만?}

10230 # 아아 두 두번 지내짐.{아아 두 번 지내지요 뤄.}

10230 @ 아:: 그리고나서부터 안 지내요?{아 그리고 나서부터는 안 지내요?}

10230 # 기래구서르 거저 저기 그 사망덴 날에 그 객덜으 초대르 아이하구서르 거저 음식으 갖차가주구 닭이나 잡아가주구 산으르 간 폐단 많습지.{그리고서 그저 저기 그 사망 된 날에 그 객(客)들을 초대를 안 하고서 그저 음식을 갖춰 가지고 닭이나 잡아 가지고 산 으르 간 폐단 많지요.}

10230 @ 아::.{아.}

10230 # (기침).{(기침).}

10233 @ 그러면 삼년상 치를 때까지는 사람들이 와요?{그러면은 삼년상 치를 때까지는 사람 들이 와요?}

10233 # 예. 시방 사바~은 또 집우루 또 초대르 하재일구 삼년짜~이랑 돌아오게다무 그 산에 가서 위출하구 객덜으 어느 레스토랑(ресторан)이나 카페(кафе)르 처~합짐口. 그 카페(к афе)에서 다 음식으 싹 싸까슬(заказ) 해서 그렇기 쟁자이 거기서 모듬짐 사람덜이.{예. 시방 시방은 또 집으로 또 초대를 하지 않고 삼년상이랑 돌아오게 되면 그 산에 가서 제 사로 모시고 객(客)들을 어느 식당이나 카페로 청하지요 뤄. 그 카페에서 다 음식을 예

예약을 해서 그렇게 굉장히 거기서 모이지요 뭐 사람들이.}

10233 @ 음:: 그러면은 그때도 가서 돈 가져가고이~?{음 그러면은 그때도 가서 돈 가져가고요?}

10233 # 그직[찍]에두 저기 그.{그직에도 저기 그.}

10233 @ 출가한 사람들은?{출가한 사람들은?}

10233 # 그 그 제사 때 돈을 이래 또 많재애두 이래 가져다놨지 무스.{그 그 제사 때 돈을 이래 또 많지 않아도 이래 가져다 놨지 뭐.}

10233 @ 그러면은 그러면은 돈 가지고 어르게 갈 갈데가 많:겠네.{그러면은 그러면은 돈 가지고 어떻게 갈 갈 데가 많겠네.}

10233 # 많재오 그럼 (웃음).{많지 않고 그럼 (웃음).}

@ 잔치하는데 가야지 제사한테 가야지 상세난데 가야지 예?{잔치하는 데 가야지 제사하는 데 가야지 상사난 데 가야지 예?}

기래.{그래.}

@ 또 또 생일날 가야지 뭐.{또 또 생일날 가야지 뭐.}

기래 내 기래재오? 저 우리 노친네는 어떨 제엔 기땅맥해서 어터게 청자 많은지 그 딱 거저 친척이나 그런집우는 거저 으엘르 가야 데지. 기래 죄끔 멘목으 좀 서럭서럭한[서럭서러간] 그런 집에서 어 초댓자~이랑 오게 데무 이 전할르 피탈 대엿지. 저어 그날에 야: 방정맞게두 내 무슨 친척 아무개내 무슨 새일이라던지 무슨 일이 있어서 못가겠다 하구서리 탈으 대짐. 그렇재애구 무슨 다른 이유가 없이 아이 가무 노움내짐.{그래 내 그러지 않소? 저 우리 노친은 어떨 때에는 기가 막혀서 어떻게 청대(請待)가 많은지 그 딱 그저 친척이나 그런 집은 그저 으레 가야 되지. 그래 조금 멘목이 좀 서먹서먹한 그런 집에서 어 초대장이랑 오게 되면 이 전화로 핑계를 대지요. 저 그 날에 응 방정맞게도 내 무슨 친척 아무개내 무슨 생일이라든지 무슨 일이 있어서 못 가겠다 하고서 탈을 대지요 뭐. 그렇지 않고 무슨 다른 이유가 없이 안 가면 노여워하지 뭐.}

@ 으음. (웃음).{으음. (웃음).}

(웃음). {(웃음).}

@ (웃음) 그면은 그면은 인자 그뻬 인자 닥 닥이나 이런거 해가지고 갈때는 그냥 가족 식구 들끼리만 가고 식귀들끼리만.{(웃음) 그러면은 그러면은 인제 그때는 인제 닭, 닭이나 이런 거 해 가지고 갈 때는 그냥 가족 식구들끼리만 가고 식구들끼리만.}

예예.{예.}

4. 박블라디미르와 안타샤의 농경 생활

4.1. 박블라디미르의 목화 농사

10401 @ 음. 혹시 목화농사 목, 목화 목화농사요 목화농사 저 보셨어요?{음. 혹시 목화 농사 목, 목화 목화 농사요 목화 농사 지어 보셨어요?}

10401 # 목화농사 재빌르느 그 말아가주구서르 일 아이헛으나 목하르 뜯는데느 아이구! 쫓 (혀 차는 소리) 새틀하게 뜯, 뜯엇스.{목화 농사는 내 자신이 그걸 말아 가지고서 일은 안 했으나 목화를 뜯는 데는, 아이고! 쫓(혀 차는 소리) 싫증이 나도록 뜯, 뜯었습니다.}

10401 @ 목화농사는 맨 처음 어떻게 해요? 한번 목화농사를 짓는 것 좀 얘기 좀 해줘보세 요.{목화 농사는 맨 처음 어떻게 해요? 한번 목화 농사를 짓는 것 좀 얘기 좀 해 줘 보 세요.}

10401 # 목화농사르, 거저 따아 트랙톨(трактор)르 밭으 갈구.{목화 농사를, 그저 땅을 트랙 터로 밭을 갈고.}

10401 @ 트랙톨로 갈아요?{트랙터로 갈아요?}

10401 # 예. 자알 그 걸기랑 다 자알 갖구 해서 그담번에 이라아 쟁구서르 기켈르 싹 목하르 수뭇지.{예, 잘 그 씨레랑 다 잘 갖고 해서 그다음 번에 이랑을 짓고서 기계로 싹 목화 를 심지요.}

10401 @ 기계로 심어요?{기계로 심어요?}

10401 # 기켈르 기켈르 수뭇.{기계로 기계로 심어.}

10401 @ 목화 심는 기계가 있어?{목화 심는 기계가 있어?}

10401 # 잇재애구.{있잖고.}

10401 @ 그문 목화는 심을 때 뭘로 심어요?{그러면 목화는 심을 때 뭘로 심어요?}

10401 # 그 목하 으 그 송체에(←송치+에) 씨, 씨, 씨잇단 말이, 씨.{그 목화 으 그 송이에 씨, 씨, 씨가 잇단 말이오, 씨.}

10401 @ 예에.{예.}

10401 # 그 씨르 그거 저기 목하 그 소개 그 공자~에서 그 잳아내게테무 그 소~이 싹 다른테 르 가구 그 씨 다른 테르 나오짐. 그 씨르 받아서 또 에 벌기친다해서 그 씨르 이런 히 믹(химик)간다서리 그거 오부라봇까(обработка)르 해서 기래서 그 그 목하르 시문 기 계다서리 고랑들일 해서 수뭇.{그 씨를 그거 저기 목화 그 솜(을 만드느) 그 공장에서 그 자아내게 되면 그 송이가 싹 다른 테로 가고 그 씨 다른 테로 나오지 뭇. 그 씨를 받아 서 또 에 벌레 친다 해서 그 씨를 이런 화학 처리실에서 그거 가공을 해서 그래서 그 그 목화를 심는 기계에다 고랑을 만들어서 심어.}

10401 @ 벌기 벌기친다고 하는 말은 벌, 저 벌레가 먹기 먹으니까.{벌레 벌레 친다고 하는 말은 벌, 저 벌레가 먹기 먹으니까.}

10401 # 그 씨, 씨갓에 벌기 치는 페다이 잇습지.{그 씨, 씨갓에 벌레 치는 페단이 잇지요.}

10401 @ 예.{예.}

10401 # 기래무 기계 앞우루 목하 자라나메 그베~에 그 거기르 넘어온다 해서.{그러면 그계 앞으로 목화 자라나며 그 병이 그 거기로 넘어온다 해서.}

10401 @ 예.{예.}

10401 # 씨르 기계, 노시앗말르 트라비(травить)나 한다는게. 싹 약을르 그렇기 씨르.{씨를, 그계 러시아 말로 '트라비(травить, =약물로 없애다)'나 한다는 것이지. 싹 약으로 그렇 게 씨를 (소독하지).}

10401 @ 우리 조, 우리 조선말로는요?{우리 조, 우리 조선말로는요?}

10401 # 조선말르 그 미시라구 헨, 한, 헛으무 좋겐지.{조선말로 그 무엇이라고 했, 했, 했으 면 좋겠는지.}

10401 @ 그러니까 씨를 잘 약으로 인자 약으로 해가지고 약, 약을 해가지고 씨, 씨를 잘 놓는거예요?{그러니까 씨를 잘 약으로 인제 약으로 소독을 해 가지고 약, 약을 해 가지고 씨를 잘 뿌리는 거예요?}

10401 # 그 씨르 약물에다서 기래서 그다음 빼짚로(специально) 이 조이 저기 마대에다서 리.{그거 씨를 약물에다 그래서(=소독해서) 그다음 특별히 이 종이(로 만든) 저기 마대(麻袋)에다.}

10401 @ 예.{예.}

10401 # 열어서. 기래서 그 목하르 시문 조합이라던지 이래 통 가 실어오웁짐. 실어오무 그거 이제 그 목하르 시문 그 씨알까(сеялка) 그 파종기에다서리 그 씨르 열어서 고랑들이르 해서 이래 수뭇지.{넣어서. 그래서 그 목화를 심는 조합이라든지 이렇게 모두 가서 실어 오지요 뭐. 실어 오면 그거 이제 그 목화를 심는 그 파종기(播種機), 그 파종기(播種機)에다 그 씨를 넣어서 고랑에 들여서(뿌려서) 이래 심지요.}

10401 @ 으음.{으음.}

10401 # 그다음 수무구서르 그거 시방 이 깎질르 그거 가깝지. 그 목하르.{그다음 심고서 그거 시방 이 팽이로 그 목화를 가꾸지요. 그 목화를.}

10401 @ 팽이로요?{팽이로요?}

10401 # 깎질르.{팽이로.}

10401 @ 그것을 그때부터 사람이 다 하는 거예요?{그것을 그때부터는 사람이 다 하는 거예요?}

10401 # 사람이.{사람이.}

10401 @ 으음.{으음.}

10401 # 기래 그거 점 목하르 질하자무 아주 힘이 많이[마이] 들구 보, 복잡한일이오. 기래 그담 가을에 가서 기계 수수께끼두 다 *잇, 한번 시머서 두번 피는게 무시겐가:하구 이래짐. 그 무슨 나무생가:.{그래 그거 좀 목화를 짓자면 아주 힘이 많이 들고 복, 복잡한일이오. 그래 그다음 가을에 가서, 그게 수수께끼에도 다 있(는데) 어, 한번 심어서 두번 피는 게 무엇인가? 하고 이러지 뭐. 그게 무슨 남새인가.}

10401 @ 으음.{으음.}

10401 # 기래 아는 사람덜 그 목하라구.{그래 아는 사람들은 그게 목화라고.}

10401 @ 음.{음.}

10401 # 꽃이 피지 먼저.{꽃이 피지 먼저.}

10401 @ 예.{예.}

10401 # 그담에 그 꽃이 떨어지무 **목하송지 그 가라토시 같으게 파라 파란게.{그다음에 그 꽃이 떨어지면 목화 송이 그 가래[楸] 같은 게 파란, 파란 게.}

10401 @ 예.{예.}

10401 # 그런게 달기지. 그다음 기계 또 차차 잇으메서르 벌어지무 그안에 소개 잇습짐.{그런 게(=목화 다래) 달리지. 그다음 그게 또 차차 있다가 벌어지면 그 안에 숨이 있지요 뭐.}

10401 @ 예.{예.}

10401 # 기래 두번 피입지. 기래 음 이 우즈베키스탄서느 기계 목하 무시라하는가이 우리 기계 나셰(наше) 보가스보(богатство) 우리 그 재사이라구 그 목하.{그래 두 번 피지요. 그래 음 이 우즈베키스탄에서는 그 목화를 무엇이라 하는가 하니 우리 그게 우리의 보배, 우리의 재산이라고 (하지). 그 목화.}

10401 @ 으음.{으음.}

10401 # 기래 어터기 목하르 씨 이 쎄쎄(СССР, =Союз Советских Социалистических Республик) 때 어터기 목하르 크게 여겼던지 목하르 뜯을 시기 돌아오게다무 그런 *팅(←통) 어떤 오르간(орган)사 뜯는지 그런 **운으 싹 단계 하구 밤에 일해라.{그래 어떻게 목화를 소비에트 연방 때 어떻게나 목화를 크게 여겼던지 목화를 뜯을 시기가 돌아오게 되면 그런 모든, 어떤 기관이 뜯든지 그런 문을 싹 단계 하고 밤에 일해라.}

10401 @ 으음.{으음.}

10401 # 기래구 낮에는 싹 목하 뜯기르 나갑짐. 야야! 나두 저기 쏘련 공산당원에 들어서 에 엔 첫고자~이 이 당원덜이 꼭[퐁] 먼저 선출서 나가야 뎁지. 하야! 목하르 새나게 뜯었스.{그리고 낮에는 싹 목화 뜯기를 나가지요 뭐. 야! 나도 저기 소련 공산당원에 들어서 맨 첫 고장(=처음 뜯는 곳)에서 이 당원들이 꼭 먼저 앞줄에서 나가야 되지요. 하야! 목화를 직접 뜯었소.}

10401 @ 그러면은요 목화가 이제 꽃이 피고 나서 떨어지면 요만하게 생겨서 잉게 그 올라오는 거 있죠?{그러면은요 목화가 이제 꽃이 피고 나서 떨어지면 요만하게 생겨서 이렇게 그 올라오는 거 있죠?}

10401 # 아!{아!}

10401 @ 그니까 가래토시처럼.{그러니까 가래[楸]처럼.}

10401 # 아아. 그 그런 기계 기계 또 또 이래 벌어져서.{아아. 그 그런 그계(=목화 다래) 그 계 또 또 이렇게 벌어져서.}

10401 @ 또 그걸 그걸 뭐라고 그러?{또 그걸 그걸 뭐라고 그래?}

10401 # 그거 이 저기 이 시방 노시앗말르느 꾸라크(коробочка хлопка)라구서 게 우즈벡말르 꾸라크(коробочка хлопка)라구서리 기래.{그거 이 저기 이 시방 러시아 말로는 '꾸라크(목화 다래)'라고서 그계 우즈베키스탄 말로 '꾸라크(목화 다래)'라고서 그래.}

10401 @ 우리말로는?{우리말로는?}

10401 # 우리말론 그계 무시라구선 말. 거저 그사람덜이 그 목하르 저, 다쭈루 주력하다나이 그사람덜 말으 가주구 우리 썼지. 우리 조선말론 그 무시라 하는지. 기래 그때 그 목하르 뜯을 시기 돌아오게다무 어떤 기과이던지 문으 싹 거더매짐. 기래구서르 그 구역 당단체에서 돌아댁기메서리, 꼬미즈(комиссии) 뎁기메 보지.{우리말로는 그계 무엇이라고 했는지. 그저 그 사람들이 그 목화를 저, 대부분 주력(注力)하다 보니 그 사람들 말을 가지고 우리가 썼지. 우리 조선말로는 그걸 무엇이라 하는지. 그래 그때 그 목화를 뜯을 시기가 돌아오게 되면 어떤 기관이든지 문을 싹 걸어매지 뭐. 그래고 그 구역 당(黨) 단체에서 돌아다니면서, 위원회가 다니며 보지.}

10401 @ 으음.{으음.}

10401 # 어느 기관에서 낮에 목하 **뜯라 아이 나가구 일하는가 하구[yu].{어느 기관에서 낮에 목화 뜯으러 안 나가고 일하는가 하고.}

10401 @ (웃음).{웃음.}

10401 # 기래 목하 뜯라 아이 나가구 *웃 재비 저기 *치 사무실에서 앓아 일하다 짝들기운 날에는 큰 제르 다 벌으 다하압지. 개 나두 거 당책이, 거르만(карман) 잇어 놓오이 하야! 그거 목하르 뜨, 뜯는게 거 목하송치 글이[그티] 뽀다만거 가시같은게 이 소까락 자꾸 질거서 거 이 거저 피, **이거서 그거 피 버얼질지 양손에.{그래 목화 뜯으러 안 나

가고 자기 저기 사무실에 앉아 일하다 딱 들키는 날에는 큰 죄를, 다 벌을 당하지요. 그 래 나도 거 (당원증이 주머니에 있다 보니(=당원이다 보니), 야아! 그거 목화를 뜨, 뜨는 게 그 목화 송이 끝이 뽕족한 거 가지 같은 게 이 손가락을 자꾸 찢러서 이게 그 피, 피 가 별정지 양손에.)

10401 @ 아아. 그래요?(아아. 그래요?)

10401 # 아~아.{응.}

10402 @ 그게 이릉 이릉 이렇게 벌어지면 이렇게 벌어지면 일게 네 조각과 같이 벌어지죠 잉?(그게 이릉, 이릉, 이렇게 벌어지면 이렇게 벌어지면 이렇게 네 조각으로 벌어지죠?)

10402 # 아, 야~아. 기랜데 기 네칸짜리두 잇구 여섯칸짜리두 잇구.{아, 응. 그런데 그 네 칸 짜리도 있고 여섯 칸짜리도 있고.}

10402 @ 음.{음.}

10402 # 고 고 소개 칸카이 요렁기 백엿지.{고 고 숨이 칸칸이 요렇게 박였지.}

10402 @ 예.{예.}

10402 # 기래 기계 목하 잘대에서 그런거는 이래 거저 홀 손으 이래서 제에댕기무 실수없이 빠지지.{그래 그게 목화 잘되서 그런 거는 이렇게 그저 홀 손 이래서 쥐어 당기면 실수 없이 빠지지.}

10402 @ 예.{예.}

10402 # 죄끔 잘아이 텐거는 거기 떠억 붙어서 방저~이 또 나오재영지. 기래 그거 저기 깨깃 이 뜯재애꾸 기래무 두지 부라다 봄 그게 ***식성 잇게 하양 이렇기 그렇기 보기실짐口 [ʃilč'imm].{조끔 잘 안 된 거는 거기 딱 붙어서 방정히 또 나오지 않지 뭐. 그래 그거 저기 깨깃이 뜯지 않고 그러면 뒤 지(地)를 바라 보면 ** 잇게 항상 이렇게 그렇게 보기 가 싫지 뭐.}

10402 @ 아.{아.}

10402 # 기래 밧써 그 책임자덜이 와서 보구[pogʊ] 이거 누기 이렇기 뜯엇는가 하구[ħaxu] 고체 *뜨, 돌아서 고체 뜯게 기래짐. 기래다서리 그다음 목하르 뜯는 기계르 낫엇지.{그 래 밧써 그 책임자들이 와서 보고 이거 누가 이렇게 뜯엇는가 하고 다시 뜯, 돌아서 다시 뜯게 (하고) 그러지 뭐. 그리하고 나서 그다음 목화를 뜯는 기계를 낫엇지.}

10402 @ 음.{음.}

10402 # 기계. 그 목하 뜯는 기계 한번에 두고랑 잼이르 하는것두 잇구 네고랑 잼일 하는것 두 잇구. 뜯긴 잘 뜯지 머. 기랜게 낭게두 많이]마이 질구 따에 떠, 떨어진 게 많구. 기 래 또 따에 떨어지는거 또 좇는 기계 또 노, 나와서. 그 ***심토~이 레지나(резина) 바 키 이래 돌메서리 이릉기 ***짬마겐게 기계 이래 이래 댕기메서르 따엇거 ***심토~잇거 주, 좇어 올레오지. 기래구서는 그 낭겟건 또 그 꾸라ㄱ(коробочка хлопка)르 또 훑는 기계라 하구선 그거 거저 목하 ***유곡으 그 싹 훑어서.{기계. 그 목화 뜯는 기계 한 번 에 두 고랑잡이(=두 고랑의 목화를 잡아서 뜯는 일)를 하는 것도 있고 네 고랑잡이를 하는 것도 있고. 뜯기는 잘 뜯지 뭐. 그런데 목화나무에도 (목화가 뜯기지 않고) 많이 남고 땅에 떨어진 게 많고. 그래 또 땅에 떨어지는 거 또 줍는 기계가 또 나와서. 그거 **이 고무바퀴가 이렇게 돌면서 이렇게 *** 게 그래 이래 이래 닫히면서 땅에 있는 거 **엿 것을 주, 주워 올려 오지. 그리고서 그 목화나무에 있는 것은 또 '꾸라ㄱ(목화송이)'를 또 훑는 기계라 하고서는 그거 그저 목화 **을 그 싹 훑어서.}

10402 @ 아아.{아아.}

10402 # 가주. 기래 훑어서 또 그 예유! 그 어전 기계 이름두 잊어뿌렛스. 거기다서리 그거 또 쏟아떨어서 잣아내게다무 그 목하송치 그 요구아이덴 거느 싹 다른데 나가구 그 셋하얀 목하 또 딸르 나오구. 기래 시반으느 기계화르 해애놓이까데 이전마 많이[마이] 수월하지.{가지고. 그래 훑어서 또 그, 어유! 그 이젠 기계 이름도 잊어버렸어. 거기다 그거 또 쏟아 넣어서 자아 내게 되면 그거 목화 송이 중에서 그 필요 없는 것은 싹 다른 데로 나가고 그 셋하얀 목화가 또 따로 나오고. 그래 시방은 기계화를 해 놓으니까 이전보다 많이 수월하지.}

10402 @ 으음. 그먼 인자 그 목하 인자 그 소, 소개를 다 따다가 그걸 갖다가 말려요 그냥 그대로 해요?{으음. 그러면 인제 그 목화 인제 그 소, 숨을 다 따다가 그걸 가져다가 말려요, 그냥 그대로 해요?}

10402 # 말리와야 데짐. 말리…….{말려야 되지 뭐. 말려야.}

10402 @ 말리와야 데?{말려야 돼?}

10402 # 그거 습기만 잊게다무 그 목하 가리에 저 누게잇는게 거기 들어가게담 불이난단 말이오. 재빌르 거서 달아나메서리.{그거 습기(濕氣)가 있게 되면 그 목화 가리에 저 누기(漏氣) 있는 게 거기 들어가게 되면 불이 난단 말이오. 저절로 거기서 불이 붙어서.}

10402 @ 불이 나요?{불이 나요?}

10402 # 불이, 불이 나짐. 뽀자르(пожар) 나짐.{불이, 불이 나지 뭐. 화재가 나지 뭐.}

10402 @ 어 오오.{어 오오.}

10402 # 기래놓이 그거 자알 말리와서 그 가리르 가리는 것두 그 특별이 거기 대해서 잘 아는 사람덜 거 가리르 가리구. 아아! 복잡하오. 저 목하. 그거 목할래서 그 아랄스크(Арал ьск) 호수 싹 어전 쫴아드째오?{그래 놓으니까 그거 잘 말려서 그 가리를 가리는 것도 그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이 그 가리를 가리고. 아아! 복잡하오. 저 목화. 그거 목화 때문에 그 아랄해가 싹 이젠 줄어들지 않았소?}

10402 @ 왜요?{왜요?}

10402 # 우즈베크스탄서 우즈베크판서 그거 목하 밭으, 더 일구느라구서르 그 시르다리아(Сырда рья)가 아무다리아(Амударья) 그 강물이 아랄스키 모레(Аралское море) 떨어지는데 목하밭에 물으 대느라구서르 그 그 두 가~이 싹 저기 밭으르 폐제나가구 아랄스키 모레(Аралское море) 가 떨어진 물이 없단 말이오.{우즈베크스탄에서 우즈베크스탄에서 그 목화밭을 더 일구느라고 그 시르다리아와 아무다리아 그 강물이 아랄해로 떨어지는데 (=흘러드는데) 목화밭에 물을 대느라고서 그 그 두 강이 싹 저기 밭으로 퍼져 나가고 아랄해로 흘러드는 물이 없단 말이오.}

10402 @ 아아.{아아.}

10402 # 갠 어전 아랄스키 모레(Аралское море) 그전 물이 있던 지계에서 만킬로메뜨르 만한게 시방 들어간 물입지. 기래 그 엠매 쫴앗갠는가 보오. 앞으로 미내, 다른 정쩍 쓰 재애무 미내 마른다 했소.{그게 이젠 아랄해가 그전 물이 있던 지경(地境)에서 10,000킬로미터 정도가 시방 들어간 물이지요(=둘레가 1만 km 줄어들었다는 말). 그래 그 얼마나 줄어들갠는가 보오. 앞으로 아주, 다른 정책을 쓰지 않으면 아주 마른다 했소.}

@ 그 **오츠, 그 호수가요?{그 아랄해, 그 호수가요?}

그 호수.{그 호수.}

@ 굉장히 커, 커요?{굉장히 커, 커요?}

크재애구 기레. 기계 아랄스키 저기 호수는 호순데 커, 지대 커놓이까데 지다이 커놓이까 아랄스키 모레(Аралское море)라 하짐. 바다라구 아랄스키(Аралское) 바다라구 그.{크 잠고 그레. 그저 아랄스키는 저기 호수는 호수인데 커, 지대(地帶)가 크니까 지대(地帶)가 크니까 '아랄스키 모레(море)'라 하지 뭐. 바다라고 '아랄스키(Аралское) 바다'라고 그.}

@ 아, 모레(море)란 말이 바다란 말이에요?{아, '모레(море)'라는 말이 바다라는 말이에요?}

모레(море)라구. 바다라구 했지.{'모레(море)'라고. 바다라고 했지.}

@ 러시, 로시앗말로?{러시, 러시아 말로?}

야~ 오제르(озеро)느 오제린(озеро)게 커놓이까데 바다라구서리 기렛짐.{응 호수는 호수인데 커 놓으니까 바다라고 그랬지 뭐.}

@ 오오.{오오.}

기랜게 어전 싹 싹 쫓아들었스.{그런데 이젠 싹 싹 쫓아들었어.}

10402 @ 아아. 그러면은 그 우즈벡스탄에서는 소캐가 굉장히 많이 났, 나와요?{아아. 그러면은 그 우즈벡스탄에서는 숨이 굉장히 많이 나, 나와요?}

10402 # 전체르 저기 우즈벡스탄으 그 목할르 전체르 처, 쳇엇짐. 저 우즈벡스탄.{전체를 저기 우즈벡스탄을 그 목화로 전체를 처, 쳇엇지 뭐. 저 우즈벡스탄.}

10402 @ 오오. 그러면 인제 목화농사는 목화를 그렇게 그렇게 짓고 나면 인자 그 목스, 목화는 씨, 씨 빼고 그 목화만 따로 빼가지고 실만드는건 사람들이 옛날에 안 만들었어요? {오오. 그러면 인제 목화 농사는 목화를 그렇게 그렇게 짓고 나면 인제 그 목화, 목화는 씨, 씨 빼고 그 목화만 따로 빼 가지고, 옛날에 사람들이 실은 안 만들었어요?}

10402 # 그 기계 싹 가주구 하압지. 기계.{그 싹 기계를 가지고 하지요. 기계.}

10402 @ 그문 옛날에 처음에 와 오, 오셨을 때도 기계로 했어요?{그러면 옛날에 처음에 와 오셨을 때도 기계로 했어요?}

10402 # 처음엔 모름지 어터게 했는지. 시반 싹 그 저기 목하 그 소오 지방 싹 오부라보뜨까 (обработка)야 싹 빼짤느(специальный)…….{처음에는 모르지요 어떻게 했는지. 시방은 싹 그 저기 목하의 그 숨을 시방 싹 가공하는 것이야 싹 특별히…….}

4.2. 박블라디미르의 벼농사

<파일 정보>

kk_bs_09: 구술 발화03(농경생활(벼농사), 의생활(목화농사, 누에치기))

조사자: 소강춘

전사자: 김수현, 곽충구

주 제보자: 박블라디미르(남, 1928년 3월 11일생)

보조 제보자: 안타샤(여, 1929년 1월 21일생)

주소: 중앙아시아 키르기스스탄 공화국

조사장소: 중앙아시아 키르기스스탄 공화국

조사일시: 2004. 12. 14.~12. 28.

10302 @ 그문 베질은 베질은 언제 해보셨어요?{그러면 벼농사는 벼농사는 언제 해보셨어요?}

10302 # 내?{나?}

10302 @ 예.{예.}

10302 # 내 베질의 사십윤, 육년 칠년 팔년도 삼년 도~안으 베질 했짐.{내가 벼농사를 1946, 1946년 1947년 1948년 삼 년 동안을 벼농사를 했지 뭐.}

10302 @ 그면 베질은 그때 어뜨기 했어요? 베질을 베질헐림, 여기 베질허는 방법 좀 설명 좀 해줘 봐요.{그러면 벼농사는 그때 어떻게 했어요? 벼농사를 벼농사를 하려면, 여기 벼농사 하는 방법 좀 설명 좀 해줘 봐요.}

10302 # 그때느 그때 어터게 했는가~이 그 논답우 짓는다구. 이 독우 만들엇습지.{그때는 그때는 어떻게 했는가 하니 그 논[잡]을 짓는다고. 이 독을 만들엇지요.}

10302 @ 네.{네.}

10302 # 독우 만들어서 이렇기 거저 한독 답이 함 신펡방메뜨르(метр)두 데구 함 반팡방메뜨르(метр)두 데구. 고통기 작게 자름자름해서 거기다 그다음번에[그다음버네] 물으 영구서르 번지질한다하구[ру] 웨르 메와서 그 녁:죽한 그런걸르 그 바닥으 물밑으 이래 반:드상게 이렇기 공급지무.{독을 만들어서 이렇게 거저 하나의 독으로 지어진 답(沓, = 논)이 한 50제곱미터도 되고. 고통기 작게 자름자름해서 거기에다 그다음 번에 물을 넣고서 번지질을 한다 하고 소를 메워서 그 녁죽한 그런 것으로 그 바닥을 물 밑을 이래 반듯하게 이렇게 고르지요 뭐.}

10302 @ 네.{네.}

10302 # 기래구서르 그 강짓물이 그 일어난데다 그담 손을르 씨르 주구 기랫지. 갠데 시방 어전으 베질한것두 다쭈루 기계화르 하구. 따아 반:드상게서르 싹 그룽기 만들어놓구서르 그런 베밭이 한 답이 몇 헥타르(гектар)씨 데엿지.{그리고서 그 흙탕물이 그 일어난 데에다 그다음 손으로 씨를 주고 그랬지. 그런데 시방 이제는 벼농사를 하는 것도 대부분 기계화가 되어 기계로 하고. 땅을 반듯하게 싹 그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논이, 한 답이 몇 헥타르씨 되지요.}

10302 @ 으음.{으음.}

10302 # 기래노이 거저 그거 콤바인(комбайн) 들어가서 그저 마음대르 이렇기 돌아댕기매 가슬두 하구. 기래구 씨르 치는 거느 물 아이 영구서르 마른따에다서리 비행기 날아댕기 메서리 그 여기 꾸꾸루지 꾸꾸르스 한 그 비행기 두날개짜리 그런 비행기 빼짱느(специальный) 이 ***노쩨깡기서 쓰는 비행기 여기 있습니다. 그 비행길르 씨르 비행길르 치구. 씨르 다 친다음에 쳐놓구 그담번[담뻐]에 물으 대지.{그리해 놓으니 그저 그거 콤바인이 들어가서 그저 마음대로 이렇게 돌아다니며 추수도 하고. 그리고 씨를 치는 거는 물을 안 넣고서 마른 땅에다가 비행기가 날아다니며, 그 여기 그 꾸꾸루지 꾸꾸르스라 하는 그 비행기, 두 날개를 가진 그런 비행기가 전적으로 (치는데), 이 ***노천 경기(?)에서 쓰는 비행기가 여기 있습니다. 그 비행기로 씨를 치고. 씨를 다 친 다음에 쳐 놓고 그 다음 번에 물을 대지.}

10302 @ 아아::.{아아.}

10302 # 이전에는 물으 먼저 대구 기래구서르 씨르 첫뎃짐. 기래 그 씨 뜬다해서[뜬다개서] 씨르 하이틀 물에다서르 장과뒸다서리 그다음번 퍼진 다음에 씨르 쳇지. 거저 마른거 치게 다무 씨 뜬다구서리.{이전에는 물을 먼저 대고 그러고서 씨를 쳤었지 뭐. 그래 그 씨가 뜬다고 해서 씨를 한 이틀을 물에다 담가 두었다가 그 다음번 (물에 담가 둔 씨가) 퍼진 다음에 씨를 쳤지. 그저 마른 거 치게 되면 씨가 뜬다고 해서.}

10302 @ 예.{예.}

10302 # 갠게 시방 내 베질 아이해두 그 베질한 뜨, 그 거그서 온 분네덜까 물어봄 시방은 베질하기 그렇기 수월하다구. 그저 그전에는 낫으 가주구서르 손을르 싹 그거 가슬으 가을하구 기랫는데 시방으느 콤바인(комбайн) 거저 그 독이, 답이 크다나이 콤바인(комбайн) 거저 빙:비~ 돌아댕기메서리.{그런데 시방 내가 벼농사를 안 해도 그 벼농사를 짓는 그 거기서 온 분네들과 물어보면 시방 벼농사를 짓기가 그렇게 수월하다고. 그저 그전에는 낫을 가지고서 손으로 싹 그거 추수를 추수하고 그랬는데 시방은 콤바인, 그저 그 독이, 논이 크다 보니 콤바인이 그저 빙빙 돌아다니면서.}

10302 @ 으음.{으음.}

10302 # 싹 빼구 기랫.{싹 베고 그랬(지요).}

10302 @ 으음. 그먼 옛날에 했을 땐 인자 그 그룽기 할때 췌가 그 그 메고다니는거 그걸 그걸 뭐라 그랬어요?{으음. 그러면 옛날에 했을 때는 인제 그 그렇게 할 때 소가 그 그 메고 다니는 거 그걸 그걸 뭐라 그랬어요?}

10302 # 그거 번, 번지라구서르 고렛사람덜은.{그거 번, 번지라고서 고려 사람들은.}

10302 @ 번지.{번지.}

10302 # 버, 번지. 번지라구서.{버, 번지. 번지라고서.}

10302 @ 그먼 번지질 허기 전에 먼저는 뭐, 뭘해야 데요?{그러면 번지질하기 전에 먼저 뭐, 뭘 해야 되요?}

10302 # 번지질.{번지질.}

10302 @ 땅을, 땅을 잉게 잉게 잉게 파야잖아?{땅을, 땅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파야 하잖아?}

10302 # 트랙톨(трактор)르 싹 그 가대길르 싹 갈아놓습짐.{트랙터로 싹 그 가대기로 싹 갈아 놓지요 뭐.}

10302 @ 트랙또르가 없을 때는 뭘로 했어요?{트랙터가 없을 때는 뭘로 했어요?}

10302 # 손을르 깍지르 가주구 팟습지. 깍지르 가 파재애무 그 내 아깨 *그랫스, 세가대길르.{손으로 팽이를 가지고 팟지요. 팽이를 가(지고) 파지 않으면 그 내가 아까 그랬던 것처럼, 쇠 가대기로.}

10302 @ 세가대기로?{소가 끄는 가대기로?}

10302 # 저거 췌르 너어씨 메와서 췌가대길르 따아 번젓짐.{저거 소를 넷씩 메워서 소가대기로 땅을 파 었었지 뭐.}

10302 @ 췌가다기 혹시 보셨어요? 췌가, 가다기 보셨냐고?{쇠 가대기 혹시 보셨어요? 쇠 가, 가대기 보셨냐고?}

10302 # 그거 빼짚느(специальный) 그렇기 조합에서 그 야장칸에서 그렇기 또 가대기르 그렇기 특별이 만들었지. 거저 한나짜리 가대기르. 저 트랙또르(трактор)느 이 일구야들,

열두꺼지 기랜데 기찍에느 쉼가대기 웨가대기르 쉼너이서 젓두 제에구 끄스지. 기래 이래 따아 번제농짐.{그거 특별히 그렇게 집단농장에서 그 대장간에서 그렇게 또 가대기를 그렇게 특별히 만들었지. 그저 (날, 보습이) 하나짜리 가대기를. 저 트랙터는 (땅을 파 얹는 날이) 이 일고여덟 개, 열두 개까지 있지. 그런데 그 때에는 소 가대기, 외가대기를 소가 넷이서, 그것도 겨우 끝지. 그래 이렇게 땅을 파 얹어 놓지 뭐.}

10302 @ 으음. 그러면 가대기 앞 밑에가 이릉기 이릉기 쇠가 있죠? 쇠가 붙어있죠이~?{으음. 그러면 가대기 앞 밑에 이렇게 이렇게 쇠가 있죠? 쇠가 붙어있죠?}

10302 # 야.{응.}

10302 @ 그 쇠르 뭐라고 불러요?{그 쇠를 뭐라고 불러요?}

10302 # 트랙토르(трактор)에 잇는거 트랙토르(трактор) 가대긴 그걸 레미크(лемех)라구 하는데 고렷사람 말은 게 미시긴두 알수 (웃음).{트랙터에 있는 거 트랙터의 가대기는 그걸 ‘레미크’(보습)라고 하는데 고렷사람 말은 그게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웃음).}

10302 @ 고렷사람 말로 아 아 아 아. 그뎨 인자 그렇게 해서 잃기 이릉기 땅을 번저놓으면 거다 물을 대죠이~?{고려 사람 말로 아 아 아 아. 그러면 인제 그렇게 해서 이렇게 땅을 번저 놓으면 거기다 물을 대지요?}

10302 # 야 물으 대지.{응 물을 대지.}

10302 @ 물을 대고 나면.{물을 대고 나면.}

10302 # 그 번저논 담에 독으 만들어야 데지.{그 흙을 파 얹은 다음에 놓은 다음에 독을 만들어야 되지.}

10302 @ 독으 만들어요?{독을 만들어요?}

10302 # 독으 만들어서 이릉기 네물 뺨드상게 물으 가다 열게서리.{독을 만들어서 이렇게 네모 번듯하게 (하지). 물을 가두어 놓게.}

10302 # 독으 만들어야 데지. 독으 만든 담에 그담 논코이라: 하구서르 그 독으 만든 그 한 짝 여파레다가 잉게 또 코오 만들지 물이.{독을 만들어야 되지. 독을 만든 다음에 그다음 물꼬라 하고서 그 독을 만든 그 한쪽 옆에다 이렇게 또 물꼬를 만들지 물이.}

10302 @ 예.{예.}

10302 # 기래구 거기다 물으 대지.{그리고 거기다 물을 대지.}

10302 @ 물 대죠, 그쪽에?{물 대죠, 그쪽에?}

10302 # 야야. 물으 대구서르 그다음 그 번지질하구 기래구 씨르 치지. 씨르 치구서르 그 물으 그 바닥에 어, 높우구 얹구 그거 조절하길래서 그 논코이다서리 또 딸르 그런 짚우 이래 묶어서 *노구 코이다서 또 코오 놓지. 그거 농재애무 물에 싹 그 밀기와 달아나지, 또. 아이구! 일이 많았어, 그전에. 시반 이야기르 한거 들으이까 무스. 거저 놀음질이나 한가, 한가집 베질하는게.{응. 물을 대고서 그다음 그 번지질하고 그리고 씨를 치지. 씨를 치고서 그 물을 그 바닥에 어, 높고 얹고 그거 조절하기 위해서 그 물꼬에다 또 따로 그런 짚을 이래 묶어서 놓고 물꼬에다 또 코를 놓지. 그거 놓지 않으면 물에 싹 그 밀러 달아나지, 또. 아이고! 일이 많았어, 그전에. 시방 이야기를 한 거 들으니까 뭐 (그렇지만). 그저 노름질이나 한가(지), 한가지지요, 벼농사를 짓는 게.}

10302 @ (웃음). 그러면은 한 오십평방정도면은 그 몇 몇 마대나 했어요?{(웃음). 그러면은 한 50평방미터 정도면 그 몇 몇 마대나 (수확을) 했어요?}

10302 # ***더어크스. 내 (헛기침) 열다섯 쏘뜨까(сотка)르 오고로드(огород) 가진 데서 한

또(тои)이 낮으니까데 ***더어크 롬 한 오십평방메뜨르(метр) 텐데서 거저 한마대 바이나 이래 이렇기 나짐. 것두 잘텐게 잇구 못뵈때 못데무 미내 수확이 없구. (헛기침).{**** 내가 (헛기침) 15소트카의 텃밭을 가진 데서 1톤이 낮으니까 저 **** 한 50평방미터가 되는 데서 그저 한 마대 반이나 이래 이렇게 나지 뭐. 그것도 잘 된 게 있고 못 될 때 못 되면 전혀 수확이 없고. (헛기침).}

10302 @ 그러면 한마대정도가 그때 돈으론 얼마나 데요?{그러면은 한 마대 정도가 그때 돈으로는 얼마나 데요?}

10302 # 모르짐. 얼마짜린지. 팔재앵다나이. 게 그 저기 조합에서.{모르지 뭐. 얼마짜리인지. 팔지 앵다 보니. 그게 그 저기 집단농장에서.}

10302 @ 아아. 조합에서.{아아. 집단농장에서.}

10302 # 우리 조합에서 우리 이 기관일 하는 사람덜으 그 터전처리. 이 일백[일백] 저기 열다섯 쏘뜨까(сотка)무 그게 일천오백평방메뜨르(метр)갓지. 그만한 따아 거저 주지.{우리 집단농장에서 우리 이 기관일을 하는 사람들을 그 터전(텃밭)처럼. 이 100, 저기 15 소트카면 그게 1,500 평방미터갓지. 그만한 땅을 거저 주지.}

10302 @ 예 예.{예 예.}

10302 # 베르 심어 먹으라구. 기래 재빌르 그거 거그다 수머서 매달아서 수확거두무 으 밥거린 벤벤하지 무스.{벼를 심어 먹으라고. 그래 자기 스스로 그거 거기에다 심어서 매달려서 수확을 하면 어 밥거리는 넉넉하지 뭐.}

10302 @ 아:: 그 다 재빌르 다 하는 거여?{아 그것을 다 자기 스스로 다 하는 거야?}

10302 # 재빌르 싹.{자기 스스로, 싹.}

10302 @ 구러면 온제 낮에 가서 그 단위(單位)에 그거 일하다가 언제 가서 또 농사 저?{구러면 언제 낮에 가서 그 직장에 일을 하다가 언제 (자기 밭에) 가서 또 농사를 지어?}

10302 # (웃음) 기래두 달아댕기메서리 저 우리 시반 저 노친 젊어서 낮에느 그 전야~에 나가서 목하밭에서 일하구 지약에느 구락부에 와서 그 끼노(кино)르 논, 영화르 논 노는 데서 폐끼르 팔구. 표르 팔구 기랏짐.{(웃음) 그래도 뛰어다니면서 저 우리 시방 저 노친이 젊어서 낮에는 그 전야(田野)에 나가서 목화밭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클럽에 와서 그 영화를 상영하는, 영화를 상영한, 상영하는 데서 표를 팔고. 표를 팔고 그랬지 뭐.}

10401 @ (웃음) 그러면은. 그 목하 같은 것도 많이 따면은 많이 딴 만큼 돈 더 줘요?{(웃음) 그러면은. 그 목화 같은 것도 많이 따면 많이 딴 만큼 돈 더 줘요?}

10401 # 그 한 킬로(кило)에 까금잇지. 뱃글자란거. 저 목하 장진 목하 한송치 일곱그람(грамм)우나 제:엘 많이[마이] 가서 아홉그람(грамм) 가지 무게.{그 어 1킬로에 가금(價金, =값)이 잇지. 뱃 글자(=얼마)라는 거. 저 목화 쟁인 목화 한 송이가 일곱 그람이나 제일 많이 무게가 나가면 아홉 그람이 (나)가지, 무게가.}

10401 @ 예 예.{예 예.}

10401 # 기랜데 우리 기관서 일한 사람이 할릴에 재비 일은 일대르 하메 할릴에 평균 쉰킬로(кило)만:한 거 뜯어야 텐다지 목하르. 노르마(норма) 사단(задание)이 그렇지.{그런데 우리 기관에서 일하는 사람이 하루에 자기 일은 일대로 하며 하루에 평균 50킬로그램 정도를 뜯어야 된다 하지, 목화를. 임금을 받기 위한 과제가 그렇지.}

10401 @ 음.{음.}

10401 # 기래 그거 쉰킬로(кило)르 뜯자무 아홉그람(грамм)이라 **뱃솔찌르(←뱃송치르) **

뜨춤 구십그램(грамм) 걷어 천소~이, 일천한 오백 송치르 뜯어야 한킬로(кило) 한킬(кило)로 데나마나하오.{그래 그거 50킬로그램을 뜯자면, (한 송이가) 9그램이니 *** 뜯으면 90그램을 거두어, 천 송이, 1,000송이 하고도 한 500송이를 뜯어야 1킬로, 1킬로가 되나 마나 하오.}

10401 @ 어어.{어어.}

10401 # 기래 쉰킬로(кило)르 뜯자무 뿔천송치르 빼앤, 데야 데갯는가 궁닐 해봐! 아이구::! 기딱차오. 기래 내 너무:: 주력하구 멍심하구서르 기래. 그 저기 그 브리가질(бригадир) 질한 그분네 **나른 생각해서 기랫갯지. 야아! 제 내 저기 기관에서 일 잘해서.{그래 50킬로그램을 뜯자면 몇 천 송이를 빼야 되겠는지 생각을 해 봐! 아이고! 기가 차오. 그래 내가 너무 (일에) 주력(注力)하고 멍심하고서 그래(=일을 해). 그 저기 그 작업반장 일을 한 그 분네 나를 생각해서 그랬겠지. 야! 내가, 당신이 저기 기관에서 일을 잘해서.}

10401 @ 네.{네.}

10401 # 그 세바키짜리 모터차ㄷ(мотоцикл) 우라우(Урал) 내.{그 세 바퀴짜리 오토바이 우라우('우라우'는 상표(商標)임)를 내.}

10401 @ 네.{네.}

10401 # 그런 뽀레미(премия)르 탕땃습지. 기래 그 우라우 오토바이를 타구서 저 목하두 아츰 누기에 나가 뜯으무 손두 더 아프구 무게두 좀 더 가지.{그런 상(賞)을 탕엇지요. 그래 그 우라우 타고서 저 목화도 아침 누기(漏氣)에 나가 뜯으면 손도 더 아프고 무게도 좀 더 나가지.}

10401 @ 에에에.{에에에.}

10401 # 기애 이 정슴때는 무게두 더가구 그: 말라서 그 소, 손 자꾸 질거빠리짐. 기래 새박이무.{그래 이 점심 때는 무게도 더 나가고 그 말라서 그 소, 손을 자꾸 찢러 버리지 뭐. 그래 새벽이면.}

10401 @ (웃음){(웃음).}

10401 # 꼴호즈(колхоз) 헤원덜 하나두[하나뚜] 아이 나오는데 새박임 밭써 그 어느 모태르 나르 자털 지적해달라구서. 기램 그 그 브리가질(бригадир) 어드, 어느 모태서 뜯으라구서. 기래 그 자리에 가서 뜯지. 기래 그야~아르 그렇기 뜯으니까 한번 기래짐. 야아! 제 그렇기 열서~어 쓴게 내 보기 과연 아깝다구 했으무 좋겠는두. 기래 기래지.{꼴호즈 회원들이 하나도 안 나오는데 새벽이면 벌써 그 어느 모퉁이를, 나에게 자리를 지적해 달라고서. 그러면 그 그 작업반장이 어디, 어느 모퉁이에서 뜯으라고 하지. 그래 그 자리에 가서 뜯지. 그래 그 모양으로 그렇게 뜯으니까 한번 그러지 뭐. 야아! 당신 그렇게 열성(熱誠)을 보인 것이 내 보기에 과연 아깝다고 했으면 좋겠는지. 그래 그러지.}

10401 @ 예.{예.}

10401 # 어전 기래지 말구 췌꿈 뜯구서르 그 밤이무 그 목하르 뜯는 기계 목하르 뜯어서는 또 그 트락토르(трактор) 수, 술에다서리 그거 이래 기켈르.{이제 그러지 말고 조금 뜯고서 그 밤이면 그 목화를 뜯는 기계(로) 목화를 뜯어서는 또 그 트랙터의 순가락(=버킷)에다 그거 이래 기계로.}

10401 @ 음.{음.}

10401 # 이 번져서 그 술게 넘게 싫짐[냉게실짐].{이 뒤엎어서 그 버킷에 넘겨 신지 뭐.}

10401 @ 예.{예.}

10401 # 게 그 싫던 자리에 더어서너킬로(кило)씨 그 목하 흐르지 늘쌍.{그래 그 신던 자리에 뒤서너 킬로그램씩 그 목화가 흐르지 늘.}

10401 @ (웃음).{(웃음).}

10401 # (웃음). 기래 그분네 기래짐. 모토찐(мотоцикл) 타구 땡기메서리 새벽에 헤원덜이 팔호즈 헤원덜이 나오기 전에 그 목하르 흘린거 그거 짝 주, 좇어 가지라구서. (웃음).{(웃음). 그래 그 분네 그러지 뭐.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새벽에 회원들이, 콜호스 회원들이 나오기 전에 그 목화를 흘린 거 그거 짝 주, 주워 가지라고. (웃음).}

10401 @ (웃음).{(웃음).}

10401 # 그분네 내 너무: 열서~[열써~] 내이까데 야 날 불싸해서 기랫지.{그 분네 내가 너무 열성(熱誠)으로 하니까 응 나를 불쌍하게 여겨서 그랬지.}

10401 @ 예.{예.}

10401 # 기래 내 그 그분네 보리스라구 이림이. “아이! 보리스 선생님! 손으르 뜯은것가 기계르 뜯은게 게 또 따오, 발써.”{그래 내 그 그 분네 이름을 보리스라고 하는데. “아이! 보리스 선생님 손으로 뜯은 것과 기계로 뜯은 게 이렇게 또 다르오, 벌써.”}

10401 @ 아아::.{아아.}

10401 # 거칠게, 내 보기에 발써 따오. 아 기래 그 저 저울에서 그 받는 사람덜이 그 기계 뜯은게 항 알긴데 저기 아 그 짝들기무 그 어떤 수친가 하구서 기래. 일없다구 일없다구. 내 시킨 야~아르 하라구. 디끝은[디끄든] 내 담당하갸다문서.{거칠게, 내가 보기에 벌써 다르오. 아 그래 그 저 저울에서 그 (목화 뜯은 것을) 받는 사람들이 그 기계가 뜯은 것은 항시 알 수 있는데 저기 아 그 들키면 그 어떤 수치(羞恥)인가 하고서 그래. 괜찮다고, 괜찮다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고. 뒤끝은 내가 담당하갸다문서.}

10401 @ 예::.{예.}

10401 # 기래 그후부터는 슬금 새벽에 나가서느 그 어떤 때느 데 밤에 싫다나이 어떤 때느 대애여섯킬로(кило)씨 떨어진 자리 잊지무.{그래 그 후부터는 슬금슬금 새벽에 나가서느, 그 어떤 때는 밤에 데신다(=어설피 신다) 보니 어떤 때는 대애섯 킬로씩 떨어진 자리가 있지 뭐.}

10401 @ 오오.{오오.}

10401 # 기래 그거 커우대애다 열어서느 그다음 그 받는 사람 나오게 다무 이래 바치짐. 개무 그사람 무슨 무스 득이 따라서 급, 손으르 뜯었지 무스 그 그렇기 신척하겠소. 거저 기래 저울에 떠서 쏟아놓구 쏟아놓구. 기래 마감 녀레 데게 걸씨르 했어. 그 브리가질(бригадир)으 그렇기 (웃음).{그래 그거 마대(麻袋)애다 넣어서는 그다음 그 받는 사람이 출근하면 이래 바치지 뭐. 그러면 그 사람이 무슨 무슨 득이 따라서(자기에게 무슨 이득이 있다고) 급(을 따지겠소), 손으로 뜯었지 뭐 그 그렇게 신척하겠소. 그저 그래 저울에 달아서 쏟아 놓고 쏟아 놓고. 그래 막판에는 되게 빠르게 했소. 그 작업반장이 그렇게 (웃음).}

10401 @ (웃음) 으음.{(웃음) 으음.}

10401 # 그러재애무 그러재애무 아이 땡땡소. 그때 까레 열일에 한번씨 그런 당훼이르 저 구역에서 하는데 그 목하 사단(задание)이르 하지 못한 당원덜은 당책이 왔다갔다 했소. 기래 그 귀적에는 그 소련 공산당원덜이 당책으 짹히우는거느 짹히우게 데무 그건 죽은 목숨이나 한가지라구 기랫어. 기래 그 당책으 짹히우지 말자구서르, 야아! 애두 썼어 (웃

음).{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안 됐었소. 그때 시기에 열흘에 한번씩 그런 당(黨) 회의를 저 구역에서 하는데 그 목화를 뜯는 과제를 완수하지 못한 당원들은 당원증(黨員證)이 왔다 갔다 했소. 그래 그 그 때에는 그 소련 공산당원들이 당원증을 잡히는 것은 (당원증을 잃는 것은), 잡히게 되면 그건 죽은 목숨이나 한가지라고 그랬어. 그래 그 당원증을 잡히지 말자고, 야야! 애도 쫓어 (웃음).}

@ 음. 그러면 당원이 데면: 소련 공산당 당원이 데면 무슨 뭐 좀 혜택이 있어요?{음. 그러면 당원이 되면 소련 공산당 당원이 되면 무슨 뭐 좀 혜택이 있어요?}

거저 벌으 받을 직에는 이 비당원마 곱을 버, 벌으 더 받습지. 그러나 위촌 **데겍스(←데 갓습지). 위초이 잊지무. 모든 방면에 들어가서 당원덜이 말하무 그거 실속으르 싹 믿지.{그저 그 벌을 받을 직에는 이 비당원보다 곱으로 벌을 더 받지. 그러나 위신(威信)은 있겠지요. 위신이 있지 뭐. 모든 방면에 들어가서 당원들이 말하면 그거 실속 있게 싹 믿지.}

@ 으음. 그거 당원은 공자(工資)를 많이 받는 건 아니고?{으음. 그거 당원은 임금을 많이 받는 건 아니고?}

아이구 (기침).{아니고 (기침).}

@ 그면 저 이렇기 뭐 일 같은거 하면은 좀 빨리 올라, 올라가기도 하고 그래요?{그러면 인제 이렇게 뭐 일 같은 거 하면 좀 빨리 올라, 올라가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 폐단두 잊지무. 그런 폐단두 많짐.{그런 폐단도 있지 뭐. 그런 폐단도 많지 뭐.}

@ 당원들이니까.{당원들이니까.}

당원들이. 기래 **기재느 쏘련공산당 이름 뜨게데무 그 당책이 잇게, 잇게 데무 밧써 실속 을르 예겍지. 그 사람으게는 거짓말이 없구 그 그렇다는거. 기래 그 당원으 그렇기 믿지 밧 써.{당원들이. 그래 그때는 소련 공산당의 이름이 뜨게 되면 그 당원증(黨員證)이 잇게, 잇게 되면 밧써 실속 있는 것으로 여기지요. 그 사람에게는 거짓말이 없고 그 그렇다는 거. 그래 그 당원을 그렇게 믿지 밧써.}

@ 으음. 그면 당원이라고만 내노면 사람들이 함부로 앓겠네?{으음. 그러면 당원이라고만 내놓고 다니면 사람들이 함부로 하지 앓겠네?}

내 어떤 일이 잇었는가이 (기침) 그 직[직]에 이 쏘련때 여기 시방 첫짜아들이 여기 이실 직에 내 저 따쉬겐뜨서 여기르 비행기에 늘쌍 *앓 덩겍지. 기래 한번 (기침) 따쉬겐(Ташкент) 갓다와서르 올직에 따쉬겐(Ташкент) 아에로뽀르뜨(аэропорт) ***벌 떡 비행자~ 와서 비행기 뜯거 지달갓는데 어터끼 사램 많이[마이] 많에서 분자스럽운지 그 말하는게 듣기재 일지. 내 앓아 갈 비행기 어느때 어쩐다는거. 기래 그 소리 듣자구서르 그 지봉 우에다서리 그 루뽀(рупор)르 달아맨거 거기 말으 듣자구 한테에 나와서 그 찌리차스(через час) 스까 메이까(скамейка) 잇는데르 거기 가 사~이 잇는데 앓아서 기랜데. 아이 밀리쥌니라 쉼르잔뜨(милиционный сержант) 어, 뜯 와서 내 그직에 담배르 피왓지. 담뽀 피우는데 내 앞 에 그 담배꼬토리덜 가뜯 이래 피운거 제에뿌린게 잇짐. 기래 그 따아 보구 나르 보구 하더 이 이 따에 담배꼬토리 이거 제에 들라구서 기래짐. 기래 내 미시 들갓는가구. 기래 들라구서르 밧려~하짐. 아이 들었짐. 기래 그때 까레 여기 아나싸라구서르 그 고렷사람이 그게 이 그 역두부 같안 그런 풀이 시반 여기. 저기 예구! 기계 여기서 그풀으 무시기라 하던가. 그 풀이 그게 그 담배애다서르 말아서 이 젊운아덜이 제에 피웠짐. 켄 시반 나르꼬쥌(наркотики) 나르꼬쥌(наркотик) 하는. 나르 그거 피우는가 해서 야 그거 내 피운 담배꼬토리덜 그 거 들라구서 기래짐. 기래 아이 들구 기래이. 아이 그 멀재일게 밀리쥌(милиция)덜 카인테

거기르 나르 붙들어가오. 거기 가서 해결하자구서.{내가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니 (기침) 그 때에 이 소련 때 여기 시방 첫째아들이 여기 있을 적에 내가 저 타슈켄트에서 여기로 비행기를 늘 타고 다녔지. 그래 한번 (기침) 타슈켄트에 갔다가 올 적에 타슈켄트 공항에, 딱 비행장에 와서 비행기가 뜰 때를 기다렸는데 어떻게나 사람이 많이, 많아서 시끄러운지 그 말하는 게 들리지 않지. 내가 타고 갈 비행기가 어느 때 어찌한다는 거. 그래 그 소리를 듣자고 그 지붕 위에다 그 확성기를 달아뒀는데 거기서 나오는 말을 듣자고 한데에 나와서 1시간이 지나도록 그 벤치가 있는 데로 가서, 의자가 있어 앉아서 있는데 그런데, 아니 민경대(民警隊) 중사(中士)가 어, 딱 와서, 내가 그 때 담배를 피웠지. 담배를 피우는데 내 앞에 그 담배꽂초들이 가득, 이래 피운 거 내던진 게 있지 뭐. 그래 그 민경이 땅을 보고 나를 보고 하더니 이 땅에 있는 이 담배꽂초를 집어 들라고 그러지 뭐. 그래 내가 무엇 때문에 들겠는가 했지. 그래 들라고 명령하지 뭐. 그래도 안 들었지. 그래 그때 무렵에 여기 아나싸라고 그 고려사람이 그게 이 그 역삼(=뜰에 나는 삼) 같은 그런 풀이 시방 여기, 저기 예구! 그게 여기서 그 풀을 무엇이라 하던가. 그 풀이 그게 그 담배에다 말아서 이 젊은 아이들이 쥐어 피웠지 뭐. 그게 시방 마취제(+대마초 따위와 같은 마약을 의미) 하는 것이지. 나에게, 그거 피우는가 해서 응 그거 내가 피운 담배꽂초인 것이니 그거 들라고 그러지 뭐. 그래 안 들고 그러니, 아니! 그 멀지 않게 민경(民警)들이 머무는 방이 있는데 거기로 나를 붙들어 가오. 거기 가서 해결하자고서.}

@ 으음.{으음.}

기래 아 비행기는 당금 뜨겠는데 기래 내 그러그렇다 하이까데 아 곧이듣소[고지듣쏘]? 아 기여코 어, 밀리쯔(милиция)르 가져. 기래 그담 피뚝 궁니르 했지. 당책으 안 데 거르마이(карман)서 꺼내내서 이래 척 내애드렸짐. 기래이까 에뜨바 무쓰라이바이뜨개네(этого ****). 척 보고서 이래 손 이래매서리 용서르 빌지 무스. 게 그럴 직[찍]에느 그 당책이 어 트 값이 잇는가 보오.{그래 아, 비행기는 당금(當今, =이제 바로) 뜨겠는데 그래 내 그러그러하다 하니까 아 곧이듣소? 아 기여코 어, 민경대에 가자. 그래 그다음 순간 궁리를 했지. 당책(黨冊, =당원증)을 안 속 주머니에서 꺼내서 이래 척 내드렸지 뭐. 그러니까 이것은 ****. 척 보고서 이렇게 손을 이러면서 용서를 빌지 뭐. 그게 그럴 적에는 그 당원증(黨員證)이 얼마나 값이 잇는가 보오.}

@ 으음.{으음.}

(기침){(기침).}

@ 글면은 그으 인자 쏘련 공산당이 쏘련이 끝나고 나서 인자 이 끼르기즈스탄으로 잉게 따, 나오는 나오고 나면은 끼르기즈스탄 공산당으로 따로 이렇게 당원이 넘어왔어요?{그러면은 그 이제 소련 공산당이, 소련이 끝나고 나서 이제 이 키르기스스탄으로 이렇게 따, 나오는 나오고 나면 키르기스스탄 공산당으로 따로 이렇게 당원이 넘어왔어요?}

저기 그 직[찍]에느 쏘련공산당~이무 다아 한가지지. 끼르기즈구 무스 까작스판이구 우즈베크스판(Узбекистан)이구. 그러나 내 이주르 해오게다무 구역 그 당간부에 가서 그런 저기 우초뜨(учёт)르 서야 데지.{저기 그 때에는 소련 공산당이던 다 한가지지. 키르기스스탄이고 무슨 카자흐스탄이고 우즈베키스탄이고. 그러나 내가 이주를 해 오게 되면 구역의 그 당 간부에게 가서 그런 저기 등록을 해야 되지.}

@ 으음.{으음.}

그거 거 내 본래 잇던 데서 그 우초뜨느 까르또취까(учётная карточка)라구서르 조잇자~

이 거기 있지. 거기 싹 내 그 저기 무스케든 싹 거기다 등록했지. 기래 그거 거주구서르 와서 이 구역 그 당간부에 가서 또 우초뜨(уҷёт)르 가 서야 데지.{그거 거 내가 본래 있던 데서 그 인사기록카드라고 종잇장이 거기 있지. 거기 싹 내가 그 저기 무엇이든 다 거기다 등록했지(올렸지). 그래 그거 가지고 와서 이 구역 그 당 간부에게 가서 또 등록을 해야 되지.}

10310 @ 혹시 밀농사는 안 저요 밀? 밀이나 보리농사는 여근 안 지었어요?{혹시 밀농사는 안 지어요 밀? 밀이나 보리농사는 여기는 안 지었어요?}

10310 # 여기 여기서, 여기서 시방 밀으 **뜯스, 보릴 수뭇지무. 거 나느 그런 농사두 못해봤소.{여기 여기서, 여기서 시방 밀을 뜯, 보리를 심지요 뭐. 거 나느 그런 농사도 못 해봤소.}

10307 @ 으음.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끼르기즈스탄에서는 췌일 많이 많이 하는게 뭐예요?{으음.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키르기스스탄에서는 제일 많이, 많이 하는 게 뭐예요?}

10307 # 시방 이.{시방 이.}

10307 @ 농사중에.{농사 중에.}

10307 # 이 이 이 시방 씨 시 싹게와서 이 밀으 시무구 감자농사두 여기서 하구.{이 이 이 시방 시 시 싹려 와서 이 밀을 심고 감자 농사도 여기서 하고.}

10307 @ 아아.{아아.}

10307 # 그다음 열코오 저 에 딸라스(Талас) 그 주같은 데서느 그 열코오 데게 시무짐.{그다음 강낭콩을 저 에 탈라스 그 주(州) 같은 데서는 그 강낭콩을 되게 심지 뭐.}

10307 @ 그면 여기는 열콩같은거 심으면 수무면 여기 끼르기즈스탄에서 다아 소, 다 소, 그 소비를 하는 거예요?{그러면 여기는 강낭콩 같은 거 심으면, 심으면 여기 키르기스스탄에서 다 소, 다 소, 그 소비를 하는 거예요?}

10307 # 아이 저기.{아니 저기.}

10307 @ 러시아에 파는 거예요?{러시아에 파는 거예요?}

10307 # 뜯째아서. 뜯째아서 싸가지. 뜯째아, 뜯째아가 그 약조르 하구서르 기래구서르 그 열코오 수뭇지.{뜯체아에서. 뜯체아서 사 가지. 뜯체아, 뜯체아가 그 약조를 하고서 그러고서 그 강낭콩을 심지요.}

10307 @ 그면은 지금 옛날 그 쏘련 땅에 쏘련 땅은 지금도 뭘 어디서 심으면 어디서 사가고 이렇게 그렇게들 해요?{그러면 지금, 옛날 그 소련 땅에, 소련 땅은 지금도 무얼 어디서 심으면 어디서 사 가고 이렇게 그렇게들 해요?}

10307 # 시방 이 여기 우리 지방 나 다른 데는 또 모르나 우리 이 끼르기즈스탄서느 저기 이 식쿨(Иссык-Куль) 오블라스찌(область)서 올해 과일[kwazil]으 그렇기 특별이 댓지. 과일.{시방 이 여기 우리 지방 밖의 다른 데는 또 모르나 우리 이 키르기스스탄에서는 저기 이스쿨주(州)에서 올해 과실이 그렇게 특별히 (잘) 댓지 과일.}

10307 @ 과일 네.{과실 네.}

10307 # 야아. 저기 저 야블로꼬(яблоко)랑 특별이 댓지. 기래 그전에는 이 쏘련 때는 그거 저 러시아두 실어 내가구. 까작스판두 실어 내가구. 기랜게 시방 어디르 실어 내가자무 그 차저~이 많지. 그다음 번에 그 국경지저~어 가서 그 따몰슈네이(таможня) 그 **뿔신(пошлина) 돈 무는게 많지. 기래농이 싹구[실꾸]가서 하나투 이익이 없이 나보르(набор) 밀진 행페이 텐단 말이. 게 아무 데두 가지 못하구 거저 썩어버린 페다이 많소 여기

서.{응. 저기 저 사과랑 특별히 (잘) 됐지. 그래 그전에는 이 소련 때는 그거 저 러시아도 실어 내가고. 카자흐스탄으로도 실어 내가고. 그런데 지방 어디를 실어 내가자면 그 차정(差定, =사무)이 많지. 그 다음번에 그 국경 지경(地境)을 가서 그 관세 그 통행세 돈을 무는 게 많지. 그래 놓으니 싼고 가서 하나도 이익이 없이 일체 밀진 형편이 된단 말이요. 그래 아무 데도 가지 못하고 그저 썩어 버리는 폐단이 많소, 여기서.}

10307 @ 아.{아.}

10307 # 기래 재비 그런 에떠(это) 빼레라바뜨(переработка) 쉬폼 그거 제조르 하는 공재~이 잇으무사 와레니(варенье)두 만들구 벨거 다 만들지. 기래 그런 공자~이 우리 이 끼르기즈 없다나이 거저 올해두 이 신문에 난거 보게담 길가[길까]에서 그 무스 한 베드로(ведро) 두 베드로(ведро) 요룽기 팔아서 그 언제 다 팔겠소.{그래 자기가 그런 음 가공하는, 그거 제조를 하는 공장이 있으면야 잼도 만들고 벨거 다 만들지. 그래 그런 공장이 우리 이 키르기스스탄에 없다 보니 그거 올해도 이 신문에 난 거 보게 되면 길가에서 그 무슨 한 통 두 통 요렇게 팔아서 그 언제 다 팔겠소.}

10307 @ 그렇쥬.{그렇쥬.}

10307 # 기래이까 거저 거방 거저 썩어서 체에뿌리짐.{그러니까 그거 거의 그거 썩어서 내버리지 뭐.}

10414 @ 으음. 혹시 여긴 느베, 느베는 안 키워요?{으음. 혹시 여기는 누에, 누에는 안 키워요?}

10414 # 느벨 저 오쉬(Ош) 그쪽에서 느베르 치입지.{누에를 저 오슈 그쪽에서 누에를 치지요.}

10414 @ 끼르기즈스탄에서?{키르기스스탄에서?}

10414 # 끼르기즈스탄서. 이 지방 끼르기즈스탄두 우리 이 비쉬께II(Бишкек)는 이게 북쪽입지. 저쪽 오쉬(Ош) 그 오쉬(Ош) 나바드 밖엔 그건 남쪽이지. 거기는 이 기후 여기마 더 덥구 기랜나이 그쪽에서 누에르 칩지.{키르기스스탄에서. 이 지방 키르기스스탄도 우리 이 비슈케크는 이게 북쪽이지요. 저쪽 오슈 그 오슈 나바드 밖에는 그거 남쪽이지. 거기는 이 기후가 여기보다 더 덥고 그러다 보니 그쪽에서 누에를 치지요.}

@ 그러면 거기는 중국하고 가까운가요?{그러면 거기는 중국하고 가까운가요?}

아아. 중국으 여기 더 가깝지. 여기서 이시쿨(Иссык-Куль) 시(市) 오블라스찌(область)서 그 산은 넘어가무 그 에떠(это).{응. 중국은 여기가 더 가깝지. 여기서 이스쿨 주(州)에서 그 산을 넘어가면 그 음.}

@ 중국인가요?{중국인가요?}

아, 중국이.{아, 중국.}

@ 거기 중국하고 이스쿨 거기 사이에 높:은 산이 많이 있쥬?{거기 중국하고 이스쿨 거기 사이에 높은 산이 많이 있쥬?}

많이 잇지.{많이 잇지.}

@ 그면 그거이 천산 천산인가요? 천산산맥?{그러면 그것이 천산, 천산인가요? 천산산맥(天山山脈)?}

그게 그것두 *어떠 천산 천산에 붙은게엿짐. 기래 지방 여기서 에 중국 이 끼르기즈 까작스판 세 나라서 지방 협력해서 중국으르 지방 저기 질으 지방 자동차질이 지방 만, 만드우.{그게 그것도 어떻든 천산(天山), 천산(天山)에 붙은 것이지요. 그래 지방 여기서 에 중국 이 키

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세 나라에서 시방 합력(合力)해서 중국으로 시방 저기 길을 시방 자동차 길을 시방 만, 만드오.}

@ 아::.{아.}

기래구 앞우르느 이 철로질두 만든다구서 기랫습니다.{그리고 앞으로는 이 철길도 만든다고 그랬습니다.}

@ 중국쪽에선 안 만들어요? 중국에서는 왜 왜 안 그래요?{중국 쪽에서는 안 만들어요? 중국에서는 왜 왜 안 그래요?}

어, 중국에서 시방 기랫지. 중국 내게.{어, 중국에서 시방 그랬지. 중국이 (길을) 내게.}

@ 중국서도 내오고 여기서도 내오고.{중국에서도 (길을) 내고 여기서도 내고.}

야아.{응.}

@ 만나게 하려고.{만나게 하려고.}

그 **씨, 세 나라서 시방 까작스판, 끼르기즈, 끼따이(Китай) 세군에서 시방 그 길으 만드자구 시방 기랫짐.{그 세, 세 나라에서 시방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중국 세 곳에서 시방 그 길을 만들자고 시방 그랬지 뭐.}

4.3. 박블라디미르의 누에치기

10414 @ 음. 여기서 느베 **노치 농사는 아, 안해보셨어요?{음. 여기서 누에고치 농사는 아, 안 해 보셨어요?}

10414 # 저 우즈베크스탄(Узбекистан) 이실 적에 느베농사르 해애봬소. 야아! 기계 그것두 죄끔 저 잘못하무 벌거지 싹 싹어빠리지. 아이구! 쫓. 그거느.{저 우즈베크스탄에 있을 적에 누에 농사를 해 봤소. 야아! 그게 그것도 조금 저 잘못하면 벌레가 싹 싹어 버리지. 아이고! 쫓. 그거는.}

10414 @ 그래요?{그래요?}

10414 # 그런 기후르 온전한 기후르 **지구 습기두 또 엠메마나, 지내 집이 탁 덥구 기래두 그 벌거지 잘못 데지. 조금 칩아두 잘못 데지. 그 느베 칠 장소 없어서 모자라서 한가레느[항가레느] 어, 조합에서 개인집 재밋집에서 그 한카이나 두칸 이래 내구서르 재밋집에서 치게서르 그룽기 조직했지. 기래 그거 치구 나무 거저 집안에서 쉰 냄새 나지. 기래노이 그 꼴호즈(колхоз)서 돈 대줘서 그 집으 싹 또 레몬뜨(ремонт)꺼지 해주지. {그런 온도를 온전한 온도를 주고 습기도 또 얼마만큼 (조절하고), 너무 집이 탁 덥고 그래도 그 벌레가 잘못되지. 조금 추워도 잘못되지. 그 누에 칠 장소가 없어서 모자라서 한 시기에는 어, 집단농장에서 개인 집, 자기 집에서 그 한 칸이나 두 칸을 이렇게 내서, 자기 집에서 치게 그렇게 조직했지. 그래 그거 치고 나면 그저 집안에서 쉰 냄새가 나지. 그래 놓으니 그 꼴호스에서 돈을 대줘서 그 집을 싹 또 수리까지 해 주지.}

10414 @ 음.{음.}

10414 # 그 느베[нубе]르 다 친담에. 우리두 저 노친네 한이티 집에서 그거 느베르 쳐봬소. 야아! 것두 밤우 못자는 일이오 저.{그 누에를 다 친 다음에. 우리도 저 노친네 한 이태 집에서 그 누에를 쳐 봤소. 야! 그것도 밤잠을 못 자는 일이오, 저.}

10414 @ 으음.{으음.}

10414 # 그 벌에덜 먹긴 어제 그 그리 먹소. 야아! 거저 시룩시룩.{그 벌레들 먹기는 어제 그 리 먹소. 야! 그저 실룩실룩.}

10414 @ 많이 먹어요?{많이 먹어요?}

10414 # 많이[마이] 먹소. 요롱기 그 뽕낭그 요막씨 요롱기 질게 짝어서 이래 어기 태우매서 이렇기 머거리 주지. 기래 그 밑에 잇던 것덜이 새엘르 머거리 주게 담 그 고것만 썰르 그 준 머거리데르 싹 올라온단 말이. 올라와서 그 잎사귀: 들어붙어 뜯어먹지. 기램 그 어간에 밑에 그 낡은 거느 어느 **잎사귀은 거느 자리르 간다:: 하구 기램 그것두 싹 뽑아내지 살랑:살랑. 야아! 복잡하오 저.{많이 먹소. 요렇게 그 뽕나무를 요만큼씩 요렇게 길게 짝어서 이래 (그 나무에) 번갈아 태우면서 이렇게 먹이를 주지. 그래 그 밑에 잇던 것들이 새로 먹이를 주게 되면 그 고것만, 새로 그 준 먹이가 있는 데로 싹 올라온단 말이오. 올라와서 그 잎사귀에 들어붙어 뜯어 먹지. 그러면 그 사이에 밑에 그 낡은 거는 (이미 뜯어 먹은 것은) 어느 잎사귀에 있는 누에는 자리를 간다 하면서 그것도 싹 뽑아내지 살살. 야! 복잡하오, 저.}

10414 @ 아, 싹 올라가고 나면.{아, 싹 올라가고 나면.}

10414 # 올라, 올라가구 나무.{올라, 올라가고 나면.}

10414 @ 예.{예.}

10414 # 어 밑엔 어전 먼저 준 데느 뜯어먹을게 없짐. 기래 새엘르 잎사귀르 주게 데무 그거 뜯어먹느라구 싹 바라올라온 담에 그 밑엿거 잎사귀 없이 기랜거 그거 싹 살랑살랑 싹 더 뽑아내지.{어 밑에는, 이제 먼저 준 데는 뜯어 먹을 게 없지 뭐. 그래 새로 잎사귀를 주게 되면 그거 뜯어 먹느라고 싹 위로 기어 올라온 다음에 그 밑에 거 (뜯어 먹어서) 잎사귀가 없게 된 거 그걸 싹 살랑살랑 싹 더 뽑아내지.}

10414 @ 그러면 그것이 이러 이렇기 이렇기 데 있는 이걸 뭐라 그래요?{그러면 그것이 이렇,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는 이것을 뭐라 그래요?}

10414 # 이런 독으 매엿지, 독우.{이렇게 덕을 매지요, 덕을.}

10414 @ 요렇게 그러니까 보면: 이렇게 이렇게 인 낭그를 이렇기 이렇기 세워놓고 여기다가 이렇기 이렇기.{요렇게 그러니까 보면 이렇게 이렇게 인제 나무를 이렇게 이렇게 세워 놓고 여기다가 이렇게 이렇게.}

10414 # 야~아.{응.}

10414 @ 쪽 놓죠이~ 이렇게이~?{쪽 놓지요 이렇게?}

10414 # 야~아.{응.}

10414 @ 여기다가 여그 여그다 인자 그 그 **두베 놓고 여기다 인자 누베놓고 잉게 나, 낭 그 이렇게 주고.{여기다가 여기 여기에다 인제 그 그 누에를 놓고 여기다 인제 누에를 놓고 이렇게 나, 나무를 이렇게 주고.}

10414 # 응.{응.}

10414 @ 뽕낭, 뽕낭기.{뽕나, 뽕나무.}

10414 # 야. 아, 아, 아.{응. 아, 아, 아.}

10414 @ 이파리 잎. 잎사귀 주고. 그면은 여기 여기 올려놓는 것이 여기 여기는 어떤 모양으로 데어 있어요?{이파리 잎. 잎사귀 주고. 그러면은 여기, 여기에 올려놓는 것은 어떤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10414 # 아, 저기 깔으 뺏아서두 놓구.{아, 저기 갈대를 엮어서도 놓고.}

10414 @ 어떻게? 어떠 어떤 식으로 만들어 놓고서는?(어떻게? 어떠, 어떤 식으로 만들어 놓고서는?)

10414 # 이렇기.{이렇게.}

10414 @ 여기, 여그다 그냥 하세요. 괜찮아요. 음.{여기, 여기에다 그냥 하세요. 괜찮아요. 음.}

10414 # 이렇기 앞뒤에다서 지두~이 이렇기 세우구.{이렇게 앞뒤에다 기둥을 이렇게 세우고.}

10414 @ 예.{예.}

10414 # 이렇기[이르끼] 덕으 이래 맨 데 여기다서리, 이 덕으 맨 데다서리 갈배재르.{이렇게 덕을 이래 맨 데 여기에다가, 이 덕을 맨 데다가 갈대로 엮은 바자를.}

10414 @ 아아!{아아!}

10414 # 기래서 농구서르 그 우에다 이제 머거리 낭그 주구서르 벌거지르 올려놓습지. 그 벌거지 에엔 첫감에 거저 재자부레한 게 눈에 빼베에두 알기짱게 고통게 자다만게지 무스.{그래서 놓고서 그 위에다 이제 먹이 나무(뽕나무)를 주고서 벌레를 올려놓지요. 그 벌레가 맨 처음에는 그저 자잘한 게, 눈을 비벼도 알 수 없을 정도로 고통게 잔다란 것이지 뭐.}

10414 @ 예.{예.}

10414 # 새까만게. 기랜거 그거 온도르 맞차서 에 그 저기 조에 저런 꼬로브까(коробка)다서 고서 열여놓게 다무 기계 자라무 새하얇게 똑똑 그래 티운거처리 새하얀 색이 나지 차차차차. 그다음 고게 벌에 데서 췌에끔한 것덜이 꼬:우르꼬불하메서리. 기래 기직[찍]에느저 뽕낭기르 자다:말게 쏘올아서 이래 조끔씩 맥이지.{새까만 것. 그러한 거 그거 온도를 맞추어서 에 그 저기 종이로 만든 저런 작은 상자에다 고거 넣어 놓게 되면 그게 자라면 새하얇게 똑똑 그렇게 튀긴 것처럼 새하얀 색이 나지 차차차차. 그다음 고게 벌레가 돼서 조끄만 것들이 꼬불꼬불 하면서 (움직이지). 그래 그 적에는 저 뽕나무를 잘게 썰어서 이렇게 조끔씩 먹이지.}

10414 @ 아아:: 아.{아아 아.}

10414 # 그다음 번에 게 얼마마이 큰 담에 이 득우르 앵게오짐.{그 다음번에 그게 얼마만큼 큰 다음에 이 덕으로 옮겨 오지 뭐.}

10414 @ 아아! 처음에는 글면 어떤 이런 이런 봉지 속에 들어있어요?(아아 처음에는 그러면 어떤 이런 이런 봉지 속에 들어 있어요?)

10414 # 아~아. 처음엔 그 지내 거저 재자부레한게 벌에 갈두탱구. 거저 싸, 싸래기처르 고, 고론게. 저 새까만 색이 나는 게.{응. 처음에는 그 너무 그저 자잘한 게 벌레 같지도 않고. 그저 싸, 싸라기처럼 고, 고런 게. 저 새까만 색이 나는 게.}

10414 @ 어어! 그면 그것이 인자 온도를 맞추면 게 뚫고 나와요?(어어! 그러면 그것이 인제 온도를 맞추면 그게 뚫고 나와요?)

10414 # 기계 저기 차차차차 자라면서리 기계 뚫구[뚫구] 나오겠지 아무래. 새하얀 색이 나지 며. 똑똑 뚫에난거처리.{그게 저기 차차차차 자라면서 그게 뚫고 나오겠지 아마. 새하얀 색이 나지 뭐. 똑똑 튀겨 낸 것처럼.}

10414 @ 으음.{으음.}

10414 # 기래 기계 그담 자라긴 빨리 자라오. 그다음 기계 차차차차 크무 이만:씨 발씨 질게 데지.{그래 그게 그다음에 자라기는 빨리 자라오. 그다음 그게 차차차차 크면 이만큼씩

벌써 길게 되지.}

10414 @ 예.{예.}

10414 # 기래무 그거 이 독우 맨 데다서르 머거리 주구서 거기다서 살라~이 올리와 놓지.{그러면 그거 이 덕을 맨 데다 먹이를 줘서 거기다 살짝 올려놓지.}

10414 @ 음.{음.}

10414 # 기래 그 누베꼬치르 **두비(←둥지) 틀 직[찍]에느 이 이 벌에 이 이 이막씨, 이막씨 크우.{그래 그 누에고치를 둥지(고치)를 틀 적에는 이 이 벌레가 이 이 이만큼씩, 이만큼씩 크오.}

10414 @ 음.{음.}

10414 # 기래것두 그거 제때 맥이재일구 좀 힘이 약한 거느 두~이르 한 절반 트다두 죽어서 시꺼멧게 썩어 나오, 벌에덜.{그랜 것도 그거 제때에 먹이지 않고 좀 힘이 약한 거느 둥지(고치)를 한 절반 틀다가도 죽어서 시꺼멧게 썩어 나오, 벌레들.}

10414 @ 아.{아.}

10414 # 틀다 채 틀지 못하구서르 그안에서 죽지 무스.{틀다 채 틀지 못하고서 그 안에서 죽지 뭐.}

10414 @ 그래요?{그래요?}

10414 # 아아. 기래 잘 덴바르 온도랑 덴바르 치구서 기래 거느 실수없이 거저 누베꼬치 셋 하얀게 그런기우.{응. 그래 잘 똑바로 온도랑 맞춰서 똑바로 친 그런 거느 실수 없이 그저 친 것은 누에고치가 새하얀 게 그런 게오.}

10414 #아유:! 일이 많소, 저게.{아유! 일이 많소, 저게.}

10414 @ 그러면은 그것이 대개 얼마정도나 커요? 저 요, 요기 알에서도 나와가지고 누에꼬치 만들때까지가 기간이 얼마나 걸려?{그러면은 그것이 대개 얼마 정도나 커요? 저 요, 요기 알에서 나와 갖고 누에고치 만들 때까지가 기간이 얼마나 걸려?}

10414 # 저기 날수?{저기 날수?}

10414 @ 예 날수가.{예 날수가.}

10414 # 그거나 또즈(тоже) 저 우리 노친네는 그 뗏해르 기래다나이 거저 무시게든지 다 알시[알씨] 있어.{그거 역시 저 우리 노친네는 그거 몇 해를 치다 보니 그저 무엇이든지 다 알 수가 있어.}

10414 @ 이따 한번 여쭙봐야 데겠네요.{이따가 한번 여쭙 봐야 되겠네요.}

10414 # 야아 야아.{응 응.}

10414 @ 그거 뽕낭, 뽕낭기는 그먼 누가 그 뜯어.{그거 뽕나, 뽕나무는 그러면 누가 그 뜯어.}

10414 # 뽕낭그는 또즈(тоже) 저기 특별이 그런 그 브리가다(бригада) 잇짐. 마쉬나(машина)르 자동차르 타구 댕기메서르 찍어서 네에 집에 그 꼬로브까(коробка)락 하오 그거. 어디메다 쫓재에서 그 그 시방 그 벌에 씨르 그거 한 꼬로브까(коробка) 오마 한 꼬로브까(коробка) 바이오. 기래서 농가주짐. 기래 그 엠매만:한 그 그거 네에 집에 엠매만:한 벌에 잇는가 알구서르 그와 같이 그 뽕낭그 단 찍은거 자동차 신구 댕기메 농가주짐.{뽕나무는 역시 저기 특별히 그걸 (주관하는) 작업반이 있지 뭐. 자동차를,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 (뽕나무를) 찍어서 누구 집에, 그 작은 상자라 하오, 그거. 어디에다 마구 쟁여서 그 그 시방 그 벌레 씨를 그거 한 상자요, 한 상자 반이오. 그래서 나누어 주지,

뭐. 그래 그 얼마 만한 그 그거, 누구 집에 얼마 만한 벌레 있는가 알고서 그와 같이(그에 따라서) 그 뽕나무 단을 찍은 거 자동차가 싼고 다니며 나눠 주지, 뭐.}

10414 @ 아아.{아아.}

10414 # 기래무 그거 또 그 느베르 친 집에서 조 식기덜이랑 모다서 요막씨 질게서리 싹 또 도끼르 또 싹 찍지 무스. 기래서, 아이구! 일이 복잡하.{그러면 그거 또 누에를 치는 집에서 조 식구들이랑 모여서 요만큼씩 길게 싹 또 도끼로 또 싹 찍지 뭐. 그래서 (누에를 치지), 아이고! 일이 복잡하(오).}

10414 @ 그러면은 그 잎, 이파리만 먹, 먹 먹잖아요.{그러면은 그 잎, 이파리만 먹, 먹 먹잖아요.}

10414 # 이 이 잎사귀밖에 아이 먹습니다. 대는 하나두[하나뚜] 아이 먹구.{이 이 잎사귀밖에 안 먹습니다. 대는 하나도 안 먹고.}

10414 @ 그면 대를 대까지 같이 잘라서 그냥.{그러면 대를 대까지 같이 잘라서 그냥.}

10414 # 아이, **가 한 한테 잘라서.{아니, 같(이) 한 한테 잘라서.}

10414 @ 대략 같이 주는 거예요?{대략 같이 주는 거예요?}

10414 # 야아. 에엔 첫감에 자다말직에는 맨 잎사기르 것두 이래 에 나이 어린 그런 잎사기르 자재부레한 잎사기르 뜯어서 칼르 자다아망게 쏘올지. 싸알아서 주지 며. 그담 큰다음에는 그 대째르 한테.{응. 맨 처음에 잔다랄 적에는 맨 잎사귀를 그것도 이래 에 나이 어린 그런 잎사귀를 자잘한 잎사귀를 뜯어서 깔로 잔다랑게 썰지. 썰어서 주지 뭐. 그다음 큰 다음에는 그 대(줄기)채로 한테 주지.}

10414 @ 아아. 대째까지 같이?{아아. 나무 줄기채로 같이?}

10414 # 대째르 한테. 이래 한줄으 이 이렇게 주구 그다음줄은 또 이렇기 가르태와서 이래 이래 주구. 기래 내 아깨두 그러재오? 그 밑에 줄에 먼저 준거 다 먹으무 잎사기느 하나뚜 없구.{줄기채로 한테. 이래 한 줄을 이 이렇게 주고 그 다음 줄은 또 이렇게 가로로 태워서 이래, 이래 주고. 그래 내 아까도 그러지 않소? 그 밑에 줄에 먼저 준 거 다 먹으면 잎사귀는 하나도 없고.}

10414 @ 예.{예.}

10414 # 맨 대마 질지. 기래무 그 수월이 마련하무 그 느베르 짙는 여자덜이, 자 어전 자리르 갈아야 텐다하:메 그 벌에 떨어질까바 살랑:살랑 그 밑에 먼저 잎사길 다 뜯어먹은 그 나무아채기덜 싹 뽑아내 내떼리지.{맨 줄기만 남지. 그러면 그 수월히 마련하면 그 누에를 짓는(치는) 여자들이, 자 이제 자리를 갈아야 된다 하며 그 벌레가 떨어질까 봐 살살 그 밑의, 먼저 잎사귀를 다 뜯어 먹은 그 나뭇가지들을 싹 뽑아서 내던지지.}

10414 @ 아아.{아아.}

10414 # 기래 거기 또 그거 뽑을 적에는 그 느베 또~이 새까망게 자재부레한 그런 우실우실 우실 또 떨어지지.{그래 거기 또 그거 뽑을 적에는 그 누에똥이 새까망고 자잘한 그런(것이) 우수수 또 떨어지지.}

10414 @ 방에서이~?{방에서 응?}

10414 # 그 그 덕에서 그렇기 떨어지짐.{그 그 덕에서 그렇게 떨어지지, 뭐.}

10414 @ 으음. 그러면은 그 누에가 인자 다 셋하양게 꼬치 만들어지면 그양 꼬치채로 다 국가에다 바치는 거예요?{으음. 그러면은 그 누에가 인제 다 새하양게 꼬치가 만들어지면 그냥 꼬치채로 다 국가에다 바치는 거예요?}

10414 # 그거 그 두~이르 틀 임시기(臨時期)무 저 시기 많소. 저 우리 노친 뱃해르 그거 기래
다나 또 그 고치르 트는 그 어간에 두버인두 세버인두 자는 시가이 잇소.{그거 등지(고
치)를 틀 무렵이면 저 (잠자는) 시기가 많소. 저 우리 노친이 몇 해를 그거 그러다 보나.
또 그 고치를 트는 그 사이에 두 번인지 세 번인지 자는 시간이 잇소.}

10414 @ 오오.{오오.}

10414 # 저 벌에덜. ‘이제 첫잠우 잔다:.’ 하구 기래. 기 직[찍]에느 머거리 아이 쥐. 머거리
쥐두 벌에덜 자매 아이 먹지, 무스.{저 벌레들이. ‘이제 첫잠을 잔다’ 하고 그래. 그 때에
는 먹이를 안 쥐. 먹이를 쥐도 벌레들이 자며 안 먹지, 뭐.}

10414 @ 어어.{어어.}

10414 # 기래 그담은 또 그 잠우 깨무 또 머거리 주구. 또 메출 후에 어전 두번채잠우 잔다
하오 이래지무. 저.{그래 그다음은 또 그 잠을 깨면 또 먹이를 주고. 또 며칠 후에 이제
두 번째 잠을 잔다 하오 그러지 뭐. 저.}

10414 @그문 잠을 가들 같이 자?{그러면 잠을 그 누에들이 같이 자?}

10414 # 아?{응?}

10414 @ 잘때 같이 자요 가들이?{잘 때 같이 자요 그것들이?}

10414 # 아:이! 그 술한 벌에덜이 싹 다 고때 잔다하게다무 하나뚜 아이 먹짐 무스.{아니! 그
술한 벌레들이 싹 다 고 때에 잔다 하게 되면 하나도 안 먹지 뭐, 무슨.}

10414 @ 아아.{아아.}

10414 # 기래 그 느베치는 사람덜은 다 아오 발써. ‘어저 이 두번채 잠우 잔다.’ 하오. 기래
그 머거릴 아이 주지, 기 직[찍]에.{그래 그 누에를 치는 사람들은 다 아오 벌써. ‘이제
이 두 번째 잠을 잔다’ 하오. 그래 그 먹이를 안 주지, 그 때에는.}

10414 @ 오.{오.}

10414 # 기래 그다음 메출 잇다서리 거기 꿈질:꿈질 또 기래무 어전 잠우 깨엿다서구서 기래
또 머거리 주지. 야야!{그래 그다음 며칠 잇다가 거기서 꿈지럭꿈지럭 또 그러면 이제
잠을 깬다고서 그래 또 먹이 주지. 야!}

10414 @ 아 인자 잠을 잘때는 거이 비슷한 시간에 자요?{아 인제 잠을 잘 때는 거의 비슷한
시간에 자요?}

10414 # 기 직[찍]에느 여자덜두 좀 수월하지.{그 때에는 여자들도 좀 수월하지.}

10414 @ 오오오.{오오오.}

10414 # 기래 저기 그다음번에 그 누웨 그 고치르 틀직에무 기계 ‘문발스’라구서르 기계 우리
조선말르 버역하게 담, 이 천가지, 가지 천 개라는 그런 저 풀이 저 잇지. 이마:이 큰 게.
그 풀이두 그 잇는 곧이 잇지며. 기래 그 곧으 저기 자동차르 가주구 가서 그 그거 또
가뜩 빼에다가선 요막씨 요롱기 묶어서느 사적에다 이래 그거 누벳벌거지 잇는 데 **사
덕에 **놓느라 담 거기 올라와서 그 새애새 거기다서리 이 누베꼬치르 틀짐.{그래 저기
그다음 번에 그 누에 그 고치를 틀 적에면 그게 ‘문발스’라고서 그게 우리 조선말로 번
역하게 되면 이 천 가지, 가지가 천 개라는 그런 저 풀이 잇지. 이 만하게 큰 게. 그 풀
도 그 잇는 곳이 잇지 뭐. 그래 그 곳을 자동차를 가지고 가서 그 그거 또 가뜩 베어다
가서는 요만큼씩 요렇게 묶어서 사방에다 이래 그거 누에 벌레 잇는 데 사방에 놓게 되
면 거기 올라와서 그 새새 거기다가 이 누에고치를 틀지 뭐.}

10414 @ 으음.{으음.}

10414 # 기래 그거 틀무 또 인차 그거 또 싹 거기서 또 뜯어내야데지.{그래 그 고치를 틀면 또 이내 그거 또 싹 거기서 또 뜯어내야 되지.}

10414 @ 으음.{으음.}

10414 # 뜯어내서 여러날 걸리게 다무 그 인차 또 실어가야 데지. 그 구역 그 받는 그 장소 있지. 거기르 실어가무 거기서 저기 빠로보이 까쥘(паровой котёл) 하구서르 이래 짐을 세우느 그 까쥘(котёл)다 그거 열어서 데와내지. 기령재애무 메칠 지나가무 그 안에 벌거지 궁구 뚫구[뚝구] 나온단 말이.{뜯어내서 여러 날 걸리게 되면 그걸 바로 또 실어가야 되지. 그 구역에 그 받는 장소가 있지. 거기르 실어 가면 거기서 저기 증기 보일러를 하고서 이래 짐을 쏘이는 그 솥에다 그걸 넣어서 데워 내지. 그렇지 않으면 며칠 지나가면 그 안에 벌레가 구멍을 뚫고 나온단 말이오.}

10414 @ 아아.{아아.}

10414 # 기래무 그 느베꼬치 실이 싹 끊어지지. 끊어진게나 한가지짐. 기래무 밭써 브라크바(браковать)오. 모, 못쓸게라 하지. 기래노이 거저 버짜 뜯어서 버짜 개애다 바치지.{그러면 그 누에고치 실이 싹 끊어 지지.{그러면 그 누에고치 실이 싹 끊어지지. 끊어진 게나 한가지지 뭐. 그러면 벌써 불합격이오. 모, 못 쓸 것이라 하지. 그러니 그저 바짜 서둘러 뜯어서 바짜 가져다 바치지.}

10414 @ 으음.{으음.}

10414 # 야아! 개 그것두 쏘르뜨(сорты) 많소. 무스 이견 첫 등갑이오 두 번째 등갑이오. 그거 따라서 국가서 돈 물어주지.{야! 그래 그것도 종류가 많소. 무스 이견 첫 등갑이오, 두 번째 등갑이오. 그거 따라서 국가에서 돈을 물어 주지(지급하지).}

10414 @ 으음.{으음.}

10414 # 저 우리 노친네 그 문세(<문서+이)르 잘 아오. 여러 해르 그 일하다나이.{저 우리 노친네 그 이치(理致)를 잘 아오. 여러 해 그 일을 하다 보니.}

10414 @ 음.{음.}

10414 # 나느 거저 (기침) 뽀모쉬쥬(помощь) **도야르(←도베르) 해주메서 이래 거저 들은 **푸~웰이지 (웃음).{나느 그저 (기침) 도움, 도움을 해 주면서 이래 그저 들은풍월이지 (웃음).}

10415 @ (웃음) 그면은 집에서 실을 만들지 않았고요이~? 집에서 그 실을 뽑진 않았고?{(웃음) 그러면은 집에서 실을 만들지 않았고요? 집에서 그 실을 뽑지는 않았고?}

10415 # 어제 아이 아이 아이 뽀(помощь). 그 도베르 해줘야데지.{어제 안 안 안 도와 주었겠소). 그 도움을 줘야 되지.}

10414 @ 오오.{오오.}

10414# 기래구서르 한해느 그 조합우 구락부에서 친젠데 장손 너르지 이 온돌으 잘 멘바르 저기 쥐지 못해서. 아, 벌에덜 싹 앓으메서리 아이구! 쫓 그거 거들 직에 냄새느 거저 무식한 말르 추기내애서르 그런 냄새 나. 기래구서르 이 소이 거저 지뽀겅소. 그 벌거지 그 썩어서 기래 그 기계 물어나메서리. 기래 그 옛날부터 어떻게 기랫는지 그런 저 누웨르 칠 직[찍]에느 상측집두 땡기지 말라. 부부간에 같이두 자지 말라. 무슨 식이 많소. {그러고서 한 해느 그 조합의 클럽에서 누에를 친 것인데 장소는 넓지 이 온돌을 잘 똑 바로 저기 짓지 못해서. 아, 벌레들이 싹 앓으면서 아이고! 쫓 그거 거들 직에 냄새는 그저 무식한 말로 송장 썩은 내에서 나는 그런 냄새가 나. 그리고서 이 손이 그저 시뽀겅

소. 그 벌레가 그 썩어서 그리 된 그 그게 물어나면서. 그래 그 옛날부터 어떤 때 그랬는지 그런 저 누에를 칠 적에는 상갓집도 다니지 말라. 부부 간에 같이도[가치두] 자지 말라. 무슨 법식(法式)이 많소.}

10414 @ 아.{아.}

10414 # 기래 저 뽕나무 모자라서 (기침) 밤이무 따쉬켄뜨 도시 안에 이렇기 어떤 집 마당에 저 뽕나무덜 자라는게 있지 무스. 기래 그 밀리존에르(милиционер)덜 데리구 땡기메 밤이무 그것두 가서 찍어오짐.{그래 저 뽕나무 모자라서 (기침) 밤이면 타슈켄트 도시 안에 이렇게 어떤 집 마당에 저 뽕나무들이 자라는 게 있지 뭐. 그래 그 민경들을 데리고 다니며 밤이면 그것도 가서 찍어 오지 뭐.}

10414 @ (웃음).{(웃음).}

10414 # 기래 그 저 자동차 운전수덜이 그 뽕나무 그저 뽕나무 또 도적질 할라간다: 하구서리 이 이렇기 말이 나짐.{그래 그 저 자동차 운전수들이 그 뽕나무 그저 뽕나무 또 도적질 하러 간다 하고서 이 이렇게 말이 나지 뭐.}

10414 @ 아.{아.}

10414 # 기래 내 동미 한나느 누기 상제나서 그 관으 그 마쉬나(машина)다 실어서 그 산으 르 가져갔지. 아 기래 그 우에 그 꼴호즈(колхоз) 저 관리위원장~이 알구서르 누구 헤, 허가르 해서 자동차에다 관으 실었는가구. 기래 가야 마쉬나(машина)느, 아이구! 그 뽕나무 도둑질 갔다가[ха]서리 밀리쯔(милиция)르 데리구 땡기메서리 그 찍는 것두 아, 제엔덜이 저 성질이 괄괄한 거느 아이 몽둥질이 나서 손 그 자동차 운전수덜이 맞아대에 온걸르 벨게 다 있었스. 기래 그 내 동미느 그 송자~아 싫구[실꾸]서르 기랸다 해서 가야 마쉬나(машина)르 그 뽕나무 싫는데[실른데] 멘젤했지 머.{그래 내 동무 하나는 누가 죽어서 그 관을 그 자동차에다 실어서 그 산으로 가져갔지. 아, 그래 그 위에 그 꼴호스 저 관리위원장이 알고서 누가 허, 허가를 해서 자동차에다 관을 실었는가 하고. 그래 그 아이 자동차는, 아이고! 그 뽕나무 도둑질 갔다가서, 민경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 (뽕나무를) 찍는 것도 아, 주인들이 저 성질이 괄괄한 사람은 아니 몽둥이질을 해서, 그 자동차 운전수들이 맞아서 온 것으로 벨게 다 있었습시다. 그래 그 내 동무는 그 송장을 싣고서 그랬다 해서 그 아이가 자동차를 그 뽕나무를 싣는 데에서 면제(免除)를 했지 뭐.}

10414 @ 어.{어.}

10414 # 송자~아 실군다구. 그 마쉬나(машина)라구서. 기래 가야 너무 좋아서 (웃음).{송장을 싣게 한다고. (송장을 실은 바로) 그 자동차라고서. 그래 그 아이 너무 좋아서 (웃음).}

10414 @ (웃음) 아, 뽕날 때 한번 관 실었으니까 다음부턴 인자 인자 뽕나무 둑게 하면은 느느베 죽는다고?{(웃음) 아, 뽕이 날 때 한번 관을 실었으니까 다음부터는 인제 인제 뽕나무를 그렇게 실으면 누, 누에가 죽는다고?}

10414 # 야야. 오부셈(в общем) 느베 좋재앵다구 기래짐. 개 내 기래재오? 그 누베친 사람덜이 으 상측집두 땡기지 말라. 두 부부간에 자주두 말라.{응. 일반적으로 누에가 좋지 않다고 그러지 뭐. 그래 내 그러지 않소? 그 누에를 치는 사람들이 상갓집도 다니지 말라. 두 부부 간에 자지도 말라.}

10414 @ 으음.{으음.}

10414 # 어우! 식이 많으, 많았소[마엇소]. 무스 더럽은 것두 보지 말라.{어이구! 법식(法式) 이 많, 많았소. 무슨 더러운 것도 보지 말라.}

10414 @ 으음. 그런데 어따 거따가 관을 실었으니까 그건 뭐.{으음. 그런데 어디다 거기다가 관을 실었으니까 그건, 뭐.}

10414 # (웃음).{(웃음).}

10414 @ 으음.{으음.}

싸구, 어 싸, 싸가리(caxap)두 싸구 그담 떡두 싸구.{사고, 어 사, 설탕도 사고 그다음 떡도 사고.}

@ 어어.{어어.}

기래구서르 어 거 무스 *하, 저기 한달에 스무썩 거주구서르 무스거 싸갯소? 기래노이 다썩 루 에 재빌르 저 정심우 집에서 저어가주구서 기래구 땡집니다.{그리고 어 그 무슨 한, 저기 한 달에 20숨을 가지고서 무엇을 사갯소? 그렇다 보니 대부분 에 자기 스스로 저 점심을 집에서 지어 가지고서 그러고 다닙니다.}

@ 그먼 막 각 집에서 다아 막 해오니까 반찬이 여러가지갯네요?{그러면 막 각 집에서 다 막 해오니까 반찬이 여러 가지갯네요?}

여러가지 아이오. 기래 한사~에 다아 모두무 야뽀씨 열씨 이릉기 도리사~이 이 높은 이래 도리사~이. 우리 사~에느 열한내 았던지. 기랜거 어제 이 나두 저기 이 이 선달에 한번 딱 갓다오랴르심 못갓다 왔지. **이버 지난 두번채날에는 내 저 씨스트라(сестра) 저기 말한 게, 우리 사~에 보통 열씨 아홉씨 열씨 았던게 두, 두분밖에 없엇다오.{여러 가지 아니오(여러 가지고 말고). 그래 한 상에 다 모으면 여덯씩 열씩 이렇게 두레상이 이 높은 이런 두레 상. 우리 상에는 열하나가 았던지. 그런데 어제 이 나도 저기 이 이 선달에 한번 딱 갓다 오려고 했지만 못 갓다 왔지. 이번 지난 두 번째 날에는 나의 저 누이가 저기 말하는 것이, 우리 상에 보통 열씩 아홉씩 열씩 았았는데 두, 두 분밖에 없엇다오.}

@ 아아.{아아.}

어제 어제 모두 오재았더라 하메서리. 기랜것두 사렘이 아흔여섯이 모닷다던지. 기래 내가 기랸지. *올해부 어저느 어 저기 이번 두번챗날 모듈 대신에 첫날에 모두 모둔다구. 기래구 이 선달엔 어전 한번 더 모다야 데지. 기래길래 선달에는 더 아이 모두게 하구. 기래구 새해에 정월 초사흔날 새해르 세계서 모둔다구서 기랸지.{어제 어제 모두 오지 았았더라 하면서. 그랬지만 사람이 아흔여섯이 모였다던지. 그래 나가 그랬지. 올해부터 이제는 어 저기 이번 두 번째 날 모이는 거 대신에 첫날에 모두 모인다고. 그리고 이 선달에는 이제 한번 더 모여야 되지. 그러기에 선달에는 더 안 모이게 하고. 그리고 새해에 정월 초사흔날 새해를 쇠기 위해 모인다고 그랬지, 뭐.}

@ 으음. 그러면 **우리가쓰나 밥, 밥을 안싸가면서도 모, 못먹겄네.{으음.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은 밥, 밥을 안 싸 가면 못 먹겄네.}

기애두 저기 뽀뽀하게, 그 거그서 무스 그리 무 지내 저기 배터지게 해서 먹갯소? 거기서 차이(чай)르 주구 떡으 주는 것두 무스 베, 뽀뽀하오.{그래도 저기 넉넉하게 (주지), 그 거기서 무슨 그리 뭐 아주 저기 배가 터지게 해서 먹갯소? 거기서 차를 주고 빵을 주는 것도 뭐 넉, 넉넉하오.}

@ 으음.{으음.}

기래 어떤 분네덜으느 저기 그런 노치이 없이 혼자사는 분네덜은 재비 체멘에 정슴으 쓴다

하게 데무 슬그마이 일어서서 가는 사람덜두 잇구. 게 어떤 분네덜으느 정슴 싸가주구 올
행페이 못데서 그 남자 저기 어트리 뜨 벤베이 그거 정슴 싸들구 땡기갠어. 개 노치이 잇는
집에서느 그 노치이 같이 들구 땡기지. 기래 어떤 분네덜으느 아 십시일바이라구서르 여라
무씨 모둔데서 같이 거저 앉아서 정슴 먹짐.{그래 어떤 분네들은 저기 그런 노친이 없이 혼
자 사는 분네들은 자기 체면에 점심을 산다 하게 되면 슬그머니 일어서서 가는 사람들도 있
고. 그래 어떤 분네들은 점심을 싸 가지고 올 형편이 못 되어서, 그 남자가 저기 어떻게 녀
녀히 그거 점심을 싸 들고 다니갠어. 그래 노친이 잇는 집에서는 그 노친이 같이 들고 다니
지. 그래 어떤 분네들은 아 십시일반이라고서 여남은씩 모인 데서 같이 그저 앉아서 점심을
먹지 뭐.}

@ 으음.{으음.}

기래 저 수울으 즐거워하는 분네느 또 수울으 또 가주구 와서 또 술먹는 사람덜찌리 한잔씨
또 기래 농가마시구.{그래 저 술을 즐기는 분네는 또 술을 또 가지고 와서 또 술 먹는 사람
들끼리 한 잔씩 또 그래 나눠 마시고.}

@ 으음.{으음.}

기래구서르 이 근래느 어떤 집에서 구일이 지나무 무스 딸이 출가르 갖다던지 무슨 무슨 다
른 일이 잇엇다던지. 기래 다아 청채르 하지 못했다 해서 지나간 연내래두 저 수울으 다스
여섯병씩 이렇게 가주구 와서 이게 내 집에 일이 이실 직에 다 처~하지 못해서 기래 가주구
온 술이라구서 거기서 또 한잔씨 거 또 농가마시, 마시지.{그리고서 이 근래는 어떤 집에서
경조사가 지나면 무슨 딸이 출가를 했다든지 무슨 무슨 다른 일이 잇엇다든지. 그래 다 청
대(請待)를 하지 못했다 해서 지나간 연내(年內)라도 저 술을 다섯 여섯 병씩 이렇게 가지고
와서 이게 내 집에 일이 있을 적에 다 청하지 못해서 그래 가지고 온 술이라고 하고 거기서
또 한 잔씩 그 또 나눠 마시, 마시지.}

@ 으음.{으음.}

기래 시바~으느 가마:이 보무 노인다이 서이 시방 기랜데. 저 우리 노인단 저 무궁하 저 제
일 사람 마이 땡기는데 제일 크지. 기래구서르 그 지도자 아주 무스거 음특:얹구 성질 없는
분네지. 그렇게 잘 지도르 하오. 기래구서르 기눌 기눌이 세지. 무슨 누기 나와서 말한다 하
무 거저.{그래 시방은 가만히 보면 노인단이 셋이 시방 활동하는데. 저 우리 저 무궁화 노인
단이 저 제일 사람이 많이 다니는데 제일 크지. 그리고 그 지도자가 아주 뭐 음특(陰慝)하지
얹고 성질이 없는 분네지. 그렇게 잘 지도를 하오. 그리고 규율 규율이 세지. 무슨 누가 나
와서 말한다 하면 그저.}

기래 누기 나와서 무스 노래르 부른다던지 무슨 말씀 올린다던지 거저 까딱 소리없지무. 그
렇게 기눌이 세오. 기래구 다른 노인단서 무슨 청채 잇어서 내 가게데무 어제 그 그 웨라
니꼴라에브나 거 나 잡순 분네.{ 그래 누기 나와서 무슨 노래를 부른다든지 무슨 말씀을 올
린다든지 하면 그저 까딱 소리가 없지 뭐. 그렇게 규율이 세오. 그리고 다른 노인단에서 무
른 청대(請待)가 잇어서 내가 가게 되면, 어제 그 그 베라 니꼴라에르나 그 나이 잡순 분
네.}

@ 예.{예.}

그분네 그 동백헤에 그거 노인단서 저기 예술 지, 지도원질했습지. 기렐 직에 나르 기렐데
무 자꾸 이 전할르 청채르 하압지. 개 어뜨 직에 가는 때두 잇구. 햐야! 거기르 다 좋은게
어터끼 기눌이 문난한지. 시반 다른 장소 넘어가서 마 어트리 데엔지. 누기 나와서 말씀 하

재두 아 분자스럽아서 어, 무슨 어터기 말하겠소. 그 저 와아! 하구 거저 벌이등지지. 기래 구서르 이쪽에 또 그 고려노이이란 그 그 노인단에는 거기두 사램이 거저 한 사십명씩 그저 극상 모다서 한 오십명씩 모두지. 게 거기는 저 우리 큰 사돈덕이 시방 위원장질하는게 시 반 자아 자아 시반 죽은 아 가시에미지. 개 이 올해 올해 일흔한내갯는가 일흔들이갯는가 재빌르 자꾸 앓지. 이 시방 이해꺼지 하구서르 새해부터는 다른 사람게 넘게준다: 하는 말이 있는게 모르지 어 어터기 데갯는지.{그 분네 그거 동백회에 그거 노인단에서 저기 예술 지, 지도원의 일을 했지요. 그럴 적에 나를 기념일이 되면 자꾸 이 전화로 청대(請待)를 하 지요. 그래 어떨 적에 가는 때도 있고. 야아! 거기를, 다 좋은데 어떻게 규율이 문란하지 시 방 다른 노인단으로 넘어가서 어떻게 됐는지. 누가 나와서 말씀을 하자 해도 아 소란스러워 서 어, 무슨 어떻게 말하겠소. 그저 와아! 하구 그저 벌의 등지지. 그리고 이쪽에 또 그 고 려노인(단)이라는 그 그 노인단에는 거기도 사람이 그저 한 사십 명씩 그저 최대로 모아서 한 오십 명씩 모이지. 게 거기는 저 우리 큰사돈덕이 시방 위원장 일을 하는데, 시방 저 아 이 저 아이 시방 죽은 아이 장모지. 그래 이 올해 올해 일흔하나이갯는가 일흔들이갯는가 저절로 자꾸 앓지. 이 시방 이 해까지 하고서 새해부터는 다른 사람에게 (위원장직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준다 하는 말이 있는데 모르지 어 어떻게 되겠는지.}

@ 으음.{으음.}

기래구 시방 또 여기 우리 이 이게 시방 우리 이 지대 여기 레닌스끼이(Ленинский) 구역 에 모, 땃 저기 매왔지 이 구 시방. 그 이 레닌스끼 구역에 그 쿨루브(клуб) 밀로셰비치(Милошевич) 기 밀로셰비치란게 수월이 말하무 거저 이 앓는 사램이랑 구차한 사람덜이 도 배르 해주는 그런 데지.{그리고 시방 또 여기 우리 이 이게 시방 우리 이 지대(地帶) 여기가 레닌스끼 구역에 모, 땃 저기 속하지 이 구(區)가 시방. 그 이 레닌스끼 구역에 그 밀로셰비 치 클럽, 그 밀로셰비치라는 게 수월이 말하면 그저 이 앓는 사램이랑 구차한 사람들 도움 을 주는 그런 데지.}

@ 으음.{으음.}

그 시방 엘리자베따 니콜라이브나(Елизавета Николаевна) 그 엘리자베따 저기 저어네르 내인테르 보냈다는구만.{그 시방 엘리자베따 니콜라이브나, 그 엘리자베따가 당신네를 나한 테 보냈다는구먼.}

@ 으음.{으음.}

내 아무래 앓구 기랜다구서르. 우리 저 무궁화 노인단에서는 기래 말이 없었는데. 저 엘리 자베따 니콜라이브나(Елизавета Николаевна) 저어네르 ***이진했다구서 기래구.{내가 아 마 앓고 그런다고 해서. 우리 저 무궁화 노인단에서는 그래 말이 없었는데. 저 엘리자베따 니콜라이브나가 당신네를 ***이진했다고 그러고.}

@ 고기서 뭘 보냈다고요? 거기서 뭘 보내줬다고?{고기에서 뭘 보냈다고요? 거기서 뭘 보내 줬다고?}

어디메서?{어디서?}

@ 거기 그 아까 거기서. **니슬 뭘.{거기 그 아까 거기서. 니콜라이브나 뭘.}

아아 저기. 그 웨 웨라 니콜라이브나?{아아 저기. 그 웨 웨라 니콜라이브나?}

@ 음.{음.}

웨라 니콜라이브나 거기서 오부셰(вообще) 이 노인단으 조직한 분네는, 첫감 조직한 분네 그 분네.{웨라 니콜라이브나, 거기서 일체 이 노인단을 조직한 분네는 처음 조직한 분은 그 분.}

@ 음.{음.}

그분네 노인덜은 이 한 열두해 전에 이 노인단 열겠는데 노인덜 집우르 집집이 돌아댕기메 선전했습지.{그분네가, 노인들을 이 한 열두 해 전에 이 노인단을 열 목적으로 노인들의 집으로 집집이 돌아다니며 선전했지요.}

@ 아! 오.{아! 오.}

기래 우리 노인단 열어서 늘그막에 모다서 그렇기 하목하게 해서 유쾌하게 모다 놀자 하구서. 그 조직자~은 저분네 저 웨라 니꼴라에브나.{그래 우리 노인단을 열어서 늘그막에 모여서 그렇게 화목하게 해서 유쾌하게 모여 놀자 하고서. 그 조직의 장은 저분 저 웨라 니꼴라에브나.}

@ 음.{음.}

기래 그 따마라 알렉산드로브나 괴 기 시방 그 노인다이 이람이 동백해. 비쉬께크(Бишкек) 서울.{그래 그 따마라 알렉산드로브나 그 사람이 그 시방 그 노인단의 이름이 동백회. '비슈케크 서울'.}

@ 서울도 있는가 보데?{서울도 있는가 보데?}

아아. 거기 저기.{응. 거기 저기.}

@ 윤, 윤 누구.{윤, 윤 누구.}

그 항, 한일바라구서르 서울쪽 분네 거그 와서 그사램이, 아이구! 무슨 무슨 그 그 노인단서 책임일 하는데. 에이그! 그.{그 한, 한일바라고서 서울 쪽에서 온 분이 거기 와서 그 사람이, 아이고! 무슨 무슨 그 그 노인단에서 책임 일을 하는데. 어이구! 그.}

@ 달력도 갖고 오시고.{달력도 갖고 오시고.}

그 저기 무슨 일 어특 어트게 하는거 이래 이깨와주짐 그분네.{그 저기 무슨 일을 어떻, 어떻게 하는 거 이렇게 일깨워 주지 뭐, 그 분이.}

@ 으음.{으음.}

기래 그 시방 그 웨라 니꼴라이브나는 그 운동호라구서르.{그래 그 시방 그 웨라 니꼴라이브나는 그 운동호라고서.}

@ 음.{음.}

그 서울에서 여길 자주루 댕기짐. 기래 그 시방 저 웨라 니꼴라이브나가 그 운동호 종친가 입지.{그 서울에서 여기를 자주 다니지 뭐. 그래 그 시방 웨라 니꼴라에브나와 그 운동호가 종친(宗親) 간이지요.}

@ 음.{음.}

기래 치우재라구서르 오랍느비르 취했는지. 오부셈(в общем) 기래 그렇기 가깝게 보내구. 그 조선에서 저 서울에서 그 운동호 오게데무 야야! 그렇기 서르 반가워서 야~ 기래. 기래 그 운동호 신세 많앗소. 그 한복두 가져온다 무슨 으 한복 그 할 그 겐지두 *갓. 오부셈(в о бщем) 도배 많앗소.{그래 다정하게 지내는 사이라고서 오누이를 삼았는지. 보통 그래 그렇게 가깝게 보내고. 그 한국에서 저 서울에서 그 운동호가 오게 되면 야! 그렇게 서로 반가워서 응 그래. 그래 그 운동호의 신세가 많앗소. 그 한복도 가져온다 무슨 음 한복을 그 지을 옷가지도 가져오고. 일반적으로 도움을 많이 주었소.}

@ 이십칠일날 아니 이십삼일날 온다고 그랬다가 못오고 뭐. 일월 일월 며칠날 온다고 그런가 봐요.{27일 아니 23일에 온다고 그랬다가 못 오고 뭐. 1월 1일 며칠날 온다고 그런가 봐요.}

아아. 앞서 또 어느 날 온다구서 기래 그날에 그 운동호라 온다구서르 저 웨라 니플라이브 나 나르 청쩔하는거 내 이제 앓아서 못갔지. 게 기 직[찍]에두 오자던 날에 모 오구서르 메 칠으 지나서 왔다갔다 하메서르.{응. 앞서 또 어느 날 온다고 해서 그래 그 날에 그 운동호 라고 온다고 저 웨라 니플라이브나가 나를 청대(請待)를 하는 거 내 이제 앓아서 못 갔지. 게 그 때에도 오자고 하던 날에 못 오고서 며칠을 지나서 왔다가 갔다 하면서.}

@ 음.{음.}

어전 그분네 여기르 여러번 댕겿어. 어전 땃번 왔다갔는지.{이제 그 분 여기를 여러 번 다 녀어. 이제 몇 번 왔다 갔는지.}

@ 으음.{으음.}

한번 왔다서리 저기 집으르 가느라구서르 저 비행자~으르 나가다서리 어드메 어티기 대 자 뿌러진게 팔이 저기 절골이 생겼단지 마 그래서.{한번 왔다가 저기 집으로 가느라고 저 비행장으로 나가다가 어디서 어떻게 돼 자빠진 게 팔이 저기 절골(折骨)이 생겼단가 어 그 래서.}

@ 으음.{으음.}

기래서 또 여기서 오래 목재기르 하다서 또 갔습지.{그래서 또 여기서 오래 목다가 또 갔 지요.}

@ 으음. 거기는 그양반은 뭐 한복도 막 싹 갔다주고. 달력도 갔다주고 막.{으음. 거기는 그 양 반은 뭐 한복도 막 싹 가져다주고. 달력도 가져다주고 막.}

아아 그.{응 그.}

@ 달력은 동백만 갔다줘요 다른텐 안 갔다주고?{달력은 동백회만 가져다줘요? 다른 노인단에 는 안 가져다주고?}

저기 거기서 동백회에서 또 폰푼이 오게데무 다른 노인단 또 누(Hy) 저 더러 지적해 주옵 지. 여 가지라구서.{저기 거기서 동백회에서 또 넉넉하게 오게 되면 다른 노인단(도 주라고) 또 어 저 더러 지적해 주지요. 여기 가지라고서.}

@ 그 저 아까 에란노 에 네 노까 뭐 아까 성함이 뭐더라 나 이름을 참. 러시아말 이름을 왜 이렇게 웨기가 힘든지 (웃음). 니플라에바? 에라? 에라니?{그 저 아까 에란노 에 네 노까 뭐 아까 성함이 뭐더라 나 이름을 참. 러시아 말 이름을 왜 이렇게 외우기가 힘든지 (웃음). 니 플라에바? 에라? 에라니?}

웨라 니플라이브나.{웨라 니플라이브나.}

@ 웨라 웨라?{웨라 웨라?}

웨에라 니플라이브나.{웨에라 니플라이브나.}

@ **웨란 니플라이마. 그 할머니는 그:: 거기서 그 예술단 지도원 해보셨는가 **보데만요. {웨라 니플라에브나. 그 할머니는 그 거기서 그 예술단 지도원을 해 보셨는가 보더구면요.}

그 거기서 예술단 저기 저 그런 지도르 하다서리 재밌몸 펜채잉구 기래노이. 올해 어느달인 가 그자래서 나왔지무.{그 거기서 예술단 저기 저 그런 지도를 하다가 자기 몸이 편치 않고 그러다 보니. 올해 어느 달인가 그 자리에서 나왔지 뭐.}

@ 음.{음.}

개 나오멘서리 내가 또 그렇기 치미르 보냈지.{그래 나오면서 나와 또 그렇게 취미 생활을 하며 보냈지.}

@ 음.{음.}

기래 아, 나간 그 이틀날인두 사흘날인지 저 우리 무궁화노인단 찾아왔다구. 찾아와서 저기 그전에 같이 사업하던 사람덜[뚜] 잇구. 아, 나르 이 노인단에 대해서 무슨 일으 많이[마이] 했다가, 저기 지방 잇소, 이런 사진으 이런거. 저기 쟁치르 그런거. 그런거 나르 또 서, 선물루 내게 두구서르 가, 갓댓어. 기래 내 드문드문 잇다가 신체건강 어떠한가: 저 전할르 물어보지. 또 그분네 내인데르 또 소원이르 하지.{그래 아, (동백회를) 나간 그 이틀 후인지 사흘날인지 저 우리 무궁화노인단을 찾아왔다고. 찾아와서 저기 그전에 같이 사업하던 사람들도 있고. 아, 나를 이 노인단에 대해서 무슨 일을 많이 했다고, 저기 지방 잇소, 이런 사진을 이런 거. 저기 쟁치를 그린 거. 그런 거 나에게 또 서, 선물로 내게 두고서 가, 갓댓어. 그래 내가 드문드문 잇다가 신체 건강이 어떠한지 저 전화로 물어보지. 또 그 분네 나한테로 또 (건강하기를) 바라지.}

@ 으음. 으음. 그 저 그 누비 누비::허고 친하신갈드만요. 예? 그 저 웨란드 꺀디 니플마에 그 양반하고 그 앓, 어르신네 그 누나하고 두분이 또 친한가 보더만요.{으음. 으음. 그 저 그 누이 누이하고 친하신 것 같더구먼요. 예? 그 저 웨라 니플라이브나 그 양반하고 그 어르신네 그 누나하고 두 분이 또 친한가 보더군요.}

예예! 저다 가깝운 처지에 잇으이.{예! 저 다 가까운 처지에 잇으니.}

@ 예. 거긴 거기는 같은 노인헤예요? 그 두분은 같은 노인헤에 소, 속하냐고.{예. 거기는 거기는 같은 노인헤예요? 그 두 분은 같은 노인헤에 소, 속하냐고.}

그 저기 웨라 니플라이브나는 그 동백헤 거기서 예술지도원질하구. 저 내 누이는 저기 무궁화 노인헤에서 거기서 지방 예술지도원질 하구.{그 저기 웨라 니플라이브나는 그 동백헤 거기서 예술 지도원일을 하고. 저 내 누이는 저기 무궁화노인헤에서 거기서 지방 예술 지도원의 일을 하고.}

@ 아아! 그래요? 으음. 같은 노인헤는 아니고?{아아! 그래요? 음. 같은 노인헤는 아니고?}

아이구.{아니고.}

@ 아아.{아아.}

(기침).{(기침).}

@ 음. 그러면 그 노인헤는 자기가 가고 싶은 데로 가는거예요?{음. 그러면 그 노인헤는 자기가 가고 싶은 데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지방 저 우리 노친두 저기 재비 읍관 **지분두 저 무궁하압지. 기래 무궁하두 댕기구 이작 고레노인 그 그 그 그 노인단두 댕기구[ru] 두 군우루 *댕기. 세군우르 댕겏댓소. 예엔 첫감 저 저 웨라 니플라이브나 잇는데두 댕겏다서르 어전 늙으이 세군으 맥이 없어 못 댕기겏다구서.{그렇게 지방 저 우리 노친도 저기 자기 원래(의 노인단은) 지금도 저 무궁화지요. 그래 무궁화도 다니고 이쪽 고려노인 그 그 그 그 노인단도 다니고 두 곳을 다니지. 세 곳으로 다녔었소. 맨 처음에 저 저 웨라 니플라이브나가 잇는 데도 다녔다가 이젠 늙으니 세 곳을 맥이 없어 못 다니겏다고.}

@ (웃음).{(웃음).}

기래 기래 거 한곳으 내 저 웨라 니플라이브나 잇는 데 거기 내애났지. 내놓구 지방두 두곳으 댕기우.{그래 그래 거 한 곳을 내(놓았는데) 저 웨라 니플라이브나 잇는 데 거기를 내냈지. 내놓고 지방도 두 곳을 다니오.}

@ 아 어어. 이 두군 데 다녀도 일없어요?{아 어어. 이 두 군데 다녀도 괜찮아요?}

기래 거저 당비는 기래지. 무슨 말공부르[말공부르] 날가가주구 댕이지 말라구. 여기 가서 보구서느 애애! 아는 노인단 어텡드라 어저 이래 송질으 하몐서리 기래지 말라구. 거저 기계 당비입지.{그래 그저 당부(當付)로 하는 말로 그러지. 무슨 말공부를 날라 가지고 다니지 말라고. 여기 가서 보고서는 예! (내가) 아는 노인단이 어떠하더라. 이제 이렇게 흥질을 하면서 그러지 말라고. 그저 그게 당부(當付)이지요.}

@ 으음. 으음. 그 재미있겠네요. 쿡게 다니면?{으음. 으음. 그 재미있겠네요. 그렇게 다니면?}

나는 글썽 나두 글썽. 나는 이래 저 또 늙은덜이 거 친밀한 늙은덜 어떨 직에느 집에 떠역.{나는 글썽 나도 글썽. 나는 이래 저 또 늙은이들이 그 친밀한 늙은이들이 어떨 직에는 집에 떡 (오지).}

4.4. 안타샤의 누에치기

10414 @ 그 누베농사 한거 헌것 좀 얘기해줘봐요.{그 누에 농사 한 거 한 것 좀 얘기해 줘봐요.}

10414 #1 아아!{아아!}

10414 @ 누베농사 어떻게 했어요?{누에 농사 어떻게 했어요?}

10414 #1 아 조선에서느: 어따(это) 어 한국에선 느베르 아이 치오?{아 조선에서는 음 어 한국에서는 누에를 안 치오?}

10414 @ 해요.{해요.}

10414 #1 하지.{하지.}

10414 @ 이 달라.{이 달라.}

10414 #1 아아!{아아!}

10414 @ 따아 지역마다.{달라 지역마다.}

10414 #1 아아! 우리네느: 어 내비, 내비르 *얼.{아아! 우리네는 어 나비 나비를 *.}

10414 @ 네.{네.}

10414 #1 그거 예따(это) 고론 꼬꼐(кокон) 잇재이오 냐~?{그거 음 고론 고치가 있잖소 응?}

10414 @ 예.{예.}

10414 #1 요론거. 뒤 두오, 그거.{요런 거. 뒤 두오 그거.}

10414 @ 음.{음.}

10414 #1 뒤 두기마 함 거기서 내비나오.{뒤 두기만 하면 거기서 나비가 나오오.}

10414 @ 아아!{아아!}

10414 #1 나비나오지.{나비가 나오지.}

10414 @ 예. 예.{예. 예.}

10414 #1 나비 나오기마 하무 그 나비 냐~.{나비가 나오기만 하면 그 나비가, 응.}

10414 @ 예.{예.}

10414 #1 알으 쫘소.{알을 슬소.}

10414 @ 어디다가, 어디다가.{어디에다가, 어디에다가.}

10414 #1 그런 데다가서 떡 돌우지. 예: 기계 빼짱느(специальный) 오뿌트(опт)라 하재이오?{그런 데다가 떡 돌우지. 예 그게 전적으로 도매상이라 하잖소?}

10414 @ 음.{음.}

10414 #1 그런 사람덜이 그거 내비르 고통게 돋우지.{그런 사람들이 그거 나비를 고통게 돋우지.}

10414 @ 음.{음.}

10414 #1 개무 고기다 알으 쏘소. 기래무 한 꼬로브까(коробка)라는 게 한 꼬로브까(коробка)라 하무 야~?{그러면 고기에다 알을 쏘소. 그러면 한 상자라는 게 한 상자라 하면 응?}

10414 @ 음.{음.}

10414 #1 게 멧 그람므(грамм)라 하무 맞아.{그게 멧 그램이라 하면 맞아.}

10414 @ 음.{음.}

10414 #1 멧 그람므(грамм)지. 고거 요, 요론 거저 요만:한 조애애다가 빠시까(почка) 고론 알으 영지.{멧 그램이지. 고거 요, 요런 그저 요만한 종지로 만든 갑(匣)에다 고런 알을 넣지.}

10414 @ 예에.{예에.}

10414 #1 기램 고거 개제다가서리 냐~. 쯤빠라뚜라(температура) 딱 노르말리(нормаль)르 해야 데오.{그러면 고거 가져다가 응. 온도를 딱 평균을 유지해야 되오.}

10414 @ 아아.{아아.}

10414 #1 쯤빠라뚜라(температура) 거저 스물한내무 스물한내구 요렇게 집이 덤, 덩기서리 [더끼서리].{온도가 그저 21도면 21도고 요렇게 집이 덤, 덩계.}

10414 @ 덩계.{덩계.}

10414 #1 야아. 덩계 게 덩때르 이릉기 매오.{응. 덩계 게 시렁을 이릉기 매오.}

10414 @ 예에.{예에.}

10414 #1 고거 깨울적에느 덩때르 요러 우테니(в тени)다가 놓구서리 싹 조엘르 요렇게 맨 들어서 고기다 쫄: 폐농군느 거기다.{고거 알을 까일 적에는 덕을 요렇게 그늘에다가 놓고서 싹 종지로 요렇게 만들어서 고기다 쪽 퍼놓고는 거기다.}

10414 @ 그 요만큼 들어있는 것이?{그 요만큼 들어 있는 것이?}

10414 #1 그거 냐~ 거 싹 털어서 놓소.{그거 응 그거 싹 털어서 놓소.}

10414 @ 예에.{예에.}

10414 #1 기래구 고거 야~ 요렇게 맨드오. 요렁기 요렁기.{그리고 고거 응 요렇게 만드오. 요렇게 요렇게.}

10414 @ 종지로.{종지로.}

10414 #1 조애르 조애르 싹 요렇게.{종이를 종이를 싹 요렇게.}

10414 @ 예.{예.}

10414 #1 귀때기르 요래 요래서 맨드오. 그래 맨들어서 고안에다 열어서 그거 까딱 온도에 딱 익게서리. **고얀 낱구서. 기계 기래무: 미출이 한:달이.{귀를 요래 요래서 만드오. 그래 만들어서 고 안에다 넣어서 그거 딱 온도에 딱 익게 해서 고 안에 놓고서. 그게 그러면 며칠이, 한 달이 (지나면).}

10414 @ 음.{음.}

10414 #1 누(ну). 기계 다아 까지오. 까져서.{음. 그게 다 까이오, 까여서.}

10414 @ 그면, 그 알이.{그러면, 그 알이.}

10414 #1 야 고 알이 벌거지 나오지.{응 고 알에서 벌레가 나오지.}

10414 @ 알이 쪼그만해요?{알이 쪼그마해요?}

10414 #1 으~. 췌꼬 아. 아::, 물고기 알이 만:앗소.{응. 조끄(망고) 아. 아아, 물고기 알 만 하오.}

10414 @ 아아.{아아.}

10414 #1 물고기 알이 만:한테 거기 벌거지 나오지. *그다 한달 잇으무 그 나오지. 게 그건 또 다른 데다가 또 고거 고릴 직[찍]에 에따(это) 잇우.{물고기 알 만한테 거기에서 벌레가 나오지. 그다음 한 달 잇으면 그 벌레가 나오지. 그래 그건 또 다른 데에다가 또 고거 고릴 적에 음 잇을.}

10414 @ 네.{네.}

10414 #1 뽕잇우.{뽕잇을.}

10414 @ 예.{예.}

10414 #1 고거 이렇게 놓소.{고거 이렇게 놓소.}

10414 @ 음.{음.}

10414 #1 *요러 잇이. 그러구 잇이 요령지 첫감에 이실 직[찍]에. 고 잇우 나서 고거 윽기오 [엥기오].{요런 잇. 그리고 잇이 요령지. 처음 누에가 잇을 적에. 고 잇을 놔서 고거 윽기오.}

10414 @ 거기 올라가게 해요?{거기 올라가게 해요?}

10414 #1 야. 거기르, 거기르 올라가기. 올라가 가이 고기 딱 붙소.{응 거기르, 거기르 올라가 게. 올라가, 올라가니 고기에 딱 붙소.}

10414 @ 에에~.{에에.}

10414 #1 기래 요래 놔아서 그거 또 다른 조애애다가 또 그렇게 맨드는 고런 조애다 놔아서 기래 그거 한 꼬로브까(коробка)르 *꼬로(коро), 한: 풀로브까(коробка)르 그 한 꼬로브까(коробка)대로 놔두우.{그래 요래 놔서 그거 또 다른 종이애다가 또 그렇게 만드는 고런 종이애다 놔서 그래 그거 한 작은 상자를, 상(자), 한 상자를 그 한 상자대로 놔두오.}

10414 @ 그러면.{그러면.}

10414 #1 다른 거 한테다 합하재이우[하파재이우].{다른 거 한테다 합하지 았소.}

10414 @ 어 왜요?{어 왜요?}

10414 #1 아이 합하오[하파오].{안 합하오.}

10414 @ 합허문 죽어?{합하면 죽어?}

10414 #1 아이! 죽둔애이두 사름덜 가질 직에.{아니! 죽지는 았아도 사름들 가질 적에.}

10414 @ 예.{예.}

10414 #1 한 꼬로브까(коробка)르 가진 사름이 잇구. 반 꼬로브까(коробка)르 가진 사름이 잇지.{한 상자를 가진 사름이 잇고. 반 상자를 가진 사름이 잇지.}

10414 @ 아아.{아아.}

10414 #1 기래무 그거 가지구서리.{그러면 그거 가지고서.}

10414 @ 그면은 한 *꼬 한 그 한 꼬로브까(коробка)면.{그러면은 한 상, 한 그 한 상자면.}

10414 #1 야~아.{응.}

10414 @ 그면은 나중에 고치가 얼마꿈이나 대.{그러면은 나중에 고치가 얼마꿈이나 돼.}

10414 #1 아아:, 고치 그거 내 반 *꼬로, 뿔 그람(грамм) 가졌던지. 내 빠르브(первый) ***뽕냐~일해서 내 상급 탕소.{아아, 고치 그거 내 반 상자, 뿔 그램을 가졌던지. 내가 일등 *** 일해서 내가 상급(賞給)을 탕소.}

10414 @ 음. 그러면은.{음. 그러면은.}

10414 #1 많이[마이] 잘 맥이재잉겏소?{많이 잘 먹이지 않겏소?}

10414 @ 예.{예.}

10414 #1 벌기 아이 죽구 잘 맥이기마 하무 기게 우로샤이(урожай) 잘 나오. 그러나.{벌레 안 죽고 잘 먹이기만 하면 그게 수확이 잘 되오. 그러나.}

10414 @ 음.{음.}

10414 #1 그거어 어따(это) 죽은 사름 바두 못쓰구. 모오 쓸 데르 바두 못쓰구.{그거 음 (누에 칠 때는) 죽은 사름을 봐도 못쓰고. 묘를 쓸 데를 봐도 못쓰고.}

10414 @ 으음.{으음.}

10414 #1 그래마 아이 테오. 기게 고렁기 사까롭운 게지.{그러면 안 되오. 그게 고렁게 까다로운 것이지.}

10414 @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는 낭그 이렇게 세워 놓고.{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세워 놓고.}

10414 #1 아아. 덩때르 매지.{응. 덕을 매지.}

10414 @ 이려구 덩때를 매지?{이려고 덕을 매지?}

10414 #1 덩때르 매지. 덩때르 매데 고 덩때애다가서 싹 고 잎울루 올리오.{덕을 매지. 덕을 매되, 고 덕에다가 싹 고 잎을 올리오.}

10414 @ 으음.{으음.}

10414 #1 잎울루 따악따 울레서 그다음에는 그게 어저느: 한달이 넘을기오, 아무(래), 야.{있으로 딱딱 울레서 그다음에는 그게 이제는 한 달이 넘을 게오, 아마도, 응.}

10414 @ 음.{음.}

10414 #1 기게 지재빌르 싹 쏴아서 맥이오.{그게 자기가 싹 썰어서 먹이오.}

10414 @ 그 맨 첨에 인자 벌레 벌거지 쪼마:이 나올때.{그 맨 처음에 인제 벌레, 벌레가 쪼그맣게 나올 때.}

10414 #1 야아~.{응.}

10414 @ 그때는 쏴아서 맥여?{그때는 썰어서 먹여?}

10414 #1 아: 그때는 쏴아서 맥이쨩구 싹 쏴아 맥이우.{아 그때는 썰어서 먹이지 않고 싹 썰어 먹이오.}

10414 @ 예.{예.}

10414 #1 조꼬말 직인 싹 쏴아 맥이우.{조꼬말 적에 싹 썰어 먹이오.}

10414 @ 음.{음.}

10414 #1 개 쏴아 맥이무 발써 어: 한달이 네:트(нет)!, 한달이 한주일이기만하무 한: 니지야(неделя).{그래 썰어 먹이면 벌써 어 한 달, 아니! 한 달, 한 주일이 되면, 한 주(週).}

10414 @ 예.{예.}

10414 #1 한 주일이기만 하무 기게 싹 까오.{한 주일이기만 하면 그게 싹 까오.}

10414 @ 아아.{아아.}

10414 #1 기게 우리 느베르 치는게 한:달 메칠이기마 하무 오부셰(вообще) 다 테오.{그게 우

리가 누에를 치는 게 한 달 며칠만 되면 대개 다 되요.}

10414 @ 그래요?{그래요?}

10414 #1 야~아 한달. 두달 아이 데요.{응 한 달. 두 달은 안 되요.}

10414 @ 그면 누, 고치가 데요?{그러면 누에 고치가 돼요?}

10414 #1 기래 어전 고치 데요.{그래 이제 고치가 되요.}

10414 @ 오오.{오오.}

10414 #1 고치데요. 그러나 기계: 밤 아이 자꾸야 기계 잘 데지 밤 자꾸 밤에 아이 맥이구 이래무 잘 아이 데요.{고치가 되요. 그러나 그게 잠을 안 자고야 그게 잘 되지 잠자고 밤에 안 먹이고 이러면 잘 안 되요.}

10414 @ 밤에두 맥여요?{밤에도 먹여요?}

10414 #1 밤:낮으 맥에야 데지. 밤:낮으. 세보구 더 먹소.{밤낮을 먹여야 되지. 밤낮을. 소보다 더 먹소.}

10414 @ 네. 그러면 아까 그마끔을 가지면:.{네. 그러면 아까 그만끔을 가지면.}

10414 #1 으~:.{응.}

10414 @ 나중에 고치가 데면 한 이 이정도 방에다 키우는거여?{나중에 고치가 되면 한 이 이 정도 방에다 키우는 거야?}

10414 #1 야아:! 거기 뿔그람으 가지무 이런 칸으 두 칸마 첫감에느 그거 이런 칸에다 자래우지.{야! 거기 뿔 그램을 가지면 이런 칸을 두 칸만, 처음에는 그거 이런 칸에다 기르지.}

10414 @ 예.{예.}

10414 #1 그담엔 괴게 크기마 하무, 야, 새끼르 잉게 느베르 맨들재이오?{그다음에는 그게 크기만 하면, 응, 새끼를 이렇게 누에를 만들지 않소?}

10414 @ 예.{예.}

10414 #1 그럴 직엔 한지르 내가오.{그럴 적에는 한데로 내가오.}

10414 @ 어.{어.}

10414 #1 이 집에서 치무 한지르 내가오. 한지 저 나베시(навес) 밑 같은 데다 싹 덩때르 매구. 기래구 거기다 빌(быльё)으 주오. 빌(быльё)으. 그런게 또 잇소. 빌(быльё) 어디가 먼데 가 캐오오 그거.{이 집에서 치면 한데로 내가오. 한데 저 가건물(또는 창고) 밑 같은 데다 싹 덕을 매고. 그리고 거기다 풀을 주오. 풀을. 그런 게 또 잇소. 빌, 어디가 먼 데 가서 캐 오오, 그거.}

10414 @ 에에.{에에.}

10414 #1 기래 그.{그래 그.}

10414 @ 낭그야? 나, 낭그?{나무야? 나, 나무?}

10414 #1 낭기 아이구 풀이오.{나무 아니고 풀이오.}

10414 @ 풀이요?{풀이요?}

10414 #1 야아. 풀이. 그런거 개다가서리 이래 주지. 기러재이무 벳짚우 주우.{응. 풀. 그런 거 가져다가 이래 주지. 그러지 않으면 벳짚을 주오.}

10414 @ 아아! 벳짚을.{아아! 벳짚을.}

10414 #1 베, 벳짚우 주우. 벳짚우두 또 그건 야 이래 앞두우 쏘아서 그거 한판에다 그 그런 거 기래서.{벼, 벳짚을 주오. 벳짚도 또 그런 응 이래 앞뒤로 썰어서 그거 복판에다 그

그런 거 그래서.}

10414 @ 이렇게, 이렇게.{이렇게, 이렇게.}

10414 #1 야.{응.}

10414 @ 해가지고?{해 가지고?}

10414 #1 기래 그래서 이래 주무 기계 영:키사 그 그렇기 이렇기 주우.{그래 그래서 이래 두
면 그게 영기어서 그 그렇게 이렇게 주오.}

10414 @ 음. 그러면 빵을 빵을 하루에 얼마나 얼마큼씩이나 먹어요.{음. 그러면 빵을 빵을
하루에 얼마나 얼마큼씩이나 먹어요?}

10414 #1 엠매 먹는가구?{얼마 먹는가 하고?}

10414 @ 아.{아.}

10414 #1 먹는게.{먹는 게.}

10414 @ 어.{어.}

10414 #1 야야:! 마이 먹소. 세마 더 먹소.{야! 많이 먹소. 소보다 더 먹소.}

10414 @ 그래요?{그래요?}

10414 #1 세마 더 먹소.{소보다 더 먹소.}

10414 @ 그게?{그게?}

10414 #1 그 ***빠양하오. 밤:낮으 맥이다나이 한참 맥일 *떡이(←직이) 아이 맥이재일겄소?
그거 등지르 못 트우.{그 **하오. 밤낮을 먹이다 보니, (만약에) 한참 먹일 적에 안 먹이
잖겄소? (그러면) 그 누에가 고치를 못 트오.}

10414 @ 그래요?{그래요?}

10414 #1 아 등지르 못트우.{응 고치를 못 트오.}

10414 @ 으음.{으음.}

10414 #1 그거 먹을 직에 잘 맥에야 등지 잘 데오. 잘 데구 거기 으 땅판하게 맨드짐.{그거
먹을 적에 잘 먹여야 고치가 잘 되오. 잘 되고 그게 어 (고치를) 판판하게 만들지 뭐.}

10414 @ 그럼 그게 그게.{그럼 그게 그게.}

10414 #1 음.{음.}

10414 @ 한 일주일 일주일에 인자 까고 나오면.{한 일주일 일주일에 인제 알을 까고 나
오면.}

10414 #1 아.{응.}

10414 @ 그담부터 얼마 정[정]도 맥이면은 잠을 자?{그다음부터 얼마 정도 먹이면 잠
을 자?}

10414 #1 기래 다아 거떠비(готовить) 데잠. 다아. 다 데잠 한달바이구야 다 데오.{그래 다
(거들) 준비가 되자면. 다. 다 되자면 한 달 반이어야 다 되오.}

10414 @ 한달 반.{한 달 반.}

10414 #1 야. 한달 바이구.{응. 한 달 반이고.}

10414 @ 그러면 맨 처음에 얼마 정[정]도 먹어야지 한번 잠을 자요?{그러면 맨 처음에 얼마
정도 먹어야지 한번 잠을 자요?}

10414 #1 에, 에엔 첫감에 맥일 직에는 야?..... 첫감에 그렇게 마이 아이 먹소. 싹 쫄:아서.
{매, 맨 처음에 먹일 적에는 응?....., 처음에 그렇게 많이 안 먹소. 싹 썰어서.}

10414 @ 음.{음.}

10414 #1 썰:아서 아무래 한 ***이질르 썰:아 맥이오.{썰어서 아마 한 ***을 썰어 먹이오.}

10414 @ 으음.{으음.}

10414 #1 그담에느 낭그 요렇게 주우 그 낭기 어.{그다음에는 나무를 요렇게 주우 그 나무가 어.}

10414 @ 아. 그담부터는요.{아. 그다음부터는요.}

10414 #1 야. 거저 벌거지 약하다:만 게 나~?{응. 그저 벌레 아주 약한 것이 응?}

10414 @ 예.{예.}

10414 #1 요막씨 클 직[찍]이느 오부셰(вообще) 에따(это) 낭그 주오.{요만큼씩 클 적에는 전적으로 음 나무를 주오.}

10414 @ 으음.{으음.}

10414 #1 낭그 주대, 약한 낭그 주우.{나무를 주되, 약한 나무를 주오.}

10414 @ 음.{음.}

10414 #1 그다음에 크:재잉겟소? 이릉게 크기마하무.{그다음에 크지 앳겟소? 이릉게 크기만 하면.}

10414 @ 예.{예.}

10414 #1 큰 낭그 막 쥐두 거저 다 먹소.{큰 나무를 막 쥐도 그저 다 먹소.}

10414 @ 으음.{으음.}

10414 #1 야아! 잘 먹소 데게. 고:: 먹는 어간에 하 하 한 스무날 도[똥]~안으 그릉게 쪽 먹소 스무날 도[똥]~안으.{야! 잘 먹소 되게. 고 먹는 사이에 하 하 한 스무날 동안을 그릉게 쪽 먹소 스무날 동안을.}

10414 @ 스무날 동안에.{스무날 동안에.}

10414 #1 야 스무날 도[똥]~안으 먹구. 그담에느 기계 어저느 두~이 트자구 시잭일 할 직에느 거저 마알강소, 거저.{응 스무날 동안을 먹고. 그다음에는 그게 이제는 고치를 틀자고 시작할 적에는 그저 말강소, 그저.}

10414 @ 아아.{아아.}

10414 #1 그 새하양재앵구. 거저 노꾸무레:한게 마알강소.{그 새하양지 앳고. 그저 노르끄름한 게 말강소.}

10414 @ 아.{아.}

10414 #1 개구 이 첫감에느 거저 이릉게 큰:게야 첫하얀게 이릉기 크게 야아! 보드랍다아만 게 그릉게 먹음즉하지.{그리고 이 처음에는 그저 이릉게 큰 것이 응 새하얀 게 이릉게 큰 게 야! 아주 보드라운 게 그릉게 먹음직하지.}

10414 @ 예.{예.}

10414 #1 그담에느 조끔 밍게 데오.{그다음에는 조끔 밍게 되오.}

10414 @ 으음.{으음.}

10414 #1 밍게 데서 그담에느 두~이 틀적에느 어 노오랑게 데멘서리 두~이 틀시잭이르 하지.{밍게 되어서 그다음에는 고치를 틀 적에는 어 노랑게 되면서 고치 틀 시작을 하지(= 고치를 틀기 시작하지).}

10414 @ 어어. 근데 실제로:.{어어. 그런데 실제로.}

10414 #1 응.{응.}

10414 @ 그 꼬치를 보면. {그 고치를 보면.}

10414 #1 아.{응.}

10414 @ 누에꼬치를.{누에고치를.}

10414 #1 아.{응.}

10414 @ 벗겨보면 버, 벌레가 이만 기잡아요. 속에 들어있는 거.{벗겨 보면 버, 벌레가 이만 하게 길잡아요. 속에 들어있는 거.}

10414 #1 속에 잇소. 새까만 게.{속에 잇소. 새까만 게.}

10414 @ 예. 새까맣게.{예. 새까맣게.}

10414 #1 새까맣게.{새까맣게.}

10414 @ 뽕데기라 그래지, 우리. 뭐라 그래요 여그선?{뽕데기라 그러지,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여기서는?}

10414 #1 아아!{아아!}

10414 @ 우린 그 뽕데기라고.{우리는 그 뽕데기라고.}

10414 #1 우리네는 우리넨 나비라 하오.{우리네는 우리네는 나비라 하오.}

10414 @ 나비는 날라가는게 나비지.{나비는 날아가는 게 나비지.}

10414 #1 야. 이것두 나비라 하지.{응. 이것도 나비라 하지.}

10414 @ 그것도 나비라 그래요?{그것도 나비라 그래요?}

10414 #1 아아 우린데서 나비라지. 기(그+ 이) 그거 이래 가져가요. 우리네 야? 그거 라이온(рай он)으 가져가요. 우리 동네서 아이 기래구.{어 우리가 있는 데서는 나비라 하지. 그게 그거 이래 가져가요. 우리네는 응? 그거 구(區)에서 가져가요. 우리 동네에서 안 그러고.}

10414 @ 에에.{에에.}

10414 #1 그거 실어서 싹 거기서 이렇게 우리 이: 큰: 이 조에**야식이(ясли)다가 담아서 기래 가져가지. 가애가기만 함 거기서 어찌는가 하이 야~. 그렇게 큰: 집이 잇소. {그거 실어서 싹 거기서 이렇게 우리 이 큰 이 종이로 만든 여물통에다가 담아서 그래 가져가지. 가져가기만 하면 거기서 어찌하는가 하니 응. 그렇게 큰 집이 잇소.}

10414 @ 음.{음.}

10414 #1 경계다가서리 야 이렇게 찌오. 불우 때메서리 찌오.{거기에다가 응 이렇게 찌오. 불을 때면서 찌오.}

10414 @ 아. 죽이는구만, 죽에 다이~.{아. 죽이는구면, 죽여 다.}

10414 #1 죽이오. 그거. 야~, 아이 죽이구 우리 재밋집에서두 귀게 만저 튼게 잇재오?{죽이오. 그거. 안, 안 죽이고, (그냥 두면), 우리 자기 집에서도 그제 먼저 튼 게 잇잖소?}

10414 @ 네.{네.}

10414 #1 나비 데 날아나오.{나비 돼 날아 나오.}

10414 @ 아아.{아아.}

10414 #1 궁구 뚫소. 궁구 뚫우무 에따(это) 거저 우제(уже) 브라꼬바니(бракованный).{구멍을 뚫소. 구멍을 뚫으면 음 그제 이미 불합격이지.}

10414 @ 어어.{어어.}

10414 #1 그렇소.{그렇소.}

10414 @ 으음.{으음.}

10414 #1 그렇기 그거 느베치기라 하오.{그렇게 (하는데) 그걸 누에치기라 하오.}

10414 @ 그러면 잠은 잠은 몇잠 몇번 자?{그러면 잠은 잠은 몇 잠 몇 번 자?}

10414 #1 네번 자오.{네 번 자오.}

10414 @ 네번 자요?{네 번 자요?}

10414 #1 네번 자구 다섯번째 자면 트오.{네 번 자고 다섯 번째 자면 트오.}

10414 @ 아아. 다섯번째 자면은?{아아. 다섯 번째 자면은?}

10414 #1 야아. 트오. 네…….{응. 트오. 네 (번).}

10414 @ 그게 한번 한번 잘 잠잘 때마다 살.{그게 한번 한번 잘 잠잘 때마다 살.}

10414 #1 껍지 뺏어지오.{껍질이 벗겨지오.}

10414 @ 껍질 벗겨져요?{껍질 벗겨져요?}

10414 #1 야. 껍지 뺏어지오. 한번 자무 껍지 뺏어지오. 딱 한번 자무 껍지 뺏어지오.{응. 껍질이 벗겨지오. 한번 자면 껍질이 벗겨지오. 딱 한번 자면 껍질이 벗겨지오.}

10414 @ 그러면 그 껍질 같은거는 다 사람이 뺏겨주는거여?{그러면 그 껍질 같은 거는 다 사람이 벗겨주는 거야?}

10414 #1 그거 싹 이거 머거리 줄 직[찍]이 이릉기 주지.{그거 싹 이거 먹이를 줄 적에 이렇게 주지.}

10414 @ 네.{네.}

10414 #1 이거 이릉게 세, 네번씩 주오.{이거 이렇게 세, 네 번씩 주오.}

10414 @ 하, 하루에?{하, 하루에?}

10414 #1 할랄에 그게 몇번 거저 먹지. 밀엿 건 빼데지오.{하루에 그거 몇 번 그저 먹지. 밀에 거는 빼 버리오.}

10414 @ 에.{에.}

10414 #1 빼데지구. 거기 벌거지 약간 잇음 거 싹 좃어서 고기다 또 올레놓소.{빼 버리고. 거기에 벌레가 약간 있으면 그거 싹 주워서 고기에다 또 올려놓소.}

10414 @ 예 예 예.{예 예 예.}

10414 #1 기래구서르느 빼데지구는 또 거기다가 또 올레놓구 또 올레놓구. 그릉기 몇 번 주오. 기에 할랄에 몇번씩 주겠소? 머거리.{그리고서는 빼 버리고는 또 거기에다가 또 올려놓고 또 올려놓고. 그렇게 몇 번을 주오. 그래 하루에 몇 번씩 주겠소? 먹이를.}

10414 @ 하루에 하루도 몇번씩 주는 거예요?{하루에 하루에도 몇 번씩 주는 거예요?}

10414 #1 몇:번씩 주쟁구! 그거.{몇 번씩 주고 말고! 그거.}

10414 @ 오오.{오오.}

10414 #1 발써:: 어 주구서리 저짜꺼느 발써 새하양게두 맨 낭기데오.{벌써 어 주고서(=주다 보면) 저쪽 거는 벌써 새하양게 맨 나무가 되오(=나무만 남소).}

10414 @ 오오오.{오오오.}

10414 #1 저짜꺼 발써 냉기데오. 그래무 또: 그거 이짜꺼 마감 거 주는 어가이무 그것두 다 먹기마 함 인차 또 그거 쥐야테지. 게 찍는 사람이 한내 못찍소. 그거 낭그 이래 찍는 사람이. 아아덜이랑 찍기오. 핵생 아덜두 찍기우구. 그 일하는[이라는] 아매덜두 찍기우구. 기래 찍기우구.{저쪽 것은 벌써 나무가 되오. 그러면 또 그거 이쪽 건 마지막 것을 주는 사이면 그것도 다 먹기만 하면 이내 또 그거 쥐야 되지. 그래 (뽕나무를 도끼로) 찍는 사람이 하나이면 못 찍소. 그 나무를 이래 찍는 사람이. 그래서 아이들에게 찍게 하오. 학생 아이들도 찍게 하고. 그 일하는 할머니들도 찍게 하고. 그래서 찍게 하고.}

10414 @ 어어.{어어.}

10414 #1 기래 찍기와는 그거 주짐. 기래 거저 그렇게 크, 큰 칸에다 이렇기 덜이 재이오.
{그래 찍게 해서는 그걸 (누에에게) 주지 뭐. 그래 그저 그렇게 크, 큰 칸에다 이렇게 들
이어 쟁여 놓소.}

10414 @ 음.{음.}

10414 #1 머거르. 기래구 거저 주는 사름우는 실새없이 주우. 이거 다 주기마함 저짜건 발써
다 먹소.{먹이를. 그리고 그저 주는 사람은 (그걸 가져다가) 쉼 새 없이 주오. 이거 다
주기만 하면 저쪽 거는 벌써 다 먹소.}

10414 @ 으음.{으음.}

10414 #1 그렇게 우리네는 그 그거 해엿소.{그렇게 우리네는 그 그거 했소.}

10414 @ 어.{어.}

10414 #1 그담에는 거기서 우리네: 한해르 또 한게 잘 아이 데서.{그다음에는 거기서 우리네
가 한 해를 또 누에치기를 한 것이 잘 안 돼서.}

10414 @ 음.{음.}

10414 #1 잘 아이 데서, 잘 아이 데서 다아 썩엇짐. 싹 죽소. **잠목 이라무 **자아 죽소. 잘
못벅에.{잘 안 돼서, 잘 안 돼서 다 썩엇지 뭐. 싹 죽소. 잘못 이러면 다 죽소. 잘못 먹
여.}

10414 @ 왜 왜 왜 죽은거예요.{왜 왜 왜 죽은 거예요.}

10414 #1 어째 그런지 어, 어째 그런지 야~. 어 쟈빠라뚜라(температура)르 맞추, 맞추재애
두 저 쟈르모메뜨(термометр) 온도르 아이 맞차두 냐~?{어째 그런지 어, 어째 그런지
응. 어 온도를 맞추, 맞추지 않아도 저 온도계의 온도를 안 맞춰도 응?}

10414 @ 예.{예.}

10414 #1 그게 아, 아이 데오.{그게 안, 안 되오.}

10414 @ 예.{예.}

10414 #1 그렇기 아이 데오.{그렇게 안 되오.}

10414 @ 아.{아.}

10414 #1 거저 딱 온도르 맞추구. 그저 잘 멕이구. 실시 없소.{그저 딱 온도를 맞추고. 그저
잘 먹이고 (하면) 실수(失手) 없소.}

10414 @ 아.{아.}

10414 #1 그렇게 잘 데오.{그렇게 잘 되오.}

10414 @ 그 죽으면 어뜨게 데?{그 죽으면 어떻게 돼?}

10414 #1 죽으무 그건 어저는 어전 없, 죽으무 다른 것두 다 없어지오. 없어지오. 지내 미두
리.{죽으면 그건 이제는 이젠 없, 죽으면 다른 것도 다 (죽어) 없어지오. 없어지오. 아주
송두리째.}

10414 @ 한번 죽기 시작하면 그냥 다 죽어버려요?{한번 죽기 시작하면 그냥 다 죽어 버려
요?}

10414 #1 야~아! 다 죽소.{응! 다 죽소.}

10414 @ 어어.{어어.}

10414 #1 개구 어저는 그 해애는 거저 그해는 농새 없소. 느베농새 없소.{그리고 이제는 그
해애는 그저 그 해는 농사가 없소. 누에 농사가 없소.}

10414 @ 어어.{어어.}

10414 #1 잘 데는 해느 잘 데오.: 잘 데는 헨 기차게. 한해르 그렇게 잘데서리 내 글쎄 뿌레미(премия)르 탕단말이우.{잘 되는 해는 잘 되오. 잘 되는 해는 기가 막히게. 한 해는 그렇게 잘 돼서 내 글쎄 상을 탕단 말이오.}

10414 @ 오오.{오오.}

10414 #1 형것으.{천을}

10414 @ 어어.{어어.}

10414 #1 게 그저 못쓰게 텐젠 야. 그렇게 많이[마~이] 쥐두 땃 길로 준건 아이 생각히우. 어전 너무 어전 스물다스해 데오. 그거 느베 체본지.{그래 그저 못쓰게 된 것은, 응. (누에고치를?) 그렇게 많이 주었는데도 몇 킬로 주었는지는 생각이 안 나오. 이제 너무 (오래 돼서), 이제 스물다섯 해 되오. 그거 누에 쳐 본지가.}

10414 @ 어어.{어어.}

10414 #1 (웃음) 기래 어전의 잊어뿌렛소.{(웃음) 그래 이제는 잊어버렸소.}

5. 안타샤의 이주와 정착 생활

@ 그러면은 그렇게 인자 쳐서 그 가 내면은.{그러면 그렇게 인제 누에를 쳐서 그걸 관(官)에 가 내면.}

#1 아.{응.}

@ 그 정부에서 또 돈, 돈을 많이 주나?{그 정부에서 또 돈, 돈을 많이 주나?}

#1 돈으 주지. 돈 주지 우리네느. 한길로에 엠매주던것두 내 잊어뿌렛소.{돈을 주지. 돈 주지 우리에게. 1킬로에 얼마씩 주던 것도 내가 잊어버렸소.}

@ 오.{오.}

#1 한길로에 엠매씨 그렇게 쥐.{1킬로에 얼마씩 그렇게 쥐.}

@ 그러면 그게 그:: 베평사 하는 거보단 나아?{그러면 그게 그 베평사 하는 것보다는 나아?}

#1 그래.{그래.}

@ 돈 더 많, 많이.{돈 더 많, 많이.}

#1 더 받소. 많이[마이] 받소 돈으 야.{더 받소. 많이 받소, 돈을, 응.}

#1 그래 이랬소. 우리네느. 니베 친구,{그래 이랬소. 우리네는. 누에를치고,}

@ 음.{음.}

#1 어: 에엔 빼레(пере) 우르자이(урожай), 느베치기.{어 가장 수확이 많은 것이 누에치기.}

@ 음.{음.}

#1 그다음에느 우리네 음 목해밭으르 나가오.{그다음에는 우리네 음 목화밭으로 나가오.}

@ 네.{네.}

#1 목하밭으 땃 켱따르(гектар) 가지오. 거저 요거 네 켱따르(гектар) 세 켱따르(гектар) 그렇게 가지오.{목화밭을 몇 헥타르를 가지오. 그저 요거 4헥타르 3헥타르 그렇게 가지오.}

@ 어.{어.}

#1 께남(конопля)밭으 한 켱따르씨(гектар) 이릉기 가지우.{삼[麻]밭을 1헥타르씩 이렇게 가지오.}

@ 음.{음.}

#1 기래 거저 돈우 기래 벌지 무. 개 아바이네 끼노(кино)서 일해구. 나는 어 그런 데서. 기래두 기계 도이 많재이오. 영게 와서 우리 돈으 데게 벌었어::.{그래 그저 돈을 그렇게 벌지 뒤. 그래 우리 할아버지(=남편)는 극장에서 일하고. 나는 어 그런 데서 (표를 팔고). 그래도 그게 돈이 많지 않소. 여기(=비슈케크) 와서 우리 돈을 되게 벌었어.}

@ 여기 와서?{여기 와서?}

#1 여기 와서, 푸룬세(Фрунзе).{여기 와서, 푸룬세(=비슈케크).}

@ 뭐허셔가지고.{뭐하셔 가지고.}

#1 어따(это) 루꾸(лук) 지일 해서.{음 파농사 해서.}

@ 무꾸?{무?}

#1 루꾸(лук) 지일 해서. 파지일 해서.{파농사를 해서. 파농사를 해서.}

@ 파, 파?{파, 파?}

#1 파 파지일 야~.{파 파농사 응.}

@ 아.{아.}

#1 파지일 해서 그때애 어: 쎄쎄쎄에르(СССР, =Союз Советских Социалистических Республик) 직이. 노시앗도이 직[직]이.{파농사를 해서 그때애, 어 구소련일 적에. 러시아 돈일 적에.}

@ 어.{어.}

#1 스물다스[스물따스]천씨 벌었소. 서른천씨 벌었소 다시.{25,000(루블)씩 벌었소. 30,000(루블)씩 벌었소 다시.}

@ 어어.{어어.}

#1 기래서 이 집우 이기 스물다스[스물따스]천짜리 집이오.{그래서 이 집을 이게 25,000(루블)짜리 집이오.}

@ 음. 그때 사신 거예요?{음. 그때 사신 거예요?}

#1 루블릿(рубль) 적, 루블리(рубль)르 할 적에 이게 스물다스[스물따스]천이오.{루블(을 사용할) 적에, 루블을 사용할 적에 이게 25,000루블이오.}

@ 아.{아.}

#1 시방 이집 파자무 야? 이 우리지 이집우 파자무. 스물다스[스물따스] 달러(доллар)르 스물다섯천 달러(доллар)르 받소. 이집.{시방 이 집을 팔자면 응? 이 우리 집 이 집을 팔자면. 25달러를 (아니!) 25,000달러를 받소. 이 집.}

@ 음.{음.}

#1 파자무.{팔자면.}

@ 아.{아.}

#1 시방 집값이 모지 잇소.{시방 집값이 몹시 잇소(=아주 비싸오).}

@ 으흠.{으흠.}

#1 그렇소. 게 여기 와서 저 죽, 저 죽은 아들이 집우 샷졌지.{그렇소. 그래 여기 와서 저 죽, 저 죽은 아들의 집을 사 주었지.}

@ 음.{음.}

#1 마시나(машина)르 샷졌지. 저:기 잇는 아덜으는 국가서 집우 줬소.{자동차를 사 줬지. 저

기 있는 아이들은 국가에서 집을 줬소.}

@ 으음.{으음.}

#1 기래구 거저 이런 빨라스(Палас)두 싸주구 이런거 이런것두 싸주구. 거저 그랫뻤어.{그리고 그저 이런 용단(絨緞)도 사 주고 이런 거, 이런 것도 사 주고. 그저 그랬었어.}

@ 그면 이 집은 그때 돈 벌어갖고 사신거예요?{그러면 이 집은 그때 돈 벌어 갖고 사진 거예요?}

#1 으음! 그때 돈 벌어서.{응! 그때 돈 벌어서.}

@ 파해가, 파해 가지고?{파 농사를 지어서, 파 농사를 지어서?}

#1 파 가주구서르 기랫지.{파를 가지고서 그랬지.}

@ 으음.{으음.}

#1 우리네 저 따쉬켄트 살적에는 구차해엿소. 쫓. 도이낭 없지.{우리네 저 타슈켄트에 살 적에는 구차했소. 쫓. 돈이랑 없지.}

@ 아니, 그때도 아바이는: 그 끼노에서 끼노에서 근무했었, 그 일하면.{아니, 그때도 할아버지는 그 극장에서 극장에서 근무했었, 그 일하면.}

#1 게 그거는. 고까짓 돈.{게 그것은. 고까짓 돈.}

@ 거기서는 돈 많이 안받아?{거기서는 돈 많이 안 받아?}

#1 으흠! 뻤 알으 못 받소. 일일이 그 파지일해서 돈 잘 벌었어. 파지일해서.{음. 뻤 푼을 못 받소. 일일이 그 파 농사를 지어서 돈을 잘 벌었어. 파 농사를 지어서.}

@ 그러면.{그러면.}

#1 **잉~어*(←잉게), 우리 어느해 왔는가야. 팔십년도에 왔소.{여기로, 우리 어느 해에 왔는가 하니 응. 80년도에 왔소.}

@ 팔십년도에.{1980년도에.}

#1 야아. 여기르 팔십년도에 왔소.{응. 여기를 1980년도에 왔소.}

@ 그러면은, 그때가 페레스트로이까(перестройка) 이전이쥬?{그러면은, 그때가 페레스트로이카(=개혁) 이전이지요?}

#1 없었지. 그때는 없었지.{없었지. 그때는 없었지.}

@ 금 그때 쏘련이지.{그럼 그때 소련이지.}

#1 쏘려이지.{소련이지.}

@ 예.{예.}

#1 노시아때는 노시아도이지. 루블리(рубль) 떡이오.{러시아 때는 러시아 돈이지. 루블 (צל) 적이오.}

@ 예. 어 그러니까 그때 쏘련때도:.{예. 어 그러니까 그때 소련 때도.}

#1 아.{응.}

@ 마음대로 어디로 다닐 수 있었어요?{마음대로 어디로 다닐 수 있었어요?}

#1 그래.{그래.}

@ 어.{어.}

#1 그랫지. 게 우리.{그랬지. 그래 우리.}

@ 직장을 옮길 수가 있어?{직장을 옮길 수가 있어?}

#1 기래. 그래 따시켄서 사다 서:른헤르 따시켄 살았어.{그래. 그래 타슈켄트에서 살다가, 30년을 타슈켄트에서 살았어.}

@ 음.{음.}

#1 기래두 그릉기 잘 못살았어. 영계와서 아덜 싹 쳐세왔어. 마쉬나(машина)르 싸췌지.{그래도 그렇게 잘 못 살았어. 여기 와서 아이들을 싹 일으켜 세웠어. 자동차를 사췌지.}

@ 음.{음.}

#1 집우 싸췌지. 저 둘째아들이 좀 작게 가췌소. 저 딸이 좀 돈으 작게 가췌소. 이 만, 둘째아들, 만아들은 돈으 많이[마이] 가췌소. 어 돈 많이[마이] 췌어.{집을 사 주었지. 저 둘째아들이 좀 적게 가췌소. 저 딸이 좀 돈을 적게 가췌소. 이 만(아들이), 둘째아들(보다), 만아들은 돈을 많이 가췌소. 어 돈을 많이 췌어.}

@ 그먼 아들이 아들이 뗏이예요?{그러면 아들이 아들이 뗏이예요?}

#1 아들 두울이 딸이 한내.{아들 둘에 딸이 하나.}

@ 딸이 하나.{딸이 하나.}

#1 아. 저기 한내지.{응. 저기 하나지.}

@ 그문 지금 둘째아들은 어디있어?{그러면 지금 둘째아들은 어디 있어?}

#1 니췌따길리(Нижний Тагил) 쓰베르뜨로브(Свердлов)라구 잇소. 노시아에 사오.{스베르뜨로브스크 주의 니즈니타길리라고 잇소. 러시아에 사오.}

@ 노시아에?{러시아에?}

#1 노시아에 잇소.{러시아에 잇소.}

@ 거긴 돈좀 많이 벌었어?{거기는 돈 좀 많이 벌었어?}

#1 아: 기래 우리넬 주이. 어저느 우리네르 대비 주우.{응. 그래 우리네를 주지. 이제는 우리네에게 도로 주오.}

@ 음.{음.}

#1 이 딸이두 우리넬 대비 주구: 아들두 우리네르 대비 주구.{이 딸도 우리네에게 도로 주고. 아들도 우리네에게 도로 주고.}

@ 그렇지.{그렇지.}

#1 그전에느: 점엿일 직이 가덜이 조꿈.{그전에는 젊었을 적에 그 아이들이 조꿈.}

@ 다 그렇지 며, 어~.{다 그렇지 뭐, 응.}

#1 아. 우리네 다 췌겻지[생췌지].{응. 우리네가 다 (그 아이들을) 보살췌지.}

@ 음. 음. 음.{음. 음. 음.}

#1 좀 쳐세우느라구. 아덜으.{좀 일으켜 세우느라고. 아이들을.}

@ 으음.{으음.}

#1 기랜게 이제 와서느 늙어 어저느 늙어서 내일 죽어두 일없구.{그러면 이제 와서느 늙어 이제는 늙어서 내일 죽어도 괜찮고.}

@ (웃음).{(웃음).}

#1 난 날마다 죽자구 그른게 아이 죽어지오.{난 날마다 죽자고 그러는데 안 죽어지오.}

@ 워트게 죽어집니까 그게?{어떻게 죽어집니까 그게?}

#1 야야! 어트게 죽었으무 좋겠는데.{야! 어떻게 죽었으면 좋겠는데.}

10203 @ (웃음) 근데 시집 시집오실 때.{(웃음) 그런데 시집, 시집오실 때.}

10203 #1 응.{응.}

10203 @ 시집을 때 시집을 때.{시집을 때 시집을 때.}

10203 #1 아~.{응.}

10203 @ 둘이 연애하셨다면서요?{둘이 연애했다면서요?}

10203 #1 아:~, 우리 시혜~이 나르 그렇게 게 영 사랑했댜소. 우리 시혜~이. 기래메서리 동새 애 잇다구서르 동새에게르 가 보내자구 나르 애르 썼지. 우리 저 아바이 헤~이. {응, 우리 시형이 나를 그렇게 아주 사랑했었소. 우리 시형이. 그러면서 동생이 있다고 나를 동생에게로 보내자고 애를 썼지. 우리 저 할아버지(=남편)의 형이.}

10203 @ 아아.{아아.}

10203 #1 아바이 헤~이 나르 그렇게 영 곱아했소, 그전에.{할아버지(=남편) 형이 나를 그렇게 아주 좋아했소, 그전에.}

10203 @ 워튼게 알았어?{어떻게 알았어?}

10203 #1 나느:: 까작스판(Казахстан)에 잇다가 와서는 이.{나는 카자흐스탄에 잇다가 와서는 이.}

10203 @ 음.{음.}

10203 #1 이 우즈벡스판(Узбекистан)으르 왔지.{이 우즈베키스탄으로 왔지.}

10203 @ 예.{예.}

10203 #1 새애길르.{처녀로.}

10203 @ 예.{예.}

10203 #1 기래 와서, **물시혜~ 나르 데게 기래서. 울 시헬르 해서 저 저 우, 저 영갸게르 시 집갔어.{그래 와서, 우리 시형이 나를 되게 그래서(좋아해서). 우리 시형을 통해서 저 저 우(리) 저 영갸에게로 시집갔소.}

10203 @ 아아. 그먼 그 그 그러니까 그 시형 아주바이는 어트게 만났어요?{아아. 그러면 그 그 그러니까 그 시형, 시형은 어떻게 만났어요?}

10203 #1 어, 한 꼴호즈(колхоз) 살았지. 저 우리 아바이는 다른 데서 잇었소. 글으 이르구 따시켄서 글 이르메 에따(это) 다른: 셀로(село)에 잇었소.{어, 집단농장에서 살았지. 저 우리 할아버지(=남편)는 다른 데서 잇었소. 공부를 하고 타슈켄트에서 공부를 하며 음 다른 마을에 잇었소.}

10203 @ 음.{음.}

10203 #1 미하일로브까(михай ловка)란데.{미하일로브카라는 데.}

10203 @ 음.{음.}

10203 #1 기래구 우리네는 노보지즈니(новая жизнь)란데 우리 시혜~이랑 한동네 살았지. {그리고 우리네는 노보이 지즈니라는 데서 우리 시형이랑 한 동네에 살았지.}

10203 @ 으음.{으음.}

10203 #1 기래구 우리 시혜~:는 목하밭에서 목하르 뜯구 게 가슬이 뎛소. 목하르 뜯구. 난 거기서 시격 끓엿소.{그리고 우리 시형은 목화밭에서 목화를 뜯고 그래 가을이 뎛소. 목화를 뜯고. 난 거기서 밥을 했소.}

10203 @ 뭐여?{뭐야?}

10203 #1 시격으. 뽀바리(повар)질 했어.{끼니를. 요리사의 일을 했어.}

10203 @ 시격으가 뭐예요?{'시격으'가 뭐예요?}

10203 #1 어. 어따(это) 임석으 끓이지.{어. 음 음식을 끓이지.}

10203 @ 아아.{아아.}

10203 #1 임석으 끓이지. 어 스펠로브(столовая)서. 기래서 사름덜 술한게 대접시기구.{음식

을 만들지. 어 식당에서. 그래서 술한 사람들에게 대접하지.}

10203 @ 그때가 뗏살 때예요?{그때가 뗏 살 때예요?}

10203 #1 내 그때 스무살 뗏뗏소.{내가 그때 스무살 뗏뗏소.}

10203 @ 스무살 때 가서 밥을, 밥을 한거여?{스무 살 때 가서 밥을, 밥을 한 거야?}

10203 #1 야~아. 기래 해서 사름덜으 대접시케. 그래 그때 울 아즈바이르 잘 알았지. 그래.
 {응.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대접을 해. 그래 그 때 우리 시형을 잘 알았지. 그래.}

10203 @ 그면은 그때 밥을 한번에 그 그면 농장에 농장에.{그러면은 그때 밥을 한 번에 그
 그러면 농장에, 농장에.}

10203 #1 농자~이. 그래 농자~이지.{농장. 그래 농장이지.}

10203 @ 농장에서 밥을 한 거예요?{농장에서 밥을 한 거예요?}

10203 #1 어~.{응.}

10203 @ 그문 농장에서 밥하면 한번에 뗏, 먹는 사람이 뗏명이나 뗏어요?{그러면 농장에서
 밥하면 한 번에 뗏, 먹는 사람이 뗏 명이나 뗏어요?}

10203 #1 둘이서[turisa] 끓이오.{둘이서 끓이오.}

10203 @ 두술?{두 술?}

10203 #1 둘이서 끓이오.{둘이서 끓이오.}

10203 #1 어, 내가 내 더 저기 동미.{어, 나와 내 더, 저기 동무.}

10203 @ 예.{예.}

10203 #1 둘이서 끓이지. 새아가덜 둘이.{둘이서 끓이지. 처녀들 둘이.}

10203 @ 예.{예.}

10203 #1 개 끓에서 어, 한 삼, 삼십에멩씨 잡섯소.{그래 끓여서 어, 한 삼, 삼십 여명씩 잡
 썼소.}

10203 @ 어.{어.}

10203 #1 그 목하 뜯는 사름덜이.{그 목화를 뜯는 사람들이.}

10203 @ 예에.{예.}

10203 #1 기래 우리 시형두 거기서 목하르 뜯으메 기래메 나르 잘 알았지.{그래 우리 시형도
 거기서 목화를 뜯으며 그러며 나를 잘 알았지.}

10203 @ 예에.{예에.}

10203 #1 기래메서 그야~:: 동새애 잇다메서리 동새애게르 나르 가라메.{그러면서 그냥 동생
 이 잇다면서 동생에게로 나를 가라며.}

10203 @ 음.{음.}

10203 #1 아 기랜게 글쎄 그래 내 저 동새애게르 갓단마, 모르구.{아 그런데 글쎄 그런 내가
 저 동생에게 갓단 말이오, 모르고.}

10203 @ 어.{어.}

10203 #1 멘목두 없이.{면목도 없이.}

10203 @ 오.{오.}

10203 #1 그룽기 갓어.{그렇게 갓어.}

10203 @ 근데 그 끼노(кино)에서 다니에 표, 포 그 표 팔고 그랬다면서요?{그런데 그 극장
 에서 다니며 표, 표 그 표 팔고 그랬다면서요?}

10203 #1 냐~아~:: 끼노(кино)르 노는데서 어, 표르 팔았지. 내, 내.{응. 영화를 상영하는 데

서 어, 표를 팔았지. 내가, 내가.}

10203 @ 그문 그러면.{그러면 그러면.}

10203 #1 그땐 시집가서.{그때는 시집가서.}

10203 @ 시집가서?{시집가서?}

10203 #1 가야서. 어 내 시집가서.{가서. 어 내가 시집가서.}

10203 @ 시집가서.{시집가서.}

10203 #1 시집우 가서 아덜 두울 서이 다 낳아서.{시집을 가서 아이들 둘 셋 다 낳아서.}

10203 @ 아: {아.}

10203 #1 음 기랫소. 음. 고히게 잇엇댓소.{음. 그랬소. 음. 고히게 잇엇엇소.}

10203 @ 그땐 맨 처음에 어뜨게 만났어요?{그러면 맨 처음에 어떻게 만났어요?}

10203 #1 웨엔 처임에 우리 시허~을르 만났다재이오? 우리 시허~을르 기랭게 편지르 썼습데. 이래 편지르.{맨 처음에 우리 시형으로(=시형을 통하여) 만났다 하지 않았소? 우리 시형 편으로 그렇게 편지를 썼습디다. 이래 편지를.}

10203 @ 아.{아.}

10203 #1 편지써서 받지. 기래 아이.{편지 써서 받지. 그래 아니.}

10203 @ 아바이가 편지써서.{할아버지가 편지 써서.}

10203 #1 야~아. 야~.{응. 응.}

10203 @ 뭐라고 썼습디까?{뭐라고 썼습디까?}

10203 #1 아이 그래 뭐 하러. 그전에. 어전 잇에뿌렛소.{아니 그러면 뭐 하러. 그전에. 이제 잇어 버렸소.}

10203 @ (웃음).{(웃음).}

10203 #1 (웃음).{(웃음).}

10203 #1 기래 펜질르 서르서르.{그래 편지로 서로서로.}

10203 @ 에.{에.}

10203 #1 어 기래서 대엿지.{어 그래서 (혼사가) 되었지.}

10203 @ 러, 그래가지고 그 몇년이나 만나, 만났어?{그러, 그래 가지고 그 몇 년이나 만나, 만났어?}

10203 #1 기래구: 기래구.{그리고. 그리고.}

10203 @ 바로 결혼했어?{바로 결혼했어?}

10203 #1 그래 기계: 원: 해.{그래 그게 1950년.}

10203 @ 음.{음.}

10203 #1 오십넨도에 여 오십넨도에 만나서.{1950년도에 여 1950년도에 만나서.}

10203 @ 음.{음.}

10203 #1 어:: 오십넨도에 만나서 오십일넨도에 갔어 시집으.{어. 1950년도에 만나서 1951년도에 갔어 시집을.}

10203 @ 음.{음.}

10203 #1 그룽기 갔어. 한해만에 갔소.{그렇게 갔어. 한 해만에 갔소.}

10203 @ 한 해만에.{한해만에.}

10203 #1 아하.{아하.}

10203 @ 글면은 그땠에 그땠 한해동안에.{그러면은 그땠에 그땠 한 해 동안에.}

10203 #1 아아.{응.}

10203 @ 뻗번이나 만났어?{뻗 번이나 만났어?}

10203 #1 어:: 저 우리 아버지가 뜰가두 아이 가요. 그양 오오.{어 그래 우리 할아버지(=남편)가 쫓아도 안 가요. 그냥 오오.}

10203 @ 어:.{어.}

10203 #1 그애 고 가잡이 살았소 그담에느.{그래 고 가잡게 살았소 그다음에는.}

10203 @ 아:.{아.}

10203 #1 그담에느 저 우리 아버지 어디때 살아져 헤~이집에 와 잇엇소.{그다음에는 저 우리 할아버지가 어디 살았냐면 형 집에 와 잇엇소.}

10203 @ 아:.{아.}

10203 #1 헤~이 집에 와 살았어.{형 집에 와 살았어.}

10203 @ 거기에?{거기에?}

10203 #1 아~:.{응.}

10203 @ 헤~이 집으로.{형 집으로.}

10203 #1 헤~이 잇엇어. 저 우리 시헤~이.{형이 잇엇어. 저 우리 시형이.}

10203 @ 아아! 형한테 와잇었다고?{아! 형한테 와 잇었다고?}

10203 #1 야아. 개 헤~이 집에 살았지.{응. 그래 형의 집에 살았지.}

10203 @ 아. 아버지집에.{아. 할아버지 집에.}

10203 #1 야~아. 기랏다나йка테 거저. 에이구! 어저느 그것두 무스.{응. 그랬다 보니까 그저. 어이구! 이제는 그것도 무슨.}

10203 @ (웃음).{(웃음).}

10203 #1 신, 어저느 시, 신:세 해테오.{신, 이제는 쉰, 쉰세 해가되오.}

10208 @ 예. 그럴때 시집 시집허고 시집오니까.{예. 그럴 때 시집 시집하고 시집오니까.}

10208 #1 자, 잔체는 그때 구차해서 냐~.{자, 잔치는 그때 구차해서, 응.}

10208 @ 예.{예.}

10208 #1 잔체르 요만:한 사~에다 사~아 받았어.{잔치를 요만한 상에다 상을 받았어.}

10208 @ 오.{오.}

10208 #1 무스거 갓출게……. 돌필르.{무엇을 갓출 게 (있겠소). 돌피로.}

10208 @ 어.{어.}

10208 #1 돌피:.{돌피.}

10208 @ 예.{예.}

10208 #1 *메, 예따(это) 베, 베 잇재오?{메(진 거), 음 벼, 벼 잇잖소?}

10208 @ 예.{예.}

10208 #1 그거 갈, 그거 쫓어서.{그거 갈아, 그거 쫓아서.}

10208 @ 예.{예.}

10208 #1 그게 쌀으 해에서 그걸르 냐~ 증웁하구.{그걸르 쌀을 해서 그걸로 응 증편을 하고.}

10208 @ 네.{네.}

10208 #1 돌피: 베: 한테 그걸르.{돌피, 벼를 한테에 그걸로.}

10208 @ 예.{예.}

10208 #1 어: 증편하구.{어 증편 하고.}

10208 @ 에.{에.}

10208 #1 찰떡으느 옥쉬쌀르 찰떡하구.{찰떡은 옥수수쌀로 찰떡 하고.}

10208 @ 어.{어.}

10208 #1 옥쉬쌀르 가줄으 하구.{옥수수쌀로 과줄을 하고.}

10208 @ 아.{아.}

10208 #1 그렇게 사~아 **받았닷어 췌에꼬맻게 사~아.{그렇게 상을 받았었어. 조꼬맻게 상을.}

10208 @ 아:.{아.}

10208 #1 기래 사~아 아이 받으무 기신질 못하구 시집우 시집갓다는 말이 없다구 이릉게 하 메서리.{그래 상을 안 받으면 귀신질 못 하고 시집을, 시집갓다는 말이 없다고 이렇게 하면서.}

10208 @ 에.{에.}

10208 #1 우리 그땐 내 아매 잇었소.{우리 그때는 내 할머니가 잇었소.}

10208 @ 네.{네.}

10208 #1 기래서 그렇게 사~아 받았소.{그래서 그렇게 상을 받았소.}

10208 @ 아아. 그때문 이제 곤란했네.{아아. 그 때는 이제 곤란했네.}

10208 #1 야야! 구차하재일구!{야! 구차하고 말고!}

10208 @ 구차했네.{구차했네.}

10208 #1 야야! 구차했어. 모:지 구차했어.{야! 구차했어. 몹시 구차했어.}

10201 @ 그럼 그때가 오십일년도면은 전체적으로.{그럼 그때가 1951년도면 전체적으로.}

10201 #1 오십년도.{1950년도.}

10201 @ 나라가 전부다 그 구차할텐가?{나라가 전부 다 그 구차할 때인가?}

10201 #1 기래두 어떤 사람은 잘살았지. 우리넨 구차했스. 우리네는 까자흐스탄(Казахстан) 칠리(Чилли)란 데서 살았소.{그래도 어떤 사람은 잘 살았지. 우리네는 구차했소. 우리네는 카자흐스탄의 칠리라는 데서 살았소.}

10201 @ 음.{음.}

10201 #1 기래 거기서 내 여기 우리 삼추이 데려왔지. 내 삼추이.{그래 거기서 내가 여기, 우리 삼촌이 데려왔지. 내 삼촌이.}

10201 @ 음.{음.}

10201 #1 뻐뻐(папа) 동새애 나르 데려왔어. 기래서.{아버지 동생이 나를 데려왔어. 그래서.}

10201 @ 우즈베크스탄(Узбекистан)으로 데려간 거예요?{우즈베크스탄으로 데려간 거예요?}

10201 #1 아?{응?}

10201 @ 뻐뻐(папа) 삼촌이.{아버지 삼촌이.}

10201 #1 야~.{응.}

10201 @ 그 까자흐스탄(Казахстан)에서.{그 카자흐스탄에서.}

10201 #1 내.{나.}

10201 @ 우즈베크스탄(Узбекистан)으로 데려간 거여?{우즈베크스탄으로 데려간 거야?}

10201 #1 야~아. 기에서 까자흐스탄(Казахстан)서 우즈베크스탄(Узбекистан) 나르 한나 데려 왔지.{응. 그래서 카자흐스탄에서 우즈베크스탄으로 나를 하나 데려왔지.}

10201 @ 음.{음.}

10201 #1 개구 마마랑 짝 카자흐스탄(Казахстан) 칠리(Чилли)란 데 살았댔어. 기래 그담엔 내 혼세르 데~이까데 우리 삼추이 주구 혼세 데~이까데 우리 마마랑 다 왔데만.{그리고 어머니랑 짝 카자흐스탄 칠리라는 데 살았었어. 그래 그다음에는 내가 혼사를 하게 되니까 우리 삼촌이 주고 혼사가 되니까 우리 어머니랑 다 왔더만.}

10201 @ 음.{음.}

10201 #1 갠데 우리 마마(мама)느 저 싸이르 그룽기 좋아 아이했어.{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저 사위를 그렇게 안 좋아 했어.}

10201 @ 왜?{왜?}

10201 #1 모르지 어째 그랬는지.{모르지 어째 그랬는지.}

10201 @ 어:. 같이 안살아 봤어요?{어. 같이 안 살아 봤어요?}

10201 #1 아하. 아이살아봤어.{아하. 안 살아 봤어.}

10201 @ 예.{예.}

10201 #1 개 우리 마마(мама)느 내 혼세 데서 마마(мама)라 왔소.{그래 우리 어머니는 내 혼사가 되어서 어머니가 왔소.}

10201 @ 어:.{어.}

10201 #1 내 삼추이 우리 *마(мама), 나르 시집 쫓지.{내 삼촌이 우리 어(머니), 나를 시집에 쫓지.}

10201 @ 그 시집, 시집 딱 오니까:.{그 시집, 시집 딱 오니까.}

10201 #1 아아.{응.}

10201 @ 시어머니허고 시, 시아버지 같이 계셨어요?{시어머니하고 시, 시아버지 같이 계셨어요?}

10201 #1 야~아!{응!}

10201 @ 사이가 좋았어?{사이가 좋았어?}

10201 #1 야: 우리 시애비, 좋은 시어마잇댔소.{응 우리 시아버지, 좋은 시어머니였었소.}

10201 @ 예.{예.}

10201 #1 기, 기래 내 내 세간살이 잘 못해두. 우리 시에미 짝 시게서 그렇게 세간살이 잘 했어. 기래 거기서 배웠어, 나두. (웃음).{그, 그래 내가, 내가 살림살이를 잘 못해도. 우리 시어머니가 짝 시켜서 그렇게 살림살이를 잘했어. 그래 거기서 배웠소, 나도. (웃음).}

10201 @ 대개 그 시어미 시어머니하고 메느리하고 사이가 안 좋잖아.{대개 그 시어머니,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사이가 안 좋잖아.}

10201 #1 아~이. 우리 시어마이가 나느 정마 사이 그룽게 좋았소.{아니. 우리 시어머니와 나는 정말 사이가 그렇게 좋았소.}

10201 @ 오.{오.}

10201 #1 좋았소. 우리 시어마이 좋은 시어마이 댕댕소. 게 나 시방두 에우오.{좋았소. 우리 시어머니 좋은 시어머니 댕었소. 그래 나 시방도 자꾸 말하오.}

10201 @ 음.{음.}

10201 #1 우리 어마이 좋다구.{우리 어머니 좋다고.}

10201 @ ‘에운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에운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10201 #1 아:. 그양: 궁닐 하지. 어마이 궁닐으 그양 하지.{아. 그냥 생각을 하지. 어머니 생

각을 그냥 하지.}

10201 @ 아아. 자꾸 생각한다고?{아아. 자꾸 생각한다고?}

10201 #1 야아!{응!}

10201 @ ‘생각난다’란 말이에요?{‘생각난다’라는 말이에요?}

10201 #1 야아. 아하. 그렇소.{응. 아하. 그렇소.}

10201 @ 보고싶고?{보고 싶고?}

10201 #1 그래.{그래.}

10201 @ 으음.{으음.}

10201 #1 좋은 시어마이댁소.{좋은 시어머니였었소.}

10201 @ 으음.{으음.}

10201 #1 야든아홉에 상새낫소.{여든아홉에 돌아가셨소.}

10201 @ 야든아홉에.{여든아홉에.}

10201 #1 하:. 오래 앓았지 야.{응. 오래 사셨지 응.}

10201 @ 네.{네.}

10201 #1 야든아홉에 상새낫어.{여든아홉에 돌아가셨어.}

10212 @ 그러면 결혼하고나서 얼마있다가 첫째 낳았어? 애기는 몇?{그러면 결혼하고 나서 얼마 있다가 첫째 낳았어요? 아기는 몇?}

10212 #1 아: 한해만에.{아 한 해만에.}

10212 @ 한해만에.{한 해만에.}

10212 #1 야아. 한해만에 낳어.{응. 한 해만에 낳았어.}

10212 @ 으음.{으음.}

10212 #1 오십년도에 대에서 오십일년도에 낳어, 첫째기.{1950년도에 (임신이) 돼서 1951년도에 낳았어, 첫째기.}

10212 @ 음.{음.}

10213 #1 기래구 우리 아들이 이거보! 다스해 어간에 내 너어낫소 너어.{그리고 우리 아들이, 이것 보오! 다섯 해 사이에 내가 넷을 낳았소, 넷을.}

10213 @ 너어.{넷을.}

10213 #1 너어.{넷을.}

10213 @ 일년마다 하나씩 낳네, 그게?{일년마다 하나씩 낳았네요, 그게?}

10213 #1 어 가, 가야 글썽 끝이에 낫댁소.{어 그 아이, 그 아이를 글썽 끝바로 낳았었소.}

10213 @ {웃음}.{웃음.}

10213 #1 야아! 그렇게. 기래구 내 저 딸이 야 스물다섯살에 낫소, 저 딸으.{응! 그렇게 그리고 내 저 딸이 응 스물다섯 살에 낳았소 저 딸을.}

10213 @ 오오.{오오.}

10213 #1 게 스물여섯살에 낳안거느 인차 죽었소. 그거느.{그래 스물여섯 살에 낳은 아이는 이내 죽었소. 그 아이는.}

10213 @ 어어.{어어.}

10213 #1 그것두 선스나. 인차 죽었소.{그 아이도 사내아이. 이내 죽었소.}

10213 @ 어.{어.}

10213 #1 거저: 다스해 너어 낫소. 게 그거느 한나느 그저 인차 죽었소.{그저 다섯 해에 넷을

낳았소. 그래 그 아이는 하나는 그저 이내 죽었소.}

10213 @ 음.{음.}

10213 #1 개 그저 서이. 저기 내 스물다섯살에 난 게요. 기래구 없제이오[əps'jɛo]. 기래구 없어.{그래 그저 셋. 저기 내가 스물다섯 살에 난 아이오. 그리고 없었잖소. 그리고 없어.}

10213 @ 그 건강했는가보네.{그 건강했는가 보네.}

10213 #1 야?{응?}

10213 @ 건강했다, 몸이 튼튼했다고.{건강했다, 몸이 튼튼했다고.}

10213 #1 ну(ну), 야아!{음, 응!}

10213 @ 어? 일년마다 그냥 일년 일년 좀 지나문.{어? 일년마다 그냥 일년 일년 좀 지나면.}

10213 #1 야. 나~아, 나. 그랬소. 기래구 거저 다스 너어 낳이 쏘[eɲɕ], 더 오부셰(вообще) 두 못 채워 봤소. 기래구서르 딱 그저 그래나이 더 아이 낳소.{응. 응, 나는. 그랬소. 그리고 그저 다섯, 넷을 낳으니 더 이상, 더 전혀 못 채워 봤소. 그리고서 딱 그저 그래다 보니 더 안 낳았소.}

10213 @ 음.{음.}

10213 #1 *시게(←시방 저게) 저게 내 스물다섯살에 낳안 게오 저 딸이. 신: 살이오, 올해.{그게 저 아이가 내가 스물다섯 살에 낳은 아이오 저 딸이. 쉰 살이오, 올해.}

10213 @ (웃음).{(웃음).}

10213 #1 야아! 기차지.{야아! 기가 막히지.}

10213 @ 글면 얘기를 가져가지고. 얘기를 얘기 얘기 얘기 서, 서서 제일 먹고 싶었던 게 뭐예요?{그러면 얘기를 가져 가지고. 얘기를 아기 아기 아기가 서, 서서 제일 먹고 싶었던 게 뭐예요?}

10213 #1 아우:! 나는 말 마오. 이게 빼오.{아이고! 나는, 말을 마오! 이거(=마이크) 빼오.}

10213 @ 에 괜찮아요.{에 괜찮아요.}

10213 #1 빼구서느 말으 하.{빼고서는 말을 하(오).}

10213 @ 괜찮아.{괜찮아.}

10213 #1 아, 거저 벨거 다 먹자하오. 아이! 먹기마 하무 내 그영:: 늑어 있어.{아, 그저 벨거 다 먹자 하오. 아이! 먹기만 하면 내 그냥 누워 있소.}

10213 @ 음.{음.}

10213 #1 한번두 일어서 댕게 못밧소. 기래구 우리 시에미 다 벨거 다 갖차놓구야 일어나 먹구. 어, 우리 시에미 무스그 아이 갖차노무 또 못먹구 그랬어.{한 번도 일어서서 다니지 못 해 봤소. 그리고 우리 시어머니가 다 벨거 다 갖춰 놓으면 일어나 먹고. 어, 우리 시어머니가 무엇을 안 갖춰 놓으면 또 못 먹고. 그랬어.}

10213 @ 토하기도 많이 하고?{토하기도 많이 하고?}

10213 #1 어, 그래 거저 벨거 다 먹자지. 기래구서 이거 오키쉬까(окошка) 다 막아놓구 기래구 딱 늑어서.{어, 그래 그저 벨거 다 먹자 하지. 그리고서 이거 창(窓) 다 막아 놓고 그리고 딱 누워서.}

10213 @ 어.{어.}

10213 #1 기래서 자덜 설어서 난 아덜이오, 저게.{저 아이들이 그래서 임신해서 낳은 아이들 이오, 저게.}

10213 @ 오. 그렇게 그렇게.{오. 그렇게 그렇게.}

10213 #1 그:룽기 알, 았앗소. 았구서르 그래 들엇, 그래 낫소. 자덜이.{그렇게 았, 았앗소. 았 고서 그래 들어서서, 그래 낳앗소. 저 아이들이.}

10213 #1 어, 그양 나무: 어르기 살갓소. 그렇게 난 아덜이오. 자덜이.{어, 그양 나면 어떻게 살갓소. 그렇게 낳은 아이들이오. 저 아이들이.}

@ 글면 인자 그 그 누베농사하고 그렇게 하고: 혹시 바느질은 많이 안 했어요?{그러면 인제 그 그 누에 농사하고 그렇게 하고. 혹시 바느질은 많이 안 했어요?}

#1 반:질으 지내 모르우.{바느질은 아주 모르오.}

@ 그럼 바느질은 다 누가 했어?{그럼 바느질은 다 누가 했어?}

#1 아이 돈 주무 해입히는데. 아 돈주무 다 해입히지.{아니 돈을 주면 해 입히는데. 아 돈 주면 다 해 입히지.}

@ 시어머니는 바느질 잘 잘 안하셨어요?{시어머니는 바느질 잘 잘 안 하셨어요?}

#1 모르우. 시어마이두 모르우. 우리 내 아매 바느질 잘했어.{모르오. 시어머니도 모르오. 우리 내 할머니가 바느질 잘했어.}

@ 아아.{아.}

#1 내 자랄 직이사 우리 아매 싹 해입헛지.{내가 자랄 적에야 우리 할머니가 싹 해 입헛지.}

@ 아아.{아아.}

#1 개구 우리 내 야덜 자랄 직에느: 거저 아매 잇으, 생전에 아매두 집어 입히구 거저 기랫지. 이: 나는 바느질 아이 했어.{그리고 우리 내 아이들이 자랄 적에는 그저 할머니가 있으니, 생전에 할머니도 기워 입히고 그저 그랬지. 이 나는 바느질을 안 했어.}

@ 그래요?{그래요?}

#1 야하.{응.}

@ 음. 여자가 바느질 안허문 어르게 해요?{음. 여자가 바느질 안 하면 어떻게 해요?}

#1 그래말이에유. 기래 우리 아바이 이러지. 아이! 나르 나르 야단으 하지.{그러게 말이오. 그 래 우리 할아버지(=남편)가 이러지. 아니! 나를 야단을 하지.}

@ 예.{예.}

#1 아이! 여자가 바느질 아이하구 무슨 여잔가 하구.{아니! 여자가 바느질 안 하고 무슨 여자 인가 하고.}

@ 그러게.{그러게.}

#1 아 그래 우리 아바이 그러지. 기래 셋쟁기두 꽃으 맨들라무 꽃으 맨들구. 벨거 다 맨든다 구 셋쟁기르 가주구.{아 그래 우리 할아버지가 그러지. 그래 쇠로 된 농기구도 꽃을 만들라 하면 꽃을 만들고. 벨거 다 만든다고. 쇠로 된 농기구를 가지고.}

@ 에 에 에.{에 에 에.}

#1 낭그 가주구 벨거 다 맨든다구. 싹싹 베에서 하는 허, 형겅으 가주구 어째 옷으 못 맨드는 가 하구.{나무를 가지고 벨거 다 만든다고. 싹싹 베어서 하는 천, 천을 가지고 어째 옷을 못 만드는가 하고.}

@ (웃음).{(웃음).}

#1 게 그게 옹지무. 내비 무슨 말이 잇소.{그래 그게 옹지 뉘. 나중에 무슨 말이 잇갓소.}

@ (웃음).{(웃음).}

#1 그랫덧소.{그랬었소.}

10201 @ 아아. 글면 인자 농새일은 그 거기서 목해농사허고.{아아. 그러면 인제 농사일은 그 거기서 목화농사하고.}

10201 #1 아아.{응.}

10201 @ 그담에 누베농사하고 다른건 안해봤어요?{그다음에 누에 농사하고 다른 건 안 해봤어요?}

10201 #1 어째 아이하재앵구. 그담엔 또 어쩐줄 아오? 기래구서리 까프까즈(Кавказ) 땡기땡기 농새질 했소.{어째 안 하지 않고. 그다음에는 또 어쩐는 줄 아오? 그리고서 카프카즈 다니면서 농사일 했소.}

10201 @ 까프까즈(Кавказ)에 가서.{카프카즈에 가서.}

10201 #1 프까즈(Кавказ) 가서 나~. 그래 가서 농새질해서 췌폼 돈 벌어가주구 와서, 그 집 재비 재빗집우 팔구 까프까즈(Кавказ) 가 돈 벌어가주구 온 돈으. 그거 가지구 영계 와서 열야듬천 주구 집우 싸, 네트(нет)! 열네천 주구 샀소.{카프카즈 가서 응. 그래 가서 농사일을 해서 조금 돈 벌어 가지고 와서, 그 집 자기 자기 집을 팔고 카프카즈 가서 돈 벌어 가지고 온 돈을. 그거 가지고 여기 와서 18,000(루블) 주고 집을 사, 아니! 14,000(루블) 주고 샀소.}

10201 @ 음.{음.}

10201 #1 이집이 아이구 저:기다가서르. 다른데 가서. 기래 싸서 그거는 초이 데노이까데 야구름물르 물으 퍼먹지 그룽기 아이 좋습데. 게 거기서 이태 살았어. 게 그집우 열야듬천에 팔구 이집우 스물다섯천[스물다섯천] 주구 샀소.{이 집이 아니고 저기다가 다른 데 가서. 그래 사서 거기는 촌이 되다 보니까 응 우물에서 물을 퍼 먹지 그렇게 안 좋데. 그래 거기서 이태를 살았어. 그래 그 집을 18,000(루블)에 팔고 이 집을 25,000(루블) 주고 샀소.}

10201 @ 으음.{으음.}

10201 #1 기래 어저는 거저 내사 글이 없지. 마우젯말은 모르지. 거저 밭에 일이사 잘하짐. {그래 이제는 그저 나야 글을 모르지(=공부한 것이 없지). 러시아 어는 모르지. 그저 밭의 일이야 잘하지 뭐.}

10201 @ 으음.{으음.}

10201 #1 밭엿일[바텐닐]이사 잘하지.{밭일이야 잘하지.}

10201 @ 그 학교는 어디까지 배웠어요?{그 학교는 어디까지 배웠어요?}

10201 #1 무슨?{무슨?}

10201 @ 학교, 핵교는 어디 어디 나오고 어디 필했냐고.{학교, 학교는 어디 어디 나오고 어디 필했냐고.}

10201 #1 아, 학교는 네번채밖에[네번채빠게] 모 일것소.{아, 학교는 4학년까지밖에 공부를 못 했소.}

10201 @ 아아.{아아.}

10201 #1 그전에 웨인니브레미(вой на время). 그전에 전제 아이 어 마흔해때 전제 나재엇소?{그전에 응 전쟁 시기. 그전에 전쟁이 아니 어 1940년에 전쟁이 나지 않았소?}

10201 @ 예예.{예.}

10201 #1 그래실직엔 어 러시아(Россия) 네임스크 싸움할 직에. 개다나이까데 아이 모:질 바빠 살았소. 그때는 죽자:했어. 아이 제르 아오? 제르. 이래 쌀으 쥘 제.{그랬을 적에 어

러시아 움스크 싸움할 적에. 그러다 보니까 아니 무척 힘들게 살았소. 그때는 죽자 했어.
아니 겨를 아오? 겨를. 이래 쌀을 찢 겨.}

10201 @ 제, 예.{겨, 예.}

10201 #1 야. 그것두 없었소 먹재에두.{응. 그것도 없었소 먹자고 해도.}

10201 @ 여기도요?{여기도요?}

10201 #1 네엣(нет)! 딱 까자그스탄(Казахстан)에서 까자그스탄(Казахстан)에서.{아니! 딱
카자흐스탄에서 카자흐스탄에서.}

10201 @ 음.{음.}

10201 #1 크즐오르다(Кызылорда)르 아오? 그런 소리 들었어?{크즐오르다를 아오? 그런 소
리 들었어?}

10201 @ 예.{예.}

10201 #1 까자흐스탄(Казахстан) 크즐오르다(Кызылорда)서.{카자흐스탄 크즐오르다에서.}

@ 아니 우리 우리 우리 하, 우리 조 조선이 그랬었어요.{아니 우리 우리 하, 우리 조 조선이
그랬었어요.}

#1 그랫소?{그랬소?}

@ 일본 일본이 전쟁을 하니까 일본이 싸악.{일본 일본이 전쟁을 하니까 일본이 짹.}

#1 아.{응.}

@ 뻐어갓잖아.{빼앗아 갓잖아.}

#1 아.{응.}

@ 일본이 러시아하고 전쟁허고 미국허고 전쟁하느라고.{일본이 러시아하고 전쟁하고 미국하
고 전쟁하느라고.}

#1 야아.{응.}

@ 돈을 쌀을 다 뻐어가니까 한국에서 먹기가 바:뻐쥬.{돈을, 쌀을 다 빼앗아 가니까 한국에서
먹기가 힘들었쥬.}

#1 아아:.{아아.}

@ 그러니까 머 제도 먹고. 소나무 껍질도 벗게먹고.{그러니까 뭐 겨도 먹고. 소나무 껍질도
벗겨 먹고.}

10201 #1 우리네는 전체르 그 풀으 먹었소. 풀은 무시긴가 야. 제 없어서 여림임 동삼이무
제르 먹구.{우리네는 전체를 그 풀을 먹었소. 풀은 무엇인가 응. 겨 없어서 여림이면 겨
울이면 겨를 먹고.}

10201 @ 음.{음.}

10201 #1 여림이무 삼년도~[또~]안으 그런……. 개게 어찌 죽재이오. 어 이 **지방(←지방)두
산단 말이지.{여림이면 삼년 동안을 그런……. 그런데 어찌 죽지 않소. 어 이 지방도 산
다는 말이지.}

10201 @ 음.{음.}

10201 #1 삼년도~[또~]안으 그건 고사~:했소. 지내 오늘 죽겠는가 내일 죽겠는가. 내 한주일
제두 없구. 일리(или) 어 그게 어느때이겠는가야 야? 어: 이월이 땃소. 삼월두 그거 까
자그스탄(Казахстан)으는 사월 오월까지 침소.{삼년 동안을 그런 고생했소. 아주 오늘
죽겠는지 내일 죽겠는지. 내게 한 주일 (동안) 겨도 없고. 혹은 어 그게 어느 때이겠는가
하니 응? 어 2월이 땃소. 3월도 그 카자흐스탄은 4월, 5월까지 침소.}

10201 @ 으음.{으음.}

10201 #1 기래 삼월달이 댕는 예, 이월이 댕는데 먹을기 지내 없지. 기래 어저느 그 추끼(чулки)르 이릉기 이래 틀지. 군대르 가는 거.{그래 3월이 댕는데 2월이 댕는데 먹을 게 너무 없지. 그래 이제는 그 양말을 이렇게 이래 짜지. 군대로 가는 거.}

10201 @ 음.{음.}

10201 #1 장갑으 틀구 추끼(чулки)르 틀구 그릉기 틀어서 군대르 보내지.{장갑을 짜고 양말을 짜고 그렇게 짜서 군대로 보내지.}

10201 @ 음.{음.}

10201 #1 기래무 어 장갑 하나 틀어두 떡이 한킬로구 추끼(чулки)르 하나 틀어두 떡이 한킬로구, 그래. 기래게.{그러면 어 장갑 하나를 짜도 빵이 한 킬로고 양말을 하나 짜도 떡이 한 킬로고, 그래. 그런데.}

10201 @ 추끼가 뭐여?{'추끼(чулки)'가 뭐야?}

10201 #1 노스끼(носки)르 이런 노스끼(носки)르.{양말을 이런 양말을.}

10201 @ 아아.{아아.}

10201 #1 이거 미시기라 하오? 조선말르.{이거 무엇이라 하오? 조선 말로.}

10201 @ 양말.{양말.}

10201 #1 양마.{양말.}

10201 @ 양말.{양말.}

10201 #1 양말. 이거 틀어서 그래 보내지.{양말. 이거 짜서 그래 보내지.}

10201 @ 음. 음.{음. 음.}

10201 #1 에따(это) 군인 구인덜은 야 구인덜인데 보내무 또 이 오지. 기래데 쓰르다리아(Сырдарья) 물으 아오? 쓰르다리아(Сырдарья). 가~이 강물이 그런게 잇소. 큰: 게. 그 쓰르다리아(Сырдарья) 물이 얼재이무 녹을 때나 거기르 건네 못댕기지.{음 군인 군인들은 응 군인들한테 보내면 또 이 빵이 오지. 그런데 시르다리아 강을 아오? 시르다리아. 강이 강물이 그런 게 잇소. 큰 게. 그 시르다리아 물이 얼지 않으면, 녹을 때에는 거기를 건너서 못 다니지.}

10201 @ 음.{음.}

10201 #1 기래 그떡으느 그쪽에서두 건넌 모 오지. 우리쪽으르.{그러면 그 빵은 그쪽에서도 건너는 못 오지. 우리 쪽으르.}

10201 @ 음.{음.}

10201 #1 기래무 그릉기 굽짐[굽짐].{그러면 그렇게 굽지 뭐.}

10201 #1 그 떡이 오무 아이 굽짐[굽짐]. 기래.{그 빵이 오면 안 굽지 뭐. 그래.}

10201 @ 으음.{으음.}

10201 #1 그거털이낭 국가서 주우. 이거 틀라구.{그거 털이랑 국가에서 주우. 이거 짜라고.}

10201 @ 네. 예.{네. 예.}

10201 #1 기래 그거 틀어서느 보내기마 하무 떡이 오짐. 개 그 가~이 얼지 못하거나[moth agona] 녹으때무 떡이 모오오.{그래 그거 짜서 보내기만 하면 빵이 오지 뭐. 그래 그 강이 얼지 못하거나 녹을 때면 떡이 못 오오.}

10201 @ 음.{음.}

10201 #1 기래무 그렇게 굽름짐[굽름짐]. 내 한주일 굽무이[굽무이] 야. 야야! 날이라 이랫뎃

소. 붓어서.{그러면 그렇게 굶지 뭐. 내가 한 주일을 굶으니, 응. 야! 낮이랑 이랬었소. 부어서.}

10201 @ 붓어서.{부어서.}

10201 #1 붓어서. 게 죽자아구 하는데 어전 죽, 어전 죽자하구서 그래는데 아매 어디가서 제르 가제왔습데.{부어서. 그래 죽자고 하는데 이제 죽, 이제 죽자 하고서 그래는데 할머니가 어디 가서 겨를 가져왔데.}

10201 @ 어:.{어.}

10201 #1 그거 닭아서 먹은게 아! 데비 살아서 이즌 이룽기 댕어.{그거 볶아서 먹은 게 아! 다시 살아서 이제 이렇게 댕어.}

10201 @ (웃음).{(웃음).}

10201 #1 기차지 냐~!{기가 막히지 응!}

10201 @ 무슨 제요? 쌀제요?{무슨 겨요? 쌀겨요?}

10201 #1 쌀제르.{쌀겨를.}

10201 @ 쌀제를?{쌀겨를?}

10201 #1 그래 **쌀제르짐.{그래 쌀겨지 뭐.}

10201 @ 어:.{어.}

10201 #1 야야! 기래 이룽기 살았어, 이때꺼지.{야야! 그래 이렇게 살았어, 이때까지.}

10201 @ 아니 그때도 그때 농장에서.{아니 그때도 그때 농장에서.}

10201 #1 그때 농재애~ 없소. 그때 꼬호즈(колхоз) 농재~:란 게 없소. 거저 꼴호즈(колхоз) 꼬호즈(колхоз)르 베르 저서느 싹 국가르 가제가지. 국가 가 가제가무 그 쌀으 찢어서느 국가르 가제가지. 기램 그 제 주짐.{그때 농장이 없소. 그때 콜호스 농장이라는 게 없소. 그저 콜호스 콜호스를 벼(농사)를 지어서는 싹 국가로 가져가지. 국가가 가, 가져가면 그 쌀을 찢어서는 국가로 가져가지. 그러면 그 겨 주지 뭐.}

10201 @ 왜 사람을 먹고 살만큼 주, 쥐 주야데잖아.{왜 사람을 먹고 살 만큼 쥐, 쥐 쥐야 되잖아.}

10201 #1 아, 아이. 그거 그렇게 아이 기래오. 싹 국가르 가제가오.{아, 아니. 그거 그렇게 안 그러오. 싹 국가로 가져가오.}

10201 @ 어:.{어.}

10201 #1 게 그 제르 먹구 사짐. 기래 그 제르 먹구서리. 그담에는 야 가, 예따(это) 빨리(полю)에 나가 나, 이래 밭에 나가 일하재오?{그래 그 겨를 먹고 살지 뭐. 그래 그 겨를 먹고서. 그다음에는 응 가서, 어 들에 나가 나가, 이래 밭에 나가 일하지 않소?}

10201 @ 예.{예.}

10201 #1 밭에 나가 일하는 사름덜으느 죽으, 코~이 잇재오? 코~오.{밭에 나가 일하는 사름들은 죽을, 콩이 있지 않소? 콩을.}

10201 @ 예.{예.}

10201 #1 메지코~이.{메주콩.}

10201 @ 예.{예.}

10201 #1 자~아 하는 메지코~.{장을 하는 메주콩.}

10201 @ 예.{예.}

10201 #1 그거 같아서 죽우 쓰, 그 쌀으 약:간 영구 죽으 써서 그래 맥이오. 기램 밭에 나가

일하는 사람덜의 맥에…….{그거 갈아서 죽을 쑤, 그 쌀을 약간 넣고 죽을 써서 그래 먹
이오. 그러면 밭에 나가 일하는 사람들일은 먹여…….}

10201 @ 음.{음.}

10201 #1 나는 어저는 그 죽우 밭으르 마마(мама)르 따라가서는: 그죽으 먹기마 새벌어서
그런거 보레두 아이 먹소 보오, 시방.{나는 이제는 그 죽을 밭으로 어머니를 따라가서는
그 죽을 먹기만 하면 싫증이 뻘쳐서 그런 거 보려고도 (아니 하고), 아니 먹고 그리고 아
니 보오, 시방.}

10201 @ 맛이 없어?{맛이 없어?}

10201 #1 어후:!!{어휴!}

10201 @ 제보다 제보다도 맛없어? (웃음).{겨보다 겨보다도 맛없어? (웃음).}

10201 #1 제랑 기차오 지내. 야, 야. 그거 궁니르 하무.{제랑 기가 막히오 너무. 응, 응. 그거
생각을 하면.}

10201 @ 글면은 나물을, 나물을 많이.{그러면은 나물을, 나물을 많이.}

10201 #1 나물의 세투리란 게 잇엇소.{나물은 씬바귀라는 게 잇엇소.}

10201 @ 세투리.{쌈바귀.}

10201 #1 쉼투리.{쌈바귀.}

10201 @ 예.{예.}

10201 #1 그 쉼투릴 먹구 졸배라구 잇소 또. 가시 잇는게. 가시 잇소.{그 씬바귀를 먹고 조뱅
이라고 잇소 또. 가시가 잇는 게. 가시가 잇소.}

10201 @ 가시 잇는거.{가시 잇는 거.}

10201 #1 야. 그런 졸배르 야 그거 모:지 데와서 그거 싹 그 가시르 내보내구. 그게 찢기찢그
한길르 제르 영소. 거기다 제르.{응. 그런 조뱅이를 응 그거 몹시 데쳐서 그거 싹 그 가
시를 내보내고. 그게 찢깃찢깃 한 것에 겨를 넣소. 거기에다 겨를.}

10201 @ 오:.{오.}

10201 #1 그 쌀제르.{그 쌀겨를.}

10201 @ 오:.{오.}

10201 #1 그래 열어서 떡으 맨드오. 기래무 그거 이래 찌오, 이래서.{그리해서 넣어서 빵을
만드오. 그러면 그거 이래 찌오, 이래서.}

10201 @ 오.{오.}

10201 #1 이래 찌기마하무 한나게 딱 한내 돌아가오.{이래 찌기만 하면 한 명에게 딱 하나가
돌아가오.}

10201 @ 어:.{어.}

10201 #1 요막씨 크기. 요, 요막씨 크게 한내 한나씨.{요만큼씩 크게. 요, 요만큼씩 큰 게 하
나에 하나씩.}

10201 @ 글면 그제 밥 한, 한끼에 하나에요?{그러면 그제 밥 한, 한 끼에 하나에요?}

10201 #1 하, 한번에 한나 먹지.{하, 한 번에 하나 먹지.}

10201 @ 예에.{예.}

10201 #1 기래 그제 무슨 먹은 같으갠어? 그래구서 그래구 숨붙어 살앗단 말이오. 기차지
냐?{그래 그제 무슨 먹은 것 같겠어? 그리고서 그리고 숨이 붙어 살앗단 말이오. 기가
막히지 응?}

10201 @ 그렇게 삼년을 사셨다고?{그렇게 삼 년을 사셨다고?}

10201 #1 구래! 그다음에는 야~. 아아! 전제 끝이[끄티] 낫는데도 또 구차해에서 그렇기 자라 이덜. 그담에 칠리(Чилли)르 오이까데 칠리(Чилли)란 데르. 크즐오르다(Кызылорда)에 잇다가 칠리(Чилли)르 오이까데 칠리(Чилли)는 개두 쌀으 먹습데.{그래! 그다음에는 응. 아! 전쟁이 끝이 낫는데도 또 구차해서 그렇게 어른들이. 그다음에 칠리로 오니까 칠리라는 데를. 크즐오르다에 잇다가 칠리로 오니까 칠리는 그래도 쌀을 먹데.}

10201 @ 음.{음.}

10201 #1 기래 와서 따시켄드(ташкент)르 오이까디 더어 낫습데.{그래 와서 타슈켄트로 오니까 더 낫데.}

10201 @ 음.{음.}

10201 #1 게 거기 와서느 개두 일없게 살았소.{그래 거기 와서는 그래도 괜찮게 살았소.}

10201 @ 아:.{아.}

10201 #1 서른해르 따쉬켄드(ташкент)서 살았소.{30년을 타슈켄트에서 살았소.}

10201 @ 그러니까 제일 구차한데서 살았구만 그러니까 전쟁때에.{그러니까 제일 구차한 데서 살았구먼 그러니까 전쟁 때에.}

10201 #1 전제때 저 까자흐스탄(Казахстан) 제일 구차했소.{전쟁 때 저 카자흐스탄이 제일 구차했소.}

10201 @ 제일 구차한데 살았구만.{제일 구차한 데서 살았구먼.}

10201 #1 야아. 그랫소.{응. 그랫소.}

10201 @ 음:.{음.}

10201 #1 야아! 어르기 살았는지 모르겠소. 그렇게 살았소.{야!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소. 그렇게 살았소.}

10201 @ 그러면 우리만 그런거여: 우리 동포들만 그런거여?: 쏘련 사람들 다 그랫어요?{그러면 우리만 그런 거야 우리 동포들만 그런 거야? 소련 사람들 다 그랫어요?}

10201 #1 어 저어 어마랑 기랬지. 저 어머니랑 기랬으기오 나~. 그전에는. 저어는 고사~ 애이 했지. 그런 고사~.{어 당신 엄마랑 그랬지. 당신 어머니랑 그렸을 것이오 응. 그전에는. 당신은 고생 안 했지. 그런 고생을.}

10201 @ 네.{네.}

10201 #1 아이 했지. 어머니 고사~했지.{안 했지. 어머니가 고생했지.}

10201 @ 음.{음.}

10201 #1 그렇지.{그렇지.}

10201 @ 그러면 로, 로시앗사람들도 다 그렇게 똑같이 고생했어요?{그러면 러, 러시아 사람들도 다 그렇게 똑같이 고생했어요?}

10201 #1 까자흐(Казах)덜두 고생했지 까자흐(Казах)덜.{카자흐 사람들도 고생했지 카자흐 사람들.}

10201 @ 똑같이?{똑같이?}

10201 #1 그룽기 까자흐(Казах) 체첸:(Чечен)덜두.{그렇게 카자흐 사람 체첸 사람들도.}

10201 @ 음.{음.}

10201 #1 뚜르키(Турки)덜 다수 잇었소 꼬호즈(колхоз)에. 그것덜두 다 그렇게 고생했소. 다 아 그렇기 고, 거 거기 잇는 사름 다 고생했지. 마우재구 미시기구. 개두 마우재덜으느

로씨이(Россия)서 살았지.{터키 사람들이 다수 있었소, 콜호스에. 그 사람들도 다 그렇게 고생했소. 다 그렇게 고(생), 그 거기 있는 사람이 다 고생했지. 러시아 사람이고 무엇이 고. 그래도 러시아 사람들은 러시아에서 살았지.}

10201 @ 음.{음.}

10201 #1 그릉기 이 이 까자흐스탄(Казахстан)이랑 그릉기 우리 살직이느 예: 노시앗사람덜이 없을때.{그렇게 이 카자흐스탄이랑 그렇게 우리 살 적에는 예 러시아 사람들이 없을 때.}

10201 @ 그래요?{그래요?}

10201 #1 거저 체첸(Чечен) 뚜르끼(Турки).{그저 체첸 사람, 터키 사람.}

10201 @ 예.{예.}

10201 #1 그답에 까자흐(Казах), 그렇게 잇었소.{그다음에 카자흐 사람, 그렇게 잇었소.}

10201 @ 어:.{어.}

10201 #1 그답에 이 우즈벡스탄(Узбекистан)으 와서두 나~? 어 우즈벡스탄(Узбекистан) 온 까테 노시앗사람덜이 잇습데.{그다음에 이 우즈베키스탄을 와서도 응? 어 우즈베키스탄 오니까 러시아 사람들이 잇데.}

@ 여깃사람들이 로시앗사람들을 좋아해요 나, 싫어해요?{여기 사람들이 러시아 사람들을 좋아해요 싫어해요?}

#1 여기서 노시앗사람덜으?{여기서 러시아 사람들으?}

@ 예. 까작이나 뭐 끼르기즈(Кыргыз)나 이런 사람들이.{예. 카자흐 사람이나 뭐 키르기스 사람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1 아.{응.}

@ 노시앗사람들.{러시아 사람들.}

#1 아이 좋아하오.{안 좋아하오.}

@ 아니 좋아해요?{안 좋아해요?}

#1 아이 좋아하오. 개두 고렷사람가는 일없는데:: 노시앗사람덜건 아이 좋아하오.{안 좋아하오. 그래도 고려 사람과는 팬찮은데 러시아 사람들 그건 안 좋아하오.}

@ 으음.{으음.}

#1 어째 그런지 그러우.{어째 그런지 그러오.}

@ 음.{음.}

#1 아, 우리네느 이 끼르기즈(Кыргыз) 사람덜이 우리네르 좋아하오.{아, 우리네는 이 키르기스 사람들이 우리네를 좋아하오.}

@ 음.{음.}

#1 *ㄱ전에 우즈벡스탄(Узбекистан)에 이실 적에두 우즈벡스탄(Узбекистан)덜이 거 스탄에 잇으메서두 우리 조선사람덜 좋아하오.{그전에 우즈베키스탄에 있을 적에도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이 그 우즈벡스탄에 있으면서도 우리 조선 사람들을 좋아하오.}

@ 음. 어릴때애.{음. 어릴 때애.}

#1 야.{응.}

@ 어릴 때 주로 여자들은 뭘 무슨 놀이 하고 놀았어요?{어릴 때 주로 여자들은 뭘 무슨 놀이 하고 놀았어요?}

#1 우리네?{우리네?}

@ 에.{에.}

#1 그, 어이구! 모르겠소, 나느. 어쩐는지 생 각히우두대오.{그 어이구! 모르겠소 나느. 어쩐는 지 생각나지도 않소.}

@ 어릴때 조 조만하고 조금 컸을때.{어릴 때 조만하고 조금 컸을 때.}

10201 #1 저 컸을적에 어: 나느야 쟈게 울엇댓소. 일곱살꺼지 울엇댓어. 기래구 야~: 어 내 아매 업구 땡겐지. 일곱살꺼지 울엇어 내.{저 컸을 적에 어 나는 응 세계 울엇었소. 일곱 살까지 울엇었어. 그리고 응 어 나를 할머니가 업고 다녔지. 일곱 살까지 울엇어 내가.}

10201 @ 왜?{왜?}

10201 #1 모르지.{모르지.}

10201 @ (웃음).{(웃음).}

10201 #1 어째 그렇게 우는지.{어째 그렇게 우는지.}

10201 @ 글면 핵교 다닐때는 주로.{그러면 학교 다닐 때는 주로.}

10201 #1 핵고르 열한살에 핵고르 갔소.{학교를 열한 살에 학교를 갔소.}

10201 @ 열한살에?{열한 살에?}

10201 #1 열한살에.{열한 살에.}

10201 @ 일학년을?{1학년을?}

10201 #1 냐~?{응?}

10201 @ 일학년을.{1학년을.}

10201 #1 야야. 열한살에 갔어. 어 마흔해에 가다니이까 열한살에 갔지.{응. 열한 살에 갔어. 어 1940년에 갔으니까 열한 살에 갔지.}

10201 @ 으음: {으음.}

10201 #1 그렇기 갔어. 아이구! 아아때 어째서 그룽기 울엇는지 모르지.{그렇게 갔어. 아이 고! 아이 때 어째서 그렇게 울엇는지 모르지.}

10201 @ 으음: {으음.}

10201 #1 그렇기 내 울엇댓소.{그렇게 내가 울엇었소.}

10201 @ 음: {음.}

10201 #1 아아때: {아이 때.}

식집 가자구 울엇겐지무: {시집을 가자고 울엇겐지 뭐.}

@ (웃음).{(웃음).}

#1 (웃음).{(웃음).}

10201 @ 그 동네에는: {그 동네에는.}

10201 #1 아하! {아하!}

10201 @ 안에 살던 동네에는: {안에 살던 동네에는.}

10201 #1 다스호이: {다섯 호가.}

10201 @ 우리 우리 동포도 다섯호? {우리 우리 동포도 다섯 호?}

10201 #1 야: {응.}

10201 @ 다른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10201 #1 어, 없지. 다른 데르 가구야. 으 번도~[vændõ]에는: 윈도~[wændõ]에는 *너똥 노시 앓사름덜이 잇재오? {어 없지. 다른 데를 가야만. 어 윈동에는, 윈동에는 러시아, 러시아 사람들이 있잖소?}

10201 @ 에.{에.}

10201 #1 아:, 다른사람덜 못밧소 노시앗사람덜밖에 못밧소, 원도~서느. 개 거기서느 그전에 어째, (곁에 있는 남편에게) 아바이! 제러이 제러이 하지? 제레브냐(деревня)르.{아, 다른 사람들은 못 봤소 러시아 사람들밖에 못 봤소, 원동에서는. 그래 거기서는 그전에 어째, (곁에 있는 남편에게) 할아버지! '제러이' '제러이' 하지? 제레브냐(деревня, 농촌 마을)를.}

10201 # 제레, 제레브냐(деревня)르 제레브냐르(деревня).{농촌, 농촌 마을을 농촌 마을을.}

10201 #1 제레브냐(деревня)지. 초이지.{농촌 마을이지. 촌(村)이지.}

10201 @ 어.{어.}

10201 #1 촌으 우리 고렷사람덜으 어, 제러이 제러이 이릉기 말했어.{촌(村)을 우리 고려사람들이 어, '제러이' '제러이' 이렇게 말했소.}

10201 # 번지지 못해 그런 게지.{(러시아 어)를 제대로 입으로 읊기지 못해 그런 것이지.}

10201 #1 아하! 기래 거기르 가구야 어 노시야사람덜 잇지. 우리네느 다스호이 딱 살앗소.{아하! 그래 거기를 가야만 어, 러시아 사람들이 있지. 우리네는 다섯 호가 딱 살앗소.}

10201 @ 그 까작에서요?{그 카자흐스탄에서요?}

10201 #1 야. 우리 원도[vəndo]서.{응. 우리 원동에서.}

10201 @ 원동에서?{원동에서?}

10201 #1 원도에서 딱 다섯호가 살았어.{원동에서 딱 다섯 호가 살았어.}

10201 @ 오:.{오.}

10201 # 우리느.{우리는.}

10201 #1 게 다섯호가 사는데 에: 우리네 그런거 그 산벵죽이텍에다 우리 그때 일은 나 하나투 모르오. 지금:우 기계: 에: 마흔 마흔두해때 세해때 그때 내 아매 기래구 말하지.{그래 다섯 호가 사는데 에 우리네 그런 거 그 산 가장자리 언덕에다, 우리 그때 일은 나 하나도 모르오. 지금은 그게 에 1940, 1942, 1943년 그때 내 할머니가 그렇게 말하지.}

10201 @ 음.{음.}

10201 #1 우우리 그 촌에서 다섯호가 살 직[적]에 거기다가서리 무스거 조이두 **시뉴무구 피날이두 시무구. 그담에 코~이두 시무구. 그때 나는 보지 못했소. 아이알기우, 그게. 지내.{우리 그 촌에서 다섯 호가 살 적에 거기에다가 뭐 조도 심고 피도 심고. 그다음에 콩도 심고. 그때 나는 보지 못했소. 안 알리지오(=알 수 없소), 그게. 전혀.}

10201 @ 음.{음.}

10201 #1 그담에 그 마흔세해때 마: 그때 우리 아매 내 말해서 내 아오. 개두 그뻗건 난 하나투 모르겠어.{그다음에 1943년 때 어 그때 우리 할머니가 나에게 말해서 내가 아오. 그래도 그뻗 것은 난 하나도 모르겠어.}

10201 @ 음. 아매 아매가 그쪽에서 이쪽으로 올때가 뻗살인데! 여덟살이문, 여덟살이죠?{음. 할머니 할머니가 그쪽에서 이쪽으로 올 때가 뻗 살인데! 여덟 살이면, 여덟 살이죠?}

10201 #1 우리 아매?{우리 할머니?}

10201 @ 아니.{아니.}

10201 #1 내?{나?}

10201 @ 에.{에.}

10201 #1 아이 내사 컷지. 그때 **여드, 원도~에 이시직이[찌기] 야듭살[야듭쌀]에 왔는데.

{아니 나야 컸지. 그때 여덟, 원동에 있을 적에 여덟 살에 왔는데.}

10201 @ 그러니까.{그러니까.}

10201 #1 야아.{응.}

10201 @ 여덟[여덟] 살이면은 원동 그 생각이 날거 아냐?{여덟 살이면 원동 그 생각이 날 거 아냐?}

10201 #1 기랜데 거저: 톨리꼬(только) 거저 그거 그거밖에 애이생객히오. 어: 산에가서 그 달기 잇재오? 그계 땅딸가지 야?{그런데 그저 오직 그저 그거 그거밖에 안 생각나오. 어 산에 가서 그 딸기 잇잖소? 그계 땅딸가지 응?}

10201 @ 에.{에.}

10201 #1 땅딸기 뜯어먹던게랑 그런게랑 생객히우지 다른건 아이생객히우.{땅딸기 따 먹던 것이랑 그런 게랑 생각나지 다른 건 안 생각나오.}

10201 @ 어.{어.}

10201 #1 아, 아, 우리 다숫인게 야 우리 싹 우리 재비 식기덜이 잇어, 잇엇소, 거기.{아, 아, 우리 다섯인데 응, 우리 싹 우리 자기 식구들이 잇어, 잇엇소, 거기.}

10201 @ 아:{아.}

10201 #1우리: 고모 잇엇지.{우리 고모 잇엇지.}

10201 @ 아.{아.}

10201 #1 그다음에 고모 둘이 거기 잇엇지.{그다음에 고모 둘이 거기 잇엇지.}

10201 @ 어.{어.}

10201 #1 그담에 서, 거기 또 촌으르 간 땡기메 선새임이 둘 잇엇지. 개 다 우리네 다스호박 에 없엇댓어.{그다음에 셋, 거기 또 촌으르 간, 다니며 (가르치는) 선생님이 둘이 잇엇지. 그래 다 우리네 다섯 호박에 없엇엇소.}

10201 @ 어:{어.}

10201 #1 그렇게.{그렇게.}

10201 @ 아바이는, 그때는 아바이 동네는 땡 땡호나 잇엇어요?{할아버지는, 그때는 할아버지 동네는 땡 땡 호나 잇엇어요?}

10201 # 열일곱호이. 열일곱호이.{열일곱 호. 열일곱 호.}

10201 @ 그먼 그때는 좀 큰데네.{그러면 그때는 좀 큰 데네.}

10201 # 그 그전에는 그 열일곱호이무 괴게 크다구서 기랬지. 기랜것두 거저 사이 뺨 돌과가 메 맥헛지. 그런 두무 산골에 살다나이 이 노시아 민족이랑 보지못했짐. 호옥시 그 노시 앓사름덜 무슨 일이 잇어 우리 촌으르 지나가게데무 그계 보게 텨 저 마우재덜 아덜으 잡아먹는다구서리. 기래메 무섭아서 달아돌와 집에 고방 구석에서 이불으 쓰구 곱치왔지 무 우리네.{그래 그전에는 그 열일곱 호면 그 마을이 크다고 그랬지. 그랬는데 그저 산 이 뺨 돌아가며 막헛지. 그런 두메산골에 살다 보니 이 러시아 민족은 보지 못했지 뭐. 혹시 그 러시아 사람들이 무슨 일이 잇어 우리 촌으르 지나가게 되면, 그것을 보게 되면 저 러시아 사람들이 아이들을 잡아먹는다고 그러며 무서워서 달려 들어와 집에 고방 구석에서 이불을 쓰고 숨엇지 뭐, 우리네.}

10201 @ 어:{어.}

10201 # '저 마우재덜은 아르 잡아먹는다'. 저 마우재두 저게 아마 중국말이갓지. 마우재, 마 우재 하는 게.{저 러시아 사람들은 아이를 잡아먹는다'. 저 '마우재'도 저게 아마 중국말

이겠지. '마우재', '마우재' 하는 게.}

10201 # 노시앗사람덜으 마우재라구 원도서 기랫지.{러시아 사람들을 '마우재'라고 원동에서 그랬지.}

10201 @ 오:.{오.}

10201 # 중국말이겄소, 저거. 심토이르.{중국어겄소, 저거. 심통으로.}

10201 @ 어.{어.}

10201 # 필경, 마우재, 마우재.{필경, '마우재' '마우재'라고 하는 말이.}

10201 #1 중국사람덜 많앗소.{중국 사람들이 많았소.}

10201 @ 중국 사람들이 많았어요?{중국 사람들이 많았어요?}

10201 #1 야:. 중국사람덜 많앗소.{응. 중국 사람들 많았소.}

@ 그러면 나중에 그 스탈린이 이렇게 이쪽으로 싹 글케 원동에서 우리 도, 우리 동포들 이렇게 그 할때 중국사람들도 같이 했어요?{그러면 나중에 그 스탈린이 이렇게 이쪽으로 싹 그렇게 원동에서 우리 도, 우리 동포들을 이렇게 이주 시킬 때 중국 사람들도 같이 이주 시켰어요?}

#1 아이 같, 중국 사람덜 아이 왔어.{같이 안, 중국 사람들 안 왔어.}

@ 중국사람들.{중국 사람들.}

#1 아이 왔지 야? 중국 사람덜. 중국 사람덜 아이 와. 단지 고렷사람마 들어왔소.{안 왔지 응? 중국 사람들. 중국 사람들 안 와. 단지 고려 사람만 들어왔소.}

@ 아아.{아아.}

기래구 저기 우리 그 연해주에서 우리 조선사람 이줄 시기구.{그리고 저기 우리 그 연해주에서 우리 조선 사람 이주를 시키고.}

#1 이거 빼 놔.{이거 빼 놔.}

이쪽에 이래.{이쪽에 이래.}

#1 야! 얘기 하는데.{야! 얘기 하는데.}

@ 괜찮아 이런말두 할라고 지금.{괜찮아 이런 말도 하려고 지금.}

#1 아! (웃음).{아! (웃음).}

이쪽 여기 구라과 그쪽에서는 체첸(чечен)덜이.{이쪽 여기 구라과 그쪽에서는 체첸 사람들.}

@ 네.{네.}

그다음번에 크림스끼 따따르(Крымский Татар) 네메쯔(Немец).{그 다음번에 크림반도의 타타르 인, 독일인.}

@ 네.{네.}

그 에 뿌리볼스끼이 네메쯔(Немец)라구 그 볼가(Волга), 볼가(Волга)강 그.{그 에 뿌리볼스끼이 독일 사람이라고 그 볼가, 볼가강 그.}

@ 예예예.{예예예.}

그 거기 네메쯔(Немец)덜이 몇 밀리온(миллион) 살앗소. 그 네메쯔(Немец)덜으 싹 이주 르 시기재앗소? 기래구서르 에 까라차이(Карачай)덜두 이줄 시기구. 그다음번에 으.{그 거기 독일인들이 몇 백만이 살았소. 그 독일인들을 싹 이주를 시키지 았앗소? 그리고 에 카라차이 사람들도 이주를 시키고. 그 다음번에 음.}

@ 독일 사람들도 있고요.{독일 사람들도 있고요.}

독독일사람덜 글썸. 그 뿌리볼스끼이 그 네메쯔(Немец). 게 독일 독일 사람덜.{독일 사람들 글썸. 그 뿌리볼스끼이 그 독일인. 게 독일 독일 사람들.}

@ 독일 사람들이에요 그게?{독일 사람들이에요 그게?}

기래구서르 까바르진(Кабардин)덜이 그 까브까즈(Кавказ) 민족덜두 많이[마이] 이주르 시겿소, 여긴. 까브까즈(Кавказ) 민족덜, 그 사람덜으느 우리마 곧게 더 더 다, 더했단 말이오.{그리고서 카바르딘 사람들, 그 카프카즈 민족들도 많이 이주를 시켰소, 여긴. 카프카즈 민족들,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곧장 더 더 다, 더 했단 말이오.}

10201 # 우린 개두 열흘 열흘 시기르 쫓지. 그 어간에 음 가주구 못갈 짐우느 싹 바체라. 바치구.{우리는 그래도 열흘 열흘 시기를 주었지. 그 사이에 음 가지고 못 갈 짐은 싹 바쳐라. 바치고.}

10201 @ 으음.{으음.}

10201 # 에 까금 쳐서 돈 받아라. 저 사람덜으느 한 수뜨까(сутки) 어간에 스물네시 어간에 이주르 시게서 무스 입을 오, 옷두 방정이 입지 못하구. 그러구 곧게 저 갓소.{에 가금(價金)을 쳐서 돈 받아라. (그렇지만) 저 사람들은 한 주야(晝夜) 사이에, 24시간 사이에 이주를 시켜서 무슨 입을 오, 옷도 방정히 입지 못하고 그러고 곧장 저 (이주를 해) 갓소.}

10201 @ 오:.{오.}

10201 #1 기래두 우리르 그렇게 강제 이주르 시게서 고상스럽구 기래두 괴재 준 거이 그렇기 기래 그런지 스탈린이라 하게 데무 정마 하느님마두 더 거했지. 기래길래 쟈, 지난 쟈자야 조국전재~ 나실 직에 사람덜이 목숨 내걸구서르. ‘조국을 위하여!’ ‘스탈린으 위하여!’ 이래메 목숨 내걸구서르 전, 전재~에서 이겿스.{그래도 우리를 그렇게 강제 이주를 시켜서 고생스럽고 그래도 그때 준 것이 그렇게 그래 그런지, 스탈린이라 하게 되면 정말 하느님보다도 더 거(巨)했지. 그러기에 전, 지난 전쟁을, 조국전쟁(=독소전쟁)이 났을 적에 사람들이 목숨을 내걸고, ‘조국을 위하여!’ ‘스탈린을 위하여!’ 이러며 목숨을 내걸고 전, 전쟁에서 이겼소.}

10201 @ 음.{음.}

기래 우리두 그런 곧것다구서르 숙시 지나가이 그 스탈린, 스탈린 아바이게 특별한 분네라 구서 기랫지. 시방 와서 보무 스탈린 볼 데두 없는 분네. 키 췌꼬망지.{그래 우리도 그렇게 곧고 바르게 되었다고 해서 숙시(熟視, 눈여겨 잘 살펴봄) 지나가니 그 스탈린, 스탈린 할아버지에게 특별한 분이라고 그랬지. 시방 와서 보면 스탈린은 볼 데도 없는 분네. 키가 조꼬망지.}

@ 음.{음.}

낮이 어 엷었지. 아아때 말께서 떨어져서 웨짜팔이 이래 조래팔이 뗏지. 볼 데도 없는 분네. 갠게 아무래 좀 곱이 일했던 모애: 기래길래 어 쏘비에트 정부르 서른해 도[또]안으 유지르 해 가주구서르 사업했지.{낮이 어 엷었지. 아이 때 말에서 떨어져서 왼쪽 팔이 이래 짧은 팔이 뗏지. 볼 데도 없는 분네. 그런데 아마도 좀 머리가 잘 돌아갔던 모양이오. 그러기에 어 소비에트 정부를 30년 동안을 유지르 해 가지고서 사업했지.}

@ 음.{음.}

기래 괴직[찍]에 거저.{그래 그 때에 그저.}

#1 흐음.{흐음.}

스탈린 아바이라 하무 거저 기계 큰분넨가 하구. 그 스탈린 아바이 모르구선 못산다구서 리.{스탈린 아버지라 하면 그저 그게 큰 분네인가 하고. 그 스탈린 할아버지를 모르고서는 못 산다고 하고.}

@ 음.{음.}

우리 다 그렇게 얘기했지.{우리 다 그렇게 얘기했지.}

@ (웃음).{(웃음.)}

기래 이제 이제 와서 보게 다무 승허물이 많은 분네.{그래 이제 이제 와서 보게 되면 흥, 허물이 많은 분네.}

@ 에.{에.}

그분네.{그 분네.}

@ 에.{에.}

에 제마 더 잘난 사람두 곱아 아이하구 제마 키 더 큰 사람두 곱아 아이하구 그 그런분네. 심술 많은 분네.{에 자기보다 더 잘난 사람도 좋아 아니 하고 자기보다 키 더 큰 사람도 좋아 아니 하고 그런 분네. 심술이 많은 분네.}

10201 @ 으음. 그러면 인자 거기서 맨 처음에 그 아매 오실때는 어디로 오셨어요?{으음. 그러면 인제 거기서 맨 처음에 그 할머니가 오실 때는 어디로 오셨어요?}

10201 #1 우리네 크즐오르다(ҚЫЗЫЛОРДА)로 왔지.{우리네 크즐오르다로 왔지.}

10201 @ 에?{에?}

10201 #1 크즐오르다(ҚЫЗЫЛОРДА)르 왔지. 크즐오르다(ҚЫЗЫЛОРДА)르 왔지.{크즐오르다를 왔지. 크즐오르다를 왔지.}

10201 # 까작스판.{카자흐스탄.}

10201 #1 까작스판.{카자흐스탄.}

10201 @ 까자흐스탄으로?{카자흐스탄으로?}

10201 #1 까자흐스탄(Қазақстан). 이사 이사를.{카자흐스탄. 이 사(람) 이 사(람들).}

10201 # 도시.{도시.}

10201 #1 아. 이사름덜으느 우즈베크스탄(Ўзбекистан)으르 오구.{응. 이 사람들은 우즈베크스탄으로 오고.}

10201 @ 으음.{으음.}

10201 #1 우리네 까자흐스탄(Қазақстан)으르 왔소.{우리네는 카자흐스탄으로 왔소.}

10201 @ 그러면 거기서 몇:번의 기차가 몇:번 이르게 서로 다르게 출발한 거예요?{그러면 거기서 몇 번의 기차가 몇 번 이렇게 서로 다르게 출발한 거예요?}

10201 # 그래. 그 차래에 몇 백 이 노시앗말 마 말하메 ***엡셀론 그 차라~이 으 기차 바곤(вагон) ***오즈베께서 이렇기 찬 게.{그래. 그 차량에 몇 백, 이 러시아 말, 마 말로 하면 ***엡셀론 그 차량이 음, 기차 차량이 ***** 이렇게 찬 게.}

10201 @ 네.{네.}

10201 # 몇백 차라~이 왔단말입구마.{몇 백 차량이 왔단 말입니다.}

10201 #1 개 하 한 바곤(вагон)씨 떼놓곤 또 달아나구 한 바곤(вагон)씨 떼놓구 달아나구 이랬댜소.{그래 하 한 차량씩 떼어 놓고는 또 달아나고 한 차량씩 떼어 놓고는 달아나고 이랬었소(=기차가 중앙아시아에 도착하여 정거장마다 한 차량씩을 떼어 놓고 갔다는 말.}

10201 @ 아.{아.}

10201 #1 기래 그것두 내 아매 말해서 알지. 나는 지내 모르지.{그래 그것도 내 할머니가 말해서 알지. 나는 아주 모르지.}

10201 @ 그러니까 한 가족 가족이나 동네사람들은.{그러니까 한 가족 가족이나 동네 사람들은.}

10201 #1 아.{응.}

10201 @ 그냥 한 **바구니에 인제 들어있는데. 내리라 하면 내린 거여?{그냥 한 객차에 인제 들어 있는데. 내리라고 하면 내린 거야?}

10201 #1 기래. 우리네는 이렇게 앉았댔소. 우리 고모 내 둘이 앉구.{그래. 우리네는 이렇게 탔었소. 우리 고모 내가 둘이 타고.}

10201 @ 음.{음.}

10201 #1 우리네 앉구. 그답에 에따(это) 념이 둘이 앉구. 그렇기 앉았댔어. 기애 네 네호이, 념이 한내 앉았지. 기래 네호씨.{우리네 타고. 그다음에 음 남이 둘이 타고. 그렇게 탔었어. 그래 네 네호가 (탔는데) 남이 하나 탔지. 그래 네 호씨.}

10201 # 네호씨.{네 호씨.}

10201 #1 네호씨 앉았소. 네호씨 한 그런데 앉았댔소.{네 호씨 탔소. 네 호씨 태운 그런 차량에 탔었소.}

10201 @ 아 네호씨 앉았어요?{아 네 호씨 탔어요?}

10201 #1 야. 네집. 네집씨 앉지무. 한 그런 바곤(вагон) 안에.{응. 네 집. 네 집씨 앉지 뭐. 한 그런 차량 안에.}

10201 # 그 저기 가축 실는 차라~에다서리 이 아 한판으 사람 드나들 데르 요마:이 요롱기 질에(←질+이+어)[지체] 놓구. 앞두 여파레다서리 칭대르 이래.{그 저기 가축 실는 차량에다 이 아 복판을 사람 드나들 데를 요만하게 요렇게 남겨 놓고. 앞뒤 옆에다 층대를 이래.}

10201 @ 에.{에.}

10201 # 두청대르 만들어서 그 한쪽 여파레 또 두 시간씨, 개 네 시가이 옹지. 기래 식, 식솔이 많, 많구 그런거는 고론 차라~에 이십에멩씨 거이 들어앉았지. 기래이 거 무스 마시는 물이 잇겠는가. 칩우이 무스 덤히는 난로 잇겠는가.{두 층대를 만들어서 그 한쪽 옆에 또 두 세대씩, 그래 네 세대가 옹지. 그래 식, 식솔이 많, 많고 그런 거는 고론 차량에 20여명씩 거의 들어앉았지. 그러니 거 무슨 마시는 물이 잇겠는가. 추우니 뭐 덤히는 난로가 잇겠는가.}

10201 @ 그면 가매 가매같은 거 이런 거 갖고 왔어 가매 같은 거?{그러면 술, 술 같은 거 이런 거 갖고 왔어? 술 같은 거?}

10201 #1 가:매두 없구. 웨드롤(ведро-르)로두 거저. 거저 달아나가선 무스거 끓이자무 웨드로(ведро)다 끓이지. 오래 서구 잇는담 그 웨드로(ведро)다 끓인단 말이오. 웨드론(ведро)게 아이라 그거 미시게라 하오? 시방?{술도 없고. 양동이로도 그저. 그저 달려 나가서는 무엇을 끓이자(=무슨 음식을 끓이자) 하면 양동이에다 끓이지. 오래 (기차가) 서 있는 다 하면 그 양동이에다 끓인단 말이오. 양동이가 아니라 그거 무엇이래 하오? 시방?}

10201 @ 주전자?{주전자?}

10201 #1 아아.{응.}

10201 @ 물끓이는거예요?{물 끓이는 거예요?}

10201 #1 물 끓이는 거. 거기다가서리 그저 무스 끓에서 물으 끓에 달에다가느 어 떡으느 오
메서리 잇엇답데. 그저 우리 빠빠 달아댕기메서 떡으느 싸들엇답데.{물을 끓이는 거. 거
기에다가 그저 무엇을 끓여서 물을 끓여 들어다가는 어 빵은 오면서 (구할 수) 있었다
데. 그저 우리 아버지가 뛰어 다니면서 빵은 사 들엿다데.}

10201 # '떡'이란 게 그 빠~이.{떡'이란 게 그 빵(을 말하지).}

10201 #1 빠이르.{빵을.}

10201 @ 빵이.{빵이.}

10201 #1 야.{응.}

10201 @ 어.{어.}

10201 #1 그저 싸먹으메서리 어 왔지. 개 우리네 올직에 냐~? 대애지르.{그저 사 먹으면서
어 왔지. 그래 우리네 올 적에 응? 돼지를.}

10201 @ 음.{음.}

10201 #1 한나 잡아서 어 노시앗사름덜은 야 그저 이렇게 싹 지내 영, 사크레와일(закрyти
е) 해서, 딱 달아서 기래구 우리 여기 들으워서 까자그스판(Казахстан) 들으워서 그거
떼에서 그래 먹엇댓어.{하나 잡아서 어 러시아 사람들은 응 그저 이렇게 싹 아주 넣(어),
밀봉해서, 딱 달아서 그래고(가공하는데) (그런 돼지고기를) 우리 여기 들어와서 카자흐
스탄에 들어와서 그거 떼어서 그래 먹엇어.}

10201 @ 거 안 상해?{그거 안 상해?}

10201 #1 아이.{아니.}

10201 # 그 도장처르 그렇기 했습지.{그 도장처럼 그렇게 했지요.}

10201 #1 야.{응.}

10201 # 까시에르(консервы)처리.{통조림(桶--)처럼.}

10201 #1 까시에르(консервы)처리 그렇게 하지. 그 방ㄷ(банка)다 영재오? 그런 까시에르(к
онсервы)처르 그렇게 해서. 어 노시앗사름덜으 그렇게 해에서 줘서 대애지르 하나 다
그렇게 열어서 기래 줘서 이기 까자그스판(Казахстан) 들어와서 먹엇댓어.{통조림처럼
그렇게 하지. 그 통(桶)에다 넣잖소? 그런 통조림처럼 그렇게 해서. 어 러시아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줘서 돼지를 하나 다 그렇게 넣어서 그래 줘서 여기 카자흐스탄에 들어와서
먹엇어.}

10201 @ 어어. 그먼 그 그러 그러도 쫘 쫘 괜찮았네. 다른 사람들은 숨겼을 판인데.{어어. 그
러면 그 그러 그래도 쫘 쫘 괜찮았네. 다른 사람들은 숨겼을 판인데.}

10201 #1 (웃음).{(웃음).}

10201 @ 그거 하나 더 와서.{그거 하나 더 와서.}

10201 #1 우리네 야 그거 갖, 그래 가주구두 왔댓어. 우리네 까자그스판(Казахстан) 그 이실
직에느 야 우리 아매 기래는 게 어, 즘시이덜 대, 세랑 잇엇다오. 세 잇구 대애지 잇구.
답이덜으느[targiderrini] 답으느[targini] 어 그게 생깁히우는데, 어, 이렇게 싹씻는 물함
박이 잇소. 그게 이렇게 줄이 쪽:쭈 난 물함박이 여기 잇지 냐. 그 조선에두 잇소? 귀
게?{우리네 응 그거 갖, 그래 가지고도 왔엇어. 우리네가 카자흐스탄에 그 있을 적에는
응. 우리 할머니가 그러는 게 어, 짐승덜 돼, 소랑 잇엇다고. 소 이 잇고 돼지 잇고. 닭들
은 닭은 어 그게 생각이 나오 내가. 어, 이렇게 싹을 씻는 물함박이 잇소. 그게 이렇게

줄이 쪽쪽 난 물함박이 여기 있지 응. 그 조선에도 있소? 그게?)

10201 @ 예.{예.}

10201 #1 그런 물함박에다 나~. 답이가 그 빠아느 구워 그, 우리네는 마우제 뼈찌(печь) 마우제쳐르 그런 뼈찌(печь)에다가서르 굽어서 기래 거기다가서 거주구 와서, 두 함지, 낭글르 판 함지 그런데다가서리 거주구 왔댓어.{그런 이남박에다 응. 답과 그 빵은 구워 그, 우리네는 러시아 페치카, 러시아 사람처럼 그런 페치카에다가 구워서 그래 거기다가 가지고 와서, 두 함지, 나무로 판 함지 그런 데다가 가지고 왔어.}

10201 @ 음.{음.}

10201 #1 기래 오다가서리 마감이 기계 야 싹 잘못땀데. 오래 오, 오메서리 기계 다 먹지 못하, 기래무 그 아래서, 그 차 질에서 일하는 사름덜으 네레페레 주구 주구 이래.{그래 오다가 막판에는 그게 응 싹 잘못되데. 오래 오, 오면서 그게 다 먹지 못하고 그러면 그 아래에서, 그 기찻길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내려뜨려 주고 주고 이래.}

10201 # 그 일하는 사름덜두[뚜] 이 쟁민덜 아이구 모도 췌인덜이. 감옥에 가 갠기운 그 사름덜.{그 일하는 사름덜도 이 쟁민들이 아니고 모두 죄인들. 감옥에 가, 갠힌 그 사름덜.}

10201 #1 그런 사름덜.{그런 사름덜.}

10201 # 통 내애다서리 철도에서 일으 시기지.{모두 내어다가 철도에서 일을 시키지.}

10201 #1 아. 일으 시기가.{응. 일을 시키니까.}

10201 # 기래 그 사름덜두 배고프길 기딱찾지. 기래 노무 그 다른 같은 거 원도~ **안테서 잡아서 거주구 오이까 그 냄새 나서 못먹게 다무 네레페리게 다무 그거 서르 췌에먹느라 구서르 거저 그렇…….{그래 그 사름덜도 배고픈 것이 기가 막혔지. 그래 놓으면 그 다른 것 같은 것(=보통 것과 다른 것처럼 보이는 것), 원동에서 잡아서 가지고 오니까 그 냄새가 나서 못 먹게 되면, 그래 내려뜨리게 되면, 그거 서로 쥐어(=집어) 먹느라고 그거 그렇게…….}

10201 #1 게두 그사름덜으는 그게 베~이 아이 데길래 그거 먹지.{그래도 그 사름덜은 그게 병이 안 되니까 그거 먹지.}

10201 @ 죽게 생겼으니까 먹겠지. 지금 제 먹어라 하면 먹졌어요?{죽게 생겼으니까 먹겠지. 지금 집어 먹어라 하면 먹졌어요?}

10201 #1 (웃음).{(웃음).}

10201 @ 이~?{응?}

10201 # 전장 직에 이 고기란 게 무 대지고기 어떤거 모르구. 췌고기 어떤거 모르구. 저어 어디메 가서 거북이르 하나 붙들어오게다무 기계 큰 대애지르 잡은것만치 그렇기 반갑앗댓소[panɣat'eso].{전쟁 직에 이 고기라는 게 뭐 돼지고기가 어떤 것인지 모르고. 쇠고기가 어떤 것인지 모르고. 저 어디 가서 거북이를 하나 붙들어 오게 되면 그게 큰 돼지를 잡은 것만큼 그렇게 반가웠었소.}

10201 @ 으음.{으음.}

10201 # 기래구서르 그 전장시기에 이 국가 그런 저기 에 스펠로브(столовая)서두, 스펠로브(столовая) 고렛말르 무시라 햇던두 싹 말으 싹 잇었지. 그 거북이르 빼짚르(специальный) 사름덜 내놔서 거북이르 잡아딜에서 그 국이랑 거북이 고기르 거주구서르 국으 끓에서 그렇기 사름덜 대접시겟…….{그리고 그 전쟁 시기에 이 국가 그런 저기 에 식당

에서도, ‘스톨로브(столовая)’를 고려 말로 무엇이냐 했던지 싹 말을 싹 잊었지. 그 거북이를 특별히 사람들을 내놔서(=풀어서) 거북이를 잡아들여서 그 국이랑 거북이 고기를 가지고서 국을 끓여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대접을 시켰…….}

10201 @ 아니 이리가 많았다면서요 이리는.{아니 이리가 많았다면서요 이리는.}

10201 # 이리, 어이구::!{이리, 아이고!}

10201 @ 그거 안잡아먹었어요?{그거 안 잡아먹었어요?}

10201 # 노 노인덜이 그 이리고기르 잡으이 그러키 뇌린내 나메 맛이 없더라메서리 기래. 야아! 그 이리덜이 어디르 싹 갓는지. 거저 깔밭에 개무리처르 바라댕겿어 이리덜이 기래.{노, 노인들이 그 이리 고기를 잡으니 그렇게 노린내 나며 맛이 없더라면서 그래. 야아! 그 이리들이 어디로 싹 갓는지. 그저 갈대밭에 개 무리처럼 싸돌아다녔어. 이리들이 그래.}

10201 #1 게 이리고기 못먹소. 노린내 나서. 그전에 *긫, *순 승년때두 그거 그거 못먹었다오.{그래 이리 고기 못 먹소. 노린내 나서. 그전에 구차할 때, 흥, 흥년 때도 그거 그거 못 먹었다오.}

10201 @ 굶어 죽을 때두?{굶어 죽을 때도?}

10201 #1 야아. 기게 그룽기 내앰새 나서.{응. 기게 뭐 그렇게 냄새가 나서.}

10201 @ 오오.{오오.}

10201 #1 그렇다구, 이기.{그렇다고, 이계.}

10201 @ 오오.{오오.}

#1 승냐~:느 일없어두.{승냥이는 괜찮아도.}

@ 승냥이허고 이리허고 따요?{승냥이하고 이리하고 달라요?}

#1 야아. 따오.{응. 다르오.}

@ 어.{어.}

#1 따오.{다르오.}

@ 어느것이 더 커 승냥이가 커.{어느 것이 더 커 승냥이가 커.}

#1 승냐이 더 키지.{승냥이가 더 크지.}

승냐~이 더 크, 더 크짐.{승냥이가 더 크, 더 크지 뭐.}

#1 승냐~이 더 크오.{승냥이가 더 크오.}

@ 으음. 여, 여끼는 여끼는.{으음. 여, 여우는 여우는.}

#1 여끼는: 모르겠소.{여우는 모르겠소.}

여끼두 야아! 저 저기 동물원에 가게 다무 그 여끼 잇는 그 그 칸에 가게 담 뇌린내 나서 절으르 가지 못하오. 기랜 그저 여끼, 여끼 고기두 그룽기 뇌린내.{여우도, 야아!, 저 저기 동물원에 가게 되면 그 여우가 잇는 그 그 칸에 가게 되면 노린내 나서 곁으로 가지 못하오. 그래 그저 여우, 여우 고기도 그렇게 누린내가.}

#1 기게 기랭지.{기게 그렇지.}

그래겿지 무스.{그러겿지 무슨.}

#1 그룽게.{그룽게.}

그 거저 가죽이 쓰느라구서 기래 그럽지.{그 그저 가죽을 쓰느라고 그래 그러지요.}

10510 @ 으음.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지금, 지금 거던지 그때거던지 간에 주로 여기서 해먹는 반찬은 주로 어떤 반찬을 해먹어요?{으음.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지금, 지금 것이든

그때 것이든지 간에 주로 여기서 해 먹는 반찬은 주로 어떤 반찬을 해 먹어요?)

10510 #1 우리네 반찬하는 것두 물고길르.{우리네 반찬(=동북방언의 ‘반찬’은 물고기를 요리한 음식임)하는 것도 물고기로.}

10510 @ 아니 반찬 채소 등에 나물 인제 다 합쳐서 주로 어떤 걸 먹냐고?{아니 반찬 채소 등에 나물 인제 다 합쳐서 주로 어떤 걸 먹냐고?}

10510 #1 아아!{아아!}

10510 @ 여기에 있는 우리 동포들은.{여기에 있는 우리 동포들은.}

10510 #1 여기서느 그저 채 채시르 어따(это) 그런거 야 전체르 그 조선에서 중국에서 오오.{여기서는 그저 채 채소를 음 그런 거 응 모두 그 조선에서 중국에서 오오.}

10510 @ 채소가?{채소가?}

10510 #1 채소 냐~. 무슨 채소 오는가 말리워서 가져오는 걸르.{채소 응. 무슨 채소가 오는가 말려서 가져오는 것으로.}

10510 @ 아.{아.}

10510 #1 기래 가져오무 이 구일때무, 그 그 중국에서 오는 그거 나물으 어 그걸르 잉게 구일때무 하구. 우리 채빌르 여기서 이래 먹재이오? 개 물고길르 반찬하구. 그담에 고춧잎 [고친닙]이 잇재오?{그래 가져오면 이 큰일 때면 그 그 중국에서 오는 그 나물을 어 그걸로 이렇게 큰일을 치를 때면 하고. 우리가 직접 (가꾸어서) 여기서 이렇게 먹잖소? 그래 물고기로 반찬(=물고기 요리)하고. 그다음에 고춧잎이 잇잖소?}

10510 @ 예.{예.}

10510 #1 고춧잎우르 채실하구.{고춧잎으로 반찬을 하고.}

10510 @ 예.{예.}

10510 #1 그담에 감질르 채실하구.{그다음에 감자로 반찬을 하고.}

10510 @ 음.{음.}

10510 #1 감지르. 감질.{감자를. 감자를.}

10510 @ 예.{예.}

10510 #1 아지 냐~?{알지 응?}

10510 @ 예.{예.}

10510 #1 그 감질르 채시르 하구. 그래두 기래오, 여기서느.{그 감자로 반찬을 하고. 그래두 그래오, 여기서느.}

10510 @ 깨는? 깨, 깨, 꽤.{깨는? 깨, 깨, 깨.}

10510 #1 깨느 야. 우리 여기다 시멧지 야.{깨는 응. 우리 여기에다 심었지, 응.}

10510 @ 예.{예.}

10510 #1 깻잎우 조선에 사름덜이 그룽게 잘 잡수재오?{깻잎을 조선의 사람들이 그렇게 잘 잡숫지 않소?}

10510 @ 예.{예.}

10510 #1 개 내 우리 여기 리목사네 잇소.{그래 내 우리 여기 이 목사네 잇소.}

10510 @ 예.{예.}

#1 내 멘목으 잘 아오, 목사이네르. 기래서 그 목사이네르 개애다주오, 그거.{내 멘목을 잘 아오(=잘 알고 지내오), 목사네를. 그래서 그 목사네를 가져다주오, 그거.}

@ 예예.{예.}

#1 이거 깻잎우.{이거 깻잎을.}

@ 음.{음.}

#1 한번에 가제가자무 야 이러:한 양푼으르 하나 꼬올뚝 뜯어가요, 내.{한 번 가져가자면 응 이러한 양푼으로 하나 가뜩 뜯어 가오, 내가.}

@ 예.{예.}

#1 기래구서리 예 고치두 가제가구.{그리고서 예 고추도 가져가고.}

@ 음.{음.}

#1 그담에 예따(это) 그 배채잇재오? 배채. 풀.{그다음에 음 그 배추가 있잖소? 배추. 풀(=푸 성귀).}

@ 예.{예.}

#1 그런 우리네 이, 이찍이 그양: 배채르 거저 어이어이 시무다나 기양잇지.{그런 우리네 이 일찍이 그냥 배추를 그저 얼른얼른 심다 보니 그냥 잇지.}

@ 음.{음.}

#1 기래무 그집우 가제가오.{그러면 그 집을 가져가요.}

@ 그러면은 그 깻잎 같은 경우는: 그:: 장에다가 잉게 넣어놓면 맛있는데 여기는 그거 안먹어요?{그러면은 그 깻잎 같은 경우는 그 장에다가 이렇게 넣어 놓으면 맛있는데 여기는 그거 안 먹어요?}

#1 아이. 좋아 아이하오.{아니. 안 좋아하오.}

@ 음.{음.}

#1 어따(это) 음 그거 냐~, 예따(это) (입술 마주치는 소리) 한 한 아바이라구 여기 잇소 아오?{음, 음 그거 응, 음 (입술 마주치는 소리) 한, 한 할아버지라고 여기 잇소 아오?}

@ 몰라요.{몰라요.}

#1 밧소? 못밧소?{봤소? 못 봤소?}

@ 예.{예.}

#1 예따(это), 노인단에서 한 아바이 못밧소?{음, 노인단에서 한(韓)씨 할아버지 못 봤소?}

@ 못봐, 안가봤어요, 아직.{못 봐, 안 가봤어요, 아직.}

#1 못가밧소?{못 가봤소?}

@ 이번에 가볼라고, 인자.{이번에 가 보려고, 인제.}

#1 아아. 그 한 아바이 그 깻잎울르 해서 냐~? 내 아는 사림인데르 가제왓습데 냐~. 간자~을르 했습데.{응. 그 한(韓)씨 할아버지가 그 깻잎으로 (반찬을) 해서 응? 내가 아는 사람한테 가져왔습디다, 응. 간장으로 했습디다.}

@ 예예.{예.}

#1 간자~을르. 기래 해서 가제온게 어찌 싹싹한게 우리네는 못먹겟습데.{간장으로. 그래 해서 가져온 게 어찌 깔깔한 게 우리네는 못 먹겠데.}

@ 그래요?{그래요?}

#1 야~아.{응.}

@ 으음.{으음.}

#1 게 구.{그래 그.}

@ 맛있는데.{맛있는데.}

#1 맛이 잇다구서리. 기래 또 저 리목사이.{맛이 잇다고 (하더군). 그래 또 저 이 목사.}

@ 네.{네.}

#1 그 목사이 하, 저 저기 네느 그 그양 거 저기 이래지. 아 이게 우리 아덜으느 이것마 잇으 문 다른 해엠이르 요구 아이 텐다구.{그 목사가 하, 저 저기네(=저 분네)는 그 그양 그 저기 이러지. 아 이게 우리 아이들은 이것만 있으면 다른 반찬이 필요 없다고.}

@ 에 어.{에 어.}

#1 이 햄이르 제일 좋아한다구. 기래구 이거 동삼에두 그렇게 좋아한다지, 아덜이. 아 동삼때 꺼지 잇어야 이래메서리.{이 반찬을 제일 좋아한다고. 그리고 이거 겨울에도 그렇게 좋아한다지, 아이들이. 아 겨울 때까지 (그 깻잎이) 잇어야 (한다고) 이러면서.}

@ 어, 그렇죠.{어, 그렇죠.}

@ 아아! 깻잎이 있냐고?{아아! 깻잎이 있냐고?}

#1 깻입우 구겨 동삼때꺼지 두지 못하지. 다 잡좌:서.{깻잎을 그겨 겨울 때까지 두지 못하지. 다 잡수어서.}

@ 아 아 아.{아 아 아.}

#1 개 사모님 기래짐. 아, 우리 아덜 그 조끔 두자: 하무 아덜 거저 어트기 좋아 반갑아하는 지. 그거 다 없이하나이까데 그 동삼때꺼지 못두겟다구.{그래 사모님이 그러지 뭐. 아, 우리 아이들이 그 조끔 두자고 하면 아이들이 그저 어떻게 좋아서 반가워 하는지. 그거 다 없으니까 그 겨울 때까지 못 두겟다고.}

@ 으음.{으음.}

#1 개 내 빼짤느(специальный) 그거 내 시멧뎡소, 여기다가. 그 집우 주느라구. 개 어전 여 기르 니기 완주 아오? 여기 요 우리 울리짜(улица) 왓어, 조선사람이.{그래 내 특별히 그걸 내가 심엇엇소, 여기다가. 그 집을 주느라고. 그래 이제 여기를 누가 왓는 줄 아오? 여기 요 우리 거리에 왓어, 조선 사람이.}

@ 으음.{으음.}

#1 기래 온게 어전 올해느 그 그분네르 조끔 줘야 데갓어.{그래 왓는데 이제 올해는 그 그 분 에게 조끔 줘야 되겟어.}

@ 으음. 어느 지역, 어디 조선 사람? 북조선?{으음. 어느 지역, 어디 조선 사람, 북한?}

#1 아이.{아니.}

@ 남조선.{남한.}

#1 남조선 사람이 왓소.{남한 사람이 왓소.}

@ 여기는 북, 북조선이나 남조선이나 다 조선사람이라고 그래?{여기는 북, 북한이나 남한이나 다 '조선사람'이라고 그래?}

#1 예, 야아.{예, 응.}

@ 예.{예.}

#1 기래: 그.{그래 그.}

@ 그 오늘 또 온 사람은 뭐하는 사람이에요?{그 오늘 또 온 사람은 뭐하는 사람이에요?}

#1 에따(это) 영게서 냐. 집우: 우리 저 아바이 누비에 집우 싹어, 여기다가서리 냐. 개 싸구 서리 저영게 아정, 아 아동공원 그런 집이 큰 게 잇엇뎡소. 그집우 건축하구 그집에다가서리 야 아: 췌르꾸(церков) 열엇소.{음 여기에서 응. 집을 우리 저 할아버지 누이의 집을 샀어, 여기다가 응. 그래 사고서 저기 아동, 아동공원(=어린이 공원)에 그런 집이 큰 게 잇엇소. 그 집을 건축하고 그 집에다가 응, 어 교회를 열엇소.}

10510 #1 기래 반찬으 하지. 그전에는: 그런게 바당물 고기덜이 바서[vasə], 들어왔소.{그래 반찬을 하지. 그전에는 그런 게 바닷물고기들이 와서, 들어왔소.}

10510 @ 으음.{으음.}

10510 #1 게 녹어서 그거르 반찬했지.{그게 값이 싸서 그것으로 반찬 했지.}

10510 @ 음.{음.}

10510 #1 어, ***육고니랑 가재미랑.{어, ***랑 가자미랑.}

10510 @ 음.{음.}

10510 #1 기래 시방 기계 없재오? 오기는 오오. 그러나 모:지 비싸오.{그래 시방 그게 없지 않소? 오기는 오오. 그러나 아주 비싸오.}

10510 @ 비싸요?{비싸요?}

10510 #1 모:지 비싸오.{아주 비싸오.}

10510 #1 개다나이 그걸르 *반, 그전에는 가재미 반찬이 제일이라 했소. 우리네 여기서 여기서.{그렇다 보니 그걸로 반(찬), 그전에는 가자미 반찬이 제일이라 했소. 우리네 여기서, 여기서.}

10510 @ 여기서.{여기서.}

10510 #1 여기서 그 가재미반찬으 제일이라 했소.{여기서 그 가재미 반찬을 제일이라 했소.}

10510 @ 맛있지. 가재, 가재미 반찬.{맛있지. 가재, 가자미 반찬.}

#1 야. 개던게 시바:는 그거. 그러구 오나? 그렇게 아이 오오. 작게 오오. 그전마. 이 쏘유즈(С оюз) 마사지구 다아 미시기던지 다 다 못 못쓰겠소. 아이 좋소.{응 그러던 게 시방은 그거. (또) 그러고 오나? 그렇게 안 오오. 적게 오오 그전보다. 이 (소비에트) 연방이 무너지고 다 무엇이든지 다 다 못 못쓰겠소. 안 좋소.}

@ 그러문 소비에트 때는마 잘 들어왔다고?{그러면 소비에트 때는 잘 들어왔다고?}

#1 잘: 잘 들어왔지. 미시기던지 먹을것두 많구. 거저 조선에서 미시기 아이 오지 냐~, 저어 원도~에서 싹 들어오오.{잘 잘 들어왔지. 무엇이든지 먹을 것도 많고. 그저 조선에서 무엇이 안 오지 응, 저 원동에서 싹 들어오오.}

@ 으음.{으음.}

#1 원도~에서 그 고 고기덜이 다 들어왔지.{원동에서 그 고, 고기들이 다 들어왔지.}

@ 그렇죠.{그렇죠.}

#1 기래게 거저 그 알이랑.{그런 게 거저 그 알이랑.}

@ 음.{음.}

#1 싹 들. 시바~없소, 그런 게.{싹 들(어 왔지). 시방 없소, 그런 게.}

@ 그면 그거 다 로시아로 가는 거야 지금?{그러면 그거 다 러시아로 가는 거야 지금?}

#1 모르지, 어찌는지.{모르지, 어찌하는지.}

@ 으음.{으음.}

#1 시바~ 없소.{시방 없소.}

@ 음.{음.}

#1 기래기라 우리 우리 시방 우리 나아 먹은 사름덜게는 쏘유즈(Союз) 마사지구 나이 아무것 두 아이오. 우리네는. 그전에는 우리 뻘시(пенсия)르 에엔 큰 뻘시르 탕소 두올이서.{그래서 우리 우리 시방 우리 나이 먹은 사름들에게는 (소비에트) 연방이 무너지고 나니 아무것도 아니오. 우리네는. 그전에는 우리 연금을, 가장 큰 연금을 탕소, 둘이서.}

@ 으음음.{으음음.}

#1 기래 타서 그제에기마 하루 야. 먹구두 짚엇소.{그래 타서 그거이기만 하면 응. 먹고도 남
았소.}

@ 음.{음.}

#1 어 기랜게 시바:느 우리 뻘시(пенсия)르 우리네두 일없다 하오.{어 그런데 시방은, 우리
연금을 우리네도 그저 그 정도면 괜찮다 (하기는) 하오.}

@ 음.{음.}

#1 두천 백이오. 두천백이.{20,100이오. 20,100.}

@ 으음음.{으음음.}

#1 일없다 해애두 쏘론느(всё рано) 구일 집이랑 다른지 이래 땡기자무 모자라오.{괜찮다 해
도 어쨌든 큰일 집이랑 다른 집을 이래 다니자면 모자라오.}

@ 그 쏘비에트 때도.{그 소비에트 때도.}

#1 아.{응.}

@ 쏘비에트 때도 다른집에 잔치허고 가면은 이 돈들고 가고 그랬어요?{소비에트 때도 다른
집에 잔치하고 가면은 이 돈 들고 가고 그랬어요?}

#1 구러지. 그러재양구.{그러지 않고. 그러지 않고.}

@ 그때도 다들?{그때도 다들?}

#1 아아.{응.}

@ 부이하고 부조하고 그랬어요?{부의(賻儀)하고 부조(扶助)하고 그랬어요?}

#1 데게 헛엇지. 아이 일백스무애기마 하루 일없엇땡소. 아, 대:지고기 한 한킬로에 석냥씨 헛
소 그때는. 아 기래 일백스무애~이무 대지고기 땡킬로. 아 시바~아느 야 아 천냐~ 타는데두
대:지고기 열킬로.{되게 헛엇지. 아니 120냥만 하면 괜찮았었소. 아, 돼지고기 한 한 킬로
에 석 냥씩 헛소 그때는. 아 그래 120냥 돼지고기 몇 킬로. 아 시방은 응 아 천 냥 탄다
해도 돼지고기 10킬로.}

@ 어.{어.}

#1 기래이까데 어떻소.{그러니까 어떻소.}

@ 음.{음.}

#1 바쁘오 시바.{힘드오 시방.}

@ 으음음.{으음음.}

#1 기래 조선에서 온 이사 이래지.{그래 조선에서 온 의사가 이러지.}

@ 북조선에서 온 이사?{북한에서 온 의사?}

#1 북조선에서 온 이사 이래짐. 아이구! 일없소. 이거 다: 조끔 조끔 팔아서 잡좌:두 상새날
때.{북한에서 온 의사가 이러지 뭐. 아이고! 괜찮소. 이거 다 조끔 조끔 팔아서 잡수어도
돌아가실 때.}

@ (웃음).{(웃음).}

#1 상새날때까지느 벤벤하다구 이래지. 이거 췌췌 췌췌 팔아서.{죽을 때까지는 넉넉하다고 이
러지. 이거 조끔 조끔 팔아서.}

@ (웃음).{(웃음).}

#1 상새날때까지 벤벤하다구 이래짐.{죽을 때까지 넉넉하다고 이러지 뭐.}

@ (웃음).{(웃음).}

#1 기래.{그래.}

@ 그렇지.{그렇지.}

#1 야.{응.}

@ 조선으로 놓고 보면.{조선으로 놓고 보면.}

#1 그래 이 일없다구. 아: 한어머니 일없게 보낸다구. 우리네르 이렇게 보낸다구. 기래 구차하다 해애두 이거 조끔씩 팔아먹어두 어 일없다구서리 이래메서리 그렇기.{그래 이 괜찮다고. 아 할머니 괜찮게 보낸다고. 우리네는 이렇게 보낸다고. 그래 구차하다 해도 이거 조끔씩 팔아먹어도 괜찮다고 이러면서 그렇게.}

@ 집이 없는 사람들은 바쁘겠네이~.{집이 없는 사람들은 힘들겠네, 응.}

#1 **이시(←이씨) 여기?{요즈음 여기?}

@ 네.{네.}

#1 그래 방천으 맞구 사지.{그래 셋방을 얻어 살지.}

@ 그러니까.{그러니까.}

#1 그 집우.{그 집을.}

@ 바쁘겠다고.{힘들겠다고.}

#1 그런 사름덜은 바쁘지.{그런 사람들은 힘들지.}

@ 으으음.{으으음.}

#1 그래 그거 사름덜으는 어 돈으 엠매 별 데 없단 말이오 별 데 여기.{그래 그거 사람들은 어 돈을, 얼마 별 데가 없단 말이오. 별 데가 여기서.}

@ 음.{음.}

#1 영계서 어트게 별무 어, 먹구살구 집값이 거저 물겠소.{여기서 어떻게 별면 어, 먹고 살고 집값을 그저 물겠소.}

@ 음.{음.}

10103 #1 기래 시방 조선사름덜이, 바자르(базаp) 가봤소? 자에 가봤소?{그래 시방 조선 사람들이 시장 가 봤소? 장에 가 봤소?}

10103 @ 예.{예.}

10103 #1 그 자에서 그 무슨으 파는거 봤소?{그 장에서 그 무엇을 파는 거 봤소?}

10103 @ 예.{예.}

10103 #1 어 그 조선 사름덜 조선 아, 여자덜이 그 채실 해 파는 거 보오.{어 그 조선 사람들 조선 아, 여자들이 그 채소를 해 파는 거 보오.}

10103 @ 어, 몰라요.{어, 몰라요.}

10103 #1 못봤소?{못 봤소?}

10103 @ 예.{예.}

10103 #1 이따가 보오. 이게 이 오쉬(Ом) 바자르(базаp) 가서 보오. 그 여자덜이 채시르 해 파는 거 보오.{이따가 보오. 이게 이 오쉬 시장에 가서 보오. 그 여자들이 채소를 해 파는 거 보오.}

10103 @ 뭐 어떤 것을 팔아. 채소?{뭐 어떤 것을 팔아. 채소?}

10103 #1 채소르 여러가지르 파오. 벨란가지 다 있소.{채소를 여러 가지를 파오. 별난 (여러)가지가 다 있소.}

10103 @ 어떤 조선 사람들이?{어떤 조선 사람들이? (북조선)}

10103 #1 이 이 여기 여기 조선사람덜이.{이 이 여기 여기 조선 사람들이.}

10103 @ 아, 우리:. 여기 고렷사람들.{아, 우리. 여기 고려 사람들.}

10103 #1 여기 여기 고렷사람덜. 여기 고렷사람덜.{여기 여기 고려 사람들. 여기 고려 사
 람들.}

10103 @ 여기 사람들 많이 팔데 영.{여기 사람들 많이 팔데, 응.}

10103 #1 야. 파는 거 맞소?{응. 파는 거 봤소?}

10103 @ 예에에.{예.}

10103 #1 아. 그 벨란 채시르 다 파오.{아. 그 별난 채소를 다 파오.}

10103 @ 으음.{으음.}

10103 #1 이따가 그거 좀 저 바사르(базар) 좀 가보오. 어떻는가: 하구.{이따가 그거 좀 저
 시장 좀 가 보오. 어떤가 하고.}

10103 @ 음.{음.}

10103 #1 댕기메서리. 그 그렁소. 여기 고렷사람덜으느 그룽게 사오.{다니면서. 그 그렁소. 여
 기 고려 사람들은 그룽게 사오.}

10103 @ 그러면 여기 사는 사람들 중에서 우리 고렷사람이 제일 지금 바쁘게 사는 거여?{그
 러면 여기 사는 사람들 중에서 우리 고려 사람이 제일 지금 힘들게 사는 거야?}

10103 #1 어: 잘사는게 모:지 잘사오. 여기 고렷사람덜이. 영계, 영 본래 여기 사는 사람덜이
 잘사는 거느 되*** 잘사오.{어 잘사는 게 아주 잘사오. 여기 고려 사람들이. 여기, 아주
 본래부터 여기 사는 사람들이 잘사는 거는 **** 잘사오.}

10103 @ 고렷사람들이.{고려 사람들이.}

10103 #1 고렷사람덜이. 영계 집이 잇지,{고려사람들이. 여기에 집이 잇지.}

10103 @ 음.{음.}

10103 #1 알마따(Алмаата) 집이 잇지. 모스크바(Москва) 집이 잇지. 개두 그 칸떼니르(кон
 тей нер)라 하재이오? 칸떼니르(контейнер)란게 기에 야~? 어: 물품우.{알마티에 집이
 잇지. 모스크바에 집이 잇지. 그래도 그 컨테이너라 하잖소? 컨테이너라는 게 그게 응?
 어 물품을.}

10103 @ 음.{음.}

10103 #1 이런 데다가 농구서르 파는, 물품 파는 게 그거 칸떼니르(контейнер)라 하오, 여
 기서느.{이런 데다가 놓고서 파는, 물품 파는 거 그걸 컨테이너라 하오, 여기서느.}

10103 @ 으음.{으음.}

10103 #1 영계 말르.{여기 말로.}

10103 @ 어 ‘상점’ 그래? 상점?{어 ‘상점’이라고 그래? ‘상점’?}

10103 #1 그계 상점이라 하오? 어.{그걸 상점이라 하오? 어.}

10103 @ 바자르처럼?{시장처럼?}

10103 #1 야. 그거느 재비 상점이지.{응 그거는 자기 상점이지.}

10103 @ 음.{음.}

10103 #1 기래 재비 상점우. 이거마:이 크오. 이래 이거마:이 이렇게 큰데 우리 집이마~:이
 이렇게 지지.{그래 자기 상점을. 이거만큼 크오. 이래 이거만큼 이렇게 큰데 우리 집만큼
 이렇게 기오.}

10103 @ 음.{음.}

10103 #1 이렇기 지오. 거기다가서리 어: 한국 우티덜이.{이렇게 짓소. 거기에다가 어 한국 옷들.}

10103 @ 음.{음.}

10103 #1 거 뽀씨(в общий) 한국 우티르 개애다 영소. 고 조선사람덜으느. 여기 조선사람 덜으느.{거 총괄적으로 한국 옷을 가져다 넣소. 고 조선 사람들은. 여기 조선 사람들은.}

10103 @ 음.{음.}

10103 #1 한국 우티르 가제오오. 이 *끼, *조 끼 끼따이(Китай) 거[꺼] 가제오구.{한국 옷을 가져오오. 이 중(국), 조(선), 중 중국 거 가져오고.}

10103 @ 음.{음.}

10103 #1 그그룽기 가제오오. 기래 가지다가서느 팔아 잘사오. 이 저기 이제 큰 바자르(база р) 거 좀 가보오. 경계 가보무 저어기 놀레보이부터 어, 빠르브이(первый), 브따로이(второй), 뜨레찌이(третий)꺼지 전체르 고렛사람이오.{그렇게 가져오오. 그래 가져다가 서는 팔아서 잘 사오. 이 저기 이제 큰 시장 거길 좀 가서 보오. 거기에 가 보면 저기 놀레보이부터 어, 첫째, 둘째, 셋째 (거리)까지 모두 고려사람이오.}

10103 @ 음.{음.}

10103 #1 갠데 그룽게 파오.{그런데 그렇게 파오.}

10103 @ 음.{음.}

10103 #1 잘사오. 그 사람덜은 더 이거, 영계마 상점이 잇는게 아이라 각 고로드(город)에 상점이 잇소.{잘사오. 그 사람들은 더 (잇소) 이것(만이 아니라), 여기만 상점이 잇는 게 아니라 각 도시에 상점이 잇소.}

10103 @ 음.{음.}

10103 #1 그룽게 잘사오. 부재오.{그렇게 잘사오. 부자이오.}

10103 @ 저기 그 서 한국에 왔다갔다하면서 돈 많이 번 사람들 많이 잇드라고.{저기 그 서 한국에 왔다 갔다 하면서 돈 많이 번 사람들 많이 잇더라고.}

10103 #1 냐~.{응.}

10103 @ 물건 가서 가져오고.{물건 가서 가져오고.}

10103 #1 물건 가제오는 게, 사람덜이.{물건 가져오는 사람, 사람들이.}

10103 @ 저 이스쿨(Иссык-Куль) 이스쿨(Иссык-Куль){저 이스쿨 이스쿨.}

10103 #1 냐~.{응.}

10103 @ 거기에 갔더니, 이스쿨(Иссык-Куль)에 그 그 집 저놓고 하는 데.{거기에 갔더니, 이스쿨에 그 그 집을 지어 놓고 하는데.}

10103 #1 응.{응.}

10103 @ 거기도 우리 고렛사람이드라고.{거기도 우리 고려 사람이더라고.}

10103 #1 고렛사람두 잇소.{고려 사람도 잇소.}

10103 @ 예. 근데 거기 그 그 동생이 한국에 와서 돈 많이 벌어왔다고 그러드라고.{예. 그런 데 거기 그 그 동생이 한국에 와서 돈을 많이 벌어 왔다고 그러더라고.}

10103 #1 음:.{음.}

10103 @ 지금도 왔다갔다 하고.{지금도 왔다 갔다 하고.}

10201 #1 그러오. 기래 그전에 우리네느 이게 싹 구들애이오?{그러오. 그래 그전에 우리가 사는 이게 싹 방구들이 아니오?}

10201 @ 예.{예.}

10201 #1 시반 이 장파이.{시방은 이 장판이지.}

10201 @ 예.{예.}

10201 #1 기래구 이릉게 농구 먹자이까데 아이 좋단 말이오. 우리네 저 따시켄뜨(Ташкент) 이실 적에는 이기 싹 이거마 크게 우리 따시켄뜨(Ташкент)선 구들이 땃땃소.{그리고 이릉게 놓고 먹자 하니까 안 좋단 말이오. 우리네 저 타슈켄트 있을 적에는 이게 싹 이거 보다 큰데, 우리 타슈켄트에선 구들이었소.}

10201 @ 예.{예.}

10201 #1 이 구들이. 기래구서리 어 저기서 끓이기마 하무 여기 들어와서 먹지.{이 구들이. 그리고서 어 저기서 끓이기만 하면 여기 들어와서 먹지.}

10201 @ 그렇지. 예.{그렇지. 예.}

10201 #1 아, 기랜게 이 시바아는 저기 저 한제서 닭이쳐르 올라앉아 먹자~이까데 아, 아주 아이 좋소.{아, 그런데 이 시방은 저기 저 한테에서 닭처럼 올라 앉아 먹자 하니까 아, 아주 안 좋소.}

10201 @ 예. (웃음){예. (웃음).}

10201 @ 그러면 요기 요기도 불을 때면 그렇게 될 거 아냐? 불으 때두 여기는 아, 여기 구들 아니에요?{그러면 요기 요기도 불을 때면 그렇게 될 거 아냐? 불을 때도, 여기는 아, 여기는 구들이 아니에요?}

10201 #1 아이 아이오. 이게 싹 이게 달아나짐.{아니, 아니오. 이게 싹 이게 달아나지 뭐.}

10201 @ 아아.{아아.}

10201 #1 톨리꼬(толико) 이게 이게 달아나짐.{오직 이게 이게 달아나지 뭐.}

10201 @ 이리 들어온다고.{이리로 들어온다고.}

10201 #1 냐~아.{응.}

@ 따뜻허네 지금은 이게?{따뜻하네 지금은 이게?}

#1 야~아. 불 때지.{응. 불을 때지.}

@ 불 때는가 보네.{불을 때는가 보네.}

#1 저기서 가슬(газ-р) 때오. 가스(газ)르.{저기서 가스를 때오. 가스를.}

@ 어:.{어.}

#1 *가 *나 거저 아침에 저녁에 낭그 때오. 기래구 저 그담에는 낮에는 밤에 낮인 가스르 기양: 그저 야약간 케놓소. 기래무 이게 췌폼 오난하오?{가(스), 낮, 그저 아침에 저녁에 나무를 때오. 그리고 저 그다음에는 낮에는 밤에 낮에는 가서 그냥 그저 약간 췌 놓소. 그러면 이게 조끔 온난하오?}

@ 예.{예.}

#1 아하! 온난하짐.{아하! 온난하지 뭐.}

@ 예.{예.}

#1 그렇소.{그렇소.}

10324 @ 그먼 낭그는 어디 어디서 해 가 해오고.{그러면 나무는 어디 어디서 해 가 해오고.}

10324 #1 낭그는, 그전에 여기다가선 낭그, 여기 개실낭기 많앗소, 우리네.{나무는, 그전에 여기에다가서 나무를, 여기 과일나무가 많앗소, 우리네.}

10324 @ 에에.{에에.}

10324 #1 갠거 다아 찍엇소. 기래구 네해르 불 아이 때재엇소? 여기르.{그런데 다 찍엇소(= 베어 냈소). 그리고 네 해를 불을 안 때잖앗소? 여기르.}

10324 @ 어.{어.}

10324 #1 네 해르 아이 불때다나이 그 낭기 그 야~으르(←양(樣)+으르) 잇엇지.{네 해를 불을 안 때다 보니 그 나무가 그채로 잇엇지.}

10324 @ 오.{오.}

10324 #1 게 그 낭그 시방 올 동삼[똥삼]으 그양 그거 땃지. 새해는 또 어찌갠는지. 그건 모르갠소. 죽갠는지 살갠는지 그건 뽀까(пока).{그래 그 나무를 시방 가뜩 삼일을 그냥 그거 땃지. 새해는 또 어찌 하갠는지. 그건 모르갠소. 죽갠는지 살갠는지 그거는. 당분간.}

10324 #1 그렇소.{그렇소.}

10324 @ 인자 딸이 딸이 오면은 또 갠참갠죠.{인제 딸이 딸이 오면은 또 갠참갠죠.}

10324 #1 기래 기래 글쎄 *달이 오기마 하무 또 어티게 석탄 때나 무스거 어찌나 어찌갠지. {그래 글쎄 딸이 오기만 하면 또 어떻게 석탄을 때나 무엇을 어찌나 어찌하갠지.}

10324 @ 석탄은 그렇게 안 비싸? 까스가 비싸 석탄이 비싸?{석탄은 그렇게 안 비싸? 가스가 비싸 석탄이 비싸?}

10324 #1 석탄이 우리네: 에따(это) 뽀시니엘(пенсия)덜으느 반 푼씨.{석탄이 우리네 음연금 수급자들은 반 푼씨.}

10324 @ 음.{음.}

10324 #1 오백킬로씨. 거저 주우.{500킬로씨. 거저 주오.}

10324 @ 음.{음.}

10324 #1 음 그렇기 녹소.{음 그렇게 싸오.}

10324 @ 그먼 한동삼에 한번 날라면 땃 킬로나 잇어야 데?{그러면 한겨울에 한번 날러면 몇 킬로나 잇어야 돼?}

10324 #1 어, 석탄이?{어, 석탄이?}

10324 @ 어.{어.}

10324 #1 넷푼(тон) 때오.{4톤을 때오.}

10324 @ 네톤.{네 푼.}

10324 #1 야 넷푼(тон) 때오.{응 4톤을 때오.}

10324 @ 한돈이, 한톤이 얼마예요?{1톤이, 1톤이 얼마예요?}

10324 #1 한푼에[한또네] 초이야 넘지.{1톤에 1,000은 넘지.}

10324 @ 천, 넘는다고?{1,000을 넘는다고?}

10324 #1 야. 처이야 넘소.{응. 1,000양이 넘소.}

10324 @ 야.{야.}

10324 #1 기래, 기래 거저 한 백달러리(доллар) 가지무 싸오. 백달러리(доллар)무 석탄 싸오. 백달러리(доллар)무.{그래 그래 그저 한 100달러를 가지면 사오. 100달러면 석탄을 사오. 100달러면.}

10324 @ 백달러면?{100달러면?}

10324 #1 야야. 석탄 싸. 싸오. 기래 가스다가 한데 섞어 때무 한햇동삼이 때오. 백달러(доллар)르 치무 석타이. 그렇소.{응. 석탄을 사. 사오. 그래 가스에다가 한데 섞어 때면 한

해 겨울을 때오. 100달러어치면, 석탄이. 그렇소.}

10324 #1 여계.{여기에.}

@ 백돌라면은.{100달러면은.}

#1 응.{응.}

@ 백돌라면은 그.{100달러면은 그.}

#1 네처이.{4,000숨.}

@ 네천요?{4,000요?}

#1 쏘(com).{숨.}

@ 네천 쏘(com)요?{4,000숨요?}

#1 야아. 그렇소.{응. 그렇소.}

#1 여기 달러(доллар) 기차게 값이 잇소.{여기 달러는 기가 막히게 값어치가 잇소.}

@ 음.{음.}

#1 값이 잇소.{값어치가 잇소.}

#1 조선에서느 어떻소?{조선에서느 어떻소?}

@ 우리는: 제가 그 한달에.{우리는 제가 그 한 달에.}

#1 돌달르(доллар-르) 엠매나 버오? 한달에?{달러를 얼마나 버오? 한 달에?}

@ 한 오천달라?{한 5,000달러?}

#1 달러(доллар)르?{달러를?}

@ 예.{예.}

#1 오천. 어어!{5,000. 어!}

@ 오천, 오천, 오천 달러.{5,000, 5,000, 5,000달러.}

#1 기애구 부인넨 어찌오?{그리고 부인네는 어찌하오?}

@ 부인도 교수에요. 똑같이 벌어요.{부인도 교수에요. 똑같이 벌어요.}

#1 개 아덜이 둘이구.{그래 아이들이 둘이고.}

@ 아들 둘이고.{아이들 둘이고.}

#1 아~아! 개 개 거그서 살기느 어떻소? 일없소?{아! 그래 그래 거기서 살기느 어떻소? 괜
찮소?}

#1 거그 야아!{거 그 야!}

@ 괜찮죠. 교수들은 괜찮아요.{괜찮죠. 교수들은 괜찮아요.}

#1 일없어?{괜찮아?}

@ 예.{예.}

#1 아아: {아.}

@ 근데 인제 또 나머지 물가가 비싸니까. 뭐 차들 가지고 뭐 갖고 다들 아파트 크고 그러니
까 또 돈을 많이 벌면 많이 쓰는 거지 뭐.{근데 인제 또 나머지 물가가 비싸니까. 뭐 차들
가지고 뭐 갖고 또 다들 아파트 크고 그러니까 또 돈을 많이 벌면 많이 쓰는 거지 뭐.}

#1 그래.{그래.}

@ 예.{예.}

#1 그렇소.{그렇소.}

@ 돈을 돈을 적게 벌면 적게 쓰는 거고.{돈을 돈을 적게 벌면 적게 쓰는 거고.}

#1 그래.{그래.}

@ 예.{예.}

#1 기래 저 우리 저 이 조카아덜이.{그래 저 우리 저 이 조카 아이들이.}

@ 음.{음.}

#1 아즈바이가 아재 그거 돈으 두천가지구 어뜨게 사오. 야덜으느 한달에 할랄에 처이야 번단
말이오. 천냐~아.{작은아버지와 작은어머니가 그거 돈을 2000(숨을) 가지고 어떻게 사오. 이
아이들은 한 달에 하루에 1,000냥(=숨)이야 번단 말이오. 1000냥(=숨)을.}

@ 누가?{누가?}

#1 우리 조캐 아덜이.{우리 조카 아이들이.}

@ 오:.{오.}

#1 기래두 도이 모자란다지.{그래도 돈이 모자란다 하지.}

@ 어떤 조캐애들이.{어떤 조카 애들이.}

#1 어따(это) 내 혀~어 아덜이우.{음 내 형의 아이들이오.}

@ 어:.{어.}

#1 내 헤~이 아덜이.{내 형 아이들이.}

@ 예.{예.}

#1 기래게 가덜으느 돈 잘 버오. 기엔게.{그런데 그 아이들은 돈 잘 버오. 그런데.}

@ 돈 많이 벌면 또 많이 쓰지요.{돈 많이 벌면 또 많이 쓰지요.}

#1 야~. 그래 많이 쓰지무.{응. 그래 많이 쓰지 뭐.}

@ 음.{음.}

#1 야아! 나는 그렇게 벌었으무 야 돈으 모두갯다구 이래짐, 내.{야! 나는 그렇게 벌었으면 응
돈을 모으겠다고 이러지 뭐, 내가.}

@ 근데 원래 어른들은, 어른들은.{근데 원래 어른들은, 어른들은.}

#1 아덜으느 바뿌단 말이지.{아이들은 힘들다는 말이지.}

@ 아덜, 아덜덜[떨]은 많이 벌어도 다 바빠.{아이들, 아이들은 많이 벌어도 다 힘들어.}

#1 아::. 기래 우리네는 늙은이 데서 냐~?{아. 그래 우리네는 늙은이 돼서 응?}

@ 벨로 쓸게 없잖아.{별로 쓸 게 없잖아.}

#1 아 단시에 싸오, 식료르.{아 단시(短時)에 사오, 식료를.}

@ 예.{예.}

#1 쌀으 거저 작년에, 올해.{쌀을 그저 작년에, (아니) 올해.}

@ 네.{네.}

#1 봄에 두 커대 싹소.{봄에 두 마대(麻袋)를 샀소.}

@ 음.{음.}

#1 개 이제 한커대 있어. 한커댄 먹구. 갈그두 두커대 싸오. 싸하르(caxap)두 야. 단거 싸하르
(caxap). 고렷, *조.{그래 이제 한 마대가 있어. 한 마대는 먹고. (밀)가루도 두 마대 사고.
설탕도 응. 단 거 설탕. 고려 말, 조(선 말로).}

@ 음음.{음음.}

#1 거 미시기라 하오 싸하르(caxap)?{그거 무엇이러 하오 '싸하르(caxap)'?}

@ 설탕.{설탕.}

#1 사타~이.{사탕.}

@ 예. 설탕.{예. 설탕.}

#1 아아! 그거 한커대씨 싸오, 단번에.{아아! 그거 한 마대씩 사고 단번에.}
 @ 음.{음.}
 #1 기래 싸기마 하무 거저 일년으.{그래 사기만 하면 그거 일년을.}
 @ 일년 먹어요?{일년 먹어요?}
 #1 아하! 게 어 쌀으느 일년에 한커담 벤벤하오 둘이서.{아하! 그게 어 쌀은 일 년에 한 마대
 면 넉넉하오, 둘이서.}
 @ 예.{예.}
 #1 줌 같그 조끔 더 먹소.{줌 (밀)가루 조끔 더 먹소.}
 @ 음.{음.}
 #1 빵, 빵. 하나.{빵, 빵. 하나.}
 @ 음음.{음음.}
 #1 그렇게 해서 더 먹소, 그거느.{그렇게 해서 더 먹소, 그거는.}
 @ 그러니까 먹는 것은 사실 얼마 안 들어가지.{그러니까 먹는 것은 사실 얼마 안 들어가지.}
 #1 아이 들어가오.{안 들어가오.}
 @ 전깃세 무슨.{전기세 무슨.}
 #1 아하!{아하!}
 @ 물세 뭐.{물세 뭐.}
 #1 그래.{그래.}
 @ 이런 것들때매, 까쓰세.{이런 것들 때문에, 가스 세(稅).}
 #1 켈리폰(телефон) 야. 켈리폰(телефон). 개두 우리네 그 절반으 무. *무, 절반으 무우.{전
 화 응. 전화. 그래도 우리네 그 절반을 무오. 무(오), 절반을 무오.}
 @ 어.{어.}
 #1 우리네 어째 그런가하이 원도~서 들어온게 냐~, 그런,{우리네 어째 그런가 하니 원동에서
 들어온 거 응, 그런,}
 @ 어어어.{어어어.}
 #1 돈우 그거 ***쑤우두르 해서 냐~?{돈(=강제 이주 보상금)을 그거 쓰도록 해서 응?}
 @ 예.{예.}
 #1 그거 절반으 돈으 무우. 기렌것두.{그거 절반을 돈을 무오. 그런데도.}
 @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1 아아.{응.}
 @ 끼르기스 끼르기즈들도.{키르기스, 키르기스 사람들도.}
 #1 아아.{응.}
 @ *도. 아주 바뿌겠네.{돈. 아주 힘들겠네.}
 #1 바뿌게 사는거느 모지 바뿌오. 모:지 바뿌오. 개 아덜으 글으 아이 이룬 게 많지. 글 아이
 이르오.{힘들게 사는 거는 몹시 힘드오. 몹시 힘드오. 그래 아이들이 공부를 안 한 것이 많
 지. 공부를 안 하오.}
 @ 으음.{으음.}
 #1 기래구서 이따가 저 바자르(базар) 가보오. 비, 아덜이 요른게 비는게 엠만가 하구.{그리고
 서 이따가 저 시장 가 보오. 비, 아이들이 요런 게 비는 게 얼마인가 하고.}
 @ 으음.{으음.}

#1 기래: 그: 에따(это) 쎄베르느 꺼레야(Северная Корея) 그 이사덜 오재엇소?{그래 거 음 북한의 그 의사들이 오지 않았소?}

@ 네.{네.}

#1 기래 와서 이래오. 이릉게 내 우리네 오래 잇으며 돌아바두 조선사람이 비는게 어찌 없다 구. 조선사람이 아이 비오.{그래 와서 이러오. 이릉게 내 우리네 오래 잇으며 돌아봐도 조선 사람이 비는 게 어찌 없다고. 조선 사람이 안 비오.}

@ 에에 안 비지.{에에 안 빌지.}

#1 야. 아무리 구차해두 비둔 에이오.{응. 아무리 구차해도 빌지(=구걸)는 았소.}

@ 음음.{음음.}

#1 았소.{았소.}

@ 부지런하니까 그렁지.{부지런하니까 그렁지.}

#1 아아. 았소. 비는게 았소. 기애 그거 조선 저 쎄베르느 꺼레야(Северная Корея) 사름덜이 와서 이래오. 그렁게 어저느 돌아댁기메 봐두 조선사람이 비는건 하나투 못밧다구.{응. 았소. 비는 사람이 았소. 그래 그 조선, 저 북한 사람들이 와서 이러오. 그렁게 이제 돌아다니 며 봐도 조선 사람이 비는 건 하나도 못 밧다고.}

@ 에.{에.}

#1 기래. 그러나 타국 사름덜으느 모:지 비오.{그래. 그러나 타국(=타민족) 사람들은 몃시 비오.}

@ 음.{음.}

#1 여기 와서. 비는 게 많소. 구차한 게 많구.{여기 와서. 비는 사람이 많소. 구차한 사람이 많고.}

@ 으음.{으음.}

#1 더해 그 사름덜은 수울으 먹다나이 구차하지.{(거기다가) 더해 그 사람들은 술을 먹나 보 니 구차하지.}

@ 으음.{으음.}

#1 아이 조선사름덜 수울으 그렁게 먹소?{아니 조선 사람들이 술을 그렁게 먹소?}

@ 우린 글게 많이 안먹쥬.{우리는 그렁게 많이 안 먹쥬.}

#1 그래 아이 먹지. 그러나 이것, 이것덜으느: 수울으 데게 먹소. 기래다나이 구차하지. 엠매 벌엇던 그 수울으 다 먹지.{그래 안 먹지. 그러나 이 이 키르기스 사람들은 술을 되게 먹소. 그러다 보니 구차하지. 얼마 벌엇든 그 술을 다 먹지(=술 먹는 데 다 쓰지).}

@ 음:{음.}

#1 기래다나이 구차하짐. 그러나 수울이 여기 엠매 비싸구.{그러다 보니 구차하지 뭐. 그러나 술이 여기 얼마 비싸고.}

@ 술 비싸요?{술 비싸요?}

#1 비:싸재일구! 비싸오, 술이.{비싸지 았고! 비싸오, 술이.}

@ 음. 글면 술 술 술을 파는 사람들은 잘살겠네.{음. 그러면 술 술 술을 파는 사람들은 잘살 겠네.}

#1 (웃음) 잘사재애구 기래.{(웃음) 잘 살쟝고 그래.}

@ 아아.{아아.}

#1 어찌던지 상점에서 일하무 잘사오. 일없게 사오.{어쨌든 상점에서 일하면 잘사오. 괜찮게 사오.}

@ 술집은 많이 있어요 여기는?{술집은 많이 있어요 여기는?}

#1 많소. 개장집두 많소. 개자~아 하는 집이.{ 많소. 개장 식당도 많소. 개장을 하는 식당이.}

@ 어어.{어어.}

#1 개자~아 하무 개자~아 요구르 하무 개자~아 주구. 어: 다른거 요구르 하무 다른거 여러가지 르 주우. 국시두 주구 벨거 다 있어. 그거 그 그 개장집에느. 여러가지르 임석하오.{개장을 하면 개장을 요구하면 개장을 주고. 어 다른 거 요구를 하면 다른 거 여러 가지를 주오. 국 수도 주고 벨거 다 있어. 그거 그 그 개장 식당에서는. 여러 가지 음식을 하오.}

@ 개장집은 대개 우리 우리 동포들이 하는 거예요? 고렷사람들이예요?{개장 식당은 대개 우리 우리 동포들이 하는 거예요?}

#1 야아. 아이 이 일으.{응. 아니 이 일을.}

#1 더 많소. 이 이 키르기즈.{더 많소. 이 키르기즈 (사람들이).}

@ 키르기즈도 개장 먹어요?{키르기즈 사람도 개장을 먹어요?}

#1 기애! 노시앗사름덜두 먹소.{그래! 러시아 사람들도 먹소.}

@ 원래 안 먹었지.{원래 안 먹었지.}

#1 아이 먹었지. 켜게 시바야느 다 먹소.{안 먹었지. 그런데 시방은 다 먹소.}

@ 오오.{오오.}

#1 거 이 키르기즈덜이 그전에 돼지고기르 아이 먹었소.{그 이 키르기즈 사람들이 그전에 돼지고기를 안 먹었소.}

@ 아아.{아아.}

#1 시방 돼지고기르 그렇기 먹소.{시방 돼지고기를 그렇게 먹소.}

@ 에.{에.}

#1 잘먹소. 돼지고기르.{잘 먹소. 돼지고기를.}

@ 음.{음.}

@ 그러면 인자 그냥 뭐 다 다 우리나라 *가, *같 차이가 없네 이제.{그러면 인제 그냥 뭐 다 다 우리나라 같이, 차이가 없네, 이제.}

#1 *어, 없어.{없, 없어.}

#1 개장두 먹지. 다아 먹소. 이: 조선사름덜 자~아 먹재오? 이 장보구 간자아 더 먹소. 이 타 국사름덜이.{개장도 먹지. 다 먹소. 이 조선 사람들 장을 먹지 않소? 이 장보다 간장을 더 먹소. 이 타국 사람들이.}

@ 장 많이 먹어요? 가들도[또]?{장을 많이 먹어요? 그 사람들도?}

#1 자~아, 자~아는 줌 덜 먹소.{장, 장은 줌 덜 먹소.}

@ 에.{에.}

#1 간자~아느 더 먹소 이것덜이. 어째 먹는가하이 야. 빼리메니(пельмени)르 어따(это) 거 물벤세르 하재오? 물벤세르.{간장은 더 먹소 이 사람들이. 어째 먹는가 하니 응. 만두를 음 그 물벤세(=만두의 일종)를 하지 않소? 물벤세를.}

@ 물벤세.{물 벤세.}

#1 응 물벤세에다가서리 간자~아 먹지. 그담에 그 고기르.{응 물벤세에다가 간장을 먹지. 그다 음에 그 고기를.}

@ 에.{에.}

#1 간자~아 찍어 먹소, 이것덜이.{간장을 찍어 먹소, 이 사람들이.}

@ 예.{예.}

#1 깨다나йка데 간자~아는 이것덜이 다아 먹소, 여기.{그러다 보니 간장은 이 사람들이 다 먹소, 여기서.}

@ 원래는 간장 안 먹었어요?{원래는 간장 안 먹었어요?}

#1 아이 먹었지. 조선사람덜 없으니 여기서 아이 먹었지. 그 어디메서 먹겠소. 개 지금 이 이 기르기즈나 어 노시앗사람이나 다 먹소. 그 간자~아.(안 먹었지. 조선 사람들이 없으니 여기서 안 먹었지. 그 어디서 먹겠소. 그래 지금은 이 키르기스 사람이나 러시아 사람이나 다 먹소. 그 간장을.)

@ 여기 이 애들 학교 가르치는 돈, *드는, 글, 글 이르는 데는 돈이 얼마나 들어요?{여기 이 애들 학교 가르치는 데 돈(이 얼마나 들어요), 공부를 하는 데는 돈이 얼마나 들어요?}

#1 모르지. 마이 들겠지.{모르지. 많이 들겠지.}

우리는 핵고르 댕기는 아덜이 없다나이 모르오.{우리는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이 없다 보니 모르오.}

#1 그거 모르우. 마이 들기오[들끼오] 쏘로느(всё рано). 여기 조선 글 배와줄, 기르기즈덜두 [뚜] 조선말 하는게 잇소.{그거 모르오. 많이 들 것이오, 어쨌든. 여기 조선 글을 가르쳐 줄, 키르기스 사람들도 조선말을 하는 사람이 잇소.}

@ 예.{예.}

#1 아아. 잇소. 조선글으 배와주는 데 여기 잇재오?{응. 잇소. 조선 글을 가르쳐주는 데가 여기 있잖소?}

@ 예.{예.}

#1 핵고 그. 대학이 잇소, 여기. 기래다나이, 야.{학교 그. 대학이 잇소 여기. 그러다 보니 응.}

@ 음. 그러면은 그러면은 학교를 핵고르 다니면 국가에서 돈 안 대줘?{음. 그러면은 그러면은 학교를 학교를 다니면 국가에서 돈 안 대 줘?}

#1 그거는 모르겠소.{그거는 모르겠소.}

@ 원래 사회주의뎐 다 다 무료였쨌? 다 안냈쨌?{원래 사회주의 때는 다 다 무료였쨌? 다 안냈쨌?}

#1 그전에사 아이 기랬지.{그전에야 안 그랬지.}

@ 쏘비에트뎐 안 냈쨌?{소비에트 때는 안 냈쨌?}

#1 아이 내, 아이 물구서 글으 일것지 아덜이.{아니 내가. 안 물고서 공부를 했지, 아이들이.}

@ 음.{음.}

#1 우리 아덜이 글으 이를 직이사 아 돈으 아이 물었지. 나오보로드브(наоборот) 거기서 돈으 줬소.{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할 적에야 아 돈을 안 물었지. 반대로 거기서 돈을 줬소.}

@ 그래요?{그래요?}

#1 스펠지(стипендия)르. 야아. 스펠지(стипендия) 줬소, 그전에.{장학금을. 응. 장학금을 주었소, 그전에.}

@ 아.{아.}

#1 자덜 싹 스펠지(стипендия) 타구 싹 글으 일것지.{저 아이들 싹 장학금을 타고 싹 공부를 했지.}

@ 음.{음.}

#1 어 그런데 시바~으느 데비 돈 물어야지.{어 그런데 시방은 오히려 돈을 물어야지.}

@ 그러면은 그러면은 돈 돈 웬만큼 벌어가지고는.{그러면, 그러면 돈 돈을 웬만큼 벌어 가지고는.}

#1 아아.{응.}

@ 애들을 못 가르치겠네.{애들을 못 가르치겠네.}

#1 바빠어.{힘들어.}

이 소비에트 국가때는 핵고르 땡길 연려~이[열려~이] 텐 아덜으 핵고르 보내재이무 어시네
 **책벌으 받았소.{이 소비에트 국가 때는 학교를 다닐 연령이 된 아이들을 학교를 보내지 않으면 부모가 책벌(責罰)을 받았소.}

@ 어어.{어어.}

기런데 시바~아느 핵고르 땡길 연려~이[열려~이] 텐 아덜이 어시네 구차해노이, 핵고르 땡길 행페이 못데서 이 책살돈두 없지.{그런데 시방은 학교를 다닐 연령이 된 아이들이 부모가 구차하다 보니, 학교를 다닐 형편이 못 돼서 이 책 살 돈도 없지.}

@ 네.{네.}

무슨 신발 옷으 쌀 돈두 없지 해노이 이 시방 시자~에 나가서 비락질하나 그 무슨 물품 파는일이라는 게 요런 핵고르 갈 연려~이[열려~이] 텐 아덜이 전체르.{무슨 신발, 옷을 살 돈도 없지 하다 보니 이 시방 시장에 나가서 비락질을 하거나 그 무슨 물품 파는 일이라는 게, 요런 학교를 갈 연령이 된 아이들이 모두.}

#1 물으 파오.{물을 파오.}

거기 나옴데.{거기 나오데.}

#1 야아. 바자르(базар)서 물으 파오.{응. 시장에서 물을 파오.}

@ 물?{물?}

#1 물으. 물으. 요만:한 깔라(коляска) 그런거 술기르 가주구 땡기메서리 야 거기다가서 썩재에 열어서 물으 파, 물으 파는 일으 하오, 가덜이. 개무 돈 받짐.{물을. 물을. 요만한 유모차(乳母車), 그런 거 수레를 가지고 다니면서 응 거기에다가 병에 (물을) 넣어서 물을 파, 물을 파는 일을 하오, 그 아이들이. 그러면 돈을 받지 뭐.}

@ 하루에 얼마나 벌어?{하루에 얼마나 벌어?}

#1 모르지 그거 엠매나 버는지. 기래 거저 물으 파지.{모르지 그거 얼마나 버는지. 그래 그저 물을 팔지.}

@ 음.{음.}

#1 그룽게[그르께] 바뿌오. 시방 잘사는 건 쟈게 잘사구 구차한거느 모지 구차하구 그룽소. {그렇게 힘드오. 시방은 잘사는 건 아주 잘살고 구차한 거는 몹시 구차하고 그룽소.}

@ 그먼 키르기즈가 까작, 까작보다 더 잘살아요? 못살아요? 까자흐스탄보다.{그러면 키르기스스탄이 카자흐, 카자흐스탄보다 더 잘살아요? 못살아요? 카자흐스탄보다.}

까자그스판(Казахстан){카자흐스탄.}

#1 까자그스판(Казахстан)이 낮게 사오.{카자흐스탄이 낮게 사오.}

아, 까자그스판(Казахстан) 낮게 사오.{아, 카자흐스탄이 낮게 사오.}

@ 음.{음.}

#1 기르기즈 못하오.{키르기스스탄이 못하오.}

@ 알마타는 까자흐스탄(Казахстан)서 잘사는 데죠?{알마티는 카자흐스탄에서 잘사는 데죠?}

#1 그래 아. 잘사지.{그래 응. 잘 살지.}

@ 까자흐스탄(Казахстан) 중에서도 알마타는?{카자흐스탄 중에서도 알마타는?}

#1 아아.{응.}

@ 또 더 더 좋은 데죠? 살기가.{또 더 더 좋은 데죠? 살기가.}

시방 에 그전에.{시방 에 그전에.}

#1 (한숨).{(한숨).}

까자흐스탄(Казахстан) 수도 알마타(Алмаата)던게 그 읍게서[윙게서] 아스타나(Астана) 르, 아스타나(Астана)란 데르 갓, 이 이주르하재엿소?{카자흐스탄 수도가 알마타이던 것이 그 읍게서 아스타나로, 아스타나란 데로 갓 이 이주를 하지 않았소?}

@ 예.{예.}

거기 시방 정부 앓구 잇지.{거기에 시방 정부가 자리하고 있지.}

@ 그러면 여기는 지금: 여기는 그러면은 농민들이나: 공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 돈 벌 일이 별로 없어? 일할 데가 거이 없어?{그러면 여기는 지금 여기는 그러면 농민들이나 공원(工員)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 돈 벌 일이 별로 없어? 일할 데가 거의 없어?}

#1 쫓, 일할 데 없소. 일을 못해서 노는 게 많지. 저: 이래 가메서르 보오. 저어 저기 그 어디 그 질이 나?{쫓, 일할 데가 없소. 일을 못해서 노는 사람이 많지. 당신이 이래 가면서 보오. 당신이 저기 그 어디 그 길에 응?}

@ 네.{네.}

#1 청년이덜이 가뜩 앓았소. 기래 마시나(машина) 와 서재일갓소? 일으 시기자구. 마시나(машина) 와선. 거저 거기 거저 막 그 매달기오. 거기 좀 이리 제두 가서 거그가 하자구. 야 아! 그런거 보무 기차오.{청년들이 가뜩 앓았소. 그래 자동차 와서 서지 않겠소? 일을 시키자고. 자동차가 와서는. 그저 거기에 그저 막 매달리오. 거기에 좀 일을, 저도 거기 가서 하자고. 야! 그런 거 보면 기가 막히오.}

#1 거저 이 에엔 이 다른 데는 난 모르겠소. 이 말라다야 크바르지야(ул. Молодая Гвардия).{그저 이 가장, 이 다른 데는 난 모르겠소. 이 말라다야 크바르지야 거리의.}

@ 음.{음.}

#1 앞두에 햐아! 청년이덜이 기차오. 나서 땡기는게.{앞뒤에 햐아! 청년들이 기가 막히오. 나와서 다니는 게.}

@ 그러니까 다들 뭐. 담배는 다 피우고 술도 다 먹는거 같애요.{그러니까 다들 뭐. 담배는 다 피우고 술도 다 먹는 거 같애요.}

#1 다 담배르 피우재일구.{다 담배를 피우지 않고.}

@ 담뱃값도 비쌀거 아니예요.{담뱃값도 비쌀 거 아니예요?}

#1 어우! 비싸겠지. 우리네 아바이 담배르 애이 피우다나이 모르오.{어우! 비싸겠지. 우리네 할아버지가 담배를 안 피우다 보니 모르오.}

그 길가에 앓아서 일자릴 얻어보느라 앓구 잇는 사람덜으느 다쭈루 주정자덜.{그 길가에 앓아서 일자리를 찾아보느라 앓아 잇는 사람들은 대부분 주정뱅이들.}

@ 아아.{아아.}

어째 기래는가 하무 어느 기관에 들어가 일하무 한달으 일해애야 그 월급 받습지. 저거는 이래 앓아서 이 개엔 사름덜 와서 집우 **수레르 한다던지, 무스 어쩐다던지 이 ** 꽤온다던지. 기래 그날 가 일하무 그날 즉실르 돈 일한거마이 받아서.{어째 그러는가 하면 어느 기

관에 들어가 일하면 한 달을 일해야 그 월급을 받지요. 저거는 이래 앉아서 이 개인 사람들이 와서 집을 수리를 한다든지, 뭐 어찌한다든지 이 ** 파게 한다든지. 그래 그날 가서 일하면 그날 즉시 돈을 일한 것만큼 받아서.)

@ 예.{예.}

술 인차 싸먹짐. 그러나 국가 기관에 들어가 일하자무 아, 한달 도~안 기다려야 그 돈으 제 예보겠지.{술을 이내 사먹지 뭐. 그러나 국가 기관에 들어가 일하자면 아, 한 달 동안을 기다려야 그 돈을 손에 쥐어 보겠지.}

@ 예.{예.}

기래노이 그 수울으 좋아하는 분네덜으느 일자리 잇어두 그런 기관일 아이 들어가요. 아이 들어가구 저 길가에 앉아서 어느 사름덜 와서 무슨 일이 잇다구서르 데려갈거 앉아 기다림 짐.{그러하나 보니 그 술을 좋아하는 분네들은 일자리가 잇어도 그런 기관의 일에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고 저 길가에 앉아서 어느 사람들이 와서 무슨 일이 잇다고 데려갈 것을 앉아 기다리지 뭐.}

@ 그면 여깃사람들은 그걸 데려다가 일 많이 시켜요?{그러면 여기 사람들은 그 사람을 데려다가 일 많이 시켜요?}

#1 어.{어.}

@ 일을?{일을?}

#1 일으?{일을?}

@ 예.{예.}

#1 여기 사름덜으?{여기 사람들을?}

@ 어.{어.}

#1 어째.{어째.}

@ 그사람들이 일 헐일이 잇냐고? 뭐 고치고 이런 일이 많이 잇냐고.{그 사람들이 일 할 일이 잇냐고? 뭐 고치고 하는 이런 일이 많이 잇냐고.}

#1 아하. 아이 시기지.{아하. 안 시키지.}

저기 이게 무스 이 정치에 위반데는 말 가틀해두 이 이 잇는 사실이오. 이전에 이 끼르기즈 (Кыргыз) 민족덜이 어쨌는가이 이 둥간(Дунгане) 민족이나 이 고렷사람 민족이나 다 따 패기 하는 일으 잘한다구. 용사질 잘한단 말입지.{저기 이게 무슨 이 정치에 위반이 되는 말 같아도 이 이 잇는 사실이오. 이전에 이 키르기스 민족들이 어찌했는가 하니 이 둥간(=중국 으로부터 이주한 민족) 민족이나 이 고려사람 민족이나 다 땅파기 하는 일을 잘한다고. 농 사일 잘한다는 말이지요.}

@ 예.{예.}

기래노이.{그러하다 보니.}

@ 따패기 일을?{땅파기 일을?}

예. 조선사람가 둥간(Дунгане) 위구르(уйгур) 민족덜으느 따아 패우구.{예. 조선 사람과 중국, 위구르 민족들은 땅을 파게 하고.}

@ 음.{음.}

이 노시앗사람덜으느 예 에따(это) 공자~에 들어가서 노력 잘한다. 기래 *마우, 노시앗사람 두 공자~에 다닐수 잇구. 우리 끼르기즈(Кыргыз)느 앉아서 블레멕기르 하자.{이 러시아 사람들은 예 음 공장에 들어가서 노력을 잘 한다. 그래 러시아, 러시아 사람도 공장에 다닐 수

있고. 우리 키르기스 사람은 앉아서 앉아 먹기를 하자.}

@ 블레벡기가 된 말이야.{'블레메끼'가 무슨 말이야.}

예. 이 *찌 앉아서 거저 양반처리, 너는 이래라.{'예. 이 앉아서 그저 양반처럼, 너는 이래라.}

@ 아아!{'아아!}

앉아서, 앉아서 너네 일하구 우리 메, 맥에줘야 텐다구.{'앉아서, 앉아서 너희는 일하고 우리를 먹, 먹여 줘야 된다고.}

@ 예.{'예.}

이렇게 궁니르 했던 겐데 시방 배끼왔젓습굼.{'이렇게 궁리를 하던 것인데 시방 바뀌었습니다.}

@ 오.{'오.}

조선사람이나 둥간(Дунгане)덜이 너는 이거 어째라 저래라. 키르기즈(Кыргыз)덜이 시방 복조~하오. 그렇게 떡 땃소.{'조선사람이나 둥간족들이 너는 이거 어째라 저래라. 키르기스 사람들이 시방 복중하오. 그렇게 떡 땃소.}

#1 거저 키르기즈는 싹 저 바자르(базар)서 어: 그런거 술기르 꼬스구 거기다 까사(коза)르 팔라나가는 거 싹 싹구[싹꾸] 그거 그래서 돈으 받소. 받구 사짐.{'그 이제 키르기스 사람은 싹 저 시장에서 어 그런 거 수레를 끌고, 거기다 염소를 팔러 나가는 거 싹 싹고 그거 그래서 돈을 받소. 받고 살지 뭐.}

@ 어.{'어.}

#1 기래 키르기즈덜이 야야! 고사~하메 살아, 사오. 그거 그저.{'그래 키르기스 사람들이 야! 고생하며 살아, 사오. 그거 그저.}

@ 쯤 키르기즈가 게을른가, 일을 앓는가? 게을러? 일을 잘 잘 못해요?{'쯤 키르기스 사람이 게으른가? 일을 앓는가? 게을러? 일을 잘 잘 못해요?}

#1 잘못하기래 그룽기 그려지. 아우! 이 밭엿일은 잘 못하우. 잘 못하우, 일하는 건 잊지만 해두(일지마내두). 기래두 잘, 잘 그룽기 못하오.{'잘 못하기에 그렇게 그려지. 아우! 이 밭일은 잘 못하오. 잘 못하오, 일하는 사람은 있지만. 그래도 잘, 잘 그렇게 못하오.}

@ 그럼 원래 원래 키르기즈들은 주로 무슨 일 하고 살았어요?{'그럼 원래, 원래 키르기스 사람은 주로 무슨 일하고 살았어요?}

목축업우 했습지.{'목축업을 했지요.}

#1 즘시이 재래왔지. 즘시이.{'짐승 키웠지. 짐승.}

@ 그럼 지금두 짐승 재래우무 텔 거 아냐?{'그 친 거 짐승을 키우면 될 거 아냐?}

이 키르기즈(Кыргыз)덜이 시방 이 쎄쎄(СССР, =Союз Советских Социалистических Республик) 마사진 후부터 저어 산골짜에 들어가 다쭈루 거기서 목축업 하던 사람덜이.{'이 키르기스 사람들이 시방 이 소련이 무너진 후부터 저 산골짜에 들어가 대부분 거기서 목축업을 하던 사람들.}

@ 예.{'예.}

야~이나 땃백마리씨 치구 기래던게 싹 어전 바라네레와 이 도시에 네레와서 시방 입살일 한 단 말이오 시방.{'양이나 몇 백 마리씩 치고 그러던 게 싹 이젠 기어 내려와 이 도시에 내려와서 시방 입에 풀칠하며 산단 말이오 시방.}

@ 어어.{'어어.}

#1 그렇게 아이데기라 기래지. 그렇게: 그전마 아. 그 짐시이르 벅일 머거리 아이 데기라 그렇게 짝 짐시이 없지. 작지. 기래구 짝 비싸지. 이 *짐, 고기덜이 엠매나 비싸오. 그거 다 그것덜이느 거 그것덜이 그 고기르 짐시이르 많이[마:이] 재래우다나이 고깃값이 녹엇지.{그렇게 안 되기에 그랬지. 그렇게 그전보다 응. 그 짐승을 먹일 먹이가 안 되기에 그렇게 짝 짐승이 없(지), 적지. 그리고 짝 비싸지. 이 짐(승), 고기들이 얼마나 비싸오. 그거 다 키르기스 사람들은, 거 키르기스 사람들이 그 고기를, 짐승을 많이 기르다 보니 고기 값이 싼지.}

@ 아아.{아아.}

#1 그러나 시바아느 그것덜이 짝 이 고로드(город)르 네레왔어. 산에 사람.{그러나 시방은 그것들이 짝 이 도시로 내려왔어. 산에 사람이.}

6. 윤베라의 이주와 정착 생활

<파일 정보>

kk_bs_21: 구술 발화04(일생 의례(이주사), 발농사)

조사자: 소강춘

전사자: 김한별, 곽충구

주 제보자: 윤베라(여, 1923년 2월 19일생)

주소: 중앙아시아 키르기스스탄 공화국 비슈케크 무쓰이 자리일라 돔 295

조사장소: 중앙아시아 키르기스스탄 공화국 비슈케크

조사일시: 2004. 12. 14.~12. 28.

10201 @ 자아 흑시::{자, 흑시}

10201 # 야~.{응.}

10201 @ 그:: 흑시, 그:: 원동에서::,{그 흑시, 그 원동에서,}

10201 # 음:{음}

10201 @ 원동에서 기 제일 이렇기 들었던 야:기 중에서::{원동에서 제일 이렇게 들었던 이야기 중에서}

10201 # 야~.{응.}

10201 @ 쫘 이렇게 기억에 남는 야:기 있으면 쫘 해 줘 바요~.{쫘 이렇게 기억에 남는 이야기 있으면 쫘 해 줘 봐.}

10201 # 기억에 남는 얘:기르?{기억에 남는 이야기들?}

10201 @ 예, 옛날 얘:기.{예, 옛날이야기.}

10201 # 무슨 옛날얘:기 *기림. 아, 그저 옛말 아, 들은 거 옛말 하.{무슨 옛날이야기를 그림니까. 아, 그저 옛말 아, 들은 거 옛말 하오.}

10201 @ 옛말에 켈:, 제일 기억에 남는 게 뭐여?{옛말에 제일, 제일 기억에 남는 게 뭐야?}

10201 # 야~?{응?}

10201 @ 제일 머, 머릿속에 남아 있는 게 뭐가 잇냐구.{제일 머릿속에 남아 있는 게 뭐가 잇냐고.}

10201 # 헤이그! 그런 옛말해 무실하겠어. 야~.{어이구! 그런 옛말을 해서 무엇을 하겠어. 응.}

10201 @ 원동에서::, 원동에서 좀 했, 그 했던 일 좀 얘기해 줘 봐.{원동에서, 원동에서 좀, 그 했던 일 좀 이야기해 줘 봐.}

10201 # 원도~에서 하던 일으?{원동에서 하던 일을?}

10201 @ 예.{예.}

10201 # 무스거 한 일이. 무: 무스거 한 일이 있어? 아아때. 무스거 한 일이 있어?{무엇을 한 일이. 무엇을 한 일이 있어? 아이 때. 무엇을 한 일이 있어?}

10201 @ 열다섯 살, 열다섯 살까지 먹었다메?{열다섯 살, 열다섯 살까지 먹었다면서?}

10201 # 열다섯살까 먹었는데 무슨 내 아께 제가 말하재엿데? 아, 아, 어, 앞서 말하재엿데?
 아: 때느:: 우리 아버지하구[fiayu] 소술기 타구 지심매라 땡기우. 그 낭기 비슬으 느재두 뜯구 야. 아::, 어 그래 또 술기 타구 집우루 오구 야. 아, 어 그래구 아, 그 담에 아, 기우 그 담에 어전 그거 다:: 없애구 자치 꼴호즈 대엿지. 자치 꼴호즈 대이 (기침) 집에는{열다섯 살까지 먹었는데 뭐 내가 아까 당신에게 말하지 않습디까? 아, 아, 어, 앞서 말하지 않습디까? 아이 때는 우리 아버지하고 소 수레 타고 김매러 다니오. 그 (옥수수 따위의) 곡식 줄기 끝의 벗처럼 생긴 꽃 이삭도 뜯고 응. 아, 어, 그래 또 수레 타고 집으로 오고 응.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는 그거 다 없애고 자치 꼴호스가 되었지. 자치 꼴호스가 되어 (기침) 집에는}

10201 @ 원동에서, 원동에서?{원동에서, 원동에서?}

10201 # 야~, 원도~에서. 집에는 소도 없고 말도 없고 아무것두 없지.{응, 원동에서. 집에는 소도 없고 말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

10201 @ 왜?{왜?}

10201 # 꼴호즈(колхоз)르 다 데레갓지.{꼴호스로 다 데려 갔지.}

10201 @ 꼴호스에, 꼴호스는 그, 그 멧, 멧 집이 모였어?{꼴호스에, 꼴호스는 그, 그 멧, 멧 집이 모여 있었어?}

10201 # 조합이지.{조합이지.}

10201 @ 조합에는 멧, 멧, 멧 개가 모여.....?{조합에는 멧, 멧, 멧 개가 모여.....?}

10201 # 짹 모두지.{짹 모이지.}

10201 @ 모두 다?{모두 다?}

10201 # 그::래! 개인으르 잇는 거 그것 다 몰아 한 조, 조합으, 조합에다. 게 조합이라는 게 지.{그래 개인에게 잇는 거 그것 다 몰아 한 조합(집단농장)에다 넣지. 그게 조합(집단농장)이라는 것이지.}

10201 @ 그 때가.{그 때가.}

10201 # 야~.{응.}

10201 @ 스팔린 때야? 스팔린 때?{스탈린 때야? 스텔린 때?}

10201 # 스팔린 때. 개 조합에다 짹 걷어 영지. 기래 조합에다 걷어 영이 (기침) 즘스으 조합이 짹 바치구. 짹 조합이 바치구. 조합에서느 페르마(ферма) 마가이(гай), 마 들이는 게 마가이(гай). 기래 짹 걷어 영구 조합에서 재래오는 사람 잇구. 아, 그담에는 우리 아버지구 어머 그 짹 조합 일하메 어 뜨루드(труд)라는 거 받지. 뚜루두(труд){스탈린 때.

그래 집단농장에다가 싹 거두어 놓지. 그래 집단농장에다가 거두어 놓으니 (기침) 짐승을 집단농장에 싹 바치고. 싹 집단농장에 바치고. 집단농장에서는 짐승만을 거두어 기르는 특별 농장, 말을 기르는 초지(草地)가 있지. 말을 들이는 게 ‘마가이(рага, 말을 기르는 초지)’지. 그래 싹 거기에 거두어 놓고, 조합에는 기르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는 우리 아버지며 엄마가 싹 그 조합 일을 하며 트루드라는 것을 받지, 트루드.}

10201 @ 뚜루드가 뭐여?{'트루드'가 뭐야?}

10201 # 어 뚜루드(труд)라는 게 기 무신가 **하, 거 뚜루드(труд)르 거주구 일년으[일려느] 계산해에서 아:: 가을에 가서 먹을게랑[mogilk'eraŋ] 싹 타짐. 야~ 먹을게랑 싹 다. 야~ 그래애짐. 그:: 그런 아, 그렇게 (기침) 개인농사르 하다가 그런 조합농, 조합이 들었지. 개 그 조합울로 싹게[실게] 왓짐, 올 적에.{트루드라는 것이 그게 무엇인가 하면, 그거 트루드를 가지고 일 년을 계산해서 아 가을에 가서 먹을 거랑 싹 타지 뭐. 먹을 거랑 싹 다. 응 그래지 뭐. 그 그런 아, 그렇게 (기침) 개인 농사를 하다가 그런 집단농장, 집단농장에 들었지. 그래 그 집단농장에서 일하다 중앙아시아로 실려 왔지 뭐, 올 적에.}

10201 @ 가맞어 봐. 그면은.{가만있어 봐. 그러면.}

10201 # (기침).{(기침).}

10201 @ 그때 개인 농사할 때 하고.{그때 개인 농사할 때 하고.}

10201 # 개인농사할 때. (기침).{개인 농사할 때. (기침).}

10201 @ 그다음에.{그다음에.}

10201 # (기침) 조합, 조합농사.{(기침) 조합, 조합 농사.}

10201 @ 조합 농사할 때 하고.{조합 농사할 때 하고.}

10201 # 야~. (기침).{응. (기침).}

10201 @ 어느 때가 살기가 좋았어?{어느 때가 살기가 좋았어?}

10201 # 개인농사라는 게 살기 좋지. 제 하고싶은대르 하짐 야.{개인 농사라는 게 살기 좋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뭐 응.}

10201 @ 먹을 것은 어때, 어떨 때 가 더 풍부해?{먹을 것은 어때, 어떨 때가 더 풍부해?}

10201 # 많지. 먹을것도 많지.{많지. 먹을 것도 많지.}

10201 @ 개인 농사 때가?{개인 농사 때가?}

10201 # 야~ 개인농사 때 많지, 야~.{응 개인 농사 때가 많지, 응.}

10201 @ 아니::, 조합으로 하면 많::이 모여 있는데 왜 쪼끔밖에 안 줘?{아니, 조합으로 하면 많이 모여 있는데 왜 쪼끔밖에 안 줘?}

10201 # 많::이[마이] 모여 하다나이 아, 아, 그것도 조합에서 준 그 버어럼 주는거 거주군 넉넉하짐[넹넉하짐]. 기라 많짐. 넉넉하짐[넹넉하짐]. 야.{많이 모여 하다 보니 아, 아, 그것도 조합에서 준 그 벌어들인 것을 분배해 주는 것 가지고는 넉넉하지 뭐. 그래 많지 뭐. 넉넉하지 뭐. 응.}

10201 @ 넉넉했어?{넉넉했어?}

10201 # 야 넉넉하짐[넹넉하짐]. 이때:: 가서 아, 토오청사이라는게 이때 가서 사름이 뗏십명 씨 조~오 걷어엿고 종살일 하지. 아, 제 일 하는거는 아 토오 암놀파이하고 싹 종덜으 부러먹었지. 이때:: 가서 조선에서 오재에엿소? 조선에서 큰 따로 오는 사름덜 와 잇을 대 [때] 없으무 아 그런 집에 가서 종질 하지. 괴래.{응 넉넉하지 뭐. 이때에 가서 아 토호

청산(土豪清算)이라는 게, 이때 가서 사람이 몇 십명씩 종을 거두어 넣고 종살이를 시키지. 아 자기 일하는 것은, 아 토호 아무 때나 놀고먹고 싹 종들을 부려먹었지. 이때에 가서 조선에서 오지 않았소? 조선에서 큰 땅(=원동)으로 오는 사람들이 와 있을 데가 없으면 아 그런 집에 가서 종질을 하지. 그래.}

10201 @ 큰 땅에 와 갖고?{큰 땅에 와 가지고?}

10201 # 나~ 큰 따에. 기래 야, (기침) 기래 (기침) 어 **노라드, 노래두 잇재이오? 시벨건 세월에 큰 불덩이[불똥이], 원동에 펴져서 그날부터 열두해 묵은 머슴꾼이 학교에 뽑혀서 공부한다 그래얏짐.{응 큰 땅에. 그래야, (기침) 그래 (기침) 어 노래도, 노래도 있지 않소? 시벨건 세월에 큰 불덩이 원동에 펴져서 그날부터 열두 해 묵은 머슴꾼이 학교에 뽑혀서 공부한다 그랬지 뭐.}

10201 @ 그러며는::.....{그러면.....}

10201 # 그래 토오 싹, 토오 **청사르 없얏짐 싹.{그래 토호 싹, 토호 청산을 해 없얏지 뭐 싹.}

10201 @ 토호가::.....{토호가.....}

10201 # 야~.{응.}

10201 @ 우리 고렷사람이었어?{우리 고려 사람이었어?}

10201 # 야~. 고렷사름이 애이구 기래. 고렷사름이, 싹 고려사람 토호짐. 그 사람우느 아:: 말이 뿔백마리구 세[牛] 뿔 백마리구, 사름우느 백에메~에 게 싹 조~이지. 기래 크나큰:: 집우 저어 놓고 아, 그저 큰 조합덜으 그렇게 해애 놓고, 그건 해마다 종덜이가 버얼어서 곡식이 짐책이 없짐. *짐, 짐책이 없이 많:짐. 개 그것들으 싹 종덜이 버어지. 종, 머슴꾼덜이 버어지 야. 야~. 그제 토호짐 야. 기래 그저 토오 청산하재애했어? 이십구연. * 토 청산에서 싹 정배르 실어갓지.{응. 고려 사람이 아니고 그래. 고려 사람이, 고려 사람 토호지 뭐. 그 사람은 아 말이 몇 백 마리고 소 몇 백 마리고, 사람은 백여 명인데 그제 싹 종이지. 그래 크나큰 집을 지어 놓고, 아 그저 큰 농장들을 그렇게 해 놓고, 그것은 해마다 종들이 가 벌어서 곡식이 엄청나지 뭐. *짐, 엄청나게 많지 뭐. 그래 그것들은 싹 종들이 벌지. 종, 머슴꾼들이 벌지 응. 응 그제 토호지 뭐. 그래 그저 토호를 청산하지 않았소? 1929년에. 토호를 청산해서 싹 정배(定配)를 해 실어 갓지.}

10201 @ 워디로 실어 갓어, 다?{어디로 실어 갓어, 다?}

10201 # 멀리 정배애 실어 갓어.{멀리 정배를 해 실어 갓어.}

10201 @ 아, 정배애 실어 갓다고?{아, 정배를 해 실어 갓다고?}

10201 # 야, 정배르 실어 갓지 야.{응, 정배를 해 실어 갓지 응.}

10201 @ 다 죽었어 그 사람들?{다 죽었어 그 사람들?}

10201 # 아이! 죽을게래 그저 고사~하매 살지. 정배살이 하지. 정배애 가. 그래고 토오 애인 거느:: 아:: 싹 조합에다 걸어영지. 조합애.{아니! 죽도록 그저 고생하며 살지. 정배살이를 하지. 정배를 해 가서. 그리고 토호 아닌 것은 아 싹 조합에다 거두어 넣지. 조합애.}

10201 @ 토호만 하고 토호, 애, **애이들은 그냥 남겨 났어?{토호만 하고 토호, 아, 아닌 것들은 그냥 남겨 났어?}

10201 # 아이, 그 토오::.....{아니, 그 토호.....}

10201 @ 토호 애인 것들은?{토호 아닌 것들은?}

10201 # 토오:: 식솔덜은 싹 정배르 보냈데.{토호 식솔들을 싹 정배를 보냈데.}

10201 @ 고 식솔들은 다?{고 식솔들은 다?}

10201 # 에이구 무시기 그 짓 식솔 **작 정배 보내. 그 답에 거기 머슴꾼덜으 싹 조합에서 자유르 찾아 자, 자유: 노력하지. 부모 버는 것마 먹고 그렇지 야. 그렇소. 그러고 음.{아이고 무엇이고 그 집 식솔을 싹 정배를 보내. 그다음에 거기 머슴꾼들은 싹 지주의 농장에서 자유를 찾아 자, 자유로 노력하지. 부모가 버는 것만 먹고 그렇지 응. 그렇소. 그러고 음.}

10201 @ 뭐, 이십구년에서 몇 년까지?{뭐, 1929년에서 몇 년까지?}

10201 # 이십구년 삼, 이십구년, **삼십년, 삼십이년 이때 기야~ 토오 청산해엿어. 어:. 토오. 그래 우리 내, 우리 어머니 우리 웨가:: 친척이 아, 이십구년에 중국으르[tsungugiri] 싹 갔어.{1929년 삼, 1929년, 1930년, 1932년 이때 그냥(=계속) 토호 청산을 했어. 토호. 그래 우리 내, 우리 어머니 우리 외가 친척이 1929년에 중국으로 싹 갔어.}

10201 @ 왜?{왜?}

10201 # 어째 갖는가이.{어떻게 갖는가 하니.}

10201 @ 토호야, 토호였어?{토호야, 토호였어?}

10201 # 아이! 토오르 아이 하지. 토오르 아이 하는게 토오라는게 아이 하고 재빌루 잘 벌:어서 잘 사지. 기애 잘 사는데 아들이, 우리 어머니 한내하구 아들이라 딱 오누이지. 개 오누이 아, 우리 어머니는 시집가구 우리 웨삼촌으느 아, 서바~ 가서 아, 아들 삼형제 낳지. 아들 삼형제 딸 하나, 아아 너이지. 그런거 원도~에 그런 소무이 잘못났지. 아아덜으 매수르 한다:: 이런 소무이 낳지. 아아르.{아니! 토호를 안 하지. 토호를 안 하는데 토호라는 것은 아니 하고 자기 스스로 잘 벌:어서 잘 살지. 그래 잘 사는데 아들이, 우리 어머니 하나하고 아들이랑 딱 오누이지. 그래 오누이 아, 우리 어머니는 시집가고 우리 외삼촌은 아, 장가가서 아, 아들 삼형제 낳지. 아들 삼형제 딸 하나, 아이가 넷이지. 그랬는데 원동에 그런 소문이 잘못 났지. ‘아이들을 매수를 한다.’ 이런 소문이 났지. 아이를.}

10201 @ 워디로 매수를 해?{어디로 매수를 해?}

10201 # 아:덜으 저 국가에다 매수르 한다:: 기래 그 못쓸 소무이 나짐 야. 개 못쓸 소무이나, 아아덜으 매수한단 바람에 웨아들에 *소, 송구이 너인거 우리 웨클아바이 *웨캄 아들 싹 가져 중국을 싹 넘어갔지. 중국을 넘어가서 기애 중국에 넘어갔다 우리 웨클아바이 왔습데. 기래 와서 우리 웨클아바이 아, 삼십일년, 이연 이때 와서 아::, 헛말이 난데 그췌 싹 가이 어찌개. 그래 우리 어머니 생니별했지. 개 생니별으 헨:데.{‘아이들을 저 국가에다 매수를 한다.’ 그래 그 몹쓸 소문이 나지 뭐 응. 그래 몹쓸 소문이 나, 아이들을 매수한다는 바람에 외아들에 손자 손녀가 넷인데 우리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아들 싹 데리고 중국으로 싹 넘어갔지. 중국으로 넘어가서 그래 중국에 넘어갔다 우리 외할아버지 왔습디다. 그래 와서 우리 외할아버지 아, 1931년, 1932년 이때 와서 아, 헛말이 났는데 글췌 싹 가니 어떡해. 그래 우리 어머니 생이별했지. 그래 생이별을 했는데.}

10201 @ 그게 어머니하고, 어머니가 외할아버지하고 ** 생니별했구만.{그게 어머니하고, 어머니가 외할아버지하고 생이별했구만.}

10201 # 아, 그::래! 재기 어머니 아버지 오래비 싹 생이별[생니별], 기래 생이별[생니별]인데 아::, 음:: 사십:: 육십:: 육십년 때, 때애야 아, 기별이 들었지. 그:: 아 거그서 중국에 에따(это) 그 친척덜 잇는 게 야. 기래 우리 어머니 아 만조캐느:: 앓아서 죽구 아 넷째 아들이 너인데, 아 넷째아들은, 둘째아들으느 전재에 나가 죽구. 어 그래 아들 두울에 딸 하나 잇답데. 기래 잇는데 가아덜이 잇는 데르 내 편질 췌지. 기래 내 편질 췌두 내 모

르고 썼지. 아 중국에 기린이라는 데 거기 고렷사람 많이[마이] 사지. 기린 야. 아, 개 **기린인다르 쓰겠는 거 중국에서 여기서 중국 이사 와서, 이야 치문 오문 내 그 치료르 받았지. 개 치료르 받으며서, 그 사름이 중국으로 가지. 개 중국 간: 데다 그 사름한테 내 편질 쓰는데 그 전에 우리 웨클아바이 이름이 웨큰아매 이름이 웨삼촌 그 이름으 ** 싸 아다나이 그거 싸 적어서 아, 원도~엔 또 그 아 고모 잇는데 아무개오 아무개고 그거 싸 적어서 편지르 이릉기 편지르 이릉기 내 가뜩 써서 그래 보내엿지. 기래 보내엿는데 아: 강씨지, 우리 어마 강씨예요. 강씨네 기린대 그 사름이 가주구 가서 어티기 찾겠소? 그어:: 중국에 고렷사람 많안데 기린이라는 데르 가야 *차, 어, 보내야 데지 야. 이 사름 은 기린인두 무시킨두 모르지. 개 중국에 와서 아드레스(адрес)르 이래 글으 찾는 데 잇 지. **안드레(адрес) 찾는 데 이제 거기다 이 사름이 쫓지. 개애다 쥐, 주구서 와서 그래 제 거기 쫓다 하지. 쫓는데. 그 사람덜이 아, 지금우 사는 사름 이름 알아야 **데개 지금 사는 사람 이름 없다나이 무 어티기 찾겠어. 기래 못 *찾. 기래 그 생이별[생니별]이지. 기린대 아:: 우리, 내 에띠(это) 조선으르 내 점 웨엔 처음 이, 이 노인반 열엇을적에 저:: 우리 뿌리지젠뜨(президент) 야 아 그 조선으르 패야~으르 보내자구 **** 한번 떼 구 세버~이나 떼어. (기침) 세번 떼고 난 다 가기 준비르 해앤데 우리 사름 너어 보내자, 너어. 준비르 해엿는데 우리 여기, 여기 대통령~이, 아까애비야 그 사람은 아 무슨 일 헛 는가이 전즈 이 농사에 대한 데, 아:: 그런 그런 큰 사름이지. 그앤거 아까애비 그 일으 다 해애놓구 가라메 보내재엿지. 개 그 사람 아이 보내, 우리 그 사람 이름을 우리 너이 가야 데지. 기래 못 가재엿소? 그래 아 한번 *오, 그래 내 가문 갖다가 조선에 갖다가 올죽에 내 중국에 들자했지[들짜했지]. 중국에 들어서 조선말 잘 하이까네 기린인데르 들러서 강촌집우 찾지. 강촌집덜 찾아서 아 차차차차 기래 조사르 하무 알겠는두 그래자 는게. 아, 그래 어전 생이별[생니별]이지. 어전 내만 죽재앤켓어? 내 동새:~ 두울이 잇구 오래비 두울이 다 죽엇지. 내게 동새:~ 두울 잇짐. 아, 동새:~ 들밖에 없지. 우리 삼형제 질엇어. 우리 오형제서야 오, 오남매서 오래비 두울 죽구 삼형제 질엇는데 그 내 동새:~ 들으 그 한::나투 이름두 *모르 아무것두 모르오. 내마 없으문 모르지. 개 그저 생이별이 짐 야. 싸 다 생이별이지.{아, 그래 자기 어머니 아버지 남동생 싸 생이별, 그렇게 생이 별했는데 아, 음, 1940년, 1960년, 1960년 그 때에야 기별을 들엇지. 그 아 거기서 중 국에 음 그 친척들 잇는 것을 응. 그래 우리 어머니 아 말조카는 앓아서 죽고. 아 넷째 아들이 넷인데, 아 넷째아들은, 둘째아들은 전쟁에 나가 죽고 어 그래 아들 둘에 딸 하 나 있답디다. 그렇게 잇는데 그 아이들이 잇는 데로 내가 편지를 썼지. 그래 내가 편지 를 써도 내가 (그 아이들이 어디 잇는지도) 모르고 썼지. 중국에 기린이라는 데 거기에 고렷사람들이 많이 살지, 기린 응. 아 그래 기린이 잇는 데로 쓰려는데, 중국에서 여기로 중국 의사(醫師)가 와서 이 응 진료를 오면 내가 그 치료를 받았지. 그래 치료를 받으면 서, 그 사름이 중국으로 가지. 그래 중국으로 가는 편에다 그 사름한테 내가 편지를 쓰 는데, 그 전에 우리 외할아버지 이름 외할머니 이름 외삼촌 그 이름을 싸 알고 보니 그 거 싸 적어서 아 원동에는 또 그 고모가 잇는데 아무개요 아무개고 그거 싸 적어서 편지 를 이렇게 편지를 이렇게 내가 가뜩 써서 그리해서 보냈지. 그리해서 보냈는데, 아 강 (姜) 씨지, 우리 엄마는 강 씨예요. 강 씨인데 그런데 그 사름이 가지고 가서 어떻게 찾 겠소? 그 중국에 고렷사람이 많은데 기린이라는 데로 가야 찾지. 그곳으로 보내야 되지 응. 이 사름은 기린인지 무엇인지 모르지. 그래 중국에 와서 주소를 이래 주소가 적힌

책자로 (주소를) 찾는 데가 있지. 주소를 찾는 데, 거기다 이 사람이 주었지. 가져다 줘. 주고서 돌아와서 그래 거기다 줬다고 하지. 줬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사는 사람 이름을 알아야 되겠는데 지금 사는 사람 이름이 없다 보니 뭐 어떻게 찾겠어. 그래 못 찾았어. 그래 그 생이별이지. 그런데 아 우리, 내 음 조선으로 내 좀 맨 처음 이, 이 노인반을 열었을 적에 저 우리 대통령이 응 그 조선으로 평양으로 보내자고 **** 한 번 떼고 세 번이나 뻘어. (기침) 세 번 떼고 난 갈 준비를 다 했는데 우리 사람 넷을 보내자, 넷을. 준비를 했는데 여기, 여기 대통령이, 아까애비 응 그 사람은 무슨 일을 했는가 하면 전체 이 농사에 대해서 잘 아는 그런 대단한 사람이지. 그랬는데 (대통령이 말하기를) 그 아까애비가 그 일을 다 해 놓고 가라면서 보내지 않지. 그래 그 사람을 안 보내, 우리 그 사람 이름 아래 우리 넷이 가야 되지. (그런데 아까애비가 못 가는 바람에) 그래 못 가지 않았소? 그래 아 한번 오, 그래 내가 가면 갔다가, 조선에 갔다가 올 적에 내가 중국에 들르자고 했지. 중국에 들어가서 내가 조선말을 잘 하니까 기린이 있는 데를 들러서 강촌 집을 찾지. 강촌 집들을 찾아서 차차 차차 그래 조사를 하면 알겠거니 그렇게 하자던 것이. 아 그래 이제는 생이별이지. 이제 나만 죽지 않겠어? 내 동생이(여동생) 둘이 있고 남동생 둘이 다 죽었지. 내게 동생이 있지 뭐. 동생 둘밖에 없지. 우리 3형제(3자매) 남았어. 우리 5형제에서 응, 5남매에서 남동생 둘이 죽고 삼형제(3자매) 남았는데 그 내 동생들을 그 하나도 이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오. 나만 없어도 모르지. 그래 그저 생이별이지 뭐 응. 싹 다 생이별이지.)

10201 @ 그 원동에서는:: 그 웨갓집허구 같은, 같은 동네에 있었어?{그 원동에서는 그 외갓집하고 같은, 같은 동네에 있었어?}

10201 # 한::동네 살았지. 웨하, 웨클아바이, 웨큰아매 한동네 살았지. 개 우리, 우리 우리 웨큰아매네 (기침) 또웨(тоже) 부재요. 어째 부쟁가~:이 아, 일으 잘해 부재지. 재빌르 일으 잘해. 농구이 하나도 없지. 기래 일으 잘해서 응:: 돈으 많이[마이] 모닷지. 돈 많이 [마이] 모다서 돈 많이[마이] 모도돈 그 돈으 개애다서야.{한 동네에서 살았지. 외할아버지 외할머니와 한 동네에서 살았지. 그래 우리, 우리 외할머니는 (기침) 역시 부자요. 어째 부자인가 하면 아, 일을 잘 해서 부자지. 자기 스스로 일을 잘 해. 농군(일꾼)이 하나도 없지. 그래 일을 잘 해서 응 돈을 많이 모았지. 돈을 많이 모아둔 그 돈을 가져다 가서 응.}

10201 @ 그땐 다 로시얏 돈이었어?{그때는 다 러시아 돈이었어?}

10201 # 그전에 아~이~ 그전이무 ***신하구 무시기구 조선도[조선또]이지. 아, 그런데 거기 무시기 왔는가 그전에 원동에 호오적(紅胡賊)이라는데 있어, 호오적이란게. 그 호오적이라는데 들어와서 음 사름우 싹 이롭게 집에 들어와서 주유두 내엿고 강차이 찜질하며 돈 내라하지. 돈 내라구 조사르 하지. 원도~에 호오적이라는데 잇재오? 아::, 원동두 야:: 원동두 깨지 못해, 중국사름덜이 기계 싹 호오적이지 중국사름덜이 야. 기래 아, 그 호오적이 들어서 강차이 찜질해 돈 내라는거 어, 돈 어, 그양, 아, 아이 말하지. 아이 말하이 기래 찜질하매 서이 너이 와 다른건 집우 드추지. 집우 드추 우리 웨큰아매 잘 사이까더나 그전에 배긴 원도~ 도이 자꾸 배끼재이오? 그 도이 배긴 도이 이 베개통만한게 두울이 잇었지. 그 돈 가주구 싹 달아났지. 어전, 기야 달아나 산으로 산꼭대게 가다가서 날이 밝겠구나 그 돈 떼해보이~ 그 그전에 못쓸 도이지. 그레이까나 음 그 돈 가주고 이만한 도이 낡은 도이 잇으이 이 집에 새 돈, 새 도이 또 잇겠다는 거 가주구 또 들어올 수 잇

지. 기래 또 들어올 수 있으이, 그래 또 피헛짐. 피해 달아났짐. 그랬어. 그렇게 고토~오 받았어, 그렇게 고토~오 *바. 그래 우리 아, 음, 웨큰아매. 그래 우리 아버지네 내력으느 칠형제지. 칠형제. 칠형제인데 우리 아버지네 내력은 칠형제인데 우리 아버지 넷째지. 그래 넷째인데, 음, 우리 어머니 댁:이 없는데 시집갔어. 우리 어머니 남편이 매음이 *엄:. 우리 어머니 댁:이 잇는 사람운 우리 어머니네 앞두집에 살았지. 그 집에서 삼년 동안으 혼말대 혼셋말 댁것지. 우리 웨큰아매 아이 줏짐. 어째 (헛기침) 옛날에 깨지 못하다나이 이 사람운 그때애 벌써 아::, 그 원도~에서 우리 수찬(Суцан) 나가는 데 그 수찬(Суцан) 탄광이라는 데 벌써 노세앗글으 이르오. 기래 이 사람 벌써 그 노세앗글 일라 댁기지 야. 개 댁기구 어, 우리 아버지사 아 노세앗글 일라 아이 댁기지. 개 아이 댁기이까 아 사람이 그림은 집안이[지바이] 데 우리 아버지 칠형제 한결[항결]이 많다 해서 아 이 집이 삼년 동안 혼셋말 하는 거 아이대 아이 주구 우리 아버지 줏지. 개 우리 아버지 줏서 우리 아버지가 혼새 대엿지. 그래 그 우리 칠형제 이:: 따슈겐뜨 와서 다 *사. 이제 일곱째 삼촌꺼 상세나 다 상세났어 어전.{그전에 아니 그전이면 ***신하고 무엇이고 조선 돈이지. 아, 그런데 거기 무엇이 왔는가 하면 그전에 원동에 홍호적(紅胡賊)이라는 강도가 있어, 홍호적이라는 것이. 그 강도가 들어와서 음 사람을 싹 이렇게, 집에 들어와서 술이나 기름도 내갔고 삽으로 몹시 매질하며 돈을 내라고 하지. 돈 내라고 조사를 하지. 원동에 홍호적이라는 강도가 있지 않소? 아 원동도 응 원동도 깨지 못해서(미개해서), 중국 사람들이 그제 싹 홍호적이지. 중국 사람들이 응. 그래 아, 그 홍호적이 들어서 삽으로 매질하며 돈을 내라는 거 어, 돈 어, 그냥 말하지 않지. 말하지 않으니까 그래 매질하며 셋이 넷이 와 다른 놈은 집을 들추지. 집을 들추지. 우리 외할머니가 잘 사니까, 그전에 바뀐, 원동 돈이 자꾸 바뀌지 않소? 그 돈이, 바뀐 돈이 이 베개통 만한 것이 둘이 있었지. 그 돈을 가지고 싹 달아났지. 이젠, 그래 달아나 산으로 산꼭대기에 가다가 날이 밝겠구나 하고서 그 돈을 떼어 보니 그것이 그전에 못쓸 돈이지. 그러니까 음 그 돈을 가지고 (생각하기를) 이만한 돈이 낡은 돈이 있으니까 이 집에 새 돈, 새 돈이 또 있겠다든 생각을 갖고 또 들어올 수 있지. 그래 또 들어올 수 있으니, 그래 또 피헛지 뭐. 피해 달아났지. 그랬어. 그렇게 고통을 받았어, 그렇게 고통을 받았지. 그래 우리 아, 음, 외할머니. 그래 우리 아버지네 내력(來歷)은 칠형제지. 칠형제. 칠형제인데 우리 아버지네 내력은 칠형제인데 우리 아버지는 넷째지. 그래 넷째인데, 음, 우리 어머니는 마음이 없는 데로 시집갔어. 우리 어머니 남편은 마음에 없는 사람이지. 우리 어머니 마음에 있는 사람은, 우리 어머니네 앞뒤 집에 살았지. 그 집에서 삼년 동안을 혼셋말이 다녔지(오갔지). 우리 외할머니가 안 딸을 안 주었지 뭐. 어째 (헛기침) 옛날에는 깨지 못하다 보니 이 사람은 그때에 벌써 아, 그 원동에서 우리 수찬 나가는 데, 그 수찬 탄광이라는 데는 벌써 러시아 글을 공부해. 그래 이 사람 벌써 그 러시아 글을 공부하러 다니지 응. 그래 다니고 어, 우리 아버지야 러시아 글 공부하러 안 다니지. 그래 안 다니니까 아, 사람이 그리운 집안이 돼서, 우리 아버지가 칠형제 한 핏줄이 많다고 해서, 이 집이 삼년 동안 혼셋말 한 것도(했는데도) 아니 주고 우리 아버지에게 딸을 줏지. 그래 우리 아버지에게 줏서 우리 아버지와 혼사가 되었지. 그래 그 우리 칠형제 이 타슈켄트 와서 다 살다가 이제 일곱째 삼촌까지 돌아가셔서 다 돌아가셨어 이젠.}

10201 @ 그러면 그때 올 때 인제 그 조합으로, 조합으로 다, 다 한번에 온 거야?{그러면 그때 올 때 이제 그 조합으로, 조합으로 다, 다 한 번에 온 거야?}

10201 # 야~ 조합에 사람우 이 살론(салон)이다 실어 가져왔지. 조합에 사람우.{응 조합에 사람을 이 객실에다 실어 가져왔지. 조합에 사람을.}

10201 @ 그때 조합의 사람은 몇 명이나 됐어?{그때 조합의 사람은 몇 명이나 됐어?}

10201 # 많:지 무슨. 아, 인구덜 많짐. 조합이 크다나이 조합이 아, 그란거 이 조합 사람덜으 아:: 지금 가축차랴~이란게 무시긴가 아오? 즈스~으 씩는[실른] 따바르니 바곤(товарный вагон). 객차 아이구. 그 가축차랴~이 거그다서 우리네르 실어 왔는데, 개 실어 완테 이때 우리네 내가:: 내 두째 동새~: 잇구. 오래비 한내 낳았어. 오래비 한내 네살 났어. 네살이구. 아, 내 동새애는 그때 열두살이구 내 열다섯살이구 그렇지. 기래, 그, 그 가축차랴~이다 실어오는데 한달 동안 왔지 그 차에.{ 많지 뭐. 아, 인구들은 많지 뭐. 조합이 크다 보니 조합이 아, 그랬는데 이 조합 사람들을 아, 지금의 가축 차량(車輛)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오? 짐승을 싣는 화물차. 객차가 아니고. 그 가축 차량 거기다가 우리네를 실어 왔는데, 그래 실어 왔는데 이때 우리네 나와 내 둘째동생이 있고. 남동생 하나 낳았어. 남동생 하나가 네 살 났어. 네 살이고. 아, 내 동생은 그때 열두 살이고 내가 열다섯 살이고 그렇지. 그래 그 그 가축 차량에다 실어 오는데 한 달 동안 왔지 그 차에.}

10201 @ 한 달 동안?{한 달 동안?}

10201 # 그래! 기애 어따(это):: 가축차량~ 따바르니 바곤(товарный вагон)이다 나이 (기침) 객차가 질이 맥히므 그거 **한수, 한나라두 이틀이라도 세와놓구 잇지. 그거 지내보내고야 가지. 기래다나이 음 이르쿠스까(Иркутск) 바이칼(Байкаль) 이르쿠스꾸(Иркутск) 지나 이롭게 아, 그래 한달 동안에 카사흐스탄으 왔지. 기래 카사흐스탄으 딱 오이~, 그래 오는 어간에 거그서 아이덜이 앓아 죽는것두 잇구, 그래 그 시월에 왔거든, 시월에. 시벌달[ʃiβalt'al]에 오다나 시월. 아.{그래! 그래 음 가축 차량 화물차로 오다 보니 (기침) 객차가 길이 막히면 그거 하나라도 (보내고) 이틀이라도 세워 놓고 있지. 그것을 지나보내고서야 가지. 그리하다 보니 음 이르쿠츠크 바이칼 이르쿠츠크를 지나 이렇게 아, 그래 한 달 동안 카자흐스탄을 왔지. 그래 카자흐스탄을 딱 오니, 그래 오는 사이에 거기서 아이들이 앓아 죽는 것도 있고, 그래 그 시월에 왔거든, 시월에. 시월 달에 오다 보니 시월. 아.}

10201 @ 이불이랑 이런 거 갖고 왔어?{이불이랑 이런 것 갖고 왔어?}

10201 # 야~?{응?}

10201 @ 이불이랑 이런 건 갖고 왔어?{이불이랑 이런 것은 갖고 왔어?}

10201 # 다 가졌:지. 재비 짐 다 가졌지. 기래 (기침) 그래 그 이불으나 잇구. 따바르니 바고(товарный вагон)다 덩때르 매났어 우리 잘 데랑. 야~. 그라구 또 그 난로라 핫재오? 난로란 거. 그 차이랑 끓여먹는거 그런것두까지 바곤(вагон)마다 놔왔어. 우리 싹게두[싹게두] 야~. 그래 이거 스팔린 때, 스팔린 때 우리 아 강제이주르 해엿지. 이 강제이주르 한거 아, 저 스페에따 여그서 대:핵교서 나르 데려다가서 거그다 강제이주르 한거, 나르 그거 아 이른거 위죽(видик) 찍는 사름 가지구와서 켈레비전 찍는 사름 가져와서 노세앗말으 잘 모르지. 조선말으 남게[남게] 하지. 기앤데 나르 노세앗말루 그 말하라[마라라] 하지. 기애 노세앗말르 내 그거 말해서 싹 위직(видик) 찍엇지. 기래 찍어서 아, 이 켈레비즌다야 한주일에 한번씩 기양 배왔어. 그양, 그양 배와. 그래 배운데 사름덜 그거 보고 내게 싹 전하[저나]르 하지. 나르 그랬다는 거. 기래 그거 그러고 또 날 신문에 꺼지 내엿어, 신문에꺼지.{다 가졌지. 자기 짐을 다 가졌지. 그래 (기침) 그 이불이나 있

고. 화물차에다 시령을 매놓았어. 우리 잘 데랑. 응. 그리고 또 그 난로라 하잖았소? 난로라는 것. 그 차(茶)랑 끓여 먹는 것 그런 것까지도 차량마다 놓았어. 우리가 비록 실려와도 응. 그래 이것 스탈린 때, 스탈린 때 우리 강제 이주를 당했지. 이 강제 이주를 당한 것을, 저 스페타가 여기 대학교에서 나를 데려다가 거기다가(텔레비전에다) 강제 이주를 한 것을, 나에게 그거 아 이런 비디오 찍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텔레비전 찍는 사람을 데려와서, 러시아말을 잘 모르지. 조선말을 더 많이 하지. 그런데 나에게 러시아말로 그 말을 하라고 하지. 그래 러시아말로 내가 그거 말해서 짹 비디오로 찍었지. 그래 찍어서 아, 이 텔레비전에다 응 한 주일에 한 번씩 계속 보였어. 계속, 계속 보여. 그래 보였는데 사람들이 그걸 보고 내게 짹 전화를 하지. 나에게 (내가) 그랬다는 것을. 그래 그거 그러고 또 날 신문에까지 냈어, 신문에까지.}

10201 @ 한국 신문에?{한국 신문에?}

10201 # 아, 에이::! 여기 이 웨초르까 비슈케크(Вечёрка Бишкек) 웨체르니이 비슈케크(Вечерний Бишкек)라고 여그 이 키르기즈 신문에 야. 그 신문에 내 우리 집에 와서 또 이래 이래 찍어갔지. 개 찍어간게 아::, 내 저, 즈, 증손재 잇재이오? 증손네르 데리고 저 신문이 잇어 시장 한나. 증손자르 데리고 노시앗글으 짹 또 **눔구 나문 **켓구. 그래 신문에 내엿어. 그래 신문에 낸게 나르 처음으로 아, 내 아 때부터 원도~서 어티기 자라기래 와서 여그 와서 처음으로 일하다서 어전 칠십살 대이 이 노인반 열었다는거. 노인반 열구 아, 아때덜 조선 노래, 조선 춤에, 조선 습관 배와 준다는 거 그거 신문에 썼지 야. 기래 썼어. 그래, 그 답에{아, 아니! 여기 이 ‘베초르니까 비슈케크’, ‘베초르니이 비슈케크’라고 여기 이 키르기스스탄 신문에 응. 그 신문에, 내 우리 집에 와서 또 이래 이래 찍어 갔지. 그래 찍어 간 것이 아, 내 저 증손자가 있잖소? 증손녀를 데리고, 저기 그 신문이 잇어 지금 하나가. 증손자를 데리고 러시아 글을 짹 또 ****. 그래 신문에 냈어. 그래 신문에 낸 것이, 나를 처음으로 아, 내가 아이일 때부터 원동에서 어떻게 자라서 그래 와서 여기 와서 처음으로 일하다가 이젠 칠십 살이 되니 이 노인반을 열었다는 것. 노인반을 열고 할머니들에게 조선 노래, 조선 춤에, 조선 관습을 보여 준다는 거 그것을 신문에 썼지 응. 그래 썼어. 그래, 그 다음에}

10201 @ 따슈켄트에 왔을 때::.....{타슈켄트에 왔을 때.....}

10201 # 야.{응.}

10201 @ 따슈켄트에는 그.....{타슈켄트에는 그.....}

10201 # 또 자치조합이 잇었지. 콜호즈(колхоз).{거기도 또 자치조합(집단농장)이 잇었지. 콜호스.}

10201 @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

10201 # 야~.{응.}

10201 @ 따슈켄트 그 내린 데는::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었냐구.{타슈켄트 그 내린 데는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었냐고.}

10201 # 아:::, 어저느 따슈켄트(Ташкент) 사름으르 가뜨가지::[가뜨가지]. 그런데 우리는 삼십칠년[삼십칠년] 어디로 왔는가이~ 까자그스탄(Казахстан)으르 왔지. 기래 까자그스탄(Казахстан) 와서 (기침) 저 까라간다(Караганда)란테르 왔지. 개 까자그스탄(Казахстан)에 삭 들왔지. 기래 왔는데 거기 와서 어: 우리 친척덜으느 어, 옛날에 거 원도~ 홍실라란테서 살았어. 홍실라란테서 사다나이 그 **홍실랑 살론(салон)으느 짹 어, 저, 아,

까자그스탄(Казахстан)으 크즐오르다(КзылОрда)르 왔지. 개 크즐오르다(КзылОрда)르 오구 어, 우리느 까라간다(Караганда)로 왔지. 우리느 혼자 까라간다(Караганда)로 왔지. 흥남동. 우리에게, *호, 우리 꼴호즈는 흥남동 꼴호즈란게 흥남동 꼴호즈. 개 우리 꼴호즈르 싯겿지. 개 꼴호즈서 싯 사름들 싯어다아서 아, 그 전에 그거 가마르니크(Гамарник)라 했어. 원도~ 그 가마늘(Гамарник) 정거자~ 싯 싯어왔지. 개 싯 싯어다 그 정거자~에서 와서 싯 그 차에 앉았지. 기래 차에 앉고 그 시벌[ʃiβəl] 초이렛날 초, 시월 초칠잇날[초치린날] 우리네르 다:: 싯어다 그 살로~(салон)이 다 차재일겿어? 그럼 그 차 떠나지. 기래 떠났는데 먹구[məkk'u] 다, *집, 우리 사흘 어간을르 먹구[məkk'u] 준비 하래[준비라래]. 사흘 어간에 먹고[məkk'o] 준비 하문 어띠기 하겿어. 대애지랑 잇던거 잡았지. 기래 잡아서 그 고기르 소금에다가 쳇지. 기래 가주구 그뎨은 두루 에따(это) 가 싯가주구 아, 그래 식노르 싯가주구 아, 싯으랑 싯 가주구 집이랑 싯 내애빠리구 오다가서 오매서리 아: 우리 아 어머니 아주 역빠른, 역빠러. 우리 어머니 아주 역빨. 기래 우리 어머니 내려가서 정거자~에 가 그거 오래 서고 잇으무 우리 어머니 내려가 싯거 싯오. 돈 가지고 싯오. 개 우리에게 도~이라 잇엇짐, 야. 기래 싯가주고 와서 아, 우리네르 아 아덜 서인거 메기때 우리 어머니가 *아버 다섯이 오는데 그렇게 왔지. 기래 오는데 기래 오다가서 아, 차에서 사름이 무스 싯라갓다가 그 바고(вагон)이 떠나고 떨어지재일겿어? 그럼 또 그거야 떨어졌다고 말하무 거 객차에다 싯어도 두우 쫓아 오게 하오. 우리 엄마 이르꾸스꾸(Иркутск), 우리 마마(мама) 이르꾸스꾸(Иркутск) 와 떨어졌지. 이루꾸스(Иркутск) 와 떨어진거 아, 우리느 그저 우느라구 난시지 엄마 잃어빠렷다. 아, 그래놓그 [그래노크] 객차에다 데까닥 싯구[시꾸]. 아! 객차야 빨리 오재ियो? 따바르닌(товарный -ㄴ) 노올메 오구. 기래다 데깍 싯어왔지. 기래 왔지.{아, 이제는 타슈켄트가 사람으로 가득하지. 그런데 우리는 1937년에 어디로 왔는가 하면 카자흐스탄으로 왔지. 그래 카자흐스탄으로 와서 (기침) 저 카라간다(Караганда)라는 데로 왔지. 그래 카자흐스탄에 싯들어왔지. 그래 왔는데 거기 와서 어, 우리 친척들은 어, 옛날에 거 원동 흥실라라는 데서 살았어. 흥실라라는 데 살다 보니 그 흥실라 사람을 싯은 차량은 싯 어, 저, 아 카자흐스탄의 크즐오르다(КзылОрда)로 왔지. 그래 크즐오르다로 오고 어, 우리느 카라간다로 왔지. 우리느 혼자 카라간다로 왔지. 흥남동. 우리에게 흥남동, 우리 꼴호즈는 흥남동 꼴호즈라고 하는데, 흥남동 꼴호즈. 그래 우리 꼴호즈 사람이 함께 싯렸지. 그래 꼴호스에서 싯 사람들을 싯어다가, 아, 그 전에 그거 가마르니크라 했어. 그 가마르니크 정가장으로 싯 싯어 왔지. 그래 싯 싯어다가 그 정거장에 (내려놓아) 그 정거장에서 싯 그 (중앙아시아로 가는) 차에 앉았지(탤지). 그래 차에 앉고 그 시월 초이렛날 초, 시월 초이렛날 우리네르 다 싯어다 그 차량이 다 차지 았았겿어? 그럼 그 차가 떠나지. 그래 떠났는데 먹고 다, 집, 우리 사흘 사이에 먹고 준비를 하래. 사흘 사이에 먹고 준비를 하라면 어떻게 하겿어. 돼지랑 잇던 것을 잡았지. 그래 잡아서 그 고기에다가 소금을 쳇지. 그래 가지고 그 다음은 두루 음 사 가지고 아, 그래 식료(食料)를 사 가지고 아, 싯이랑 싯 가지고 집을 싯 내버리고 오다가 오면서 아, 우리 아, 어머니 아주 역빠른, 역빨라. 우리 어머니가 아주 역빨라. 그래 우리 어머니 내려가서 정거장에 가, 그 기차가 오래 서 잇으면, 우리 어머니가 내려가 살 것을 사오. 돈 가지고 사오. 그래 우리에게 돈이야 잇엇지 뭐, 응. 그래 사 가지고 와서 아, 우리네르 아이들이 셋인 것을 먹이며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 다섯이 오는데 그렇게 왔지. 그래 오는데, 그렇게 오다가 아, 기차에서 사람이 뭐

사러 갔다가 그 기차가 떠나고 떨어지지 않았겠어? 그럼 또 그거 을 떨어졌다고 말하면
 거 객차(客車)에다가 실어서 뒤를 쫓아오게 하오. 우리 엄마 이르쿠츠크, 우리 엄마 이르
 쿠츠크에 와서 떨어졌지. 이르쿠츠크 와 떨어진 것을, 아, 우리는 그저 우느라 난시(亂
 時)지(난리지). 엄마 잃어버렸다고. 아, 그래 놓고 객차에다 제꺼덕 싣고. 아! 객차야 빨
 리 오잖소? 화물차(貨物車)는 천천히 오고. 그렇다 보니 제꺼 실어 왔지. 그래 (엄마가
 왔지.)

10201 @ 아, 객차는 또 따로 다니고?{아, 객차는 또 따로 다니고?}

10201 # 객차는 야 다른 길로 댕기고 우리 따바르니 바곤(товарный вагон)은 온 길 따지.
 아, 그래 그 객차가 떨어진 사람우느 거그서 국가에서 인차 실어서 그 살론(салон) 딸과
 가서 네리와놓지. 기애 네리와노이 우리 어머니 찾아왔지. 기래 우리 어머니 노세앗말은
 잘 모르는게 노세앗말은 잘 모르는게 더어:: 말 없이 총끼 좋지. 개 총끼 좋다나이 아::,
 우리 어머니 어드메 보모 이래 보모 아지. 아, 글 한자 모르는게 아, 그래, 그래서 까자
 그스탄(Казахстан) 실어왔지. 기애 실어다서 구락부에다 걸어영엇어. 우리 구락부에다.
 기래 구락부에 개애다 걸어 영어이 구락부 그게 시월달에 불두 아이 뎨 게 칩지. 기래
 어전 우리 살론(салон) 야 내 싫게 들어오던 애기르 하지. 내 이거 야 여기서 보고르 해
 았어. 여그서 큰:: 짜아뜨르(театр) 씨 고렛사름 싣 모다 이거 보고르 할 적에두 조선말
 로 내 그 싣 보고르 해았어 야. 내 우리 원도~서 어티기 싣게 왔다는거. 기래 보고르 해.
 기래 보고르 하는데, 아:, 이거 그래서 아, 까자그스탄(Казахстан)에 턱 개애다 어전 차
 르 세웠지 그 가축차랴~. 노래에 잇소. 가축차량에 앓아 *왔. 기래 그 가축차랴~에 기래
 *앓. 어제 사진 본 데 그, 내 사므이(самый) 아, 부혜자~ 하는 사름 남자 같 짝재입데?
 이 사름 노래르, 저 이 사름 교오(敎友)요. 교오인게 이 사름 노래르 져엿어. 노래르 져
 어서 우리 그 노래르 이렇게 기양 불렀지. 아, 기랜게 그 가축차랴~ 앓아서 아, 그래 ***
 세련 실어왔는데 처음 원동서 들어오던 질루 들어오던 **노라두 잇소 야~ 차에 오는거
 야. 기래 그담엔 척 네리이꺼나 우리르 무시기 나오는가이 약대 파리. 약대 잇재? 약대
 라 아오? 약대.{객차는 응 다른 길로 다니고 우리 화물차는 오는 길이 다르지. 아, 그래
 그 객차와 떨어진 사람은 거기서 국가에서 이내 실어서 그 기차를 쫓아서 내려놓지. 그
 래 내려놓으니 우리 어머니가 찾아왔지. 그래 우리 어머니 러시아말은 잘 모르는데, 러
 시아말은 잘 모르는데 더 말할 필요없이 총기(聰氣)가 좋지. 그래 총기 좋다 보니 아, 우
 리 어머니 어디를 보면 이렇게 보면 알지. 아, 글 한 자도 모르는 사람이 아, 그래, 그래
 서 카자흐스탄에 실어 왔지. 그래 실어다 클럽에다 거두어 넣엇어. 우리 클럽에다. 그래
 클럽에 가져다 거두어 넣으니 구락부 그게 시월 달에 불도 안 때니 춤지. 그래 이젠 우
 리 기차 응 내가 실려 들어오던 이야기를 하지. 내가 이거 응 여기서 보고를 했어. 여기
 서 큰 극장에 고려사람을 싣 모아서 이거 보고를 할 적에도 조선말로 내 그 싣 보고를
 했어 응. 내가 우리 원동에서 어떻게 실려 왔다는 것을. 그래 보고를 해. 그래 보고를 하
 는데. 아, 이거 그래서 아, 카자흐스탄에 턱 가져다 이젠 차를 세웠지. 그 가축 차량을.
 노래에 잇소. 가축 차량에 앓아 왔지. 그래 그 가축 차량에 그래 앓아 왔지. 어제 사진
 본 데에서, 그 바로 내 ... 아, 부회장 하는 사람, 남자가 같이 찍지 않습디까? 이 사람이
 노래를, 저 이 사람은 교우(敎友)요. 교우인데 이 사람이 노래를 지엿어. 노래를 지어서
 우리 그 노래를 이렇게 그냥 불렀지. 아, 그런데 그 가축 차량에 앓아서 아, 그래 *** 실
 어 왔는데 처음 원동에서 들어오던 길로 들어오던 노래도 잇소, 응. 차에 실려 오는 거,

응. 그래 그 다음에는 척 내리니까 우리를 맞으로 무엇이 나오는가 하니 낙타(駱駝), 낙타가 있잖소? 낙타라고 아오? 낙타.}

10201 @ 큰:: 거 낙타.{큰 것이야? 약대.}

10201 # 야. 큰 게, 이런 *불 들. 그 약대 파리르, 시월이 여긴 발써 까자그스탄은 칩지. 기래 약대 파리르 가죽 이 인민덜으 실러 왔지. 기래 이 인민덜으 (기침) 약대 파리에다가 싹 실어서 아::, 기게 아:: 마 메 킬로메뜨(километр)나 대앤두 그런 데는 실어다 구락부에 다다 걸어영지. 쿨루부(клуб)에다 걸어영지. 그래 쿨루부(клуб)에다 걸어영이 제 짐은 딸로 놓고 제 식귀 딸로 놓고 이래 막후서 구력 구렁구 *살. 그래 거그 살다 그렇기 어떻게 살개? 그렇기 못 살지. 그러이꺼나 아,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 우리 아버진 노세앗 말두 좀 알구 우리 어머니 역빠르이꺼나 우리 어전 도시르 나간다. 기애 도시라는건 지금 까라간다(Караганда)라 하재이오? 까라간다(Караганда). 까라간다(Караганда)~게 [까라간당게] 석탄과~이 큰 도시짐 야. 그래 그 까라간다(Караганда)르 아, 우리는 나왔어. 우리 식귀 싹 나왔어. 기래 나와서 까라간다(Караганда) 와서 어, 또 집을 잡았지. 기래갓구 오는 사람덜은 그 간 데마다 무시 집이랑 헨 거 주옵테 야. 기래 그거 집을 잡고 그래 잇다가서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 삭두질해앓어. 삭두 삭.{응. 큰 것이 이런 뿔(=혹)이 들. 그 낙타 발구를, 시월이 여기는 벌써 카자흐스탄은 칩지. 그래 낙타 발구를 가지고 이 인민들을 실러 왔지. 그래 이 인민들을 (기침) 낙타 발구에다가 싹 실어서 아 그 게 아 몇 킬로미터나 되었는지 그런 데는 실어다 클럽에다 거두어 넣지. 클럽에 거두어 넣지. 그래 클럽에다 거두어 넣으니 제 짐은 따로 놓고 제 식구를 따로 놓고 이렇게 칸을 나누어 막고서 그렇게 그렇게 살았지. 그래 거기 살다, 그렇게 어떻게 살겠소? 그렇게 못 살지. 그러니까 아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 우리 아버지는 러시아말도 좀 알고 우리 어머니는 역빠르니까 우리 이젠 도시로 나간다. 그래 도시라는 건 지금 카라간다(Караганда)라 하잖소? 카라간다. 카라간다인데 큰 석탄 탄광이 있는 도시지 뭐, 응. 그래 그 카라간다를 아, 우리는 나왔어. 우리 식구가 싹 나왔어. 그래 나와서 카라간다 와서 어, 또 집을 잡았지. 그래 갓고 오는 사람들은 그 가는 곳마다 무슨 집이랑 헨 것을 줍디다, 응. 그래 그거 집을 잡고 그렇게 잇다가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는 삭두(索道)질 했어. 삭두(索道) 삭.}

10201 @ 삭두질이 뭐여?{삭두질이 뭐야?}

10201 # 석탄 파는 데. 야. 석탄 파는 데 그. 개 우리 아버지는 석탄 꾸란(кран)스 일하구 우리 어마니는 근처에서 가리는 일하구 기렸어. 기애 나느 그때 *어지 예레숫살으 먹었지. 기애 예레숫살으 먹었는데 그담엔 거기르 고렷사름덜 많이[마이] 왔지. 기래 많이[마이] 와서 어전 핵교르 노시아 핵교르 가갓는데 각, 각 곧에 여러 곧에서 모다 왔지. 그래이 그저::, 그때느 그저 옐일굽살, 옐야듭살, 옐야웁살, 스무살 먹은 그런 아:새끼덜이 가뜩 하지[가뜨가지]. 그런 아새끼덜 가뜩한게[가뜨강게] 우리 서이 땡게 저, 저기, 아, 지금 저: 앓는다는 육촌 헤~이 내 아, 또 가깝운게 한동네서 온게 가깝운게 우순서이라구 야 서이. 서이 핵교르, 핵교르 땡기는데 학교 가서 책이라 탓지. 책이라 타고 한주일 글 일 것지. 개 한주일 글 일근데 아:: 글으느 수확은 알아두 구약으 그거, 노시앗글으 모르고 보이 국어랑 국어나 **롤리자라뚜라(←литература?)나 이스포리야(история)나 그거야 *해, 버역 못하지. 이르기야 이르지. 윈도~서 조끔 노시앗글으 이르다나이 이르, 일거두 잘 못 이르고[몬니르고] 마알으 모르지, 마알. 어, 자치조합에 촌에 산 게 노시앗말으 잘

모르지. 개 말으 몰라서 그거 잘 번역도 못하고 아, 그래 그저 그랑저랑 땡기면 한 열흘 [한여름] 땡겠지. 아, 기래 각처에서 모든 아:새끼덜 어찌끼 집자한두 야 하익교 **오저 느 아, 두길로메떠나 이래 데지. 그래 그 학교 갖다올적엔 이 아:새끼덜 어찌끼 집자한두 야::! 집자해서 그담 우리 서이 공자애, 우리 공부도 못하고 우리 나이 어리지. 아, 나느 엘예숫살이고 아, 우리 해~이느 엘야툼살이구 이 여자두 엘야툼살이구. 개 새애기지 어 쟈. 아, 기랜게 이게 이 핵교르 우리 부모덜 공부르 시기자. 이 핵교르 땡기다가 아, 우리네 공부두 못하구 우리 야덜께 우리 그저 웃기우구 말겡다구, 우리 그만두자구. 기래 서이 다 그만 뒀어. 그래 글으 더 아이 읽엇지. 기래다나이…….{석탄 파는 데. 응. 석탄 파는 데 그. 그래 우리 아버지는 석탄 옮기는 크레인에서 일하고 우리 어머니는 근처에서 (석탄과 돌을) 가리는 일을 하고 그랬어. 그래 나는 그때 이제 열여섯 살을 먹엇지. 그래 열여섯 살을 먹었는데 그 다음에는 거기로 고려사람들이 많이 왔지. 그래 많이 와서 이제는 학교를 러시아 학교를 가게 되었는데 각, 각 곳에 여러 곳에서 모여 왔지. 그러니 그저 그때는 그저 열일곱 살, 열여덟 살, 열아홉 살, 스무 살 먹은 그런 애새끼들이 가득하지. 그런 애새끼들이 가득한데 우리 셋이 학교를 다니는데 저, 저기, 아, 지금 저, 앓는다는 육촌 언니 내, 또 가까운 것이, 한 동네에서 온 것이, 가까운 것이 우순성이라고 응 셋이. 셋이 학교를, 학교를 다니는데 학교 가서 책은 탕지. 책은 타고 일주일 글을 읽엇지. 그래 일주일 글을 읽는데 아, 글은 수학은 알아도 구학(舊學)을 그거, 러시아글을 모르고 보니 국어랑 국어나 독본(?)이나 역사나 그거 응 해석, 번역을 못하지. 읽기야 읽지. 원동에서 조금 러시아 글을 읽다 보니 읽, 읽어도 잘 못 읽고 말을 모르지, 말. 어, 자치조합에 촌에서 산 것이 러시아말을 잘 모르지. 그래 말을 몰라서 그거 잘 번역도 못하고 아 그래 그저 그럭저럭 다니면 한 열흘 다녔지. 아, 그래 각처에서 모인 애새끼들이 어떻게나 집적거렸는지 응 학교 오자면 아 2킬로미터나 이렇게 되지. 그래 그 학교 갔다 올 적에는 이 애새끼들이 어떻게나 집적거렸는지 야! 집적거리서 그 다음 우리 공장에, 우리 공부도 못 하고, 우리 나이 어리지. 아, 나는 열여섯 살이고 아, 우리 언니는 열여덟 살이고 이 여자도 열여덟 살이고. 그러니 처녀지 뭐. 아, 그런데 이게 이 학교를 우리 부모들이 공부 시키자 (해서) 이 학교를 다니다가 우리네 공부도 못 하고 우리 이 아이들에게 우리 그저 웃음거리가 되고 말겡다고, 우리 그만두자 (했어). 그래 셋이 다 그만 뒀어. 그래 공부를 더 못 했지. 그러다 보니…….}

10201 @ 집자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집자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10201 # 야?{응?}

10201 @ 집자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집자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10201 # 집작한단 말이 우리 자꾸 지껄이짐 야 우리 *지…….{'집자한다'는 말이 우리를 자꾸 집적거리지 뭐 응 우리를 집(적거리).}

10201 @ 그 노시아, 노시아 애들이?{그 러시아, 러시아 아이들이?}

10201 # 고려아:덜이.{고려 아이들이.}

10201 @ 고려아들이?{고려 아이들이?}

10201 # 야::! 노시아 아덜사 아이 지껄이지. 고려아덜으 원도~서 각처서 모닷지, *각. 각처 모드이 거 벼라별란 아덜 다 …….{야! 러시아 아이들이야 안 집적거리지. 고려 아이들은 원동에서 각처에서 모였지, 각처. 각처에서 모이니 그 별나고 별난 아이들 아 다 …….}

10201 @ 선서나 아들이? 선서나 아들이?{머슴아이들이? 머슴아이들이?}

10201 # 고 벼라별란 아덜 가:덜두[뚜] 열야늬살, 열야웁살, 스무살 이러 먹은 아덜 야.{고 별나고 별난 아이들 그 아이들도 열여덟 살, 열아홉 살, 스무 살 이렇게 먹은 아이들 응.}

10201 @ 며, 남, 며시매들이, 남자들?(뉘, 남, 며슴아이들이, 남자들?)

10201 # 야, 남자들 야. 아, 이루 열일곱살[예릴곱쌀] 이릉기 먹은 선스나덜. 우리네 간나덜 다 나이까나 아, 야덜은 무리짓어 많이[마이] 댕기지. 우리 간나 셋밖에덜. 아, 이 간나 르 아 놀라 가자구두 하고. 아, 이 간나, 이 간나아덜으 야 아, 우리, 우리가 집작하지. 혼삿말두 하구 집작하지 야. 그레이까나 우리, 우리 서이 공주 우리 이래다가느 그저 우리 핵교 공부두 못하고 웃기우구 말갯다구 제에뿌리자구. 그래 제에뿌렛어. 그래 제에뿌리고, 제에뿌리고 고레핵고 잇으문 꼭 고레핵교르 가지. 기래 이 까라간다(Караганда)란 데는 고레핵교 없지. 저어:: 저 크즐오르다(КЫЗЫЛОРДА)랑 거기는 고레핵교 잇지. 그애 원도~서 고레대학두 들어오재했어? 야. 아, 기래 없다나이 제에뿌렛다나이 더 공부르 못했지. 공부르 못하구 아, 집에 앓구 잇지. 일 하자이~ 간데마담 매 노시앗사름 까자끄 세새~이지. 까작. 까자끄 **해무 세새~인데 까자끄말으 모르지. 노시앗말으 잘 *못. 기래 두루 두루 그저 대수 알다나이 아, 그담에 기애 내 무슨 일 했는가 식다~에 식다~에서 이룬, 이러, 노나주는 일으 했어. 식다~서 일했다가 예떠(это) …….{응, 남자들 응. 아, 모두 열일곱 살 이렇게 먹은 며슴아이들. 우리네 계집아이들 다 나다니까 아, 이 아이들은 무리 지어 많이 다니지. 우리 계집아이들은 셋밖에. 아, 계집아이에게 놀러 가자고도 하고. 이 계집아이, 이 계집아이들 응 우리에게 집적거리지. 혼삿말도 하고 집적거리지 응. 그러니까 우리, 우리 세 공주 우리 이러다가는 그저 우리 학교 공부도 못 하고 웃음거리가 되고 말갯다가 집어치우자고. 그래 집어치웠어. 그래 집어치우고, 집어치우고 고려학교가 있으면 꼭 고려학교를 가지. 그래 이 카라간다라는 데에는 고려학교가 없지. 저어 저 크즐오르다랑 거기는 고려학교가 있지. 그래 원동에서 고려대학도 들어오지 않았어? 응. 아, 그래 없다 보니 집어치우고 보니 더 공부를 못 했지. 공부를 못 하고 아, 집에 앓아 잇지. 일하자니 가는 곳마다 러시아 사람과 카자흐 사람 세상이지. 카자흐. 카자흐 ** 세상인데 카자흐 말을 모르지. 러시아 말을 잘 못(하지). 그래 두루 두루 그저 대충 알다 보니, 그 다음에 그래 내가 무슨 일 했는가 하면 식당에, 식당에서 이룬, 이렇게 나누어 주는 일을 했어. 식당에서 일했다가 음 …….}

10201 @ 그럼 거기는 러시아 사람 식당이야?(그럼 거기는 러시아 사람 식당이야?)

10201 # 노시앗사람 식다~에서 삭 떠서 일하는 사름덜 와 정슴 먹지. 기앤데 식모 음식 끓에서 그거 내앤데 냄 내 그거 이러 어 빠로이(поровник)나 떠 나 그거 퍼주지. 퍼 놓가주지. 그런 일 해앓어. 그래 그런 일으 그런 일도 어티기 해앓는가 우리 어머니 바느질 잘 하오. 우리 어머니 옴판 원도~서도 옴판 큰 바느질재~애제. 개 우리 어머니 바느질으 하다나 그 멘목(面目)으르 나를 거기다 부챗지. 기래 부쳐 그런 일 해. 기래 거그서 좀 월급두 받구 먹으것두 좀 가져오고 야. 그래 내 제 **섬생테이까나 내 기래 조꿈 이러오. 그담 아버지라 어머니. 그담 우리 와서 야 아, 삼십팔년에 가 아, 오래비 한내 또 낳았어. 우리 두 형제 오래비 네 살 먹은거 가주구 왔지. 아, 그 삼십팔년에 가 아 한내 또 낳았어.{러시아 사람 식당에서 샳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 와 점심 먹지. 그런데 식모가 음식을 끓여서 그거 나한테 내놓으면 내가 그거 이렇게 어, 주걱으로나 떠 놓아 그거 퍼주지. 퍼 나눠 주지. 그런 일을 했어. 그래 그런 일을, 이런 일도 어떻게 했는가 하면 우

리 어머니 바느질을 잘 하오. 우리 어머니 원래 원동에서도 원래 큰 바느질꾼이지. 그래 우리 어머니 바느질을 하다 보니 그 안면으로 나를 거기다 부쳤지. 그래 부쳐 그런 일을 해. 그래 거기서 좀 월급도 받고 먹을 것도 좀 가져오고 응. 그래 내가 자기가 선생이 되니까 내가 그래 조금 이리오. 그 다음 아버지랑 어머니 (이야기). 그 다음 우리 (여기) 와서 응 아, 1938년에 가서 아 남동생 하나를 또 낳았어. 우리 두 자매 남동생 네 살 먹은 것을 데리고 왔지. 아, 그 1938년에 가서 아이를 하나 또 낳았어.}

10201 @ 그럼 뭇 살이야? 그럼 뭇 살 차이나 나? 그때 아때는 뭇 살이야?{그럼 뭇 살이야? 그럼 뭇 살 차이나 나? 그때 할머니는 뭇 살이야?}

10201 # 그때 내 열에숫살[예레숫살] 열일곱살 먹었지.{그때 내가 열여섯 살 열일곱 살 먹었지.}

10201 @ 열일곱살 차이가 나네?{열일곱 살 차이가 나네?}

10201 # 야, 열일곱살 먹었는데.{응, 열일곱 살 먹었는데.}

10201 @ 그럼 애, 그럼 애기나 마찬가지로네?{그럼 아기, 그럼 애기나 마찬가지로네?}

10201 # 야, 그 오래비 떡 낳았는데 우리 어머니 일할라 댕기다나이 그 애기르 볼 데 없어 내 집에서 그 애기르 재래왔지. 그 오래빌 재래왔지. 그래 재래운 게 모스크바(Москва)서 짝 죽재했어? 내 오래비 둘 다 모스크바(Москва)서 죽었어 야.{응, 그 남동생을 떡 낳았는데 우리 어머니가 일하러 다니다 보니 그 아기를 볼 데 없어 내가 집에서 그 아기를 길렀지. 그 남동생을 길렀지. 그렇게 길렀는데 모스크바에서 짝 죽지 않았어? 내 남동생이 둘 다 모스크바에서 죽었어, 응.}

10201 @ 왜?{왜?}

10201 # 앓아서.{앓아서.}

10201 @ 앓아서?(앓아서?)

10201 # 것두 술 먹기 좋아. 아, 간애라그 죽었어. 큰오래비느 술으 먹어두 한갑[항갑]으 지나 죽구 야. 이 오래비느 술 먹기 좋아 마흔살에[마은사레] 죽었어. 그래 둘 다 죽었지. 기래 죽구 내게 오래, 그래 저 덕호 윤개 다 저거 내 오래비라 하지 야~. 하, 그래. 그래 (기침) 기래서 까라간다(Караганда) 와 살다가 까라간다(Караганда) 열매 살았는가이 한해르 살았어. 한해르 살고 삼십팔녀이[삼집팔려이] 대앓어. 삼십칠년에 들와 삼십구여이 대앓어. 삼십구여이 대애 어디르 갖는가이 아, 씨비리아(Сибирь)르 갖어. 옴스카(Омск).{그것도 술 먹기 좋아했어. 아, 간해(肝咳)라고 하는 병으로 죽었어. 큰남동생은 술을 먹어도 환갑을 지나 죽고 응. 이 남동생은 술 먹기 좋아해 마흔 살에 죽었어. 그래 둘 다 죽었지. 그래 죽고 내게 남동(생)이, 그래 저 덕호 윤가(尹哥)가 다 저거 내 남동생이라 하지, 응. 하, 그래. 그래 (기침) 그래서 카라간다 와 살다가 카라간다에서 열마를 살았는가 하면 한 해를 살았어. 한 해를 살고 1938년이 됐어. 1937년에 들어와 1939년이 됐어. 1939년이 되어 어디로 갔는가 하면, 아, 시베리아로 갔어. 옴스크.}

10201 @ 시베리아?{시베리아?}

10201 # 오옴스카(Омск).{옴스크(Омск).}

10201 @ 옴스크 저::기 무진장 추운 데지?{옴스크 저기 무척 추운 데지?}

10201 # 야~. 그 추운 옴스크(Омск)르 아, 우리네 싹 모다 거기 어저느 좋다구 가자:: 해었지.{응. 그 추운 옴스크(Омск)로 우리네 싹 모여 거기가 이제는 좋다고 가자 했지.}

10201 @ 누가 갔어? 그러니까 한 가족만 간 거야?{누가 갔어? 그러니까 한 가족만 간 거야?}

10201 # 아이~, 여라 가정덜이 야. 그레 옴스크(Омск)르 다섯집 한시에 떠났어. 아, 우리 친척두 잇구. 다섯집 한시에 떠나 저 페트로파블로브스크(Петропавловск) 해에서 아, 그 춥운 데 옴스크(Омск) 갔어. 개 옴스크(Омск) 가이까나 우리 받아들입데. 집두 저레 주구 야~. 받도 주구 일도 주고 야~. 기래 어떤 데 가나 핏장 사보드(завод) 가서 피르 친데. {아니, 여라 가정들이 응. 그레 옴스크(Омск)로 다섯 집이 한시에 떠났어. 아, 우리 친척도 있고. 다섯 집이 한시에 떠나 저 페트로파블로브스크를 경유해서 그 추운 데 옴스크(Омск)로 갔어. 그레 옴스크(Омск)를 가니까 우리를 받아들입디다. 집도 바로 주고 응. 받도 주고 일도 주고 응. 그레 어떤 데 가나 벽돌 공장을 가서 벽돌을 찍는데.}

10201 @ 뭐 치는 데?{뭐 치는 데?}

10201 # 야 피르 치는 데. 피르, 피르.{응 벽돌을 찍는 데. 벽돌을, 벽돌을.}

10201 @ 피르가 뭐여?{'피르'가 뭐야?}

10201 # 아 피 무시기 쾰리삐치(кирпич)지. 이 이 이런거. 흠을르 맨들구 그 담엔 고 구웁소. 집우 징는 거.{아 '피'라는 것이 뭐 (러시아 말로) кирпич지. 이 이 이런 거. 흠으로 만들고 그 다음엔 고거 굽소. 집을 짓는 거.}

10201 @ 아! 아! 아! ***비루, ***삐루 짓는 거, 이거?{아, 아, 아 ***, *** 짓는 거, 이거?}

10201 # 야, 야. 그런 데서 아,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 아, 거그서 그 핏장 사보드(завод)서 일하지. 그레 일하문 저레 월급 주는 켜데 개 우리 집두 다아 쫓지. 그래구 우리 거어 가서 집우 잡고 거 가서 사는데 아주 잘 살았어. 어째 잘 살았는가 하면 아, 밭에다 심었는데 아, 그 씨비리아(Сибирь) 옴스크(Омск) 농사 좋아서 야~ 감재느 한 볍우 빼무한 메뜨르씨 나오 야. 그레 우리 감자랑 가뜩 쫓었지. 기래 감자랑 가뜩 쫓구 아, 어머니 아버지 거그서 일하구 월급 받구. 아, 그레 잘 사는데 아, 어저느 야~ 어이구::! 고상도 하기두 했어. 어저느 까자흐스탄(Казахстан)에서 살라우 우리 원도~ **** 까자흐스탄(Казахстан)에서 살란 빠스뽀뜨(паспорт) **따찌 야 내개 왔지. 아, 그랜거 허가 없이 씨비리아(Сибирь)르 갖다고 우리르 까, 다만 까자흐스탄(Казахстан)에 와서 살라 하지. 쓰레드냐아시아(Средняя Азия)만 살라 하지. 그랜거 씨비리아(Сибирь) 갖다구 아, **도방 못 갈라구 우리 아버지 불들어갓어. 우리 아버지. 개 우리 아버지 불들어 가고 아::, 나는, 엘야듭살[예랴듭쌀] 먹은 새아가덜두[뚜] 불들고, 난 그때 엘일굽살이지. 기래 나르 아이 불들어가고 다 불들어. 그때 벨루 그저 무시 엘일굽살두 채 아이 먹었어. 내, 그레 나르 아이 *불, 그레 아버지르 불들어다가서 (기침) 가다옹구 이 식기느 이십사시 어간을르 가꿈 떠나가라 하지. 이십사시 어간으로 가꿈 떠나, 지잘 까라간다(Караганда)르 가라 하지. 지잘 툐구지. 기래 아버지르 불들어가고 그 답에느 아:: 기래 내 엘일굽살으 먹었지. 기랜데 거그서 아, 우리는 우리 어머니 우린 아아덜은 개다나 아, 그저 조꼬만 그거 오래비 여기 와 난 거이, 큰오래비, 내 동새:~ 아 어전 너이지. 기래 아아 너이. 우리 어머니 야아덜 너어 다 가주구 어전 옴스크(Омск) 정거자~으르 나왔어. 정거자~을 나오이[라오이] 그저 사들덜 또 우운게 우린 짐 그저 싹 뜯개. 기래 정거자~으 나와서 거그서 아, 차에다 앉해. 차에다 그저 실어가짐 우리네. 기래 차에 어떤 차에 앉으라구 싹 기래지. 기래, 오:! 빌레뜨(билет)르 떼었어. 빌레뜨(билет)르 떼고. 차표르 떼었어. 기래 떼고 거그다 앉혀서 까라간다(Караганда)로 대비 보냈지. 기래 까라간다(Караганда)로 또 싫게 왔지. 대비. 그애 싫게 와서 우리 어머니 까라간다(Караганда) 와 집우 잡

았지. 아:: 그래 집우, 우리 어머니 집은{응, 응. 그런 데서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가 거기서 그 벽돌 공장에서 일하지. 그래 일하면 바로 월급을 주는 것인데 그래 우리 집도 다 났지. 그리고 우리 거기 가서 집을 잡고 거기 가서 사는데 아주 잘 살았어. 어찌 잘 살았는가 하면 밭에다 심었는데 아, 그 시베리아 옴스크는 농사가 잘 되어서 응 감자는 한 북(=포기)를 빼면(뽑으면) 1미터가 나오오, 응. 그래 우리 감자를 가득 지었지. 그래 감자를 가득 짓고 어머니 아버지가 거기서 일하고 월급을 받고. 아, 그래 잘 살았는데 이제는, 응, 어이구::! 고생도 하기도 했어. 이제는 카자흐스탄(Казахстан)에서 살라고 우리 원동 **** 카자흐스탄에서 살라는 신분증 딱지(=증서(證書))가 내게 왔지. 아, 그랬는데 허가 없이 시베리아로 갔다고 우리를 카, 다만 카자흐스탄에 와서 살라 하지. 중앙아시아에서만 살라고 하지. 그랬는데 시베리아 갔다고 아, 도망 못 가게 하려고 우리 아버지를 붙들어 갔어. 우리 아버지를. 그래 우리 아버지를 붙들어 가고 아 나는, 열여덟 살 먹은 계집아이들도 붙들고, 난 그때 열일곱 살이지. 그래 나를 안 붙들어 가고 다 붙들어 (갔어). 그때는 별로 그저 뭐 열일곱 살도 채 안 먹었어. 내, 그래 나를 안 붙들어갔어. 그래 아버지를 붙들어다 가둬 넣고 이 식구는 24시 사이에 즉시(即時) 떠나 가라 하지. 24시 사이에 즉시 떠나, 바로 카라간다로 가라 하지. 바로 내쫓지. 그래 아버지를 붙들어 가고 그 다음에는 아::, 그래 내가 열일곱 살을 먹었지. 그런데 거기서 아, 우리는 우리 어머니 우리 아이들은, 그렇다 보니 그저 조그마한 그 남동생 여기 와 난 것이며, 큰남동생, 내 여동생, 아이들이 이젠 넷이지. 그래 아이가 넷. 우리 어머니가 이 아이들 넷을 다 데리고 이제 옴스크 정거장으로 나왔어. 정거장으로 오니 그저 사람들이 또 우는데, 우리는 짐이 있는데 그저 싹 쫓아. 그래 정거장을 나와서 거기서 아, 차에다 앉혀. 차에다 그저 실어 가지 뭐 우리를. 그래 차에 어떤 차에 앉으라고 싹 그러지. 그래, 오! 표를 떼고. 표를 뺐어. 그래 떼고 다 거기다 앉혀서 카라간다(Караганда)로 되 돌려 보냈지. 그래 카라간다로 또 실려 왔지. 도로. 그래 실려 와서 우리 어머니 카라간다에 와 집을 잡았지. 아, 그래 집을, 우리 어머니 집은}

10201 @ 아버지는 지금 거기 감옥에 있구?(아버지는 지금 거기 감옥에 있고?)

10201 # 감옥 있고. 그래 감옥 잇는데 췌 없는 사람으 감옥에 그거 하나씩 둘씩 다아 내애보야 데지 야. 개 옴스크(Омск) 잇지. 개 우리 옴스크(Омск) 인데 우리 아버지게는 소옥 빼~이 잇어. 기래 소옥빼~이 잇는데 웨엔 첫감을 어, 뽀 부꾸바(буква)르, 이 우리 노시 앳글르 ‘아(A), 버(B), 버(B), 워(B)’ 이 싹 부꾸바(буква) 잇재이오? 이 부꾸바(буква)르 대해서 그것덜 딱딱 고래 내애보내. 사름 하나씩 둘씩 이릉기 내애보내지. 아, 기엔데 우리는 우린 윤가이까나 부꾸바(буква) 마감애 가 잇재이오 야? 기래 우리 아버지 마감애 오는데 내 그때 야 그 카라간다(Караганда) 칩은, 엔께베테란 데르 거전 매일 땡게도 칩운거 모르고 땡겿지. 엔께베테가 그때 철:으 모르다나이 엔께베테르, 엔께베테란 데느 아, 거 우에 층대르 아무께나 모 올라가. 막 달아올라가오. 어찌 달아올라가는가~이 거그서 만저 온 사름덜께 들으무 우리 아버지는 소옥베~이 잇어서 주루머(Тюрьма)우이 우 주루마(Тюрьма)이란 데느 그, 아, 그런, 물 쭉 툇 떨어지는 그런 데다 우리 아버지 개애다 아, 소옥베~이 잇어 **일얼나 못 나 거:다 열었지. 그래 열이까나 아, 그담엔 우리 아버지진 하룻밤마 더 잇으문 죽겿더라 하지. 나와 우리 사둔가 그렇기 말해. 사두~이랑 이 어제 까짜 오재엿데? 야 아버지가. 그래 말한데 그 소리르 듣구나 야, 야::

지내.{감옥에 있고. 그래 감옥에 있는데 죄 없는 사람을 감옥에서 그거 하나씩 둘씩 다 내놓아야 되지, 응. 그래 옴스크에 있지. 그래 우리 옴스크에 있는데 우리 아버지한테는 속병이 있어. 그래 속병이 있는데 맨 처음을, 어, 러시아 자모(字母, 철자)를, 이 우리 러시아 글로 ‘아(A), 버(В), 버(В), 워(В) ……’ 이런 자모가 짝 있잖소? 이 자모 순서로 해서 그것들이 딱딱 그렇게 내보내. 사람을 하나씩 둘씩 이렇게 내보내지. 아 그런데 우리는 우린 윤가(尹哥)이니까 자모가 마지막에 있잖소 응? 그래 우리 아버지가 마지막에 나오는데 내가 그때 응 그 카라간다 추운, 엔게베데란 데를 그저 매일 다녀도 추운 것을 모르고 다녔지. 엔게베데가 그때 철을 모르다 보니 엔게베데를, 엔게베데란 데는 아, 거 워 층을 아무나 못 올라가. 막 뛰어서 올라가오. 어째 뛰어 올라가는가 하면 거기서 먼저 온 사람들로부터 들으면, 우리 아버지는 속병이 있어서 감옥 위가, 워 감옥이라는 데는 그, 아, 그런 물이 쭈르르 툭 떨어지는 (곳인데) 그런 데다 우리 아버지를 데려다가, 아, 속병이 있어 일어나지 못해 거기다 넣었지. 그래 넣으니까 아, 그다음에는 우리 아버지는 하룻밤만 더 있으면 죽겠더라 하지. 나와 우리 사돈에게 그렇게 말해. 사돈이랑, 이 어제 까 짜가 오잖았데? 응, 아버지가 그렇게 말하는데 그 소리를 듣고 나서 응, 응 너무.}

10201 @ 음::.{음.}

10201 # 엔게베데 막 바라올라가 막 차 두디메 말하오. 아, 우리 옴스크(Омск)르 가, 갖는데 우리르 거 가서 우리르 받아들엿지 야. 받아들이고 뿌리마(премия)르 헨 무슨 켈루 감옥에 영고 우리 아재존(отец-н) 상세난 데 좀 내놓재인가. 녀:: 기애 야:: 내 그때 잊어아이져. 드바찌뜨레찌까보냐 아바끼로브라구 그런 사름이. 저쪽에 주루만(тюрьма)서 내놓은 사름은 꼬발리오바라고 그래지. 괴란데 그, 그, 아바끼로방 그, 이 나찰리닉(начальник)에 들어가 너엄 기래 *해아 하이까나 이 사름 아, 거: 내애놓는 사름이게네 전하 [저나]르 하지. 이런 사름이 왔음 내애놓으라구[내애노라구]. 아, 내애놓으라[내애노라] 하이 와야 내놓지. 유 부꾸바(буква), 유개다 레마 옴스크(Омск)서 아이 왔지. 옴스크(Омск)서 오무 인차 인차 놓지 야. 그래고 그담에느 아, 그래, 이, 그래 이래 날마지구 엔게베데 야:: 그저 뺨::하짐 거. 거저 거, 엔게베데 날마 대며 그 아부지르 내 모 와서 그러다 마감울르 아부지 떡 나왔지. 기애 아버지 나와 어전 이런기 이리저. 아, 그래 얹아서 일으 못 하이 까쨌르(катер)다 걸어영다가 그담엔 병원에 가, 배우이 확실히 속베~이 있지. 기래 속~베이 있어 체질이 있어. 그래 속베~이 이시이꺼나 아, 어전 무승 식다~에 가서 야 아, 감재도 짚구 음식 그런거 이시이 야. 그래 식다~에 들어가서 감자도 짚고 이런 이런 일으 하이꺼나 배부르게 많이[마이] 잡숫구 고새~ 없구 그랬지. 그래다가 석달만에, 석달만에. 개 우린 먼저 완:데 개 우리 아버지진, 다른 사람 한달만에 나와. 달반만에. 두달만에. 우리 아버지 석달만에.{엔게베데 막 높은 곳으로 애써 올라가 막 발로 차 디디메 말하오. 아, 우리 옴스크로 가 갔는데 우리를, 거기서 우리를 받아들엿지 응. 받아들이고 장려를 했는데 무슨 죄로 감옥에 넣고 우리 아버지는 죽는데 좀 내놓지 아니하는가. 너무 그래 응 내가 그때가 잊히지 않아. 드바찌뜨레찌까보냐 아바끼로브라구 그런 사름이 저쪽에 감옥에서 내놓는 사름은 꼬발리오바라고 그래지. 그런데 그, 그, 아바끼로브 그 사름이 이 우두머리(책임자)에게 들어가 너무 해 놓으니까(항의를 하니까) 이 사름이 거 내놓는(석방하는) 사람에게 전화를 하지. 이런 사름이 왔으면 내놓으라고(석방하라고). 아, 내놓으라 하니 와야 내놓지. 유(Ю) 자(字), 이름이 유(Ю)로 시작하는 사람을 석방하라고 해야 하는데 옴스크서 안 왔지. 옴스크에서 오면 이내 이내 내놓지 응. 그리고

그다음에는 아, 그래, 이, 그래 이렇게 날마다 엔께베데 응 그저 빠하지 뭐 그저. 그저
 엔께베데 날만 되면 그 아버지를 내가, 아버지가 못 와서,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아버
 지가 떡 나왔지. 그래 아버지가 나와 이젠 이런 것이 이렇지. 아, 그래 앓아서 일을 못
 하니 배[舟]에 거두어 넣었다가 그다음에는 병원에 가 보이니(=진찰을 받으니) 확실히
 속병이 있재. 그래 속병이 있어 체질이 있어. 그래 속병이 있으니까 이젠 무슨 식당에
 가서 응 감자도 깎고 음식 그런 것 있으니 응. 그래 식당에 들어가서 감자도 깎고 이런
 이런 일을 하니까 배부르게 많이 잡숫고 고생이 없고 그랬지. 그러다가 석 달만에, 석
 달만에. 그래 우리는 먼저 왔는데, 그래 우리 아버지는 (그랬는데), 다른 사람은 한 달만
 에 나와. 달 반만에, 두 달만에. 우리 아버지는 석 달만에.}

10201 @ 맨 마감이.(웃음).{맨 마지막에. (웃음).}

10201 # 야. 에 유우개 대서. 서~이 유개 대서. 아, 기래 그담에느 기래 마감에 온데 그래 아
 버지가 오~이 옛말 했지. 개 아버지가 식솔 다 모드이 옛말. 기래 옛말해아서 아부지두
 삭두질 일하구 어머니도 하고 난 집에서 그 작은오래비 재래왔지. 개 재래오다나 그저
 글도 못이르구[몬니르구] 그저, 그저 그래구 말았지. 기래다 스무살으 먹으이 시집갔지
 야~.{응. 에 유(Ю) 가(哥)가 돼서. 성이 유(Ю) 가(哥)가 돼서. 아 그래 그담에는 그래 마
 지막에 왔는데 그래 아버지가 오니 지난일을 말했지. 그래 아버지와 식솔 다 모이니 옛
 말을 했지. 그래 옛말해서 아버지도 삭도(索道)질하고 어머니도 하고 난 집에서 그 작은
 남동생을 길렀지. 그래 기르다 보니 그저 공부도 못 하고 그저 그저 그러고 말았지. 그
 러다 스무 살을 먹으니 시집갔지 응.}

10203 @ 거기, 거기서?{거기, 거기서?}

10203 # 야. 까라간다(Караганда)서.{응. 카라간다에서.}

10203 @ 까라한다서?{카라간다에서?}

10203 # 거기 또 금점 있어. 저어 저 금점 있어. 그애 그 금점이란테르 우리 우리 육촌혜~이
 잇재이오? 우리 육촌혜에 아 어마이 육촌혜~이느 아부지르 모르코 세살에 애비르 때왔
 어. 기래 그 어마이 테리고서르 금점에 돈벌이[돛빠리] 좋다 해 또 거기르 갔지. 기래
 거어 가서 돈벌이[돛빠리] 좋다 거어 가이까나 거어 가이까나 내 저 육촌혜~이가 내 같
 이[가치] 자랐어. 원도~서 한집에. 같이, 같이 자라구. 그 혜~이 가서 아, 서르가라 펜지
 글으 하매 아, 난 또 그 오래 하는 데르 갔어. 그래 거어 가서 이 아이덜 아부지르 만났
 는데 개 그 아부지르 만나 나는 어전 까라간다(Караганда)로 왔어. 기래 어전 거어 가
 서 오구. 아, ***주차 아덜 아부지 아, 까라간다(Караганда) 우리 부모 든:데 혼삿말 와
 서 혼새르 허락허구[허라허구] 우린데서 잔체르 하고 또 거기르 갔지. 거어 가 잔체. 기
 애 내 분시없는 사름이. 아, 기래 거어 가이까나 석, 가서 내 석달만에 가 스혜 떡 상세
 났어, 스~혜.{거기 또 금점(金店)이 있어. 저어 저 금점이 있어. 그래 그 금점이란 데를
 우리 우리 육촌언니가 있잖소? 우리 육촌 언니의 어머니, 육촌언니는 아버지를 모르코
 세 살에 아비를 잃었어. 그래 그 어머니를 테리고서 금점에 돈벌이 좋다고 해서 또 거기
 를 갔지. 그래 거기 가서 돈벌이 좋다 해서 거기 가니까, 저 육촌언니와 내가 같이 자랐
 어. 원동에서 한 집에서. 같이, 같이 자라고. 그 언니가 가서 아 서로서로 편지글을 주고
 받으며 아, 난 또 그 오라(?) 하는 데를 갔어. 그래 거기 가서 이 아이들의 아버지를 만
 났는데, 그래 그 아버지를 만나 나는 이제 카라간다로 왔어. 그래 이젠 거기 가서 오고.
 아, ** 저 아이들 아버지, 아, 카라간다 우리 부모가 계신 데로 혼삿말이 와서 혼사를 허

락하고 우리 있는 데서 잔치를 하고 또 거기를 갔지. 거기 가 잔치를 했어. 그래 내가 분복(分福)이 없는 사람이지. 아, 그래 거기 가니까 석, 가서 내가 석 달만에 가 시형(媳兄)이 딱 돌아가셨어, 시형이.)

10205 @ 승혜가 누구여?{'승혜'가 누구야?}

10205 # 스혜. 남편이 허~이.{시형(媳兄). 남편의 형.}

10205 @ 아, 아:. 스혜:.{아, 아. 시형.}

10205 # 남편이 만재 스혜. 그래 스혜 딱 상세나이 아, 그 우리 스, 동새라는거는 야~. (갑자기 언성을 높이며) 이것 다 내것마야 싹 쓰오.{남편의 첫째 형. 그래 시형이 또 돌아가시니 아, 그 우리 동생이라는 것은 응. (갑자기 언성을 높이며) 이것 다 내 것만 싹 쓰오 (나에 관한 것만을 쓰오).}

10205 @ 예, 괜찮아요. 일없어요.{예, 괜찮아요. 괜찮아요.}

10205 # 야:! 어인 말을, 이 원도~에서.{야! 어찌 된 말을. 이 원동에서.}

10205 @ 그래가지고?{'그래가지고?}

10205 # 글썽 원. 그래 그거 (기침) 우리 스혜 상세나이 우리 동세는 야~ 아, 그 석달 데 다른 남편하오. 다른. 석달, 남편이 상세나 석달 다 다른 남편하이 나는 시어마이 한낼 시어마이 모시지. 시어마이 모시구 이래 살다가서.{글썽 원(동에서). 그래 그거 (기침) 우리 시형이 돌아가시니 우리 동서는, 응, 그 석 달이 되어 다른 남편을 얻소. 다른. 석 달, 남편이 죽어 석 달이 되니 다른 남편을 얻으니 나는 시어머니 한 분을, 시어머니를 모시지. 시어머니 모시고 이렇게 살다가.}

10205 @ 아, 공계 그, 그, 저 뭐야, 순위에 그 뭐야, 그, 저, 저, 저, 동서가, 동서가 바로{아, 그러니까 그, 그, 저 뭐야, 순위에 그 뭐야, 그 저, 저, 저, 동서가, 동서가 바로}

10205 # 동서가 ***출루 다른 남편인데 갔지. 기래 가고 아: 서이지. 세 노이. 새아간 두울 테리구 가구 선스나 한내 잊지. 야야노 아이 가갸다 하지 거길. 예, 이붓애빈[이부대빈] 테르 아이 가구. 그때 네살이오. 개 내 아 하냥도 내 아 아 없소. 기래 없는데 그다음 야야는 네살인게 내가 같이[가치] 살았어. 야 내 재래왔어. 지금 따스켄뜨 있어. 가아 내 재, 그 시조카 내 재래온게. 개 내 재래와서 야아르 재래오메 아, 차차 또 기래 저 만아들이 낫지. 기래 만아들이 그 둘째안, 그저 딸이 그저 이래. 그래 아, 가아{동서가 ** 다른 남편에게로 갔지. 그래 가고 아이 셋이지. 세 놈이. 계집아이는 둘을 테리고 가고 며슴아이 하나가 있지. 이 아이는 안 가갸다 하지 거기를. 예, 의붓아비한테로 안 가고. 그때 네 살이오. 그래 내 아이가 하나도, 내 아이 아이가 없소. 그래 없는데 그다음 이 아이는 네 살인데 나와 같이 살았어. 이 아이를 내가 길렀어. 지금 타슈켄트에 있어. 그 아이 내가 길(렀는데), 그 시조카 내가 길렀는데, 그래 내가 길러서, 이 아이를 기르며 아, 차차 또 그래 저 만아들이 태어났지. 그래 만아들, 그 둘째아들, 그저 딸이 그저 이렇게 태어났지. 그래 아, 그 아이}

10205 @ 그면은 그 셋, 그 스어미허구 같이 있었어?{'그러면 그 셋, 그 시어미하고 같이 있었어?}

10205 # 시어마이 같이[가치] 잇엇짐 야~. 개 우리 시어마이 그렇기 마음이 곱지. 그래 시어마이 예순똥에 상세났어. 우리 시엄머이 예순네에 상세나. 아, 예순네에 상세나고 우리{시어머니 같이 있었지 뭐, 응. 그래 우리 시어머니 그렇게 마음이 곱지. 그래 시어

머니 예순 넷에 돌아가셨어. 우리 시어머니 예순 넷에 돌아가셨어. 아, 예순 넷에 돌아가
시고 우리 …….)}

10205 @ 스아바이는?{시아버지는?}

10205 # 야~?{응?}

10205 @ 스아바이는? 시아바이는?{시아버지는? 시아버지는?}

10205 # 시아바이는:: 아 벌써 오십구년에 상세났어. 따슈켄(Ташкент)서 상세났어. 개구 시
어마인 좀 더 오래있다 상세났지. 개구 저 시조카 내 모스끄바(Москва)도 굴이라 일겠
지. 그랬어. 그래고 아, 그담 우리 아버지는 오십칠년에 상세나구. 아::, 우리 오십팔년에
는 오십구년에 여그로 왔어. 비슈께(Бишкек)로 왔어, 따슈켄(Ташкент)서. 그래 비슈
께(Бишкек) 여그 와서 살.{시아버지는 아 벌써 1959년에 돌아가셨어. 타슈켄트에서
돌아가셨어. 그리고 시어머니는 좀 더 오래 있다 돌아가셨지. 그리고 저 시조카 내 모스
끄바에서도 공부를 시켰지. 그랬어. 그리고 아, 그다음에 우리 아버지는 1957년에 돌아
가시고. 아, 우리 1958년에는, 1959년에 여기로 왔어. 비슈케크로 왔어, 타슈켄트에서.
그래 비슈케크 여기 와서 살(고).}

10201 @ 그때부터는 인제 마음대로 왔다갔다 해도 됐어?{그때부터는 이제 마음대로 왔다 갔
다 해도 했어?}

10201 # 맘:대르, 그때사 맘대르.{마음대로, 그때야 마음대로.}

10201 @ 땃, 땃년도부터 맘대로 왔다갔다 할 수 있었어?{땃, 땃 연도부터 마음대로 왔다 갔
다 할 수 있었어?}

10201 # 아, 그양 마음대르 땃겠지. 가즈 이렇지. 가즈 질이 맥혀.{아, 그냥 마음대로 다녔지.
최근에 이렇지. 최근에 길이 막혔지.}

10201 @ 근데 그 움스크만 그때만, 그때만 움스크만 못 가게 됐어?{그런데 그 움스크만 그
때만, 그때만 움스크만 못 가게 됐어?}

10201 # 야::! 움스크(Омск)사 씨비리야(Сибирь) 애이오? 씨비리(Сибирь). 움스크(Омск)는
씨비리야(Сибирь)고. 우리 *쓰, 이기다 쓰레드냐아시아(Средняя Азия) 애이오? 쓰레드
냐아시아(Средняя Азия)는 암테나 가라 하지 야. 야 쓰레드냐아시아(Средняя Азия)는
암텔 가나 일없지.{야! 움스크(Омск)야 시베리아가 아니오? 시베리아. 움스크는 시베리
야고 우리 중(양아시아), 여기가 다 중앙아시아 아니오? 중앙아시아는 아무테나 가라고
하지, 응. 응, 중앙아시아는 아무 테를 가나 괜찮지.}

10201 @ **쓰레니아가 뭐여?{‘쓰레니아(=중앙)’가 뭐야?}

10201 # 쓰레드냐아시아(Средняя Азия)란 게 따시켄:뜨(Ташкент), 까자그스판:(Казахста
н), 알마:따(Алмаата), 끼르기스판:(Кыргызстан), 따지끄스판:(Таджикистан), 이거
씩 쓰레드냐아시아(Средняя Азия)짐.{중앙아시아라는 게 타슈켄트, 카자흐스탄, 알마티,
끼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이게 다 씩 중앙아시아지 뭐.}

10201 @ **쓰레니 아시아?{중앙아시아?}

10201 # 야. 쓰레드냐아시아(Средняя Азия)고 그담엔 나머지는 싹 어로시아지[ərosiaɕi].
로시아. 원동도 로시아. 개 로시아이꺼나 아, 어로시아[ərosia]로 가지 말고 그담엔 삼너
이 지나가 다 뺏어졌어 어저느.{응. 중앙아시아고 그 다음엔 나머지는 싹 러시아지. 러시
야. 원동도 러시아. 그래 러시아니까 아, 러시아로 가지 말고(러시아로 갈 수 없고), 그
다음에는 삼년이 지나가니 (그 금지 사항이) 다 해제되었어. 이제는.}

10201 @ 음, 러시아도 인자 일없어졌 ……?{음, 러시아도 이제 괜찮아졌(어)?}

10201 # 야. 노시아 가, 아, 그래서 어, 우리 따스켄(Ташкент)서 **다름이 원도:~로 얼마르 [olmeri] 간가 아오? 원도:~ 대비 싹 갔어. 야~ 대빌 싹 갖짐 야~.{음. 러시아도 가, 아, 그래서 어, 우리 타슈켄트에서 사람이 원동으로 얼마나 갔는지 아오? 원동으로 도로 싹 갔어. 응. 도로 싹 갔지 뭐, 응.}

10201 @ 많은 사람들이 원동으로 갔어?{많은 사람들이 원동으로 갔어?}

10201 # 많은 사름덜 원도:~ 가. 지금 원도~오 가 많이[마이] 사오. 야~. 원도~에 많이[마이] 있지. 갠계 원도~ …… 농사 달아야 데. 어떨 적에는 바름이라는 게 에떠(это) 비 자꾸 와 마해. 또 가물어 승녀 따이푸~(тай фун)이라 그런 게 와 아이 데 야~{많은 사람들이 원동으로 가. 지금 원동을 가 많이 사오. 응. 원동에 많이 있지. 그런데 원동 …… 농사를 지어야 돼. 어떨 적에는 바람이라는 것이, 음 비가 자꾸 와 장마가 저. 또 가물어 흥년(이 들고), 타이폰(=태풍)이라는 그런 것이 와 농사가 안 돼, 응.}

10201 @ 근데 원동이:: 살기가 여기보다 좋아?{그런데 원동이 살기가 여기보다 좋아?}

10201 # 원도~이, 원도~이, 원도~서, 아, 태어나서 원도~ 살다나이 그기[kixi] 우리 고힐~이지 야~. 고힐~이고. 그리고 아, 살기느 여긴 낫다하지. 여그 어찌 낫은가 하이 야~ 그래 원도~이 공기랑 좋지, 공기랑. 여그느 어찌 좋은가 아, 우리 농사질으 하는 사름덜은 야~ 아, 농사르 비르 아이 기다리우. 천치이 무우 밭에다 대애짐. 지금 수박질하는 게 싹 무울으 대애짐. 대애다나이 승풍녀~이 없지. 승녀이 없고 풍녀이 없고. 개 낫게 살짐. 낫게. 여그, 여그, 여그터러 낫게 살아~{원동이, 원동이, 원동에서, 아, 태어나서 원동에서 살다 보니 그게 우리 고힐이지, 응. 고힐이고. 그리고 아, 살기느 여기는 낫다 하지. 여기가 어찌 나온가 하니 응 그래 원동이 공기랑 좋지, 공기랑. 여기는 어찌 좋은가 하니 아, 우리 농사를 짓는 사름들은 응 아, 농사를 짓는데 비를 안 기다리오. 천천히 물을 밭에다 대지 뭐. 지금은 수박 농사를 짓는데 물을 싹 물을 대지 뭐. 물을 대다 보니 흥년과 풍년이 없지. 흥년이 없고 풍년이 없고. 그래 낫게 살지 뭐. 낫게. 여기, 여기, 여기처럼 낫게 살아.}

10201 @ 그럼 여기 와서는 뭐했어 인젠, 여기 와선?{그럼 여기 와서는 뭐했어 이제, 여기 와서는?}

10201 # 여그 와서, 아::.{여기 와서, 아.}

10201 @ 오십팔년에 여기 오셨어요?{1958년에 여기 오셨어요?}

10201 # 어, 이 키르기시야 늦어 왔지. 오십구년에 왔지. 끼르기즈느 오십구년에 오고. 그러고 삼십팔년에 저, 저어끼리 저 옴스크(Омск) 갔다 뜯기와왔지 야. 그랬어. 기래고 오십년도에 따시켄트(Ташкент)르 왔어. 취잭(чужак)이사 따시켄트(Ташкент)에 잇짐. 오십년도에 따시켄(Ташкент). 우리 스펠네랑. 내 페~이 시페~이 싹 따시켄트(Ташкент)에 있지. 기래 서르가라 기라 따스켄(Ташкент)서 또 객차에 열사을 동안 오, 열사을으 왔어~{어, 이 키르기스스탄이야 늦게 왔지. 1959년에 왔지. 키르기스스탄은 1959년에 오고. 그러고 1938년에 저, 저희끼리 옴스크를 갔다가 쫓겨 왔지, 응. 그랬어. 그리고 1950년도에 타슈켄트로 왔어. 낫선 사람이야 타슈켄트에 있지 뭐. 1950년도에 타슈켄트에 왔지. 우리 시집 편(시택 쪽), 내 편(=친정), 시택이 싹 타슈켄트에 있지. 그래 서르서로 그래 타슈켄트에서 또 객차로 열사을 동안 오(고), 열사을을 왔어.}

10201 @ 따슈켄트서 어디로? 여기까지?{타슈켄트에서 어디로? 여기까지?}

10201 # 까라간다(Караганда)서.{까라간다(Караганда)에서.}

10201 @ 까라간다서 어디로?{까라간다에서 어디로?}

10201 # 그 까라간다(Караганда)르 우리…….{그 까라간다(Караганда)를 우리…….}

10201 @ 까라간다는:: 따슈켄트도 더 지나가는 거야?{까라간다는 따슈켄트도 더 지나가는 거야?}

10201 # 까라간다(Караганда)는 까사흐스따(Казахстан)이 알마따(Алмаата)르 지나가는 거야.{까라간다는 카자흐스탄이 알마티를 지나가는 거야.}

10201 @ 알마따를 지나가?{알마티를 지나가?}

10201 # 야, 야, 야, 야~. 그런거. 그래 그 까라간다(Караганда)서 열사흘 또~아느 객차에 앉아서 따스켄트(Ташкент)로[ro] 왔어. 기애 따스켄트(Ташкент)로 와서 친척덜 싹 만나. 싹 만나 친척덜 다 만나고 그땀도 자치 꼴호즈(колхоз)에 잇었지. 개 자치 꼴호즈(колхоз) 잇다:서 내 그 아 때부터 부실하지. 기래 부실해 앓으이꺼나 아:: …….{응, 응, 응, 응. 그런 거. 그래 그 까라간다에서 열사흘 동안은 객차에 앉아서 따슈켄트로 왔어. 그래 따슈켄트로 와서 친척들을 싹 만나. 싹 만나 친척들 다 만나고 그 다음에도 자치 꼴호스에 잇었지. 그래 자치 꼴호스 잇다가 내가 그 아이 때부터 부실하지. 그래 부실해서 앓으니까 아 …….}

10201 @ ‘부실해 앓다’는 게 무슨 말이야?{‘부실해 앓다’는 게 무슨 말이야?}

10201 # 약하짐, 약해. 자꾸 즈끈하문[즈끄나문] 앓짐 야. 기애 앓으이꺼나 아:, 우리 부모덜이 이, 이 따스켄트(Ташкент)느 모질이 덤운 **곧으, 이 키르기스판은 그룽기 아이 덤소. 기래이꺼나 이 키르기스판은 비슈케크(Бишкек)느 저 따슈켄(Ташкент)마 공기 낫지. 개 공기 **낫도 여기르 가자:!! 그래 우리 호새비랑 싹 여기 딱 따라왔지. 그래 오십구년에 왔어 우리. 오십구년에 온기 이때까지 우리 토백이야 이때까지 잇어.{몸이 약하지 뭐, 약해. 자꾸 걸핏하면 앓지 뭐, 응. 그래 앓으니까 아, 우리 부모들이 이, 이 따슈켄트는 몹시 더운 곳인데, 이 키르기스스탄은 그렇게 안 덤소. 그랬는데 이 키르기스스탄의 비슈케크는 저 따슈켄트보다 공기가 낫지. 그래 공기가 낫다고 여기로 가자! 그래 우리 남편이랑 싹 여기로, (남편을) 딱 따라왔지. 그래 1959년에 왔어, 우리. 1959년에 온 게 이때까지 우리 토박이로 이때까지 잇어.}

10201 # 무, 무슨 여자 와선 날 또 찾 …….{어떤 여자가 와서는 날 또 찾 …….}

10201 # 옴스크(Омск) 갔다 뜯게와 와서, 기래 거그 살던거.{옴스크(Омск) 갔다가 쫓겨와서 그래 거기 살던 거.}

10201 @ 그래갖고 인자 시, 시집갈 때까지. 시집을, 시집을 갈 때까지 **했기.{그래갖고 이제 시, 시집갈 때까지. 시집을, 시집을 갈 때까지 했지.}

10201 # 냐::~. 옴스크(Омск) 갔다와서 그래 와 잇다 한해: 삼십칠년, 삼십팔년에 옴스크(Омск) 갔다와선 뜯게왔지. 그애 어전 쫓아와서 있으이 두루두루 어전 기래 지나가이까 어전 이십살 대엿지. 이십살 대에 시집갔지. 시집가서 내 그랫잖데? 금점에 가 저런 사람 만나 기래 시집갔는데.{응. 옴스크 갔다 와서 그래 와 잇다가 한 해 1937년, 1938년에 옴스크 갔다 와서는 쫓겨 왔지. 그래 이젠 쫓아 와서 있으이 두루두루 이젠 그렇게 지나가이까 이제 스물 살이 됐지. 스무 살이 돼 시집갔지. 시집가서 내 그러지 앓던가요? 금점(金店)에 가 저런 사람(=남편)을 만나 그래 시집갔는데.}

10201 @ ‘금점’이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에요?{‘금점’이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에요?}

10201 # 금점[금점]이란 게 금우, 금으 하는 그런.{금점이란 게 금을, 금을 하는 그런.}

10201 @ 금오 파는 데?{금을 파는[堀] 데?}

10201 # 야. 그런 게 원도~에 잇었지 야. 아! 까라간다(Караганда)에 잇었지. 까라간다(Караганда).{응. 그런 게 원동에 잇었지, 응. 아! 카라간다에 잇었지. 카라간다.}

10201 @ 까라간다는:: 까라간다는 …….{카라간다는 카라간다는…….}

10201 # 까라간다(Караганда)는 그 까자그스탄(Казахстан), 까자그스탄(Казахстан), 까자그스탄(Казахстан), 까자그스탄(Казахстан)이지.{카라간다는 그 카자흐스탄, 카자흐스탄, 카자흐스탄, 카자흐스탄이지.}

10201 @ 까자그스탄에서 저, 저, 뭐야, 그 우즈베키스탄 쪽으로 더, 더 가까워?{카자흐스탄에서 저, 저, 뭐야, 그 우즈베키스탄 쪽으로 더, 더 가까워?}

10201 # 야~?{응?}

10201 @ 그 알마타 지나서?{그 알마티 지나서?}

10201 # 알마따(Алмаата) 지나서.{알마티 지나서.}

10201 @ 얼마나 가?{얼마나 가?}

10201 # 알마따(Алмаата) 지나서: 뿔 소뜨까(сотка)르 가는둥. 알마따(Алмаата) 그게 다, 알마따는 수부지. 수부고 아, 까라간다(Караганда)는 큰 도시요. 까라간다(Караганда)서 석탄 싹 파내지. (기침) 까라간다(Караганда)야 석탄과~이지. (말을 바꾸어) 기래 행 불이 아이 들었어?{알마티 지나서 뿔 소뜨카를 가는지. 알마티 그게 다, 알마티는 수부(首府, =수도)지. 수도이고 아, 카라간다는 큰 도시요. 카라간다에서 석탄을 싹 파내지. (기침) 카라간다야 석탄 광산이지. (말을 바꾸어) 그래 감기 안 들었어?}

10201 @ 예.{예.}

10201 # 잘됐어. 아이 들무. 나도 그저 그러하오. 내 저런 자알 자꾸 먹지 야. 그래고 (기침) 에따(это).{잘 됐어. 감기 안 들면 나도 그저 그러하오. 내 저런 장(醬, 醬物=국)을 먹지 응. 그리고 (기침) 음.}

10201 # 그래 아, 기래 까라간다(Караганда)는 큰 수분데 까라간다(Караганда)에 아, 내 ……{그래 아, 그래 카라간다는 큰 수도인데 카라간다에 아, 내 …….}

10201 @ ‘수부’라는 말은 무슨 말이야? 수푸?{‘수부’라는 말은 무슨 말이야? 수푸?}

10201 # 수부라는게 스펠리짜(столица)지. 스펠리짜(столица)라는 거는 아::, 알마::따(Алмаата)나:: 아스타나(Астана)는:: 아, 에따(это) 자치공화국이지 야. 서울이나 이리(или) 서울이나 이렇지. 그라구 알마따(Алмаата)나 알마따(Алмаата) 아스타나(Астана)란테로 옹게[옹게] 갖지. 그래 아스타나(Астана)란게 그게 지금 …….{수부라는 게 스펠리짜(столица, =수도)지. 스펠리짜(столица, =수도)라는 것은 아, 알마티나 아스타나(Астана)는 아, 음 자치공화국이지, 응. 서울이나 또는 서울이나 이렇지. 그리고 알마티나, 알마티에서 아스타나라는 데로 옮겨 갔지. 그래 아스타나라는 데가 그게 지금 …….}

10201 @ 수도지?{수도지?}

10201 # 야. 스펠리짜(столица)지. 그애 스펠리짜(столица), 까라간다(Караганда)라는 거는 큰: 도시요, 까라간다(Караганда)에 오블라스찌(область) 가약 그런게 많지. 많안데 우리 까라간다(Караганда) 어떠한 한 촌으로 실어왔지, 우리르. 개 실어와 까라간다(Караганда)로 우리 재빌루 왔지. 개 재빌루 와서 옴쓰(Омск)두 가구 여기두 가구. 기래 옴쓰(Омск) 갖다 뜯게에 까라간다(Караганда) 사다 그담엔 이리 따시켄뜨(Ташкент)로

재빌루 왔지. 친척이 잇으이 재빌루 왔지. 기래 재빌루…….{응. 수도(首都)지. 그래 수도, 카라간다라는 것은 큰 도시오, 카라간다에 주(州)가 각(各) 곳에 그런 것이 많지. 많은데 우리는 카라간다의 어떠한 한 촌으로 실어 왔지, 우리를. 그래 실어와 카라간다 시로 우리가 스스로 왔지. 그래 스스로 와서 옴스크도 가고 여기도 가고. 그래 옴스크 갔다가 쫓겨 와 카라간다에서 살다가 그 다음에는 이리 타슈켄트로 스스로 왔지. 친척이 잇으니 스스로 왔지. 그래 스스로…….}

10201 @ 따시켄트도 까자그스탄이지?{타슈켄트도 카자흐스탄이지?}

10201 # 아이, 건 우즈벡스탄(Узбекистан).{아니, 그건 우즈베키스탄(Узбекистан).}

10201 @ 우즈벡스탄.{우즈베키스탄.}

10201 # 야~ 건, 어, 야. 어. 건, 그거는 야~ 우즈베크, 우즈베크란 민족이 우즈베키스탄(Узбекистан). 까사그스탄(Казахстан)에는 까사끄란 민족이:: 까사끄스탄. 여기는[yɔgini] 끼르기시 민족이 사이 끼르기스스탄. 기르기스스탄이짐 야. 야~. 기래. 음. 그런데 까자그스탄(Казахстан)에는 인구가, 내 알았는데.{응 그건, 어, 응. 어. 그건, 그거는 응 우즈베크, 우즈베크라는 민족이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에는 카자흐라는 민족이 있어 카자흐스탄. 여기는 키르기스 민족이 사니 키르기스스탄. 키르기스스탄이지 뭐, 응. 응. 그래. 음, 그런데 카자흐스탄에는 인구가, 내가 알았는데.}

10201 @ 까자흐스탄?{카자흐스탄?}

10201 # 많이[마이] 사지 조선사람이. 자! 아옴, 아옴천, 어 구백 얼만데 그렇기 많이[마이] 사오. 내 쫓 잇었아. 내 저 신문옴 아옴천 구백 그렇기 많이[마이] 살구. 여기야 모두 스물두천이 사지, 여기야.{많이 살지 조선 사람이. 자! 9, 9천, 어 9백 얼마인데 그렇게 많이 사오. 내가 쫓 잇었어. 내 저 신문에서 봤는데 9천9백 그렇게 많이 살고. 여기야 모두 2만 2천이 살지. 여기야.}

10201 @ 구십천, 구십천? 구십천?{9만, 9만? 9만?}

10201 # 아, 구천 구백. 그렇기 많이[마이] 사오, 까자그스탄(Казахстан). 그 많이[마이] 사는 데르 한국에서 어티기 거기 사는 사람, 구천구백 어때 살아두 이런 아이들사 아이 주지. 이런 내같은 나 잇는 거 주지, 돈으 야~. 아, 그애 돈. 그룽기 많안거 어티기 거 서울에서, 거 서울에서 자기 인민으 어티기 크게 헤긴 헤는가 봐 야. 그 자기 인민으 크게 헤기 때문에 자기 인민[인민]덜이 우리 원도~서 올적에 집이랑, 집에, 집 가사에 물론 미시기 잇는 거 싹 데뻬지. 싹 두고 아::, 즘승개는 아 사홀 어간을르 준비르 하느레 즘승 대에지 잇는 집은 대에지르 잡아 가주 오고, 세: 잇는 집도 세: 잡아가져 오고. 그 한달 동~안 오매 먹자고. 그라고 우리는 (기침) 다아 데디고 옷이나 이불짐이나 그릇이나 먹을 그릇이나 다 가조고왔지, 거그서. 그래 가주고 아, 그거, 그, 가, 가축 차랴~에 앓아왔지. 그래 한달 동안으 거그서 먹으매 싹알이나 먹을거, 싹 …….{아, 9천9백. 그렇게 많이 사오, 카자흐스탄에. 그 많이 사는 데를 한국에서 어떻게 거기 사는 사람, 9천9백 얼마가 살아도 이런 아이들이야 안 주지. 이런 나 같은 나이 잇는 사람에게 주지, 돈을, 응. 아, 그래 돈. 그렇게 많은 거 어떻게 거 서울에서, 거 서울에서 자기 인민을 어떻게 크게 헤아리긴 헤아리는가 봐, 응. 그 자기 인민을 크게 헤아리기 때문에 자기 인민들이 우리 원동에서 올 적에 집이랑, 집에, 집 가사(家事)에 물론 무엇이 잇는 거 싹 버렸지. 싹 두고 집짐승은, 사홀 사이에 떠날 준비를 하느라 짐승 돼지 잇는 집은 돼지를 잡아 가지고 오고, 소가 잇는 집도 소를 잡아 가지고 오고. 그 한 달 동안 오며 먹자고. 그러고 우리

는 (기침) 다 버리고 옷이나 이불 짐이나 그릇이나 먹을 그릇이나 다 가지고 왔지, 거기서. 그래 가지고 그거, 그, 가, 가축 차량에 앉아 왔지. 그래 한 달 동안은 거기서 먹으며 쌀이나 먹을 것, 쌀 …….)

10201 @ 그 머 화장실 같은 건 어티기 갔어? 변소 같은 건 어티기 가?{그 뭐 화장실 같은 것은 어떻게 갔어? 변소 같은 것은 어떻게 가?}

10201 # 야~?{응?}

10201 @ 변소랑은 어티기 갔냐고, 거기서.{변소는 어떻게 갔냐고, 거기서.}

10201 # 야::, 변소는 내려가 하지. 내려가. 변소는 없지 그안에. 변소는 그 차르 세우지. 차를 세울적에 아, 발씨 동안도 세고 한시 동안도 세고. 기래 오래 세우다나이 거기 내려가서, *베 아, 그 차덜이 여그도 차 가뜩하고[가뜨가고] 저기도 차. 이기 다 찻질이지. 이 찻질인데 이 우리 차 오다가 떡 서. 그래 떡 섬 아, 변소르 하라구 내리문 내리가. 그 저 암테나 그저 그 차 배우젠 데 그거 그저 그저 그래 한달 동안으 그래그 왔지. 야::! {아, 변소는 내려가 용변을 보지, 내려가서. 변소는 없지 그 안에. 변소에 가려면 그 차를 세우지. 차를 세울 적에 아, 발씨(=젠 걸음으로 오갈) 동안도 세우고 한 시간 동안도 세우고. 그래 오래 세우다 보니 거기 내려가서 변(소를 보는데), 아, 그 차들이 여기도 차가 가득하고 저기도 차. 이게 다 찻길이지. 이게 다 찻길인데 이 우리 차가 오다가 떡 서. 그래 떡 서면 변소를 가라고 내려 주면 내려가. 그저 아무 테나 그저 그 차가 보이지 않는 데서 그저 그저 그저 그렇게 한 달 동안을 그러고 왔지. 야!}

10201 @ 따시켄뜨에 가가고는 뭐 했어요?{타슈켄트에 가서는 뭐 했어요?}

10201 # 아, 따시켄(Ташкент) 가서는 음, 따시켄뜨(Ташкент) 무시기 잇는가이, 그런게 있어.{아, 타슈켄트 가서는 음, 타슈켄트 무엇이 있는가 하면, 그런 게 있어.}

10201 @ 그 뭐냐 거기는 그::, 결혼 해 가지고 갔지~? 따시켄뜨는?{그 뭐냐 거기는 그::, 결혼 해 가지고 갔지? 타슈켄트는?}

10201 # 야::!, 따시켄뜨(Ташкент)로 올적에 벌써 내 아이르 두울으 나가주구 왔지 야. 아, *아빠, 에떠(это) 맡아들가 저 딸가 두울으 나가주구 왔어. 기래 우리 딸이 그 따시켄뜨(Ташкент) 오 뉘생진 지나갔어. 그래 따시켄뜨(Ташкент)는 우리 시헨에 야 시할머니, 시할머니는 시 할아버지는 사망데고 시할머이 생조이고 아, 시할머니는 내 와서 상새나고. 어, 그담엔 시삼촌. 우리 시아버지가 육형제서 만이[마디]오. 제일 만이[마디]. 기애 만이[마디]다나이 음 그담에 이쪽에 우리 맡아들에 내 그 재래온 암 게 우, 우리 전체 집안 안에 장소이야. 그래고 우리, 우리 아바이 만이[마디]다나이 둘째 양반은 상새나고 셋째부터 살아잇습데. 기래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다 생존했어. 그래 여그와 한테 살았지. 그래 살다가서 아, 꼴호스(колхоз) 일했지. 거그도, 거그도, 거그도 꼴호즈(колхоз)지. 거그도 뚜루들(труд-리) 받구 야.{야! 타슈켄트로 올 적에 벌써 내가 아이를 둘을 낳아 가지고 왔지, 응. 아, 음 맡아들과 저 딸과 둘을 낳아 가지고 왔어. 그래 우리 딸이 그 타슈켄트에 와 돌이 지나갔어. 그래 타슈켄트는 우리 시가(孀家) 쪽에 응 시할머니, 시할머니는 시할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시할머니는 생존해 계시고 아, 시할머니는 내가 와서 돌아가시고. 어, 그 다음에는 시삼촌. 우리 시아버지가 육형제에서 만이오. 제일 만이. 그래 만이다 보니 음 그 다음에 이쪽에 우리 맡아들에, 내가 그 기른 아이는 그게 우리 전체 집안에서 장손이야. 그리고 우리, 우리 할아버지가 만이다 보니 둘째 양반은 돌아가시고 셋째부터 살아 잇습디다. 그래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다 생존했어. 그래 여

기 와 함께 살았지. 그래 살다가 아, 콜호스에서 일했지. 거기도, 거기도, 거기도 콜호스 지. 거기도 트루드를 받고, 응.}

10201 @ 그모 꼴호츠가:: 대개 사람이 몇 명이나 데?{그러면 콜호스가 대개 사람이 몇 명이나 돼?}

10201 # 많지 무.{많지 뭐.}

10201 @ 가족이, 집으, 집으로 치, 하면 몇 집이나 데?{가족이, 집으(로), 집으로 치(면) 하면 몇 집이나 돼?}

10201 # 그::래! …….{그래! …….}

10201 @ 몇 백집 데?{몇 백집 돼?}

10201 # 아::, 그래! 몇 백 호씨, 몇 백 호씨 데오 야. 기래.{아, 그래! 몇 백 호씨, 몇 백 호씨 데오, 응. 그래.}

10201 @ 그면 그게 한 동네에 살안 거야, 크::게?{그러면 그게 한 동네에 산 거야, 크게?}

10201 # 아, 한:: **동계. 저 꼴호즈(колхоз)느:: 아, 뿌라우다(Правда) 꼴호즈(колхоз)고 우리 꼴호즈(колхоз)느:: 빨리또젤(Политотдел) 꼴호즈(колхоз)고 그담에 스웰로브스크(Свердловск)란 거느 원동, 원동 시흥도~이란 데서 원동 싫겨 온 사름 거기 다 모닷지. 그거느 시흥동 꼴호즈(колхоз) 스웰로브스크(Свердловск). 그래 저기 큰 자치조합이지. 저기 큰 자치조합이, 여기 큰 자치조합, 여그 큰. 그룽기 살앗짐.{아, 한 동네. 저 콜호스는 프라우다 콜호스고 우리 콜호스는 폴리토젤 콜호스고 그 다음에 스페르로브스크란 것은, 원동, 원동의 시흥동이란 데서 원동으로 실러 온 사람들이 거기 다 모였지. 그거는 시흥동 꼴호스 즉, 스페르로브스크. 그래 저기 큰 자치 조합(집단농장)이지. 저기 큰 자치 조합이 있고, 여기 큰 (자치 조합이 있고). 그렇게 살았지 뭐.}

10201 @ 그럼 자치 조합허구 자치 조합허구 얼마나 떨어졌어?{그럼 자치 조합하고 자치 조합하고 얼마나 떨어졌어?}

10201 # 아, 그 어가이?{아, 그 사이가?}

10201 @ 어, 어가이.{어, 사이가.}

10201 # 어가이 머재이오. 다숫 킬로메뜨르(километр)도 테구. 야~ 세 킬로(кило). 머재이 세 킬로(кило).{사이가 멀지 않소. 5킬로미터도 되고. 응 3킬로미터. 멀지 않으면 3킬로미터.}

10201 @ 그러면은 그러면은:: 그:: 밭, 밭이나 논, 논이 얼마나 데?{그러면, 그러면 그 밭, 밭이나 논, 논이 얼마나 돼?}

10201 # 거그서느:: 아::, 밭으두 많지. 기에 밭으두 많안데 무스 싱것는가 하무 목하르 시무고 게납(конопля)우 싱것어. 이뎨 벌써 목하가 게나부(конопля)르, 게나부(конопля)란 게 한국에서 짐 시무오. 꺾질 뻗게 *호, 그런 거 형것으 하재이오? 그런 거. 그런 거 싱겼어. 그 자치조합으 그거.{거기서는 아, 밭도 많지. 그래 밭도 많은데 무엇을 심었는가 하면 목화를 심고 삼[麻]을 심었어. 이뎨 벌써 목화와 삼을, 삼이라는 것이, 한국에서 지금 심소. 꺾질을 벗겨서 그런 천을 만들잖소? 그런 거. 그런 거 심었어. 그 자치 조합을 그거.}

10201 @ 삼베?{삼베?}

10201 # 야~?{응?}

10201 @ 삼베?{삼베?}

10201 # 아, 케나(конопля), 그 케나브(конопля)라 하오. 케나브(конопля). 케나브(конопля) 노시앗말[노시암말]로 무스 …….{아, 삼, 그 삼이라 하오. 삼, 삼을 러시아 말로 무엇(이라고 하나).}

10201 @ 케나부로 하면 궁계 그 옷이 셋하야? 그 셋하얀 거야?{삼으로 옷을 지으면 그러니까 그 옷이 새하야? 그 새하얀 거야?}

10201 # 그::래! 그으서 국가에서 그거 우리 케나불(конопля) 싱거서 국가 바치. 국가 기켈르 싹 형젯으 맨드짐 야. 그담 목하도, 목하느 소캐르 맨들고 국가에서. 그르짐. 그래 따시켈뜨(Ташкент)란 우즈벡(Узбек), 우즈베끄(Узбек)선 우즈벡탄(Узбекистан)이란 건 그런 데오. 케나브(конопля)도 짓고 목하도 짓구 베도 짓고. 지금도 그렇소. 베도 짓고. 끼르기스탄(Кыргызстан)에느 목하, 옥쓰라고 저:: 아, 덩운, 오, 끼르기스탄(Кыргызстан) 쪼끔 가 덩운 지대에 좀 있어. 고 덩운 지대. 이 끼르기스탄(Кыргызстан)에 매운 게. 거그서 좀 목하르 심어. 그래곤 잇기, 이, 이, 비슈, 여기느 끼르기즈(Кыргызн) 안 없어, 여기느. 목하도 없고 케나부(конопля)도 없고 베도 없고. 없어 여긴. 그래 없고 베느 혹시 어드매 잇답데, 베느 야. 그라구 그담에 여그서야 산에다 채밀으 시무구. 채밀으.{그래! 거기서 국가에서, 그거 우리 삼을 심어서 국가에 바치지. 국가가 기계로 싹 천을 만들지 뭐, 응. 그다음 목화도, 목화는 숨을 만들고, 국가에서. 그러지 뭐. 그래 타슈켄트란, 우즈벡, 우즈벡에서는, 우즈베키스탄이라는 건 그런 데오. 삼도 짓고 목화도 짓고 벼농사도 짓고. 지금도 그렇소. 벼농사도 짓고. 키르기스스탄에는 목화, 옥쓰라고 저 더운, 키르기스스탄에서 쪼끔 가 더운 지대에 좀 있어. 고 더운 지대. 이 키르기스스탄에 매인(=속한) 데. 거기서 좀 목화를 심어. 그리고는 여기 이 이 비슈케크 여기는, 키르기스 안에는 (짓는 곳이) 없어, 여기는. 목화도 없고 삼도 없고 벼도 없고. 없어, 여기는. 그래 없고, 벼는 혹시 어딘가에 짓는 곳이 잇답디다 벼는, 응.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응 산에다 밀을 심고. 밀을.}

10307 @ 채밀?{밀?}

10307 # 야~. 채밀. 갈그 해 떡으 하는 거. 야~ 채밀두 시무구 보리두 시무구 채밀두 심어. 그담 저 이식쿨리(Иссык-Куль) 같은 데느 감자두 시무고.{응. 밀. 가루를 해서 빵을 하는 거. 응 밀도 심고 보리도 심고 밀도 심어. 그 다음은 저 이숙쿨(Иссык-Куль) 같은 데는 감자도 심고.}

10307 @ 여기 이숙쿨?{여기 이숙쿨?}

10307 # 야. 여기 이식쿨리(Иссык-Куль). 감자도 시무고 배추도 시무고 야. 채소르 시무지 야~ 차사르 시무오. 아, 그렇소.{응 여기 이식쿨(Иссык-Куль). 감자도 심고 배추도 심고 응. 채소를 심지 응 채소를 심소. 아, 그렇소.}

10307 @ 차조도 심어?{차조도 심어?}

10307 # 채소르 시무. 채소라는 게 아, 그 채소도 시무고 그래.{채소를 심지. 채소라는 게 아, 그 채소도 심고 그래.}

10307 @ 그면 인자 우즈베키스탄 그 꼴호즈에서::.{그러면 이제 우즈베키스탄 그 콜호스에서.}

10307 # 꼴호즈(колхоз)서.{콜호스에서.}

10307 @ 그때는 뭐했어, 아매는?{그때는 뭐 했어, 아매는?}

10404 # 아, 아, 그때 나느 꼴호즈(колхоз)에서 아::, 케나부(конопля)밭이[바티] 잇재? 케나

부(конопля)밭에서, 이…….{아, 아, 그때 나는 콜호스에서 삼밭이 있잖소? 삼밭에서, 이…….}

10404 @ ‘케나부’를 우리는 ‘모시’라고 하는 것 같애, ‘모시’.{‘케나부’를 우리는 ‘모시’라고 하는 것 같아, ‘모시’}

10404 # 마, 모신두. 그, 아, 노란풀 잇재이오? 그 험한 일으 내가 …….{아, 모신지 뭔지. 그 거 아, 노란 풀이 있잖소? 그 쉬운 일을 내가 ……}

10404 @ 케나부가 키가 얼마나 해? 한 요 정도 대?{모시가 키가 얼마나 해? 한 요 정도 돼?}

10404 # 크으짐. 이릉기 크으짐 야. 키 크오.{크지, 뭐. 이렇게 크지 뭐, 응. 키가 크오.}

10404 @ 사람 키만큼 대?{사람 키만큼 돼?}

10404 # 사람 키마 더 크오. 야~ 사람 키마 더. 그 케나부(конопля)밭에 케나부(конопля)에 무시기 갱긴 거, 그 노란 풀이란 게 케나부(конопля) 갱기지. 그럼 케나부(конопля) 아 이 데지. 고 노란풀, 노란풀 아오? 야~ 노라~. 개 그 노란풀으 뜯는 일이 험지. 개 트루드(труд)르 받고 그런 일 해. 나 일 많이[마이] 아이 해했어.{사람 키보다 더 크오. 응 사람 키보다 더. 그 삼밭에 삼에 무엇이 감긴 거, 그 노란 풀이라는 것이 삼에 감기지. 그럼 삼이 안 되지. 고 노란 풀, 노란 풀 아오? 응 노란. 그래 그 노란 풀을 뜯는 일이 쉽지. 그래 트루드(노임)를 받고 그런 일을 해. 나 일 많이 안 했어.}

10404 @ 그면은 그릉게 하면은 케나부에 그 노란 풀 그 하룻, 할랄, 할랄 뜯으면, 할랄 뜯으면 그 뚜르드, **뚜르부?{그러면 그렇게 하면 모시에 그 노란 풀 그 하룻, 하루를, 하루를 뜯으면 그 트루드, 트루드?}

10404 # 야~. 트루두(труд), 트루두(труд)란 거 받지 야.{응. 트루드, 트루드라는 거 받지 응.}

10404 @ 트루드, 트루드 몇 개 받아?{트루드, 트루드 몇 개 받아?}

10404 # 아::, 그 트루드(труд)르 아, 노이, 뜯는거 많이[마이] 받지. 그 고라:~. 이 고라알르 나가고 저 고랄. 개 고래애 가뜩한데[가뜨간데] 많이[마이] 고라:~ 뜯으면 많이[마이] 받구 작게 뜯음 작게 받구 괴래지. 기애두 그거 아, 조합 일꾼덜은 일할 만한 사름은 집에 앉구 잇지 말라 하지. 개 집에 앉구 잇지 말라 해 내 그 어린 아이가 그때, 그때 저, 아, 저, 아, 이, 이 집에 잇는 저 아들의 아이 낳았어. 내가 아: 두울이 잇었어. 기래 집에 잇지 말라 나아 하래 나가서 거그서 그으, 일 시키는 브리가질(бригадир) 뉘 했는가 우리 시삼추이 했어. 기래 시삼추이 해매 나느 아, 그때에두 밭씨 몸 약해 부실해했어. 약했어. 부실해. 기래다나 나르 야 험한 일 시게서 케나부 뜯는 일두 많이[마이] 아이 했어. 일 아이 했어. 일 아이 했어.{아, 그 트루드를 아 뜯는 거 많이 받지. 그 고랑을. 이 고랑으로 나가고 저 고랑으로. 그래 고랑애 가뜩한데 고랑을 많이 뜯으면 트루드를 많이 받고 적게 뜯으면 적게 받고 그러지. 그래도 그거 아, 조합 일꾼들은 일할 만한 사름은 집에 앉아 잇지 말라 하지. 그래 집에 앉아 잇지 말라 해서 내가, 그 어린 아이가 그때, 그때 저, 아, 저, 아, 이, 이 집에 잇는 저 아들을 안 낳았어. 나와 아이 둘이 잇었어. 그래 집에 잇지 말고 나와 일하라 해서 나가서 거기서 그, 일을 시키는 작업반장을 누가 했는가 하면 우리 시삼촌이 했어. 그래 시삼촌이 하며, 나는 그때에도 밭씨 몸이 약해 부실했어. 약했어. 부실해. 그러다 보니 나를 응 쉬운 일을 시켜서 삼밭에서 풀을 뜯는 일도 많이 안 했어. 일 안 했어. 일 안 했어.}

10201 @ 그문 일 았고 어튼기 먹고 살았어? 나가내가 많이 벌어 왔어?{그러면 일 안 하고 어떻게 먹고 살았어? 남편이 많이 벌어 왔어?}

10201 # 그 남편이 일하짐.{그 남편이 일하지 뭐.}

10201 @ 남편이?{남편이?}

10201 # 남편 그 기계[kixɪ] 트랙토르(трактор) 타.{남편이 그 기계 트랙터 타.}

10201 @ 아, 남편이 트랙토르(трактор)…….{아, 남편이 트랙터…….}

10201 # 트랙톨(трактор) 타구, 그:: 좌우치 조합에 트랙톨(трактор) 타구 신구 댕갯지 야.
{트랙터를 타고, 그 조합의 안팎에서 트랙터를 타고 물건을 싣고 다니지 응.}

10201 @ 아, 트랙토르 이렇게 운전했어?{아, 트랙터 이렇게 운전했어?}

10201 # 야, 야. 트랙토르(трактор) 운전술 했어. 그라구 그때 시어마이 잇었어.{응, 응 트랙터 운전수를 했어. 그리고 그때 시어머니가 있었어.}

10201 @ 그면 트랙토르 운전수는 돈 많이 받았나?{그러면 트랙터 운전수는 돈 많이 받았나?}

10201 # 많이[마이] 받제. 많이[마이] 받소 야. 그리고 음, 집에서 대애지르 쳤어, 대애지르. 개고 내 어제 그 앞서 첫날에 책으 쓴 데 그거 하나 고치오 야. 게 브시긴가~이 대애지느 주두리구 개두 주두리지. 그라고 거기 꼬~이나 오리사 이기사 부부리지. 그거.{많이 받지. 많이 받소 응. 그리고 음, 집에서 돼지를 쳤어, 돼지를. 그리고 내가 어제 그 앞서 첫날에 책에 쓴 데 그거 하나 고치오 응. 그게 무엇인가 하면 돼지는 ‘주둥이’고 개도 ‘주둥이’라 하지. 그리고 거기 꿩이나 오리 같은 것이야 이게 ‘부리’지. 그거.}

10201 @ 부부리지. 부부리.{부리이지. 부부리.}

10201 # 야. ‘부부리’, ‘주두’라 하지 말구 ‘부부’라 고치오 야. 잇어뿌리지 말구 적어 농사대, 야, 야. 그래 봐.{응 ‘부리’, ‘주둥이’라 하지 말고 ‘부리’라 고치오 응. 잇어버리지 말고 적어 놓아야 돼, 응 응. 그리해 봐.}

10201 @ 그걸 부부리라 그래?{그것을 ‘부부리’라 그래?}

10201 # ‘부부리’라 하지 야. 개 대애지나 개르 ‘주두리’라 하지 야. 그렇스.{(새는) ‘부부리’라 하지 응. 그래 돼지나 개(의 입을) ‘주두리’라 하지 응. 그렇소.}

10201 @ 그러면은 돼지나, 돼지나 그 발에:: 여기 여, 여기 그 딱딱한 거 있지?{그러면 돼지나, 돼지나 그 발에 여기 여, 여기 그 딱딱한 거 있지?}

10201 # 바툽이지.{발툽이지.}

10201 @ 그건 똑같이 발툽이여?{그건 똑같이 발툽이야?}

10201 # 것도 발툽이지 야. 그것도 발툽이, 야. **뺨, 대애지 발 족이라 하지.{그것도 발툽이지 응. 그것도 발툽이, 응. **뺨, 돼지 발쪽이라 하지.}

10201 @ 돼지 발 족?{돼지 발쪽?}

10201 # 야. 대애지 발쪽. 세무 세 발쪽, 그렇지. 기래 그 내, 내 가마:이 책으 앞서 쓴거 내 궁니르 하이까 대애질 주두리라 하구 개두 주두리라 하는데 아, 꼬~이랑 거그랑 계사이랑 그른거 그거 주두리라 **해엿것 주들 부부리라 해야 데. 거 그렇게 아오, 야~? 야, 야. 그라구.{응. 돼지 발쪽. 소는 소 발쪽, 그렇지. 그래 그 내가, 내가 가만히 앞서 책에 쓴 것에 대해서 궁리를 하니까, 돼지를 ‘주두리’(주둥이)라 하고 개도 ‘주두리’라 하는데 아, 꿩 그것과 거위랑 그런 새의 입을 ‘주두리’라 했는데, (그 새들은) 주둥이를 ‘부부리’(부리)라 해야 돼. 거 그렇게 아오(그런 줄 아오) 응? 응, 응. 그리고.}

10201 @ 음, 그래가지고 인자, 돼지를 키면 돼지 몇 마리나 키웠어, 집에서?{음, 그래서 이제, 돼지를 키우면 돼지는 몇 마리나 키웠어, 집에서?}

10201 # 두마리아사 못치짐. 두 마리 치짐.{두 마리 이상 못 치지 뭐. 두 마리 치지 뭐.}

10201 @ 두 마리만 쳐?{두 마리만 쳐?}

10201 # 그::래! 두, 많이[마이] 무 다, 그 무엇을 먹이겠어? 두 마리 치지.{그래! 두 마리만. 많이 먹으니 다, 그 무엇을 먹이겠어?}

10201 @ 그문 나머지는 다 엇다 **치고?{그러면 나머지는 다 어디다 치고?}

10201 # 아~?{응?}

10201 @ 그 꼴호즈에는 돼, 돼지 친 데가 넓::게 있어?{그 꼴호즈에는 돼, 돼지 치는 데가 넓게 있어?}

10201 # 페르마(ферма)라는 게 크게 잇지 무.{페르마(특별 농장)이라는 게 큰 게 잇지 뭐.}

10201 @ **페르바?{페르마(ферма)?}

10201 # 그::래! 잇짐. 개 우리사 두마리 친 적에는 한마린 집에서 고기르 잡아먹고 한마린 동네에다 팔지 무. 동네에다 팔고 그러짐. 야~.{그래! 잇지 뭐. 그래 우리야 두 마리를 친 적에는 한 마리는 집에서 잡아 고기를 먹고 한 마리는 동네에다 팔지 뭐. 동네에다 팔고 그러지 뭐. 응.}

10201 @ 으음. 그면 그: 새끼도 새끼를 나면.{그러면 그 새끼가 또 새끼를 낳으면.}

10201 # 야~.{응.}

10201 @ 새끼가 많이 나잖아?{새끼가 많이 나잖아?}

10201 # 많이[마이] 나재일구!{많이 나고 말고!}

10201 @ 그 많이 나면 그 나머지 새끼는 어트겨?{그 많이 낳으면 그 나머지 새끼는 어떻게 해?}

10201 # 아, 거 과알지 무. 그 사름덜 싹 싸가지. 야~. 새끼르 열개 열두개 많이[마이] 낳재. 야~. 우리 시삼촌댁이 대애지치기르 했어. 개 대애지 **새끼와 나서 그 새끼르 쪼끔 젖으 떼무 싹 과알지 무. 그래 돈 하짐口. 야~. 그래 돈.{아, 그거 팔지 뭐. 그 사람들이 싹 사가지. 응. 새끼를 열 마리, 열두 마리 많이 낳지. 응. 우리 시삼촌댁이 돼지치기를 했어. 그래 돼지가 새끼를 낳아서 그 새끼를 조금 젖을 떼면 싹 팔지 뭐. 그래 돈을 만들지 뭐. 응. 그래 돈.}

10201 @ 그면 그때도:: 그:: 이, 이 표 받는 거::, 아까 뭐라고 그랬지? 일하면 주는 거 뭐라고 그랬지? **따불이?{그러면 그때도 그 이, 이 표 받는 거, 아까 뭐라고 그랬지? 일하면 주는 거 뭐라고 그랬지? 트루드(труд)?}

10201 # 무스거?{무엇?}

10201 @ 일을 하면 주는 거 뭐라고 그러지?{일을 하면 주는 거 뭐라고 그러지?}

10201 # 아, 뜨루드(труд).{아, 트루드.}

10201 @ 뚜루두.{트루드.}

10201 # 야~.{응.}

10201 @ 뚜루두(труд). 그면 뜨루두(труд), 뚜루두(труд)도 따로 있고.{트루드. 그러면 트루드, 트루드도 따로 있고.}

10201 # 야~.{응.}

10201 @ 돈도 따로 있었어?{돈도 따로 있었어?}

10201 # 아이~, 그 트루드(труд)루 …….{아니, 그 트루드를 …….}

10201 @ 돈으로 바꿔?{돈으로 바꿔?}

10201 # 이런 기괴이 있지. 켄또라(контора) 있지. 그 켄또라(контора)서 사름덜 책임자덜 가뜩한데[가뜨간데] 그 트루두(труд)루 가주고 한 트루두(труд) 엄매로 엄매로 돈 놓가 놓지.{이런 기관(機關)이 있지. 사무소가 있지. 그 사무소에는 사람들, 책임자들이 가뜩한 데 그 트루드를 가지고 한 트루드를 얼마로, 얼마로 돈을 나눠 놓지.}

10201 @ 아::.{아.}

10201 # 기랴문 거그서 돈 주지.{그러면 거기서 돈 주지.}

10201 @ 아::.{아.}

10201 # 그랬지 야.{그랬지 응.}

10201 @ 뚜루두(труд)를 가져가서 돈을 받아와?{트루드를 가지고 가서 돈을 받아 와?}

10201 # 야아! 그러재오. 야 그러재. 그런데 야~, 우리 안즉 열한시 아이 대엿지?{응! 그렇지. 응 그렇지. 그런데 응, 우리 아직 열한 시 안 됐지?}

10201 @ 나 열두시 반에 가야 대.{나 열두시 반에 가야 돼.}

10201 # 열두시 반에? 아, 점심우 잡수구 가요.{열두시 반에? 아, 점심은 잡숫고 가요.}

10201 @ 아니! 아니! 오기로 했어요. 또 어디 가야 대, 오늘. 내일 가니까 뭇 좀 사 갖구, 모레 가니까 뭇 좀 사야지.{아니, 아니. 오기로 했어요. 또 어디 가야 돼, 오늘. 내일 가니까 뭇 좀 사 갖고, 모레 가니까 뭇 좀 사야지.}

10201 # 사두 점심 잡. 점심 끊이오 시자~.{사더라도 점심을 잡(숫고) 가요. 점심을 하고 있소, 지금.}

10201 @ 아니요, 아니요.{아니요, 아니요.}

10201 # 아::이오! 점심 아이 잡사무 못 가오.{아니요! 점심 안 잡수면 못 가오.}

10201 @ 점심 나가서 먹기로 했어.{점심 나가서 먹기로 했어.}

10201 # 야~?{응?}

10201 @ 점심 나가서 같이 먹기로 했다고, 목사님하고.{점심 나가서 같이 먹기로 했다고, 목사님하고.}

10201 # 아이구! 여그서 먹고 가오 글썸. 아이! 그 점심 이정 끊이는데 어티기, 아이! **가이요?{아이고! 여기서 먹고 가오 글썸. 아이! 그 점심을 이제 끊이는데 어떻게, 아이! 가요?{아이! 가려고 해요?}}

10201 @ 아니, 그게 끊이지 말라고 허라니까.{아니, 그게 끊이지 말라고 하라니까.}

10201 # 아이구! 이젠 끊이우, 야. **오늘 마감날인데 즘슴 어티기 아이 끊이 야? 가 말하오 [마라오] (기침) 거 가서. 아, 거그서 모다 같이[가치] 먹는 데 가서. 그건 한국 음식인데 무스 으이, 으이그. 이 여기 음식으 아, 끊인거 여그서 아, 할머, 할머니 기래 잡삿다 하지 무슨. 니나다(не надо) 네트(нет)!{아이고! 이제 밥을 하오, 응.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 점심을 어떻게 안 해, 응? 가서 말하오, (기침) 거기 가서. 아, 거기서 모여 같이 먹는 데 가서. 그건 한국 음식인데 뭐 어이구. 이 여기 음식을 한 거 여기서 아, 할머, 할머니와 함께 잡쌌다 하지 뭐. 안 돼! 아니!}

10201 @ 자! 그리고.{자! 그리고.}

10201 # 야. 그라고 아, 무 싸가지구 가는데 짐이 많어?{응 그리고 아, 무얼 싸 가지고 가는

데 짐이 많아?}

10201 @ 인자 모르겠어요, 이자. 가 봐야지. 아, 그리고 인자.{이제 모르겠어요, 이제. 가 봐야지. 아, 그리고 이제.}

10201 # 야~.{응.}

10201 @ 자! 그래서 돼지를 그릇기 팔, 팔아서.{자! 그래서 돼지를 그렇게 팔, 팔아서.}

10201 # 나.{응.}

10201 @ 그 돼지 돈을 많이 못, 못, 모다, 모담 뭘했어?{그 돼지 팔아서 번 돈을 많이 모아, 모아 뭘 했어?}

10201 # 집에서 쓰짐. 가정에서 쓰짐, 그 돈. 옷도 싸오고 쌀도 싸고 쓰지 무 야.{집에서 쓰지 뭐. 가정에서 쓰지 뭐 그 돈. 옷도 사고 쌀도 사고 쓰지 뭐 응.}

10201 @ 뭐, 그런 것은, 먹을 것은 많았어?{뭐, 그런 것은, 먹을 것은 많았어?}

10201 # 많재이~쿠!{많고 말고!}

10201 @ 돈만 있으면 다 살 수 있었어?{돈만 있으면 다 살 수 있었어?}

10201 # 돈마 잇으무 따시켄뜨(Ташкент), 아, 따시켄뜨(Ташкент) 시자~엔 야~ 찰쌀에, 매 쌀이 좋::은기 지금 괴양 파오. 여기는 없어. 여기는 **따시께(Ташкент)서 장사꾼덜 싹구 와 비싸오. 내 줌 찰쌀으 먹재이오? 찰쌀 명:거 그거 한킬로에 얼마씩 하는가 삼십오원씩 하오, 삼십오원씩. 따시켄뜨(Ташкент)선 십오원씩 하오. 그른거 사름덜 장사꾼덜 싹 실어다 여그서 찰떡으 해애 파는 집에서 그런걸 싹 싸지. 그렇소. 기앤데 내 말으 듣소. 음::, 아::, 우리 손녀가, 손녀가, 앓던 손녀가 오늘으느 음, 미루:: 미루 여그서 이 노오:고드(Новый год)라는 거 크게 새지. 기애 음, 각 기관마다 싹 그 기림우 새지. 기래 새는데 아, 가아덜 일하지. 일하는 데서 오늘으 그 기림우 모다 아드메체(отмечать)르 한다. 기애 그 기림우 모다 아드메체엘(отмечать)르 한다. 기래 기림 모다 아드메첼(отмечать)르 하는데, 아::.{돈만 있으면 타슈켄트, 아, 타슈켄트 시장엔 응 찰쌀에 멍쌀이 좋은 것을 지금 그냥 파오. 여기는 없어. 여기는 타슈켄트에서 장사꾼들이 싹고 와 비싸오. 내가 지금 찰쌀을 먹잖소? 찰쌀 먹는 거 그거 1킬로에 얼마씩 하는가 하면 35원씩 하오, 35원씩. 타슈켄트에서는 15원씩 하오. 그런 것을 사람들, 장사꾼들이 싹 실어다 (놓으면) 여기서 찰떡을 해 파는 집에서 그런 걸 싹 사지. 그렇소. 그런데 내 말을 듣소. 음, 아, 우리 손녀가, 손녀가, 앓던 손녀가 오늘은 음, 미리 미리 여기서 이 새해[新年]라는 것을 크게 쇠지. 그래 음, 각 기관마다 싹 그 기념을 쇠지. 그래 쇠는데 아, 그 아이들 일하지. 일하는 데서 오늘은 그 기념을, 모여서 기념한다 (하지). 그래 그 기념을 모여서 기념하는데, 응.}

10201 @ 기림을 모다서 무슨 채를 한다고?{기림을 모아서 무슨 반찬을 한다고?}

10201 # 기림우 모다 진행으 하지. 기림 모다서 오늘 미루 모다 진행한다는게 사~아 갖차놓구 수울 갖다놓구 노오고드(Новый год)르 이룽기 진행하지. 기래 하는데.{기념을 모여서 진행을 하지. 기념을, 모여서, 오늘 미리 모여서 진행한다는 것이 상을 갖추어 놓고 술을 갖추어 놓고 새해를 이렇게 진행하지. 그렇게 하는데.}

10201 @ ‘기림’은, ‘기림을 모둔다’는 말은 뭐여? ‘기림’이 뭐여?{‘기림’은, ‘기림을 모둔다’는 말은 뭐야? ‘기림’이 뭐야?}

10201 # 기림이?{기림이?}

10201 @ 에~.{예.}

10201 # 기름이 무시기겠어? 기름이 지립이지, 무시기.{‘기름’이 무엇이겠어? 기름이 기름이지, 무엇이긴.}

10201 @ 지름이지?{기름이지?}

10201 # 야~ 지름.{응 기름.}

10201 @ 기름을 모다 갖고 뭐해? 체를 한다고?{기름을 모아 갖고 뭐해? 체를 한다고?}

10201 # 지름 무시리 모도겠어?{기름을 무엇하러 모으겠어?}

10201 @ 그면 아까 뭘 모돈다고 그랬어?{그러면 아까 뭘 모은다고 그랬어?}

10201 # 사름덜으 모다.{사람들을 모아.}

10201 @ 아::! 사람들을 모다 놓꼬?{아! 사람들을 모아 놓고?}

10201 # 야~. 아, 사름덜으 모다. 기렌데 어찌겠소. 그러무 수고스럽운대르, 사진틀으 가지고 왔어?{응. 아, 사람들을 모아. 그런데 어찌겠소. 그러면 수고스럽지만, 사진기를 가지고 왔어?}

10201 @ 가져 왔어.{가져 왔어.}

10201 # 가져, 가그 전에 그러문 사진 찍소 야. 지금 야? 울 집에서 찍소. 야~ 그래. 야~ 야~. 그러기오. 그럼 내 나가, 가맞어 내가 (마이크 조정) 이런 내게서 이 보통말으 적어 가주 가겠소? (기침) 아이! 책이 이래 이거 보통말이 이거 적어서 어찌우?{가져 왔어? 가기 전에 그러면 사진 찍소, 응. 지금 응? 우리 집에서 찍소. 응 그래. 응, 응. 그럼시다. 그럼 내 나가, 가만있어 내가, (마이크 조정) 아이! 이런 내게서 이 보통으로 쓰는 말을 적어서 가져가겠소? (기침) 아이! 책(조사 책자)이, 이렇게 이거 보통 말을 이거 적어서 어찌 하오?}

10201 @ 괜, 일없어요. 근데 그러면:.{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런데 그러면.}

10201 # 야~.{응.}

10201 @ 그때에는 그때::.{그때는 그때.}

10201 # 응.{응.}

10201 @ 그:: 따슈켄트에서::.{그 타슈켄트에서.}

10201 # 야~.{응.}

10201 @ 따슈켄트에서 언제까지가 그렇게 먹고살기가 좋았어?{타슈켄트에서 언제까지가 그렇게 먹고살기가 좋았어?}

10201 # 이:: 쏘비에트(совет) 국가야 당 먹기 살기 좋았짐. 쏘비에트(совет) 국가야 좋았지. 이 거저 쏘비에트(совет) 국가 아이재이오? 그래 여기두 쏘비에트(совет) 국간 좋았어. 상점에 식료 녹고 바자르(базар)에 식료 녹고. 지금은 못쓸 세월이 망탕 세월이야.{이 소비에트 연방 때야 늘 먹고살기 좋았지 뭐. 소비에트 연방 때는 좋았지. 이건 그저 소비에트 연방이 아니잖소? 그래 여기도 소비에트 연방 때는 좋았어. 상점에 식료(食料)가 싸고 시장에 식료가 싸고. 지금은 몹쓸 세월이오. 엉망인 세월 응.}

10201 @ 아니, 그때 소비에트 시절에는:: 소비에트 시절에도 꼴호즈가 있었어?{아니, 그때 소비에트 시절에는 소비에트 시절에도 콜호스가 있었어?}

10201 # 꼴호즈(колхоз) 잇엇지. 꼴호즈(колхоз), 우리 꼴호즈(колхоз) 어, 부자오. 빨리따젤 (Политотдел)이란 꼴호즈(колхоз) 거기 아, 신문에라 나고 큰 부자 꼴호즈(колхоз). 케나부(конопля)르 많이[마이] 하고 목하르 해아서 국가다 많이[마이] 바치, 돈 많이 [마이] 타짐. 사름덜 돈 많이[마이] 탕어.{콜호스 잇엇지. 콜호스, 우리 콜호스는 어, 부

자이오. 폴리타젤(Политотдел)이란 콜호스는 그게 신문에랑 나오. 큰 부자 콜호스. 삼을 많이 하고 목화를 해서 국가에다 많이 바쳐 돈을 많이 타지 뭐. 사람들이 돈을 많이 탔어.}

10201 @ 근데 왜 그러면:: 왜 쏘비에트가::,{그런데 왜 그러면 왜 소비에트가,}

10201 # 야~.{응.}

10201 @ 왜 쏘비에트가 그때 그:: 머야, 음:: 쏘비에트 그때 마지막 그, 거시기가 누구지? 브레즈네프(Брежнев)ㄴ가?{왜 소비에트가 그때 그 뭐야, 음 소비에트 그때 마지막 그, 거시기가 누구지? 브레즈네프(Брежнев)인가?}

10201 # 야~. 브레지넵(Брежнев). 브레지넵 때,{응. 브레즈네프. 브레즈네프 때,}

10201 @ 브레지넵 그 앞에.{브레즈네프 그 앞에.}

10201 # 야~. 브레지넵(Брежнев) 앞에 가르바초바(Горбачёв)지.{응. 브레즈네프 앞에 고르바초프(Горбачёв)이지.}

10201 @ 가르바초프.{고르바초프.}

10201 # 가르바초브(Горбачёв),{고르바초프,}

10201 @ 가르바초프가 그때 소비에트 인자,{고르바초프가 그때 소비에트 이제,}

10201 # 아, 가르바초브(Горбачёв) 이르기 맨들었지.{아, 고르바초프가 이렇게 만들었지.}

10201 @ 그렇지.{그렇지.}

10201 # 야~.{응.}

10201 @ 근데 가르바초프가 왜 그러면 이렇게 만들었어?{그런데 고르바초프가 왜 그러면 이렇게 만들었어?}

10201 # 어, 어째…….{어, 어째…….}

10201 @ 쏘비에트가 그리 좋았는데.{소비에트가 그리 좋았는데.}

10201 # 아, 소비에트 국가가 좋아:데 아::, 가르바초오(Горбачёв)가 어:: 무슨: 골이 이래서 그랬는두 기래. 개 가르바츨(Горбачёв) 이렇게 자유르 주다나이 조선 사름우느 가르바츨(Горбачёв) 찬성해 신문에서 써실 때 어쩐가. 싸할린(Сахалин)에 아::, 그전에 싸할린(Сахалин) 사름덜 일본 때 많이[마이] 실어 오재했어? 그래 싸할린(Сахалин) 실은거 그거 자기가 고히으르 못가게 하지. 가르바츨(Горбачёв) 기래니꺼나 그거 막 고히으르 가지, 싸할린(Сахалин) 사름덜이 야~. 기래서 그 사름덜은 가르바츨(Горбачёв) 그룽게 찬성하고 야. 찬성하고. 아::, 그담에 하, 우리느 어찌 아이 좋은가 쏘비에트(совет) 국가는 싹 공자~에 나가 버얼이르 하지. 그러고 장싯법이 없지. 장싯법이. 장싯법, 이거느 자유 주다나이 거절 제 마::음::대루 그저 장시르 하고. 도이 많은 사름운 집두 두울 싸게 못했어, 쏘비에트(совет) 국가는 야~. 그랜게 지금 어저느 이, 어전 자유르 아, 주다나이 도이 많은[마난] 사름 집우 두개두 싸구 세개두 하, 사름 하나에 집이 세개 네개 잇어두 말, 말공비[말공비] 없구. 집우 두개 세개 막 징소. 그럼 막 징소. 도이 많은건 집우 징지. 기래 쏘비에트(совет) **구따느, 국가느 그런 허가 없었지. 아, 개 지금, 지금 그런 세월이여. 거저 집두 징겅음 징구 집두 많이[마이] 싸겅으무, 도이 많은 사름운 야~ 그담에느 (기침) 지금 차에 땡기메서도 장새르 하고 시자~에 가 싹 장시르 하지. 장실 해에야야, 돈벌이[돛뻐리]르 하지. 장시르 아이 하무 할 노릇이 없지. 공채~이 없다나이. 공자~에서 일해[이래] 공자~에서 월급 받아가주구 쏘비에트(совет) 국가느 그룽게 살았지.{아, 소련이 좋았는데 아, 고르바초프가 어 무슨 머리가 이래서 그랬는지 그래. 그래 고르바

초프가 이렇게 자유를 주다 보니 조선 사람은 고르바초프를 찬성해서 신문에다 썼을 때 어찌했는가 하면, 사할린에 아, 그 전에 사할린 사람들 일제 때 많이 실려 오지 않았어? 그래 사할린으로 실어 온 그 사람들은 자기가 고향으로 못 가게 하지. 고르바초프가 그리하니까 그 사람들 막 고향으로 가지, 사할린 사람들이, 응. 그래서 그 사람들은 고르바초프를 그렇게 찬성하고 응. 찬성하고. 아, 그 다음에 우리는 어찌 안 좋은가 하면 소련에서는 싹 공장에 나가 벌이를 하지. 그리고 장사하는 법이 없지. 장사하는 법이. 장사하는 법 이거는 자유를 주다 보니 그저 제 마음대로 그저 장사를 하고. 돈이 많은 사람은 집도 두 채를 사지 못하게 했어, 소련은 응. 그런데 지금 이제는 이, 이젠 자유를 아, 주다 보니 돈이 많은 사람은 집을 두 채도 사고 세 채도 하, 사람 하나에 집이 세 채, 네 채 있어도 말, 말공부가 없고. 집을 두 채, 세 채 막 짓소. 그럼 막 짓소. 돈이 많은 사람은 집을 짓지. 그래 소련은 그런 허가를 안 내주었지. 아, 그래 지금, 지금은 그런 시절이야. 그저 집도 짓겠으면 짓고 집도 많이 사겠으면 돈이 많은 사람은 응. 그 다음에는 (기침) 차를 타고 다니면서도 장사를 하고 시장에 가 싹 장사를 하지. 장사를 해야 아, 돈벌이를 하지. 장사를 안 하면 할 노릇이 없지. 공장이 없다 보니. 공장에서 일을 해 공장에서 월급을 받아 가지고 소련에서는 그렇게 살았지.}

10201 @ 그면 여기도:: 옛날에는 공장이 있었을 거 아냐?{그러면 여기도 옛날에는 공장이 있었을 거 아냐?}

10201 # 많:옛지.{많았지.}

10201 @ 근데 다 어디 갔어?{그런데 다 어디 갔어?}

10201 # 없짐. 일 아이 하지.{없지 뭐. 일 안 하지.}

10201 @ 왜?{왜?}

10201 # 서구 있어. 아, 사름덜 싹 그 **어찌 장사르 하다나이. 개구 형것 짜는 공자~이 하나 있어, 형것.{서 있어. 아, 사람들이 싹 그 어쨌든 장사를 하다 보니. 그리고 천을 짜는 공장이 하나 있어, 천.}

10201 @ 돈이, 그러면 돈, 다른 공장은 해 봤자 돈이 안 벌린다는 얘기 아냐?{돈이, 그러면 돈, 다른 공장은 해 봤자 돈이 안 벌린다는 얘기 아냐?}

10201 # 아이! 그 아, 지금 고 쏘비에트(совет) 국가 아이 데:: 니기 공자~:서 일 하자우? 아이 하지. 도이 많안 사름 장사르 해, 장사르 해 돈 더 버어는게, 장사르 해서. 그전에는 밀리쯔(милиция)가 야~ 거어 장사르 하게 못하짐. 막 붙들어 주루만(тюрьма)에 넣지. 아, 그런게 지금우느 그저 아, 장사르 하다나 도이 많안건 암:짓이나 하는데, 그래이 거기 또 도둑이란건 더 많지. 그래 그저 아, 사름우 그저 그 돈으 위해서 칼르 **지그 그 러구 또 그 전에는 쏘비에트(совет) 국가에는 (기침) 사람 집에 사영하는 초~이 잇재이오? 그 사영하는 촌[ʃʰon] (기침) 사영책이 다 있어야 대, 사영꾼책. 그 검열[검널]하고 야. 아, 그저 **비지, 집이다 초~오 좀 붙들어 앓히지. 기앤데 지금우 나~ 집집마다 초~이 잇구 단포~오 *지 그 **지게 다 있어.{아니! 그 아, 지금 소련이 아니 돼니 누가 공장에서 일을 하자고 하오? 안 하지. 돈이 많은 사람은 장사를 해, 장사를 해서 돈을 더 버는데, 장사를 해서. 그 전에는 민경(民警)이 응 그 장사를 못하게 하지 뭐. 막 붙들어 감옥에 넣지. 아, 그런데 지금은 그저 아, 장사를 하다 보니 돈이 많은 사람은 아무 짓이나 하는데, 그러니 거기 또 도둑이란 건 더 많지. 그래 그저 아, 사름을 그저 그 돈을 위해서 칼로 찌르고 그러고 또 그 전에는 소련 시절에는 (기침) 사람이 사는 집에 사냥하는

총이 있지 않소? 그 사냥하는 총 (기침), 사냥하가서가 다 있어야 돼, 사냥허가서. 그 검열을 하고, 응. 아, 그저 집에다 총을 좀 붙들어 앓히지. 그런데 지금은 응 집집마다 총이 있고 단총(短銃)을 지금 그 집에 다 있어.}

10201 @ 그래요?{그래요?}

10201 # 그러재잉구! 그 못::쓴 나쁜 세월. 괴래다나이 이:: 아이덜이 찍 하문 싸 죽이구 췌레비(телеви)션 췌리비(телеви)서 *똑같. 찍 하문 싸 죽이고 싸 죽이고 싸 죽이구 이래지. 그런 나쁜 세월이.{그렇고 말고! 그 몹쓸 나쁜 시절. 그러다 보니 이 아이들이 걸핏하면 췌 죽이고 텔레비전에서, 텔레비전에서와 똑같이. 걸핏하면 췌 죽이고 췌 죽이고 췌 죽이고 이러지. 그런 나쁜 시절.}

10201 @ 아 잉게 총, 그 저, 군대가 가지고 있는 총을 집에서 가지고 있어?{아, 이렇게 총, 그 저, 군대가 가지고 있는 총을 집에서 가지고 있어?}

10201 # 아이, 글썄 지금은 초~오 가주구 잇어두 벨일 없다 하재이오? 아, 쏘비에트 국가는 집에서 초~:이 나주면 그 사름 붙들어다 주루만(тюрьма)에다 앓헛짐. 지금은 그리, 그런 세월, 아::주 나쁜 세월이여. 그담에느 아, 바사르(базар)서 지금 파는데 아, 어, 고기르 파는데 세나 대애지나 이릉게 파는데 그게 값은 매일 올라가오. 자꾸 값이 높아지구 높아져. 그게 적다나이 그게 많아야 데갯는게 그거 니기 소치기나 대애치기르 하오? 그저 췌 바사르(базар) 장시르 하지. 따시켄뜨도 가고 알마타야도 가고 모스크바도 가고 차에다 물거을 췌 신구 댕기메 장시르 하지. 험한 일 하지.{아니, 글썄 지금은 총을 가지고 있어도 벨일 없다 하잖소? 아, 소련은 집에서 총이 나타나면 그 사람을 붙들어다 감옥에 가두었지 뭐. 지금은 그런, 그런 시절, 아주 나쁜 시절이여. 그 다음에는 아, 시장에서 지금 물건을 파는데 아, 어, 고기를 파는데 소나 돼지나 이렇게 파는데 그게 값이 매일 올라가오. 자꾸 값이 높아지고 높아져. 그게 적다 보니. 그게 많아야 되겠는데 그거 누가 소 치기나 돼지치기를 하오. 그저 췌 시장에서 장사를 하지. 타슈켄트도 가고 알마티도 가고 모스크바도 가고 차에다 물건을 췌 싣고 다니며 장사를 하지. 쉬운 일하지.}

10201 @ 그럼 알마타는::.{그럼 알마티는.}

10201 # 야~.{응.}

10201 @ 알마타는:: 그때가 따, 타슈켄트에 있을 때.{알마타는 그때가 타, 타슈켄트에 있을 때.}

10201 # 야~.{응.}

10201 @ 타슈켄트에 있을 때는 돈을 많이 벌었어?{타슈켄트에 있을 때는 돈을 많이 벌었어?}

10201 # 야~.{응.}

10201 @ 근데 왜 이쪽으로 왔어?{그런데 왜 이쪽으로 왔어?}

10201 # 야~?{응?}

10201 @ 왜 타슈켄트 있다가 이리 왔냐고.{왜 타슈켄트에 있다가 이리 왔냐고.}

10201 # 어째 이리 왔는가무 내 어제도 말해엿지만 내 기야~ 앓았지. 내 앓으이꺼나 (기침) 따슈켄뜨(Ташкент)는:: 덤운 곧이오. 지금도 덤소. 따슈켄뜨(Ташкент)느 덤운 곧이오. 여기느:: 좀 선선한 곧이오. 개 선선하이 공기 낫지. 선선한데 공기 낫지. 기래 내 앓으이꺼나 우리 부모나 우리 저 야:들 아버지나 여기 공기 좋은데르 간다구. 기래 왔지 무. 기래 공기 좋은 데 **아나오 아, 오십구연에 여그로 오재엿소? 그래 여그로 오이 내 낫짐. 나 낫지. 그래 우리 시삼춘네 엔치 잇는 분덜 췌 따슈켄뜨(Ташкент) 게시지.{어째 이리

왔는가 하면 내가 어제도 말했지만 내가 그냥(계속)않았지. 내가 앓으니까 (기침) 타슈켄트는:: 더운 곳이오. 지금도 덥소. 타슈켄트는 더운 곳이오. 여기는:: 좀 선선한 곳이오. 그래 선선하니 공기가 낫지. 선선한데 공기가 낫지. 그래 내가 앓으니까 우리 부모나 우리 저 아이들 아버지나 여기 공기 좋은 데로 간다고. 그래서 왔지 뭐. 그래 공기 좋은 데 *** 아, 1959년에 여기로 오지 않았소? 그래 여기로 오니 내가 (병이) 나왔지 뭐. 내가 나왔지. 그래 우리 시삼촌네 연세 있는 분들이 싹 타슈켄트에 계시지.)

10201 # 기래 계신게 우리 여기르 같직에 홀로 여기르 간다구 반대르 해엿지. 그애 반대르 했는데 아::, 내 여그 와 앓잔는다 하니 우리 시삼추이 좋다 하지. 반달 하던게. 그 다음 여기르 우리 식기 만저 여라호에 왔짐. 동생네 식기도 오고 동미덜또 오이 이때, 이때. 기래 와 여그 와 재배르 하고 사이~ 내가 따시켄트(Ташкент)느 꼴호스서 일하매 우리 어머니 아버지 없이 고사하지, 아버지. 기애 동생애도 꼴호즈(колхоз). 내가 여기르 모세 왔어. 기애 모세와서 저 밭에서 어저는 아렌드(аренда)르 가주고 이르 떡 농사르 해엿짐.{그래 계신데 우리가 여기로 갈 적에 홀로 여기르 간다고 반대르 했지. 그래 반대르 했는데 아::, 내가 여기 와 앓지 앓는다 하니 우리 시삼촌이 좋다고 하지. 반대르 하던 분이. 그 다음 여기로 우리 식구며 먼저 여러 호가 왔지 뭐. 동생네 식구도 오고 동무들도 오니 이때, 이때, 그래 와 여기 와 있을 곳을 정하고사니, 내가 (생각하기에), 타슈켄트의 꼴호스에서 일하며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남편) 없이 고생하지, 아버지. 그래 동생도 꼴호스(에서 일하고). 내가 여기로 모셔 왔어. 그래 모셔 와서 저 밭에서 이제는 임차(賃借)한 농지를 가지고 이렇게 떡 농사를 지었지.)

10103 @ 아렌드(аренда) 가지고?{임차를 해 가지고?}

10103 # 냐~. 아렌드(аренда).{응. 임차.}

10103 @ 아렌드가 뭐여?{‘아렌드’가 뭐야?}

10103 # 아, 따값우[따값수] 물매.{아, 땅값을 물며.}

10103 @ 아::, 그 아렌드라고?{아::, 그 ‘아렌드’라고 하는 것?}

10103 # 야. 따값우[따값쓰] 물매스리.{응 땅값을 물면서}

10103 @ 그럼 땅값을 누구한테 물어?{그럼 땅값을 누구한테 물어?}

10103 # 국, 어…….{국(가), 어…….}

10103 @ 국가에다 물어, 잉게 사람에다……?{국가에다 물어, 이렇게 사람에다……?}

10103 # 야, 야 국가에다 무지, 국가에. 그담엔 파지이르 했어, 파지일.{응, 응 국가에다 물지, 국가에. 그 다음에는 파농사를 했어, 파농사.}

10103 @ 파질.{파농사.}

10103 # 야~. 파에…….{응. 파에…….}

10103 @ 그 파질, 파질을 할라면:: 그 땅으 밭으:: 밭으 아렌드해야지?{그 파농사를, 파농사를 지으려면 그 땅을 밭을, 밭을 빌려야 하지?}

10103 # 야~.{응.}

10103 @ 아렌드를:: 국가에다 해::, 사람에다 해?{임차를 국가로부터 해, 사람으로부터 해?}

10103 # 국가에다아서. 그 아, 아렌드르 가진 데 파아 시무재이오? 그 파아 밭이[바치] 엄매 만한가 바치라.{국가에다. 그 임차 농지에다 파를 심잖소? 그 파밭이 얼마 만한가에 따라 (거기에 상응하는 생산량을) 바치라고.}

10103 @ 아::.{아.}

<파일 정보>

kk_bs_22 : 구술 발화05(윤베라 생업 활동(고본질), 생활사)

조사자 : 소강춘

전사자 : 곽충구

주 제보자 : 윤베라(여, 1923년 2월 19일생)

주소 : 중앙아시아 키르기스스탄 공화국 비슈케크 무쓰이 자리일라 돔 295

조사장소 : 중앙아시아 키르기스스탄 공화국 비슈케크

조사일시 : 2004. 12. 14.~12. 28.

10103 @ 그래 가지고.{그래 가지고.}

10103 # 응.{응.}

10103 @ 음. 아렌드(аренда)르 하면은, 파이크 파지하면.{음. 토지를 임차(賃借)해서 파를 파 농사를 지으면.}

10103 # 아, 파이크 저어서 몇 톤(тон) 만한 거 국가 바체라. 게 거 먼저 국가 바치짐. 바치 구 나머즈르 우리가 파지. 아 그래 차차차차 그 싸재이이까네 값이 없지. 췌에뿌렛지, 그 답에.{아, 파를 농사지어서 몇 톤의 양을 국가에 바쳐라. 그게 먼저 국가에 바치짐. 바치고 나머즈르 우리가 팔지. 아 그래 차차차차 그걸 사지 않으니까 값이 없지. (그래서) 내 던졌지, 그답에.}

10103 @ 왜? 왜? 왜?{왜? 왜? 왜?}

10103 # 아, 국가에서 잘 받재일지. 국가서 잘 싸야 데지. 기래 열 톤(тон) 열 톤(тон) 스무 톤(тон) 서른톤(тон) 쉰 톤(тон) 백 톤(тон) 이릉기[이르끼] 무꾸르 많이[마이] 쟁지 야. 저어서 그거 국가다 한 킬로(кило) 두 톤(тон)씨나 서 톤(тон)씨 개 국가다 거 싹 우리 바치무 아 거기서 우리 돈 타지. 그러구 국가서 잘 받재이무 그 파이 그 많은 거 그거 썩이겠어? 시장에서 많이[마이] 못 파지. 시장이 많다나 값으 못 받지. 그런 농사 질해했어.{아, 국가에서 잘 받지 않지. 국가에서 잘 사야 되지. 그래 10톤, 20톤, 30톤, 50톤, 100톤 이렇게 무를 많이 농사를 짓지. 지어서 그거 국가에다 1킬로, 2톤씩이나 3톤씩 국가에다 싹 우리가 바치면 아 거기서 우리가 돈을 타지. 그리고 국가에서 잘 받지 않으면 그 파를 그 많은 것을 그거 썩히겠어? 시장에서 많이 못 팔지. 시장이 많다 보니 값을 못 받지. 그런 농사질을 했어.}

10103 # 그런 농사질하매 우리 아이덜 아버지가 칠십삼년에 사망뎃지 야. 십년 해했어. 우리 우리 아 우리 남페이가 십년 동안 그 부리가질(бригадир) 하다가서 칠십삼년 사월에 가 상새났어. 상새나이 그 삼년에 마치문 따아 아 사연에 오연에 삼년으 내 했어. 내 브리가질(бригадир)한 게. 아, 기래 *매 열두 호 열다서 호 이런 호덜으 테리구 저 밭에 나가 막으 쟁구 그러구 시무구. 그러구,{그런 농사를 지으며 우리 아이들 아버지가 1973년에 사망했지 응. 10년을 했어. 우리, 우리, 아, 우리 남편이 10년 동안 그 고본질의 작업 반장을 하다가 1973년 4월에 가 돌아가셨어. 돌아가시니 그 1973년에 (파를 심어 놓은 농사를) 마친 것에다가, 땅을 아 1974년 1975년까지 3년을 내가 했어(농사를 지었어).

내가 작업반장한 것이. 아, 그래 몇, 12호 15호 이런 가호(家戶)를 데리고 저 밭에 나가 농막(農幕)을 짓고 그러고 심고. 그러고,}

10103 @ 아아! 여, 그문, 집은 여기 잇구.{아! 여기, 그러면, 집은 여기 있고.}

10103 # 집은 여기 잇구.{집은 여기 있고.}

10103 # 거기서 일시.{거기서 일시(一時).}

10103 @ 막으 짓구.{농막을 짓고.}

10103 # 일시 집우 쟁구 살메서리 기관으 댕기메 일했짐. 그랬어. 그래다서. 음.{일시(一時) 집을 짓고 살면서 기관(機關)을 다니며 일을 했지 뭐. 그랬어. 그러다가. 음.}

10103 @ 그럼, 막 열다섯 호 이릉기 같이 가는 거여?{그럼, 막 15호가 이릉기 같이 가는 거야?}

10103 # 야, 야.{응, 응.}

10103 @ 그면 사람이 막 한 삼십명 오십명 이렇게 데겠네?{그러면 사람이 막 한 30명 50명 이렇게 되겠네?}

10103 # 아, 그래. 그래 글썤 열다섯 호이무 남자 홀르 열둘이지 야. 식솔 많지. 기래.{아, 그래. 그래 글썤 15호이면 남자 호(戶)로 말하면 열둘이지 응. 식솔(食率)이 많지.}

10103 @ 애, 애기덜두 데리구 가?{아, 아기들도 데리고 가?}

10103 # 애기덜 싹 데리구 가. 제마끔 집우 쟁구 사지. 거기 가.{아기들을 싹 데리고 가지. 제각기 집을 짓고 살지. 거기에 가서.}

10103 # 기랜데 아 여자몸을르 아 그 브리가질(бригадир)이라는 거 열다스 호에 그거 남자 덜 다 히우자무 바쁘지. 그래 그래 내 삼년 동안 그러나 저러나 내 드살이 세길래 내 해 앓지. 하다, 에에! 마감에 여자 할 일이 애이라구 췌에뿌렸지. 그래 그거느 그 일으 하자 무 이 우리 에따(это) 따아 말은 그 솥호즈(совхоз) 야 솥호즈(совхоз)에 지렉또라(директор) 잇지. 지렉또라(директор) 큰사람덜 잇지. 거기르 내가 거기르 자다 아침이무 이 짝이 가서 차르 가질 일 잇으무 차르 자주구 못을 일이무 거기가 허가르 말아야 데지. 기래 내 아침에 기양 이짝이 댕기다가, 에이히! 그담에 삼년하구 췌에뿌렸어.{그런데 여자 몸으로 아 그 작업반장이라는 것이 15호에 그거 남자들을 다 휘어잡자면 힘들지. 그래 그래 내가 3년 동안 그러나 저러나 내가 억척스럽기에 내가 했지. 하다가, 에! 마지막에 여자가 할 일이 아니라고 내던졌지. 그래 그것은 그 일을 하자면 이 우리가 음 땅을 임차한 그 국영농장 응 국영농장의 지배인이 있지. 지배인이라고 높은 사람들이 있지. 거기르 내가, 거기르 자다가 아침이면 일찍 가서 차를 가질 일이 있으면 차를 갖고 또 무을(=관계를 맺을) 일이 있으면 거기에 가서 허가를 말아야지. 그래 내 아침에 그냥 일 짝이 다니다가, 에이! 하고 그다음에 3년을 하고 내던졌지.}

10103 @ 그까 거기 가서 그문 트랙톨(трактор)두 빌릴라문, 거기서 차두 ……?{그러니까 거기 가서 그러면 트랙터도 빌리려면, 거기서 차(車)도?}

10103 # 그으래! 트랙톨(трактор) 빌릴라, 차르 거기서 싹 비짐 야. 그러 물으 대두 허가르 말구.{그래! 트랙터를 빌리려(면), 차를 거기서 빌리지 뭐 응. 물을 대도 허가를 맡고.}

10103 @ 그문 자 거기서 빌려 가지구 쓰고 나중에,{그러면 자 거기서 빌려 가지고 쓰고 나중에.}

10103 # 야~.{응.}

10103 @ 그 파이 얼마라구 주면 데는 거야?{그 파 얼마를 주면 되는 거야?}

10103 # 아, 그래 그 거 거 거기 가서, 나리야드(наряд)라는 거 주구야 거기서 내애보내지.{아 그래 그 거 거기 가서, 작업 지시서(指示書)라는 것을 주어야만 거기서 차를 내 보내지.}

10103 @ 예, 예.{예, 예.}

10103 # 그럼 그거 가주구 우리 쓰짐, 야. 게 가서. 게 이 할머니 젊어서 그런 일으 다아 헛스.{그럼 우리가 그 트랙터 따위의 차를 가지고 쓰지 뭐, 응. 거기 가서. 게 이 할머니가 젊어서는 그런 일을 다 했어.}

10103 @ 그러면은 우리 조선사람들은 그런 일으 마 잘 했어요?{그러면 우리 조선 사람들은 그런 일을 잘 했어요?}

10103 # 조선사람덜마 다 해애 지끔. 다른 사람덜 그거 못하오.{조선 사람들만 다 해 지금. 다른 사람들은 그거 못 하오.}

10103 @ 어!{어!}

10103 # 파이 지심 매는 거 뉘기 매겠어. 바늘 같은데, 풀이 가득 나는 거. 개 싹군이 연구 매엿짐. 싹으 영짐[여짐]. 싹군.{파 김매는 것을 누가 매겠어. 바늘 같은 풀이 가득 나는 것을. 그래 샅꾼을 얻어 댕지 뭐. 샅을 넣지 뭐. 샅꾼.}

10103 @ 여기 저 끼르기스나 머 다른 민족은 못해?{여기 저 키르기스나 뭐 다른 민족은 못 해?}

10103 # 아이구! 그것덜 끼르기스(Кыргыз) 민족은 옴판 노다리우. 그것덜으는 바라이(бараи)만 자래와 먹구 이 이 시무는 거 모르우. 끼르기스(Кыргыз) 민족은 노다리. 우즈베크 민족으는 일으 마이 하오. 일으 잘 하오, 우즈베크는. 이 깝지르 이 이마아이 넓은 거 잘 게 이 찍해, 베께덜 깝지우 야. 베께덜으는 일으 잘 하오.{아이고! 그것들 키르기스 민족은 원래 노라리오. 그것들은 양(羊)만 키워서 먹고 이 심는 것은 모르오. 키르기스 민족은 노라리. 우즈베크 민족은 일을 많이 하오. 일을 잘 하오, 우즈베크인은. 이 팽이를, (날이) 이 이만큼 넓은 게 잘게 이게 찍히는데, 그게 우즈베크 팽이오, 응. 우즈베크인들은 일을 잘 하오.}

@ 다들 베께들이라구래?{다들 우즈베크 사람을 '베께'라고 해?}

야. 베께라. 우즈베크르 베께라 하오. 야, 베께라.{응. '베께'라고. 우즈베크 사람을 '베께'라 하오. 응, '베께'라고.}

@ 그머는 까 까자흐스탄은 뭐라구래?{그러면 카자흐스탄 사람은 뭐라고 해?}

아, 까자끄라 하짐. 이견 기르기스라구 그래. 음. 그렇소.{아, '까자끄'라고 하지 뭐. 이견 키르기스라고 그래. 음. 그렇소.}

@ 그럼 베께덜은 잘 사나?{그럼 우즈베크 인은 잘 사나?}

아, 베께덜은 …… 일 잘하는 게 잘 사오? 일 못 하는 게 못 살구 *그러. 아무데도 일 잘하는 게 잘 살지. 일 못하는 게 어티기 잘 사오.{아, 우즈베크 인들은 …… 일 잘하는 사람이 잘 사오? 일을 못 하는 것이 못 살고 그렇지. 아무데서나 일을 잘 하는 사람이 잘 살지. 일 못하는 것이 어떻게 잘 사오.}

@ 그럼. 여기 끼르기즈(Кыргыз)는 원래 양이나 머 염소나 머,{그럼. 여기 키르기스는 원래 양이나 뭐 염소나 뭐,}

그으래! 그건 거 재래우구 살짐.{그래! 그건(=키르기스 인) 양을 기르고 살지 뭐.}

@ 자래우면 지금두 자래우면 양 같은 거 많이 키우면 부우젤 거 아냐!{양을 기르면 지금도 양을 기르면 양 같은 것을 많이 키우면 부자(富者)일 것 아냐!}

아, 그렇제이. 부재구야 마이 치지. 개 그야~이라 팔아먹지. 염소도 팔구 양도 팔구 그래 팔구 그거 잡아먹구 기래짐.{아, 그렇잖고. 부자라야 많이 치지. 팔아먹지. 염소도 팔고 양도 팔고 그렇게 팔고 그거 잡아먹고 그러지 뭐.}

@ 근데 왜 안 치냐고?{그런데 왜 안 치느냐고?}

왜 아이 치는가 하구? 바뿌지 며. 그것두 치자무 승냥이 무리덜 와 그 야~아 물어가. 그래. 아아, 그담에는 아 야~아 치잠 바뿌이꺼나 거 그 췌에뿌리구서 야 어저는 그 산에서 야~아 쳐서 이렇게 산에서 짐승처럼 살던 사름덜이 차츰차츰 깨어서 이 고로드(город) 끼르기스(Кыргызстан) 비슈케크 고르드(город) 와서 총각덜안 대학에서 글으 이르우. 대학에서 글으 이르구 차츰차츰 그 깨지 못한 게 산에서 싹 바라내레오지. 음판 내레와다서 공부르 시게서 야 개 공부르 시게서 아: 무슨 재비 재가이 장기[장기] 잇는 대르 기관일두 하구 재가이 없는 건 장세르 하구 그러짐. 장세르 하지. 지금 매일 바자르(базар)에 장사꾸이 앓구 잇지.{왜 안 치느냐고? 힘들지 뭐. 그것도 치자면 승냥이 무리들이 와 그 양을 물어가. 그래. 아 그다음에는 아 양을 치자면 힘드니까 그거 내던지고서 응 이제는 그 산에서 양을 쳐서 이렇게 산에서 짐승처럼 살던 사람들이 차츰차츰 머리가 깨어서 이 도시 키르기스 비슈케크 시로 와서 총각들은 대학에서 공부를 하오.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차츰차츰 그 깨지 못한 사람이 산에서 싹 여기저기로 내려오지. 원래 내려와 가지고서 공부를 시켜서 응 그래 공부를 시켜서 무슨 자기 재간이 장기(長技)가 잇는 대로 기관일도 하고 재간이 없는 사람은 장사를 하고 그렇지 뭐. 장사를 하지. 지금 매일 시장에 장사꾼이 나와 앓아 잇지.}

@ 아니, 그 메리쯔(милиция)는 메리쯔(милиция)는 우리 우리 조선 사람도 메리쯔(милиция) 잇, 가 텐 사람이 있어?{아니 그 경찰은 경찰은 우리 우리 조선 사람도 경찰이 잇, 경찰이 된 사람이 있어?}

잇어 야. 혹시 잇어. 많제이오. 혹시 잇어 야~.{잇어 응. 혹시 잇어. 많지 앓소. 혹시 잇어 응.}

@ 그냥, 그건 그면 어티기 테는 거야? 시험 봐서 가두 테는 거야?{그냥, 그건 그러면 어떻게 해서 되는 거야?}

메리쯔(милиция)르? 공부르 하지. 그것두 공부르 해 가지. 그 벨리쯔(милиция)라는 것두 돈만 넣어주지애일겠어? 어징간한 이래 ***밧으르{경찰을? 공부를 하지. 그것도 공부를 해서 가지. 그 경찰이라는 것도 돈만 넣어 주지 앓겠어? 어지간한 일은 이렇게 ***.}

@ 그러니까.{그러니까.}

그건 나쁜 세월이짐. 그저 돈만 돈밖에 모르오. 그렇소. 우리 아들 차르 타구 가다가 조금 잘못하제일겠어? 메리쯔(милиция) 질에서 세오. 세우구서 아 이래 뿌라보다(правда) 도자~아 찍자무 우리 아들 거르만(карман)에 돈으 넣어주문 그러면 스스로 **보래. 그런 세월이. 지금 지금 세월이 그런 세월. 아주 나쁘고 망탕 세월이란 말이지.{그건 나쁜 세상이지 뭐. 그저 돈만 돈밖에 모르오. 그렇소. 우리 아들이 차를 타고 가다가 조금 잘못하지 앓았겠어? 경찰이 길에서 차를 세우오. 세우고서 아 이렇게 사실 확인 도장을 찍자면 우리 아들이 주머니에 돈을 넣어 주면 그러면 스스로 보내. 그런 세상이야. 지금 지금 세월이 그런 세월. 아주 나쁘고 엉망인 세월이란 말이지.}

@ 로시아도 그래? 로시아도?{러시아도 그래? 러시아도?}

러시아두, 아이! 노시아느…….{러시아도, 아니! 러시아는…….}

@ 러시아 러시아 메리쯔(милиция)도 마찬가지로야?{러시아 러시아 경찰도 마찬가지로?}

러시아 메리쯔(милиция)야 마찬가지로지만 해두 여기마 조금 법이 드세구. 그래구 노시아느…… 공자~이 많지. 공장에서 일하구. 야~. 지금 뿌쩨(Путин)을르 하재이오? 뿌쩨(Путин)은 그 사람 어 뿌쩨(Путин)은 페야~으르 오구. 김대주~이 페야~으르 가구. 그거 내게 사진이 싹 있어 큰 사지이 있어 보겠어?{러시아 경찰이야 마찬가지로지만 여기보다 조금 법이 드세고. 그리고 러시아는 공장이 많지. 공장에서 일하고. 응. 지금 푸틴으로 대통령을 삼지 않았소? 푸틴은 그 사람은 어 푸틴은 평양으로 오고. 김대중이 평양으로 가고. 그거 내게 사진이 모두 있어. 큰 사진이 있어. 보겠어?}

@ 아니! 한국에서 봤으니까. 뿌쩨이, 여기 러시아 사람덜은 뿌쩨 좋아해?{아니! 한국에서 봤으니까. 푸틴이, 여기 러시아 사람들은 푸틴을 좋아해?}

좋아하오. 잘한다 하지. 그 사람 여기두 왔다갔어.{좋아하오. 잘한다고 하지. 그 사람여기도 왔다 갔어.}

@ 그래요?{그래요?}

야~. 그 사람 잘 하지 야~.{응. 그 사람이 잘 하지 응.}

@ 어!{어!}

응.{응.}

10801 @ 으~: 어~:. 자 그러면, 자 그러면 여기서 그랬고. 농사는 그렇게 했고. 그담에 그담에 이제 우리 우리 그 사람덜끼리 모이면 우리 민족들끼리 모이면 주로 뭐하구 놀아? 어떻게 놀아?{자 그러면, 자 그러면 여기서 그랬고. 농사는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우리 우리 그 사람들끼리 모이면 우리 민족들끼리 모이면 주로 뭐하고 놀아? 어떻게 놀아?}

10801 # 어티기 놀겠어. 아 한갑우 쇠나[swena].{어떻게 놀겠어. 아 환갑을 쇠거나.}

10223 @ 한갑은 어떻게 세?{환갑은 어떻게 쇠어?}

10223 # 한갑오 원동식을르 하지. 한갑우 동갑이 절에 앓히구[안치구] 사둔 앓히구[안치구] 동미두 앓히구[안치구] 기래 사~아 받짐. 개 사~아 받아 그 동갑이나 그 사둔께다 이런 사~아 싹 해애놓소. 사~아 해애놓구 사~아 받지. 자식덜이 싹 들와 제마끔 들와서 수을으 붓구 그렇기 하짐. 한갑우느 그렇기 하오.{환갑은 원동식으로 하지. 환갑을 동갑이를 곁에 앓히고 사둔을 앓히고 동무를 앓히고 그렇게 해서 환갑상을 받지. 그래 상을 받아 동갑이나 사둔에게다 이런 상을 싹 해 놓소. 상을 차려 놓고 상을 받지. 자식들이 싹 들어와 제각기 들어와서 술을 붓고. 그렇게 하지 뭐. 환갑은 그렇게 하오.}

10223 # 자식덜이 제마끔 들와서 한 한갑우느 그뻬 이런 위지II(видик)란 뺨이 없었어. 위지II(видик)라는 뺨이. 위지II(видик)라는 게 이룩기 찍는 게 애이오? 찍는 거.{자식들이 제각기 들어와서 환갑은 그뻬는 이런 비디오로 촬영하는 법이 없었어. 비디오로 촬영하는 법이. 비디오라는 것이 이렇게 찍는 것이 아니오? 찍는 것.}

10223 @ 에, 에.{예, 예.}

10223 # 그거 켈레비조르(телевизор)다 보는 거. 그때느 없어서 못 귀래구. 내 (기침) 우리 아덜 나르 카페(кафе)서 야 칠십생진 샐어. 칠십 칠십 살으 먹은. 칠십 생진으 썬거 까세뜨(кассета)다 찍은 게 있어. 그담에 냅다 팔십 새, 팔십 썬 거 싹 까세뜨(кассета)다 찍었지. 야야, 그런 게 있어.{그거 텔레비전에다 넣어서 보는 거. 그때느 없어서 못

그리고(=찍고). 내 (기침) 우리 아이들이 나를 카페서 응 70 생일을 쇠었어. 70, 70 살을 먹은. 70 생일을 쇠 거 카세트테이프에다 찍은 것이 있어. 그다음에 냅다 80이 되어 생일을 쇠, 80 쇠 거 썩 카세트테이프에다 찍었지. 야, 그런 것이 있어.}

10223 @ 그러면 팔십 때도 상 받아?{그러면 80세 때도 상을 받아?}

10223 # 아이! 팔십 때느 상이사 받지. 사~이다느 특별하게 갖춰 놓지. 그래 거기다서 내 그저 동갑이랑 벨루 아이 그저 아 가까운 사름덜은 내 친척이나 이래 앉히지. 그래 앉히구 [안치구]. 특별이 딸르 앉짐 야. 기래문 저쪽에서 썩 에따(это) 군중덜 오는 게 앉구 기래지. 한갑이야 특별하지[특별라지]. 한갑우느 만아들부터 **새길해서 **채채빌르 이상지하르 차렐에서 절차대르 하지. 수울 붓어 올리구 절으 하구 수울 붓어올리구 절으 하구.{아이! 80 때는 상이야 받지. 상에다 특별하게 갖추어 놓지. 그래 거기다 내 그저 동갑이랑 특별히, 아이 그저 가까운 사름들은 내 친척이나 이런 사름들은 이렇게 앉히지. 그렇게 앉히고. 특별히 따로 앉지 뭐, 응. 그럼 저쪽에서 썩 음 군중(群衆, =하객)들이 오면 앉고 그러지. 환갑이야 특별하지. 환갑은 만아들부터 시작하여 채비를 하여 손위와 손아래를 차례를 지어 절차대로 하지. 술을 부어 올리고 절을 하고, 또 술을 부어 올리고 절을 하고.}

10223 @ 절은 어떤 절으 해?{절은 어떤 절을 해?}

10223 # 그저 옆댓다 이나지 머.{그저 옆드렸다 일어나지 뭐.}

10223 @ 큰절르 옆댓나 이렇게 하는 거어?{큰절로 옆드렸다 이렇게 하는 거?}

10223 # 아이! 그전에두 원동두 절이 잇엇짐.{아이! 그전에도 원동도 절이 잇엇지 뭐.}

10223 @ 여기는 여기는 지금두 여기두 원동에서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해?{여기는 여기는 지금도 여기도 원동에서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해?}

10223 # 원동에서 했던 절차르, 여기 여긴 여기는 세배라는 것두 없고 절이라는 게 없어.{원동에서 했던 절차르, 여기 여기는, 여기는 세배라는 것도 없고 절이라는 것이 없어.}

10223 @ 아니! 한갑 때 말야.{아니! 환갑 때 말이야.}

10223 # 한갑 때는 꼭 절하오.{환갑 때는 꼭 절하오.}

10223 @ 한갑 때는 꼭 절해?{환갑 때는 꼭 절을 해?}

10223 # 머 할 줄 알구 모르구 절무이구 무시기구 다 절하오. 야~ 시기는 쟈네. 그렇게 하오. 기래구.{뭐 할 줄 알고 모르고 젊은이고 무엇이고 다 절하오. 응. 시키는 것인데. 그렇게 하오. 그리고.}

10223 @ 상에느 주로 뭇머를 채려?{상에는 주로 뭇 뭇을 차려?}

10223 # 사~에다 (기침) 한갑사~에다는 좋은 음식으 썩 놓지. 좋은 음식으 놓고 야. 거나 한국에서 저 폐야~에서 한갑이나 그런 거 새는 거 내 많이[마이] 보지. 내 책으 많이[마이] 개에다 놔. 마. 기래 거기서는 이릉기 막 장쳐놓구 장쳐놓구 이릉기.{상에다 (기침) 환갑상에다는 좋은 음식을 썩 놓지. 좋은 음식을 놓고 응. 그러나 한국에서 저 평양에서 환갑이나 그런 거 쇠는 것을 내가 많이 보지. 내가 책을 많이 가져다 놔. 많[마]. 그래 거기서는 이렇게 막 쟈여 놓고 쟈여 놓고 이렇게.}

10208 # 아, 여기서는 그릇에다 썩 담아 놓지. 개 담아 놓구 그담엔 사~에다 좋은 음식으 담아 놓는 게 딸구. 찰떡이랑 증퍼이랑 썩 놓구. 그담엔 저 식당칸에서 어 따갑은 국으 해서 또 이래 내다 주구 야. 그렇게 먹으라구 야. 거기 해앰이 해앰이 가뜩하구[가뜩.하구] 야. 그렇기 새지. 기래구 한갑우느, 잔चे는 잔젧상으는 수탑으 수탑으 새애기 신랑새애기

두울이 같이 앉은 데다 수탉으 두울으 해 놓소. 수탉으 두울으 맨들어 놓구.{아, 여기서는 그릇에다 싹 담아 놓지. 그래 담아 놓고 그다음에는 상에다 좋은 음식을 담아 놓는 것이 다르고. 찰떡이랑 증편이랑 싹 놓고. 그다음에는 저 식당칸에서 어 뜨거운 국을 해서 또 이렇게 내다 주고 응. 그렇게 먹으라고 응. 거기 반찬 반찬이 가득하고 응. 그렇게 쇠지. 그리고 환갑은, 혼인잔치의 잔칫상(=초례상)은 수탉을, 수탉을 신부, 신랑 신부 둘이 같이 앉은 데다 수탉을 둘을 해 놓소. 수탉을 둘을 만들어 놓고.}

10208 @ 살아 있는 거요?{살아 있는 거요? }

10208 # 야~?{응?}

10208 @ 살아 있는 거?{살아 있는 거?}

10208 # 아이! 잡은 거. 벧에다 고치르 물기구 청실 홍실 실두 늘이구 아 잔칫상으느 그렇기 받소. 잔칫상으느 그렇기 받소.{아니! 잡은 것. 벧에다 고추를 물리고 청실 홍실 실도 늘이구 아 혼인 초례상(醮禮床)은 그렇게 받소. 초례상은 그렇게 받소.}

10223 @ 한갑때?{환갑 때?}

10208 # 아이! 잔칫상.{아니! 초례상.}

10208 @ 잔칫상.{초례상.}

10208 # 야~. 그담에 이 자석덜으는, 부모덜이 아 아이가 나문 첫똥이르 뺨기구, 한갑상으 잔칫상으 뺨겨야지. 그담에 이 자석덜은 자라서 어저는 부모르 한갑우 한갑사~아 뺨게야 데지. 그렇침. 그건 우리 조선사람 법이침. 원동서도 그랬지.{응. 그다음에 이 자식들은, 부모들이 아이가 나면 첫돌 상을 차려 주고, (자식들은) 환갑상을 잔칫상을 차려 줘야지. 그다음에 이 자식들은 자라서 이제 부모를 환갑을 환갑상을 차려 주어야 되지. 그렇지 뭐. 그건 우리 조선 사람의 법이지 뭐. 원동서도 그랬지.}

10208 @ 그러면,{그러면,}

10223 @ 머라구요?{뭐라고요?}

10223 # 에이구! 저것덜 사진말했다구 왔다우. 무시기 와. 우리 손비 왔다우. 야. 사진. 준비하구 있다우. 그럼 또 가서 찍지. (사진 촬영으로 잠시 쉽) {에이구! 저것들이 사진, 사진 찍는다고 했더니 사진 찍으러 왔다오. 무얼 하러 와. 우리 손자 며느리가 왔다오. 응. 사진. 준비를 하고 있다오. 그럼 또 가서 찍지.}

@ 보내 가지구.{보내 가지고.}

야~. 그럼 보내우. 그래 보내무 데는데 그 보내는 데 돈이 많이[마이] 에이 드우.{응. 그럼 보내면. 그럼 보내면 되는데 보내는 데 돈이 많이 드우.}

@ 아니! 안 들어.{아니! 안 들어.}

많이[마이] 드무 내가 싫다구 그러재. 내 무시게 저르 자꾸 돈 쓰게 하겠소.{많이 들면 내가 싫다고 그러잖소. 내가 뭐 때문에 자네에게 자꾸 돈을 쓰게 하겠소.}

@ 아니! 크게 뽐아서 (보내드리겠어요).{아니! 크게 뽐아서 (보내드리겠어요).}

야~. 야~. 크게 해서 야 그래 보내오. 그램 우리 게 우리 가정사지이 좋침 야. 가정. 내 죽기 전에 우리 아들며느리가 게 이제 가정사진으 찍었지. 야. 가정사진으 찍었어.{응. 응. 크게 확대해서 응 그렇게 해서 보내오. 그럼 우리 그게 우리 가정사진(=가족사진)이 되어 좋지 뭐 응. 가정. 내가 죽기 전에 우리 아들며느리와 그거 이제 가족사진을 찍었지. 응. 가족사진을 찍었어.}

@ 나두 기념이 데지이. 여기와서 아매와, (찾잔 부딪히는 소리) 아이구! 아매랑 보냈는데.

{나도 기념이 되지. 여기 와서 할머니와, (찾잔 부딪히는 소리) 아이고! 할머니랑 같이 보냈는데.}

그담에 아 저 부인네가 같이 찍은 그 사진도 하나 보내오. (웃음) 야~. 보내오!{그다음에 아 자네 부인과 같이 찍은 그 사진도 하나 보내오. (웃음) 응. 보내오!}

@ 네! 알았어요.{네! 알았어요.}

야~? 이따 보내오 야~? 거기다 한데 보내오. 부인네 같이 찍은 거. 아. 자네가 가문…… 내가 답답해 어찌겠소.{응? 이따 보내오 응? 거기다 한데 보내오. 부인과 같이 찍은 것. 아. 자네가 가면…… 내가 답답해 어하겠소.}

@ 왜 답답해. 시원하지!{왜 답답해. 시원하지!}

어째 시원하겠소. 썸썸 일하이 내게 좋지.{어째 시원하겠소. 점점 일을 하니 내게 좋지.}

@ 매일매일 바쁘지. 바빴는데.{매일매일 바쁘지. 바빴는데.}

바빠두 썸썸 하기 좋은 데 야아. 그 자네가 없으면 즉 이제 가마이 놓구 잇음 켈레비서르(телевизор) 보구. 그거 나쁘짐. 일하는 게 내게 아주 좋소. 개 내게 일할 일 잇으무 내한테 르 보내오. (웃음){바빠도 점점 하기 좋은 데 야. 그 자네가 없으면 즉 이제 가만히 누워 있으면 텔레비전을 보고. 그거 나쁘지 뭐. 일하는 것이 내게 아주 좋소. 그래 내게 일할 일이 있으면 나한테로 보내오. (웃음).}

10103 @ 거시기는, 그 여그 있는 여기 있는 아매나 아바이들은 주로, 주로 무슨 일으 하세요? 주로?{거시기는, 그 여기 있는 여기 있는 할머니나 할아버지들은 주로, 주로 무슨 일을 하세요? 주로?}

10103 # 암놀따~이. 집두 지키구 이래 내쳐르. 아아암, 일하는 게 없어. 아매 아바이가 일하는 게 없짐. 야. 조선사람 아매가 아바이사 일하는 게 없짐. 이래 집에 앉아 집도 지키고 젊은이덜 팔라 가무 아이두 보고 그러짐. 아이두 보고 그러지. 개 젊은이들은 집에 잇을 시가이 없지. 눈이 똑 떨어지문 물건 가주구 마시나(машина)다 싹구[실꾸] 차에 싹구[실꾸] 바자르(базар) 가지. 바자르(базар) 가서 온 종일 그거 팔다가 저녁이무 오지. {백수건달. 집도 지키고 이렇게 나처럼. 아무, 일하는 것이 없어.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일하는 것이 없지 뭐. 응. 조선 사람 할머니와 할아버지야 일하는 것이 없지 뭐. 이렇게 집에 앉아 집도 지키고 젊은이들이 팔러 가면 아이도 보고 그러지 뭐. 아이도 보고 그러지. 그래 젊은이들은 집에 잇을 시간이 없지. 눈이 똑 떨어지면 물건을 가지고 차에다 싹고 차에 싹고 시장을 가지. 시장을 가서 온 종일 그거 팔다가 저녁이면 오지.}

10103 @ 그러면 바자르(базар) 가서 그렇게 온종일 그렇게 가지구 한 달 한 달 벌면 그 얼마나 벌어?{그러면 시장에 가서 그렇게 온종일 그렇게 해서 한 달 한 달을 벌면 얼마나 벌어?}

10103 # 그래 거기서 잘 팔아 잘 버는 사람 잇구 못 팔아 못 버는 사람잇구. 물건으 중국에 가 가져오. 씨리야(Сирия) 가 가져오. 한국에 가, 한국 물건 한국이 비싸다나이 여기와서 잘 못 파오. 여기선 비싼 건 아이 싸지. 개 한국 물건 값이 잇지 야.{그래 거기서 잘 팔아 잘 파는 사람 있고 못 팔아 못 버는 사람 있고. 물건을 중국에 가 가져오고 시리아에 가 가져오고 한국에 가, 한국 물건 한국이 비싸다 보니 여기 와서 잘 못 파오. 여기선 비싼 것은 안 사지. 그래 한국 물건 값이 잇지 응.}

10103 # 그래서 한국, 한국 중국 한국 여기 씨리야(Сирия)란 나라잇재오? 거기서 거기서 물건으 가서 쳐다 막 이래 비행기나 이래 실어다아서 개 이 시장에서 팔짐. 기래 파는 사

람우느 으음 조금 낮게 벌구. 그답에는 공자~으 열어 놓구 반:질하지. 저 우리 손네라 대 개 반:질해에서 그 바안질한 거 개애다서 또 따시켄뜨나 알마따두 와 가져가는 사람 잇지. 개 그거 막 냉게 주지. 그래두 벨라게 다 벌짐. 벨라게 다 버 야. 그래,{그래서 한국, 한국 중국, 한국 여기 시리아란 나라가 있잖소. 거기 가서 거기 가서 물건을 가서 추어서 막 이렇게 비행기로나 이렇게 실어다가 그래 이 시장에서 팔지. 그렇게 파는 사람은 음 조금 낮게 벌고. 그다음에는 공장을 열어 놓고 바느질하지. 저 우리 손녀가 그래 바느질해서 그 바느질한 것을 가져다 또 타슈켄트나 알마티에서도 와서 가져가는 사람이 잇지. 그래 그거 막 넘겨주지. 그래도 별나게 다 (돈을) 벌지 뭐. 별나게 다 버오 응. 그래.}

10103 @ 그렇게 해서 만약에 공장 같은 데 가서 바느질하구 그렇기 하면 한 달에 얼마나 벌어?{그렇게 해서, 만약에 공장 같은 데 가서 바느질하면 한 달에 얼마나 벌어?}

10103 # 아, 한달에,{아, 한 달에,}

10103 @ 보통, 보통.{보통, 보통.}

10103 # 보통 많이[마이] 못 버오. 아 많[마] 많이[마이] 못 버오. 그래 많이[마이] 버는 사람이 잇구, 많이[마이]…….{보통 많이 못 버오. 아, 많, 많이 못 버오. 그래 많이 버는 사람이 있고, 많이[마이]…….}

10103 @ 한 삼천숨 벌어?{한 3,000숨 벌어?}

10103 # 아, 삼천 숨을 야 버지. 삼천 숨으 버오, 음. 우리 아들이 지금 일하는 게 한 쏘뜨까(сотка)무 스물넷이 한 쏘뜨까(сотка)지. 우리 아들이 나가무 스물넷새 동안으 가서 에 따(это) 그런거 일하지. 스물넷새 동안. 기래고 그. **하 그게 쏘뜨까(сотка)라는 게 스물넷이오. 한 쏘뜨까(сотка) 열 쏘뜨까(сотка) 하재일겠어. 열 쏘뜨까(сотка). 열 쏘뜨까(сотка) 하무 백 숨우 버오. 아, 백 달러(доллар)르 버오. 야 백 달라.{아, 3,000숨을 응 벌지. 3,000숨을 버오, 음. 우리 아들이 지금 일하는 게 한 소트카면, 스물넷이 한 소트카지. 우리 아들이 나가면 스물넷새 동안을 가서 음 그런 거 일하지. 스물넷새 동안. 그리고 그. 그게 소트카라는 것이 스물넷이오. 한 ‘소트카, 열 소트카’라고 하지 않겠어. 열 소트카, ‘열 소트카’라 하면 100숨을 버오. 아, 100달러를 버오. 응 100달러.}

10103 @ 열 숨 하면?{10숨 하면?}

10103 # 열, 열 쑤뜨깁(сотка) 하구야, 하구야 아 백 달라르 버오. 기래문 삼십 쏘뜨까(сотка)르 해야야 삼백 달라르 벌지. 우리 아들이 지금 일하는 게. 개 차에 기름이 많이 드재이오? 그 기름 값은 거기서 물어 주구 야. 개구 밤에 저녁이나 점심이나 스물넷에 어간을 집우르 아이 오다나이 점심의 먹구 기래우.{열, 열 소트카를 해야만, 해야만 아 100달러를 버오. 그러면 30소트카를 해야 300달러를 벌지. 우리 아들이 지금 일하는 것이. 그래 차에 기름이 많이 들잖소? 그 기름 값은 거기서 물어 주고 응. 그리고 밤에 저녁이나 점심이나 24시간 사이를 집으로 오지 않다 보니 점심을 먹고 그러오.}

10103 @ 점심이랑.{점심이랑.}

10103 # 야~, 야~. 거기서 먹,{응. 응. 거기서 먹(고).}

10103 @ 저녁은 거기서 주구?{저녁은 거기서 주고?}

10103 # 저녁도 거기서 멕이구 야~. 그래오.{저녁도 거기서 먹고 응. 그러오.}

10103 # 기래 그거 우리 아들이 우리 우리 동미 가깝운 동미, 우리 아들이 동미 여자 그 까지노(казино)서 일하지. 개 일하는데 그 **짜리르 전활하지. 개 우리 아들 하는 일이

임시 일이지. 임시적이지. 아아 장차 일해야지. 개 임시르 삼얼 달이무 밭씨 밭으 가지. 기래 가겠는데 그 어간에 일해야 일해야 **싸찌. 개 일해야 데겠는데 작년에는 돈 벌어난 거 가주구 우리 동삼에 아 식노르 싸서 먹구 아, 그담에 이 아 밭을 갈 뿌리온까(клевенка)랑 이런 게랑 쌀 도이 대엿지. 올해[오래]는 저 딱 집우 썬다구 저기다 다아 밀어영엇지. 기래다나이 일하지.{그래 그거 우리 아들이 우리 우리 동무, 가까운 동무, 우리 아들이 그 여자 동무가 운영하는 그 카지노에서 일하지. 그래 일하는데 그 일할 자리를 전화하지. 그래 우리 아들이 하는 일이 임시 일이지. 임시적이지. 아 (그러니) 장차 일해야지. 그래 임시로 3월 달이면 밭씨 (고본질을 할) 밭으로 가지. 그래 갈 것인데 그 사이에 일해야, 일해야 살지. 일해야 되겠는데, 작년에는 돈을 벌어난 거 가지고 우리 겨울에 아 식료(食料)를 사서 먹고 아 그다음에 이 밭으로 (갈 때 가지고 가는) 비닐이랑 그런 것을 살 돈이 되었지. 올해는 딱 저 집을 산다고 저기다 다 밀어 넣엇지. 그렇다 보니 일하지.}

10103 @ 그러문 그::: 저 이제 러시아로 일하러 갈라면,{그러면 그 저 이제 러시아로 일하러 가려면.}

10103 # 야~.{응.}

10103 @ 돈으 얼마나 가지구 가야 데?{돈을 얼마나 가지고 가야 돼?}

10103 # 마이 가지구 가야 데오. 오백 달라씨 이릉기 가지구 가오.{많이 가지고 가야 되오. 500달러씩 이렇게 가지고 가오.}

10103 @ 한 번 갈 때?{한 번 갈 때?}

10103 # 야~. 아, 그래 어찌는가이 거기 가서, 따아,{응. 아, 그래 어찌하는가 하면 거기 가서, 땅을,}

10103 @ 아렌다(аренда)해야지.{임차(賃借)를 해야지.}

10103 # 아렌다(аренда)하는 거 그 값으 물어야 데지.{임차(賃借)하는 거 그 값을 물어야 되지.}

10103 @ 땅, 아렌다(аренда)는 바로 가서 가자마자 주는 거야?{땅을, 임차는 바로 가서 가자마자 하는 거야?}

10103 # 저레 물어야지. 기래 물구 그담에는 또 어찌는가 하면 아 싹군덜 일 시기야 데지. 밭으 수박 **시문지 야둡[야둡] 겍따르(гектар) 시머, 야둡[야둡]. 야둡[야둡] 겍따르(гектар) 잉기 밭이 어찌 많소. 두울이서 두 집이서. 개 그거 시무문, 그 수박 심어야 데지. 기움우 매애사 하지. 수박으 뜯어야 데지. 그거 싹 싹꾸이 하짐. 개 싹꾸이 하다나 그거 싹꾼으 값으 물어주구. 싹꾼으 맥에주구. 싹꾼 집우 징소 절에다. 싹꾼집우 절에다 징구 저기다 싹꾼덜으 너이나 서이 너이다 다섯이나 개 두지. 개 두구 그 사람덜으 끓에서 맥에주구. 우리 우리 메느리나 손녀가 끓에 맥에 주구 그담엔 맥에줌 일할라 내보내짐. 그럼 또 정습 먹으라 들어오지. 정심 먹구 저녁 먹구 그러지.{가자마자 이내 곧바로 임차료(賃借料)를 지불해야지. 그래 물고 그다음에는 또 어찌하는가 하면 아 싹꾼들 일을 시켜야 되지. 밭을 수박을 심는데 8헥타르를 심어, 8헥타르. 8헥타르라 하면 이렇게 밭이 얼마나 많소. 둘이서 두 집에서. 그래 그거 심으면, 그 수박을 심어야 되지. 김을 매야 하지. 수박을 따야 되지. 그거 싹 싹꾼이 하지 뭐. 그래 싹꾼이 하다 보니 그거 싹꾼의 값(=임금)을 지불하고. 싹꾼을 먹여 주고. 싹꾼 집을 짓소, 곁에다. 싹꾼 집을 곁에다 짓고 저기다 싹꾼들을 넷이나 셋, 넷이나 다섯이나 그래 두지. 그래 두고 그 사람들을 음

식을 만들어 먹여 주고. 우리 우리 며느리나 손녀가 끓여 먹여 주고 그다음에는 먹여 주면 일하러 가도록 내보내지 뭐. 그럼 또 점심 먹으러 들어오지. 점심 먹고 저녁 먹고 그러지.}

10103 @ 그 사람덜은 다아 다아 우리 조선사람이여 아니면,{그 사람들은 다 다 우리 조선 사람이야 아니면,}

10103 # 아이이! 싹 타국사람. 조선사람이 싹꾼질하는 게 없소. 조선사람 얻지 못 대오. 싹꾼질 아이 하오. 이게 싹꾸이지. 타국 사람덜이지. 노시아사람. 거기 시기 노시아땅에다나 이 노시아사람덜이지. 기래 그것덜이 그 귀정배이나 그 돈벌이 못하는 것덜이 일 싹꾼질하라 댕기지.{에이! 싹 타국 사람. 조선 사람으로서 싹꾼질하는 사람이 없소. 조선 사람을 얻어서 못 대오. 싹꾼 노릇을 안 하오. 이게 싹꾼이라면, (그건) 타국 사람들이지. 러시아 사람. 거기 (일을 시키는 곳) 러시아 땅이다 보니 러시아 사람들이지. 그래 그것들이 그 주정뱅이나 그 돈벌이 못하는 사람들이 일을, 싹꾼 노릇을 하러 다니지.}

10103 @ 그 사람들은 그뎨는 한 달에 얼마 얼마씩 줘?{그 사람들은 그러면 한 달에 얼마 얼마씩 줘?}

10103 # 그 사람은 한 달에 일하구…… 모르지, 얼마나 버는 거 내 거 모르오. 내 아이 데리구 일하다나이 모르 그. 그렇지. 그래다나이 야 아 갈 적에 돈으 가지구 가구 또 무시기 사 차에 세 쏘뜨까(сотка)씩 이릉기 저 여기서 가, 야 차르 타구 가오. 개 차르 타구 가는데 어: 기래 가구. 그담에느 가서 여기서 무시거 보내는가무야 빨리온까(клеёнка) 잇재이오? 빨리온까(клеёнка) 저 둘둘 만 거. 빨리온까(клеёнка) 그거. 빨리온까(клеёнка) 알지 야?{그 사람은 한 달에 일하고…… 모르지, 얼마나 버는지를 내가 그거 모르오. 내 데리고 일을 하지 았다 보니 모르지 그걸. 그렇지. 그래다 보니 응 갈 적에 돈을 가지고 가고 또 무엇인가 차에 3소트카씩 이렇게 저 여기서 가, 이 아이 차를 타고 가오. 그래 차를 타고 가는데, 어 그렇게 가고. 그다음에는 가서 여기서 무엇을 보내는가 하면 응 비닐이 있잖소? 비닐 저 둘둘 만 것. 비닐 그거. 비닐을 알지 응?}

10103 @ 빨라스떡, 보이는 거 치는 거.{플라스틱 합성수지 제품, 투명한 것, 둘러 치는 것.}

10103 # 야, 야. 보이는 거,{응 응. 투명하게 비치는 것.}

10103 @ 치는 거.{치는 것.}

10103 # 야, 야. 치는 거 그거.{응, 응. 치는 거 그거.}

10103 # 그거 여기서 그거 여기서 빨리온까(клеёнка) 싸서 칸뎨(контейнер)에 보내오.{그거 여기서, 그거 여기서 비닐을 사서 컨테이너에 보내오.}

10103 @ 칸뎨(контейнер)이 뭐야?{‘칸뎨’이 뭐야?}

10103 # 칸뎨(контейнер)이라는 거 무시긴가 하무 큰 물건으 실어서 세르 탁 채와서 그래 그거 보곤(вогон)이다 차에 실어서 차 그건 어떤 차 가는감: 객차 아이 가구서르 에 이 우리 저 가축 차래~에다 한 달씨 가지. 기래 거기다 미루 발씨 싸서 싹게[실게] 보내지. 개 싹게[실게] 그 빨리온까(клеёнка) 그 값이 비싸 그게 도이. 그 빨리온까(клеёнка) 르 중국에 여깃사람덜 중국에 가서 실어오이. 여기서 아이 뎨들지. 외국에 가, 개 외국 하다나이 게 비싸지. 이릉기 둘둘둘둘 말아서 이마아이 특한, 이마아이 특한 게 아 질싹 이릉기 진 게 그렇지. 그거 덮어야 수박이 데지.{칸뎨(=컨테이너)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큰 물건을 실어서 자물쇠를 탁 채워서 그래 그것을 기차의 차량에다, 차에 실어서, 차 그건 어떤 차인가 하면 객차(客車)는 안 가고 에 이 우리 가축 차량에다(으로) 한 달

씩 가지. 그래 거기다 벌써 미리 실려 보내지. 그래 실려, 그 비닐 그 값이 비싸 그게 돈이 (많이 들지). 그 비닐을 중국에, 여기 사람들이 중국에 가서 실어오니. 여기서 안 만들지. 외국에 가, 외국에서 만들다 보니 그게 비싸지. 이렇게 돌돌돌돌 말아서 이만큼 굵은, 이만큼 굵은 것이 아 길이는 이렇게 긴 것이 그렇지. 그걸 덮어야 수박이 되지.}

10103 @ 그렇지.{그렇지.}

10103 # 그거 안 덮우면 아이 데지.{그거 안 덮으면 안 되지.}

10103 @ 그거 덮어가지구 이릉기 구멍 뚫어 가지구 씨 놓지.{그거 덮어 가지고 이렇게 구멍을 뚫어 가지고 씨를 놓지.}

10103 # 그으래! 그거 싹 덮어 가조: 아 그거 우우 아 거 빠르니ㄷ(парник) 노시아말은 무시기라 하겠는지. 빠르니까(парника), 빠르니까(парника)라는 게 그거 그거 가지구 집우 장소, 야. 그거 가지구 이르 이릉기 자아 집우 지으무 기계 그 아이 덮어서, 저긴 칩은 끈이 애이오? 수박이 인차 나지. 빨리 나지. 기래 빨리 나 그담에 차참 차츄 따따사무 그 그 집우 뺏기구, 여기서두 그렇기 하오. 개 그 집우 뺏기구 아 거저리 같은 널르 덮지. 널루. 널루 위에 덮우면 수박 너출이 그 뺏어 나오게 데무 거기 궁구 뚫어 노이 일이 많지 머, 거기 궁구 뚫지. 수박덜이 그 빨리온까(клеёнка) 우우르 이릉기 폐지. 개 이게 마약에 그 조애르 여기다 싹 쫓는데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수박 그 뚫어 노무 거그서 나와서 그 너출이 빨리온까(клеёнка) 우이르 번어나가지. 개 여그는 풀이 아이 나지.{그래! 그거 싹 덮어 가지고 그거 위를 아 거 빠르니ㄷ(=온실(溫室))라는 이 러시아 말은 (조선말로) 무엇이라 하는지. 온실, 온실이라는 것이 그거 가지고 집을 짓소, 응. 그거 가지고 이렇게 저 아이가 집을 지으면 그게 그 안이 더워서, 저긴 추운 곳이 아니요? 그래서 수박이 이내 나지. 빨리 나지. 그래 빨리 나 그다음에 차츄차츄 따뜻하면 그 그 집을 벗기고(=비닐을 걷어내고), 여기서도 그렇게 하오. 그래 그 집을 걷어내고 아 거저리 같은 널로 덮지. 널로. 널로 위에 덮으면 수박 녁쿨이 뺏어 나오게 되면 거기다(=비닐에다) 구멍을 뚫어 놓아야 되니 일이 많지 뭐. 거기다 구멍을 뚫지. 수박들이 그 비닐 위로 이렇게 퍼 나오지. 그래 이게 만약에 그 종이를 싹 쫓는데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수박이 난 그공세 구멍을 뚫어 놓으면 거기서 나와서 그 녁쿨이 비닐 위를 뺏어 나가지. 그래 여기는 풀이 안 나지.}

10103 @ 그렇지.{그렇지.}

10103 # 야~. 그렇기 하오.{응. 그렇게 하오.}

10103 @ 으음::.{으음.}

10103 # 그 그렇기 우리 아들가 메느리 손재 손비 일은 많이[마이] 하오. 일은 마이. 그렇기 가지.{그 그렇게 우리 아들과 며느리, 손녀 손녀사위가 일은 많이 하오. 일은 많이. 그렇게 가지.}

10103 @ 그렇기 한번 갔다 오면,{그렇게 한 번 갔다 오면,}

10103 # 야~.{응.}

10103 @ 갔다 오면 얼마나 벌어? 일년 딱?{갔다 오면 얼마나 벌어? 딱 일 년 동안?}

10103 # 어이그! 그래 가서. *사 그래 삼 월 달에 가서 사월 오월 유월 칠월 팔월 구월 구월 말에나 시월이나 여섯달이나 일곱달 가 일하지. 아, 그래문 잘 벌면 열천 달러(доллар) 르 벌구 열천 으 야~, 못 벌무 야둡 천으 벌구. 더 못 벌무 일곱 천으 벌구 그렇지. 개. {어이구! 그렇게 가서. 삼(월), 그렇게 3월 달에 가서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9월

말에나 시월, 여섯 달이나 일곱 달을 가 일하지. 아, 그러면 잘 벌면 1만 달러를 벌고 못 벌면 8천 달러를 벌고. 더 못 벌면 7천 달러를 벌고 그렇지. 그래.}

10103 @ 잠깐만. 일곱 천이면 칠천 달라. 천 만 십만 백만.{잠깐만, ‘일곱 천’이면 7,000달러. 천, 만, 십만, 백만.}

10103 # 야~. 그렇기 벌어. 기래 그담에느.{응. 그렇게 벌어. 그래 그다음에는.}

10103 @ 두 집이 합쳐서?{두 집이 합쳐서?}

10103 # 아이! 한내. 개 야.{아니! 한 집. 그래 이 아이,}

10103 @ 양쪽이 합치면 그만 천오백 딸라?{양쪽이 합치면, 그러면 1,500달러?}

10103 # 그래. 야 야덜 두 집에서,{그래. 이 아이 이 아이들 두 집에서.}

10103 @ 이천오백.{2,500.}

10103 # 이천오백 딸라르 벌어왔지. 기래 이천오백 딸라르 왔는데.{2,500달러를 벌어 왔지. 그래 2,500달러를 벌어 왔는데.}

10103 @ 다아 **돌아, 돈 들어 간 거 다아, 다 물고?{다 들어, 돈 들어 간 것 다? 다 물고?}

10103 # 다아 물고 짚은 거. 그러구 돈 타구 수박 바치구 그거 타. 수박은 밭에 와서 막 실어 가구. 개 그 돈은 이천오백 딸라르 가주구 왔는데 이집은 이 이천오백 딸라르. 열다섯 천 딸라르 야~.{다 물고 남은 거. 그러고 돈 타고, 수박 바치고 그거 타. 수박은 밭에 와서 막 실어가고. 그래 그 돈은 2,500달러를 가지고 왔는데 이 집은 이 2,500달러를. 1,500달러를 응.}

10103 @ 열다섯 천 딸라가 제 딱 넣어버린 거야?{1,500달러가 자기가 딱 넣어 버린 거야?}

10103 # 다 거기다 쫓김.{다 거기다 쫓지 뭐.}

10103 # 개 주다나이 음: 내가 약 달라, 약 쌀라느, 약으 싸자는 돈 말으 못하지. 개 내 제 재빌르 약으 싸다 먹었지. 그러구 그담에느 아 우리 아들이 일해야 데지. 기래 아들이 일하지. 그담 우리 손녀 야 까시노(казино)서 일하오. 까시노(казино)서 ‘오스가이’라구. 거 보내서. 개 우리 손녀느 아 아 까시노(казино) ***까딱하주 노재이우? 이런 일으 아 이하구 어저느 깐뜨랄료랑(контролёр) 지키는 거 그런 일으 하오. 어전 일으 오래 하다 나이. 우리 손녀 스물세살인게 시집 아이 갔어. 스물세 살인게 어전 시집가야 데지. 어전 스물네 살채 가오. 시집가야지. 저 큰 건 저건 아 한내 잇재? 작은 게. 이집에 아들 둘 딸 둘인데 아이 가구. 기래 가가 까시노(казино)서 벌어서, 아아 가 한달에 삼백 딸라르 베틀오. 가아.{그래 주다 보니 음 내가 약을 달라고, 약 사려는, 약을 사려는 돈을 달라고 말을 못 하지. 내가 내 스스로 약을 사다 먹었지. 그리고 그다음에는 우리 아들이 일해야 되지. 그래 아들이 (다시 이곳에 와서) 일하지. 그다음에 우리 손녀가 응 카지노서 일하오. 카지노서, ‘오스가이’라고 하는 곳. 거 보내서. 그래 우리 손녀는 아 카지노서 ***놀잖소? 이런 일을 안 하고 이제는 감시원으로, 지키는 거 그런 일을 하오. 이젠 일을 오래 하다 보니. 우리 손녀는 스물세 살을 먹었는데 시집을 안 갔어. 스물세 살인 것이 이젠 시집가야 되지. 이젠 스물네 살채 접어드오. 시집가야지. 저 큰 놈은 저 놈은 아이가 하나 있잖소? 작은 놈. 이 집에 아들 둘 딸 둘인데 시집 안 가고. 그래 그 아이가 카지노서 벌어서 야, 그 아이가 한 달에 300달러를 베틀오. 그 아이가.}

10103 @ 그럼 아버지보다 더 많이 버네?{그럼 아버지보다 더 많이 버네?}

10103 # 더 많이[마이] 베틀오. 그래 벌어서 가아 번 돈으 가져오오 여기르. 우리 집에 도이 없다나이. 가져오. 그래 가져다 야덜 주지. 그래 뿌리온까(клеёнка)랑 싸야 데지 야. 개

우리 딸이 우리 손녀가 아 지금 카지노(казино)서 일해서 그렇기 도배르 하오.{더 많이 버오. 그래 벌어서 그 아이가 번 돈을 가져오오, 여기로. 우리 집에 돈이 없다 보니. 가져오오. 그렇게 돈을 가져다가 이 아이들(=아들 부부)에게 주지. 그래 비닐이랑 사야 되지 응. 그래 우리 딸이 우리 손녀가 지금 카지노서 일해서 그렇게 도움을 주오.}

10103 @ 그러면, 그면은 한 삼백 딸라 벌면은,{그러면, 그러면 한 300달러를 벌면,}

10103 # 야~.{응.}

10103 @ 벌면은 거기 갈 때 뿌리온까(клеёнка) 같은 거 살라면은 얼마 한 한 오백 딸라나 한 천 딸라나 들어? 열 천, 열 천 딸라.{벌면 거기 갈 때 비닐 같은 것을 사려면 얼마, 한 한 500달러나 한 천 달러나 들어? 1,000달러, 1,000달러.}

10103 # 뿌리온까(клеёнка)르 쌀라문 한 한 사백 딸라나 오백 딸라나 그렇기 드지 야. 그렇기 드오. 야 야 그렇기 드오. 개 그렇기 드는데.{비닐을 사려면 한 한 400달러나 500달러나 그렇게 들지 응. 그렇게 드오. 응, 응 그렇기 드오. 그래 그렇게 드는데.}

10103 @ 거기 가서도 먹고 살라면 그것도 돈이 있어야 데지?{거기 가서도 먹고 살려면 그것도 돈이 있어야 되지?}

10103 # 도이 잇어야 데지. 더 말이 잇어? 그담 차 타구 땡기니 차에 빈진(бензин) 값이 비싸지. 차르 그양 타구 땡. 개 기래 먹구 사는 거 여름이 여름이 돌아오문 웬: 먼저 무스 거 시무는가 하 물외르 시무지, 물외. 오이르 시무지. 개 그거 시무문 여기서는 한 킬로(кило)에 극상하무 열 썸 하지 야. 녹으무 그저 다숫 썸 두 썸꺼지 어전 하우.{돈이 있어야 되지. 더 말할 필요가 잇어? 그다음에 차를 타고 다니니 차에 드는 석유 기름 값이 비싸지. 차를 그냥 타고 다니니. 그래 먹고 사는 거, 여름이 여름이 돌아오면 가장 먼저 무엇을 심는가 하면 오이를 심지. 오이를 심지. 그래 그래 그거 심으면 여기서는 1kg에 값이 가장 좋으면 10썸 하지 응. 쌀 때 먼 그저 5썸, 2썸까지 이제 하오.}

10103 # 그개 거기는 게 러시아다나이 값이 많은 때느 야: 삼십 썸 이십오 썸 그렇기 하오. 기래 그거 그 물외르 가주구 가 팔아 돈 해서 그담에 식노르 싸가지구 오짐 야. 기래 두루두루 여름으 살아서 수박으 다 데무 큰 이런 삼십 톤(тон) 이십 톤(тон) 실은 그런 차 밭으로 막 들오오. 막 들오오. 밭으르 들어와 샷군덜 실어서 저래 돈 주구 가져가. 그래 거길 땡기지. 여긴 팔기 바뿌단 말이. (기침){그개 거기는 게 러시아다 보니 값이 많은 때에는 30썸 25썸 그렇게 하오. 그래 그거 그 오이를 가지고 가 팔아 돈을 받아서 그다음에 식료(食料)를 사 가지고 오지 뭐, 응. 그래 두루두루 여름을 살아서 수박이 다 되면 큰 이런 30톤 20톤 실은 그런 차가 밭으로 막 들어오오. 막 들어오오. 밭으로 들어와 샷꾼들이 실어서 이내 돈을 주고 가져가. 그래 거길 다니지. 여긴 팔기가 힘들단 말이오. (기침) }

10103 @ 그러면 거기 가서 인제 돈 벌면, 거기가 사람덜이 많:이 잇어?{그러면 거기 가서 이제 돈을 벌면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잇어?}

10103 # 아, 사람덜이 또췌(тоже) 열다서 호요. 열다서 호요.{아, 사람들이 역시 15호요. 15호요.}

10103 @ 거기도?{거기도?}

10103 # 야. 열다서 열다서 호이 하는데. 여기 사람덜 가는 게 잇지.{응. 15호, 15호가 하는데. 여기 사람들이 가는 사람이 잇지.}

10103 @ 여기서 열다서 호가 가는 거야?{여기서 15호가 가는 거야?}

10103 # 아이! 거기 가서 사오. 거반.{아이! 거기 가서 사오. 거의.}

10103 @ 그 사람들은?{그 사람들은?}

10103 # 야, 사오! 사는데 우리 메느리 오래빈 구연 구연 동안 거기서,{응. 사오! 사는데 우리
며느리 오라비는 9년, 9년 동안 거기서,}

10103 @ 살고 있어, 지금?{살고 있어, 지금?}

10103 # 야. 살고 있으면서 브라가질(бригадир)하지. 따아 말아 거주구. 그엔 또 고건 또
고기랑 흔하오. 고기란 국가에서 개애다 잡아서 사름덜 농가두 주구 기래. 개두 구내 개
두 잡아먹구 야. 그래. 기란데 그 메놀오래비 홀: 상새났어. 환갑인게 홀: 상새났어. 그
사람 심장병~어 앓아 상새나. 개 그 사람이 사망데에 그 사람 부인네 엇그제 와서 우리
우 야덜 갖다온다구 하재입데? 그사람 부인네. 기래구 그 사람 아들이 어저는 서방가서
일하는, 개 아들이 그 대신 일하구. 음. 기래,{응. 살면서 작업반장을 하지. 땅을 말아 가
지고. 거기는 또 고기랑 흔하오. 고기랑 가져다 잡아서 나누어도 주고 그래. 그래도 그냥
개도 잡아먹고 응. 그래. 그런데 그 며느리 오라비 홀 죽었어. 환갑인데 홀 죽었어. 그
사람 심장병을 앓아 죽어. 그래 그 사람이 사망해 그 사람 부인네 엇그제 와서 우리 이
아이들이 갖다 온다고 하지 않습디까. 그 사람 부인네. 그리고 그 사람 아들이 이제는
장가가서 일하는, 그래 아들이 그 대신 일하고. 음. 그래.}

10103 @ 아들이 몇 살인데?{아들이 몇 살인데?}

10103 # 아들이 어저는 이십 한 칠팔 데오. 그런게. 기래이 여기서 기래 이렇지. 내 어전 나
있지. 개 나 잇는게 내 여기 잇음 딸이 와 보던지 만아들이 날 혼자 아이 두지. 마 만아
들이 와 보나 딸이 보나 그래지. 기래 나 혼자 잇으무 내 혼자 야덜 간다무 죽으까바 껌
이 나지 야덜이. 개 껌이 나서, 이 ***안지하 농사질, 여기두 하는 사람 ***안지하 하는
게 많지. 개 야덜이 이 이 비시케크(Бишкек) ***안지할 헛으무 좋겠는게. 그렇기 벌이
아이 데오 여기서. 벌이, 바쁘구두 벌이 아이 데지. 개 야 차르 타구 가다 그담에 벌어가
주구 야: 손비가 둘이 서르서르 차르 타구 야 이틀에도 오구 사흘 빨리 오오 야. 그래.
{아들이 이젠 이십 한 칠팔 세 되오. 그런 것이. 그래 여기서 그래 이렇지. 내 이젠 나이
가 있지. 그래 나이가 있는 것이 내 여기 있으면 딸이 와 보든지 만아들이 날 혼자 두지
않지. 만아들이 와 보거나 딸이 보거나 그러지. 그래 나 혼자 있으면 나를 혼자 두고 아
이들이 간다면, 죽을까 봐 껌이 나지, 이 아이들이. 그래 껌이 나서 이 ***안지하 농사
질, 여기도 하는 사람, ***안지하 하는 사람이 많지. 그래. 이 아이들이 이 이 비슈케크
***안지하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벌이가 안 되오, 여기서. 벌이, 힘들고도 벌이가
안 되지. 그래 응 차를 타고 가다가 그다음에 벌여 가지고 아 손녀사위와 둘이 서로 서
로 차를 타고 응 이틀에도 오고 사흘 빨리 오오. 응. 그래.}

@ 손비도 운전해?{손녀사위도 운전을 해?}

야. *소 그 사름두 운전. 그 사름두 차 있던 거 팔았어. 그러다나이 둘이서 운전하다나이
우리 메느리가 아들가, 그저 손녀는 아르 핵교르 보내길래 만저 오구. 저 손녀는. 아 잇잼
데? 기래구 아 그담에는 우리 손비 짚어서 그래 같이 그 차르 타구 그러구 빨리 오짐. 기래
오무 겨울에 와 놀아야 데지. 기래게 손녀는 저 집으 싸다나 올헤[오레] 돈으 다 밀어 열었
지.{응. 손(녀 사위), 그 사람도 운전하지. 그 사람도 차 있었는데 팔았어. 그러다 보니 둘이
서 운전하다 보니 우리 며느리와 아들과 그저 손녀는 아이를 학교에 보내야 하기에
먼저 오고. 저 손녀는. 아이가 있지 않습디까? 아 그담에는 우리 손녀사위가 남아서 그래 같

이 그 차를 타고 그러고 빨리 오지 뭐. 그래 오면 겨울에 와 놀아야지 되지. 그런데 손녀는 저 집을 사다 보니 (고본질해서 번) 돈을 다 밀어 넣었지.)

@ 그래두 집우 싸갖구 그러니까 그러도 좋네.{그래도 집을 사 가지고 있으니 좋네.}

좋지 머. 요 절에다 집우 싸다나이 기래 바로 이 절에 잇어서 좋은데,{좋지 뭐. 요 절에다 집을 사고 보니, 바로 이 절에 잇어서 좋은데,}

@ 지금도 값이 막 올라가잖아 막.{지금도 값이 막 올라가잖아 막.}

올라가. 자꾸 올라가 그렇잖아 야. 더 말이 없소. 작년에 이거 칠팔 천 해했어. 개 올헤[오렌]는 십오치이오. 기래이 이렇게 값이 올라가이 아 저 지금 제 제가 대무 주인집 양바이 서른한 천 달러(доллар)르 그게 얼마야.{올라가. 자꾸 올라가 그렇지 응. 더 말할 필요가 없소. 작년에 이거 7, 8천 달러 했어. 그러니 올해는 15,000달러이오. 그래 이렇게 값이 올라가니 아 저 지금 자네 자네가 대면 주인집 양반이 31,000달러를 그게 얼마야.}

@ 어떤게요? 아아.{어떤 게요? 아!}

그 샀다는 게 야. 그 어드메 또꾸막으르 다 아이가구 잇습데? 또꾸막으르 안 가구 야. 음. 또꾸막 안 가구 어떤 집에 잇지. 그래 이 사람덜이.{그 샀다는 것이 응. 그 어디 또꾸막으로 다 안 가고 (그냥) 잇습디까? 또꾸막으로 안 가고 응. 음. 또꾸막으로 안 가고 어떤 집에 잇지. 그래 이 사람들이.}

@ 그문 여기다 금년에 사봤으면 내년 가면 저거 또 십오천두 한 이천 이천 아 이십천 같지 몰르것네.{그러면 여기다 금년에 사 놓았으면 내년 가면 저것이 또 15,000달러도 한 2천, 2천 아 20,000달러가 같지 모르겠네.}

아, 또 더 얼마 더 올라갈지 모르지. 올라가겠는지 모르지. 기래 아, 음 엄매던지간에 어 벌어서 집우 샀으니 좋지. 기래 자기 집이 잇으니 좋지. 그러구.{아 또 더 얼마가 더 올라갈지 모르지. 올라가겠는지 모르지. 그래 아, 음 얼마든지 간에 벌어서 집을 샀으니 좋지. 그래 자기 집이 잇으니 좋지. 그러고.}

@ 저 나이에 저 나이에 자기 집우 싹 것이 많지 않것구만! 저 스물한 뿔 살 먹었어, 스물 일곱 살?{저 나이에, 저 나이에 자기 집을 싹 사람이 많지 않겠구먼! 저 스물한 뿔 살 먹었어, 스물일곱 살?}

스물여덟 살이오.{스물여덟 살이오.}

@ 스물여덟살짜리가 십오천짜리이 집 가지구 잇는 사람이 별로 없것구먼, 여긴.{스물여덟 살 짜리가 15,000달러짜리 집을 가지고 잇는 사람이 별로 없것구먼, 여기는.}

아:이! 그 잘 사는 것덜이사 잇지.{아이! 그 잘 사는 사람들이야 (자기 집이) 잇지.}

@ 잘 사는 것들 말구.{잘 사는 사람들 말고.}

야아! 그저 보통 사름이야 없짐. 기래 어저는 야: 집우 싸다나이.{야아! 그저 보통 사름이야 없지 뭐. 그래 이제는 응: 집을 사다 보니.}

@ 저 집은 방이 뿔 개여?{저 집은 방이 몇 개야?}

야~?{응?}

@ 방이 뿔 개?{방이 몇 개?}

이렇소. 우리집 같소.{이렇소. 우리 집과 같소.}

@ 똑같소.{똑같소.}

야~. 우리집 같소.{응. 우리집과 같소.}

@ 그 원래, 원래 저 사람들은 워디로 다녔어?{그 원래, 원래 저 사람들은 어디로 다녔어?}

아 원래 있던 사람으느,{아, 원래 있던 사람은,}

@ 이리 이리 다녔어? 이 길루?{이리 이리 다녔어? 이 길로?}

여길르 땡기다 땡게 여기르 땡겠어. 저쪽은 길이 나쁜 길이지. 개 여그르 땡겠는데 저사람덜 팔구 저 사람덜 저 집에 아이 살구 우리 딱 막았지. 기래 막았다가 우리 아들사 열었지. 열다나 우리 집우르 할랄으 땡기지. 기래 땡기는데 아 에따(это) 저 집에 임재느 저 조정재 그 교회에서 집삿님 하오. 개구 세미나르(семинар) 글이라 일것어. 여잔 게. 여자 남자.{여기로 다니다, 다녀, 여기로 다녔어. 저쪽은 길이 나쁜 길이지. 그래 여기로 다녔는데 저 사람들이 팔고 저 살마들 저 집에 안 살고 우리가 딱 막았지. 그래 막았다가 우리 아들이야 열었지. 여니까 우리 집으로 하루 내내 다니지. 그래 다니는데 아 음 저 집의 임자는 조정자는 그 교회의 집사님의 일을 하오. 그리고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어. 여자인데. 여자 남자.}

@ 원래 우리 원래 우리 조선사람이었어?{원래 우리, 원래 우리 조선 사람이었어?}

조선사람인데 그런데 남편이 상재나 혼자 잇는데 아 어저는 교회 땡게멘서리 차츰차츰 어저는 집삿님하다가 아 어전 다음에느 다락방 열어 가주구 사람덜 다락반 쪼금 배와두 주구 이러메서리 어전 저 저 우리 그 세미나르(семинар) 선생 잇재이오? 세미나르(семинар). 그런 굴두 하나 일것어. 개 일거 가지구 거저 정신은 교회마 두구 잇어. 이 이 집 여자는 야 그렇소.{조선 사람인데 그런데 남편이 죽어 혼자 잇는데 아 이제는 교회를 다니면서 차츰차츰 이제는 집삿님을 하다가 아 이젠 다음에는 다락방을 열어 가지고 사람들에게 다락방에서 쪼금 가르쳐 주고 이러면서 이젠 저 저 우리 그 신학교 선생이 있잖소? 신학교. 그런 공부도 한 과정(課程)을 공부했어. 그래 공부를 해서 그저 정신은 교회에만 두고 잇어(=교회에만 정신이 팔려 잇어). 이 이 집 여자는 그렇소.}

그런 게 아 재비 집에다 다락반으 열구 사람덜 거 가르치겡게 일주일에 한번이나 두 번씩. 그러겡는데 제 이 집이 에따(это) 츠벽하구 머다나이 저 고르드(город)다 야, 저 비슈케크 저 고르드(город) 나가서 세 칸짜리 아빠뜨 집우 일곱천 주구 샀어. 그때 어찌 녹엇는가 일곱 천 주구 샀어. 일곱 천 주구 싸구 이 집에다느 그런 거 그 교회 땡기는 사람덜 막 거더 열지. 교회 막 거더 열다나이 그 집으느 벽에다 이 조애르 싸구 도배했어 아보이(обои). 아보이(обои) 도배 그거 다 다 뜯구 다 낡아 문지 그 때 잇구 해서 싹 뜯구 싹 다른 거 붙였어[부체써]. 싹 다른 거 붙이구[부치구] 싹 수리르 하구 그러구 들었어. 개.{그런 사람이 아 자기 집에다 다락방 교회를 열고 사람들을 거 가르치자고 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이나 두 번씩. 그러고자 하는데 제 이 집이 음 너무 외진 곳이고 멀다 보니 저 시내에다 응, 저 비슈케크 저 사내로 나가서 세 칸짜리 아파트 집을 7,000을 주고 샀어. 그때 어찌 그리 쫘는지 7,000을 주고 샀어. 7천을 주고 사고 이 집에다는 그런 거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막 거두어 넣지. 교회 신자를 막 거두어 넣다 보니 그 집은 벽에다 이 종이를 사서 도배(塗褙)를 했어, 도배. 도배, 도배 그거 다 다 뜯고 다 낡아 먼지와 그 때가 있고 해서 싹 뜯고 싹 다른 것을 붙였지[발랐지]. 싹 다른 거 붙이고 싹 수리를 하고 그러고 들었어. 그래.}

@ 아매느 왜 교회 안 다녀?{할머니는 왜 교회를 안 다녀?}

야!{야!}

@ 아매는 교회 다니셔야지!{할머니는 교회를 다니셔야지!}

내 다녔짐 야. 교회 교헬 다니메 하느님 아버지 삼차신경통 내 벼~어 벼~어 *떼엿사오. 내 응답 받았어. 그러길래서 내 가서 그 교회에 가서 조선말르두 하고 노시아말루두 하고 사람들 앞에 다야 말했어. 십오연 동안 아 삼차신경통 하던 이 벼~어. 그 못덴 벼~. 삼차 신경토

~이라구 못덴 벼~. 게 노시아말로 삼차신경통 이게 그런 게 이 벼~이 못덴 벼~이오.{내가 다녔지 응. 교회 교회를 다니며 하느님 아버지가 삼차 신경통 내 병을, 병을 떼었다오. 내 응답(應答)을 받았어. 그러기에 내 가서 그 교회에 가서 조선말로도 하고 러시아 말로도 하고 사람들 앞에 나아가 다 말했어. 15년 동안 아 삼차 신경통을 앓던 이 병을 (고쳤다고). 그 못된 병을. 삼차 신경통이라고 못된 병을. 러시아 말로 삼차 신경통 이게 그런 게 있는데 이 병이 못된 병이오.}

그런 거 십오년 동안의 우리 병원으 댕겨. 한국 이사덜 침두 맞아 별란 좃으 해애두 아이 떨어져. 그런거 하나님 아버지 뻗:는데, (기침) 하느님 아버지두 일없소. 그래 내 교혜 줌 아 댕기지 못하구 아 댕기지 못해두 내 에따(это) 그런 거 딱 딱 에따(это) 그 우리 줌 에따(это) 아 그 교혜에서 우리 아우! 이렇기 다아……. 그런거 그거 이전에, 이전에 이 교혜 내 들어갈 적에 이 집에 한국에서 아아 그런, 그런 사름이 둘이 와 있었어.{그런 거 15년 동안 을 우리 병원을 다녔어. 한국 의사들 침도 맞아 보고 별란 짓을 해도 안 떨어져. 그랬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병을 고쳤는데, (기침) 하느님 아버지도 그저 그렇소. 그래 내 교회를 좀 다니지 못하고 아 다니지 못해도 내 음 그런 거 딱 딱 음, 그 우리 줌 음 그 교혜에서 우리 아오. 이렇게 다……. 그런데 그거 이전에, 이전에 이 교혜에 내 들어갈 적에 이 집에 한국에서 아 그런, 그런 사름이 둘이 와 있었어.}

@ 전도사들?{전도사들?}

야~. 그 아 목사 아래, 목사 아래에서 일하는 사름이.{응. 그 목사 아래, 목사 아래에서 일하는 사름이.}

@ 전도사들.{전도사들.}

야~. 두올이 두올이 와 잇어 그래 와 잇었는데 나르 이 집에서 일하는 여자 나르 이거 교혜 에다 어 나르 그런 거 영접받으라구 야. 영접받아. 아이 말 듣지. 반대 했지. 정반대 반대르 했어. 개 반대르 하이 나르 무시기라 하는가 나무 콤무니스뜨(коммунист)라 했어. 콤무니스뜨(коммунист)라구.{응. 둘이, 둘이 와 잇어 그렇게 와 잇었는데 나를 이 집에서 일하는 여자가 나를 이거 교혜에서 어 나에게 그런 거 영접을 받으라고 응. 영접 받아. 말을 안 듣지. 정반대 반대를 했어. 그래 반대를 하니 나에게 무엇이랴 하는가 하면 공산주의자고 했어. 공산주의자라고.}

@ 콤무니스뜨(коммунист)지요이~.{공산주의자이지요 응.}

야, *꼬무니(коммунист). 반대, 반대르 했지. 기래 반대르 하구 아 고 ***상처에 이랬으. 그러던 게 자연이 어찌기 데 그 사름이 두올이 왔지. 이 집에 한국에서 와 살지. 개 사는데 이 사름덜이 여자 두올이 온 게 나르 붙들구 이래지 야아. 아아, 어머니 이거 응답받구 아 예수님이 믿어애 텐다는 거. 예숫님 믿어야 어머니 좋다는 거 기래지. 듣두댕구 막 뿌리치구. 그때 우리 집으르 뿌리치구 나. 기랜데 개 집이 가깝다구 자꾸 들어가며 나가며 하지. {응, 공산주의자. (교회에) 반대, 반대를 했지. 그렇게 반대를 하고 아 고 ***상처에 이랬어. 그러던 게 자연이 어떻게 돼 그 사름 둘이 왔지. 이 집에 한국에서 와 살지. 그래 사는데, 이 사름들 여자 둘이 온 것이 나를 붙들고 이리저 응. 아, 어머니 이거 응답 받고 아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 예수님을 믿어야 어머니가 좋다고 말하지. 듣지도 앓고 막 뿌리치고. 그때 뿌리치고 우리 집으로 나가. 그런데 그래 집이 가깝다고 자꾸 들어가며 나가며 하지(= 들락날락하지).}

아 기랜데 아 할랄으느 가이꺼더나 아 어티기 데 야 이 양반덜 둘이 나르 바르 홀 끝꾸 야

끝꾸 그 장재 넘음 이게 우리 우리 터이지. 우리 터에 나아 턱 앉거든. 기래 *앉다서 들어서 나르 영접 영접받지 내게서. 아 그래두 그 어째 내 또 그때 가마이 잇었는두 가마이 잇었지. 개 가마이 잇구 나이까나 이 사름덜은 나르 이제 영접 받았다고 어머니 영전 받았으니 저 조선글 아이꺼나 조선책으 보내 저기 인차 보냈어.{아 그런데 하루는 가니까 어떻게 돼서 응 이 양반들 들이 나를 끌고 응 끌고 가는데 판자를 댄 울타리를 넘으면 우리 집 터가 되지. 우리 터에 턱 나아앉거든. 그래 앉아서 들어서 나를 영접 받지 내게서. 아 그래두 그 어째 내 또 그때 가만히 있었는지 가만히 있었지. 그래 가만히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나에게 이제 영접 받았다고, 어머니가 영전을 받았으니 저 조선 글을 아니까 조선 책을 보내겠다고 하면서 저기 곧바로 보냈어.}

조선책으 보내겠다. 개 조선책으 보내고 아 에떠(это) 나르 기도르 디렸지. 개 기도르 디리는데 아츨 야듭시 저녁 야듭[야듭]시 할랄에 두번으 아 하느님 아부지게다 기도르 디리는데 일으 하다가두 한 분두 어기지 애앵구 달아들어오지. 고 시가이 어기지 말. 딱딱 제 시간에 아츨에 디리구 저녁에, 아츨에 디리기 전에 아이 나오. 잇어뿌린다. 그땀 저녁에 디린다구. 요렇게 삼월 사월 오월 유월 칠월 다섯 달 동안 이렇기 기도르 디려. 다섯달 동안 데이 이 벼~어 대까닥 떼에갓어.{조선 책을 보내겠다. 그래 조선 책을 보내고 음 나를 위해 기도를 드렸지. 그래 기도를 드렸는데 아침 여덟 시 저녁 여덟 시 하루에 두 번 하느님 아버지에게 다 기도를 드리는데 일을 하다가도 1분도 어기지 앓고 달려 들어오지. 고 시간에 어기지 앓게. 딱딱 제 시간에, 아침에 드리고 저녁에, 아침에 드리기 전에는 나가지 앓소. (기도 드리는 것을) 잇어버린다고. 그다음에 저녁에 드린다고. 이렇게 3월 4월 5월 6월 7월 다섯 달 동안 이렇게 기도를 드려. 다섯 달 동안이 되니 이 병을 제껴 떼어갓어.}

이 약으 먹던 거 야. 개 약으 먹던 거 이 이거 그양 약으 먹었지. 이게 아파서 약으 먹었지. 아 그담 기 아이 아파 벼~이 떨어졌지. 약으 췌에빠렛지. 약으 췌에뿌리구 어전 하나님 아버지 내 벼~어 떼에갓지. 기래 떼에 가이 교헤에 가서 교헤에 가서 거기 키르기스두 잇구 노헛 사름 잇구 벨게 다 잇짐. 고렷사름 많재이오. 기래 거기 가서 노시아말르 가서 고렷말르 고렷사름 들으라구 고렷말르 하고, 노시아 말르, 아 십오연 동안에 앓던 이 벼~어 병원에서 병원으르 내 오연동안 땡겿어. 오연.{이 약을 먹던 거 응. 그래 약을 먹던 거 이거 그냥 약을 먹었지. 이게 아파서 약을 먹었지. 아, 그다음에 그래 아프지 앓아 병이 떨어졌지. 약을 내버렸지. 약을 내버리고 이젠 하느님 아버지가 내 병을 떼어갓지(=고쳤지). 그래 병을 고치니 교회에 가서 거기 가면 키르기스인도 있고 노회(老會) 사람도 있고 별게 다 있지 뭐. 고려 사람은 많지 앓소. 그래 거기 가서 러시아 말로, 가서 고려말로 고려사람 들으라고 고려말로 하고 또 노시아 말로, 아 15년 동안에 앓던 이 병을 병원에서 병원으로 내 5년 동안 다녔어. 5년.}

이게 이거 사진이랑 다 찍었지. 찍어두 벼~이 없짐. 그런게 삼차. **기대 그담에는 그거 십오연 동안 아 그런 거 내 오연 동안 땡게두 이 벼~에 낮재잇구 그담에 한국에서 온 이사덜게 침이랑 맞았지 뜸우 떳지 기래두 소용, 요기다 뜸이랑 떳어. 기래두 소용없어. 소용 없던 거 이거 다만 아 하느님 아버지 나르 고쳤지. 기래 내 거기 가서 그렇게 사름덜가 싹 말하지. 그렇게 내.{사진이랑 다 찍었지. 찍어도 병이 없지. 그런 게 삼차 (신경통이지). 그래 그다음에는 그거 15년 동안 그런 거 내 5년 동안 다녀도 이 병이 낮지 앓고 그다음에 한국에서 온 의사들에게 침이랑 맞았지 뜸을 떳지 그래도 소용이, 요기다 뜸이랑 떳어. 그래도 소용이 없어. 소용없던 거 이거 다만 하느님 아버지가 나를 고쳤지. 그래 내 거기 가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싹 말하지. 그렇게 내가.}

@ 간증한다구 하지, 간증.{간증한다고 하지, 간증.}

그래 내 응답받았다는 거 진정스레 예시 하느님 아버지르 믿으라무 진정스레 믿어야지. 아 이 믿으무 그만 뒤야지 야. 그래 내야 한 분두 어기지 애일고[애이꼬] 딱딱 제 시간에 아 고 기도르 드리야 기도르 드리구 고담에 저 저 책으, 저 책으 다 일것지. 저 책으 다 일거. 개 내 기래 벼~어 **떼엿사오.{그래 내가 응답 받았다는 거 진정스레 예수 하느님 아버지를 믿으려면 진정스레 믿어야지. 안 믿으면 그만 뒤야지 응. 그래 내가 응 1분도 어기지 앓고 딱딱 제 시간에 기도를 드리야 기도를 드리고 고 다음에 저 저 책을, 저 책을 다 읽었지. 저 책을 다 읽어. 그래 내 그래 병을 떼었다오.}

@ 지금두 읽어! 심심허면.{지금도 읽어! 심심하면.}

야, 심심하무 이르지. 기래.{응, 심심하면 읽지. 그래.}

@ 계속 읽어요! 게에속! 매일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저 책을 좀 읽으세요.{계속 읽어요! 계속! 매일매일 시간을 정해 놓고 저 책을 좀 읽으세요.}

아이! 저 책은 다 읽은 책이우. 지금.{아이! 저 책은 다 읽은 책이오. 지금.}

@ 몇 번 읽어야 데. 나는 매일매일 읽어!{몇 번 읽어야 돼. 나는 매일매일 읽어!}

글쎄 매일 일거야 기계……. 저두 저두 예수르 믿소?{글쎄 매일 읽어야 그제……. 자네도 자네도 예수를 믿소?}

@ 예.{예.}

믿소?{믿소?}

@ 예.{예.}

야. 개 그거 매일 일거야 골속에 다 들어가지. 기래.{응. 그래 그거 매일 읽어야 머릿속에 다 들어가지. 그래.}

@ 매일매일 읽어야지 좋아.{매일매일 읽어야지 좋아.}

야. 일거야 좋지. 기래 저게 조선글으 이르기두 좋지. 야. 개 조선글으 이르기 좋고. 또 이르두라 그것두 재미 잇는 게 잇어. 그래구 저책에서 수 솔로몬이라는 거 내 저 책 가지구 연극까지 놀았어. 우리 노인반 연극으 놀았어 야. 연극두 놀았지. 기래 조성재~이라는 이 목사가 지금, 옛그제 저 사람 아재입데? 알구 아또마 사는데 집우, 이 이 사람이 이 조성재란 목사 나르 그렇기 곱아하지. 어째 곱아하는가 하이 조선글으 알구 이런 이런 칠판으 저기다 이래 턱 놓고 칠판에다 그 글으 싹 쓰지. 해석해서 야. 싹 해석 해. 이래 해석해 싹 써 내 그 글으 내 다 이르지. 개 그 글으 일거보구 그 사람 말한 거 내 속에 싹 들어가지. 그렇기 내 맘에 맞지. 그렇기 딱 내맘에 맞고 내 속에 들어가지. 기래 내 거기서 고려말루 대답두 하구. 기래구 그렇기 땡갯지. 그렇게 빼애 애이 놓구 딱딱 주일마다 땡갯지. 그러고.{응. 읽어야 좋지. 그래 저게 조선글을 읽기도 좋지. 응. 그래 조선글을 읽기 좋고. 또 읽을수록 그것도 재미잇는 것이 잇어. 그리고 저 책에 나오는 솔로몬이라는 것을 가지고, 내가 저 책 가지고 연극까지 놀았어. 우리 노인반이 연극을 공연했어 응. 연극도 공연했지. 그래 조성재라는 이 목사가 지금, 옛그제 저 사람(=목사)을 (내가) 알지 앓습디까? 알고 아또마 사는데, 집을, 이 사람이 이 조성재란 목사가 나를 그렇게 좋아하지. 어째 좋아하는가 하면 조선글을 알고 이런, 이런 칠판을 저기다 이렇게 턱 놓고 그 칠판에다 글을 싹 쓰지. 해석해서 응. 싹 해석해. 이렇게 해석해서 싹 써 놓으면, 내가 그 글을 내가 다 읽지. 그래 그 글을 읽어 보면 그 사람이 말한 것이 내 머릿속에 싹 들어가지. 그렇게 내 마음에 맞지. 그렇게 딱 내 마

음에 맞고 내 머릿속에 들어가지. 그래 내가 거기서 고려말로 대답도 하고. 그리고 그렇게 다녔지. 그렇게 빼놓지 않고 딱딱 주일마다 다녔지. 그리고.}

@ 몇 년간 댕겼어?{몇 년간 다녔어?}

한 삼년 댕겼어, 야. 그래 댕기는데 빼애 애이 놓구 댕기는데 그거 저어 아 기래 나르 이 뻘씨(пенсия)르 조끔 타이 나르 적게 물라 하지. 그거 거기다. 개 적게 물라 하는 거 나느 적게 아이 물지. 음: 십원두 물구 이십원두 물구 내 기양 이릉기 물었지.{한 3년 다녔어, 응. 그래 다니는데 빼놓지 않고 다니는데 그거 저, 그래 나에게 (내가) 이 퇴직 연금을 조끔 타니 나에게 (현금을) 적게 물라(=내라) 하지. 그거 거기다(=현금함에다). 그래 적게 물라 하는 거 나는 적게 안 물지. 음 10숨도 물고 20숨도 물고 내 그냥 이렇게 물었지(=현금을 했지).}

개 이릉기 물구 댕기다서 이 목사님이 우리 집으루 몇 번 왔다갓어. 내 때랑 해앓짐. 개 내 때르 해아서 그 사람두 조선에서 갓다옴 메에기랑 가조구 내한테르 가조고 기래. 기래서 저 목사님두 내게르 또 선물도 이런 좋은 한국 수거이랑 내게르 가져와.{그래 이렇게 물고 다니다가 이 목사님이 우리 집으로 몇 번 왔다 갔어. 내 때(=끼니 밥)를 했지. 그래 내가 때를 해서 그 사람도 한국에 갔다오면 미역이랑 가져오고 나한테로 가져오고 그래. 그래서 저 목사님도 내게 선물도 이런 좋은 한국 수건이랑 내게로 가져와.}

기래 그래서 이 목사님이 아 내가 아이 댕게…… 조선말으 아는 게, 모르짐. 서분하짐. 개두 어전 베~이 나다나 못 댕겨. 기래 내 집에서 아침에 야듭세 일곱세 깨어나서 늑구있다 내 미루 깨어났으무 댕기지 애일갓어? 잊어뿌레, 잊어뿌레. 야듭세 내 기도르 드리구 지금 일어나오.{그래 그래서 이 목사님이 내가 안 다녀서…… 조선말을 아는 사람이, 모르지 뭐. 서운하지 뭐. 그래도 이젠 병이 나서 못 다녀. 그래 내 집에서 아침에 여덟 시 일곱 시에 깨어나서 누워 있다, 내 미리 깨어났으면 다니지 않갓어? 잊어버려, 잊어버려. 여덟 시에 내 기도를 드리려고 지금(도) 일어나오.}

@ 요즘도?{요즘도?}

지금도! 그담에는 저녁 야듭시[야듭씨] 데무 췌레비조르(телевизор) 보다두 달아들와서 이 방문으 닫구 이 고바~에서 본래 디려야 데지. 지금두 멍심해 디리우. 지금두 디리우.{지금도! 그다음에는 저녁 여덟 시가 되면 텔레비전을 보다가도 달려 들어와 이 방문을 닫고 이 골방에서 드려야 되지. 지금도 유의해서 (기도를) 드리오. 지금도 드리오.}

@ 하루에 성경책을 하루에 한 시간씩 읽어 봐야!{하루에 성경책을 하루에 한 시간씩 읽어 봐!}

한 시간씩 읽어 보무 좋갓는데 그 읽어 보는가? 아이 보오. 노시아 신문 이 이 이 노시아 신문두 보구 아 조선 신문두 보구 신문으 자꾸 본단말야.{한 시간씩 읽어 보면 좋갓는데 그렇게 읽어 보는가? 안 보오. 러시아 신문, 이 이 러시아 신문도 보고 조선 신문도 보고 신문을 자꾸 본단 말이야.}

@ 겐데 신문보다도 더 중요한 게 성경책이지.{그런데 신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성경책이지.}

그 성경책이 중하지::! 성경책이 중.{그 성경책이 중(重)하지! 성경책이 중(하지).}

@ 자꾸 읽어 봐. 그믄 재밋지. 처음에는 어려운데.{자꾸 읽어 봐. 그러면 재밋지. 처음에는 어려운데.}

아이! 재밋어. 야야::! 저거 아주 재밋어 야. 저거 아들이 여래앤데 거기서 절떡아들으 특별

이 곱아했지. 곱아한다 해서 그 절떡아들으 이 큰아들덜 데리구 가서 구러:다 가알 차영지 [차여찌]. 기래 차 영은 거 하느님 아버지 돕다나이 야 구러에 차 연 거 지나가다 무시기 거러서 기래 가져갔지. 기래 가져가서 야 큰:: 사람이 댕. 큰:: 사람이 대에서 아암 형덜이 거길 어저는 구차하게 대이 먹을 게 없어 떡 오이꺼나 와서 온 거 몰라보짐. 몰라. 야 이 가 연 재밌어. 그 가연 이르두라 재밌어 그게 야. 기래 마감엔 부모르 만나는가? 부모. 그 이름 이랑 싹 겨으 했지. 기래 차차차차 잊어지지. 개 자꾸 일거야. 이르두라 저 책 재밌어. 성경 책이. 처음으로 웨엔 처음으로.{아이! 재밌어. 야! 저거 아주 재밌어 응. 저거(성경에), 아들이 여럿인데 거기서 막내아들을 특별히 사랑했지. 사랑한다고 해서 그 막내아들을 이 큰아들들이 데리고 가서 구렁에다 그 아이를 차 넣었지. 그래 차 넣은 것을 하느님 아버지가 도우니까 응 구렁에 차 넣은 것을 지나가다 무엇이 건져내서 그래 가져갔지. 그래 가져가서 응 큰 사람이 됐지. 큰 사람이 돼서 아무 형들이 거기로, 이제는 구차하게 되니 먹을 게 없어 떡 오니까, 와서 온 것을 몰라보지 뭐. 몰라. 정말 재밌어. 그 정말 읽을수록 재밌어 그게 응. 그래 마지막엔 부모를 만나는가? 부모를. 그 이름이랑 싹 겨우 공부했지. 그래 차차차차 잊어지지. 그래 자꾸 읽어야 하지. 읽을수록 저 책이 재밌어. 성경책이. 처음으로 맨 처음으로.}

@ 성경책에서 하는 얘기는,{성경책에서 하는 얘기는,}

야~.{응.}

@ 성경책에서 하는 얘기는 어떤 얘기나면 이런 얘기에요.{성경책에서 하는 얘기는 어떤 얘기가 하면 이런 얘기에요.}

야~.{응.}

@ 사람이 이 세상에서 태어났는데 우리는 다아 우리가 우리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잖아.{사람이 이 세상에서 태어났는데 우리는 다 우리가 우리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이 아니잖아.}

야~! 그래.{응! 그래.}

@ 그렇지이. 부모님도 뜻에 으해서 태어난 거잖아.{그렇지. 부모님도 뜻에 의해서 태어난 것이잖아.}

그래.{그래.}

@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거란 말야.{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거란 말이야.}

구:래! 그래.{그래! 그래.}

@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머가 데는 줄 아는데 우리 마음대로 데는 게 없어.{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뭐가 되는 줄 아는데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없어.}

없어.{없어.}

@ 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하나님이.{하나님이.}

@ 우리를 인도하신단 말이지.{우리를 인도하신단 말이지.}

그래지.{그래지.}

@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는 왔다가 오십 살을 먹구 죽건 육십을 먹구 죽건 팔십을 먹고 죽건 백 살을 먹구 죽든 간에 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다 죽는단 말야. 그래.{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왔다가 오십 살을 먹고 죽건 육십을 먹고 죽건 팔십을 먹고 죽건 백 살을 먹고 죽든 간에 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죽는단 말이야. 그래.}

그래.{그래.}

@ 안 죽는 사람은 한 명도 없잖아. 다 죽어. 죽으면서 땅에 묻히면은 그게 끝난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데,{안 죽는 사람은 한 명도 없잖아. 다 죽어. 죽으면서 땅에 묻히면 그게 끝난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천국으 가지, 우리. 천국에 가지.{천국을 가지, 우리가. 천국에 가지.}

@ 그렇지. 그런데 만약에 만약에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천국이 있다면,{그런데 만약에 만약에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천국이 있다면,}

야~. 천국이 잇다면,{응. 천국이 잇다면,}

@ 천국이 분명이 있는데.{천국이 분명 있는데.}

야~.{응.}

@ 여기서 와서 잇다가 잘못허고 가가주구 천국에 가서 천국에 못 가구 지옥에 간다면,{여기에 와서 잇다가 잘못하고 가 가지고 천국에 가서 천국에 못 가고 지옥에 간다면,}

지옥 거기 가문 죄르 질지 그럼. 죄진 사람이 그러지, 야.{지옥 거기를 가면 죄를 짓지 그럼. 죄진 사람이 그러지, 응.}

@ 그러면 얼마나 얼마나 불쌍하냐고. 음.{그러면 얼마나 얼마나 불쌍하냐고. 음.}

기래 그렇지.{그래 그렇지.}

@ 우리처럼, 아매처럼 아! 그래 천국이 있다. 하나님을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우리처럼, 할머니처럼 아! 그래 천국이 있다. 하나님을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

기래.{그래.}

@ 그런 것을 믿구 잇는 사람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곱아하는 사람을 보면 마음이 아픈 거야. 저 사람이 여기 잇다가 아이구! 나중에 그냥 하나님을 모르고 그냥 가면 천국에 못 가는데,{그런 것을 믿고 잇는 사람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을 보면 마음이 아픈 거야. 저 사람이 여기 잇다가, 아이고! 나중에 그냥 하나님을 모르고 그냥 가면 천국에 못 가는데,}

못가재구.{못 가고말고.}

@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나서 하늘나라에 가서 만납시다야.{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나서 하늘나라에 가서 만납시다.}

그으래!{그래!}

@ 그렇게 얘:기르 하는 거란 말이야.{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야.}

그으래!{그래!}

@ 그러구 가족들이이 좋은 가족들이 같이 잇다가 아 나는 천 천국 갔는데 저 아들은 천국을 못 오고 있으면,{그리고 가족들이 좋은 가족들이 같이 잇다가 아 나는 천국을 갔는데 저 아들은 천국을 못 오고 있으면,}

못 가지!{못 가지!}

@ 그러면 서로 간에 보고 있으면 얼마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그러면 서로 간에 그걸 보고 있으면 얼마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

그으래! 그래.{그래! 그래.}

@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자꾸 그런 말을 하는 거고. 또 그 하나님을 믿으면 거기는 그 나

라는 하나님을 믿지 않으문 갈 수가 없단 말이야.{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자꾸 그런 말을 하는 것이고. 또 그 하나님을 믿으면 거기는 그 나라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갈 수가 없단 말이야.}

없재. 없재이. 없재잉구. 야~.{없잖고. 없잖고. 없잖고. 응.}

@ 그렇죠? 아까 그 요셉이거든 요셉.{그렇죠? 아까 할머니가 말씀한 이야기는 그게 요셉이거든, 요셉.}

야~. 요셉이, 요셉이.{응. 요셉, 요셉.}

@ 요셉이.{요셉이.}

야~.{응.}

@ 요셉이. 요셉이 그 아들이 예뻐, 아버지 이삭이 예뻐해 주니까,{요셉이. 요셉이 그 아들이 예뻐, 아버지 이삭이 예뻐해 주니까,}

응. 응.{응. 응.}

@ 형, 형덜이 다 가르 밍어하잖아.{형, 형들이 다 그 아이를 미워하잖아.}

밍어하짐. 특별히 그 아부지 그 점뻍이르 곱아하지. 이복두 딸르 헤 입히구.{미워하지 뉘. 특별히 그 아버지가 그 막내아들을 사랑하지. 의복도 따로 헤 입히고.}

@ 그 애가 애급이란 나라에 먼저 팔 팔려가잖아. 종으로 팔 팔려가서,{그 아이가 애급이란 나라에 먼저 팔, 팔려가잖아. 종으로 팔, 팔려가서.}

야~, 야~! 팔려,{응, 응! 팔려,}

@ 종살이 하잖아. 어~? 야 종질하다가 나중에 제일 높은 대통령이 덴단 말여.{종살이를 하잖아. 응? 이 아이가 종질하다가 나중에 제일 높은 대통령이 된단 말이야.}

음.{음.}

@ 어~.{응.}

@ 그러면 그 그 우리 사람이 생각해 보면: 아 종 노릇허던 사람이 그 나라에 제일 높은 사람이 데는 것은,{그러면 그 우리 사람이 생각해 보면, 아 종 노릇을 하던 사람이 그 나라에 제일 높은 사람이 되는 것은,}

기래.{그래.}

@ 사실은 어려운 어려운 일이지.{사실은 어려운, 어려운 일이지.}

어려운 일이지.{어려운 일이지.}

@ 거이 불가능한 일이지.{거의 불가능한 일이지.}

그:러재!{그렇지!}

@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으 하시니까 이렇::게 거기까지 올려놓셨단 말이야.{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니까 이렇게 거기까지 올려놓으셨단 말이야.}

그:래!{그래!}

@ 근데, 그문 올려봐 가지구 그문 너는 혼자 너만 잘 먹고 너만 잘 살아라고 한 게 아니고, {그런데 그러면 올려놓아 가지고 그러면 너는 혼자 너만 잘 먹고 너만 잘 살아라 하고 한 것이 아니고.}

아이고.{아이고.}

@ 하나님이 미리, 미리 그리 보내 가지구 나중에 이 형제들이 굶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이 사람덜이 이:리 와서 여기서 이 사람이 미리 자리를 잡아 놓으니까 돕아 줘. 이 사람들이 잘 살잖아. 아매도 마찬가지여. 저어 그 머야 따쉬켄트에서 있다가.{하나님이 미리, 미리 그

리로 보내 가지고 나중에 이 형제들이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리 와서 여기서 이 사람이 미리 자리를 잡아 놓으니까 도와 줘. 이 사람들이 잘 살잖아. 할머니도 마찬가지로 여. 저 그 뭐야 타슈켄트에서 있다가.}

야~.{응.}

@ 몸이 안 좋아서 여기 왔지만,{몸이 안 좋아서 여기 왔지만,}

그래!{그래!}

@ 여기 와서 아매가 잘 농사를 짓고 또 자리를 잘 잡구 있으니까 부모님도 모셔오고 형제도 데리고 와서 여기서 같이 살고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미리 가는 사람은 가서 고생을 많이 하지만 그 사람이 가서 자리를 잡으면 잘 살면 다른 사람덜도 좋잖아.{여기 와서 할머니가 농사를 잘 짓고 또 자리를 잘 잡고 있으니까 부모님도 모셔 오고 형제도 데리고 와서 여기서 같이 살고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미리 가는 사람은 가서 고생을 많이 하지만 그 사람이 거기서 자리를 잡으면 그리고 잘 살면 다른 사람들도 좋잖아.}

그래.{그래.}

@ 그러니까 그렇게 보내주는 것은, 사람은 아! 내가 가고 싶어서 간다 내가 나는 가문 할 수 있다 그러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그렇게 잘 해 주시면 텐단 말여. 그러니까 그 나중에 그 요셉이 머라고 하느냐면, 형제덜한테 머라고 하냐면 형님덜이 나를 팔아서 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 먼저 여기를 보내서 나를 형님덜이 오게 다 준비시키기 위해서 먼저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당신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그러니까 그렇게 보내 주는 것은, 사람은 아! 내가 가고 싶어서 간다, 내가 나는 가면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그렇게 잘 해 주시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나중에 그 요셉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형제들한테 뭐라고 하느냐면 형님들이 나를 팔아서 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 먼저 여기를 보내서 나를 형님들이 오게 다 준비시키기 위해서 먼저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당신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러재이.{그렇잖고.}

@ 머 그렇게 얘길 허잖아?{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

그으래!{그래!}

@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란 말여. 하나님이 우리를 다아 그렇게 인도하구 가시는 거여.{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란 말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다 그렇게 인도하고 가시는 것이야.}

그래 그 꿈우 해석하는 것도 그 사람 골로야 못하지. 다 하나님 가르쳐 기래지 야. (기침) 그래고 신체는 따에 묻게두 아: 신체는 따에 묻게두 우리 정신은 천국에 가 있지. 개 내 기전에 기래지. 어찌기 내 반대르 했는가 내가 음 조꿈 고려공부르 할 적에 고려책에도 있고 노시아 책에도 있지. 어쩐가 우리 사름우 처암 사름 맨들 적에 아 무스글르 맨드는가 하무 원수~이, 원수~이. 아 지금 쟈내비 잇재애? 그 원수~이 벤해서 사름이 대엿다.{그래 그 꿈을 해석하는 것도 그 사람 머리로야 못하지. 다 하나님이 가르쳐서 그러지 응. 그리고 신체는 땅에 묻혀도 아 신체는 땅에 묻혀도 우리 정신은 천국에 가 있지. 그래 내가 그전에 그랬지. 어떻게 내가 반대를 했는가 하면, 내가 음 조꿈 고려 공부를 할 적에 고려책에도 있고 러시아 책에도 있지. 어쩐가 하면, 우리 사름을 처음 만들 적에 무엇으로 만드는 가 하면 원숭이, 원숭이. 아 지금 원숭이가 있잖아? 그 원숭이가 변해서 사람이 되었다.}

기애 내 그전에느 에 하느님이 이랫달 적에 아 내 고재이 들었지. 그 짝 위 원수~이 벤해

사름 데고 아 그담에는 하느님이 하나님에 있으면 아: 도둑이랑 이런 거 다아 잡아가지 이 나쁜 걸 잡아 아이 가갓는가 그러지. 그랬지. 그런데 그래 내 *하나 교회 책으 많이[마이] 일거 보구 아지. 기래 아는데 그거 내 어전 이름 이름으 싹 알았지. 내 이름. 이름 내 그거 싹 웬 참,{그래 내 그전에는 예 하느님이 이랬다고 할 적에 아 내가 고지듣지 않았지. 그 싹 원숭이가 변해서 사람이 되고 그다음에는 하느님이 하나님에 있으면 아 도둑이랑 이런 거 다 잡아가지 이 나쁜 것을 안 잡아가갓는가 그러지. 그랬지. 그런데 내가 교회 책을 많이 읽어 보고 알지. 그래 아는데 그거 내 이젠 (성경에 나오는) 이름, 이름을 싹 알았지. 내가 이름, 이름 내가 그거 싹 맨 처음,}

@ (아매가) 충기 있어서 잘 아실거야.{(할머니가) 충기가 있어서 잘 아실거야.}

충기 있어 게 무스 아부라함호 요셉이구 싹 아지. 기래내 내 거기서 어전 조금 잊어뿌랬지. 그책으 내 이르재앵다나. 기래 노시아 책가 고려책 **갔어. 노 노시아책두 이르구 고려책두.{충기 있어 그거 무슨 아브라함이고 요셉이고 싹 알지. 그런데 내가 거기서 이젠 조금 잊어버렸지. 그 책을 내가 읽지 않다 보니. 그래 러시아 책과 고려책을 가졌어. 러 러시아 책도 읽고 고려 책도.}

그래 그 하나 무시긴가 하문, 아아 그 니기 내 보구 그 사름 이름 잊어뿌랬어. 그 사름이 음 어디메 갔다가서 딸 두울인데 딸 두울으 가지구 어 쫓겨서 산으르 갔어. 그 사람은 음 것두 하나님에 가르쳐 줘, 그 사람은 아 주 딸덜이랑 잃어 아이 뿌리구 그렇기 고 곰치우라는 거. 개 곰치우자구 산으르 올라갔지. 개 산에 처어:올라가서 아 산에다, 어전 가서, 산집우 맨들구 딸으 들으 데리구 살지.{그래 그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아 누구인지, 내가 보고서 그 사름 이름을 잊어버렸어. 그 사람이 음 어디 갔다가 딸 둘인데 딸 둘을 가지고 쫓겨서 산으로 갔어. 그 사람은 음 그것도 하나님에 가르쳐 줘, 그 사람은 딸들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렇게 숨으라는 것을. 그래 숨자고 산으로 올라갔지. 그래 산에 위로 올라가서 아 산에다, 이젠 산에 가서, 산에다 집을 만들고 딸 둘을 데리고 살지.}

개 딸덜두 데리구 딸덜두 나아 잊지. 기래 딸덜이 이러지. 우리 아버지는 늙어서 아 우리 여기 살메서리 우리르 어디서 남편 얻어 **둘 아버지게는 그런 힘이 없다. 개 없으니까나 우리는 아아 아버지게는 딸 둘밖에 없는데 이 딸덜이, 우리 살아서 우리 어찌 대르 끈갓는가. 개 대르 끈갓는가 하메 아 그담에는 그 맏딸이 애비 수울으 맥에 놓구. 첫날밤 애비가 **자라 사 살아서 아 아이르 낳았지. 기래 그 아이 난 거 가아르 무시기라 하오?{그래 딸들도 데리고 갔는데 딸들도 나이가 있지. 그래 딸들이 이러지. 우리 아버지는 늙어서 아 우리 여기 살며 우리에게 어디서 남편을 얻어 줄 힘이 아버지에게는 없다. 그래 없으니까, 우리는, 아버지에게는 딸 둘밖에 없는데 이 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살아서 우리가 어찌 대(代)를 끊겠는가. 그래 대를 끊겠는가 하며 아 그다음에는 그 맏딸이 애비에게 술을 먹여 놓고. 첫날밤 애비가 살아 사 살아서 아이를 낳았지. 그래 그 아이를 난 거 그 아이를 무엇이 라 하오?}

그담에 다음엔 둘째딸이 가서 애빈 술으 먹으이 뉘기 들어가구 나가는 거 모르지. 술취하게 맥이구 아 둘째딸두 살아. 기래 기래 낳아서 그 이 새애기 둘 애비가 살아 그 자석 뿔것지. 그런게 잊지 야? 야야:!! 첫감에 기렸어. “에이! 모르겠다. 이 무스 어티기 애비가 살아!” 애비가 살아서 그런 게 애이라, 이 이 여자덜은 남편이 없다나이 며 대리꾸 못 나가지. 그렇기 대엇지. 그런 거. 야:!!{그다음 다음에는 둘째딸이 가서 애비는 술을 먹으니 누가 들어가고 나가는 것을 모르지. 술 취하게 먹이고 둘째딸도 살아. 그래 그래 낳아서 그 이 처녀 둘과

아비가 살아 그 사식을 불어나게 했지.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있지 응? 야! 처음에는 그랬어. “에이! 모르겠다. 이 뭐 어떻게 아비가 살아!” 아비가 살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이 여자들은 남편이 없다 보니 뭐 데리고 못 나가지. 그렇게 됐지. 그런 거. 야!

@ 지금 그게 그 *자, 그 후손덜이: 저기 저 저 시리아 머 아랍 여기 살아.{지금 그게 그 자(식), 그 후손들이 저기 저 저 시리아 뭐 아랍 여기 살아.}

야~. 후손덜이 살아 있어?{응. 후손들이 살아 있어?}

@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야~.{응.}

@ 이스라엘하구 이렇기 전쟁하구.{이스라엘하고 이렇게 전쟁하고.}

야~. 이스라엘. 이스라엘 야 음. 옳소. 지금도 그 후손, 그래엿지. 기래서 아,{응. 이스라엘. 이스라엘 응 음. 옳소. 지금도 그 후손이, 그랬지. 그래서 아,}

@ 노벨.{노벨.}

야~.{응.}

@ 노벨.{노벨.}

재밌어:::. 재밌어 야.{재밌어. 재밌어 응.}

@ 그 총기가 좋으니까 다아 기억을 하시네.{그 총기가 좋으니까 다 기억을 하시네.}

총기 좋으이, 내 그 기 그 거반 아 다아 해엿지. 어저는 책으 췌에뿌리구.{총기가 좋으니, 내가 그걸 기억, 그 거의 다 했지. 이제는 책을(=성경을) 다 내던지고.}

@ 왜 췌에뿌레! 자꾸 읽어!{왜 내던져! 자꾸 읽어!}

신문보느라구.{신문을 보느라고.}

@ 아이! 천국에 갈라무 그것을 읽어야지! 이~?{아이! 천국에 가려면 그것을 읽어야지! 응?}

어째 그러는가 하무 내 일것지. 내 일것다 해서, 에이! 이런 거 자꾸 이러겠는가구 다른 거 본다구. 개 내 아주 내 글보기 좋아하지. 내 좋아하는데,{어째 그러는가 하면 내가 다 읽었지. 내가 읽었지. 내가 읽었다 해서, 에이! 이런 것을 자꾸 이러겠는가 하고 다른 것을 본다구. 그래 내 아주 내 글 보기를 좋아하지. 내가 좋아하는데,}

@ 저것은 자꾸 읽으면 읽을수록 읽으면 읽을수록 이르면 이룰수록,{저것은 자꾸 읽으면 읽을수록 읽으면 읽을수록 읽으면 읽을수록.}

헤갈리지. 헤갈.{헛갈리지. 헛갈.}

@ 나한테 힘이 데.{나한테 힘이 돼.}

힘이 텐다구? 그럼 내 또 읽어야지. 내 어저느 이 신문으 다아 보구. 조선에서 오는 신문 황선새~ 가져오무 그 신문은 다아 보구. 노시아 신문으느 다아 보구. 아 이 신문으 쓰자하 이 글쎄 한 달에 뻘시(пенсия)르 삼 삼백 쏘 타는데 글쎄 아 이게 이룬닷냥 이룬닷냥.{힘이 된다고? 그럼 내가 또 읽어야지. 내가 이제는 이 신문을 다 보고. 한국에서 오는 신문을 황 선생이 가져오면 그 신문은 다 보고. 러시아 신문은 다 보고. 아 이 신문을 쓰자 하니(=用, 계속 구독하고자 하니) 글쎄 한 달에 퇴직 연금을 300숨을 타는데 글쎄 아 이게 75숨, 75숨.}

@ 이룬 닷냥?{75숨?}

칠십오위이오, 이거 칠십오위이이꺼나 이 칠십오원으 그거 내 제하구 나무 양백오십원 타지.{75숨이오. 이거 75숨이니까 이 75숨을 그거 내 제하고 나면 250숨을 타지.}

@ 요 요 요 끼르기스스탄(Кыргызстан)이야?{요 요 요게 키르기스스탄이야?}

끼르기스스탄(Кыргызстан) 이 비슈켄(Бишкек).{끼르기스스탄 이 비슈켄.}

@ 이거 머 머라구 써져 있어? 여기가?{이거 뭐, 뭐라고 써어 있어? 여기가?}

이거 웨체르니이 비슈켄(вечерний Бишкек)라구. 이게 끼르기스(Кыргыз)에서 제일 큰 신문. 웨체르니이 비슈켄(вечерний Бишкек)라구.{이거 베체르니이 비슈켄라고. 이게 끼르기스에서 제일 큰 신문이지. 베체르니이 비슈켄.}

@ 아니! 요 요 요 머라구 써어 있어? 이게 이게?{아니! 요 요 요 뭐라고 써어 있어? 이게 이게?}

**이거다 이거 이거사 이게 끼르기스, 끼르기스스탄(Кыргызстан) 찢짐. 아무 날꺼. 아무 달에 아무 날짜르 찢지. 이게 이거느 웨체르니이 비슈켄(вечерний Бишкек). 요게 웨체르니이 비슈켄(вечерний Бишкек).{여기다 이거 이거야 이게 끼르기스, 끼르기스스탄이라 찢지 뭐. 아무 날 것. 아무 달에 아무 날짜를 찢지. 이게 이것은 베체르니이 비슈켄. 요게 베체르니이 비슈켄.}

@ 아:.{아.}

요게 내가 배우덜 데리구 춤우 추는 게. 배우덜 춤우 추는 게. 그렇소.{요게 내가 배우들을 데리고 춤을 추는 것이지. 배우들이 춤을 추는 것. 그렇소.}

기래, 아 그라이까나 아: 이거 받다가서 내 글으 찢지. *시, 이 이거 신문사에서 나와 이랬지. 개 신문사로 글으 쓰메서리 (기침) 내 뻘시(пенсия) 작은데 뻘시(пенсия) 그렇기 많은 사람덜뚜 신문 아이 쓰는데 나는 열성적으로 십년째 네레오메 이 신문으 일거 아 칠십오원 씨 내 기양 쓴다는 거 기래 쓰이꺼나 이거 조끔 아 내게다서 값으 절반 값으 네리와 달라구.{그래, 그러니까 이 신문을 받아 보다가 내가 (신문사로) 글을 찢지. 신(문), 이 이거 신문사에서 나에게 이랬지. 그래 신문사로 글을 쓰면서 (기침), 내가 퇴직 연금이 적은데 연금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도 신문을 안 보는데 나는 열성적으로 10년째 내려오며 이 신문을 읽어 보는데, 아 75숨씩 내가 계속 쓰며 본다는 사실을 그렇게 쓰니까, 이거 조끔 내게다 값을, 절반 값으로 내려 달라고.}

개 절반 값 네리자무 *절, 칠십오원, 기래 네리와 달라구 하는데 내 쓰무:: 나는 개인사람 [짜람]이구 내한테두 배달 배달 잇으무 더 좋지. 기래 배달에 쓰라구 봉투지두 주구 이거 싹 기래 말했는데 찢다구 하는게 찢는지 아이 찢는지 아이 네리와 주지. 개 아이 네리와 주무, 아이덜 다아 돈 어전 돈 집에 밀어영구 없지.{그래 절반 값을 내리자면 절(반), 75숨인데, 그래 내려 달라고 하는데, 내가 신문을 받아 보면 나는 개인 사람이고 하니 나한테도 배달, 배달이 있으면(배달해 주면) 더 좋지. 그래 배달에 쓰라고 봉투도 주고 싹 그렇게 말했는데, 찢다고 하는데 찢는지 안 찢는지 안 내려 주지. 그래 안 내려 주면, 아이들이 다 돈을 이젠 돈을 집에(집을 사는 데) 밀어 넣고 없지.}

아:이! 내 또 한갑집이서나 아 어디메서 내 가깝운 데서 오라구 하무 내 또 가야 데지. 거기 르 돈 부제르 가주구 가야 데지. 아 그래 내 삼백원 타는 데서 아 칠십오원 물구 나무 질지 애일지. 기래 아이 쓴다구. 기래 내 퀘에뿌리구 아이 찢지. 아이 쓰구.{아니! 내가 또 환갑잔치를 하는 집에서나 어디서, 나와 가까운 데서 오라고 하면 내가 또 가야 되지. 거기로 부조(扶助) 돈을 가지고 가야 되지. 아 그래 내가 300숨을 타는 데서 75숨을 물고(=치르고) 나면 남지 않지. 그래 안 본다고. 그래 내 집어치우고(=신문을 끊고) 안 보았지. 안 보고.}

@ 아니! 거시기 머야. 그 잔칫집에 가면:,{아이! 거시기 뭐야. 그 잔칫집에 가면,}

응:.{응.}

@ 대개 부제르 얼마 얼마르 가지구 가?{대개 부죇돈을 얼마 얼마를 가지고 가?}

어 나는 이거 뻘시오니르(пенсиянер)다나이, 할머니다나이 백원 주는 집두 잇구 이백원 주는 데도 잇구. 우리 아덜은 오백원씨 주구 가. 우리 지금 그렇기 올라갔어. 우리 아덜은 동미덜 잔체르 하재일겠어. 오백원 부제르 하오.{어 나는 이거 연금 수령자이다 보니, 할머니다 보니 100숨을 주는 집도 있고 200숨을 주는 데도 있고. 우리 아이들은 500숨씩 주고 가. 우리 지금 그렇게 올라갔어. 우리 아이들은 동무들이 잔치를 하지 않겠어? 500숨 부조를 하오.}

기래 내사 늙으이다나이 아 우리 생진으 내 동궤이 생진 쉰다무 내 이백원으 가제가오. 그담 엔 또 어징간한 집이서 장세났다 하지애일겠어? 장, 가깝운 집이 장세나무 그 집은 백원으 가져 가구 그래. 아 그래 내게 소비 마이 나가지 야 그래서. 기래 어저는 아 제 준 돈으 가지구 내 약으 싸구 이 소빃도이 근심 없지. 아이덜 주이 아이 가지지, 아덜. 날 두구 소빃돈 하라 하지. 그래고 이 이 신문,{그래 나야 늙으니이다 보니 아 우리가 생일을, 내 동궤이 생일을 쉰다면 내가 200숨을 가져가오. 그다음에는 또 어느 어지간한 집에서 장사(葬事)를 치른다(=상사(喪事)가 났다) 하지 않겠어? 장사, 가까운 집에 상사(喪事)가 있으면 그 집은 100숨을 가져가고 그래. 아 그래 내게 용돈이 많이 나가지 응 그래서. 그래 이제는 아 자네가 준 돈을 가지고 내가 약을 사고 하니 이 용돈이 근심이 없지. 아이들을 주니 안 가지지, 아이들. 나에게 (그 돈을) 두고서 용돈을 하라고 하지. 그리고 이 이 신문,}

@ 그 돈 그 돈 그 돈 갖다가 아들 주니까 아들이 안 가지고.{그 돈을 그 돈을 그 돈을 갖다가 아들을 주니까 아들이 안 갖고.}

안 가주구 나 날 가져 날 두구 쓰라 하오. 기래 아들이게 도이 없는데 이 빨리온까(клеёнка)랑 싸갯는거 그거 이거 보태 받으르 농사자금에 가지라이까 아들이 아이 가져. 아들 아이 가져 메놀아이 가질 생각이 잇겠지. 그러나 메누리 아이 주구 아들 줏지.{안 갖고 나, 나에게 가지라고, 나에게 두고서 쓰라 하오. 그래 아들에게 돈이 없는데 이 온상용 비닐을 살 것인데 그거 사는데 이 돈을 보태서 받으로 갈 때 농사 자금으로 가지라 하니까 아들이 안 가져. 아들이 안 가져서, 며늘아가 가질 생각이 잇겠지. 그러나 며느리 안 주고 아들을 주었지.}

개 아들이 안 가주구 이거는 날 두구 쓰라 하지. 개 두구 쓰라 하이 그담에는 그날에 저거 내거 고무신으, 개털이라 비싸, 게 발이 시리구 발이 다 다리 아픈게 개털이 약이 데지. 저 개털이 그런 것두 싸구 내 바지두 싸오구. 그래 저 거 내 저거 메놀이 싸왔지. 기래 싸오구 그담에 내 그 돈으 두구서르 아: 내 써야 데지. 개 내 써야 데는데 내야 못 쓰짐.{그래 아들이 안 갖고 이거는 나에게 두고서 쓰라 하지. 그래 두고 쓰라 하니 그다음에는 그 날에 저거 내 것 고무신을, 개털이라 비싸. 그개 발이 시리고 발이, 다 다리가 아픈 데에 개털이 약이 되지. 저 개털이. 그런 것도 사고 내 바지도 사오고. 그래 저 거 내 저거 며느리가 사왔지. 그래 사오고 그다음에 내가 그 돈을 두고서 아 내가 써야 되지. 그래 내가 써야 되는데 나야 못 쓰지 뭐.}

그거 내 에떠(это) 에 야아덜은 이따가 빨리온까(клеёнка)르 쌀적에 도이 마이 드이 내 쥐야 데지. 가아덜으 쥐야 데지. 아 쥐야테지. 그래이 팔십먹은 할머니가 집에 앉아서 어 누가 나르 한 한냥 돈 주겠소, 야.{그거 내가 음, 이 아이들은 좀 있다가 비닐을 살 적에 돈이 많이 드니 (그때) 내가 쥐야 되지. 그 아이들에게 주어야 되지. 쥐야 되지. 그러니 팔십 먹은 할머니가 집에 앉아서 어 누가 나에게 한 푼이라도 돈을 주겠소 응.}

그래 내 그답에 제 거기다 봉투지에다 글 쓴 거 그거 그거 저 저기다 내 넣어두구 자꾸 이 르지. 그 글씨르 보문 저르 보는 같지. 그렇소 야아. 봉투에. 게 그런 봉투지 제게 더 없소? 더? 야~?{그래 내 그다음에 자네가 거기 그 봉투에다 글 쓴 거, 그거, 그거 저 저기다 내가 넣어 두고 자꾸 읽지. 그 글씨를 보면 자네를 보는 것 같지. 그렇소 응. 봉투에. 그래 그런 봉투가 자네에게 더 없소? 더? 응?}

@ 예.{예.}

황선생 그런 봉투지 나르 마이 줬는데. 그 봉투지에다 아아 몽롱하게 뉘기 돈으 그저 돈냥 이래 거르마니에 열지 마오. 나느 거기다 열어서 글으 써서 기래 내 부제르 할 적에 줘. 개 다아 썼짐. 그 야~.{황 선생이 그런 봉투를 나에게 많이 주었는데. 그 봉투에다 아 몽롱하게, 누가, 돈을 그저 돈 폰을 이렇게 주머니에 넣지 마오. 나는 거기다 넣어서 글을 써서 그래 내가 부조를 할 적에 줘. 그래 다 썼지. 그 (봉투를) 응.}

@ 예.{예.}

그, 그 봉 그따우 봉튀[투이], 그런 봉투지 내게 황선생 이마이 이마이 가져왔소. 저 황. 이 마이. 덕호 오무 덕호가 달라하지. 그러이 안죽은 죽기 전에 이렇지 야~. 마약에 내 어전 야 든한내지. 팔십일센데 딸두 아프다 아 메누리두 아프다 두루 여기저기 아프다 하지. 개 아프 다 하는데 이 팔십일세 먹은게 이거 약 먹구 번드디구 살아서 무실 하겠소. 죽어야 데지 야. (웃음) 아 기래 죽어야 데갓는게 아아 나르 가제가오? 가제 애이 가는게 야. 아 기래 *하느 나르 나르 가제가서 죽었으무 좋겠는데. 또 죽지 애이는 바에는 앓지 말아야 데지.{그, 그 봉(투) 그와 같은 봉투, 그런 봉투를 내게 황 선생이 이만큼 이만큼 가져왔소. 저 황 (선생 이) 이만큼. 덕호가 오면 덕호에게 달라 하지. 그러니 아직은 죽기 전에 이렇지 응. 만약에, 내가 이제 여든하나지. 81세인데 딸도 아프다 아 며느리도 아프다 두루 여기저기 아프다 하 지. 그래 아프다 하는데 이 81세 먹은 것이 이거 약 먹고 번디디고 살아서 무엇을 하겠소. 죽어야 되지 응. (웃음) 아 그래 죽어야 되겠는데 아 나를 가져가오? 가져가지 앓는데 응. 아 그래 하느(님)이 나를 나를 가져가서 죽었으면 좋겠는데. 또 죽지 앓을 바에는 앓지 말아 야 데지.}

@ 그렇지.{그렇지.}

죽지, 앓지 말아야 아이들게 시름이 없지. 애르 맡기지 앓지. 그래서 내 약으 먹지.{죽지, 앓 지 말아야 아이들에게 시름이 없지. 애를 맡기지 앓지. 그래서 내가 약을 먹지.}

@ 근데에 지금 팔십한내데에 아매처럼 이렇기 총기 잇구 이렇게에 건강하신 분이 없는 것,{그런데 지금 팔십하나인데 할머니처럼 이렇게 총기가 있고 이렇게 건강하신 분이 없 는 것,}

아이, 혼채이오. 잇기사 잇갓지. 혼채이오. 개 혼채인데. 내 에떠(это) 그런 거 약으 먹구 이 약은 한나르 먹지. 저 세 토~오. 저거 한달이무 사십 돌란(доллар-н)데. 저거 내 한달으 내 저거 먹구 음: 점 아아 모새가 대에서 나오문 모새가 대에 나오는가 내 그거 지키야 데 지.{아니, 혼치 앓소. 잇기야 잇갓지. 혼치 안소. 그래 혼치 앓는데. 내가 음 그런 거 약을 먹고 이 약은 하나를 먹지. 저 세통을. 저거 한 달이면 40달러인데. 저거 내가 한 달을 내가 저거 먹고 (결석(結石)이) 줌 모래가 되어서 나오면, 모래가 되어 나오는가 내가 그거 지켜 봐야 되지.}

개 내게 이게 열이으 들으 부시와서 모새 데 나오문 내가 이런 거 우시(V3II)라는 게 있어. 짝어야 데지 가서. 그것두 삼백원씨 무오. 작년에 삼백원 올해느 또 사백원이갓는두 모르.

개 그거 물구 가서 찍어야 개 이거 찍어서 익 보지. 기래 보무 아 돌이 잇구 없는 거 아지. {그래 내게 이게 쓸개의 돌을 부셔서 모래가 되어 나오면 내가 이런 거 초음파 진단기라는 것이 있어. 찍어야 되지, 가서. 그것도 300숨씩 무오. 작년에 300숨 올해는 또 400원이 아닌지 모르오. 그래 그거 물고 가서 찍어야 되는데, 그래 이거 찍어서 이렇게 보지. 그래 보면 아 돌이 있고 없는 것을 알지.}

기래 그랜 적에느 돌이 많이[마이] 기계 아 없어 아이 지무 내 저거 또 싸 먹어야 데 또 싸 먹어야 데지. 기래구 그담에 돌이 없어지무 제게르 내 소식으 전해야 데겟는데. 나는 전화할 줄두 모르구 아 내 제레고보르(телефонный разговор)할 줄 모르지.{그래 그랜 적에는 돌이 많이 그게 안 없어지면 내가 저거 또 사 먹어야 데지. 또 사 먹어야 되지. 그리고 그다음에 돌이 없어지면 자네에게 내가 소식을 전해야 되겠는데. 나는 전화할 둘도 모르고 아 나는 통화할 줄 모르지.}

그래 아 그거 앞우르 돌이 없으무 제게르 전해야 데겟는데 그래 혹시 아 도이 많채이무 혹시 앞우르라두 아 내게 전화르 하무 내 소식으 전하지 야. 야. 내 저 그러겟소. 그러이 아 그러이 그 거기 대해서[대에서] 아 자네가 와서 내가 같이 일하구 이랬다 해서 나르 저렇기 마이 선물 준 것이 그 내 죽어두 잇어 아이 뿌리짐. 내 죽어야 내 죽어야 잇어뿌리지. {그래 그거 앞으로 돌이 없으면 자네에게 소식을 전해야 되겠는데, 그래 혹시 돈이 많지 않으면 혹시 앞으로라도 내게 전화를 하면 내가 소식을 전하지 응. 응. 내가 자네에게 그렇게 하겟소. 그러니 아 그러니 거기 대해서 자네가 와서 나와 같이 일하고 이랬다 해서 나에게 저렇게 많이 선물을 준 것이 그 내 죽어도 안 잊어버리지 뭐. 내 죽어야 내가 죽어야 잊어버리지.}

@ 저도 그렇지. 저도 이렇게 와서 이렇게 자알 저 **도배지 준 분이.{저도 그렇지. 저도 이렇게 와서 이렇게 잘 저 도움을 준 분이.}

다른 데르 가무 잇겠지 무. 기래 그거 내,{다른 데를 가면 잇겠지 뭐.}

@ 나이가 드신 분이 충기가 없어 가지구,{나이가 드신 분이 충기가 없어 가지고,}

야~. 모루지 야. 개 내가 충기 좋지. 개이까나 충기 그전에 좋았지. 생사 무스 야. 내가 그거 죽어야 잇어뿌리지 야. 자넬 죽어야 잇어뿌리지. 기래 내 살아서는 난 집에 가마이 눕구 잇는 사람이 제 궁니르 하구 잇지. 기랜데 내 이,{응. 모르지 응. 그래 내가 충기가 좋지. 그러니까 충기가 그전에는 좋았지. 생사(生死), 뭐, 응. 내가 그거 죽어야 잊어버리지 응. 자네를 죽어야 잊어버리지. 그래 내가 살아서는, 난 집에 가만히 누워 잇는 사람이(어서) 자네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잇지(잇겠지). 그런데 내 이,}

@ 여기서 가만이 집에 누어 계시면 가끔 친구분덜 놀러와요?{여기서 가만히 집에 누워 계시면 가끔 친구 분들이 놀러와요?}

오오. 야~, 오오. 오는데 친두덜두[뚜] 놀라하자함 여름에 오지, 여름에. 질이 미끄러운게 자 뿌리지문 큰일이지. 우리 육촌 헤~이 내한테르 오다 이 갈비르 부짚겨, 갈빈게 에이라 에 굴 루치찌(ключица)라는 거 여기 저 이 다리에 이 붙재엿소? 그건 ***불. 병원에 한달 동안 눕구 잇었어.{오오. 응 오오. 오는데 친구들도 놀라고 하자 하면 여름에 오지, 여름에. 길이 미끄러운데 자빠지면 큰일이지. 우리 육촌 언니가 나한테로 오다가 갈비를 분질러, 갈비가 아니라 에 빗장뼈라는 것, 여기 저 다리에 붙지 았았어? 그건 ***. 병원에 한 달 동안 누워 잇었어.}

@ 언제?{언제?}

아아 우리 육촌 혜~이 삼년전에 기렸어.{아 우리 육촌 언니가 삼 년 전에 그랬어.}

@ 어~.{어.}

기래이까나 야 차에다 실어와야 데지. 차에 실어와야 데겜는데, 지금 여기 행페이 이렇소. 날 우리 아들이 야 내 노인반 같 적이문 차에 실어가지. 차에 실어가구 또 올 적이문 차에다 실어오지.{그러니까 응 차에다 실어 와야 되지. 차에 실어와야 되겜는데, 지금 여기 형편 이 이렇소. 나를 우리 아들이 응 내가 노인반에 같 적이면 차에 실어 가지. 차에 실어 가고 또 올 적이면 차에다 실어 오지.}

기앤데 우리 혜~이 아 내인테르, 같이[가치] 자라다나이 그저 내 내가 만나기, 그저 그렇기 만나길래 만날 그저 어떤 적엔 오래 못 보봄 울기두 하구 그래지. 기래 우리 자꾸 전할르 말하지. 기래 전할르 말하는데 이 혜~이 차에다, 아르 이 차에다 우리집에 아 실어, 아이덜 가 아들이 말으 못하지.{그런데 우리 형이 나한테로, 같이 자라다 보니 그저 나와 만나기를 바라는데, 그저 그렇게 만나기에 만날 그저 어떤 때에는 오래 못 보면 울기도 하고 그러지. 그래 자꾸 전화로 말하지. 그래 전화로 말하는데 이 언니가 차에다, 아이(=아들)에게 이 차에다 우리 집에 실어 (달라는 말을), 아이들에게 아들에게 말으 못 하지.}

어찌 아덜가 못함 아들 유형제야. 한내 죽구 오형제. 오형제 잇는데 만아들이 한갑이 지났어 벌써. 어전 팔십삼세 덴, ***한, 기란데 어찌 말으 못하는가 하이 싸::악 살자구 헤매지. {어찌 아이들에게 못하는가 하면 아들이 유형제야. 하나가 죽고 오형제. 오형제 잇는데 만아들이 환갑이 지났어, 벌써. 이젠 83세 덴, ***한, 그런데 어찌 말으 못하는가 하니 (아들들이) 싹 살자고 바쁘게 나다니지.}

@ 아 (다 바빠)?{아 (다 바빠)?}

차르[tʃharr] 타구 바자르(базар)가 팔구. 바자르(базар) 가 팔군 또 가져오구. 물건 싸라 가구. 이래구 저래구 시가이 없짐. 싹 이렇기 사지.{차를 타고 시장에 가 팔고. 시장에 가 팔고는 또 가져오고. 물건을 사러 가고. 이러고 저리고 시간이 없지. 싹 이렇게 살지.}

@ 돈은 많아?{돈은 많아?}

많, 그래 그저 입살이해 사짐. 그 무 무슨 많. 기래 그렇기 살지. 그래 살아야 자식이 잇는 거 혼세두 지내구 한갑 돌아오무 한갑두 지내구 그래야 데지. 기래 그 버얼이르 하느라구 시가이 없지. 시가이 없나? 아덜이. “야 내 아재인테르 놀라가갠다. 나르 실어가가라.” 내내 그 말으 못하지. 그 말 못하구.{많, 그래 그저 입에 풀칠해 살지 뭐. 그 뭐 무슨 많기는. 그래 그렇게 살지. 그렇게 살아야 자식이 잇는 거 혼사도 지내고 환갑이 돌아오면 환갑도 지내고 그래야 되지. 그래 그 벌이를 하느라고 시간이 없지. 시간이 없나? 아이들이. “야! 내가 이모한테로 놀러 가갠다. 나를 실어가거라.” 내내 그 말으 못 하지. 그 말으 못 하고.}

그담에느 그러다나이 만나지 못하지. 전하[저나] 전하가 없음 못 만나지. 그런게 전화 내 칸에 나는 가마이 늙어 늙어 전할르 하지. 전하를 가지구 사철으 말하지. 기래 야 내 팔재 좋은 사람이지.{그다음에는 그러다 보니 만나지 못하지. 전화 전하가 없으면 못 만나지. 그런데 전화, 내 방에서 나는 가만히 누워, 누워 전화를 하지. 전화를 가지고 사철 말하지. 그래 응 내 팔자가 좋은 사람이지.}

어찌 팔재 좋은가 하문, 아아 아들이 좋고 아들이 좋고 메느리두 좋고. 그담에 내가 맘이 불웁하재있게 사지. 기래 사는데 내 하고 싶은 대르 하지. 기래 아 전하[저나]르 그저 기래 하구서. 그런데 우리 아들으느 내 어드르 가갠담 내 택시(такси)에 가야 내가 도이 잇으무 택시에 가야 데지. 택시(такси)르 지금 내 전할르 하재잉겜어? 데까닥 우리 마다에 와 서.

우리 마다에 와 서 제 제엔 집으로 가재일겠어? 가자무 일흔닷냥 물어야지. 칠십오숨 물어야 데오, 음.{어쩌서 팔자가 좋은가 하면, 아 아들이 사람이 좋고, 아들이 좋고 며느리도 좋고. 그다음에 나와 맘이 불편하지 않게 살지. 그래 사는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그래 전화를 그저 그렇게 하고서. 그런데 우리 아들은 내가 어디를 가겠다 하면 내가 택시에 가야, 내가 돈이 있으면 택시에 가야 되지. 택시를 (오라고)지금 내가 전화를 하지 않겠어? 제 꼭 우리 마당에 와 택시가 서. 우리 마당에 와서 제 손님이 (가자고 하는) 집으로 가지 않겠어? 가자면 75숨을 치러야 하지. 75숨을 치러야 되오, 음.}

우리 노인바이 잇재이오? 노인반으 가두 칠십오 숨 물어야 데구. 기래이까나 딱시(такси)르 내 그 전하르 말하무 데까닥 우리 ***목녹에 와 서. 기래. 기래서 내 어떨 적에 도이 잇으무 내 딱시(такси)에 가자구 예산하무, 우리 아들 당채 못간다. 아 당채 못 가구 어머니 돈 쓰지 말구 제 실어가갸다구.{우리 노인반이 있잖소? 노인반을 가도 75숨을 치러야 되고. 그러니까 택시를 내 그 전화로 말하면 제 꼭 우리 집으로 들어서는 길목에 와 서. 그래. 그래서 내가 어떨 적에는 돈이 있으면, 내가 택시를 타고 가려고 예산하면, 우리 아들이 당채 못 간다고 하지. 아 당채 못 가고 어머니 돈을 쓰지 말고, 자기가 실어가갸다고 하지.}

기래 우리르 실어, 뗏 시에 실러 오라는가구. 거기서 또 카페(кафе)에 가 전하르 하지. 기래 뗏 시에 실러 오무 제 때 아들 딱 오지. 기래 또 거기에 앉아오지. 그래 앉아 오지. 그렇소. 기래 나느 그렇기 댕기지. 우리 혀~은 못 댕겨. 어전 다리르 아파서. 다리 아파 못 댕겨. 다리르 앓구 혈압이 올라가구. 아아 그렇기 나쁘오. 개 나빠두 아 어저는 팔십삼센데 아 그거 아아덜가,{그래 우리를 실어, 뗏 시에 실러 오라 하는가 하고 말하지. 거기서 또 카페에 가 전화를 하지. 그래 뗏 시에 실러 오면 제 때에 아들이 딱 오지. 그러면 또 거기에 앉아 오지. 그래 앉아 오지. 그렇소. 그래 나느 그렇게 다니지. 우리 언니는 못 다녀. 이제는 다리가 아파서. 다리가 아파 못 다녀. 다리를 앓고 혈압이 올라가고. 아 그렇게 (건강이) 나쁘오. 그래 나빠도 아 이제는 83세인데 아 그거 아이들에게,}

10201 @ 그 형부는 돌아가셨어요? 상새났어?{그 형부는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오?}

10201 # 남페이? 돌아간지 오라지. 돌아갔어 야. 개 돌아가구 자석이 열이이꺼나 야.{남편이? 돌아가신지 모래지. 돌아가셨어 응. 그래 돌아가고 자식이 열이니까 응.}

10201 @ 야! 열이나 데?{야! 열이나 돼?}

10201 # 야, 남녀 열이 나이 게 독한 사람이지. 열이 나이 나야리(няяривать)지. 하나투 아 이 죽었지. 그 열으 다아 재래와서 아들 유형제 딸 사형제. 기랴 기란게 그 열이 다 자라서 다아 조선사람게르 서바~아가구 조선사람게 시집가구.{응, 남녀 열 명을 낳으니 게 독한 사람이지. 열이 태어나니 짧은 시간에 쑥쑥 낳은 것이지. 하나도 안 죽었지. 그 열을 다 길러서 아들 육형제 딸 사형제. 그래 그런데 그 열이 다 자라서 다 조선 사람에게로 장가를 하고 조선 사람에게 시집가고.}

10201 # 여기서 다 끼르기스랑 가오. 끼르기스끼리 시집가지 끼르기스 메느리 삼지 그렇소 지금 야. 아 이 고려남자덜 끼르기스 여자덜게 서방아 가구 막 기래오 지금 야.{여기서 다 키르기스 인에게 (장가 시집을) 가오. 키르기스 인에게 시집가지 키르기스 인을 며느리로 삼지 그렇소 지금 응. 아 이 고려인 남자들이 키르기스 인 여자에게 장가를 가고 막 그러오. 지금 응.}

10201 @ 그럼 바쁘잖아?{그럼 힘들지 않아?}

10201 # 에이그! 그런 망탕 세월이짐 야. 에 기랴 그렇게 조선사람게르 서바~아 가구 조선사

름게르 시집가구 우리 혀~이 그렇기 팔재 좋은 **사람언테 구십꺼정 야, 구십이, 아! 팔 십꺼정.{어이구! 그런 엉망이 된 세월(=시대)이지 뭐, 응. 에 그래 그런데 조선 사람에게 장가를 가고 조선 사람에게 시집가고, 우리 형이 그렇게 팔자가 좋은 사람인데, 구십까지 응, 구십이, 아! (구십이 아니고) 팔십까지.}

10201 # 팔십이 넘으니 아 에따(это) 셋째 아들이, 아들이 때깍 죽었어. 아들이 때깍. 술먹기 좋아하는 게 술 먹으러 저녁에 가다가 차 지나가메 끼워서. 기래 셋째아들 때깍 하나 죽었지. 열에서 하나 죽에 아홉이지. 아홉이 질었는데 아 재작년에, 재작년엔 야~ 딸 어 어 둘째, 셋째딸이, 셋째딸이 또 때깍 죽었어. 앓아서 죽었어. 기래 셋째딸이 죽다니 어저느 열에서 둘이 죽구 야들이오. 야들.{팔십이 넘으니 아 음 셋째 아들이, 아들이 제 꺾 죽었어. 아들이 제꺾. 술 먹기를 좋아하는 것이 술 먹으러 저녁에 가다가 차가 지나가는데 거기에 끼워서. 그래 셋째 아들을 제꺾 하나를 죽였지. 열에서 하나를 죽여 아홉이지. 아홉이 남았는데 아 재작년에, 재작년에 응 딸 어 둘째, 셋째 딸이, 셋째 딸이 또 제꺾 죽었어. 앓아서 죽었어. 그래 죽다 보니 이제는 열에서 둘이 죽고 여덟이오. 여덟.}

10201 # 기래 야들이 질는데 이 죽인 아이르 두올래서 밤낮 속으 태우지. 기래 속으 태우다가 이때까지 자랄 때부터 이런 일으 못 밧는데 기래 죽이구 기래 속이 타서 아 벼~어 벼~어 고쳐서 아파두 고치갠단 말이 없구 그 집이 늙어 그저 다리 아프무 다리 아프구 혈압이 올라가무 올라가구 이사르 **불러오구 그저 그렇기 사오. 그렇기 사오. 개 그렇기 사는데.{그래서 여덟이 남는데 이 죽인 아이 둘 때문에 밤낮 속을 태우지. 그래 속을 태우다가 이때까지 자랄 때부터 이런 일을 못 밧는데 그래 죽이고 그래 속이 타서 아 병을 병을 고쳐서 (건강을 찾아야 하는데), 아파도 고치갠다는 말이 없고 그 집에 누워 그저 다리가 아프면 다리가 아프고 혈압이 올라가면 올라가고 의사를 불러오고 그저 그렇게 사오. 그렇게 사오. 그래 그렇게 사는데.}

10201 @ 빨리 빨리 죽, 빨리 죽을, 죽는다구 그러?{빨리 빨리 죽, 빨리 죽겠다고 그래?}

10201 # 빨리 죽겠다 하는데 글썄 가제가오? 가제가지 애왕지 야. 개 저런 양반은 죽구 싶어 하는 양반은 아 가제가오? 아이 가제가제. 기래 내같은 건 그렇지. 세 오느이지. 세 오느이. 그 세 오느이 야 이 절먹아들가 있지. 딸가 아들은 갈가져 있지.{빨리 죽겠다고 하는데 글썄 가져가오? 가져가지 않지 응. 그래 저런 양반은, 죽고 싶어 하는 양반은 아 가져가오? 안 가져가지. 그래 나 같은 것은 그렇지. 세 오누이지. 세 오누이. 그 세 오누이 중에서 나는 막내아들과 있지. 딸과 아들은 갈라져 있지.}

10201 # 갈가져 잇는 게 주일:마다 이 전하르 하오. 모스크바(Москва) 손, **손저 손네 이 아들 딸에 주일:마다 전하르 하오. 내 건가~이 어떤가 주일마다. 페레고보르(переговоры) 하지. 개 전하르 해서 소식으 듣지[들찌]. 소식으 듣고[들꼬] 내 생진이무 싹 모다 오짐. 모로기 싹 오오. 기래 오구. 기래 오구 야: 그담에는 음 집에서 이렇기 펜야:이 나는 사는 사람이지. 펜야이 야.{갈라져 잇는 것이 주일마다 이 전화를 하오. 모스크바에 잇는 손자 손녀며 이 아들과 딸이며 주일마다 전화를 하오. 내 건강이 어떤지 주일마다. 통화를 하지. 그래 전화를 해서 소식을 듣지. 소식을 듣고 내 생일이면 싹 다 모여 오지 뭐. 한테 모여서 싹 오오. 그렇기 오고. 그렇게 오고, 아 그다음에 음 나는 집에서 이렇게 편안히 사람이지. 편안히 응.}

10201 # 그저 모로:기 안죽은 다 잇다나이 펜안하지. 기래 그 우리 혀~이 아 팔십꺼장 그렇게 모로기 덴 게 자식이 죽어 속으 태우는 거 보무 아 나두 이렇기 폐안하구 속타는 일이

없이 죽어야 데지. 아 기래 *아부 하느님 아버지 나르 가제가오? 아이 가져가는게. (웃음){(자식들이) 그저 모두 한 오롯이 아직은 다 있다 보니 편안하지. 그래 그 우리 언니가 아 팔십까지 그렇게 모두 오롯이 있던 것이 자식이 죽어 속을 태우는 것을 보면 아 나도 이렇게 편안하고 속타는 일이 없이 죽어야 되지. 아 그래 하느님 아버지 나를 가져가오? 안 가져가는데. (웃음) }

사람덜은 날 백 살 살라하지. (웃음) 내가 백살 살아 무엇하겠소. 구십 살이무 구신, 구시이오. 팔십은 안죽은 조끔 아 정시이 줌. 오매~이라는 거 아이 쓰이 정시이 마알쑈하지 응. 옛날에 오매, 지금은 오매~이 벨루 없지. 옛날에는 오마~아 썬짐. 정시이 없어.{사람들은 날 보고 백 살을 살라 하지. (웃음) 내가 백 살을 살아 무엇하겠소. 구십 살이면 귀신, 귀신이오. 팔십은 아직은 조끔 정신이 줌 (있지). 노망(老妄)이라는 것을 안 부리니 정신이 맑지 응. 옛날에 노망(을 많이 부렸지만), 지금은 노망이 별로 없지. 옛날에는 노망을 부렸지 뭐. 정신이 없어서.}

@ 오망 많이 썬지요.{노망을 많이 부렸지요.}

아이! 옛날에사 그 오마~아 써서 늙은이덜이 애르 맏겠지. 기래구 조선에서 이렇게 썬거든야. 자석덜게 짐이 데지 말게 자살해야 한다. 이릉기 썬거,{아이! 옛날에야 그 노망을 부려서 늙은이들이 애를 먹였지. 그리고 한국에서 이렇게 썬거든 응.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말게 자살해야 한다. 이렇게 썬거,}

@ 그것은 잘못 텐 거야. 문제가 있는, 문제가 있는 아매지 머어.{그것은 잘못 된 거야. 문제가 있는, 문제가 있는 할머니지 뭐.}

그렇기 아 아이 자석덜게 짐이 데지 마구 자살해야 텐다. 기래이 기계 육십이 넘는 양반덜은 조선 별이 있어? 무슨 별이르 하개. 도새:, 서울 도시에 앉아 아파트 집에 올라앉아 무슨 별이오? 별이 없짐. 개 별이 없다나이 별이 없이 그냥 자석덜 신세에 살아야 데지. 자석덜 신세에 살아야 데갠데 자석덜기[끼] 짐이 데지 말게 자살해야 한다 저기다 그렇기 썬어. {그렇게 아이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말고 자살해야 된다. 그러니 그게 육십이 넘는 양반들은 한국에서 별이가 있어? 무슨 별이를 할 수 있어. 도시에, 서울 도시에 앉아 아파트 집에 올라 앉아 무슨 별이를 하오? 별이가 없지. 그래 별이가 없다 보니 별이가 없이 그냥 자식들에게 신세를 지며 살아야 되지. 자식들에게 신세를 지며 살아야 되겠는데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말게 자살해야 된다고 저기(=한국 신문)다 썬어.}

@ 자식들도: (썬) 자식들이 잘 살든지 못 살든지:: (썬) 머 부모가 또 그렇기 키워줬으니까 일 없는데 부모 마음이지이.{자식들도 (썬) 자식들이 잘 살든지 못 살든지 (썬) 뭐 부모가 또 그렇게 키워 주었으니까 (사는 것이) 괜찮은데 (자살을 생각하는 것은) 부모 마음이지.}

부모 맘이 그렇지.{부모 마음이 그렇지.}

@ 부모 마(음이야 그렇겠지){부모 마(음이 그렇겠지).}

기래. 부모 마음이 그렇고[그러꼬]. 그담 여기 일백, 일백 지금 에떠(это) 세 살인두 사는 아매 잇재이오? 이 아매느 손재가 오십 뿔 살이, 손재 손재 재래우는데 손재 무 좋은 사름, 무던한 사름이지. 아 할머니느 이릉기 앞우르 정정하게 오래오래 계시라 하지. 빨리 죽으란 말으 오래오래 계시라. 기래 계시라구. 어징간:한 노옴운 일이 잇어두 이래 그저 노옴아 아이 하지. 이래 성질이 이런 계구 오래. 이 할머니 술두 좋아 고기두 좋. 아이! 글썬 일백 뿔. 야야! 이건 너무 오래: 사오 야. 오래 사오. 개 정시이랑 말:장다오.{그래. 부모 마음이 그렇고. 그다음에 여기 일 백, 일 백 지금 음 세 살이지 사는 할머니가 있잖소? 이 할머니는 손

자가 오십 몇 살인데, 손자가 손자를 기르는데 손자가 뭐 좋은 사람, 무던한 사람이지. 아 할머니는 이렇게 앞으로 정정하게 오래오래 계시라 하지. 빨리 죽으라는 말을 ‘오래오래 계시라’ 하지. 그렇게 계시라고. 어지간한 노여운 일이 있어도 이래 그저 노여워하지 않지. 이렇게 성질이 이런 사람이어야 오래 (살지). 이 할머니 술도 좋아 고기도 아이! 글썽 일 백 몇. 야! 이건 너무 오래 사오 응. 오래 사오. 그래 정신이랑 말같다오.}

@ 원래 사람은 제대로 살면은 백이십살까지 살아야 텐대요.{원래 사람은 제대로 살면 백 이십 살까지 살아야 된대요.}

백이십 살까지 어티기 사오?{백 이십 살까지 어떻게 사오?}

@ 원래 그렇게 살게 데어 있데.{원래 그렇게 살게 되어 있데.}

야~.{응.}

@ 사람덜이 몸을 막 망태기로 함부로 허니까,{사람이 몸을 막 엉망으로 함부로 하니까,}

음.{음.}

@ 늙게 빨리 죽는 거지.{그렇게 빨리 죽는 것이지.}

빨리 죽지, 야~.{빨리 죽지, 응.}

지금 내 야. 어제 내 동미가 내게 전하[저나]르 하는데, 그 내 켈레뽀(телефон) 저거 요사이 벌써 내가 말해왔어. 내 미루 당불:했:어. 우리 집으르 전하하지 말라. 우리 집이 손님이 와서 내 일한다. 아, 개 기래이까나 전하[저나]르 하지. 그저 불뚝에나 켈레뽀(телефон) 내 게르 오짐. 이 켈레뽀(телефон)두 야 원동에서 온 아 그 에따(это) 캄부사찌(компенсация) 타가주구 내 저 저 켈레뽀(телефон) 논 데 가서 내 거그 가서 ***총으 싸가주구가서 이 켈레뽀(телефон)으 ***비소제(безо--??) 오체르(очередь) 없이 왔어, 이거. 개.{지금 내가 응. 어제 내 동무가 내게 전화를 하는데, 그 내 전화 저거로 요사이 벌써 내가 말했어. 내가 미리 당부를 했어. 우리 집으로 전화하지 말라고. 우리 집에 손님이 와서 내가 일을 한다. 아, 그래 그러니까 전화를 하지. 그저 불쑥 전화가 내게로 오지 뭐. 이 전화도 응 원동에서 온 아 음 배상금을 타 가지고 내 저 전화를 논 데 가서, 내 거기 가서 신청서를 써 가지고 가 이 전화를 대기 순서 없이 왔어, 이거. 그래,}

@ 뭐라고요? ‘오체’가 무슨 말이에요?{뭐라고요? ‘오체(르)’가 무슨 말이에요?}

오체르(очередь)란 게 무시긴감 십년이나 십오연 기다려야 데지.{‘오체르’가 무엇인가 하면 십 년이나 십오 년 기다려야 되지.}

@ 어어!{어!}

이건 담 **담광 왔어. 담방 왔는데. 여기 우리 따 손네 집우 싸재왔어? 이지 아들은 저거 열천 주구 왔어. 열천. 열천,{이건 단 단박 놓았어. 단박 왔는데. 여기 우리 손녀가 집을 사지 않겠어? 이 집 아들은 저거 1만 숨을 주고 놓았어. 1만. 1만.}

@ 열천 숨?(1만 숨?)

열천 쑤 주구. 점 저 지금두 그 지금 열 열두 열세천 열네천 그렇기 하오. 이거 이거 저 이 켈레뽀 딜에오는데.{1만 숨을 주고. 좀 저 지금도 그 지금 1만 2천, 1만 3천, 1만 4천 숨 그렇게 하오. 이거 이거 저 이 전화를 들여놓는데.}

@ 아매는 그냥 그냥 무료로?{할머니는 그냥 그냥 무료로?}

내 거저느 무울르 낫지 야.{나는 그저 무료로 놓았지, 응.}

@ 으:티게서?{어떻게 해서?}

아 원동에서 온 책이 잇재이오? 그 책으 가지구 그 책에다 아 원동서 온 이런 사람덜은 켈

레뽀(телефон)두 오체르(очередь) 없이 뵈아라. 뵈아쥬라. 아 병원에서두 오체르(очередь) 없이 바라. 어: 그담엔 이 집세 집세 제 무시기던지 썩다 썩 절반 물라. 기래 우리 지 집세 저 썩 절반 무오. 뽀까(пока) 내 살아서 절반 물구.{아 원동에서 왔다는 것을 적은 책(=證書)이 있잖소? 그 증서를 가지고 그 증서에다 아 원동에서 온 이런 사람들은 전화도 대기 순서 없이 놓아라. 놓아 주어라. 아 병원에서도 순서 없이 바라(=진찰해라). 어 그다음에는 이 집세, 집세는 죄다 무엇이든지 썩 다 썩 절반을 물어라. 그래 우리 집세 절(반) 썩 절반을 무오. 내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절반을 물고.}

그 책으 가지구 **총오 썩 가지구 인쳐 그저 아 벌써 그 책으 다 인차 달아가서 벌써 이거 이 이런 거 저 전보 **나다가지, 내 나 잊지. 내 썰레뽀(телефон) 아이 씬 여름에 내 혼자 사지 그렇다구. 앓지 그렇다구.{그 증서를 가지고 신청서를 썩 가지고 이내 그저 벌써 그 증서를 가지고 이내 달려가서 벌써 이거 이 이런 거 저 (식구가) 전부 다 나가지, 내 나이가 잊지. 내 전화 안 쓰면 (안 된다고), 여름에 나 혼자 살지 그렇다고. 앓지 그렇다고.}

아 그래서 한 번 가이 노메르(номер) 안죽 없다. 노메르(номер) 오무 빠르브이(первый) 첫썰르 놓겿. 두 번 가이 또 그래 노메르(номер) 없다구, 첫 번. 이래매 아이 뵈주거든 야. 그 자꾸 땡겿짐. 그때무 제발르 암테나 바라댕기메, 아 그저 제발르 암테나 바라댕기메 자꾸 가서 그담에 나차니(начальник)가 말했지. 내 혼자 살구 내 늙으이지. 내 베~이 잇다구. 베~이 잇는게 난 이 집에 혼자 죽어두 모른다. 그러이꺼나 이 저 썰리뽀(телефон) 잇어야 내 소식으 전한다йка. 지금 시대 아 아이들 앓아 늙으이덜 붙들구 잇는 게 없다구. 썩 나가 나가 일한다구. 벌이르 한다구. 아 그래 자꾸 땡게. 그담에 드르르 와서 뵈아쥬어. 기래 뵈았어.{아 그래서 한 번 가니 전화번호가 아직 없다. 번호가 나오면 첫 번째로, 첫째로 놓겿다. 두 번 가니 또 그래. 번호가 없다고, 첫 번째처럼. 이러며 안 놓아 주거든 응. 그래 자꾸 다녔지. 그때는 제발로 아무 데나 싸돌아다니며, 아 그저 제발로 아무 데나 싸돌아다니며 자꾸 가서 그다음에 책임자에게 말했지. 내가 혼자 살고 또 늙은이지. 내가 병이 있다고. 병이 있는데 난 이 집에서 혼자 죽어도 모른다. 그러니까 이 저 전화가 잇어야 내가 소식을 전한다고 하니까. 지금 시대에 아 아이들이 앓아서 늙은이들을 붙들고(=결에서 보살피고) 잇는 것이 없다고. 썩 나가 일한다고. 벌이를 한다고. 아 그래 자꾸 다녀. 그다음에 드르르 와서 놓아 주었어. 그래 전화를 놓았어.}

첫감엔 노메르(номер) 없다구 전길르 여 여기다 전길르 뵈어. 이게 이 이 이게 썰리뽀(телефон) 들어오는 줄이야. 야 이 줄루. 첫감에느 전기 잇으무 말하구 전기 없으무 말으 못하지. 그담 또 고쳤짐, 또. 전기 없이 말하게. 그래 고쳤어. 그래 썰리뽀(телефон) 잇으이 우리 손네 말하는 거 저거 또 썩지. 애 애비르 선물하느라구.{처음에는 번호가 없다고 전기로 여 여기다 전기로 놓았어. 이게 이 이게 전화가 들어오는 줄이야. 응 이 줄로. 처음에는 전기가 있으면 말하고 전기가 없으면 말을 못 하지. 그다음 또 고쳤지 뭐, 또. 전기가 없이 말하게. 그래 고쳤어. 그래 전화가 잇으니 우리 손녀가 말하는 거 저걸 또 샷지. 아비에게 선물하느라고.}

아, 우리 저 까지노(казино) 가 일하는 그 작은 손네. 기래 싸 저썩 방안에두 잇구 내게두 잇구. 기래 전하 오는 건 전체 이 시간에 내게 전하르 하지 말. 자꾸 오지 각지에 작. 그래 어제 전하르 하는데 어제 저녁에 내게르, 내 내 일으 냉게쥬어. 내 후보르 하다가. 내 그 여자 내게 전하르 하는데 여자느 푹푹한 여자. 아: 무스거 무스운 옷으 아 끼르기스(Кыргыз) 춤우 추무 끼르기스(Кыргыз) 옷으 해입구 고려춤우 추무 고려옷이야 다아 잊지. 그래구

무슨 춤우 추구 무슨 노래르 부르구 이런 거 연습하는 거 내가 짝 말하지. 개 내가 짝 모르는 거 내가 짝 뭉구[물꾸] 기래지.{아 우리 저 카지노에 가 일하는 그 작은 손녀가. 그래 사서 저쪽 방안에고 있고 내게도 있고. 그래 전화를 걸어오는 사람에게는 모두 이 시간에 내게 전화를 하지 말라고 했지. 자꾸 오지, 각지에서 자꾸. 그래 어제 전화를 하는데 어제 저녁에 내게로, (내게 전화를 한 그 사람에게) 내가 하던 일을 넘겨주었어. 내 후보(候補)를 하다가 (일을 넘겨받았지). 내, 그 여자 내게 전화를 하는데, 여자는 똑똑한 여자. 아 무엇 무슨 옷을, 아 키르기스 춤을 추면 키르기스 옷을 해 입고, 한국 춤을 추면, 한국 옷이야 다 있지. 그리고 무슨 춤을 추고 무슨 노래를 부르고 이런 거 연습하는 것을 나에게 짝 말하지. 그래 나에게 짝 모르는 것을 나에게 짝 묻고 그러지.}

기란데 이 여자 내게 소식으 전하는데, 아아 이제 예순다섯이오, 여그 점문 사람이, 데깅 죽어 어제 장네르 했다오. 그담엔 또 아 육십이 아이 덴 여자두 죽어서 야 장네르 했:다우. 아 짝 다 육십이 육십이 넘구 육십이 좀 아이 이런 거 장세르. 그런 거 모두 서이나 장네르 했다. 내 모르게 야: 그렇게 서이나 장네르 했다.{그러나 이 여자 나에게 소식을 전하기를, 아 이제 예순다섯이오, 여기 젊은 사람이, 제깅 죽어 어제 장사(葬事)를 치렀다오. 그다음에는 또 아 육십이 안 된 여자도 죽어서 응 장사를 치렀다오. 아 짝 다 육십이, 육십이 넘고 육십이 좀 안 된 이런 사람 장사를. 그런 사람 모두 셋이나 장례(葬禮)를 치렀다고. 내가 모르게 야 그렇게 셋이나 장례를 치렀다고.}

그러나 내 나르 아이 알긴다구. 나르 알기지 말아야지 내 어띠기 가겠소 야. 아 그래서 아 그래서 쯤리뽀(телефон)으 소식으 듣짐. 쯤레뽀(телефон)이 없으무 아 밤중이지. 아무것두 모르짐. 기래 쯤레뽀(телефон) 좋짐. 기래 한국에서 저 황선새~이 가서 아 한국을 자석덜 집우르 갖는데 서울에 가 살메서르 야 내게르 세 번 전하[저나]르 했어.{그러나 내가 나에게 야니 알린다고. 나에게 알리지 말아야지 내가 어떻게 가겠소 응. 아 그래서, 그래서 전화를 통해 소식을 듣지 뭐. 전화가 없으면 아 밤중이지(아무것도 전혀 알 수 없지). 아무 것도 모르지. 그래 전화가 좋지. 그래 한국에서, 저 황 선생이 아 한국의 자식들 집으로 갔는데 서울에 가 살면서 응 내게로 세 번 전화를 했어.}

일본 일본에두 갖다우. 기란게 아 그거 아주 나르 생각하구 쉽재인 일이지. 아 한국에 그 멀리 가서 내 건가~이 어떤가. 그러이 내 이거…….{일본에도 갔다오. 그런데 아 그거 아주 나를 생각해 주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지. 아 한국으로 그렇게 멀리 가서 내 건강이 어떤지. 그러니 내 이거…….}

오문, 목사님 어째 날 그런 거 아이 주오? 쯤레뽀(телефон) 아이 주오? 야~?(오면, 목사님이 어째 나에게 그런 것을 안 주오?)

@ 아 이따 주시겠지 머, 예.{아 이따가 주시겠지 뭐, 예.}

제 달란 말 아이 했어?{자네가 달라는 말을 안 했어?}

@ 아니! 말씀 드렸어. 이따 오시면 주시겠지 머. 가끔, 가끔 목사님두 여기 아매한테 놀러오고 그러겠지. 그러실꺼야 아마.{아니! 말씀 드렸어. 이따 오시면 주시겠지 뭐. 가끔, 가끔 목사님도 여기 할머니한테 놀러오고 그러겠지. 그러실 거야, 아마.}

아: 그거 날 줘야 내 오놀오느 제웃에 전하[저나]르 그 집에 하겠는게. 내게 전하번호 없지. 기래 그거 목사님 그거 주문 덕호 사흔날 와 우리 새해르 셀 적에 내 그 양반 오라해 야 데지 야~. 개 그 양반 오라하겠는게 그 전하번호 꼭 잇어야 데지 야~. 그래 그 사람 어제스 내 늦어 나가 부인네 왔다 부인네르 나가 밧겠는 거 야 못 밧어. 그래 같이 오까? 혼

자 오까?{아 그걸 나에게 줘야 내가 오늘은 바로 자네에게 전화를 (자네가 있는) 그 집에 할 수 있겠는데. 내게 전화번호가 없지. 그래 목사님이 그걸 주면, 덕호가 사흘날 와서 우리가 새해를 설 적에 (그 전화로) 내가 그 양반 오라고 해야 되지 응. 그래 그 양반을 오라고 하려 하는데 그 전화번호가 꼭 있어야 되지 응. 그래 그 사람이, 어제는 내가 늦어, 나가서, 부인이 왔다고 하는데 그 부인을 나가서 보았어야 했는데 응 못 봤어. 그래 같이 올까? 혼자 올까?}

@ 같이 오실꺼예요.{같이 오실 거예요.}

아! 같이 오무 좋소. 우리 집에 와서 나가 멘목 익히게 야. 좋소 야. 난 여기 사는 사람 그 사람두 여기 살재이오? 그래 난 멘목 익히무 좋짐 야. 같이 우리집 밥 잡수무 좋짐 야. 야. 그 그렇게[그러게] 내 오늘은 같이 오는두 아이 오는두, 내 그렇겠다. 같이 오이 좋소 야. 그래 아침에느 자네가 오재이 근심이 나지.{아! 같이 오면 좋소. 우리 집에 와서 나와 얼굴을 익히게, 응. 좋소, 응. 난 여기에 사는 사람이고 또 그 사람도 여기에 살잖소? 그래 난 얼굴을 익히면 좋지 뭐, 응. 우리 집에서 같이 밥을 잡수면 좋지 뭐, 응. 그 그렇게 내가 오늘은 같이 오는지 아니 오는지 (궁금했는데), 내 그렇겠다. 같이 오니 좋소, 응. 그래 아침에는 자네가 오지 않으니 근심이 나지.}

@ 왜애?{왜?}

볼 일이 있어 다른 텔 갖는가. 좀 이래 앉아 얘:기르 해:야데갯는데 야아. (박수 소리) 야아! 앉아 얘:기르.{볼 일이 있어 다른 텔 갖는가. 좀 이렇게 앉아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야! 야! 앉아서 얘기를.}

이거 아주 많소. 이거 책으 써 가준 거 저거 어티기 다 해석해야 데지. 책으 해석 그 해석해야 데지, 매일 가 일해야 데지. 대학에 가 매일 일해야 데지 응.{이거 아주 양이 많소. 이거 책을 써 가진 거(=조사한 내용을 기록해서 가진 책) 저거 어떻게 다 해석해야 되지. 책을 해석해야, 그것을 해석해야 되지, 매일 가 일해야 되지. 대학에 가서 매일 일해야 되지, 응.}

@ 바빠요.{바빠요.}

응, 바쁘지 일이 밝.{응, 바쁘지 일이. 바쁘(지).}

@ 우리는 바쁘문 여깃말로는 분망하단 말야. 분망하다는 말.{우리가 '바쁘다'고 하는 말은 여기 말로는 분망(奔忙)하다는 말이야. 분망하다는 말.}

분망하다구?{분망하다고?}

@ 막 달아다녀, 달아댕기느라구 우리는 바쁘다구 그래.{막 뛰어다녀서, 뛰어다니느라구 우리는 바쁘다고 그래.}

야~. 달아댕게. 우 우 우리 말르 바쁘다구 하지. 우리 보통말로 바쁘다구 하지. 야~.{응. 뛰어다녀. 우 우리 말로 바쁘다고 하지. 우리가 보통 쓰는 말로 바쁘다고 하지. 응.}

@ 우리는 여기 보통 여기 바쁘다는 말을 우리는 힘들다구래.{우리는, 여기서 보통 쓰는 '바쁘다'는 말을, 우리는 '힘들다'고 그래.}

힘든다 하지. 옴소. **오투 우리두 힘드다 하오. 힘드나 바쁘나 한가지우.{'힘든다' 하지. 옴소. 우리도, 우리도 '힘들다' 하오. 힘드나 바쁘나 한가지오.}

@ 우린 힘든 거하구 바쁜 거 따야.{우린 '힘든 것'하고 '바쁜 것'이 달라.}

아아 따다구?{아! 다르다고?}

@ 우리는:: 이 일이 힘들어 막 일을 많이 해 갖구 힘들어 그건 힘든 거고 바쁜 것은 시간이 없어 막 시간이 없이,{우리는 이 일이 힘들어, 막 일을 많이 해 가지고 힘들어. 그건 힘든

것이고 ‘바쁜 것’은 시간이 없어 막 시간이 없어,}

아, 그것두 옳소.{아, 그것도 옳소.}

@ 그런 건 바쁜 거구.{움직이는 그런 것은 바쁜 것이고.}

그것두 옳소. 힘이 든 거는 일이 무거운 게.{그것도 옳소. 힘이 드는 것은 일이 무거운 것.}

@ 고텐 거여어.{고된 것이야.}

옳소. 그 말 그 말이 옳습니다.{옳소. 그 말이 그 말이 옳습니다.}

@ 우리하고 여기는.{우리하고 여기는 (말뜻이 다르지요).}

옳:소. 그 말이 옳소! 야~. 음 그러구 이 책마 내가 좀 더러 물어볼 거 내 이 책에 아이 잇구. 한국이, “인터넷 십년이 데문 한국으 다 따라 따라 옵니다.” 이 이거 보세요 이거. 이건 한국인데 한국기 내겐 이런 기두 잇소. 이게 태극기오!{옳소. 그 말이 옳소! 응. 음, 그리고 이 책보다, 내가 좀 더러 물어볼 것이 이 책에 안 있고. 한국이, “인터넷 10년이 되면 한국을 다 따라, 따라 옵니다.” 이 이거 보세요, 이거. 이건 한국인데 한국 국기, 내겐 이런 기(旗)도 잇소. 이것이 태극기오!}

@ 태극기?{태극기?}

내겐 태국,{내게는 태극기,}

@ 어서 났어? 이건?{어디서 났어? 이건?}

조선사람덜 날 줘엇지. 내 조선사람 많이[마이] 만나 (기침) 태국,{한국 사람들이 나에게 주엇지. 내가 한국 사람을 많이 만나 (기침) 태극기를,}

@ 조선 기는? 저 저 인공기는?{북한의 기(旗)는? 저 인공기는?}

야~. 태극기두 내게 잇구 아야 에따(это) 저 지도, 지도, 지도르 아께 노시아, 조선말르 무시라 하는가? 그거? 보는 거 야. 그 지도도 지도는 황선새~이 개엿다 주구. 이 태극기는 한국에 온 사람이 날 개엿다 줘어. 아 기래구 아야 그담에,{응. 태극기도 내게 있고, 아 음 저 지도, 지도, 지도를 아까 그 러시아, 조선말로 무엇이랴 하는가? 그거? 보는 거 응. 그 지도도, 지도는 황 선생이 가져다주고. 이 태극기는 한국에서 온 사람이 나에게 가져다주엇어. 아 그리고 아 그다음에,}

@ 러시아가 어떤 게야? 러시아 기가.{러시아가 어떤 것이야? 러시아 기(旗)가?}

이 이 이게,{이 이 이게,}

@ 아니, 러시아가 요건가?{아니, 러시아가 요것인가?}

요게 노시아. 요게 노시아.{요게 러시아. 요게 러시아.}

@ 요게 노시아?{요게 러시아?}

이거는 한국이거던 이건 아메리카. 이 이 싹 여기 따라온단 말야.{이건 한국이거든. 이건 미국. 이, 이 싹 여기 따라온단 말이야.}

@ 이게 독일이야 독일.{이것이 독일이야 독일.}

야 이게 독일이. 이 싹 여기르 따라온단 말야. 싹 여. 여기보. 여기르 싹다. 십년이. 아 인터넷 십년이 대한민국 인터넷이 역사합니다. 갠테 이 이 책으 내가 이 책으 일것지. 개 이 책으 일것는데 아 그 자네 말하는 게 아아 옳습니다. 내가 저어 교헤 저 교헤책으 저거 자꾸 일거야 데지.{응, 이것이 독일. 이것이 싹 여기를 따라온단 말이야. 싹 여기를. 여기 보오. 여기를 싹 다. 10년이. 아, 인터넷 10년이 대한민국 인터넷이 역사합니다. 그런데 이 이 책을 내가 이 책을 읽엇지. 그래 이 책을 읽엇는데 아 그 자네가 말하는 것이 옳습니다. 내가 저 교회 저 교회 책(=성경)을 자꾸 읽어야 되지.}

@ 성경, 성경!{성경, 성경!}

성경책으 자꾸 일거야 데지 야. 성경책으 야.{성경을 자꾸 읽어야 되지 응. 성경책을 응.}

@ 그리고, 그리고 성경책 읽으면서어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세요.{그리고, 그리고 성경책을 읽으면서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세요.}

아, 자식덜을 위해 기도르 많이[마이] 하라구? 그 자식덜게다 내 어떻게 기도르 하는가: 하무,{아, 자식들을 위해 기도를 많이 하라고? 그 자식들에게다 내 어떻게 기도를 하는가 하면,}

@ 대개 어떤 기도 하셔?{대개 어떤 기도를 하셔?}

아.{아.}

10201 # (차를 가져옴) 아이구::! 이렇게 많이[마이] 놔. 조금 놓라 헛는데 야. 반 꾸루시켄(к ружка). 이 사람 차는? 따갑운 거 열어 었어라. 그 따갑운 거 어째. 쌍화차라는 거 그거 열소. 내 그 어제 어제부터 그 차르 먹지. 저 우리 한국에 손네 개애왔는데 아무개두 아이 먹지.{아이고! 이렇게 많이 놔. 조금 놓으라고 했는데 응. 반 컵이 아닌가. 이 사람 차는? 뜨거운 것을 넣어 었어라. 그 뜨거운 것은 어째 (안 넣었나). 쌍화차라는 거 그걸 넣소. 내가 그 어제 어제부터 그 차를 먹지. 저 한국에 있는 우리 손녀가 가져왔는데 아무도 안 먹지.}

10201 @ 손녀가 갖구 온 거야?{손녀가 가지고 온 거야?}

10201 # 손네 손녀. 만아들 두째손녀 한국에 지금 시집가잇재?: 남편으느 선우 선우. 남성 이름이 선우 선우.{손녀가 손녀. 만아들 둘째 손녀가 지금 한국에 시집가 있잖소? 남편은 선우, 선우. 남성 이름은 선우, 선우.}

10201 @ 손녀가 갖구온 거야? 저게?{손녀가 가지고 온 거야? 저게?}

10201 # 그래 소 손예가 보내엿지. 손예가 자기 부 부모 알마따에 잇는데 거기 자꾸 보내지. 기래 보내무 거기서 또 약이든지 이런 게다 하무 우리 아들두 내인데르 개애오지. 야 기래가지구 온 게오. 기란데 책 일거, 책 일거 보이 감기에두 좋구 어떻구 어떻구.{그래 손녀가 보냈지. 손녀가 자기 부모가 알마티에 잇는데 거기로 자꾸 보내지. 그래 보내면 거기서(=알마티에서) 또 약이든지 이런 것이다 하면 우리 아들도 또 나한테로 가져오지. 응 그렇게 해서 가지고 온 것이오. 그런데 책(=제품 설명서)을 읽어, 책을 읽어 보니 감기에도 좋고 어땡고, 어땡고.}

10201 @ 참, 그 아들은 알마아따에 잇는 큰아들은 만아들은::,{참, 그 아들은, 알마티에 잇는 큰아들은 만아들은,}

10201 # 야 만아들.{응 만아들.}

10201 @ 만아들은 머해?{만아들은 뭘 해?}

10201 # 바사르(базар) 장시르 하지. 따시켄뜨서 큰 사보드(завод) 지렉뜨르(директор)했다 구 하재이오? 옛이라 맨든. 기랬다가 그거 예브레(Еврей)랑 베게 다 그거 자 자아게서 다아 앓아뻗지. 야.{시장에서 장사를 하지. 타슈켄트에서 큰 공장의 공장장을 했다고 하잖소? 옛을 만드느. 그랬다가 그거 유태인이랑 우즈베크 인이 다 그걸 저 아이에게서 빼앗았지. 응.}

10201 @ 어?{어?}

10201 # 그 그 사름덜 차지라구 하지. 예브레(Еврей)사름이나 우즈베크사름이나 그사름덜 차지라구 하지. 기래다 야느 거기서 아이 하구 나왔지. 기래 나와서.{그 그 사름들 차지

라고 하지. 유태인이나 우즈베크 인이나 그 사람들 차지라고 하지. 그러다 이 아이는 거기서 일을 안 하고 나왔지. 그래 나와서.}

10201 @ 알마따서 장사해 지금?{알마티에서 장사해 지금?}

10201 # 야, 알마따. 개 알마따 작은 손녀가. 딸 삼형제. 맏딸은 모스크바(Москва) 가 대학으 필하구 모스크바서 출가가 거기서 일하구 아이 한내 있어.{응, 알마티에서. 그래 알마티의 작은 손녀가. 딸 삼형제 중에서. 맏딸은 모스크바에 가 대학을 마치고 모스크바에서 출가해서 거기서 일하고 아이가 하나 있어.}

10201 @ 거기두 그문 거기두 우리 저 고렷사람하고 결혼했어?{거기도 그러면 거기도 우리 저 고려사람하고 결혼했어?}

10201 # 야. 고렷사람 결혼해서 기래 출가르 가서 아들 한내 낳:구 모스크바서 일하구. 그담내 웨손재는 모스크바(Москва) 가서 서방간 게 타국사람게르 잣어. 아르메안가 노시앗 사람 자고배. 그런 자고배에 가서 아들이 형제, 쌍디이 아들 두울으 낳어.{응, 고려사람하고 결혼해서 그래 출가를 가서 아들 하나를 낳고 모스크바에서 일하고. 그다음에 내 외손자는 모스크바 가서 장가간 것이 타국 사람에게로 갔어. 아르메니아인과 러시아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인. 그런 혼혈인에게 장가를 가서 아들이 형제, 쌍둥이 아들 둘을 낳았어.}

10201 # 기래구. 그담에 맏아들에 고계 큰 딸은 모스크바에 잇구. **일 차에 마셔. 저 저거 따가, 따갑운 거 마셔! 그담에 이 둘째 딸은 한국으 시집갔지. 한국사람 만나 한국에 가 사는데 고계 둘째 손녀고. 기게 맏아들 둘째딸. 셋째딸은 알마따서 이 이것두 ***번역극으르 조선글으 이르우. 번역하는 그런 글으 이르우.{그리고. 그다음에 맏아들의 고 큰딸은 모스크바에 있고. 차를 마셔. 저 저거 뜨거운 거 마셔! 그다음에 이 둘째 딸은 한국으로 시집갔지. 한국사람 만나 한국에 가 사는데, 고계 둘째 손녀고. 그게 맏아들의 둘째 딸. 셋째 딸은 알마티서, 이 놈도 번역을 하기 위해 한국어를 공부하오. 번역하는 그런 공부를 하오.}

10201 @ 어디에서?{어디에서?}

10201 # 알마따에 있어. 알마따는 대사관두 잇구. 기래이꺼나 알 알마따 잇으이 얄 알마따 와 그 글으 붙었지. 열한 반 필하구. 기래 그 글으 붙으이까나 가 거기서 글으 이르이 그 새아가 아이오? 그래 우리 아들이 집은 썸 따쉬켄트에 있어 지금. 집우 막 두구 알마따 와 방천집에 있어. 방천집에 잇으메서르 그 아이르 공부르 시기지. 고 작은딸. 시집 아이가 출가 아이 간 게 고계 한내 잇지.{알마티에 있어. 알마티는 대사관도 있고. 그러니까 알마티에 잇으니 이 아이는 알마티에 와 그 공부하는 학과에 붙었지. 11학년을 마치고. 그래 그 학과에 붙으니까 그 아이 거기서 공부를 하니 그 여자아이가 아이오? 그래 우리 아들 집은 썸 타슈켄트에 있어, 지금. 집을 그냥 두고 알마티에 와 셋집에 있어. 셋집에 잇으면서 그 아이를 공부를 시키지. 고 작은 딸. 시집 안 가고 출가 안 간 것이 고계 하나가 잇지.}

10201 @ 그러문 고 작은 딸으 지금 학교 학교 다녀?{그러면 고 작은 딸은 지금 학교, 학교 다녀?}

10201 # 핵교 다녀. 곱소, 고거. 지금 삼학녀이오. 에떠(это) 대학에 삼학녀이오.{학교 다녀. 곱소, 고놈이. 지금 3학년이오. 음 대학의 3학년이오.}

10201 @ 알마따 무슨 대학에?{알마티 무슨 대학에?}

10201 # 무슨 대학인가 하문? 아,{무슨 대학인가 하면? 아,}

10201 @ 까자흐스탄 국립대학이 있고.{카자흐스탄 국립대학이 있고.}

10201 # 야, *까자그스[k'ajaxis], 까자그스탄 에띠(әтәт).{응, 카자흐스탄, 카자흐스탄 음.}

10201 @ 또 그 에국인이 세운 대학이 있는데.{또 그 외국인이 세운 대학이 있는데.}

10201 # 야. 조선글으 조선말으,{응. 한국어로 쓰인 글, 한국어를,}

10201 @ 조선말 배우는 학교 다녀?{한국어를 배우는 학교에 다녀?}

10201 # 야! 조선말 다녀 핵교. 그런 핵교서 이르우. 기래이꺼나 조선말으 우리 손녀랑 다 아지.{응! 조선말을 배우는 학교를 다녀. 그런 학교서 공부하오. 그러니까 한국어를 우리 손녀가 다 알지.}

10201 @ 그럼 원래 그 손녀는 집에서 조선말 썼었어?{그럼 원래 그 손녀는 집에서 한국어를 썼었어?}

10201 # 썼어.{썼어.}

10201 # 조선말 지금두 우리 맞아들가 맘메느리는 조선말으 쓰오.{한국어를, 지금도 우리 맞아들과 맘메느리는 한국어를 쓰오.}

10201 @ 가맞어바.{가만 있어 봐.}

10201 # 야~.{응.}

10201 @ 그애가 나중에 그문 내가 혹시 도배해 줄지 도배해 줄 수 있을지 몰라. 한국어를 한국어를 배우면 한국어 공부하는 데르, 조선글 이르는 데르 다니면 그 그 그 손네 이름 좀 써 줘바.{그 애가 나중에, 그러면 내가 혹시 도움을 줄지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몰라. 한국어를 한국어를 배우면 한국어 공부하는 데를, 한국어를 공부하는 데를 다니면 그 그 그 손녀 이름 좀 써 줘 봐.}

10201 # 성명 이름우?{성명 이름을?}

10201 @ 손녀 이름.{손녀 이름.}

10201 # 야야. 가야사 리, 리. 이름사 노시아 이름. 올랴(Олля).{응. 그 아이야 성은 리, 리. 이름이야 노시아 이름이지. 올랴.}

10201 @ 리올랴(Олля)?{리올랴?}

10201 # 야. 리올랴(Олля). 기래 리올랴(Олля)구. 그담에 우리 한국에 잇는 손녀는 리마린나.{응. 리올랴. 그래 리올랴고. 그다음에 우리 한국에 잇는 손녀는 리마린나.}

10201 @ 거기는 이제 거기는 한국에 잇는 그 사람은 잘 모르겠구 리올랴(Олля)는 지금 그러면은 한국 대사관 같은 데두 왔다갔다 해?{거기는 이제 거기는 한국에 잇는 그 사람은 잘 모르겠고 리올랴는 지금 그러면 한국대사관 같은 데도 왔다 갔다 해?}

10201 # 그건 내 잘 모르겠어. 야~. 아 대사관 땡기는 어쩐두.{그건 내가 잘 모르겠어. 응. 대사관을 다니는지 어찌하는지.}

10201 @ 우리말 잘하는가? 한국말?{우리말을 잘하는가? 한국말?}

10201 # 우리말. 우리 우리말으 노시아말으 이 말으 배워서 번역하재이오? 우리 번역하는 이런 핵교르 우리 손녀 한국 간 손녀 따시켄뜨서 일것어. 그래 일거서 우리 우리 손녀는 노시아말으 개앳다 조선말르 번역하지. 기래 조선사름 만나 갖지. 기래 만나 가구. 그런 데 그담에 야는 또 이런 글으 알따파 와 이르지.{우리말. 우리 우리말을 러시아 말을 이 말을 배워서 번역하잖소? 우리말 번역하는 이런 학교를 우리 손녀가 한국 간 손녀가 타슈켄트에서 공부했어. 그래 공부해서 우리 우리 손녀는 러시아 말을 한국어로 번역하지.}

그래 조선사람을 만나 시집갔지. 그렇게 만나 가지고. 그런데 그다음에 이 아이는 또 이런 글을 알마티에 와서 공부하지.}

10201 # 개 이르무 아 또 조선에 가, 조선으로 가겠는등 모르지. 그런 게. 고옵소. 내 셋째. 맏딸두 곱구 둘째 손녀두 셋째 손녀두 곱소. 올라(Олля)라구 야. 그렇소. 그런데 지금 아들 낳아두 다아 잊어빠리구 몰라. 가아 지금 몇 살인가. 가아두 어전 스무 살 넘었어. 가아두 스무.{그래 공부하면 또 한국에 가, 한국으로 가겠는지 모르지. 그런 놈인데 곱소. 내 셋째 손녀가. 맏딸(=맏손녀)도 곱고 둘째 손녀도 셋째 손녀도 곱소. 올라라고 응. 그렇소. 그런데 지금 아들 낳아도 다 잊어버리고 몰라. 그 아이가 지금 몇 살인가. 그 아이도 이젠 스무 살이 넘었어. 그 아이도 스무 살이.}

10201 @ 리올랴(Олля)?{리올랴?}

10201 # 야. 리올랴(Олля). 그거 마시우.{응. 리올랴. 그거 마시오.}

@ 어느 대학 다니는가 좀 알아봐요.{어느 대학에 다니는지 좀 알아 봐요.}

야~?{응?}

@ 어느 대학 다니는가 알아바!{어느 대학을 다니는지 알아 봐!}

무슨 대학 다니는가?{무슨 대학을 다니는가?}

@ 무슨 대학에 다니는가.{무슨 대학에 다니는지.}

야, 옹소. 내 알아보겠소. 내 저 새해 데문 내 맏아들이 맏아들이 내게 전하르 하오. 나르 노고이고드(Новый год) 야. 내 그 전하르 할 때 그땐 내가 꼭 물어보겠소. 올라 대학이 무슨 대학인가 야.{야, 옹소. 내가 알아보겠소. 내가 저 새해가 되면 내 맏아들이, 맏아들이 내게 전화를 하오. 나에게 새해가 되면 응. 내 그 전화를 할 때 그 땐 내가 꼭 물어보겠소. 올라 올라가 다니는 대학이 어느 대학인지 응.}

@ 그래 가지구 내가 나중에 언제 전화하면 무슨 대학인가 좀 가르쳐 줘.{그래 가지고 내가 나중에 언제 전화하면 무슨 대학인지 좀 가르쳐 줘.}

야 옹소. 그러오. 그러오. 야, 그러.{응 옹소. 그러오. 그러오. 응, 그러오.}

@ 한국에서 어어 나도 작년에도 재작년에 그 알마티에 갔다 왔어요.{한국에서 어 나도 작년에 재작년에 그 알마티에 갔다 왔어요.}

알마티 왔다갔다구? 알마티 와 어떤 대학에 왔다갔어?{알마티에 왔다 갔다고? 알마티에 어떤 대학을 왔다가 갔어?}

@ 알마티에 가서 그 알마티에 한국어교육원 여기처럼 (까레이스끼이 쨌뜨(Кореиский центр)르 있어).{알마티에 가서 그 알마티에 한국어교육원, 여기에도 있는 것처럼 (까레이스끼이 쨌뜨르 있어).}

야, 야. 그런 게 있어, 있어.{응, 응. 그런 것이 있어, 있어.}

@ 거기 가서 두 주 두 주 동안,{거기 가서 두 주 두 주 동안,}

어어 그랬어?{어 그랬어?}

@ 여기 저 그 한국어 공부하는 사람들 선 선생님들 그으 머야 그으 풀리진가? 스폴라(школа) 스폴라(школа)에서 한국어 가르치는 사람들,{여기 저 그 한국어 공부하는 사람들 선생님들 그 뭐야 그 풀리진가? 학교, 학교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사람들,}

야~.{응.}

@ 대학에 있는 프로페서(профессор) 그런 사람덜으 모아놓구 한국어 가르치는 거에 대해서. 가르쳤었어요.{대학에 있는 교수 그런 사람들을 모아 놓고 한국어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가

르켰어요.}

야아! 그랬구만. 기랜데 야 알따따서 지금 그 교회에서 야 그 교회에서 아 집사님우 하는 게 뉘긴가 하무 우리 메느리, 우리 맘메느리 오래비 안까지. 오래비 안까지 거언 거저 절당 이만 멩심하구 있어. 직금 교회에만 멩심. 교회에만 멩심하구 잇는 이 여자 이 여자 어저는 집사님이지. 집사님두 하구 더 올라갔는둥 모르겠어. 그렇소. 그러구.{야! 그랬구면. 그런데 응 알따티서 지금 그 교회에서 응 그 교회에서 아 집사님을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우리 떠느리 우리 맘며느리 오라비의 아내. 오라비 아내 그 사람은 그저 교회에만 관심을 쏟고 있어. 지금 교회에만 관심을 두고. 교회에만 관심을 두고 잇는 이 여자, 이 여자가 이제 는 집사님이지. 집사님도 하고 더 올라갔는지 모르겠어. 그렇소. 그리고.}

@ 그러문 이 올라(Олля)두 그 교회 다니구?{그러면 이 올라도 그 교회에 다니고?}

아아, 우리 올라(Олля)랑 싹 예수르 믿소 야~.{아, 우리 올라랑 싹 예수를 믿소 응.}

@ 잘 댜네.{잘 댜네.}

야~. 우리 올라(Олля)두 예수 믿구. 우리 아들이 반대지. 내처리. 우리 아들이 반대르 하다가서 내 예수르 믿으이 반대르 아이 하오. 교회르 댜긴다 댜긴다 모르오 야. 그러구 우리 아 올라(Олля) 고다음에는 내 딸이. 우리 딸은 또 어떤 교회르 댜기는가 마우재 교헬 댜게. 마 마우재 절다~아. 마우재절다~이 기게 마우재말르 하무 뿌라바슬바브네(православие) 뿌라 바슬바브네(православие). 위에라르(위하-라르. '-라르'는 '-도록', '-게'의 의미를 지닌 어미) 있어. 개 우리 하느님이 한내:지. 개 뿌라브슬라브(православие) 사름두 잇구. 우리느 뿌로지스판뜨(протестант)두 잇구 그렇지. 개 그런데. 아 우리.{응. 우리 올라도 예수를 믿고. 우리 아들이 반대지. 나처럼. 우리 아들이 반대를 하다가 내가 예수를 믿으니 반대를 안 하오. 교회를 다니는지 어찌는지 모르오 응. 그리고 우리 올라 고 다음에는 내 딸이. 우리 딸은 또 어떤 교회를 다니는가 하면 그리스정교를 다녀. 그리스정교를. 그리스정교 그게 러시아 말로 하면 'православие'. 위하도록(=받들어 모시도록) 한 것이 있어. 그래 우리 하느님이 하나지. 그래 그리스정교 신자도 있고. 우리 개신교도 있고 그렇지. 아 우리.}

@ 가댜어바 줌. 오셨는가 보네.{가만있어 봐 줌. 오셨는가 보네.}

국립국어원 지역어 조사 위원회

- ◆ 위원장 이기갑 (목포대학교)
- ◆ 위 원 강영봉 (제주대학교)
- ◆ 위 원 곽충구 (서강대학교)
- ◆ 위 원 김무식 (경성대학교)
- ◆ 위 원 김봉국 (부산교육대학교)
- ◆ 위 원 김정대 (경남대학교)
- ◆ 위 원 박경래 (세명대학교)
- ◆ 위 원 소강춘 (전주대학교)
- ◆ 위 원 최명옥 (전 서울대학교)
- ◆ 위 원 한영목 (충남대학교)